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1000-001566-01

---

##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아카이브 구축

조선왕조 궁중음식 고문헌 자료집 12  
조선왕조실록 기사자료집 (2)

---

2012. 9.



- 목 차 -

1. 세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세종 즉위년 ~ 세종 6년 6월 ..... 1



# 1. 세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세종실록 <1> 기사자료집 : 세종 즉위년 ~ 세종 6년 6월

출처	내용	원문
<p>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8월 14 일(신묘) 3번째기사 유구 국왕의 아들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백반 등을 바치다</p>	<p>유구(琉球) 국왕의 둘째 아들 하통련(賀通連)이 사람을 보내어 좌·우 의정에게 편지하고, 단목(丹木) 5백 근(斤), 백반(白礬) 5백 근, 금난(金爛) 1단(段), 단자(段子) 1단(段), 청자기(靑磁器) 열 가지, 심황(深黃) 50근, 천궁(川芎) 50근, 곽향(藿香) 50근, 청자화병(靑磁花瓶) 하나, 침향(沈香) 5근을 바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회답으로 구승 백저포(九升白紵布) 20필(匹), 흑마포(黑麻布) 30필, 백주포(白紬布) 20필, 칠승 면포(七升綿布) 40필, 6승 면포 1백 11필, 5승 면포 2백 필을 주고, 예조 판서로 하여금 답서를 하게 하니, 그 글에는, “사신이 이르러 보내 주신 글을 받아 보아 존체가 평안하시고 다복하심을 살펴 알게 되며, 보내신 예물은 삼가 이미 국왕께 아뢰어 바치었습니다. 험난한 바닷길을 건너와 국교를 돈목(敦睦)하게 하시니,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므로 돌아가는 사신 편에 우리 토산물을 부쳐 보내오며, 변변치 못함을 부끄러워합니다.”라고 하였다.(후략)</p>	<p>○琉球國王二男賀通連遣人致書于左、右議政，獻丹木五百斤、白礬五百斤、金爛一段、段子一段、靑磁器十事、深黃五十斤、川芎五十斤、藿香五十斤、靑磁花瓶一口、沈香五斤。回賜九升白紵布二十四、黑麻布三十四、白紬布二十四、七升綿布四十四、六升綿布百一匹、五升絺布二百匹。令禮曹判書答書曰：使至辱書，從審動履嘉裕。所獻禮物，謹已啓納。涉險修睦，敢不爲喜？仍將土宜，就付回使，不腆爲愧。(후략)</p>
<p>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8월 18</p>	<p>임금이 상왕전에 나아가 상왕께 헌수(獻壽)하고, 효령 대군 이보(李補)와 영돈녕(領敦寧) 유정현, 영의정 한상경, 우의정 이원과 중친·부마·6대언이 잔치에 모시어 참석하였다. 임금이 꿇어 상 앞에 나아가 수(壽)를 올리니, 상왕이 말</p>	<p>○乙未/上詣上王殿上壽，孝寧大君補、領敦寧柳廷顯、領議政韓尙敬、右議政李原、宗親·駙馬·六代言侍</p>

<p>일(을미) 1번째기사 상왕전에 나아가 헌수 하고 대신 종친들과 함께 잔치를 모시다</p>	<p>하기를, “내가 왕위에서 물러난 것은 복(福)을 남겨두기 위함이었더니, 이제 도리어 더욱 높아지는구나.” 하였다(후략)</p>	<p>宴。上跪進卓上壽，上王曰：“予之避位，欲貯福也，今反益尊矣。”(후략)</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9月 7日 (甲寅) 3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 관으로 거동하여 사신 을 청하여 상왕에게 나아가다</p>	<p>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으로 거동하여 사신을 청하여 함께 상왕의 궁 전으로 나아가니, 상왕은 사신을 맞아 광연루(廣延樓)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두 번째로 돌아갈 때, 상왕은 《수명명(受明命)》 족자(簇子)를 펴서 걸 라고 명하고, 원민생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말하게하기를, “이 족자는 과인이 금상 황제의 명을 받게 되어 군신(群臣)이 시를 지어 성덕 을 찬송한 것이요.” 하고, 연회가 장차 과하려고 할 때, 상왕은 사신 앞으로 가서 말하기를, “과인이 《수명명(受明命)》의 곡(曲)을 말한 것은 그 뜻을 둠이 있오.”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권섭왕(權攝王)으로 하여금 또 명명을 받도록 하자는 뜻을 나는 알 고 있습니다.(후략)</p>	<p>○上率百官，幸太平館，請使臣同詣上 王殿。上王迎使臣宴于廣延樓，酒再 行，上王命張《受明命》簇子，令元閔 生言於使臣曰：“此簇子，寡人受命於 今上皇帝，群臣歌詠，以頌聖德者 也。”宴將罷，上王就使臣前曰：“寡 人告以《受明命之曲》者，意有在 也。”使臣曰：“我知殿下欲使權王又 受明命之意。(후략)</p>
<p>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9월 8일 (을묘) 5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 표에 배례하다. 표문, 방물표, 황태자에게 사 례하는 전</p>	<p>(전략)“사신이 와서 특별히 성은을 입었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 나, 다만 감사하는 정성을 표하옵나이다. 삼가 준비한 것은 안장[鞍子] 2개, 황세저포(黃細苧布) 3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90 필, 황화석(黃花席) 40장, 만화석(滿花席) 2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20장, 잡 채화석(雜彩花席) 20장, 인삼 2백 근, 잣[松子] 2백 근, 잡색말[雜色馬] 26 필, 이상 물건들을 만든 것이 정밀치 못하고 가짓수도 매우 적사오나, 이것이 충심에서 나온 정성임을 살피시고 위를 섬기는 의식을 용납하시옵기 바라나 이다.”(후략)</p>	<p>(전략)進方物表曰： 星使聿來，特蒙睿渥，土宜雖薄，聊表 謝忱。謹備鞍子二面、黃細苧布三十 匹、白細苧布三十四匹、黑細麻布九十 匹、黃花席四十張、滿花席二十張、 滿花方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 人蔘二百斤、松子二百斤、雜色馬二 十六匹。右件物等，製造匪精，名般 甚寡，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 (후략)</p>
<p>세종 1권, 즉위년</p>	<p>예물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p>	<p>所獻禮物，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p>



<p>(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9월 8일 (을묘) 5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 표에 배례하다. 표문, 방물표,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진</p>	<p>50근, 잣 50근, 잡색말 4필 입니다.” 고 하였다.(후략)</p>	<p>二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斤、松子五十斤、雜色馬四匹。(후략)</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9月 11日(戊午) 6번째기사 충청도 제외한 다른 지방은 제전의 진상을 한 달에 한 번만 올리게 하다</p>	<p>원도(遠道)에서 제전(諸殿)에 진상하는 것에 대하여 충청도는 제외하고 그밖에 다른 지방에서는 한 달에 단지 한 번씩만 진상하도록 하되, 그중 상왕전에는 우선하여 가장 정결한 것으로 진상케 하고, 전사시(典祀寺)에 바치는 천신(薦新)32) 은 일체 전례대로 하라 하니, 지신사(知申事) 하연(河演) 등이 계하기를, “이제 위에 바치는 물건은 모두 원도(遠道)에서 생산되는 것이오매, 상왕전에 진상하는 것을 감함은 미안하옵니다.”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상왕께서 흥년이기 때문에 앞서 이와 같은 분부가 계셨다.” 고 하였다.</p>	<p>命遠道諸殿進上, 除忠清道外, 只許一朔一度進上。 上王殿爲先精潔進上, 典祀寺所納薦新, 一依前例。 知申事河演等啓曰: “今供上之物, 皆遠道所產, 減上王殿進上未便。” 上曰: “上王以年歉, 先有是命。”</p>
<p>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9월 12일(기미) 1번째기사 명나라 사신과 두목에게 모시와 삼베 등을 주다</p>	<p>지신사 하연을 보내어 명나라 사신에게 문안하고 세모시[細茅]와 삼베[麻布] 아울러 40필(匹)과 인삼 30근을 주고, 두목(頭目)33) 2인에게는 각각 모시 삼베 6필을 주고, 그밖의 사람에게는 황엄(黃儼)의 예에 따라 물건을 주었다. 상왕도 또한 가는 삼베[細麻布] 20필과 인삼 15근을 주고, 두목 두 사람에게 각각 삼베[麻布] 4필씩을 주었다. 두 임금께서 따로이 삼베 2필씩을 두목 황귀(黃貴)에게 주니, 황귀는 황엄의 조카이다.</p>	<p>己未/遣知申事河演, 問安於使臣, 仍贈細苧麻布并四十四匹、人蔘三十斤。 頭目二各贈苧麻布六匹。 其餘贈物, 依黃儼例。 上王亦贈細麻布二十四、人蔘十五斤, 頭目二各麻布四匹 兩上別贈麻布二匹於頭目黃貴。 貴, 儼之姪也。</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9月 15日 (壬戌) 6번째기사  홍년이므로 각사의 상직하는 사람에게 밥 주는 것 등을 폐지하다</p>	<p>호조에서,  “홍년으로 말미암아 모든 용도가 부족하니 대궐 안에서 밥을 베푸[宣飯]는 것은 제외하고, 그밖에 각사(各司)의 상직(上直)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과 때때로 술과 점심을 주는 것 및 지방에 새로 설치한 교도(敎導)에게 주는 것을 마땅히 모두 폐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p>	<p>戶曹以年飢用不足, 除闕內宣飯外, 各司上直宣飯給一時瓶酒點心及外方新設敎導廩給, 竝宜停罷, 從之。</p>
<p>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9월 18일(을축) 3번째기사  일기 만호 도영이 담목 백반 등을 바치고 미곡을 요구하다</p>	<p>일기 만호(一岐萬戶) 도영(道永)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丹木) 1백 근, 백반(白籼) 30근, 호초(胡椒) 20근, 가자(訶子) 22근, 양장(良薑) 30근, 정향(丁香) 15근을 바치고 인하여 미곡(米穀)을 요구하였다.</p>	<p>一歧萬戶道永遣人獻丹木一百斤、白籼三十斤、胡椒二十斤、訶子二十二斤、良薑三十斤、丁香十五斤, 仍求米穀。</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9月 20日 (丁卯) 3번째기사  원도에서 각전(各殿)에 진상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 바치게 하다</p>	<p>예조에서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원도(遠道)에서 각전(各殿)에 진상하는 것은, 그 경내(境內)에서 생산되는 물건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바치도록 하되, 충청도는 농사의 실패가 더욱 심하니, 역시 원도의 예에 따르더라도 무릇 근로하는 백성들에게 폐가 되는 물건은 일체 모두 금하라.”</p>	<p>傳旨于禮曹曰: “遠道各殿進上, 以其境內所產之物, 每一月一度式供進。忠淸道失農尤甚, 亦依遠道例, 凡勞民有弊之物, 一皆禁之。”</p>
<p>세종 1권, 즉위년</p>	<p>호조에서 계하기를,</p>	<p>戶曹啓: “忠淸道敬差官報: ‘今年旱荒,</p>

<p>(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9월 26 일(계유) 8번째기사 호조에서 흉년이므로 꾸어간 의창의 군자미를 곡식으로 수납하기를 청하다</p>	<p>“충청도의 경차관(敬差官)이 보고하되, ‘금년은 한해(旱害)로 농사가 황폐하니, 모든 백성들이 꾸어간 의창(義倉)의 군자미(軍資米)를 모두 곡식으로 수납하여, 명년의 종자(種子)로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하오니, 청컨대 보고한 대로 따라 시행하게 하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벼도 역시 잘 여물지 못하였으니, 충청도의 예에 따르도록 하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좃고, 또 경상도에 명하여 금년의 상납 미곡은 각각 그 본읍(本邑)에서 수납하도록 하였다.</p>	<p>凡民所貸義倉軍資之米，皆以穀收納，以備明年種子。’請依所報施行。慶尙、全羅道禾穀亦不稔，依忠清道例。”從之。又命慶尙道今年上納米穀，各於本邑收納。</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10月 4日(庚辰)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금주를 청하니 좃다</p>	<p>사헌부에서 흉년이 들었다 하여 술을 금하기를 청하여, 이를 좃았다.</p>	<p>司憲府以歲歉請禁酒，從之。</p>
<p>13. 세종 1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0월 17일(계사) 4번째기사 개경사 중에게 미두를 하사하다</p>	<p>賜開慶寺僧人米豆五十石。</p>	<p>개경사(開慶寺) 중에게 미두 50석을 하사하였다.</p>
<p>世宗 1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10月 29日(乙巳) 1번째기사 일본 비전주 중·일향주 태수·관서도 축전주 석성 관부가 칼·향</p>	<p>일본국 비전주(肥前州)의 중[佛弟子] 길견창청(吉見昌淸)이 사람을 보내어 칼 6자루를 바치고 베(布)와 호피 등의 물건을 요구하므로, 모시와 삼베 각각 5필과 호피 5장을 하사하였다. 일향주(日向州) 태수 원씨(源氏) 도진원구(島津元久)가 사람을 보내어 향 10근, 흑목(黑木) 1백 근, 천궁(川芎) 10근, 납[鉛] 50근, 계심(桂心)과 단목(丹木) 각 1백 근, 심호병(深壺瓶) 한 쌍, 정자향(丁子香) 4개를 바치니, 명주 5필, 무명 1백 75필을 하사하였다. 관서도(關西道) 축전주(筑前州) 석성 관부(石城官府)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향 30</p>	<p>乙巳/日本國肥前州沙彌吉見昌淸遣人獻劍六把，求布及虎皮等物，賜苧麻布各五匹、虎皮五領。日向州太守源氏島津元久遣人獻香十斤、黑木百斤、川芎十斤、鉛五十斤、桂心、丹木各百斤、漆壺瓶一對、丁子香四箇，賜紬布五匹、縣布百七十五匹。關西道筑</p>

등을 바치다	근, 등(藤) 5백 본, 호초·정향(丁香)·빈랑(檳榔) 각 2근, 자단(紫檀) 1백 본을 바치므로, 무명 1백 50필을 하사하였다.	前州石城官府平滿景遣人獻香三十斤、藤五百本、胡椒、丁香、檳榔各二斤、紫檀百本，賜緜布百五十匹。
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1월 4일(경술) 8번째기사 성발도에게 미두 30석과 종이 백 권을 부의로 주다	성발도(成發道)에게 미두(米豆) 30석(石)과 종이 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주었으니, 보통으로 하는 은전이였다.	賻成發道米豆三十石、紙百卷， 常典也。
16. 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1월 14일(경신) 7번째기사 상왕전에 헌수하는 의식 절차	<p>(전략)사옹 제조(司饗提調)가 다상(茶床)을 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올리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주정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다방 제조가 술잔을 받들면 풍악이 시작된다. 술잔을 열고 술을 부어 올리면, 전하가 술잔을 받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술을 올리고 이를 마치면,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펴고, 통찬이 많은 관원에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펴라고 알리면, &lt;많은 관원이&gt;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그전대로 몸을 편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 위의 옥위에 나아가서 &lt;전하에게&gt; 북쪽을 향하여 서서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으며, 통찬이 꿇어앉을 것을 알리면, 많은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p> <p>전하께서 치사(致辭)하기를, ‘사왕(嗣王) 신(臣) 아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신 아무는 많은 신하와 더불어 삼가 천만세(千萬歲)의 수(壽)를 올립니다.’ 한다. 판통례가 &lt;전하에게&gt;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p>	(전략)司饗提調舉茶床進上王座前，樂作，進訖，樂止。判通禮導殿下詣酒亭北向立，茶房提調捧爵，樂作，開爵注酒以進，殿下捧爵詣上王座前北向跪進。通贊贊跪，群官皆跪，殿下進酒訖，俯伏、興、平身。通贊贊俯伏、興、平身，群官俯伏、興、平身。判通禮導殿下詣月臺上褥位北向立，啓請跪，殿下跪，通贊贊跪，群官皆跪。殿下致辭曰：“嗣王臣某稽首言。臣某與群臣謹上千萬歲壽。”判通禮啓請俯伏興四拜，殿下俯伏、興、四拜。典儀曰：“四拜。”通贊贊四拜，在位官皆四拜。俟上王飲酒訖，判通禮導殿下詣上王座前跪，受爵以授茶房提調，樂止。判通禮導殿下詣月臺上褥

	<p>한다. 전의가 ‘사배하라.’ 말하고,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많은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상왕이 술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 다방 제조에게 주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 위의 옥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전의가 ‘사배하라.’고 말하고, 통찬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자리에 있던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후략)</p>	<p>位北向立，啓請四拜，殿下四拜。典儀曰：“四拜。”通贊贊四拜，在位官皆四拜訖。(후략)</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1월 16 일(임술) 2번째기사 상왕이 문안 온 유정현 등에게 표피 등을 내려 주고 연회를 베풀다</p>	<p>(전략)드디어 술자리를 차리니,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 이하의 훈친(勳親)과 재상들이 모두 연회에 배석(陪席)하였다. 술이 취하매, 여러 사람이 한 귀씩 지어 한 편의 시를 이루었다. 상왕이 원숙(元肅)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고는 말하기를, “오늘의 헌수(獻壽)는 내가 연사(年事)가 흥년인 이유로써 이를 중지시켰는데, 다시 생각하여보니, 주상이 백관을 거느리고 와서 노인(21)을 위로하니, 내가 예로써 대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간략하게 궁주(宮廚)에 저장한 것으로 간소한 주연(酒宴)을 베풀었으니, 경 등은 편히 앉아서 술을 마셔라. 다만 일기가 차고 길이 멀어 밤에 가는 것이 수고로울까 염려된다.” 고 하니, 많은 신하들이 모두 배사(拜謝)하였다. 또 말하기를, “오늘 주상이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나에게 절하니, 내가 더욱 높아졌다.” 고 하면서, 옥배(玉杯)를 유정현에게 내려 주어 술을 마시게 하니, 정현이 굳이 사양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경과 더불어 한 술잔에 같이 마시는 것을 경이 내 뜻을 아느냐.” 고 하니, 정현이 아뢰기를, “신이 진실로 한 몸과 한 마음의 뜻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임금과 신하가 어찌 감히 한 술잔에 같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고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p>	<p>遂置酒。孝寧大君補以下勳親、宰執咸侍燕，酒酣聯句。上王呼元肅就前曰：“今日獻壽，吾以年歎止之，更思主上率百官來慰老人，吾不可不以禮待之。略以宮廚所儲設小酌，卿等安坐飲酒，但恐天寒凍路，夜行為勞。”群臣皆拜謝。又曰：“今日主上率群臣拜我，我益尊矣。”以玉杯賜廷顯飲，廷顯固辭，上王曰：“予與卿同飲一盃，卿知予意乎？”廷顯曰：“臣固知一體同心之義也。然君臣何敢同一盃乎？”上王曰：“我欲同飲，卿勿辭也。”又以玉盃賜朴崟、李原飲。谷山君延嗣宗避席啓曰：“宜選任守令，申嚴罪及舉主之令。”上王曰：“然。”上王命止樂，誦聶夷中二月糶新穀詩，且曰：“主上足爲守文之主，卿等宜盡心輔導。”群臣皆頓首。上王憑上肩起舞，</p>

	<p>“내가 같이 마시고자 하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고 하였다. 또 옥배로써 박은과 이원에게 내려 주어 술을 마시게 하니, 곡산군(谷山君) 연사종(延嗣宗)이 자리를 피하여 아뢰기를, “마땅히 수령(守令)을 선임(選任)하고 거주(舉主)에게 죄를 미치게 하는 영(令)을 엄하게 할 것입니다.” 고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그렇다.” 고 하였다. 상왕이 풍악을 그치게 하고 섭이중(聶夷中)의 이월조신곡시(二月耀新穀詩)122) 를 외우게 하였다. 또 말하기를, “주상은 선대(先代)의 성법(成法)을 계승할 만한 임금이 되니, 경 등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보좌하라.” 고 하니, 많은 신하가 모두 머리를 조아렸다. 상왕이 임금의 어깨에 의지하여 일어나 춤을 추고, 밤이 2경(更)에 이르기까지 매우 즐기고 연회를 파(罷)하였다.</p>	<p>夜至二鼓，極歡而罷。</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1월 21 일(정묘) 8번째기사 시학(視學)하는 날 문선왕에게 술잔 드리는 의식 절차</p>	<p>예조에서 시학하는 날에 문선왕(文宣王)에게 술잔을 드리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다음과 같다. “진설(陳設)은 시학 하루 전날에 유사(攸司)가 묘전(廟殿)과 학당(學堂)의 안팎을 청소하고, 호위사(扈衛司)에서 대차(大次)를 묘전 동문(東門)에 설치하여 남쪽을 향하게 하되, 장소의 적당한 곳을 따른다. 그날에 통례문이 문무 많은 관원의 자리를 묘정(廟庭)에 설치하여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중심이 머리가 되고, 자리는 다르며 줄은 곁으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들어온다. 제기(祭器)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여, 왼쪽 한 제기[籩]에는 녹포(鹿脯)를 담고, 오른쪽 한 제기[豆]에는 녹혜(鹿醢)를 담고, 술잔 하나는 변두(籩豆) 앞에 둔다. 송(宋)의</p>	<p>禮曹啓視學酌獻文宣王儀曰： 陳設，視學前一日，攸司灑掃廟殿及學堂之內外，扈衛司設大次於廟殿東門南向，隨地之宜。其日，通禮門設文武群官位於廟庭，分東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宋《釋典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犧尊一實以清酒加勻羶，在殿上東南隅。設香</p>

《석전의(釋典儀)》에, ‘무릇 앞에 있다고 한 것은 모두 남쪽을 이룸이다.’라고 한다. 회준(犧尊) 하나는 청주(淸酒)를 넣고 술잔 보[勺]를 덮고 전상(殿上) 동남쪽의 모퉁이에 두고, 향로와 향합과 촛불을 신위(神位) 앞에 설치하고, 또 배향(配享)과 종향(從享) 신위의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각 왼쪽 한 제기[籩]에는 녹포를 담고, 오른쪽 한 제기[豆]에는 녹혜를 담고, 술잔 하나는 변두 앞에 있다. 공동으로 상준(象尊) 네 개를 설치하였으니, 하나는 전상의 앞 기둥 동쪽에 있고, 하나는 앞 기둥 서쪽에 있고, 그 두 개는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져 있는데 모두 술잔 보[勺]를 덮었다. (중략)

전하가 연(輦)을 타고, 문무관이 시종(侍從)하는 것은 모두 보통의 의식과 같다. 임금의 행차가 장차 이르게 되면, 관관(館官)과 학관(學官)이 학생을 거느리고 길 왼쪽에서 받들어 영접한다. 행차가 대차(大次)에 이르면, 연에서 내려 장막[幄]에 들어가서 작헌(酌獻)한다. 통례문은 문무 시종관(文武侍從官)을 나누어 인도하는데, 관관과 학관은 공복(公服)을 입고, 학생은 청금복(靑衿服)을 입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대차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헌례(酌獻禮)를 행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면류관을 쓰고 곤룡포를 입고 자리로 향하여 나온다. 판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서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통찬과 사인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무릇 자리에 있던 사람은 모두 사배한다. 근시(近侍) 1인은 향합(香合)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1인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리고, 근시가 술을 술잔에 따라서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고 술잔을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고개를 숙이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爐、香合并燭於神位前，又設配享及從享位祭器，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共設象尊四，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 (중략) 殿下乘輦，文武侍從並如常儀。駕將至，館官、學官率學生，奉迎於路左，駕至大次，降輦入幄。

酌獻：通禮門分引文武侍從官、館官、學官，公服，學生，靑衿服，入就位，判通禮進大次前跪，啓請行酌獻禮，殿下服冠袍出次。判通禮前導，入自東門升自東階，詣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北向立。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通贊、舍人贊四拜，凡在位者皆四拜。近侍一人奉香榼跪進，近侍一人捧香爐跪進，判通禮啓請跪、三上香，近侍奠香爐于神位前。近侍酌酒跪進，判通禮啓請俛伏、興、四拜，通贊、舍人贊四拜，凡在位者皆四拜。判通禮前導，降自東階還大次。館官、學官分詣配享位及從享位，酌獻如儀。兩廡分獻訖，判通禮跪啓禮畢，殿下更衣出大

	<p>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고개를 숙이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사배한다. 통찬(通贊)과 사인이 사배할 것을 알리면, 무릇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사배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대차(大次)로 돌아가고, 관관과 학관(學官)이 배향(配享)과 종향(從享)의 신위에 나누어 나아가서 작헌하기를 의식대로 하고,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 작헌한다. 이를 마치고 판통례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면, 전하가 옷을 바꾸어 입고 대차에서 나온다.(후략)</p>	<p>次.(후략)</p>
<p>世宗 2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永樂) 16年) 11月 29日(乙亥) 7번째기사 중국 사신 위로하는 잔치 외의 연향에는 일과상을 쓰게 하다</p>	<p>선지하기를, “지금부터는 중국 조정의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 외에, 본조(本朝)의 연향(宴享)에는 대탁(大卓)은 쓰지 말고, 일과상(一果床)만 쓸 것이라.”</p>	<p>宣旨: “今後朝廷使臣慰宴外, 本朝宴享, 除大卓, 用一果床。”</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永樂) 16년) 11월 29일(을해) 9번째기사 일본 서해로 미작 태수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서해로(西海路) 미작 태수(美作太守) 정존(淨存)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도서(圖書)를 주기를 청하므로, 예조에 명하여 도서를 만들어 주게 하고, 또 주포(紬布) 10필과 면포(綿布) 백 33필을 주었다. 구주총관(九州總管) 우무위 장군(右武衛將軍) 관하(管下) 농주 태수(濃州太守) 판창평중수(板倉平宗壽)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저포(苧布)와 마포(麻布)를 청하므로, 주포 7필과 면포 3백 60필과 저(苧)·마포(麻布) 각 10필을 주었다. 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보내어 즉위를 하례(賀禮)하고 토산물을 바치므로, 주포 10필과 면포 백 필을 주었다. 관서로(關西路)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우무위(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므로, 저마포 15필, 마포 20필, 주포 10필, 면포 백 50필을 주었다.</p>	<p>日本國西海路美作太守淨存遣人獻土物, 仍請賜圖書, 命禮曹造圖書賜之, 又賜紬布十四、綿布百三十三匹。九州總管右武衛將軍管下濃州太守板倉平宗壽遣人獻土物, 請苧麻布, 賜紬布七匹、綿布三百六十四、苧麻布各十四。對馬州左衛門大郎遣人賀卽位, 獻土物, 賜紬布十四、綿布百匹。關西路九州都元帥右武衛源道鎭遣人獻土物, 賜苧麻布十五匹、麻布二十四、紬布十四、綿布百五十四。</p>



<p>世宗 2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12月 9日(甲申) 3번째기사  상왕이 하연을 불러 그의 마음을 알았음을 말하고 음식을 보내 주다</p>	<p>상왕이 하연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주상으로 인하여 네가 중궁(中宮)에게 혐의스럽다는 말을 듣고, 그제야 너의 원정(原情)을 알겠다.”  하면서 병조로 하여금 음식을 보내주게 하였다.</p>	<p>上王召河演曰：“予因主上，聞爾嫌於中宮之言，乃知爾原情也。”令兵曹餉之。</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2월 15일(경인) 2번째기사  상왕이 임금과 함께 노상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푼다</p>	<p>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노상왕전(老上王殿)에 나아가 잔치를 베풀어 위로할새, 술이 취하매, 두 분 상왕이 서로 붙잡고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상왕이 이 명덕을 불러 술을 올리게 하고 아뢰기를,  “이 사람은 곧 나의 지신사(知申事)입니다. 그 아버지 이엽(李曄)이 안찰(按察)이 되어 전라도에 가는데, 태조께서 나를 명하여 전송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됨이 순진하고 후(厚)하여, 경사(慶事)를 쌓은 까닭으로 자손의 흥성함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노상왕이 말하기를,  “순평군(順平君)의 처제(妻弟)가 공안부(恭安府)의 행수(行首)가 되고자 한다.”  하거늘, 상왕이 원숙과 이명덕에 이르기를,  “내가 취하였으니, 혹시 잊을까 염려된다. 너희들이 잊지 말고 잘 거행하라.”  하였다. 밤이 2경(更)이 되매, 하직하고 나오다가 문 안에서 다시 술잔을 서로 주고 받았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꿇어앉아 술을 올리니, 노상왕이 서서 받았다. (후략)</p>	<p>上王與上，詣老上王殿，設宴以慰，酒酣，兩上王相扶起舞。上王召李明德進酒曰：“此乃予之知申事。其父曄爲按察赴全羅，太祖命予餞之。爲人純厚積慶，故子孫之盛，乃至於此。”老上王曰：“順平君之妻弟，欲爲恭安府行首。”上王謂元肅、李明德曰：“予醉矣，恐或忘之，爾等毋忘奉行。”夜下二鼓辭出，於門內更酬酢，上王與上跪進酒，老上王立而受之。(후략)</p>
<p>世宗 2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12月 17</p>	<p>(전략)통례문(通禮門)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신도(神道)의 왼쪽과 오른쪽에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하고,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陵司)가 능실을 소제</p>	<p>(전략)通禮門設宗室及文武群官位於神道左右，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p>

日(壬辰) 10번째기사  
능에 참배하는 의식  
절차

하고,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가 각기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드리우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과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를 설치하여 잔(饌)을 담고, 술그릇을 지게문 밖 왼쪽에 설치한다.

그날 날이 채 밝기 전 1각(刻)에 임금의 어가(御駕)가 궁(宮)에서 나오면, 산선(繖扇)과 의장(儀仗) 및 호위(護衛)가 인도하여, 호종(扈從)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푸른색의 산선(繖扇)을 사용한다.】 전하가 대차에 이르는데, 만약 산릉(山陵)이 멀면, 하루 앞서 행궁(行宮)에 이르러 재계하고 유숙한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가 천담복(淺淡服)을 고쳐 입고, 통례문은 종실(宗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외판(外辦)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며, 산선과 장위(仗衛)는 대차에 머물러 둔다. 전하가 <판위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서고,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서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통찬이 사배할 것을 창(唱)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사배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술병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면, 술병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근시(近侍) 1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면, <전하에게>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1인은 향합(香盒)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1인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을 세 번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향상에 올리고,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고 술잔을 올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을 올리고 술잔을 올림은, 모두 동쪽에 서서 서쪽을 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술잔을 드림은, 모두 서쪽에 서서 동쪽을 향한다.

其日未行事前, 陵司掃除陵室。 典祀官、陵司各率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 具設尊於戶外之左。 其日未明一刻, 車駕出宮, 繖扇、仗衛導從如常儀。 【用青繖扇】 殿下至大次, 若山陵遙隔, 則前一日, 至行宮齋宿。 書雲觀報時, 殿下變服淺淡服。 通禮門分引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 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判通禮郎外辦, 導殿下, 繖扇、仗衛停於大次。 殿下至版位西向立, 判通禮前, 啓請四拜, 殿下四拜, 通贊唱四拜, 在位者皆四拜。 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近侍一人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入詣神位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近侍奉爵跪進, 判通禮啓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神位前。 進香進爵, 皆在東西向; 奠爐奠爵, 皆在西東向。 若王后附則又獻。 判通禮啓請俯伏、興、小退, 北向跪。 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 讀祝文訖, 判通禮啓請俯伏、興、再拜,

	<p>만약 왕후가 부장(附葬)되었으면, 또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p> <p>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그전 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술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고, 술병을 잡은 사람이 술을 따르고, 집사자 1인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고, 꿇어앉으라고 창하고, 집사자(執事者)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준다. 봉례랑이 ‘잔을 잡으라, 잔을 올리라.’고 창하면,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후략)</p>	<p>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爵受酒。奉禮郎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奉禮郎贊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후략)</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2월 19일(갑오) 4번째기사 예조에서 포의 첫수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의례(儀禮)》의 《향음주례(鄉飲酒禮)》를 상고하건대, ‘천(薦)하는 포(脯)는 변(籩)150) 에 오직(五臠)151) 을 쓰며, 반직(半臠)을 제(祭)로 하여 그 위에 가로 놓는다.’ 하고, 직의 길이는 1척 2촌인데, 주(註)에 ‘직은 정(脰)과 같다.’ 하고, 너비와 두께[厚]의 제도는 말하지 않았습시다. 지금부터는 제사에 쓰는 포의 길이는 이 제도에 의거하고, 그 너비는 2촌(寸)으로 하고, 두께는 3푼[分]으로 하되, 자[尺]는 예기(禮器)를 만드는 자를 쓸 것입니다.” 하니,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p>	<p>禮曹啓：“謹稽《儀禮》《鄉飲酒禮》：‘薦脯，用籩五臠，祭半臠橫于上，臠長尺二寸。’注云：‘臠，猶脰也。’不言廣厚之制。自今供祭脯長，乞依此制，其廣則二寸，厚以三分，尺用造禮器尺。”從之。</p>
<p>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2월 20일(을미) 5번째기사 헌수(獻壽)하는 의식 절차</p>	<p>헌수(獻壽)하는 의식(儀式)은 다음과 같다.  “조하(朝賀)를 마치면, 다방(茶房)이 주정(酒亭)을 전상(殿上)의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고, 악관(樂官)이 풍악을 월대(月臺) 위 서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전의(典儀)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계하의 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면, 중금</p>	<p>上壽儀曰：  朝賀訖，茶房設酒亭於殿上近南北向，樂官陳樂於月臺上近西北向。典儀率通贊，先入就階下位，奉禮郎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殿庭拜位立定。中禁傳嚴，上王出，樂作，陞座，樂止，</p>

(中禁)이 경계[嚴]를 알린다. 상왕이 나오면 풍악이 시작되고, 자리에 올라가면 풍악이 그친다. 소차에 발[簾]이 걸히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월대 위의 옥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시작되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의가 ‘배하라.’고 말하면, 통찬이 이를 받아 전하여 <여러 관원에게>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고 차례로 창하면, 자리에 있는 관원들이 모두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사옹 제조(司饗提調)가 다담상[茶床]을 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올리면 풍악이 시작되고, 올리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주정(酒亭)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면, 풍악이 시작된다. 다방 제조(茶房提調)가 술잔을 들고 술잔을 열어 술을 따라 올리면, 전하가 술잔을 받들어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창하면, 모든 관원이 다 꿇어앉는다. 전하가 술을 올리고 나서 엎드렸다가 일어나 허리를 편다. 통찬이 <여러 관원에게> ‘부복(俯伏), 흥, 평신’이라 창하면, 모든 관원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월대(月臺) 위의 옥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면, 풍악이 그친다. <전하에게>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는다. 통찬이 꿇어앉으라고 창하면, 모든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치사(致辭)하기를, ‘사왕(嗣王) 신(臣) 아무는 머리를 조아리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조(正朝)에는 원정수조(元正首祚)라 하고, 동지(冬至)에는 천정장지(天正長至)라 하고, 탄일(誕日)에는 천추영절(千秋令節)이라 한다. 신이 모든 신하와 더불어 큰 경사(慶事)를 못내 겨워, 삼가 천만세(千萬歲)의 수를 받잡나이다.’고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되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다시 엎드리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시라고 아뢰어 청

小次簾捲。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月臺上褥位北向立，判通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樂作，四拜、興、平身。典儀曰拜，通贊承傳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官鞠躬、四拜、興、平身，樂止。司饗提調舉茶床進上王座前，樂作，進訖，樂止。判通禮導殿下，詣酒亭北向立，樂作，茶房提調舉爵、開爵、注酒以進，殿下奉爵，詣上王座前北向跪進。通贊贊跪，群官皆跪，殿下進酒訖，俯伏、興、平身。通贊贊俯伏、興、平身，群官俯伏、興、平身。判通禮導殿下，詣月臺上褥位北向立，樂止。啓請跪，殿下跪，通贊贊跪，群官皆跪。殿下致辭曰：“嗣王臣某稽首言。元正首祚，【冬至云天正長至，誕日云千秋令節。】臣與群臣，不勝大慶，謹上千萬歲壽。”訖，樂作，判通禮啓請俯伏、興、平身，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典儀曰拜，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官鞠躬、四拜、興、平身。俟上王飲酒訖，判通禮導殿下，詣上王座前跪，受爵以授茶房提調，樂止。

	하면, 전하가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전의(典儀)가 ‘배하라.’라고 말하면, 통찬이 <자리에 있는 관원에게>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자리에 있는 모든 관원이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상왕이 술을 다 마시기를 기다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상왕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술잔을 받고 다방 제조(茶房提調)에게 잔을 주면, 풍악이 그친다. (후략)	
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2월 22 일(정유) 2번째기사 상왕이 건원릉에 참배 하다	상왕이 건원릉(健元陵)153)에 참배할새,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각 1인이 어가(御駕)에 따라가는데, 임금이 환자 김용기(金龍奇)를 보내어 술과 과일을 행차 도중(道中)에 바쳤다.	上王謁健元陵，議政府、六曹堂上各一人隨駕。上遣宦者金龍奇，獻酒果于道次。
世宗 2卷, 卽位年 (1418 戊戌 / 명 영락 (永樂) 16年) 12月 22 日(丁酉) 5번째기사 한확이 먼저 통사를 보내어 사신이 나온 연유를 아뢰다	한확(韓確)이 먼저 통사(通事) 임밀(林密)을 보내어 사신이 나온 사연(辭緣)을 아뢰니, 상왕이 쌀과 콩 40석을 내려 주고, 임금이 안장 갖춘 말을 내려 주었다.	韓確先遣通事林密，啓使臣出來辭因，上王賜米豆四十石，上賜鞍馬。
세종 2권, 즉위년 (1418 무술 / 명 영락 (永樂) 16년) 12월 27 일(임인) 4번째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상 왕에게 헌수하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상왕에게 헌수(獻壽)하니, 임금이 종친과 더불어 연회에 배석하여 매우 즐기었다. 상왕이 말하기를, “대간이 유락(流落)한 사람은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니, 만약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에 충성하였다면,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왕위에 있었을 때에는 유락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듯하다.” 하고, 또 말하기를, “고명(誥命)이 이미 새로우니, 마땅히 《신수명명곡(新受明命曲)》을 지어 중	議政府、六曹上壽于上王，上與宗親侍宴極歡。上王曰：“臺諫流落者，皆是自取，若愛君忠國，則必不如是也。吾在位時流落者，似不多矣。”又曰：“誥命既新，當作《新受明命曲》，奏于使臣。”柳廷顯等起舞，兩上亦起舞極歡。朴豈請抱兩上腰，兩上許之，

	<p>국 사신에게 아뢰어라.”          하였다. 유정현 등이 일어나 춤을 추니, 두 임금의 또한 일어나서 춤을 추며 극히 즐겼다. 박은이 두 임금의 허리를 안기를 청하니, 두 임금이 이를 허락하매, 박은이 무릎으로 걸어가서, 먼저 상왕의 허리를 안고, 그 다음에 임금의 다리를 안았다. 상왕이 말하기를,          “오늘 정부와 육조에서 지성으로써 나를 위로하니, 내가 어찌 매우 즐거워하지 않으리오마는, 다만 내가 전일의 술로 인한 병을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 이에 대면하여 사례하고 연회를 과하였다.</p>	<p>豈膝行先抱上王脚，次抱上脚。上王曰：“今日政府、六曹慰我以至誠，我何不極歡乎？但吾不勝前日酒病。”乃面謝而罷。</p>
<p>世宗 2卷, 卽位年(1418 戊戌 / 명 영락(永樂) 16年) 12月 29日(甲辰) 6번째기사          일본 축전주 태수가 소목 백반 등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축전주 태수(筑前州太守) 장친가(藏親家)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2백 근(斤), 백반(白礬) 1백 근, 유황(硫黃) 3백 근, 육계(肉桂) 10근, 호초(胡椒) 5근, 침향(沈香) 2근, 심황(深黃) 50근, 백랍(白蠟) 20근, 양향(良香) 10근, 치매목(緇梅木) 백 근을 바치니, 임금이 흑색 세마포(細麻布) 20필과 면포(縣布) 1백 20필을 내려 주었다.</p>	<p>日本國筑前州太守藏親家遣人獻蘇木二百斤、白(礬) [礬] 一百斤、硫黃三百斤、肉桂十斤、胡椒五斤、沈香二斤、深黃五十斤、白蠟二十斤、良香十斤、緇梅木百斤，上賜黑細麻布二十四匹、縣布一百二十四匹。</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월 22일(정묘) 2번째기사          창덕궁에서 황제에게 올리는 표전에 배례하다.</p>	<p>(전략)그리고 황제께 금으로 꾸민 안자(鞍子) 4개, 황색 가는 모시베 30필, 백색 가는 모시베 30필, 흑색 가는 마포 1백 필, 사마교직포(絲麻交織布) 10필, 사저교직(絲苧交織) 10필, 인삼 2백 가마, 잣 3백 가마, 오미자(五味子) 1백 가마, 잡색마(雜色馬) 60필을 진상하고, 황태자에게 안자(鞍子) 2면(面), 백색 가는 모시베 20필, 흑색 가는 마포 40필, 인삼 1백 가마, 잡색마 6필을 진상하였다.</p>	<p>(전략)帝所進金飾鞍子四面、黃細苧布三十匹、白細苧布三十匹、黑細麻布一百匹、絲麻交織布一十四匹、絲苧交織一十四匹、人蔘二百觔、松子三百觔、五味子一百觔、雜色馬六十四匹。東宮進鞍子二面、白細苧布二十四匹、黑細麻布四十四匹、人蔘一百觔、雜色馬六匹。</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1月 27日(壬申)</p>	<p>상왕은 황엄에게 모시베와 삼베 각각 15필과 인삼 20근을 주고, 유천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p>	<p>上王贈黃儼苧麻布各十五匹、人蔘二十斤，劉泉亦如之。</p>

<p>6번째기사 상황이 황엄과 유천에게 모시·삼배 등을 내려 주다</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월 30일(을해) 1번째기사 제주도 기민을 구제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p>	<p>정사를 보는데, 제주도 백성이 굶주린다는 말이 나오게 되자, 예조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난민을 구제하는 일은 벌써 지난해 10월에 명령이 내렸는데,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빨리 미곡을 수송하여 나누어 주게 해야 마땅합니다.” 하고, 호조 판서 최이(崔迺)는 아뢰기를, “먼저 미곡 3백 가마를 보내고 굶주리는 상황을 자세히 살피어 계속 실어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은 말하기를, “빨리 사람을 시켜 운반해서 군색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p>	<p>乙亥/視事。 語及濟州民飢，禮曹判書許稠啓：“賑濟事，曾於去年十月已下，尙未舉行，宜速輸米以賑之。” 戶曹判書崔迺啓：“先輸米三百斛，審問飢饉之狀，連續輸送便。” 上曰：“宜速差人督運，以賑窮乏。”</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2月 6日(辛巳) 3번째기사 상황이 임금과 더불어 진헌사 원민생을 위하여 전별 잔치를 열다</p>	<p>상황은 임금과 더불어 진헌사(進獻使) 원민생(元閔生)을 위하여 내전(內殿)에서 전별 잔치를 하였다.</p>	<p>上王與上餞進獻使元閔生于內殿。</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2월 11일(병술) 6번째기사 상황이 동교에서 매사</p>	<p>상황은 동교(東郊)에 나아가 매사냥을 하니, 임금은 우대언 이수·내시 김용기(金龍奇)에게 명하여 궁중에서 만든 술을 받들고 가서 주정소(晝停所)에 올리게 하였다.</p>	<p>上王幸東郊放鷹，上命右代言李隨、宦官金龍奇，齎奉內醞，進于晝停所。</p>

<p>냥을 하니 궁은을 올리게 하다</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2月 13日(戊子) 2번째기사 부친상을 마친完원부원군 이양우의 세 아들이 뵈니 상왕이 술 자리를 베풀다</p>	<p>完원 부원군(完原府院君) 이양우(李良祐)의 아들 이흥노(李興潞)·이흥제(李興濟)·이흥발(李興潑)들이 3년상을 마치고 들어와 뵈오니, 상왕은 술을 마련하여 위로하는데, 임금은 종친들을 인솔하고 상왕을 모시고 잔치하였다. 상왕은 말하기를, “흥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는데, 잔치하며 술을 마시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完원(完原)의 아들이 상기를 마치고 찾아왔기 때문에 작은 잔치를 베풀 것이다.” 고 하였다. 이양우는 이원계(李元桂)의 아들이다.</p>	<p>完原府院君李良祐之子興潞、興濟、興潑等免喪入見，上王置酒慰之。上率宗親侍宴，上王曰：“年歉民飢，不可宴飲，然完原之子，終制來謁，故爲設小酌耳。”良祐，元桂之子也。</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2월 15일(경인) 3번째기사 한확을 의주에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p>	<p>한확을 의주에 보내어 술을 가지고 가서 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p>	<p>遣韓確于義州，齎宣醞慰使臣。</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2월 20일(을미) 5번째기사 평산 온천에 휴가 중인 허지에게 약을 내려 주다</p>	<p>허지는 휴가를 얻어 평산 온천에서 목욕하고 있으므로, 약을 내려 주고, 또 황해도 감사에게 유시하여 술과 음식물을 공급하게 하였다.</p>	<p>許遲請暇浴於平山溫井，賜藥，又諭黃海道監司，支給酒食。</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3月 4日(戊申)</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 의식에 있어, 종묘 제향만은 새[禽]를 제물로 올리므로, 사냥하여 잡은 노루·사슴·뿔을 썼고, 그 나머지 제향은 소·염소·돼지를 아울러 썼는데,</p>	<p>禮曹啓：“諸祀儀式內，宗廟薦禽，用蒐狩所獲獐鹿雉，其餘祭享，竝用牛羊豕。今於寒食祭，因高麗舊制，兼用</p>



<p>7번째기사 제항에 산 썩을 쓰지 말게 하다</p>	<p>금년 한식제(寒食祭)에는 고려의 옛 제도를 따라 산 썩[生雉]을 겸용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썩을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生雉，自今寒食，勿令用雉。”從之。</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3月 9日(癸丑) 6번째기사 충청도 관찰사 이맹균 이 난민 구제 규정의 내용을 정정할 것을 건의하다</p>	<p>충청도 관찰사 이맹균(李孟詢)이 계하기를, “지나간 을미년에 호조의 공문으로 된 난민 구제 규정의 내용을 보면, 장년(壯年)의 남녀는 매인당 하루에 쌀 4홉, 콩 3홉, 매주 1홉, 11세에서 15세까지는 매인당 쌀 2홉, 콩 2홉, 비지 반 홉씩이옵니다. 그런데 송(宋)나라 부필(富弼)의 청주(靑州) 난민에 대한 구제 규정 내용은 15세 이상이 매인당 하루에 1되, 15세 이하는 매인당 5홉, 5세 이하의 남녀는 제외되었으니, 호조에서 상정(詳定)하기를, 쌀과 콩과 메주를 합하여 8홉이므로, 1되가 차지 아니하는데, 중국의 1되를 우리 나라 1되 6, 7홉에 준한다. 지금 농사일이 바야흐로 시작되는데, 전례에 의거하여 나누어 준다면, 비록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나, 농력이 부족하오니, 부필의 구제하던 예를 참작해서, 15세 이상은 하루 쌀 7홉, 콩 6홉, 비지 2홉과 11세 이상은 쌀 4홉, 콩 3홉, 비지 1홉을 주고, 10세 이하 5세 이상은 비록 농사일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아이가 주려서 울면, 부모가 홀로 배부르게 먹지 못할 것이니, 역시 11세 이상의 준례에 의거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의정부와 6조에 명하여 의논하게 한 바, 다 말하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전례대로 하고, 백성에 종자 곡식을 대출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p>	<p>忠淸道觀察使李孟詢啓：“去乙未年戶曹移文賑濟規式內：‘壯男女每一名，日支米四合、豆三合、豉一合；自十一歲至十五歲每一名，米二合、豆二合、豉半合；十歲以下五歲以上，米二合、豉半合。’然宋朝富弼靑州賑濟規式內：‘十五歲以上，每人日支一升；十五歲以下，每人五合；五歲以下男女不支給。’戶曹詳定米豆豉，合計爲八合，未滿一升，而中國一升，準我國一升六七合。今當農務方興，依前例而賑濟，則雖不致死，農力不足。乞依富弼賑濟例參酌，十五歲以上，日給米七合、豆六合、豉二合；十一歲以上，米四合、豆三合、豉一合；十歲以下五歲以上，雖不與農務，兒(蹄)〔啼〕飢則父母不能獨飽，亦依十一歲以上例賑濟。”命下議政府、六曹議之，皆曰：“賑濟則依前例，加以貸民種食，以勸農務。”從之。</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3월 20일(갑자)</p>	<p>송계원평(松溪院平)에서 점심을 먹으니, 성비(誠妃)·대비·공비(恭妃)가 각각 내시를 보내어 풍정(豊呈)을 세 분 전하게 드렸다. 저물녘에 어가가 환궁하였다. 이번 거동에 임금은 두 분 상왕을 받들기를 매우 근신히 하여, 매일 사냥하고</p>	<p>甲子/晝停于松溪院平。誠妃、大妃、恭妃各遣宦官，獻豊呈于三殿，日暮駕還宮。是行也，上奉承兩上謹甚，</p>

<p>1번째기사 저물녘에 어가가 환궁하다. 임금의 거동 내내 두 상왕을 잘 받들다</p>	<p>돌아오면, 반드시 종척·대신들과 더불어 술잔을 올리며 즐겁게 잔치하였다.</p>	<p>每日打圍還，必與宗戚、大臣進爵歡宴。</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3月 21日(乙丑) 4번째기사 태조의 원종 공신인 유인길에게 상왕이 백미를 내려 주다</p>	<p>상왕은 포천에 거주하는 유인길(兪仁吉)에게 백미 10가마를 내려 주었다. 유인길은 태조 대왕의 원종(元從)이다.</p>	<p>上王賜抱川住兪仁吉米十斛。仁吉，太祖元從也。</p>
<p>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3월 27일(신미) 6번째기사 면포 쓰는 것과 죽은 쇠고기 먹는 것을 금하는 문제에 대한 의론</p>	<p>형조 참판 홍여방(洪汝方)이 계하기를, “당초 저화(楮貨)의 입법이 무릇 매매에 있어 면포의 사용을 금지하자는 것인데, 지금 헌사(憲司)에서 잡아들이는 수효가 날로 증가되어, 사람들이 심히 괴로와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를 도살하는 것을 금하면서 쇠고기를 먹는 자까지 죄를 주기 때문에,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은 자도 역시 중한 형을 면치 못하니, 면포 및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그러나 면포를 금지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염려가 있지만, 만약 저절로 죽은 쇠고기를 먹고 죄를 받았다면, 진실로 가석한 일이다.” 하였다. 원숙이 아뢰기를, “저화를 쓰도록 하면서 면포를 금하지 않으면 전혀 저화는 쓰지 않을 것이며, 소의 도살을 금하면서 저절로 죽은 쇠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한다면, 소를 밀</p>	<p>刑曹參判洪汝方啓：“初立楮貨之法，凡買賣禁用絺布，今憲司之吏捕曳日多，人甚苦之。禁殺牛，而喫牛肉者併罪之，故雖喫自死牛肉者，亦未免重刑。請絺布及自死牛肉勿禁。”上曰：“卿言是矣。然不禁綿布，則全不用楮貨矣。若喫自死牛肉而被罪，誠可惜也。”元肅啓曰：“欲用楮貨，而不禁綿布，楮貨必全不用矣。禁殺牛，而不禁喫自死牛肉，則潛殺牛者必多矣。臣以爲，法不可更改也。”</p>

	살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니, 신은 법을 자주 고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4月 1日(乙亥) 2번째기사 수강궁에 문안하다. 상왕이 원숙에게 임금 생신의 풍정에 대해 묻다	수강궁에 문안하였다. 상왕은, “주상의 생신에 풍정(豐呈)을 어떻게 하기로 하느냐” 고 물으니, 원숙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의정부와 육조에서 잔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주상께서 흥년을 빙자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생일에 풍악을 잡히지 아니하였는데, 현종(玄宗)은 풍악을 잡혔고, 또 우리 태조 대왕께서 나의 생일을 당하여 사람을 보내어 수박(手帕)과 술을 내려 주시기로, 나는 중궁(中宮)과 더불어 지수례(祇受禮)를 행하여, 이미 규례(規例)가 이뤄져 있으니, 지금 나 역시 주상의 생신을 당하면, 친히 풍정(豐呈)을 행하겠다.” 하였다.	朝壽康宮。上王問：“主上誕日，豐呈何如？”元肅等對曰：“議政府、六曹請宴，主上以年歉不允。”上王曰：“唐太宗生日不舉樂，玄宗乃行之。且太祖當我生日，遣人賜手帕及酒，吾與中宮祇受行禮，已有成規。今吾亦當主上誕日，親行豐呈矣。”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2일(병자) 4번째기사 상왕이 노상왕과 동교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시종하고 잔치하다	상왕이 노상왕과 더불어 동교(東郊)에 나가 매사냥을 구경하는데, 임금이 시종하여 낙천정에서 잔치를 베푸는데, 여름 잔치에 쓰는 익은 고기로 찬을 장만하여 호종한 종척과 대신이 차례로 잔을 올렸다. 날이 저물어서 돌아왔다.	上王與老上王幸東郊，觀放海青，上從之，置酒于樂天亭，以夏享膳肉供膳。扈從宗戚、大臣以次進爵，日暮乃還。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10일(갑신)	비가 내렸다. 임금이 자기의 생일에 백관의 조하를 정지하였다. 여러 신하들은 안장 갖춘 말과 의복을 올리고, 각도는 각각 토산물을 진상하고, 상왕도 내시 최한(崔閑)을 시켜 수박(手帕)을 보냈다. 임금은 수강궁에 가서 상왕께	甲申/雨。上停誕晨百官朝賀。群臣獻鞍馬、表裏，諸道各進方物，上王亦遣宦官崔閑遺手帕。上欲獻壽于壽康

<p>1번째기사 임금이 생일이었으나 백관의 조하는 정지하고 편전에서 종척·대신과 잔치하다</p>	<p>수주(壽酒)를 올리고자 하니, 상왕이, “비도 내리고 몸도 불편하다.” 하며, 허하지 않고 조말생을 시켜 술과 과일을 싸서 임금에게 보내며 분부하기를, “나의 몸이 불편한 것은 염려하지 말고, 종척·대신과 더불어 잔치를 베풀라.” 고 하였다. 대비는 내시 신덕해(辛德海)를, 노상왕은 내시 김길부(金吉富)를 시켜 각각 술과 과일을 보내었다. 임금이 편전에서 종척·대신과 잔치하는데, 조말생이 찬을 올릴 적에는, 임금이 반드시 자리에서 내려와 땅에서 받았다. 날이 저물어서야 파하였다.</p>	<p>宮, 上王以雨且不豫不許, 令趙末生齋酒果遺上命曰: “毋以吾不豫爲嫌, 其與宗戚、大臣設酌。” 大妃遣宦官辛德海, 老上王遣宦官金吉富, 各遺酒果。 上御便殿, 宴宗戚、大臣, 趙末生每進食, 上必下坐伏地受之, 日暮乃罷。</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4月 12日(丙戌) 4번째기사 고려 문하 주서 길재의 졸기</p>	<p>고려 문하 주서(門下注書) 길재(吉再)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부의로 백미·콩 15석과 종이 1백 권을 보내고, 따라서 매장할 인부를 마련해 주게 하였다. (후략)</p>	<p>高麗門下注書吉再卒。 上命戶曹, 致賻米豆十五石、紙百卷, 仍給埋葬丁夫。 再字再夫, 號冶隱, 或稱金鰲山人, 善山府屬縣海平人也。(후략)</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4月 13日(丁亥) 6번째기사 제주 진제사가 제주의 구휼 방법에 대해 아뢰다</p>	<p>제주(濟州) 진제사(賑濟使)가 계하기를, “제주목(濟州牧)이 민가 2천 3백 16호, 정의현(旌義縣)이 6백 40호, 대정현(大靜縣)이 6백 20호이오니, 충청도 연해의 각군과 전라도 각군의 잡곡(雜穀)을 옮겨다가 매호에 안배하여, 콩·보리·팥 종자 각각 한 말씩을 주어 농사를 독려하고 민생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p>	<p>濟州賑濟使啓: “濟州牧居民二千二百十六戶, 旌義縣六百四十五戶, 大靜縣六百二十戶。 乞移忠淸道沿海各官及全羅道各官雜穀, (安) [按] 戶給豆、木麥、小豆種各一斗, 以督耕田, 以活民生。” 從之。</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4月 19日(癸巳) 2번째기사</p>	<p>정사를 보았다. 호조 참판 이지강이 계하기를,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과 콩으로 저화(楮貨)를 바꾸는 일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처음 이 법을 창설한 것은 저화를 성행하게 하고, 따라서 가난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 것인데, 금년에 만약 또 흉년이 들면, 백성이 장차 나</p>	<p>視事。 戶曹參判李之剛啓: “以軍資監陳米豆換楮貨, 已有前例。 初設此法者, 欲(緒) [楮] 貨之興行, 而救貧乏之民也。 今年若又凶歉, 則民將仰食</p>

<p>군자감의 목은 미두를 저화로 바꾸는 문제와 구제 사업의 폐지 시기에 대해 논하다</p>	<p>라만을 쳐다보고 있을 것이니, 지금 전례에 의하여 저화와 바꾼다면, 국고가 고갈될 것이니, 장래에 대비하여 많이 쌓아 두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을까 하옵니다.”</p> <p>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지금 굶주릴 때를 당하여 구호미를 나누어 주는 일을 폐지할 수 없으니, 목은 쌀과 콩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록 전자의 수량만은 못하더라도 바꿈질[換易]하는 것이 편위한 처사로 생각됩니다.”</p> <p>하였다. 임금이,  “그러하다.”</p> <p>하고, 이지강에게 명하기를,  “목은 쌀과 콩 6백 가마를 환과 고독과 불구자에게 주고 시가(時價)로 무역(貿易)하게 하라.”</p> <p>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밀과 보리가 익으면, 구제 사업을 폐지해도 되느냐.”</p> <p>고 하니, 이지강은 답하여 아뢰기를,  “밀과 보리가 익으면, 백성이 다 밥을 얻어먹게 될 것이니, 구제 사업을 폐하여도 됩니다.”</p> <p>하고, 박은은 아뢰기를,  “어찌 사람마다 밀과 보리를 심었겠습니까. 밀과 보리가 비록 익어도 구제 사업은 폐지할 수 없사옵니다.”</p> <p>하였다. (후략)</p>	<p>於國家矣。 今依前例換楮貨， 則國庫空竭， 有違儲時之意。” 朴嘗啓曰：“今當飢賑濟亦不可廢， 陳米豆可不給乎？ 雖不及前數， 量宜易換爲便。” 上曰：“然。” 因命之剛曰：“其以陳米豆六百斛， 於鰥寡孤獨廢疾者， 以時價貿易。” 上曰：“兩麥熟則賑濟可廢乎？” 之剛對曰：“兩麥熟則民皆得食， 賑濟可廢。” 朴嘗曰：“安有人人種兩麥乎？ 兩麥雖熟， 賑濟不可廢也。” 上曰：“鏡城郡乃野人往來之地， 供費倍他。 歲貢楮貨， 減三分之二。”(후략)</p>
<p>世宗 3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4月 26日(庚子) 9번째기사</p>	<p>대마도 종준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對馬島宗俊遣人獻土物。</p>

대마도 종준이 토산물을 바치다		
세종 3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4월 30일(갑진) 6번째기사 조말생에게 머물러 목욕하게 하다	조말생에게 머물러 목욕하라 명하고, 따라서 양미(糧米)와 주찬을 하사하였다.	命趙末生留浴，仍賜糧米酒澆。
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5월 1일(을사) 3번째기사 온천에서 목욕하는 병자와 농사 짓는 사람에게 쌀·술 등을 내리다	온천에서 목욕하는 병자에게 쌀과 소금과 장을 주고, 또 농사짓는 사람에게 술과 밥을 주었다.	賜浴溫泉病人米及鹽醬，又賜農人酒食。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1日(乙巳) 4번째기사 각도에 역질이 도니 수령들에게 구료 처방을 주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각도에 역질(疫疾)이 성행한다 하니, 수령에게 교유하여, 구료(救療)에 힘쓰지 아니하면, 요사(夭死)하게 될 것이니, 내가 심히 민망히 여겨서 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소시호탕(小柴胡湯) 등의 약을 여러 도의 감사에게 하사하여, 본방(本方)에 의하여 구료하라.” 하였다.	上曰：“今聞，各道疾疫盛行。敎諭守令，不盡力救療，致令夭扎，予甚憫焉。其賜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等藥于諸道監司，依方救療。”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3日(丁未)	(전략)맹인(盲人) 1백 14명이 수레 앞에 궁함을 고하므로, 유후사에 명하여 쌀 40석을 주게 하였다.	(전략)命留後司賜米四十石。

<p>2번째기사 금교역 서산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고 수레가 개성에 이르다</p>		
<p>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4日(戊申) 4번째기사 태조 진전 역사에 부여한 인부들에게 양식과 주육을 주게 하다</p>	<p>태조의 진전 역사에 부여한 인부들에게 양식과 주육을 주라고 명하니, 모두 3백 명이나 되었다.</p>	<p>命賜眞殿役夫糧及酒肉，凡三百名。</p>
<p>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5월 13일(정사) 3번째기사 황해도 감사가 왜선과의 대치 상황을 보고 하니 김효성·장우량 등을 더 파견하다</p>	<p>황해도 감사가 급보하기를, “본월 11일에 조전 절제사(助戰節制使) 이사검이 만호 이덕생과 함께 병선 5척으로써 적을 해주의 연평곶이[延平串]에서 엿보고 있을 때, 적선 38척이 짙은 안개 속으로 갑자기 와서, 우리의 배를 에워싸고 협박하여 양식을 구하며, 사검 등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조선을 목적하고 온 것이 아니라, 본래 중국을 향하여 가려고 하였으나, 마침 양식이 떨어졌으므로 여기에 왔노라. 만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면 우리는 곧 물러가겠으며, 전일에 도두음곶이에서 싸운 것은 우리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대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하수(下手)하기에 부득이 응하였을 뿐이라.’ 하니, 사검이 이에 사람을 보내어, 쌀 5섬과 술 10병을 주었더니, 적은 아무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도리어, 보낸 사람을 붙잡고 양식을 더 토색질하거늘, 사검이 진무(鎭撫) 2인과 선군(船軍) 1인을 보내어 쌀 40섬을 주었으나, 적은 이속(吏屬)과 진무는 보내면서, 또 선군(船軍)을 잡아두고 사검과 서로 대치하고 있거늘, 성달생이 경기(京畿) 병선이 역풍(逆風)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말하고, 이에 역마를 빨리 달려 황해도의 병선을 타고 가려 했으나, 가서 본즉, 그 배는</p>	<p>黃海道監司飛報：“本月十一日，助戰節制使李思儉與萬戶李德生，以兵船五艘，候賊于海州之延平串，賊船三十八艘乘霧暗突至圍之，逼脅求糧，語思儉等曰：‘我等非爲朝鮮來，本欲向中國，因絕糧而至此，若給我糧，我當退去矣。前日都豆音串之戰，非我也。汝國人先下手，故我不得已而應之爾。’思儉遣吏，遺以米五斛、酒十瓶。賊拘吏又索糧，思儉遣鎭撫二人船軍一人，遺以米四十斛，賊還吏及鎭撫，又拘船軍，與思儉等相持。成達生以京畿兵船逆風難進爲辭，乃乘傳疾馳，欲以黃海兵船赴之，至則其船本少，而已爲思儉等所騎，達生叵奈何?”(후략)</p>

	매우 적은 데다가 이미 사검 등이 타고 있어서, 달생은 할 수 없었다.”(후략)	
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5월 19일(계해) 2번째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거듭 금주령을 내리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의 가뭄을 근심하여, 사헌부에 명하여 금주(禁酒)의 영을 거듭 엄하게 하고, 또 수강궁 외에는 술을 드리지 말도록 하였다.	視事。上憂旱，命司憲府申嚴禁酒之令，又壽康宮外，勿進酒。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19日(癸亥) 5번째기사 내사복에게 말먹이는 묵은 콩으로 주고 햇 콩은 환상케 하다	임금이 내사복(內司僕)에 명하기를, “말먹이는 묵은 콩으로 주고, 햇콩은 환상(還上)하여 각 관 인민의 콩씨가 없는 자에게 주게 하라.” 하였다.	上命內司僕馬料，悉以陳豆給之。其新豆，以還上，給各官人民乏豆種者。
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5월 19일(계해) 8번째기사 도두음곳이에서 빠져 죽은 군인의 집을 복 호하게 하다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도두음곳이에서 빠져 죽은 군인 37명에게 《육전(六典)》에 의하여 집마다 복호(復戶)하고, 쌀과 콩을 나누어 주어 상장(喪葬)에 쓰게 하였다.	上命戶曹，都豆音串溺死軍人三十七名，依六典復其戶，量給米豆，以資喪葬。
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5月 24日(戊辰) 3번째기사 평도전과 윤득홍이 포	평도전이 그의 반인(伴人) 17명과, 윤득홍의 반인 박영충(朴英忠)을 거느리고, 역마를 달려 서울에 들어와 수강궁에 나아가 포로와 병기·의갑(衣甲)을 드리니, 상왕이 명하기를, “주식을 후히 주라.” 하고, 인하여,	平道全率伴人十七名及尹得洪伴人朴英忠，馳驛入京，詣壽康宮獻俘及兵器衣甲，上王命厚饋酒食，仍賜道全鞍馬，英忠弓矢。上又賜道全米豆四十石，平八郎衣一領及米豆十石，其餘伴



<p>로와 병기를 바치니 상왕이 하사품을 내리다</p>	<p>“도전에게는 안장 갖춘 말을, 영충에게는 활과 화살을 주라.” 하고, 임금이 또 도전에겐 쌀과 콩 40석을, 평팔랑(平八郎)에겐 옷 한 벌과 쌀과 콩 10석을 주고, 그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각각 쌀과 콩 10석, 영충에게는 옷 한 벌을 주니, 팔랑은 도전의 아우이고, 16인들은 왜인 중의 도전을 따라서 서울에 머무르고 있던 자들이다. (후략)</p>	<p>人各米豆十石，英忠衣一領。八郎，道全弟，其十六人皆倭之從道全在京中者。(후략)</p>
<p>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5월 24일(무진) 4번째기사 이방간의 딸인 조신언의 처에게 미두를 내리다</p>	<p>조신언(趙愼言)의 처에게 쌀과 콩 15석을 주니, 이는 곧 이방간의 딸이다.</p>	<p>賜趙愼言妻米豆十五石，芳幹之女也。</p>
<p>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6월 7일(경진) 6번째기사 평안도 성천 군인 장상금의 아내가 세 딸을 낳다</p>	<p>평안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성천(成川) 군인 장상금(張三金)의 처가 한 번에 세 딸을 해산했다.” 하니, 명하여 쌀을 하사하였다.</p>	<p>平安道監司報：“成川軍人張三金妻一產三女。”命賜米。</p>
<p>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6月 9日(壬午) 4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경축하는 술을 올리하고자 하니 내일 하게 하다</p>	<p>정부와 육조가 경축하는 술을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명일에 술을 드리라.” 고 하였다.</p>	<p>政府、六曹請進酒，上曰：“宜於明日進酒。”</p>

<p>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6月 10日(癸未) 2번째기사 명나라에 사은하는 표·전</p>	<p>(전략)“황제께서 주시는 물건이 연달아 오고, 또 특히 별달리 내려 줌을 받은 지라, 토산물이 비록 박하나, 사례하는 정성을 표하여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3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만화석(滿花席) 20장, 황화석(黃花席) 2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인삼 1백 근, 잣 3백 근을 갖추었으니, 이상과 같은 물건들이 제조(製造)가 정하지 못하고, 〈수는〉 심히 적으나, 그 마음 속으로 넘쳐 나오는 신의를 알아 주시고, 구부러 위로 받드는 예의를 용납하시기 바라오.”</p> <p>하였다. 또 전(箋)에 말하기를,  “지위가 높은 저이(儲貳)에 있어 가만히 성스러운 정치를 도우며, 마음으로 어루만져 편안히 하기에 간절하여, 지혜로운 은택을 인도하여 베푸니, 마음 속으로 감격함이 어찌 그칠 수 있으리오. 몸이 다하여도 보답하기 어렵도다. 었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이 다행히 창성한 때를 만났으나 조금도 도움이 없었더니, 배신(陪臣)이 돌아오는 길에 진중한 물건을 주시는 영광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크도다 신서(新書)여, 착한 일하는 것을 변방 나라에도 권하고, 탐스럽고 기이한 가축은 실로 폐방(弊邦)에 나지 않는 것이라, 어찌 다만 신의 몸에만 은혜가 될 뿐이라. 이 또한 신의 아버지께 주신 바이니, 이것이 대개 황태자 전하의 영웅적 바탕이 옥같이 풍유하고, 위대한 도량이 깊고 멀어서 정치는 능히 원만히 이루어졌고, 뜻은 항상 돕고 밝히는 데 부지런한 까닭이라. 드디어 신과 같이 용렬한 바탕으로도 외람히 특이한 영화를 입으니, 신이 마땅히 삼가 빛나고 운택한 노래를 지어 강녕할 것을 빌며, 진상할 예물은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만화석 10장, 채화석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이라.”</p> <p>하고, 조홉과 흥발에게 각각 옷 한 벌과 잣과 신을 하사하였다.</p>	<p>(전략)天貺沓臻，特蒙殊錫。土宜雖薄，聊表謝忱。謹備黃細苧布三十四、白細苧布三十四、黑細麻布五十四、滿花席二十張、黃花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人蔘一百觔、松子三百觔。右件物等，製造匪精，名般甚寡，庶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p> <p>箋曰：  位尊儲貳，密裨聖謨。心切撫綏，導宣睿澤。佩銘曷已？糜粉難酬。伏念，臣幸際昌辰，曾無小補，何意陪臣之返，乃蒙珍貺之繁？大哉新書，勸爲善於夷俗；彪然奇畜，實不產於弊邦。豈惟臣身之荷恩？抑亦臣父之拜賜。茲蓋伏遇皇太子殿下英資玉裕，偉量淵沖，治克弼於盈成；志常敦於翼亮，遂令庸質，叨被殊榮。臣謹當載廣輝潤之歌，恭上康寧之祝。</p> <p>其進獻禮物，白細苧布一十四、黑細麻布一十四、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p> <p>賜曹洽、興發各衣一襲及笠靴。</p>
<p>世宗 4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p>	<p>출정했다가 병사(病死)한 선군 21명에게 각각 미두(米豆) 4석을 주고 복호(復戶)하였다.</p>	<p>賜赴征病死船軍二十一名各米豆四石，復其戶。</p>

<p>17年) 7月 20日(癸亥) 3번째기사 출정했다가 전사한 선 군들에게 미두를 내리 고 복호하다</p>		
<p>세종 4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7월 27일(경오) 3번째기사 예조에서 상정한 능에 배례하는 섭행의</p>	<p>(전략)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를 진설하고, 준은 문 밖의 왼편에 놓는다. 때가 되면, 알자가 감찰을 인도하고 실내로 들어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하여 의례와 같지 아니한 것을 규찰하고 도로 나간다. 알자가 먼저 들어가서 절할 자리에 나아가 사배를 마치고,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알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각각 제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알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와서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술 그릇을 잡은 자가 술을 부으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집사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향을 올리라.’ 하고, 집사자는 향로를 &lt;향안&gt; 상에 올린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편에 있고, 전로(奠爐)는 헌관의 왼편에 있으며, 수작(授爵)과 전작(奠爵)도 이에 같이 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받아서 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올리고, 만일 왕후 능이 부장(祔葬)하여 있을 때에는, 또 아헌과 종헌 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하면, 축은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끝나면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p>	<p>(전략)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時至, 謁者引監察入室, 點視陳設, 糾察不如儀者, 還出。 謁者先入就拜位, 四拜訖, 引監察及諸執事, 入就拜位。 謁者贊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 謁者引獻官, 入就位, 西向立, 謁者贊四拜, 引獻官陞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爵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 北向立, 贊跪,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奉香在獻官之右, 奠爐在獻官之左, 授爵奠爵準此。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若王后祔則又獻, 亞獻、終獻準此。 謁者贊俛伏, 興, 小退, 北向跪, 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謁者贊俛伏, 興, 再拜, 引出戶, 降復位。 小頃, 謁者引獻官, 陞自東階, 詣尊所西</p>

	<p>가 서쪽을 향해 서고, 술 그릇을 잡은 자가 술을 부으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무릎 꿇으라.’ 하면,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작을 받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고,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서서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 내려가서 제자리에 돌아가고,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해서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가서, ‘사배하라.’고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절하는 자리에 돌아와서, ‘사배하라.’고 하면, 감찰 이하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하고 차례로 인도하여 나아간다. 알자가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면, 집사자가 제찬을 거두고 곧 물러간다.”</p> <p>고 하였다.</p>	<p>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立，贊再拜，引出戶，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四拜，獻官四拜，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俱復拜位，贊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以次引出。謁者就拜位，四拜出，執事者徹饌〔撤饌〕乃退。</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2일(갑술) 3번째기사 충청도 감사 정진이 대마도 정벌 나간 염한의 공납 탕감에 대해 장계하다</p>	<p>충청도 감사 정진(鄭津)이 장계하기를, “각 고을의 염한(鹽漢)194) 들이 대마도 정벌에 나갔으므로, 소금을 굽지 못하였으니, 소금의 공납을 반감하여 주십시오.” 하니, 임금의 말이 되기를, “어찌 꼭 반만 감하자 하느냐. 금년 것은 전액을 감하여도 좋을 것이다.” 하니, 참찬 변계량이 아뢰기를, “전액을 감하면, 국가의 수요에 모자랄 것이니, 마땅히 그 반액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하니, 대사헌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경상·전라 양도와 충청도 아랫녘에서 구운 소금은 본래 나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소산지에서 포목과 물화(物貨)로 바꾸어서 제용감(濟用監)으로 올려 왔고, 다만 경기·황해도와 충청도 윗녘에서 구운 소금만이 국용에 사용되었으며, 또 소금의 공납은 인구(人數)에 따라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p>	<p>忠淸道監司鄭津啓：“各郡鹽干等因赴東征，未得煮鹽，請除鹽貢之半。”上曰：“何必除半？全除今年之貢可也。”參贊卞季良啓曰：“全除則國用不敷，宜收其半。”大司憲申商啓曰：“慶尙、全羅兩道及忠淸道下面諸處所煮鹽，本不爲國用，而於所在換布貨，輸於濟用監，但以京畿、黃海道及忠淸道上面所煮鹽爲國用。且鹽貢，計丁而收之。”上曰：“然則特除赴征人等貢鹽可也。”</p>

	<p>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면 특별히 정월에 출정하였던 사람들이 바칠 소금만을 면제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p>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8月 8日(庚辰)  4번째기사  태조 성진을 봉안하는  의식 절차</p>	<p>(전략) 이 날에 신을 받들어 모시는 제사를 지내되, 평상 의식과 같이 하고, 제물은 명절 때 별제를 지내는 의식에 의거한다. 의식이 있기 전 3일에 당연히 참례할 집사관은 모두 이틀 동안 정침에서 보통 재계하고, 하루는 제사를 올릴 곳에서 정식 재계하여야 한다. 대체로 보통 재계에는 일보는 것을 평시와 같이 하나, 오직 술을 과음하지 말고, 과·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말고, 조상과 문병을 가지 말고, 음악을 듣지 말고, 형벌을 행하지 말고, 처형하고 죽이는 서류를 결재하지 말고, 더럽고 흉악한 일에 참례하지 말 것이며, 정식 재계에는 오직 제사지내는 일만을 행할 것이다. 무릇 제사에 참례하는 자는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자리를 진설할 것이며, 제사 전 2일에 정전을 지키는 자는 정전의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고, 하루 전에는 헌관의 자리를 정전 뜰 동남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찬알(贊謁)하는 자와 찬례(贊禮)하는 자의 자리를 정전 뜰 서쪽에 서향하여 마련하고, 헌관의 음복할 자리를 사당 안 앞기둥 바깥에 가까운 동쪽에 서향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정전을 지키는 자는 정전의 안팎을 깨끗이 하고,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정전을 지키는 자는 감실을 열고 공손히 신막(神幪)197) 을 털기를 보통 의식 때와 같이 하고, 찬수(饌需)를 맡은 자와 정전을 지키는 자는 각기 그 소속된 자들을 인솔하고 들어가서, 축문관을 신이 있는 자리의 오른쪽에 올려 모시고 【놓는 자리가 있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이 있는 자리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제구를 진설하고, 단지를 지게문[戶] 밖 왼쪽에 진설하고, 모두 보자기로 덮되, 북향에서 서쪽을 위로하고, 음복할 잔은 단지 옆에 진설하고, 씻는 곳을 정전의 뜰 동남에다 북향하여 마련하는데, 손을 씻는 곳은 동에 있게</p>	<p>(전략) 是日行安神祭如儀, 祭品依有名日別祭禮。 前享三日, 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於正寢, 致齋一日於享所。 凡散齋, 治事如故, 惟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疾, 不聽樂, 不行刑, 不判書刑殺文書, 不預穢惡事。 致齋, 惟行享事。 凡預祭者, 前享二日, 皆沐浴更衣。  陳設: 前享二日, 守殿者掃除殿之內外。 前一日, 設獻官位於阼階東南, 西向; 設贊謁者贊禮者、位於阼階之西, 西向; 設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 守殿者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 守殿者開室, 整拂神幪如常儀。 掌饌者守殿者、各率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有坩】設香爐、香楹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皆加酌罍, 北向西上; 設福酒爵於尊所, 設洗於阼階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盥在洗東加勻, 篚在洗西南肆, 實以巾, 若爵洗之</p>

하고, 잔을 씻는 곳은 서에 있게 할 것이며, 작은 향아리는 씻는 곳의 동쪽에 있게 하여, 국자를 얹어 두고, 작은 광우리는 씻는 곳의 서쪽에 남으로 놓고, 수건을 담아 놓고, 잔을 씻는 광우리에 잔을 담아 놓을 것이다. 제향일(祭享日) 축시전 오각(丑時前五刻) 【축시 전 오각은 삼경 삼점(三更三點)이다. 지내는 것은 축시 1각이다.】 에 정전을 지키는 자가 감실을 열고 신악을 공손히던 뒤에, 찬수를 맡은 자와 정전 지키는 자가 각기 그 속인(屬人)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제수를 담아 진설할 것이다.

제사지내는 시간보다 삼 간쯤 앞서서 헌관 이하가 각기 그 복색을 갖추면, 찬자·알자와 찬례하는 자가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뜰 사이에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북쪽을 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로 물러가고, 1각 전에 찬례하는 자가 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모두 문밖의 위치에 서게 하고, 찬례하는 자는 다시 대축(大祝)을 인도하여, 뜰 사이의 절할 자리에 나아가되,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알하는 자가, ‘사배(四拜)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대축은 네 번 절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하는 자가 작(爵)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서, 작을 씻고 물기를 닦아서 광우리에 담아 가지고 단지가 놓인 곳으로 나아가서 점상(坫上)에 두고,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위치에 서게 하면, 찬알하는 자가, ‘사배(四拜)하라.’ 하고, 큰 소리로 창(唱)한다. 헌관이 네 번 절하면, 찬알하는 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창한다. 찬알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손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서, ‘홀(笏)을 놓고, 물로 손을 씻고 수건에 닦으라.’고 창하면, 손을 씻고 닦은 뒤에, ‘홀을 들라.’고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정전 뜰로 해서 올라가 단지 놓인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면, 단지를 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하는 자가 잔을 들어 술을 받는다.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을 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놓으라.’고 창한다. 집사하는 자의 한 사람은 향을 담은 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

籠則又實以爵。 享日丑前五刻, 【丑前五刻, 卽三更三點, 行事用丑時一刻。】 守殿者開室, 整拂神幄, 掌饌者、守殿者各率其屬入, 實饌具畢。 前三刻, 獻官以下各服其服。 贊謁者、贊禮者入自東門, 先就階間拜位, 北向西上, 四拜訖, 各就位。 前一刻, 贊禮者引獻官以下, 俱就門外位, 贊禮者引祝, 入就階間拜位北向。 立定, 贊謁者曰四拜, 祝四拜訖就位。 執事者詣爵洗位, 洗爵拭爵, 置於籠, 捧詣尊所, 置於坫上。 贊禮者引獻官入就位, 贊謁者曰四拜, 獻官四拜。 贊謁者曰行初獻禮, 贊禮者引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贊摺笏, 盥手挽手【盥手、挽手不贊。】贊執笏, 引獻官, 升自阼階, 【凡行事執事官 升降, 皆自阼階。】詣尊所, 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一人以爵受酒, 贊禮者引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贊跪摺笏。 執事者一人捧香榼, 執事者一人捧香爐, 贊禮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奉香在獻官之右, 奠爐在獻官之左。 授爵、奠爵準此。】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

를 받들고 서면, 찬례하는 자가, ‘세 번 향을 피워 올리라.’고 창하여 향을 피우게 하고, 집사하는 자가 향로를 상 위에 올려 놓는다. 【향함을 받든 자는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받든 자는 헌관의 왼쪽에 있는 것이니, 잔을 받들고 잔을 드리는 자들도 이에 준한다.】 집사하는 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작을 들었다가 집사하는 자에게 들어 주면, 집사하는 자가 신위 앞에 올려 드린다. 찬례하는 자가 창하기를,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을 향하여 꿇어앉으라.’ 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 앞으로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끝나면 찬례하는 자가 창하기를,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제자리로 내려가 전대로 선다. 조금 있다가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단지가 놓인 곳으로 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단지를 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하는 자 한 사람이 작을 들어 술을 받는다.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창하기를, ‘꿇어앉아서 홀을 놓으라.’고 한다. 집사하는 사람이 작을 들어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서, 들어 올렸다가 집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올려 전(奠) 들이게 한다. 찬례하는 자가 창하기를,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라.’ 하고, 조금 물러서 북쪽을 향하여 서면, 창하기를,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와서, 제자리로 내려와 전대로 선다. 조금 있다가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중헌례를 행하라.’ 하면,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할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복위한다.

대축이 단지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작에다가 음복 술을 떠내면,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창하기를, ‘꿇어앉아서 홀을 놓으라.’고 하면, 대축이 북향하여서 작을 들어 헌관

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少退，北向跪，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復位。小頃，贊謁者曰行亞獻禮，贊禮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一人以爵受酒。贊禮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禮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立，贊再拜，引出戶，降復位。小頃，贊謁者曰行終獻禮，贊禮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祝詣尊所，以爵酌福酒，贊禮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祝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祝進授虛爵復於坫。贊禮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贊謁者曰再拜，獻官再拜。贊謁者曰徹饌，祝入徹籩豆。【徹者，籩豆各一小移於故處。】徹訖，贊謁者曰四拜。”獻官四拜訖，贊禮者引獻官出。贊禮者引祝，就階間拜位，贊謁者曰四拜，祝四拜訖，贊禮者引出。贊謁者、贊禮者就階間拜位，四拜而出。掌饌者、守殿者各帥其屬，

	<p>에게 준다. 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시고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상 위에 올려 놓는다. 찬례하는 자가 창하기를,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복위시키면,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헌관이 두 번 절한다.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찬수를 거두라.’ 하면, 대축이 들어가서 변(鑊)198) 과 두(豆)199) 를 물린다. 【물리는 것은 변이나 두를 각각 하나씩만 제자리에서 조금 옮긴다.】 거두는 것이 끝나면,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고 나면, 찬례하는 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례하는 자가 대축을 인도하여 뜰 위의 절하는 자리로 나가면, 찬알하는 자가 창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네 번 절하고 나면, 찬례하는 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찬알하는 자와 찬례하는 자가 뜰 위의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물러나가면, 찬수를 맡은 자와 정전을 맡은 자가 각기 그 소속된 사람들을 인솔하고, 제물 찬수를 물려 거두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온다. 축을 읽는 판을 물려 내다가 구덩이에 묻는다.</p> <p>1. 명절날 제향할 때에 진설하는 도본이고,  1. 명절날 제사에 진(奠) 올리는 제물은 분전사(分典祀)200) 로 준비하여 차리게 하고,  1. 명절날 제사에 초와 향과 축문은 내시 별감(內侍別監)을 시켜서 유후사에 받들고 가서, 유후나 부유후 중에 전하여, 제사를 봉행하게 하고, 만약 연고가 있으면, 수령되는 관원이 봉행하게 한다.  1. 제사를 봉행할 때의 관(冠)이나 복(服)은 제복을 쓰기로 한다.  1. 상소(上所)201) 의 사람은 유후사에서, 아랫 관원 중에서 정하여, 번갈아 들어가서 당직을 맡아 쇄소(灑掃)하는 것을 맡게 한다는 것 등입니다.”  그대로 따르게 하였다.</p>	<p>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一、有名日祭享陳設圖。一、有名日祭奠物，令分典祀供辦。一、有名日祭燭香祝，令內侍別監奉至留後司，留後副留後中傳奉行祭。若有故，則首領官行祭。一、行祭冠服，用祭服。一、上所四名，留後司以下典定體，輪番入直，以備灑掃。從之。</p>
<p>世宗 5卷, 1年(1419)</p>	<p>청평군(淸平君) 이백강(李伯剛)을 보내어 하사한 술을 가지고 유후사에 가서</p>	<p>遣淸平君李伯剛，齎宣醞往留後司，慰</p>



<p>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8月 9日(辛巳) 3번째기사 청평군 이백강을 유후사에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다</p>	<p>사신을 위로하게 하였다.</p>	<p>使臣。</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年) 8월 11일(계미) 6번째기사 실농한 호구로 하여금 흉년에 대비하여 풀 나무 뿌리 등을 축적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흉년에 구제할 수 있는 물건을, 마땅히 시절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오니, 도토리(橡實)와 황각두(黃角豆)와 명아주 등 무릇 먹을 수 있는 풀·나무·뿌리·줄기·꽃·잎새들을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에게 명령하여, 실농한 호구를 분간하여, 이것을 거두어 축적하게 하여, 다음해의 흉년에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명을 내리기를, “각기 그 소산(所產)대로 형편에 따라서 미리 준비하게 하되, 민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였다.</p>	<p>戶曹啓: “救荒之物, 須趁節預備。其橡實、黃角豆、藿等凡可食草木根莖、花葉, 令損實敬差官, 失農各戶分揀, 使之收蓄, 以備明年救荒。” 上命各以所產, 隨宜預備, 毋致民弊。</p>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8月 19日(辛卯) 1번째기사 이재를 보내어 사신에게 먹을 것을 하사하다</p>	<p>내시 이재(李材)를 보내어 사신에게 먹을 것을 선사하였다.</p>	<p>辛卯/遣宦官李材, 贈食物于使臣。</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年) 8월 19일(신묘) 2번째기사</p>	<p>하사하는 연회의 절차를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1. 전하께서 어좌 앞에 나아가서 서복을 향하여 한 번 절하고 머리를 수그리되, 절하는 자리에는 자리를 펴지 않는다. 1. 사신의 앉는 자리는 북쪽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전하의 앉는 자리는</p>	<p>議定賜宴儀: 一, 殿下詣御座前, 向西北, 一拜叩頭, 拜位不設席。 一、使臣位近北西向, 殿下位近南東向。 一、執事諸臣, 不</p>

<p>황제가 하사하는 연회의 절차를 정하다. 그 절차</p>	<p>남쪽으로 가까이 하여 동쪽을 향하여 마련한다.</p> <p>1. 집사(執事)하는 여러 신하들도 꿇어 엎드리지 아니한다.</p> <p>1. 술을 받은 뒤에는 남기어서 쏟아 버리지 않는다.</p> <p>1. 가깝게 모시는 어린 내시 두서너 사람 외에는 들어가 시립하지 못하고, 들어가 시립하는 자도 손을 잡고 시립할 뿐 꿇어앉거나 엎드리지 못한다.</p> <p>1. 사신 앞에 술과 음식을 드리는 자는 2품관(二品官) 두 사람이며, 전하께 술과 음식을 드리는 자는 역관 원민생이고, 주전자를 잡는 자는 두목 왕청이다.</p> <p>1.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는 우리 나라의 향악은 빼고, 오로지 《근천정(觀天庭)》·《수명명(受明命)》·《하황은(賀皇恩)》만을 쓰기로 하고, 창기(娼妓)나 악공들은 모두 서서 연주한다.</p> <p>1. 연회할 때에는, 전하와 사신이 별로 말씀하지 않는다.</p> <p>1. 연회가 과하면, 전하가 머리 숙여 절하는 예를 처음과 같이 하고, 먼저 물러나 궁으로 돌아가고, 사신도 뒤따라 나온다.”</p> <p>고 하였다. 이 날에 사신이 먼저 경복궁으로 나아가서 찬수를 검시하였는데, 실과(實果)상은 우리 나라 풍속을 따르고, 음식물은 두목이 감독하여 장만하였다. 사신이 사람을 보내어 상왕을 청하니, 상왕이 법식으로 거동하는 절차를 갖추고 오니, 사신이 먼저 전상에 올라가 기다렸다. 상왕이 전상에 올라 예를 행하고, 자리에 나아가 앉고 잔치를 받을 때, 잔이 다섯 번 오가고 그쳤다. 예식이 끝나고 내려가서, 서쪽 뜰아래의 악차(幄次)로 들어갔다가, 찬수를 물린 뒤에 다시 전상으로 올라가, 사신과 차를 나누고 궁중으로 돌아가, 선양정(善養亭)에 납시어, 임금과 함께 작은 연회를 베풀니, 대비와 공비(恭妃)와 성비(誠妃)도 모두 각기 조그만 잔치를 베풀었다. 또 호조에 명하여, 의정부와 여러 군(君)들과 병조 당상과 삼군의 동지(同知)·총제(摠制) 이상과 거동에 따라갔던 호조·예조 당상에게 음식물을 하사하게 하였다.</p>	<p>得跪伏。 一、受酒後， 毋得傾瀉殘滴。 一、近侍小宦二三人外， 毋得入侍。 入侍者斂手侍立， 毋得跪伏。</p> <p>一、使臣前進酒饌， 二品官二人； 殿下前進酒饌， 譯語元閔生， 執尊頭目王淸。 一、奏樂除鄉樂， 專用《觀天庭》、《受明命》、《賀皇恩》， 娼妓工人， 俱立而奏。 一、受宴時， 殿下與使臣別無說話。 一、罷宴後， 殿下行叩頭禮如初， 先出還宮， 使臣隨後而出。</p> <p>是日， 使臣先詣景福宮， 點視饌具。 果卓則從國俗， 饌物則頭目監辦。 使臣遣人請上王， 上王備法駕而至， 使臣先陞殿以待， 上王陞殿行禮， 就坐受享爵五行而止。 禮畢， 降就西階下幄次。 既徹， 還陞殿， 與使臣行茶禮。 還宮御善養亭， 與上設小酌。 大妃、恭妃、誠妃殿， 亦各設宴。 又命戶曹， 饋議政府及諸君、兵曹堂上、三軍同知摠制已上與隨駕戶禮曹堂上。</p>
-----------------------------------	--	---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8月 20日(壬辰) 2번째기사 경복궁에 나아가 하사하는 연회를 의식대로 받다</p>	<p>임금이 경복궁에 나아갔다가, 사신이 근정전(勤政殿)에 베푼 하사연(下賜宴)에서 향연 받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호조에 명하여 백관에게 술과 음식을 많이 하사하게 하였다.</p>	<p>上詣景福宮，使臣設賜宴于勤政殿，上受享禮如儀，命戶曹，賜百官酒饌有加。</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8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내시 최용을 황엄에게 보내어 음식물을 하사하다</p>	<p>임금이 내시 최용(崔龍)을 보내어 황엄에게 음식물을 선사하였다.</p>	<p>上命宦官崔龍，贈黃儼食物。</p>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8月 25日(丁酉) 4번째기사 수강궁에서 사은하는 표·전을 절하고 보내다. 사은 표·전과 방물 표</p>	<p>(전략) 방물(方物)을 드리는 표에는, “하늘 같으신 은총이 더욱 깊사와 특별히 자별(自別)하신 성은을 입었사오니, 이 땅에서 생산한 물건이 비록 적사오나 그것으로 감사하는 정성을 표시하옵고자 삼가 흰 세저포(細苧布) 50필, 검은 세마포(細麻布) 1백 50필, 목과 마를 섞어 짠 것 5필, 목과 모시로 섞어 짠 것 5필, 황화석(黃花席) 20장, 꽃자리[花席] 10장, 꽃발[花簾] 10장, 꽃방석 20장, 잡채색(雜彩色) 꽃자리 20장, 인삼 2백 근과 석등(石燈) 6벌, 초서피(貂鼠皮) 4백 장, 잡색말[雜色馬] 30필을 갖추었사오니, 위의 물건들이 제조가 정밀한 것도 아니옵고 수효도 매우 적사오나, 충심으로 바치는 것임을 하량하시옵고 위에 올리는 예절이라 여기 시어 굽어 용납하시기를 바라옵습니다.” 하였고, 임금이 올리는 표에는, “하늘 같으신 마음으로 적은 것을 보호하시며 품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기</p>	<p>(전략)方物表曰： 天眷悉深，特蒙殊渥，土宜雖薄，聊表謝忱。 謹備白細苧布五十匹、黑細麻布一百五十匹、絲麻兼織布五匹、絲苧兼織布五匹、黃花席二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簾席一十張、滿花方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人蔘二百斤、石燈盞六事、貂鼠皮四百領、雜色馬三十四。 右件物等，製造匪精，名般甚寡。 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 主上表曰：</p>

를 도타이하시니, 성상의 은택이 분수에 넘는지라, 깊이 감사하고 부끄러움이 더할 뿐이오며, 몸이 가루가 된다 하여도 갓을 깊이 없사오니, 명심하고 감복함을 어찌 잊겠사옵니까. 엇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외람하옵게도 잔열(孱劣)한 자질로서 밝으신 은명을 받았사오나 물 한 방울이나 티끌 하나만한 적은 공로도 없었사오니, 우악하신 은택이 겹쳐 내리심을 기약인들 하였겠습니까. 훈계하시고 지도하심을 밝히 보이시니, 성심으로 조칙의 간절하심을 받들어 진귀하고 신선한 물건을 풍성하게 진열하였으니, 하사하신 잔치의 영광을 입었사옵니다. 이미 신의 일신에 주시었고, 또 신의 아비에까지 미쳤사오며, 또 은덕을 쌓으라는 교시를 반포하시어 스스로 새 길을 찾게 하옵시니, 특별하신 은총이 이와 같사옵는 옛 시대를 더듬어 보아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개 황제 폐하의 공덕이 만물이 모두 자리 잡고 생육하게 하시옵고 교화가 중국이나 외국에까지 퍼지심을 만나게 되었고, 늙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충성을 받들었음을 가상히 여기시고, 어린 신이 비로소 직책을 맡았음을 연민하게 여기시어 천한 나라에까지 크나큰 은택을 입게 되었사오니, 신은 마땅히 삼가서 춤추고 뛰고 하여 내리신 은혜에 노래로 화답 하옵고, 오래도록 하늘과 같이 무궁하시라 축수하겠습니다.”

하였고, 방물을 올리는 표에는,  
 “점잖고 넓으신 하늘처럼 비와 이슬을 고루 베푸시니, 하치않은 토지의 물건을 올림으로 이렇듯 미나리나 햇별을 바치는 흉내를 낼까하여 삼가 희고 고운 모시 50필, 검고 가는 마포 1백 50필, 무명 실과 삼을 섞어 짠 것 5필, 무명 실과 모시를 섞어 짠 것 5필, 황화석(黃花席) 20장, 꽃무늬 자리 10장, 꽃방석 20장, 잡채색 꽃자리 20장, 인삼 2백 근, 잣 4백 근, 잡색말[雜色馬] 30필을 올리오니, 위의 물건들은 제조한 것이 우량하고 공교한 것은 아니오나, 그 생산된 곳이 벽지(僻地)이오라 감히 뜰 앞에 바치는 물건에 충당하여 마음쓰기에 근고(勤苦)하였음을 밝힐까 하나이다.”

天心字小，庸篤懷柔，聖澤踰涯，采增感愧。粉糜難報，銘佩何忘？伏念，臣猥以孱資，欽承明命，顧乏涓埃之小補，敢期優渥之荐加？訓誨宣昭，祇奉演綸之切；珍鮮盛列，叨霑錫宴之榮。既被臣身，以及臣父。且頒《陰鷲》之教，俾勸自新之方。殊恩若茲，振古所罕。茲蓋伏遇皇帝陛下功臻位育，化洽華夷。謂老父久於効忠；憐小臣始於述職，遂令弊邑，獲荷洪私。臣謹當舞之蹈之，載賡歌於湛露；悠也久也，常祝壽於齊天。

方物表曰：  
 穆穆天臨，覃施雨露。區區壤奠，聊効芹暄。謹備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一百五十四、絲麻兼織布五匹、絲苧兼織布五匹、黃花席二十張、滿花席一十張、滿花方席二十張、雜彩花席二十張、人蔘二百觔、松子四百觔、雜色馬三十四。右件等物，製匪良工，產從僻地，敢充旅庭之實，庶昭役志之勤。

箋曰：  
 位尊二極，密補皇猷，恩導中宸，覃霑海徼。省循非稱，感愧難堪。伏念，

	<p>라 하였다. 전문(箋文)에는,  “지위가 두 번째로 높으시고 황제의 통치를 가깝게 보좌하셔서 충심으로 지도하시는 은택이 바다 밖의 한 모퉁이에까지 고루 젖었사오나, 살피어 따르는 것이 미치지 못하오니 황감하고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사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도 창성하고 발전하는 시대를 만났사와 외람되게도 크고 높은 지위의 은명을 반사와 항상 직무를 보고하는데 성실하려 하오나 충성 바치는 공은 드러난 바가 없었사온대,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습니까. 천사(天使)가 내려와서 용의 은광(恩光)을 두텁게 선포하올 제, 윤음(綸音)205) 이 간절하고 지극하여 복을 받는 방도를 알게 하시었고, 내선(內膳)이 화려하고 정중하므로 또다시 비상한 은총을 내리셨는데 어찌 홀로 미친한 신만이 주심을 받을 뿐이겠습니까. 또 역시 늙은 아버지까지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시고, 더구나 음덕을 쌓아야 한다는 글을 반포하시어 백성을 교화하는 도리를 널리 알게 하시니, 이는 대개 황태자 전하의 영특하신 자질이 옥과 같이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도량이 못물처럼 너그러우시어, 상성(上聖)의 거칠음[荒]도 포용하심을 본받으시고, 소방(小邦)이 교화에 감동하였음을 연민히 여기심을 만났으므로 노둔(駑鈍)하기 그지없으면서 크나크신 은혜를 입은 바입니다. 신은 삼가 제잠(鯁岑)206) 을 정성으로 지키어 항상 강녕(康寧)하시라는 축복을 바치옵고, 멀리 학금(鶴禁)207) 을 바라보고 빛나고 윤택한 노래로써 봉답하겠사옵니다.”</p> <p>하였다. 그 진헌하는 예물은 검고 가는 마포 1백 필,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말 4필이었다</p>	<p>臣幸際昌辰，叨承錫命，心常虔於述職；功未著於効忠，何圖使華之來，乃布龍光之厚？綸音切至，俾知造福之方；內膳稠重，更荷非常之寵。豈惟微臣之拜賜？亦令老父而與榮。矧頒爲善之書，以廣化民之道？茲蓋伏遇皇太子殿下英資玉裕，偉量淵沖，體上聖之包荒，憐小邦之感化，遂令駑鈍，獲被鴻私。臣謹當恪守鯁岑，恒貢康寧之祝；遙瞻鶴禁，載賡輝潤之歌。其進獻禮物，黑細麻布一百匹、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四匹。</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9월 14일(병진) 1번째기사</p>	<p>상왕이 이명덕을 보내어 황업에게 12승(升) 저마포(苧麻布) 각각 10필, 11승 마포 10필, 섞어 짠 비단 2필, 가는 명주 3필, 고운 면포 3필, 인삼 30근, 석등(石燈) 2개, 두꺼운 종이 4백 장, 차(茶) 한 봉, 염주(念珠) 한 봉지를 선사하고, 왕현에게는 12승 저마포 각각 3필, 인삼 10근, 석등 한 개, 차 한 봉,</p>	<p>丙辰/上王遣李明德，贈黃儼十二升苧麻布各十四、十一升麻布十四、交綺二匹、細紬布三匹、細絺布三匹、人蔘三十斤、石燈盞二事、厚紙四百</p>

<p>상왕이 사신들에게 저마포 등을 주고 태평관에서 전송연을 베푼다</p>	<p>염주 20줄을 선사하고, 황엄의 소술(所率) 두목 8명에게는 10승 저포 각 1필, 마포 각 1필과 음식을 만드는 사람 2명에게는 11승 저마포 각 1필씩을 주었다. 그리고 태평관에 거둥하여 전송하는 연회를 베푼었는데, 왕현이 취하여 엄에게 말하기를, “노관(老官)이 나의 무슨 잘못을 보았길래 내 말을 들어내어 꼬집는가.” 하면서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엄이 노하여서 연회 음식을 재촉하여 올리라 하고, 이내 연회를 끝마치었는데, 임금은 발 위에 종기가 나서 연회에 참례하지 아니하였다.</p>	<p>張、茶一封、念珠一袋、王賢十二升苧麻布各三匹、人蔘十斤、石燈盞一事、茶一封、念珠二十貫、黃儼所率頭(日)〔目〕八人十升苧布各一匹、麻布各一匹、廚子二人別贈十一升苧麻布各一匹。遂幸太平館設餞宴。賢醉謂儼曰：“老官見我何罪，而揚說吾事？”涕泣不止，儼怒，督進宴饌而罷。上以足上患瘡不與宴。</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9월 29일(신미) 4번째기사 예조에서 빈전의 삭망전 친행의를 아뢰다. 의식 절차</p>	<p>(전략)〈먼저〉 향과 향로를 전하에게 드리었다가 다시 향과 향로를 〈영좌에〉 바치는 일을 다 근시(近侍)가 하고, 근시가 차와 술을 드리거든, 전하가 차를 모사에 붓고 술을 세 차례 바치는 것도 근시가 합니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하면, 대축(大祝)은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쪽으로 향해 축문을 읽고, 이것이 끝나면, 판통례가 ‘부복했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십시오.’ 하고 사퇴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 합니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돌아오게 한 뒤에 ‘재배하고 곡하십시오.’ 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며 슬픔을 다합니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식이 끝났습니다.’ 라고 사퇴합니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친 이하 문무 군신들을 갈라서 이끌고 차례대로 나갑니다.” 하였다.</p>	<p>(전략)【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還拜位，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訖。禮曹判書跪啓禮畢，判通禮導殿下，還幄次，通禮門分引宗親以下文武群官，以次出。</p>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9月 29日(辛未) 6번째기사</p>	<p>조선의(朝奠儀)239) 는 이러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섭상주【섭상주는 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을 시킨다.】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다 자기의 복을 입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곡한다. 소신(小臣)이 씻고, 빗고 하는 제구를 영상(靈床) 곁에 마련해 놓고, 혼백(魂帛)을 받들고 영좌에 나아간다. 연</p>	<p>朝奠儀曰：每日晨起，攝喪主【攝喪主以義平君元生爲之。】及大祝、諸執事皆服其服，入就位哭。小臣設盥櫛之具于靈床側，</p>

<p>아침에 전을 드리는 의례</p>	<p>후에 아침 전을 드린다. 집사자는 전을 진설해 놓는다.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섞어서 구과상(九果床)에 삼미 반물(三味飯物)을 배설한다. 저녁 전도 같다.】 대축이 손을 씻고,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영좌 앞에 드리고,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p>	<p>奉魂帛出就靈座，然後朝奠。執事者設奠，【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夕奠同。】大祝盥手焚香，斟酒奠于靈座前，攝喪主及大祝、諸執事再拜哭盡哀。</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9월 29일(신미) 7번째기사 식사 때의 상식의(上食儀)</p>	<p>식사시(食事時)의 상식의(上食儀) 【평시의 조식 수라는 의례 내선(內膳)을 &lt;상기에는&gt; 소선(素膳)으로 대응함.】의 행례는 조전의와 같고, 석전의는 조전의와 같이 하여 끝나면,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혼백을 받들고 들어가 영상에 모셔 놓고 곡하여 슬픔을 다한다. 새 식물이 나오면 친신하는데, &lt;그 방법은&gt; 상식의와 같다.</p>	<p>食時上食儀【平時朝夕水刺例，內膳代用素膳。】：行禮如朝奠儀。夕奠儀，如朝奠儀畢，攝喪主及大祝，諸執事奉魂帛，入就靈床，哭盡哀。有新物則薦之，如上食儀。</p>
<p>세종 5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0월 8일(기묘) 2번째기사 소상의 절차</p>	<p>(전략) 그날 날이 밝자마자,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 왼쪽에 자리잡아 놓고, 영좌 앞에 향로, 향합 및 초를 마련해 놓고, 호외(戶外) 왼쪽에 준소(尊所)를 마련해 놓는다. 세(洗)를 조계(阼階)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해 놓는데, 작세(爵洗)도 서쪽에 두고, 관세(盥洗)를 동쪽에 두며, 또 여러 집사들의 세를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해 놓습니다 집사자가 손을 씻고서, 잔을 물에 씻고 물기를 닦아 조계로 해서 올라가 준소에 놓고, 제물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놓습니다.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해서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또 판통례가 주상 전하를 인도해서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합니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갈라서 이끌고 들어와 자리잡고 섭니다. 예조 판서가 상왕 전하 악차 앞에 나아가 부복했다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들어와 곡하시오.’ 하고,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예조 참관이 주상 전하 악차 앞에 나아가 부복했다 꿇어앉아 아뢰기를, ‘들어와 곡하시오.’ 하고,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판통례가 주상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또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합니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시오.’ 하고 아뢰면, 주상 전하</p>	<p>(전략) 其日質明，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設洗於阼階東南，北向，爵洗在西，盥洗在東，又設諸執事洗於東南，北向。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阼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判通禮導上王殿下，詣幄次即座，又判通禮導主上殿下，詣幄次即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上王殿下幄前，俛伏跪，啓請入哭，啓訖，俛伏，興。禮曹參判進當主上殿下幄前，俛伏跪，啓請，入哭，啓訖俛伏興。判通禮導主上殿下，入就位北向立，又判通禮導上王殿下，入就位北向立。</p>

	<p>와 상왕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십시오.’라고 말하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또 판통례가 주상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합니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갈라서 이끌고 차례로 나갑니다. 예조 판서가 상왕 전하의 악차 앞에 나아가 부복했다 꿇어앉아, ‘역복(易服)하십시오.’라고 아뢰고, 아뢰는 일이 끝나 부복했다 일어나면, 상왕 전하가 역복합니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이 다 역복하기를 기다려 차례로 갈라서 이끌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자리잡고 서게 합니다. 예조 판서가 부복했다 꿇어앉아 아뢰기를, ‘행례(行禮)하십시오.’ 하고, 아뢰는 일이 끝나면 부복했다 일어납니다. 판통례가 주상 전하를 인도하여, 천담복(淺淡服)의 차림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또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연복의 차림으로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합니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십시오.’라고 아뢰면, 상왕 전하와 주상 전하가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오.’라고 말하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재배하고 곡하여 슬픔을 다합니다.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관세가 끝나면, 동쪽 층계로 해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판통례가,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리시오.’라고 아뢰면, 상왕 전하는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립니다. 향을 &lt;전하에게&gt; 드리고, 향로를 &lt;전하에게&gt; 드리고, 향을 &lt;영좌에&gt; 올리고, 향로를 &lt;영좌에&gt; 올리고 하는 것은 다 근시(近侍)가 합니다. 차와 술을 드리면, 상왕 전하는 차를 모사에 붓고 술을 세 번 &lt;영좌에&gt; 올리는데, 술을 &lt;영좌에&gt; 올리는 것 역시 근시가 합니다. (후략)</p>	<p>判通禮啓請再拜哭，上王殿下、主上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上王殿下還幄次，又判通禮導主上殿下還幄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禮曹判書進當上王殿下幄次前，俛伏跪，啓請，易服，啓訖，俛伏興，上王殿下易服。通禮門俟宗室以下文武群官俱易服，以次分引入就位。立定，禮曹判書俛伏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主上殿下，以淺淡服入就位北向立，又判通禮導上王殿下，以練服入就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上王殿下、主上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上王殿下詣盥洗位盥洗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判通禮啓請跪三上香，上王殿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上王殿下禪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후략)</p>
<p>世宗 5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p>	<p>예조에서 섭상주가 담제(禫祭)를 집행하는 의례를 아뢰기를, “그날 아침 일찍이 집사자가 축관을 영좌의 왼쪽에 두고, 향로와 향합과 초를</p>	<p>禮曹啓攝喪主攝行禫祭儀曰：其日質明，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p>



<p>17年) 10月 22日(癸巳) 3번째기사      섭상주가 담제를 섭행하는 의례 절차</p>	<p>영좌 앞에 마련하고, 존소(尊所)를 호외(戶外)의 왼쪽에 마련하고, 세(洗)를 동쪽 층계의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작세(爵洗)는 서쪽에 두고, 또 여러 집사들의 세를 동남에 북향하여 마련합니다. 집사자는 손을 씻고서, 잔을 씻고 잔을 닦아서 동쪽 층계로 해서 올라가 존소에다 놓고, 제물 음식을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차려 놓습니다. 섭상주 및 대축과 여러 집사들은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 재배하고 곡합니다. 섭상주는 관세 자리에 나아가 손을 씻고, 그것이 끝나면, 동쪽 층계로 해서 올라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립니다. 집사자가 차와 술을 드리면, 섭상주는 차를 모사에 붓고 세 번 술을 드리고 부복했다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 꿇어앉으면, 대축이 영좌의 왼쪽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그것이 끝나면, 섭상주가 부복했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합니다. 섭상주 및 대축 이하 여러 사람들은 다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고 곡하고 차례로 나갑니다.”      하였다.</p>	<p>設香爐、香合竝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又設諸執事洗於東南，北向。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攝喪主及大祝、諸執事入就位再拜哭。攝喪主詣盥洗位盥悅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跪三上香。執事者進茶酒，攝喪主酌茶三奠酒，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攝喪主俛伏、興、再拜哭。攝喪主及大祝以下俱降復位，再拜哭，以次出。</p>
<p>세종 6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1월 3일(계묘) 1번째기사      상왕이 임금과 강원도에서 대규모로 강무하다</p>	<p>(전략)이날 평구역(平丘驛)256) 등처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양주(楊州) 조시배령(曹時背嶺) 남쪽에서 점심을 먹었다. 경기 감사 조치(曹致)와 경력(經歷) 유사근(柳士根) 등이 와서 뵈옵고 술과 과일을 올리므로, 첨총제 이상을 장전(帳殿) 앞에서 호궐(犒饋)하고, 시위하는 대소 인원에게 술을 하사하도록 명하였다. 드디어 용진(龍津) 남쪽에서 사냥하고, 용진 여울을 건너 남쪽 언덕에 유숙하였는데, 조치가 또 술과 과일을 올리므로, 시위하는 대소 인원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매양 주정(晝停)에서나 숙소에서 반드시 &lt;지방에서&gt; 바치는 술을 시위하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p>	<p>(전략)是日，觀鷹于平丘驛等處，晝停于楊州曹時背嶺之南。京畿監司曹致、經歷柳士根等來見，仍進酒果。命饋僉總制以上于帳殿前，賜酒于侍衛大小人。遂獵于龍津之陽，涉龍津灘，次于南岸。曹致又獻酒果，命分賜侍衛諸人。每晝停、宿所必以所獻酒，分賜侍衛諸人。</p>
<p>世宗 6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11月 5日(乙巳) 1번째기사</p>	<p>두 임금이 길을 가면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원주(原州) 북쪽 경계에서 점심을 먹었다. 강원도 감사 성엄과 경력 우경부(禹敬夫)·병마 절제사 현귀명(玄貴命)·경력 이명보(李明保)들이 와서 알현하였는데, 엄이 술과 과일을 올렸다. 저물녘에 우레와 번개가 치면서 비가 왔다. 어가가 횡성(橫城) 사기소(沙器所)</p>	<p>乙巳/兩上沿路觀鷹，晝停于原州北境。江原道監司成揜、經歷禹敬夫、兵馬節制使玄貴命、經歷李明保等來見，揜進酒果。暮，雷電以雨。駕次</p>

<p>길을 가면서 매사냥을 하고 원주 북쪽에서 접시를 먹다</p>	<p>에 도착하여 유숙하였는데, 엄이 또 술과 과일을 올렸다.</p>	<p>橫城沙器所，揜又進酒果。</p>
<p>世宗 6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11月 27日(丁卯) 1번째기사 동지 망궐례를 행하고 의식대로 조하를 받다</p>	<p>(전략)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수강궁에 나아가, 임금은 면복, 백관은 조복(朝服)을 입고 진하(陳賀)하고, 양전(兩殿)에게 걸 옷감과 안짚을 진상하여 헌수(獻壽)하고자 하니, 상왕이 중지시키고 내전에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의정부와 육조가 입시하였다.</p>	<p>(전략) 上率百官，詣壽康宮。上具冕服，百官具朝服陳賀，進表裏于兩殿，欲獻壽，上王止之。御內殿設酌，政府、六曹入侍。</p>
<p>세종 6권, 1년(1419 기해 / 명 영락(永樂) 17년) 12월 3일(계유) 2번째기사 마조제를 청탁하여 잔치를 벌이거나 한 사복시 관리들을 처벌하다</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사복시(司僕寺) 관리들이 마조제(馬祖祭)를 청탁하고 살곶이[箭串]에 모여서 소를 잡고 기생을 이끌어 방자하게 잔치를 벌였으며, 또 저화(鳥) 목자간(牧子干)에게 나누어 보내고 〈저화〉 1장에 소금 1섬씩을 거두어 무릇 98섬이었는데, 그 소금을 쌀과 바꾸어 술을 빚었으며, 판사 홍거안(洪居安)은 구사(丘史)를 호관(壺串) 목장에 보내어 들풀[郊草]을 베어 들여 사용(私用)하였으니, 율에 의거하여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므로, 윤(尹) 송희미(宋希美)와 소윤(少尹) 장합(張合) 및 겸관(兼官) 김영보(金永寶)·이원길(李原吉)·양춘무(楊春茂)·이자(李仔)·홍약(洪約)·이희목(李希牧)·김척(金陟)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고, 판사 홍거안(洪居安)·소윤 양점(梁漸)들의 직첩을 환수하고 속장 60대에 처하게 하였다</p>	<p>司憲府啓：“司僕寺官吏等托以馬祖祭，會于箭串，宰牛携妓，恣意設宴。又分送楮貨于諸鳥牧子干，每一張收鹽一石，凡九十八石，換米釀酒。判事洪居安遣丘史于壺串牧場，刈取郊草私用。請依律科罪。”命下尹宋希美、小尹張合及兼官金永寶·李原吉·楊春茂·李仔·洪約·李希牧·金陟等于義禁府。收判事洪居安、小尹梁漸等職牒，贖杖六十。</p>
<p>世宗 6卷, 1年(1419 己亥 / 명 영락(永樂) 17年) 12月 7日(丁丑) 5번째기사</p>	<p>예조에서 〈산릉의〉 개토·참토 제의(開土斬土祭儀)를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계하였다. “제사 지내기 3일 전에 해야 할 일은 집사관이 모두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룻 동안 치재(致齋)한다. 참토젯날 축시(丑時)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잡</p>	<p>禮曹啓開土、斬土祭儀曰： 前祭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祭日丑時，書雲觀於所得地，掘兆四隅外其壤，掘中南其壤，各</p>

산릉의 개토와 참토  
제의 절차

은 터에다가 광중(壙中)을 파는데, 네 모퉁이를 파서는 그 흙을 바깥쪽으로, 북관을 파서는 그 흙을 남쪽으로 제쳐 놓고 각각 표목 하나씩을 세우고, 남쪽문이 되는 곳에 표목 2개를 세운다. 집사자(執事者)가 후토씨(后土氏)의 신위를 북관 표목의 왼편에 설치하는데 남향하여 돛자리를 깔고, 헌관(獻官) 자리는 신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고, 그 뒷편 북쪽에 집사자 자리를 설치하되 서향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헌관의 서남편에 설치하되 서향하고, 축판(祝板)은 신위의 오른편에 두고, 향로와 향합은 축대(燭臺)와 함께 신위 앞에 둔다. 다음으로 제기(祭器)와 찬(饌)을 진설(陳設)하는데, 변(邊) 여덟 그릇을 왼편에 석 줄로 놓되 오른편으로부터 놓는다. 【첫 줄은 형염(形鹽)을 앞에 놓고, 생선포를 다음에 놓으며, 둘째 줄은 마른 대추를 앞에 놓고, 황률(黃栗)과 개암[榛子]을 다음에 놓으며, 셋째 줄은 능인(菱仁)을 앞에 놓고, 검인(芡仁)과 녹포(鹿脯)를 다음에 놓는다. 】 두(豆) 여덟 그릇은 오른편에 석 줄로 놓되, 왼편으로부터 놓는다. 【첫 줄은 달래 김치를 앞에 놓고, 젓갈을 다음에 놓으며, 둘째 줄은 무우 김치를 앞에 놓고, 사슴 젓과 미나리 김치를 다음에 놓으며, 셋째 줄은 토기 젓을 앞에 놓고, 죽순 김치와 생선 젓을 다음에 놓는다. 】 보(簠)·궤(簋) 각 두 그릇은 변과 두 사이에 놓되 보를 왼편에, 궤를 오른쪽에 놓는다. 【보기에는 벼와 기장[粱]을 담는데, 기장을 벼 앞에 두며, 궤에는 메기장[黍]과 피[稷]를 담는데, 피를 메기장 앞에 둔다. 】 작(爵)은 보와 궤의 앞쪽에 놓고, 준소(樽所)는 신위 동남쪽에 북향으로 진설하고, 또 동남쪽에 북향으로 관세(盥洗)를 두 곳에 설치한다. 【헌관의 관세는 동편에, 집사의 세는 서편에 둔다. 】

행사는 집사관이 각자 공복을 입고,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배례할 위치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서 사배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축(祝) 및 집사자를 인도하여 배례할 자리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서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축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관세 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

立一標，當南門立兩標。執事者設后土氏神位於中標之左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西向北上。奠祝板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邊八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次之。第二行，乾棗在前，黃栗、榛子次之。第三行，菱仁在前，芡仁、鹿脯次之。】豆八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醯醢次之。第二行，青菹在前，鹿醢、芹菹次之。第三行，兔醢在前，笋菹、魚醢次之。】簠簋各二在邊豆間，簠在左，簋在右，【簠實以稻粱，粱在(藉)〔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爵在簠簋前。設尊於神位東南，北向，又於東南設盥洗二，北向。【獻官洗在東，執事洗在西。】行事執事官各具公服。至時，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北向。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皆四拜，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

	<p>으로 닦은 다음, 각자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정한 위치에 들어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창한다. 헌관이 사배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 서서 &lt;찬자의&gt; 찬(贊)으로 홀을 쬐고, 손을 씻고 닦은 다음 【손 씻는 것과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lt;찬자의&gt; 찬으로 홀을 잡고 &lt;알자의&gt; 인도로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執樽者)가 먹(罌)을 들어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술을 작에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해섰다가, &lt;찬자의&gt; 찬으로 꿇어앉아서 홀을 쬐으며 &lt;찬자의&gt; 찬으로 향을 세 번 올린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서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lt;찬자의&gt; 찬으로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을 다 읽으면, 알자의 찬으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헌관이 사배한 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축 이하 모두 사배한 다음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와 찬자도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오면, 집사자가 찬을 걸어 치운다. 헌관 하나 【정3품.】, 축사(祝史) 하나, 알자 하나, 찬자 하나, 재랑(齋郎) 하나이다. 【모두 참외(參外) 6품 이하.】.” 라고 하였다.</p>	<p>獻官四拜。 謁者引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贊搯笏， 盥手帨手。 【盥(水) [手] 帨(水) [手] 不贊】 贊執笏， 引詣樽所， 西向立， 執樽者舉罌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 北向立， 贊跪搯笏， 贊三上香。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執笏， 俛伏、興、小退， 北向跪， 祝就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退復位。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出。 謁者引祝以下就拜位， 立定， 贊者曰四拜， 祝以下四拜， 謁者引出。 謁者、贊者就拜位， 四拜而出， 執事者徹饌 [撤饌]。 獻官一， 【正三品】 祝史一， 謁者一， 贊者一， 齋郎一。 【竝參外】</p>
<p>86. 世宗 6卷, 1年 (1419 己亥 / 명 영락 (永樂) 17年) 12月 11日(辛巳) 8번째기사</p>	<p>진제(賑濟)하기 위하여 나누어준 쌀과 콩은 징수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命以賑濟分給米豆勿徵。</p>

<p>진흙하기 위해 나누어 준 미두는 징수하지 말게 하다</p>		
<p>87. 世宗 6卷, 1年 (1419 己亥 / 명 영락 (永樂) 17年) 12月 14日(甲申) 2번째기사 의령부원군 남재의 줄기</p>	<p>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가 죽었다. 조회와 저자[市]를 3일 동안 정지하고, 부의(賻儀)로서 쌀과 콩 각 70섬, 종이 2백 권을 주고 관에서 장사를 비호(庇護)하고 시호를 충경(忠景)이라 하였는데, 자신을 위태하게 하면서 윗사람을 받든 것이 충이고, 의(義)에서 행하면서 일을 이루는 것이 경이다. (후략)</p>	<p>宜寧府院君南在卒。 停朝市三日， 致賻米豆七十石、 紙二百卷， 官庀葬事。 諡忠景， 危身奉上忠， 由義而濟景。 (후략)</p>
<p>88. 세종 6권, 1년 (1419 기해 / 명 영락 (永樂) 17년) 12월 15일(을유) 3번째기사 경녕군을 총애해 준 것 등에 감사하는 사은표와 방물표</p>	<p>방물표(方物表)에 말하기를, “황제의 돌보심이 깊으시어 비상한 은혜를 거듭 입사와 변변치 못한 토산물로 겨우 사례하는 정성만 표하기 위하여, 삼가 황세저포 20필, 백세저포 30필, 흑세마포 1백 필,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황화석 10장, 잡채화석 10장, 인삼 1백 근, 잣[松子] 2백 근, 잡색 말 30필을 준비하였는데, 위에 적은 물건은 제조가 정하지 못하고 명목이 매우 적으나, 중심에서 나온 신의인 줄 알고 윗사람에게 바치는 예의로서 용납하소서.” 하였다.</p>	<p>方物表曰： 天眷悉深， 荐蒙殊渥， 土宜不腆， 聊表謝忱。 謹備黃細苧布二十四、 白細苧布三十四、 黑細麻布一百匹、 滿花方席一十張、 黃花席一十張、 雜彩花席一十張、 人蔘一百觔、 松子二百觔、 雜色馬三十四。 右件物等， 製造匪精， 名般甚寡。 冀諒由中之信， 俯容享上之儀。</p>
<p>89. 세종 6권, 1년 (1419 기해 / 명 영락 (永樂) 17년) 12월 18일(무자) 6번째기사 경녕군 이비가 황제가 하사한 양·《음즐서》·꿀 등을 올리다</p>	<p>경녕군 이비가 황제가 하사한 양 4백 60마리, 《음즐서》 22궤(櫃), 《명칭가곡》 30궤, 꿀[蜜]에 담긴 용안(龍眼) 2항아리, 꿀에 담긴 여자(荔子) 2항아리, 담긴 호초(胡椒) 2항아리 등의 물품을 올렸다.</p>	<p>敬寧君排進皇帝所賜羊四百六十頭、 《陰鷲書》二十二櫃、 《名稱歌曲》三十櫃、 蜜沈龍眼二缸、 蜜沈荔子二缸、 沈胡椒二缸等物。</p>

<p>90. 세종 6권, 1년 (1419 기해 / 명 영락 (永樂) 17년) 12월 19 일(기축) 9번째기사 대행 상왕의 반우주(返虞主)할 때의 행렬 차림과 그 절차</p>	<p>(전략) 그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의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놓는데, 점(坫)이 있고, 폐비(幣篋)는 준소(尊所)에 늘어 놓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제기와 찬 담은 그릇을 늘어놓고, 술그릇은 지계문[戶] 밖의 왼편에 두는데 모두 작(勺), 먹(罍)을 첨가하여 북향이요 서상(西上)345) 이며, 세(洗)는 동계 동남에 두는데 북향이요, 관세는 동쪽에 있게 되고 작세는 서쪽에 있으며, 반(盤)·이(匱)·뇌(甕)는 세의 동쪽에 두고 작을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에 두고 건(巾)을 넣어 둔다. 만약 작세의 비에는 또 작을 담는다. 아헌과 중헌의 세는 그에서 동남쪽에 두고 북향으로 하되,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으며, 뇌는 세의 동쪽에 두고 작을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에 놓고 건을 넣어 둔다. 만약 작세의 비라면 역시 작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과 중헌 세의 동남에 북향으로 한다.</p> <p>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이 그의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찬을 차려 놓는다. 여러 향관 및 따라 참사할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 밖에 이르게 된다.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앞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 중행(重行)으로 북향이요 서상(西上)으로 사배하고 각기 자기 자리에 서게 된다. 찬인(贊引)이 전사관(典祀官)·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대개 집례가 무슨 말이 있게 되고, 찬자는 모두 전갈(傳囑)하게 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를 마치고, 각각 제 자리에 서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좌에 앉게 하고, 통례는 참사하려는 종실로부터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기 자리에 서게 하고, 알자는 아헌관·중헌관을 인도하여 그의 자리에 서게 하고, 대축이 케를</p>	<p>(전략) 其日未行事前, 典祀官率其屬, 入奠祝版於靈座之左有坫, 陳幣篋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 皆加勺罍, 北向, 西上。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有盤匱。 甕在洗東加勺, 篋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篋則又實以爵。 亞終獻洗, 又於東南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甕在洗東加勺, 篋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篋則又實以爵。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 北向。 時至, 典祀官率其屬, 入實饌具畢, 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四拜, 各就位。 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囑。】典祀官以下四拜。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 盥洗訖, 各就位。 判通禮導殿下, 詣幄次即座,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 入就位。 大祝開匱, 奉出虞主設於座, 覆以白苧</p>
---	---	--

열어 우주를 좌에 모시고 백저건(白苧巾)으로 덮어 놓는다. 집사자는 작세위에 나아가 찬(瓚)을 씻어 닦아 놓고, 작을 씻어 닦아 비(篚)에 담아 준소에 나아가 점(坫)위에 올려놓으면, 예조 판서는 악(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초우례(初虞禮) 지내기를 청하고 구부렸다 다시 일어선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서럽게 운[哭]다. 집례가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했던 전원이 모두 사배하고 서럽게 운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내시가 무릎 꿇고 이(匱)를 들고 일어나 물을 부으면, 내시 한 사람은 무릎 꿇고 반(槃)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무릎 꿇고 수건을 비(篚)에서 갖다 드리게 된다. 전하가 손씻기를 마치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비에 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오르면, 근시 내시도 따라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맥(纂)을 들어 울창(鬱鬯)346) 을 부으면, 근시는 찬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으면, 무릎 꿇기를 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가지고 무릎 꿇고 앞에다 놓으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들어 앞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청하면, 근시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 놓고, 또 근시가 찬을 가지고 무릎 꿇고 내밀면, 판통례는 찬을 들어 땅에 붓기를 청하고, 끝나면 찬은 근시에게 준다.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가지고 무릎 꿇고 올리면, 판통례는 집폐 헌폐(獻幣)하기를 청한다. 폐를 가지고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대개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동에 서서 서향으로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는 서에서 동향으로 하나니, 진작(進爵) 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먼저 자리로 물러선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는 전하를

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初虞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槃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脫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皆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섰으면, 집준자(執尊者)는 먹을 들어 술을 붓고 근시는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꿇어앉기를 청하고 근시는 작을 가지고 무릎 꿇고 내밀면, 판통례는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청한다.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고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면,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먼저 자리에 서게 한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 씻고, 씻기를 마치면,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집준자는 먹을 들어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으면, ‘무릎 꿇어라.’ 한다.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관하면서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하고,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먼저 자리로 내려선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亞獻)하던 절차와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먼저 자리로 물러선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서럽게 곡한다. 집례(執禮)가 이르기, ‘여러 관원들을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한 사람은 모두 사배하고 서럽게 곡한다.

예조 판서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다고 고하고, 고한 다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서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고, 알자는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통례문(通禮門)은 참사하였던 여러 관원을 나누어 모시고 질서 있게 나가고, 찬인(贊引)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솔하고 모두 배위(拜位)에 찾아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近侍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以爵跪進， 判通禮啓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靈座前。 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 大祝進靈座之左， 西向跪， 讀祝文訖。 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 導殿下降復位。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帨手訖， 謁者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 詣靈座前北向立， 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小退， 再拜哭， 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衆官四拜哭， 在位者皆四拜， 哭盡哀。 禮曹判書跪啓禮畢， 啓訖， 俛伏、興。 判通禮導殿下還幄次， 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 通禮門分引陪祭群官以次出。 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 俱復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 贊引以次引出， 大祝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질서 있게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은 우주 들여넣기[納]를 절차에 의하여 하고, 집례·알자·찬자·찬인은 각기 제자리에 나아가 사배하고 물러나간다. 전사관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대축은 집사들을 거느리고 혼백을 받들어 쓰이지 않는 깨끗한 땅에 묻고, 축관은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여러 관원은 반(班)을 옮겨 동반수(東班首)에 가까이 와서 이름을 써서 위문[奉慰]하게 한다. 유일(柔日)347) 을 당하면 재우(再虞)를 지내게 되는데, 삼우(三虞)로부터 칠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일(剛日)348) 에 지내게 되고, 절차는 모두 초우와 같다.”

하고, 섭행하는 절차에 이르기를,

“집례가 초헌관 자리[位]를 동계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아헌·종헌의 자리는 초헌관의 뒤로 하면서 조금 남쪽으로 하고 서향이며 북상(北上)이다. 집사자는 그 뒤로 세우면서 위치[位]가 다르면 겹[重行]으로 서게 되고 모두 서향이며 북상이다. 감찰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에 가까이 하고 서향이며,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고 섰고, 집례의 자리는 동계에서 서남으로 하고 서향이며, 알자·찬자·찬인은 남쪽에서 조금 물러서 있는데 모두 서향이고 북상이다.

그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의 왼편에 두는데, 점(站)349) 이 있고, 폐비는 준소에 늘어 놓고, 향로·향합·초[燭]까지 영좌 앞에 배설하고, 그 다음 계기와 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소는 지계문[戶] 밖으로 왼편인데, 모두 작과 먹을 갖추고 북향이요 서상이며, 세는 동계 동남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는 동에 있으며, 작세는 서에 있고, 뇌(鬯)는 세의 동쪽에 두고 작을 올려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納虞主如儀。執禮率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大祝帥執事，奉魂帛，埋於屏處潔地，祝版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遇柔日行再虞。自三虞至七虞，並於剛日行祭，儀皆如初虞。

攝行儀曰：

執禮設初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終獻官位於初獻官之後稍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小退，俱西向北。其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左有坵，陳幣籩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籩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籩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

놓고 건을 넣어 둔다. 작세의 비와 같은 것에는 또한 작을 담아 두고, 여러 집사의 관세는 헌관 세의 동남에 북향으로 한다.

시간이 되면 전사관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에 담기[實]를 끝내면, 여러 향관들은 모두 전문 밖에 나오게 된다.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 배위에 나가는데, 겹쳐[重行]서고 북향이며 서상(西上)으로 사배하고, 제자리에 찾아 선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 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전정 배위에 나르면, 집례가 ‘사배하라.’ 한다. 대개 집례가 무슨 말이 있으면, 찬자는 모두 전갈하게 되는 것이다. 감찰 이하 사배하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끝마치고 각기 제자리에 찾아 선다. 대축은 궤를 열고, 우주를 내어 좌에 모시고 백저건(白苧巾)으로 덮는다. 집사자는 작세위에 나아가 찬과 작을 씻고 닦아서 비에 담아 준소에 나아가 점위에 놓는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아(亞)·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가게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초헌관 이하 모두 사배하고 곡하게 되는데,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초우례(初虞禮) 지내기를 청하고,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손 씻고, 씻기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는 먹을 들어 울창을 붓는다. 집사자가 찬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으면,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가지고 있다가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하면, 집사자는 향로를 안(案)에 놓고, 집사자가 찬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찬을 손으로 잡아 땅에 붓고, 끝나면 찬을 집사자에게 내어 준다. 대축은 폐비를 가지고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집폐 헌폐하여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대개 봉향(奉香)이나, 수

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 西上, 四拜, 各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 監察以下四拜。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悅訖, 各就位。 大祝開匱, 奉出虞主, 設於座, 覆以白苧巾。 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坫上。 謁者引初獻官, 贊引引亞終獻官入就位, 執禮曰四拜哭, 初獻官以下皆四拜哭。 【先拜者不拜】 謁者進初獻官之左, 請行初虞禮, 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手悅手訖, 引初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執事者以瓚受酒。 謁者引初獻官, 詣靈座前北向立,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初獻官, 初獻官執瓚灌地訖, 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靈座前。 凡奉香授瓚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受瓚、奠幣, 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倣此。 謁者

찬(授瓚)이나, 수폐(授幣)는 모두 헌관의 오른편에 있고, 전로나, 수찬이나, 전폐는 헌관의 왼편에 있으며, 수작(授爵)과 전작(奠爵)도 이에 따른다. 알자가 ‘구부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된다. 조금 있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섰으면, 집준자는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으면, ‘끓어앉아라.’ 말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집작, 헌작으로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북향으로 끓어앉아라.’ 하면,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끓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 제자리에 서게 한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손씻고, 씻기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섰으면, 집준자는 먹을 들어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으면, ‘끓어앉아라.’ 말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작으로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찬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亞獻)의 절차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집례가 이르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참사한 사람들은 모두 사배하고 곡하게 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하면, 알자와 찬인은 각기 초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질서 있게 내보내고, 찬인은 감찰 및 전사관(典祀官)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를 찾아 섰으면, 집례가 ‘사배하라.’ 말한다. 감찰 및 전사관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질서 있게 나가게 한다. 대축

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初獻官降自東階復位。 小頃，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哭，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 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 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 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典祀官、諸執事皆四拜。 贊引以次引出，大祝納虞主如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

은 우주(虞主)를 의식에 의하여 들여 넣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오며, 전사관은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걷어치우며, 대축은 집사자를 거느리고 혼백을 받들어 쓰이지 않는 깨끗한 땅에 묻고, 축(祝)과 폐(幣)는 구덩이를 파고 묻는다. 칠우(七虞)도 이와 같다.” 하였다.

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大祝率執事者，奉魂帛埋於屏處潔地，祝幣瘞於坎。七虞同。

<p>91. 世宗 6卷, 1年 (1419 己亥 / 명 영락 (永樂) 17年) 12月 24日(甲午) 6번째기사 주상전에서 행의 절차</p>	<p>주상전(主上殿) 행의(行儀)에 이르기를,  “하루 전에 충호위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에 조금 동편에 마련하는데, 지형에 따라 배설하고, 그 날에는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를 전정의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정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고, 문관은 동편이요, 무관은 서편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치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하여 성덕 신궁 상왕 전하(聖德神功上王殿下)의 봉사(奉辭)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유사가 순(輶)을 중문 밖 한가운데 남향으로 들여다 놓고 의장과 명기는 유거 앞에 늘어 세운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계문 밖에 북향으로 정하고, 세는 동계의 동남에 북향으로 하고 【관세는 동에 있고, 작세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의 세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여 둔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동계로 올라 준소에 놓으면, 봉찬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 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예(禮) 진행하기를 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관통례는 전하를</p>	<p>主上殿行儀曰：  前一日，忠扈衛設殿下幄次於殯殿前近東，隨地之宜。其日，通禮門設殿下版位於殿庭當中北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隨地之宜，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俟聖德神功上王殿下奉辭訖，有司進輶於中門外當中南向，進柳車於外門外當中南向，儀仗、明器序列於柳車前。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盥手，洗爵拭爵，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通</p>

인도하여 악(幄)에서 나와 관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끝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무릎 꿇고 삼상향하기를 청한다.

【진향·진노·전향·전노는 모든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를 내놓으면, 전하는 너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이것도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아라.’ 청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하여 무릎 꿇고 축문을 읽고 끝마친다.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서 조금 물러서게 한다. 집사자가 애책과 옥위를 전(奠)의 동쪽에 배설하고, 직장(職掌)은 먼저 책안을 받들어 옥위에 서향으로 놓아두면, 봉애책관은 올라와 책안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는다. 판통례가 무릎 꿇기를 청하면, 전하는 꿇어앉는다. 전의가 ‘무릎 꿇어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꿇어앉는다. 봉책관이 책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을 읽고 나서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봉책관이 책을 가지고 교서 관원(校書館員)에게 주어 상서사 원(尙瑞司員)에게 주게 한다.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 청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전의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집사자는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잠깐 악차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여재궁관이 순을 전계 아래 내려 놓으면, 대축은 혼백함을 받들어 수레 위에 모시는데, 우주례는 그 뒤에 놓인다. 집사자가 시책·시보·애책을 받들어 여(輿)에 넣는다 한다.”(후략)

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帨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小退於位。執事者設哀冊褥位於奠東，職掌先奉冊案，置於褥位西向，奉冊官奉冊，升詣冊案前跪，奠於案上，俛伏，興，小退跪。判通禮啓請跪，殿下跪。典儀曰跪，在位者皆跪。奉冊官詣冊案前跪舉冊，讀冊官跪讀冊訖，俛伏，興退。奉冊官以冊授校書館員，以授尙瑞司員，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典儀曰俛伏，興，再拜哭，在位者皆俛伏，興，再拜哭盡哀。執事者徹禮饌。判通禮導殿下，權歸幄次，通禮

		<p>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昇梓宮官進輜於殿階下，大祝以輿奉魂帛函，安於車上，虞主置在其後。 執事者奉諡冊、諡寶、哀冊置於輿 (후략)</p>
<p>92. 세종 6권, 1년 (1419 기해 / 명 영락 (永樂) 17년) 12월 25일(을미) 7번째기사 《사후토엄광전의》 등의 의례 절차</p>	<p>예조의 장계에,  “《사후토엄광전의(謝后土掩壙奠儀)》 및 《입주전의(立主奠儀)》와 《사후토의(謝后土儀)》에 이르기를, ‘흙 덮음이 끝나기를 기다려, 집사자는 현궁의 왼편의 땅을 쓸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위를 남향으로 배설하는데 왕골 자리를 사용하고, 헌관의 자리는 신위에서 동남쪽으로 하면서 서향으로 하고, 집사자는 그 뒤로 자리를 잡는데, 서향이요 북상이며, 찬자(贊者)는 헌관의 서남쪽으로 자리하는데, 서향이요 북상이다. 축관은 신위의 오른쪽에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제기와 찬 담을 기구【찬품(饌品)은 개영역(開塋域)할 때 제수와 같다.】를 배설하고, 준소는 신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놓고, 세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여 놓는다. 제사지낼 집사는 각각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알자·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고 제자리에 물러선다. 알자가 축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절할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 이하는 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끝마치고 각기 제자리를 찾아 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p>	<p>禮曹啓謝后土掩壙奠儀及立主奠儀。 謝后土儀曰：  埃覆土既畢， 執事者於玄宮之左除地， 設后土氏神位， 南向， 席以莞。 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 西向北上， 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 西向北上，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饌品與開塋域祭同】設尊所於神位東南， 北向， 設洗於其東南， 北向，【盥洗在東， 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其東南， 北向。 行事執事官各具公服。 時至， 謁者、贊者先就拜位， 北向四拜訖， 就位， 謁者引祝及執事者， 入就拜位， 北向。 立定， 贊者曰四拜， 祝以下四拜， 詣盥洗位盥帨訖，</p>

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홀을 깨끗이 손 씻고 닦아라’ 【손 씻고 닦는 것은 가리키지 않는다.】 하고, 다시 홀을 잡게 하고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섰으면, 집준자(執尊者)는 떡을 들어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무릎 꿇고 홀 깨끗이 세 번 향불을 올리라.’ 하면, 집사자는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작을 잡아 올리려고 작을 집사자에게 전해 주면, 집사자는 신위 앞에 올리게 된다.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하고, 축은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알자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서 제자리에 서라.’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는 축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서 있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 이하는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헌관이 한 명 【정삼품.】, 축사가 한 명, 알자가 한 명, 찬자가 한 명, 재랑(齋郎)이 한 명 【모두 참외(參外)다.】 이다.’ 하였고, 《엄광전의(掩壙奠儀)》에 이르기를, ‘홀을 덮어 마치기를 기다려 통례문은 총호사(總護使)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여러 집사의 자리는 총호사의 뒤로 정하는데, 맡은 것이 다르면 두 줄로 서게 하고, 모두 서향이며 북상이다.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연도(羨道)의 좌우로 남쪽에 가까이 세우는데, 종실은 서에 있게 되고,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치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고,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축관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두고, 향로·향함·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정하고, 세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하며, 【관세는 동에 있고 작세는 서에 있게 된다.】 여러 집사의 세는 거기서 동남으로 북향하게 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고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다

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祝就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退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祝以下，就拜位，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謁者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徹饌〔撤饌〕，祝版瘞於坎。獻官一、【正三品】祝史一、謁者一、贊者一、齋郎一。【竝參外】

掩壙奠儀曰：  
 埃覆土既畢，通禮門設總護使位於東階東南，西向，設諸執事位於總護使之後，異位重行，俱西向北，設宗室以下群官位於羨道左右近南，宗室在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



두면, 봉찬은 영좌 앞에 올려놓게 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가게 하고, 봉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이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게 된다. 봉례랑이 총호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관세를 끝마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 영좌 앞에 나가 북향하여 서 있게 하고, ‘무릎 꿇고 세 번 향불을 올리라.’ 말하고, 집사자는 다주를 가지고 총호사에게 준다. 총호사는 너다와 삼전주를 끝마치면, 봉례랑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으라.’ 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봉례랑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내려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총호사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게 된다. 봉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집사자는 예찬을 거두어 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고, 《입주전의(立主奠儀)》에 말하기를, ‘현궁을 닫아 끝마치려면 통례문은 총호사의 자리를 장전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시중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장전 남쪽에 정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요, 중심이 머리가 되고, 위치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집사자는 탁(卓)을 영좌의 동남에 서향으로 배설하고, 욕반(浴盤)과 식건(拭巾)은 탁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 축판은 영좌의 왼편에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소는 장전 동남에 북향으로 정하고, 세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는 동에 있고, 작세는 서에 있다.】 여러 집사세(執事洗)는 거기서 동남 쪽에 북향으로 한다. 시간이 되면 통례문은 시중·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고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봉례랑은 총호사를 영좌 앞에 인도하여 북향하여 서 있게 하고, 대축이 우주를 받들어 내어 목욕시키고, 닭기를 마치고, 영좌 위에 모시며 흰

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爵拭爵，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於靈座前。通禮門分引宗室以下群官入就位，奉禮郎引總護使就位。立定，通贊贊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奉禮郎引總護使，詣盥洗位盥帨訖，引總護使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贊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總護使，總護使酌茶三奠酒，奉禮郎贊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奉禮郎贊俛伏，興，再拜哭，引總護使降復位。通贊贊再拜哭，總護使以下在位者，皆再拜哭。奉禮郎引總護使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群官以次出，執事者徹禮饌，祝版瘞於坎。立主奠儀曰：  
 埃閉玄宮將畢，通禮門設總護使位於帳殿之南，北向，侍從、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帳殿之南，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執事者設卓於靈座東南，西向，置浴盤拭巾於卓上，次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

모시 베 수건으로 덮어 놓는데, 혼백함은 그 뒤에 놓이게 된다. 총호사가 물러서서 제자리에 서게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작을 씻고 닦아 준소에다 둔다. 봉찬은 영좌 앞에 올려놓고, 봉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가 관세를 끝마치고, 총호사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 있게 하고, ‘무릎 꿇고 세 번 향불 올리라.’ 한다. 집사자는 다주를 가지고 총호사에게 준다. 총호사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봉례랑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라.’ 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봉례랑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라.’ 하고, 통찬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총호사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게 된다. 대축은 우주를 받들어 궤 속에 넣고, 봉례랑은 총호사를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집사자는 예찬을 거두어 치우며, 축판은 구덩이에 묻는다. '고 한다.' 하였다.

合并燭於靈座前， 設尊所於帳殿東南， 北向， 設洗於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諸執事洗又於東南， 北向。 時至， 通禮門引侍從、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立定， 奉禮郎引總護使， 詣靈座前北向立， 大祝奉出虞主浴拭訖， 奉安靈座， 覆以白苧巾， 魂帛函在其後， 總護使退復位。 執事者盥手， 洗爵拭爵， 置于尊所， 奉饌奠于靈座前。 奉禮郎引總護使， 詣盥洗位盥帨訖， 引總護使， 詣靈座前北向立， 贊跪， 三上香， 執事者以茶酒授總護使， 總護使酌茶三奠酒， 奉禮郎贊俛伏， 興， 小退， 跪。 大祝進靈座之左， 西向跪， 讀祝文訖， 奉禮郎贊俛伏， 興， 通贊贊再拜哭， 總護使以下在位者皆再拜哭。 大祝奉虞主納于匱中， 奉禮郎引總護使出， 通禮門分引群官以次出， 執事者徹禮饌， 祝版瘞於坎。

<p>93. 世宗 6卷, 1年 (1419 己亥 / 명 영락 (永樂) 17年) 12月 27 日(丁酉) 5번째기사 궁궐에서 만든 술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주 다</p>	<p>궐 내에서 만든 술을 양녕에게 내려주었다.</p>	<p>賜內醞于讓寧。</p>
<p>1.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월 13 일(임자) 4번째기사 예조에서 줄곡제의 절 차를 아뢰다</p>	<p>(전략) 그 날 행사가 있기 전에,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板)을 영좌의 우편에 놓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는 준소(尊所)에 진열하고, 향로와 향합과 축(燭)은 영좌 앞에 놓는다. 다음은 제기(祭器)에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소는 문밖 좌편에 두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다 국자[勺]를 올려놓고 보자기[幕]로 덮어 두며,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상으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되게 한다. 【관세(盥洗)는 동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에 있다.】 뇌(鼎)는 세의 동쪽에 두고 작을 걸쳐 놓는다. 광주리[簠]는 세의 서남쪽에 놓고 수건을 넣어 둔다. 【만약 세작(洗爵)하는 광주리면 작을 담는다.】 아헌관과 중헌관의 세는 동남쪽에서 북향으로 두고,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뇌는 세의 동쪽에 두어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고 수건을</p>	<p>(전략) 其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入奠祝板於靈座之右, 【有坫】陳幣簠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 玄酒在西, 皆加勺幕, 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鼎在洗東加勺, 簠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簠則又實以爵.】亞終獻洗又於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鼎在洗東加勺, 簠在洗西南, 肆實以巾; 【若洗爵之簠</p>

답아 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면 또 국자를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과 종헌 세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향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가 제수를 다 차린 다음에, 여러 향관(享官)과 배종하여 제사지낼 여러 제관이 다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두 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상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축(大祝) 및 재랑(齋郎)을 이끌고 전정에 들어가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다같이 전갈한다.】 전사관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이끌고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은 후 각기 제자리로 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앉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신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들어가 서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고, 대축이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고 나와 자리에 놓고 흰 모시건[白苧巾]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두었다가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탁자[坫]위에 둔다. 예조 판서가 나와 악차 앞에 이르러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한다. 그리고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板位)에 나아가 서쪽을 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애통을 다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내시가 꿇어앉아 세수대야[匱]를 들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내시가 꿇어앉아 쟁반[盤]으로 물을 받아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수건에 손을 닦으면,

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於座，覆以白苧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板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넣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서 들면, 근시가 찬(瓚)으로 술을 받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계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상향(上香)하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놓고, 근시가 꿇어앉아 찬을 올린다.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계청하여 마친 후에 찬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꿇어앉아 폐백 광주리를 올린다. 판통례가, ‘폐백을 드리라.’고 계청하면, <전하가> 그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무릇 향을 올리고, 폐백을 드림은 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드림은 다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며, 진찬·진작도 다 이와 같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나서 재배하고 곡하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나아간다. 조금 뒤에 판통례가 임금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준소에 올라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부으면, 근시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 후 꿇어앉기를 청하고, 근시가 꿇어앉아 잔을 올린다. 판통례가, ‘잔을 잡아 올리라.’고 계청하면, <전하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계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은뒤에,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그리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으로 물을 닦는다. 끝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낸다. 집사자가 작으

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鬱鬯, 近侍以瓚受酒, 判通禮導殿下, 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 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 以瓚授近侍, 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 判通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靈座前。【凡進香、進幣皆在東, 西向; 奠爐、受瓚、奠幣皆在西, 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 興, 小退, 再拜哭, 導殿下, 降自東階復位。小頃, 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 詣尊所, 西向立, 執尊者舉冪酌酒, 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 詣靈座前, 北向立, 啓請跪, 近侍以爵, 跪進, 判通禮啓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 興, 小退, 北向跪, 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判通禮啓請俛伏, 興, 再拜哭, 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 盥(水) [手] 帨(水) [手] 訖, 謁者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 西向立。執尊者舉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

	<p>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찬자는 꿇어앉고, 집사자는 잔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잔을 잡아 잔을 올리되, 잔은 집사자에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후략)</p>	<p>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 (후략)</p>
<p>2.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월 13일(임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졸곡제의 섭행하는 절차를 아뢰다</p>	<p>(전략) 폐백 광주리는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축은 영좌 앞에 놓는다. 다음은 제기(祭器)에 제수(祭物) 담을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소는 문밖[戶外]의 왼쪽에 차려 놓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놓아 두고, 다 국자를 놓고 보자기로 덮어 두며,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상으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두되, 북향으로 하고,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뇌(壘)는 세의 동쪽에 두고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놓고 수건을 넣어 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면 작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으로 둔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가서 찬구를 담고, 끝나면, 여러 제향관이 다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가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 배위에 나아가 두 줄로 행렬지어 북향하되, 서쪽을 상으로 하여 네 번 절하고, 각각 배위에 나아가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대축과 재량을 이끌고 들어가 전정 배위(拜位)에 나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다 창한다.】 감찰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게 하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이끌고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은 다음 각각 제자리로 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白苧巾]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찬을 닦으며,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담아서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 탁자[坫] 위에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초헌관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행례하기를 청하고,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p>	<p>(전략) 陳幣籠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四拜。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白苧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籠，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哭，初獻官以下皆四拜哭。【先拜者不拜】謁</p>

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닦은 후에,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을 붓는다. 집사자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와 찬이 꿇어앉아 세 번을 향을 올린다. 집사자가 향로를 탁상에 올리면, 다른 집사자가 찬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이 찬을 잡아 땅에 붓고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올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무릇 봉향(奉香)·수찬(授瓚)·수폐(受幣)는 다 헌관의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奠爐)·수찬(授瓚)·전폐(奠幣)는 다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작을 받거나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와 찬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한 다음,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붓고,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이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이 작을 잡아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영좌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이 끝나면,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인도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닦은 후,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준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은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알자와 찬이 부복하였다

者進初獻官之左，請行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水) [手] 悅手訖，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冪，酌鬱鬯，執事者以瓚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跪，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初獻官，初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受大祝，奠于靈座前。 【凡奉香、授瓚、受幣皆在獻官之右；奠爐、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 受爵、奠爵準此。】 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初獻官降自東階復位。 小頃，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復位，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悅手訖，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

	<p>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한다. 찬인이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향하기를 아헌의 절차와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이라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초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자를 인도하여 함께 본디 배위(拜位)에 돌아와 서게 되면, 집례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과 전사관 및 모든 집사는 다 네 번 절한다. 찬인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이 우주 드리기를 절차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을 건어 치우고 축과 예폐를 북쪽 땅에 묻는다.” 하였다.</p>	<p>西向立。執尊者舉幕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典祀官、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p>
<p>3.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1月 16日(乙卯) 2번째기사 우대언 정초를 낙천정에 보내어 번육(膳肉) 과 제주(祭酒)를 드렸다. 집례(執禮) 유현(兪顯)을 대비 이어소(移御所)에 보내어 번육과 제주를 드렸다</p>	<p>우대언 정초를 낙천정에 보내어 번육(膳肉) 과 제주(祭酒)를 드렸다. 집례(執禮) 유현(兪顯)을 대비 이어소(移御所)에 보내어 번육과 제주를 드렸다.</p>	<p>遣右代言鄭招，獻膳肉、祭酒于樂天亭；遣執禮兪顯，獻膳肉、祭酒于大妃移御所。</p>
<p>4.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윤1월 9일(무인) 4번째기사</p>	<p>교지를 내리기를, “조계(朝啓) 때 날이 늦어 낭찬(廊饌)한다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육조 대간이 일이 늦어지고 밀리니, 이제부터는 해가 떠오를 때에 일제히 궁궐에 나오고, 낭찬은 각각 대잔(臺盞)에 한 번 탕(湯)을 드리고, 대언</p>	<p>下旨曰：“朝啓日晏，廊饌亦煩。因此，六曹、臺諫事或淹滯。自今日出時一齊詣闕，廊饌則各呈臺盞一度進湯，代言亦勿往參。且六曹及臺諫，</p>



<p>낭찬의 예식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p>	<p>(代言)도 가서 참여하지 말고, 또 육조와 대간은 매일 창덕궁 조방(朝房) 및 그 가까운 곳에 출사하고, 이것으로써 항식을 삼으라.” 하였다.</p>	<p>每日仕于昌德宮朝房及近處，以爲恒式。”</p>
<p>5.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閏1月 15日(甲申) 6번째기사 일본에서 사절을 보낸 데 대한 답례로 송희경을 보내다</p>	<p>(전략)이제 신하인 첨지승문원사(僉知承文院事) 송희경을 보내어 《대장경(大藏經)》 전부를 가져 가며, 또한 변변치 않은 토산물로 사례하는 뜻을 표시하오니,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봄날씨 쌀쌀하운데 나라를 위하여 건강하심을 다시금 바랍니다. 별폭(別幅), 《대장경》 전부, 말안장 한 벌과 베·모시·명주 각 10필, 잣[松子] 5백 근, 인삼·오미자(五味子) 각 50근, 꿀 15말, 표범의 가죽 5벌, 잡채 화문석(雜彩花紋席) 10장, 만화방석(滿花方席) 10장, 돈피 10장.” 하였다.</p>	<p>(전략)今遣臣僉知承文院事宋希璟，齎《藏經》全部，且以不腆土宜，聊表謝忱，惟領納。春寒，更冀爲國保重。別幅： 《大藏經》全部、鞍子一面諸緣具、麻布·苧布·絺紬各一十四、松子五百斤、人蔘·五味子各五十觔、蜂蜜十五斗、豹皮五領、雜彩花席一十張、滿花方席一十張、斜皮一十張。</p>
<p>6.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윤1월 18일(정해) 2번째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생원 시험의 방(榜)을 발표하다</p>	<p>인정전에 나아가 생원 시험의 방(榜)을 발표하였다. 유학 민원(閔瑗) 등 1백 명이 푸른 도포에 유관(儒冠)을 쓰고 차례대로 방을 부름에 따라, 차례대로 들어가서 궁전 마당에 나아가 네 번 절을 마치고 술과 실과를 주니, 여러 학생이 모두 허리를 굽히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꿇어앉아 술잔 받기를 마치고, 또 구부러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네 번 절하고, 시신(侍臣)과 삼관(三館)이 모두 절차대로 예를 행하고, 모든 생원은 사흘 동안 유가(游街)382) 를 하였다.</p>	<p>御仁政殿，放生員試榜。幼學閔瑗等一百人服青衿儒冠，以次應榜，入就殿庭，行四拜訖，賜酒果，諸生俯伏，興，跪，受爵訖，又俯伏，興，四拜。侍臣、三館行禮，竝如儀。諸生等游街三日。</p>
<p>7.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閏1月 23日(壬辰) 4번째기사 원숙에게 술을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다</p>	<p>임금이 원숙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술을 금지할 적마다 청주(淸酒)를 마신 자로는 죄에 걸린 적이 없고, 탁주를 마시거나, 혹은 사고 판 자는 도리어 죄에 걸리니, 사정이 딱하다. 지금부터 술을 금하는 기간이라도 무릇 부모 형제에 대하여 환영이나 전송을 하든지, 혹은 늙고 병든 사람이 약을 마신다든지, 이를 위하여 매매하는 자는 금하지 말고, 그 놀기 위하여 술을 마시는 자와 다른 사람을 맞이하거나, 전송하느라고 마시거나, 매매하는 자는 일체로 금지함이 어떠할지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이</p>	<p>上命元肅曰：“每禁酒之時，飲淸酒者，曾不被罪，飲濁醪或買賣者，反罹於罪，情可矜也。自今禁酒時，凡父母兄弟迎餞、老病服藥及買賣者勿禁，其會飲及他人迎餞者，一禁何如？議諸政府、六曹、臺諫以啓。”皆曰：“上教甚當。”</p>

	<p>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모두 말하기를, “임금의 말씀이 매우 합당하옵니다.” 하였다.</p>	
<p>8.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윤1월 28일(정유) 2번째기사 일본 구주 총관 평종 수가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 구주 총관(九州總管) 평종수(平宗秀)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九州總管平宗秀遣人來獻土宜。</p>
<p>9.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閏1月 28日(丁酉) 6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명전에 임 금이 제사 드리는 예 식을 아뢰다</p>	<p>(전략) 다음에 제기를 진설하고, 준소를 지계문 밖 좌편에 둔다.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전에 전사가 사당문을 열고 신주 모신 곳의 휘장을 깨끗이 튄다. 상왕 전하와 전하가 대차(大次)에 이르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물을 다 담아 고이고 마치면, 서운관(書雲觀)이 시간을 아뢰고, 통례문이 제사에 참여할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제자리에 나아가고, 봉례랑(奉禮郎)이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절차가 다 정비되었다.’ 아뢴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상왕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시위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자는 문밖에 서 있다.】 상왕 전하와 전하가 관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면, 판통례가 ‘사배하라.’고 아뢰어, 상왕 전하와 전하는 네 번 절한다. 통찬(通贊)이 ‘중관(衆官)은 사배하라.’ 창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동편 섬돌로 올라가서 【섬돌을 오르고 내릴 때에는 모두 읍(揖)을 한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한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서 【문밖에서는 읍을 하고, 문안에 들어가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선다 ‘꿇</p>	<p>(전략)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行禮: 享日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上王殿下與殿下至大次,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入實饌具畢。 書雲觀報時, 通禮門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 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 判通禮啓外辦。 小頃, 判通禮導上王殿下與殿下, 入自東門, 【侍衛不應入者, 止於門外。】 上王殿下與殿下至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 上王殿下與殿下四拜。 通贊唱衆官四拜, 在位者皆四拜。 判通禮導上王殿下升自東階, 【升降階上下皆有揖】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近侍一人以盞受酒, 判通禮導上王殿下入詣神位前 【戶外</p>

어앉으라.’ 아뢰면,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며, 다른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바친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올리라.’고 아뢰면, 근시는 향로를 향상 위에 올려 놓는다. 【향을 올릴 때에는 동편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놓을 때에는 서편에서 동향한다. 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릴 때에도 이대로 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고, 판통례가 ‘잔을 잡고 술잔을 올리라.’고 아뢰면,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소퇴, 북향괘하라.’ 아뢰면, 상왕 전하는 옆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고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례가 ‘면, 복, 흥, 재배.’라고 아뢰면, 상왕 전하는 옆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서 동편 섬돌로부터 내려가, 본자리에 돌아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편 섬돌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한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꿇어앉으면, 근시가 술잔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술잔을 받아 술잔을 올리라.’ 아뢰면,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소퇴, 북향하여 서라.’고 아뢰어, 전하가 옆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서면, 판통례가 ‘재배하라.’고 아뢰어, 전하가 두 번 절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서 동편 섬돌로부터 내려가서 본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동편 섬돌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잔으로 술을 받는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으면, 집사자가 술잔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봉례랑이 술잔을 받고, ‘술잔을

有揖，戶內伏地。】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爵準此】近侍奉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上王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一人以盞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神位前北向立，判通禮啓請跪，近侍奉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終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奉禮郎引終獻官，入詣神位前，贊跪，執事者奉盞跪進，奉禮郎贊執盞獻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奉禮郎贊俛伏，興，小退，北向立，贊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

	<p>올리라. '고 창하면, 종헌관은 술잔을 받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봉례랑이 '면, 복, 흥, 쇠퇴, 북향하여 서라. '고 창하면, 헌관이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선다. '재배하라.' 창하면, 헌관이 두 번 절한다. 봉례랑이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 동편 섬돌로 내려가서 제자리에 선다. 집사자가 음복(飲福)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 동편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라 근시에게 주면, 판통례가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근시는 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꿇어앉으라. '고 아뢰면, 상왕 전하는 꿇어앉아서 술잔을 받아 마시고 나면, 근시가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갖다 놓는다. 판통례가 '면, 복, 흥.' 하면, 상왕 전하는 엎드렸다 일어난다. 상왕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서 본자리에 돌아가면, 판통례가 상왕 전하와 전하는 재배하라고 아뢰어, 양 전하는 두 번 절한다. 통찬이 '여러 관원은 재배하라. '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두 번 절한다. 판통례가 '사배하라. '고 아뢰어, 상왕 전하와 전하가 네 번 절한다. 통찬이 '여러 관원은 사배하라. '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가 앞에 나아가서 '예식이 끝났습니다. '고 아뢰고, 상왕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참사한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가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데리고 제물을 거두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가서 곧 물러나며,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所，以盞酌福酒，授近侍。 判通禮導上王殿下，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判通禮啓請跪，受盞飲訖，近侍進受虛盞，復於(導)〔尊〕所。 判通禮啓請俛伏，興，導上王殿下下降復位。 判通禮啓請上王殿下與殿下再拜，通贊唱衆官再拜，在位者皆再拜。 判通禮啓請四拜，上王殿下與殿下四拜，通贊唱衆官四拜，在位者皆四拜。 判通禮前，啓請禮畢，導上王殿下與殿下還大次，奉禮郎引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群官以次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10.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2월 1일 (기해) 4번째기사</p>	<p>충청도 병마 도절제사 이천(李戡)·경상도 관찰사 이발(李潑)·우도 병마 도절제사 우박(禹博)·함길도 병마 도절제사 김정준(金廷僞) 등이 각기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p>	<p>忠淸道兵馬都節制使李戡、慶尙道觀察使李潑、右道兵馬都節制使禹博、咸吉道兵馬都節制使金廷僞等各遣人，獻方物。</p>

<p>충청도 병마도절제사 이천 등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p>		
<p>11.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2月 2日 (庚子) 3번째기사 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박초 등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p>	<p>전라도 병마 도절제사 박초(朴礎)·충청도 도관찰사 강회중(姜淮仲) 등이 각기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p>	<p>全羅道兵馬都節制使朴礎、忠淸道都觀察使姜淮仲等各遣人，來獻方物。</p>
<p>12.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2월 3일 (신축) 3번째기사 평안도 도관찰사 이지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p>	<p>평안도 도관찰사 이지강(李之剛)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 저녁에 유후사(留後司)의 황교(黃橋)에 머물렀다.</p>	<p>平安道都觀察使李之剛遣人來獻方物。夕次于留後司之黃橋。</p>
<p>14.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2月 4日 (壬寅) 2번째기사 평안도 병마 도절제사 이흥발 등이 각기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다</p>	<p>평안도 병마 도절제사 이흥발(李興發)·경상도 좌도 병마 도절제사 김만수(金萬壽) 등이 각기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p>	<p>平安道兵馬都節制使李興發、慶尙道左道兵馬都節制使金萬壽等各遣人，來獻方物。</p>

<p>15.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2월 5일 (계묘) 4번째기사 전라도 도관찰사 신호 가 사람을 보내어 지 방 특산물을 바치다</p>	<p>전라도 도관찰사 신호(申浩)가 사람을 보내어 지방 특산물을 바치니, 수행한 여러 신하와 군사에게 내려 주었다.</p>	<p>全羅道都觀察使申浩遣人來獻方物，命 賜大小隨駕諸臣及軍士。</p>
<p>16.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2月 11 日(己酉) 2번째기사 이숙묘가 술과 과일을 바치니 시위한 신하에 게 나누어 주다</p>	<p>이숙묘가 술과 과일을 바치니, 시위한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p>	<p>李叔畝獻酒果，命分賜侍衛臣僚</p>
<p>17.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2月 11 日(己酉) 3번째기사 강원도 관찰사 한승안 이 이명보를 보내어 문안하고 특산물을 바 치다</p>	<p>강원도 관찰사 한승안(韓承顏)이 경력 이명보(李明保)를 보내어 문안하고 지 방의 특산물을 바쳤다.</p>	<p>江原道觀察使韓承顏遣經歷李明保來 問安，獻方物。</p>
<p>18.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2월 15 일(계축) 4번째기사</p>	<p>서울에 있는 여러 신하가 이조 판서 윤곤(尹坤)을 보내어 와서 문안하고, 인 하여 술과 과일을 바쳤다</p>	<p>留都群臣遣吏曹判書尹坤來問安，仍獻 酒果。</p>

서울에 있는 여러 신하가 윤곤을 보내어 술과 과일로 문안하다		
19.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2월 16일(갑인) 1번째기사 박영·성효상 등이 하직 하니 물품을 하사하다	박영·성효상 등이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각기 옷 한 벌씩을 하사하고, 어가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장사도(張思道)와 삼군의 길을 인도한 장용(張勇) 등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다. 낮참에 평산부 사율이곡(沙乙以谷)에서 머물렀는데, 갑사가 술과 찬을 준비하여 크게 잔치를 베풀고 시위한 신하 및 군사를 대접하였는데, 아래로 하인들에게까지 미쳤다. 두 임금이 술을 차리고 풍악을 벌였는데, 시위한 재상들이 모두 들어와 시위하였다. 상왕이 성달생과 원운(元胤)에게 명하여 일어나서 춤을 추라 하고, 임금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원 총제(元摠制)는 장래에 장수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하였다. 저녁에는 평산부 산리(山里) 언덕에서 머물렀다.	甲寅/朴齡、成孝祥等奉辭， 上賜衣各一領， 又賜駕前指路張思道、三軍指路張勇等弓箭。 晝停于平山府沙乙以谷， 監司備酒饌， 大餉侍衛臣僚及軍士， 下至賤隸。 兩上置酒設樂， 侍衛宰樞皆入侍。 上王命成達生及元胤起舞， 顧謂上曰： “元摠制將任將帥之責矣。” 夕次于平山府山里之原。
20.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2月 20日(戊午) 2번째기사 장단현 산성에 머물러 향연을 베푼다	낮참에 장단현 산성(山城)에 머물러 술을 차리고 행차에 수행한 재상들에게 향연을 베푼다. 조치가 술과 고기를 바치니, 명하여 여러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저녁에 장단 나루 북쪽에서 머물렀다.	晝停于長湍縣山城， 置酒饗隨駕宰樞。 曹致獻酒肉， 命分賜于大小軍士， 夕次于長湍津北。
21.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3月 2日(庚午) 2번째기사 상왕이 이명덕에게 어머니를 문안할 술을 하사하다	상왕이 이명덕에게 명하여 이천현(伊川縣)에 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게 하고, 인하여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	上王命李明德覲其母于伊川縣， 仍賜酒肉。
22. 세종 7권, 2년	강원도 관찰사 한승안(韓承顏)이 와서 노루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고, 인하여	江原道觀察使韓承顏來謝賜獐， 仍獻簞

<p>(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3월 3일 (신미) 2번째기사 한승안이 와서 노루를 하사한 것을 사례하다</p>	<p>도롱이[簑衣] 및 술과 과일을 바치니, 상왕이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술과 과일은 호종한 군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p>	<p>衣及酒果，上王命饋之，分賜酒果于扈從軍士、臣僚。</p>
<p>23.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3월 4日 (壬申) 3번째기사 수행한 재상들에게 술을 주라고 하다</p>	<p>임금이 수행한 재상들에게 술을 주라고 명하였다.</p>	<p>上命賜酒于隨駕宰樞。</p>
<p>24.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3월 4일 (임신) 4번째기사 한승안이 햇채소를 바치다</p>	<p>한승안이 햇채소를 바쳤다.</p>	<p>韓承顏獻新菜。</p>
<p>25. 세종 7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3월 5일 (계유) 1번째기사 두 임금이 갑이천 벌에서 사냥하고, 평강 서남쪽에 머무르다</p>	<p>두 임금이 갑이천(甲伊川) 벌에서 사냥하고, 평강 서남쪽 들에 이르러 연(輦) 멈추고 조말생·이명덕·원숙·유영(柳穎) 등을 불러 술을 취하도록 주고, 저녁에 철원부 소을배동(所乙背洞)에서 머물렀는데, 조치·서미성 등이 내알하였다.</p>	<p>癸酉/兩上獵于甲伊川平，至平康西南郊駐輦，召趙末生、李明德、元肅、柳穎等，親賜酒至醉。夕次于鐵原府所乙背洞，曹致、徐彌性等來見。</p>
<p>26. 世宗 7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p>	<p>두 임금이 동정(東亭) 앞벌에서 매사냥을 구경하고, 또 금탄(金灘)에서 고기잡이를 구경하고, 인하여 낮참에 머물러 술을 차리고 풍류를 벌이니, 모시고 따</p>	<p>壬午/兩上觀鷹于東亭前平，又觀魚于金灘，仍晝停置酒張樂，隨駕宰樞皆入</p>



<p>(永樂) 18年) 3月 14日(壬午) 1번째기사 두 임금이 동정 앞벌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p>	<p>라간 재상들이 모두 입시하였다. 상왕은 낙천정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풍양이궁으로 나아가서 대비께 문안하였다.</p>	<p>侍。 上王還樂天亭， 上詣豐壤離宮， 問安于大妃。</p>
<p>27.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4월 7일 (을사) 6번째기사 예조에서 순효 대왕 혼전에 제사를 하사하는 의례에 대해 고하다</p>	<p>(전략) 제기에 찬수를 담아 진설하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되, 국자와 보자기를 갖추어 놓고, 홯불 지필 자리를 혼전 남쪽에 설치하며, 사신이 전(奠)드릴 자리는 영좌 앞 남쪽 가까이 차리고, 축문 읽을 자리는 축문상 남쪽에 설치한다. 상왕 전하와 전하의 설 자리는 영좌의 오른편으로 한다. 【전하가 설 자리는, 상왕 전하가 설 자리 뒤의 조금 서쪽에 한다.】 그날에 상왕 전하가 의장(儀仗)을 갖추고 혼전에 이르면, 【문무 근신이 시종하는 것은 보통 때와 같다.】 인례관(引禮官)이 상왕 전하를 전도하여 악차에 들어가 자리에 좌정하고, 전하도 의장을 갖추고 혼전에 도착하면, 【문무 근신이 모시어 따르는 것이 보통 때와 같다.】 인례관이 전하를 전도하여 악차에 들어가서 자리에 좌정한다.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이 조복을 갖추고 의장(儀仗)을 갖추어 태평관에 가서, 문밖에 좌우편으로 열을 나누어 서서 축문 용정(龍亭)과 사신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차례로 서서 전도하여 혼전에 도착하면, 백관이 먼저 말에서 내려 길 좌우로 열을 나누어 섰다가, 용정이 이르르면, 몸을 구부린다. 【지나가면 바로 편다.】 상왕 전하와 전하는 흰옷에 검은 사모를 쓰고, 흑각띠를 띠고, 인례관의 전도로 지영할 자리에 나아가 몸을 구부리었다가, 축문 용정이 도착하면, 인례관이 상왕 전하와 전하를 전도하여 다시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독축관(讀祝官)이 축문을 받들고 들어가서 상 위에 올려 놓으면, 인례관이 사신을 인도하여 전드릴 자리로 나아가다가, 【사신의 문에 들면, 제사에 참여하는 백관들은 조복을 벗고, 흰옷에 검은 사모와 흑각띠로 들어가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다시 인도하여 향</p>	<p>(전략) 設祭器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 加勺幕， 設燎所於魂殿之南丙地， 設使臣致奠位於靈座前近南； 讀祝位於祝案之南； 上王殿下與殿下立位於靈座之右。 【殿下立位在上王殿下立位之後稍西。】 其日， 上王殿下備儀仗至魂殿， 【文武近臣、侍從如常儀。】 引禮引上王殿下入幄次卽座； 殿下備儀仗至魂殿， 【文武群臣、侍從， 如常儀。】 引禮引殿下入幄次卽座。 宗室以下文武群臣至太平館， 具朝服備儀仗， 分立於門外左右， 伺祝文龍亭及使臣出， 以次前導至魂殿， 群臣先下馬， 分立於道之左右， 龍亭至， 躬身。 【過則平身】 引禮引上王殿下與殿下， 以白衣、烏紗帽、黑角帶， 就祇迎位躬身。 祝文龍亭至， 引禮引上王殿下與殿下， 復先入就位， 讀祝官奉祝文入奠于案上。 引禮引使臣入就致奠位， 【使臣入門， 陪祭群臣釋朝服， 以白衣、烏紗</p>

	<p>상 앞으로 나아가 서게 하고, 인례가, ‘향을 피우라.’ 창하면, 집사 중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무릎 꿇어 나아가면, 사신이 서서 향을 피운다. 집사들은 각기 상 위에 올려놓는다. 인례가, ‘제주(祭酒)하라.’ 창하면, 집사가 잔으로 술을 받아서 무릎 꿇고 올리면, 사신이 서서 제주하고, 집사에게 잔을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한다. (후략)</p>	<p>帽、黑角帶入就位。】引詣香案前立。引禮贊上香，執事者一人捧香爐，執事者一人捧香合跪進，使臣立上香，執事者各置于案上。引禮贊祭酒，執事者以爵受酒跪進，使臣立祭酒，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還宮，導從如常儀；殿下還宮，導從如常儀 (후략)</p>
<p>28.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4月 10日(戊申) 1번째기사 가뭇으로 탄신 날의 진하하는 절차를 정지시키다</p>	<p>오랜 가뭇으로 인하여 탄신 날의 진하하는 절차를 정지시키게 하니, 의정부와 육조에서는 보통 복장으로 하전(賀箋)을 올리고, 안장 갖춘 말과 안팎 옷감을 드렸다. 예조에서는 각도의 하전과 토산물을 올렸다.</p>	<p>戊申/以久旱，命停誕日賀禮。政府、六曹以時服進箋，獻鞍馬表裏，禮曹進諸道賀箋及方物。</p>
<p>29.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4月 10日(戊申) 3번째기사 최용을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다</p>	<p>임금이 환관 최용(崔龍)을 보내어 사신에게 음식물을 선사하였다.</p>	<p>上遣宦官崔龍，齎食物贈使臣。</p>
<p>30.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4월 10일(무신) 4번째기사 가뭇을 근심하여 술을</p>	<p>임금이 낙천정에 문안가서 헌수(獻壽)하고 돌아오는데, 임금이 가뭇을 근심하여 노상에서 말 모는 구종(驅從)을 시키어 풀 뿌리를 뽑아오게 하여 친히 보니, 이는 가뭇의 깊고 얕음을 알고자 함이다. 중외(中外)에 명령하여 술을 금하게 하였다</p>	<p>上朝樂天亭，上壽而還。上憂旱，在路上命牽馬陪拔草根，親覽之，欲知旱氣淺深。命中外禁酒。</p>

금하게 명하다		
<p>31.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4월 15일(계축) 1번째기사 남취와 성달생을 통하여 북경에 보낸 표와 전</p>	<p>방물을 바치는 표에는 이르기를,  “하늘의 은택이 겹쳐 내리시어 특별히 홀전을 융숭하게 내리시니,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이것으로 감사하는 정성을 표할까 하여, 누르고 고운 모시 50필과 희고 고운 모시 50필, 검고 고운 삼베 50필, 누른 화문석 10장, 만화석 10장, 잡채 화문석 10장, 인삼 백 근, 잣[松子] 2백 근, 잡색말 30필을 삼가 바치옵는 바, 위의 몇 가지 물건들은 제조가 정밀한 것도 아니옵고, 가짓수도 매우 적사오나, 충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살피시고, 위에 바치는 의례임을 용서하소서.”  하였고, 전(箋)에는  “지위가 둘째로 극히 높으시며, 거룩하신 법도를 공손히 받드시어, 황제의 마음을 인도하시어 홀전을 내리시게 하셨으니, 감명함을 마지 아니하오며,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갚을 길 없사옵니다. 그욕이 생각하옵건대, 선신(先臣)이 향년을 오래 하지 못하와, 홀연히 태평 성대를 하직하였사운데, 인덕으로 먼 데 사람을 회유시킴에 깊게 하시니, 영광이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의리를 끝까지 보이심에 무겁게 하시매, 은총이 제사를 하사하심에서 더욱 빛났사오니, 구원에서도 감동함이 있사올 것이요, 일국이 기뻐 뛰노나이다. 공손히 생각하옵건대, 덕은 온후하고 의젓함을 갖추시고, 마음은 효도와 공경함에 도타우시니이다. 선신의 술직(述職) 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소신의 애통하여 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죽은 혼으로 하여금 특별한 은택을 입게 하셨사오니, 신은 마땅히 삼가서 제후의 나라를 기탁하셨음을 더욱 삼가 찬송하고 추도하는 정성을 바칠까 하나이다.”  하였다. 그 진상하는 예물은 희고 고운 모시 20필과 검고 가는 삼베 20필, 만화석 6장, 잡채 화문석 6장, 인삼 50근과 잣 백 근, 잡색말 4필이다.</p>	<p>方物表曰：  天澤沓臻，特隆恤典。土宜雖薄，聊表謝忱。謹備黃細苧布五十四、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五十四、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松子二百斤、雜色馬三十四。右件物等，製造匪精，名般甚寡。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  箋曰：  位尊貳極，祇奉睿謨。恩導中宸，誕頒恤典。佩銘無已，糜粉難酬。竊念，先臣不永享年，奄辭昭代。仁深柔遠，榮莫大於易名；義重示終，寵彌光於致祀。九原有感，一國騰歡。恭惟德備溫文，心敦孝敬。記先臣之述職，憐小臣之茹哀，遂令貞魂，獲紆殊渥。臣謹當益謹蕃宣之寄，倍殫頌禱之誠。  其進獻禮物，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六張、雜彩花席六張、人蔘五十斤、松子一百斤、雜色馬四匹。</p>
<p>32. 세종 8권, 2년</p>	<p>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단오 별제(端午別祭)를 거행하고,</p>	<p>戊辰朔/上率群臣，詣文昭殿，行端午</p>

<p>(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5월 1일 (무진) 1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문소전에 나아가 단오 별제를 거행하다</p>	<p>그 길로 낙천정에 문안하여, 상왕과 임금이 마전포(麻田浦)에 거둥하여 고기잡는 것을 구경하고, 곧 낙천정으로 돌아와 새로 지은 별전에서 주연(酒宴)을 베풀니, 조연(趙涓)·연사종(延嗣宗)·윤자당(尹子當)·조말생·이명덕·권희달·윤회·원숙·정초 등이 입시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여러 재상들이 여기에서 노숙(露宿)하므로 항상 염려가 되었으나, 다만 나라의 법령이 엄하므로 하여 술을 주지 못하였더니, 오늘은 고기도 잡았고, 또 진상해 온 약주를 저장한 것이 수십 병이나 되므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고, 인하여 전조(前朝)가 쇠미해 가던 말년과 우리 국초(國初)에 창고가 비고 모자라던 까닭을 이야기할새, 연사종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나라가 부하려면 백성이 가난하고,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이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 하니, 조말생이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고, 상왕도 좋아하지 아니하였다.</p>	<p>別祭，遂朝樂天亭。上王及上幸麻田浦觀魚，卽還樂天亭，置酒于新造別殿，趙涓、延嗣宗、尹子當、趙末生、李明德、權希達、尹淮、元肅、鄭招等入侍。上王曰：“諸宰樞露宿于茲，常以爲慮，但以國令之嚴，不敢饋酒。今日得魚，又有供上藥酒，貯至數十瓶，故饋之。”因論前朝衰季及國初倉庫虛耗之故，延嗣宗曰：“自古國富則民貧，國貧則民富。”末生以爲不然，上王亦不說。</p>
<p>33.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5月 4日 (辛未) 3번째기사 이촌을 시키어 낙천정에 술을 진상 하다</p>	<p>환관 이촌을 시키어 낙천정에 술을 진상하였다.</p>	<p>命宦官李村，進酒于樂天亭。</p>
<p>34.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5월 4일 (신미) 4번째기사 성석린·한상경 등에게 술을 하사하다</p>	<p>성석린(成石璘)·한상경(韓尙敬)·유정현·박은·이원 등에게 술을 하사하였다.</p>	<p>賜成石璘、韓尙敬、柳廷顯、朴崑、李原等酒。</p>
<p>35. 世宗 8卷, 2年</p>	<p>영선(寧善) 옹주가 즐하니, 쌀과 콩 아울러 열 섬과 종이 70권과 관곽(棺槨)</p>	<p>寧善翁主卒，命賜米豆并十石、紙七十</p>

<p>(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5월 13日(庚辰) 2번째기사 영선 용주의 즐기</p>	<p>을 하사하였다.</p>	<p>卷、棺槨。</p>
<p>36.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年) 5월 16일(계미) 2번째기사 한확이 선물을 상왕께 바치자, 그 일부를 되 돌려 주다</p>	<p>한확이 말 두 필과 양 20마리와 은 두 덩어리와 채단(綵段)·깃[絹] 각 두 필과 말린 양[乾羊] 5마리와 호초(胡椒) 5말을 상왕에게 드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황제께서 경에게 주신 것은 경더러 쓰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곧 그 은과 채단·깃은 돌려 주고, 호초는 그날 입직(入直)한 재상들과 대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p>	<p>韓確進馬二匹、羊二十頭、銀二錠、綵段絹各二匹、乾羊五頭、胡椒五斗于上王，上王曰：“皇帝賜卿，欲卿受用。”即還其銀及段絹，分賜胡椒于入直宰樞及代言等。</p>
<p>37.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5월 20日(丁亥) 1번째기사 환관을 보내 양녕 대군에게 술·말린 양 등을 하사하다</p>	<p>환관을 보내어 하사하는 술 20병과 말린 양 3마리와 조기 2백 못과 말에 소용되는 기구 두 켤짝을 양녕 대군에게 하사하였다.</p>	<p>丁亥/遣宦官，送宣醞二十瓶、乾羊三頭、石首魚二百束、理馬具二櫃于讓寧大君。</p>
<p>38.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年) 7월 10일(병자) 1번째기사 대비가 흉하다</p>	<p>상왕이 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대비의 병환이 이미 위급하다. 전일에 점장이가 해가 없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이처럼 되니, 점괘의 말을 진실로 믿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낮 오시에 대비가 별전에서 흥(薨)하니, 춘추가 56세이요, 중궁(中宮)에 정위(正位)한 지 21년이다. 모든 범절을 한결같이 고례(古禮)에 좇아, 임금이 옷을 갈아 입고, 머리 풀고, 발 벗고, 부르짖어 통곡하니, 상왕이 거적자리 [苫次]에 나아가 미음[糜粥]을 전하니, 이 때 임금이 음식을 진어하지 않은</p>	<p>丙子/上王召元肅曰：“大妃之疾，已危矣。前日，卜者以爲無害，今乃如此，星命之說，誠不可信。”日午，大妃薨于別殿，春秋五十六，正位中宮二十一年。凡喪禮，一遵古禮。上易服，被髮、徒跣，號慟，上王辛苦次勸糜粥，時，上不進膳已數日，上王涕泣勸之。</p>

	지 이미 수일이라, 상왕이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권하였다.	
39.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7月 11 日(丁丑) 1번째기사 조석 상식을 올리다	비로소 조석(朝夕) 상식을 올렸다.	丁丑/始設朝夕奠。
40.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7월 15 일(신사) 4번째기사 삭망전과 유명일의 별 제 의식	<p>삭망전(朔望奠)과 유명일 별제(有明日別祭)의 의식은, “하루 앞서 충호위가 악차를 빈전 앞 동쪽 가까이 적당한 곳에 배설하고,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진정(殿庭) 길 동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배설하고, 종실 이하 문무 군관(群官)의 배위(拜位)를 외정(外庭)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으로 하여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한다. 직위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함께 북향하되, 종실은 길 서쪽 앞 줄에 있게 한다. 그 날 새벽에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리고, 향로·향합과 초를 아울러 영좌 앞에 배설하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가 잔을 물로 씻어 수건으로 닦고,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두고, 찬(饌)을 받들고 올라가 영좌 앞에 드린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좌정하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예조 판서가 나아가 악차 바로 앞에 꿇어앉아 아뢰되, 행례하기를 청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배위(拜位)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꿇어앉아 세 번 향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세 번 향을 피우면, 【진향(進</p>	<p>朔望奠及有名日別祭儀： 前一日， 忠扈衛設幄次於殯殿前近東， 隨地之宜。 通禮門設殿下版位於殿庭道東近北， 北向， 設宗室以下文武群官拜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宗室於道西在前行。 其日質明， 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戶外之左， 設洗於東階東南北向。 執事者洗盞拭盞， 升自東階， 置于尊所， 奉饌升奠于靈座前。 判通禮導殿下， 詣幄次卽座，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立定， 禮曹判書進當幄前跪， 啓請行禮。 判通禮導殿下出幄次至， 拜位北向立， 啓請再拜哭， 殿下再拜哭盡哀。 典儀曰再拜哭， 在位者， 皆再拜哭盡哀。 判通禮導殿下， 詣盥洗位盥帨訖， 導殿下升自東階， 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三上香， 殿下跪，</p>

	<p>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근시가 다 한다. 】 근시가 다·주(茶酒)를 드리면, 전하가 다를 땅에 붓고 세 번 술을 올린다.【술을 올리는 것도 또한 근시가 한다. 】 (후략)</p>	<p>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후략)</p>
<p>41.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7月 15日(辛巳) 5번째기사 종실이 배제하는 의식</p>	<p>종실이 배제(陪祭)하는 의식은 “그 날 새벽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배위(拜位)를 전정 길 동편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배풀고, 종실의 배위는 길 서쪽에 북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리고, 향로·향합과 아울러 초[燭]를 영좌 앞에 배설한다. 준소는 지계문 밖의 왼편에 배설하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집사자가 잔을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 동계로부터 올라가 준소에 두고, 찬을 받드로 올라가 영좌 앞에 올린다. 종실이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 서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며, 전하와 종실이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하고 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리기를 아뢰어 청하며, 전하가 꿇어앉아 세 번 향을 올리고, 【진향·진로·전향·전로는 다 근시가 한다. 】 근시가 다·주(茶酒)를 올리면, 전하가 다를 땅에 붓고 세 번 술을 올린다.【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 판통례가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대축이 나아가 영좌의 왼편에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판통례가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위로 돌아오고, 아뢰어 재배하고 곡하기를 청하면, 전하와 종실이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상차(喪次)에 돌아오고, 종실은 차례대로 나간다.”</p>	<p>宗室陪祭儀： 其日質明，有司設殿下拜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宗室拜位於道西近南，北向東上。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於東階東南，北向。執事者洗盞拭盞，升自東階，置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宗室入就位。立定，判通禮導殿下，至拜位北向立，啓請再拜哭，殿下及宗室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殿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少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還拜位，啓請再拜哭，殿下及宗室再拜哭盡哀。判通禮跪啓禮畢，導殿下還喪次，宗室以次出。</p>
<p>42. 세종 8권, 2년</p>	<p>예조에서 계하기를,</p>	<p>禮曹啓：“大行厚德王大妃齋物品，自</p>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7월 19 일(을유) 4번째기사 예조에서 왕대비의 재를 올리는 물품에 대해 아뢰다

“대행 후덕 왕대비의 재를 올리는 물품은 초재(初齋)로부터 삼재(三齋)에 이르기까지, 불전 첫줄[佛前第一行]에는 백미(白米) 일곱 분[七益], 좌우준화(左右樽花)·전주목단(專柱牧丹)·밀잠(蜜潛)이요, 둘째 줄에는 개화거식방기(開花車食方機) 아홉이요, 셋째 줄에는 각색실과방기(各色實果方機) 아홉과 화초유잠(花草油潛)이요, 넷째 줄에는 청홍사화통(靑紅紗火桶) 열이요, 다섯째 줄에는 소문보시생초(疏文布施生綃)·백저포(白苧布) 각 두 필이요, 여섯째 줄에는 화대촉(畫大燭) 두 가락과 동건촉(同巾燭) 두 가락이요, 지장전(地藏前)에는 백미증반(白米蒸飯) 각 한 분(盆), 병(餅), 실과(實果)·유과(油果) 각 한 반(盤), 보시백저포(布施白苧布) 한 필, 소촉(小燭) 두 가락이요, 시왕전(十王前)에는 증반 각 한 받(鉢), 병·유과·실과 각 한 반(盤), 정포(正布) 각 한 필, 소촉 각 한 가락이며, 넷째 번 재로부터 여섯째 번재에 이르기까지는 불전 첫째 줄에는 백미 열한 분과 좌우준화요, 둘째 줄에는 유밀과방기 열 둘이요, 셋째 줄에는 개화거식방기 열 둘이요, 넷째 줄에는 각색실과방기 열 둘과 화초밀잠이요, 다섯째 줄에는 청홍사화통 열 넷이요, 여섯째 줄에는 보시사라중(布施紗羅中) 한 필, 단자(緞子) 한 필이요, 일곱째 줄에는 대화촉 두 가락, 동건촉 두 가락이요, 지장전(地藏前)에는 백미 두 분, 반(飯) 한 분, 다(茶)·과(果)·병(餅) 각 한 반, 보시백저포 한 필, 소촉 두 가락이요, 시왕전(十王前)에는 우근계(亏斤桂) 각 한 반, 실과·병·반·각 한 반, 보시정포 각 한 필, 소촉 각 한 가락이요, 중을 이바지하는 데[供僧用]에 잡색다과(雜色茶果) 세 그릇 상[三器床]이며, 일곱 번째의 재는, 불전 첫째 줄에는 백미 열 다섯 분과 좌우준화요, 둘째 줄에는 다식방기(茶食方機) 열 일곱이요, 셋째 줄에는 유밀과방기 열 일곱이요, 넷째 줄에는 각색실과방기 열 일곱과 화초밀잠이요, 다섯째 줄에는 청홍사화통 열 여섯이요, 여섯째 줄에는 보시단자(布施段子) 두 필과, 생초 두 필이요, 일곱째 줄에는 대화촉 두 가락, 동건촉 여덟 가락, 현촉(懸燭) 두 가락이고, 지장(地藏)·시왕전(十王殿) 배설(排設)과 중을 이바지하는 물

初齋至三齋：佛前第一行，白米七益，左右樽花，專柱牧丹蜜潛。第二行，開花車食方機九。第三行，各色實果方機九，花草油潛。第四行，靑紅紗火燭十。第五行，疏文布施生綃、白苧布各二匹。第六行，畫大燭二丁，同巾燭二丁。地藏前，白米蒸飯各一盆，餅、實果、油果各一盤，布施白苧布一匹，小燭二丁。十王前，蒸飯各一鉢，餅、油果、實果各一盤，正布各一匹，小燭各一丁。自四齋至六齋：佛前第一行，白米十一盆，左右樽花。第二行，油蜜果方機十二。第三行，開花車食方機十二。第四行，各色實果方機十二，花草蜜潛。第五行，靑紅紗火桶十四。第六行，布施紗羅中一匹，段子一匹。第七行，大畫燭二丁，同巾燭二丁。地藏前，白米二盆，飯一盆，茶果、餅各一盤，布施白苧一匹，小燭二丁。十王前，亏斤桂各一盤，實果、餅、飯各一盤，布施正布各一匹，小燭各一丁。供僧用雜色茶果、實果三器床。七齋：佛前第一行，白米十五盆，左右樽花。第二行，茶食方機十七。第三行，油蜜果方機十



	<p>품은 일체로 사·오재의 예에 따라 한다.” 고 하여, 그대로 좇았다.</p>	<p>七。 第四行， 各色實果方機十七， 花草蜜潛。 第五行， 青紅紗火桶十六。 第六行， 布施段子二匹， 生絹二匹。 第七行， 大畫燭二丁， 同巾燭八丁， 懸燭二丁。 地藏、十王前排及供僧物品， 一依四五齋之例。” 從之。</p>
<p>43. 世宗 8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7月 22日(戊子) 3번째기사 상왕의 명으로 임금이 부득이 작은 잔으로 술을 한 잔 마시다</p>	<p>상왕이 이명덕을 보내어 임금에게 술을 권하여 이르기를, “내가 태조의 상을 입고 겨우 10일을 지나서 억지로 대신의 청함을 좇아 술을 마셨더니, 이제 주상이 너무 슬퍼하고 음식을 진어하지 아니하니, 질병이 날까 두려운지라, 백관이 이미 변복하였으니, 억지로라도 내 말을 좇아 술을 마시어 나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부왕은 그 때 연세가 높으시고 쇠약하고 병환 중이시나, 나는 나이 젊고 병이 없으며, 또 평일에 소찬(素饌)을 먹은 즉, 술을 마시지 못하였고, 또 이제 상기(上氣)되므로 입속이 헤어져 아프니 먹을 수 없다. 만일 꼭 마셔야 한다면 평복될 때까지 기다리기를 청한다.” 하니, 명덕이 굳이 청하였으나, 허락치 않으므로 유정현·이원·유관·변계량·허조 등이 다시 청하여 아뢰기를, “상왕의 명이니 불가불 좇으셔야 할 것이요, 이제 일기가 음습하오니, 마땅히 근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연소 무병하다 하옵시나, 병이 몸에 들어오는 것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이에 부득이 작은 잔으로 한 잔을 마시니, 이로부터 궁중에서 비로소 술을 썼다.</p>	<p>上王遣李明德， 勸上酒曰：“予服太祖喪纔過十日， 勉從大臣之請， 始飲酒。 今主上過哀不進膳， 恐生疾病。 百官已變服矣， 勉從予言飲酒， 毋貽我憂。” 上曰：“父王其時年高衰疾， 予則年少無病， 且平日素饌則不能飲酒。 今因上氣， 口裏傷痛不能飲， 若須飲則請待平復。” 明德固請， 不允。 柳廷顯、李原、柳觀、卞季良、許稠等復請曰：“上王之命， 不可不從。 今天氣陰濕， 宜加謹慎。 雖曰年少無病， 病之入身， 不自覺也。” 上不得已乃進一小杯。 自是宮中始用酒。</p>
<p>44.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7월 25</p>	<p>양녕 대군 이제(李裨)가 빈전에 전(奠)을 드렸다.</p>	<p>辛卯/讓寧大君裨設奠于殯殿。</p>

<p>일(신묘) 1번째기사 양녕 대군 이제가 빈 전에 전을 드리다</p>		
<p>45. 세종 8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7월 25 일(신묘) 2번째기사 풍양궁에 나아가 문안 하러 하니 상왕이 말 라고 하다</p>	<p>임금이 풍양에 나아가 문안하고자 하니, 상왕이 말라고 하였다. 임금이 유정현과 원숙을 보내어 육선(肉膳)을 올리며 말하기를, “비록 부모상이라도 병이 있는즉, 고기를 먹는 것은 예문에 있는 바이오니, 엿드려 바라옵건대, 굽어 여러 사람의 정을 좇으시어 성체를 보양하소서.” 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대신이 청하여도 가히 좇을 것이어늘, 하물며 주상의 지성으로 청함이리오. 그러나 대비가 어렸을 때, 나에게 돌아와서 이제 38년이 되었는데, 내조(內助)의 공이 적지 않았나니, 내 어찌 차마 고기를 먹으리요. 경 등도 또한 각각 아내가 있으리니, 마땅히 깊이 이 뜻을 몸받으라. 또 나의 병이 먹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먹은 것이 체하여 일어난 것인데, 이제 이미 나았고, 또 능히 밥을 먹으니 다시 청하지 말라.” 하고, 눈물을 흘려 울기를 마지 않고, 또 이르기를, “전일에 주상이 오면, 먼저 나를 보고 다음에 대비에게 뵈옵더니, 이제는 주상이 비록 와도 다만 나를 볼 뿐이니, 이것은 주상이 와서 봄을 차마 못할지니, 송계원(松溪院) 들에서 만나 보고자 생각하나, 늙은 병으로 과단치 못하겠고, 또 주상의 효복(孝服) 입는 청이 간절 지극하였으니, 감히 정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그 원하는 대로 하자면 잠시라도 상복을 벗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어찌 바꿔 입고 와서 나를 보라고야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p>	<p>上欲詣豐壤問安，上王止之。上遣柳廷顯、元肅，進肉膳曰：“雖父母之喪，疾則食肉，禮文所載。伏望俯從群情，以養聖體。”上王曰：“大臣請之，可以從之，況主上至誠之請乎？然大妃幼年歸我，今三十八年矣。內助之功不細，予何忍食肉乎？卿等亦各有室，宜深體之。且予之疾，非因不食而得，乃因傷食而發。今已愈矣，又能進膳，毋得更請。”涕泣不已。又曰：“前日，主上來則先見我，次謁大妃，今主上雖來，但見我耳。茲不忍主上之來見也，思欲相見于松溪院郊，老疾未果。且主上孝服之請懇至，不敢奪情。今欲如其願，不宜暫時釋服，豈可令易服來見我耶？”</p>
<p>46. 世宗 9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8月 9日 (乙巳) 3번째기사</p>	<p>일본 전 서해도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가 사신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前西海道九州都元帥遣使獻土宜。</p>

일본 전 서해도 구주 도원수가 사신을 보내 어 토산물을 바치다		
47.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10 일(병오) 1번째기사 허조 등을 불러 풍양 에 가서 상왕께 육선 을 드실 것을 청하도 록 하다	<p>임금이 이원·허조·원숙을 불러 말하기를 “내가 풍양(豐壤)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부왕(父王)께서 내가 빈전(殯殿)을 모 시고 있다 하여 자주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경들은 풍양에 나아 가서 육선(肉膳)을 드시도록 청하라.” 하였다. 원(原) 등이 풍양에 나아가니, 상왕이 “들어오라.” 하여, 원이 임금의 명령대로 육선을 올리니, 상왕이 말하기를, “주상(主上)이 대신(大臣)을 보내어 육선 먹기를 청하니, 내 어찌 좃지 아니하 랴. 다만 늙은 대신들과 같이 먹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는 일이다. 관서는 서 울에 돌아가거든 여러 대신들도 다 고기를 먹게 하여, 이 뜻을 모든 관원들에 게 알리게 하라.” 하고, 그제야 육선을 올리도록 허락하면서 원(原) 등도 고기를 먹게 하고, 아 래로 위사(衛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기를 먹게 하였다. (후략)</p>	<p>丙午/上召李原、許稠、元肅曰：“予欲 詣豐壤，父王以予侍殯，不許數進。 卿等詣豐壤，請進肉膳。”原等詣豐 壤，上王賜見。原以上命進酒，上王 曰：“主上遣大臣，請進肉膳，予敢不 從？但恨不得與老大臣共之耳。判書 還京，令諸大臣食肉，以示百官。”乃 許進肉膳。命原等食肉，下至衛士， 皆令食肉。(후략)</p>
48.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19 일(을묘) 2번째기사 상왕이 시위와 채추들 에게 수정에서 음식을 먹이다	<p>상왕이 시위(侍衛)와 채추(宰樞)들에게 수정(水亭)에서 음식을 내려서 먹였다.</p>	<p>上王饋侍衛宰樞于水亭。</p>
49.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p>(전략) 제기(祭器)에는 찬구(饌具)를 담는데, 변(籩) 여덟 개는 왼편에 차리되, 세 줄이 되게 하여, 오른편이 위가 되고, 【첫째 줄은 소금[鹽]이 앞에 있고,</p>	<p>(전략)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 三行右上，【第一行刑鹽在前，魚鱸次</p>

(永樂) 18년) 8월 25  
일(신유) 4번째기사  
예조에서 사후토(祀后  
土) 의식을 정하여 아  
뢰다

고기포[魚]가 그 다음이고, 둘째 줄에는 말린 대추[乾棗]를 앞에 놓고, 밤[黃栗]과 개암[榛子]이 다음이고, 셋째 줄에는 마름[菱仁]을 앞에 놓고, 감인(芡仁)과 녹포(鹿脯)는 다음이 된다. 【두(豆) 여덟 개는 오른쪽에 차리되, 세 줄 되게 하여 왼편이 위가 된다. 【첫째 줄은 부추[韭]와 파[葱]를 앞에 놓고, 포[脯]·해[醢]가 다음이고, 둘째 줄은 무우 김치[菁菹]를 앞에 놓고, 녹해(鹿醢)와 미나리김치[芹菹]가 다음이다. 셋째 줄은 토해(兔醢)를 앞에 놓고 순저(笋菹)와 어해(魚醢)는 다음이다. 】 보(簠)·궤(簋) 각 두개는 변(籩)·두(豆)의 사이에 두게 되는데, 보(簠)는 왼편에 놓으며, 궤(簋)는 오른쪽에 놓게 하고, 【보(簠)에는 도(稻)·양(粱)을 담아서, 양(粱)을 도(稻)의 앞에 놓고, 궤(簋)에는 서(黍)·직(稷)을 담아서 직(稷)을 서(黍) 앞에 놓는다. 무릇 앞에 놓는다는 것은 남쪽에 놓는 것을 이른다. 】 작(爵)은 보와 궤 앞에 놓고, 준(尊)은 신위의 동남쪽에 놓는데 북향으로 한다.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관세(盥洗)할 자리를 두 곳을 만들되, 북향이 되게 한다. 【헌관(獻官)의 세(洗)는 동쪽에 있고, 집사(執事)의 세(洗)는 서쪽에 있다. 】 제사를 시작하게 되면 집사자가 제각기 공복(公服) 차림으로 있다가, 시간이 되면 알자(謁者)와 찬자(贊者)가 먼저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四拜)하고 제자리에 선다. 알자는 축(祝)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절하는 자리에 북향으로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祝) 이하 <관원들은> 다 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에 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찬자가 ‘홀(笏)을 꿇고, 손 씻고 수건에 닦으오.’ 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 홀을 잡게 하고 인도하여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罍]를 들어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찬자가

之。 第二行乾棗在前，黃栗、榛子次之。 第三行菱仁在前，芡仁、鹿脯次之。 豆八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醢醢次之。 第二行菁菹在前，鹿醢、芹菹次之。 第三行兔醢在前，笋菹、魚醢次之。】 簠簋各二，在籩豆間，簠在左、簋在右。 【簠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 凡言在前者，皆謂南也。】 爵在簠簋前。 設尊於神位東南，北向。 又於其東南，設盥洗二，北向。 【獻官洗在東，執事洗在西。】 行事執事官各具公服。 至時，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北向。 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皆四拜，詣盥洗位，盥悅訖，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 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盥手悅手不贊。】 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贊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후략)

	<p>‘꿨어얏아 흘(笏)을 꺾으라.’ 하고, 또 ‘세 번 향을 올리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올린다. 그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후략)</p>	
<p>50.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5 일(신유) 5번째기사 예조에서 사후토(謝后土) 의식을 정하여 아뢰다</p>	<p>사후토의(謝后土儀)에 이르기를,  “흙을 덮기가 끝날 때를 기다려, 집사자는 현궁(玄宮)의 왼편에 땅을 깨끗이 치우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남향으로 배설하고 왕골자리를 편다. 헌관의 자리는 신위의 동남쪽에서 서향으로 배설하고, 집사자는 그 뒤에 자리 하되,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된다, 알자와 찬자의 자리는 헌관의 서남쪽에 두고,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축판(祝版)은 신위의 오른편에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신위(神位) 앞에 놓는다. 그 다음 제기(祭器)에 찬구(饌具)를 담아 배설하고, 【찬품(饌品)은 개영역(開瑩域) 제사와 같이 한다.】 준(尊)은 신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놓으며, 세(洗)는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둔다. 행사(行事)하게 되면, 집사관은 각기 공복(公服)을 갖추고, 시각이 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사배하고 제자리로 가서 선다. 알자가 축(祝) 및 집사자를 인도하여 절할 자리에 가서 북향으로 선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축 이하 관원은 사배하고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제자리로 간다. 알자가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서게 하고, 찬자(贊者)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가서 북향으로 서면, 흘(笏)을 꺾고, 손 씻고 수건에 닦게 한다. 【손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흙을 잡고 준소(尊所)에 가서 서향으로 서게 하면,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罍]를 들고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면, 꿇</p>	<p>謝后土儀曰：  俟覆土既畢，執事者於玄宮之左，除地設后土氏神位，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西向北上，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饌品與開瑩域祭同】設尊於神位東南，北向，設洗於其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其東南，北向。行事執事官各具公服。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北向。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進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p>

	<p>어얏아 홀(笏)을 꺾고 향을 세 번 올리게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올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후략)</p>	<p>贊跪，搯笏，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후략)</p>
<p>51.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9 일(을축) 3번째기사 죄인에게 아부한 이발 등을 과직할 것을 상왕에게 여쭙다</p>	<p>“주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였으니, 이제 초상을 당하여 소찬(素饌)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으니, 내가 어찌 어여삐 보지 않겠는가.” 하고, 낫수라를 드는데 공녕군(恭寧君) 이인(李裨)과 이화영(李和英)·최윤덕(崔閔德)·전흥(田興)·홍부(洪敷)·곽존중(郭存中) 등이 모시고 먹게 되었다. 숙에게 꿩고기를 내리시면서 말하기를, “너는 노모(老母)가 있으니, 내가 심히 부러워한다.” 하였다.</p>	<p>又曰：“主上自少非肉不能進膳。今遭喪，素饌已久，吾豈不憐見乎？”乃進畫膳，恭寧君裨及李和英、崔閔德、田興、洪敷、郭存中等侍膳。賜肅雉曰：“汝有老母，吾甚羨焉。”</p>
<p>52.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9 일(을축) 5번째기사 예조에서 상시책 시보의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집사자는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놓고, 준(尊)은 문밖 왼편에 배설한다. 임시로 책보를 두는 옥위(褥位)와 책상은 빈전 아래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그 다음 봉책보관은 평상복에 검정 각대[角帶] 차림으로 시책과 시보를 받들고 들어오면, 진책보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평상복에 검정 각띠 차림으로 따라 나와서 빈전 아래로 온다. 임시로 모시는 옥위 서안(書案) 위에 책보를 모시고, 【책(冊)은 북으로 보(寶)는 남으로 놓는다.】 진책보관 이하는 우선 막차에 물러가 기다린다. 유사(有司)가 배설을 다 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빈전 동쪽 안으로 나아가 지형에 따라서 반(班)을 지어 서게 된다. 【종실은 길의 서편에 서는 데, 앞 줄이 된다.】 그 다음 봉례랑은 독책관(讀冊官)과 독보관(讀寶官)을 인도하여 책보안(冊寶案)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그 다음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독보관의 뒤에 서게 하고,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빈전 아래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통찬이 ‘재배하라.’ 하면, 진책보관</p>	<p>(전략) 執事者設禮饌，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權置冊寶褥位及案於殯殿下東向，次奉冊寶官以常服、黑角帶，奉諡冊、諡寶入，進冊寶官以下行事執事官以常服、黑角帶，竝從至殯殿下，權置褥位，置冊寶於案上。【冊北寶南】進冊寶官以下權退幕次，俟有司排辦畢備。通禮門引宗室以下文武群官，詣殯殿東裏外，隨地之宜。立班定，【宗室於道西在前行】次奉禮郎引讀冊官、讀寶官，詣冊寶案之南，北向立，次引奉冊官、奉寶官，立於讀冊官、讀寶官之後，次</p>

	<p>이하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다음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殿)에 올라와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향(香)을 세 번 올리고, 집사는 다(茶)와 술을 가지고 진책보관에게 준다. 진책보관은 너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한 후 부복하였다 일어나 재배하고 인도되어 내려와 제자리에 선다. (후략)</p>	<p>引進冊寶官，詣殯殿下西向。立定，通贊贊再拜，進冊寶官以下皆再拜。次引進冊寶官升殿詣香案前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進冊寶官，進冊寶官酌茶三奠酒，俛伏，興，再拜，引降復位小立。(후략)</p>
<p>53.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9 일(을축) 6번째기사 예조에서 입주전의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盞)을 씻고 닦아서 존소(尊所)에 두면, 봉찬(奉饌)은 올려다가 영좌 앞에 놓는다. 예조 판서는 악(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啓請)한다. 계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간다.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啓請)한다.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가 다(茶)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너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 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으라.’고 계청한다. 대축(大祝)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다 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한다. 전하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곡한다. 대축(大祝)은 우주(虞主)를 받들어 궤(匱)에다 넣고, 예조 판서는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계(啓)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지통례(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처소로 나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집사자는 찬(饌)을 거두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p>	<p>(전략) 執事者盥手，洗盞拭盞，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悅訖，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大祝奉虞主，納于匱中。禮曹判書跪啓禮畢，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出就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執事者徹饌〔撤饌〕，祝版瘞於坎。</p>

	하였다.	
<p>54.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9 일(을축) 7번째기사 예조에서 건전의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의장(儀仗)과 명기(明器)는 유거 앞에 차례로 늘어놓는다. 집사자(執事者)는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늘어놓고, 준(尊)은 지계문 밖 왼편에 북향으로 차려 놓고,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며, 여러 집사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盞)을 씻고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尊所)에 두면, 봉찬(奉饌)은 올라다가 영좌 앞에 놓는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幄次)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모두 초상(初喪) 때에 입었던 상복을 입는다.】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 판서는 악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啓請)하고, 계(啓)가 끝나면 부복하였다 일어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관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재배하면서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곡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한다.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가 다(茶)와 술을 올리게 되면, 전하는 너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 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후략)</p>	<p>(전략) 儀仗、明器序列於柳車前。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即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皆服初喪服】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洗) [幌] 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 (후략)</p>
<p>55.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8월 29 일(을축) 8번째기사</p>	<p>(전략)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놓고, 지계문 밖 외편에 북향으로 준(尊)을 배설하고,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며, 여러 집사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洞</p>	<p>(전략) 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p>



<p>예조에서 조전의예 대해 아뢰다</p>	<p>階)로 올라와 준소(尊所)에다 두면, 봉찬(奉饌)은 올려다가 영좌 앞에 놓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 관서는 악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한다. 계하기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례는 ‘재배하고 곡하라.’ 계청한다. 전하는 재배하고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이르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한다.</p> <p>【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다(茶)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뇌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 한다.【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꿇어앉으시라.’고 계청하고, 대축(大祝)은 영좌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다 읽으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자리에 서게 한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이르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예조 관서는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계(啓)한다. 계를 마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집사자는 찬(饌)을 거두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p> <p>하였다.</p>	<p>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洗)〔悅〕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執事者徹饌〔撤饌〕，判通禮導殿下還幄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p>
<p>56. 세종 9권, 2년</p>	<p>(전략)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p>	<p>(전략)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p>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2일 (정묘) 3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빈전의에 대하여 아뢰다

놓고,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東階)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세는 거기서 동남편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盞)을 씻고 닦아서 동계(東階)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놓으면, 봉찬(奉饌)이 올려다가 영좌 앞에 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봉례랑(奉禮郎)은 공조 판서를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예조 판서가 악(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啓請)한다. 계(啓)가 끝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관위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한다.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는 다(茶)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너다(酌茶)하고 진주(奠酒)를 세 번 한다. 【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꿇어앉으라.’고 계청하면, 대축(大祝)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다 마치면, 판통례는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에 내려온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서럽게 애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던 이는 모두 재배하고 서럽게 운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饌)을 거두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우선 악차로 돌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봉례랑은

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即座，奉禮郎引工曹判書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次，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洗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執事者徹饌〔撤饌〕，判通禮導殿下權歸幄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

	<p>공조 관서를 인도하여 동계(東階)에서 올라와 【집사자도 따라 오른다.】 찬궁(攢宮)에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아 아뢰기를, ‘삼가 길한 날에 찬도(攢塗)를 연다.’ 하고, 아뢰기를 마치면, 일을 맡은 자는 올라와 찬도(攢塗)를 걷어내어 끝마치면, 공조 관서는 건(巾)으로 재궁을 털고 닦고 막(幕) 안에서 관의(棺衣)를 덮는다. 집사는 주위에 장막을 두르고 상시에 올리던 전(奠)을 상시에 하는 의례와 같이 올린다. 【아침 저녁 수라(水刺)를 말한다.】 (후략)</p>	<p>以次出。奉禮郎引工曹判書升自東階，【執事者從升】就攢宮南，北向跪，啓曰：“謹以吉辰，啓攢塗。”啓訖，掌事者升，徹攢塗訖，工曹判書以巾拂拭梓宮，覆以棺衣於幕內，執事周回設帷及施常食之奠如常儀【朝夕水刺】(후략)</p>
<p>57.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5일 (경오) 4번째기사 경선 궁주가 빈전에 전을 올리다</p>	<p>경선 궁주(慶善宮主)가 빈전(殯殿)에 전(奠)을 올렸다.</p>	<p>慶善宮主設奠于殯殿。</p>
<p>58. 世宗 9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9月 6日 (辛未) 2번째기사 윤계동이 빈전에 전을 올리다</p>	<p>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이 빈전(殯殿)에 전(奠)을 올렸다.</p>	<p>鈴平君尹季童設奠于殯殿。</p>
<p>59. 世宗 9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9月 10日 (乙亥) 6번째기사 예조에서 대비 상시 고종묘의에 대해 아뢰</p>	<p>(전략) 유사(有司)는 술과 포육을 진설하여 【찬품(饌品)은 삭망전의(朔望奠儀)와 같고, 다만 생(牲)은 없고 폐(幣)는 있다.】 끝나면, 통례문은 반수(班首)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봉례랑은 독책관(讀冊官)과 독보관(讀寶官)을 인도하여 임시로 모신 책·보 자리의 남쪽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고, 봉책관과 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과 독보관의 뒤에 서게 하고, 영의정(領議政)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들어와서 서향으</p>	<p>(전략) 有司設酒脯排辦訖，【饌品如朔望奠儀，但無牲有幣。】通禮門分引班首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奉禮郎引讀冊官、讀寶官，詣權置位之南，北向立，引奉冊官、奉寶官立於讀冊官、讀寶官之後，引領議政入就位，西</p>

다

로 서게 하고, 통찬이 ‘사배하라.’ 하면, 영의정 이하 자리에 있는 이가 다 사배하고 나면, 봉례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동계(東階)로 올라가서 목조실(穆祖室)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린다. 폐(幣)를 받들어 올리고, 작(爵)을 받들어 올리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은 영의정의 왼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은 오실(五室)에 각 한 통씩이니, 유(維) 영락(永樂) 18년 세차(歲次) 경자(庚子) 9월 임인삭(壬寅朔) 14일 무인에 애증손(哀曾孫) 사왕신(嗣王臣)이라 서휘(署諱)한다. 사실(四室)에 다 같이 쓰되, 태조실(太祖室)에는 애손(哀孫) 사왕신(嗣王臣)이라 하고 서휘(署諱)한다. 삼가 신모(臣某)를 보내서 감히 모조(某祖)·모왕(某王)·모조비(某祖妣)·모왕후(某王后) 모씨(某氏)에게 밝게 고하나이다. 복이(伏以) 모후(母后)를 추승(追崇)하려고 책례(冊禮)를 이에 베풀고자 지금 곡조(穀朝)를 가려서神明(神明)께 우러러 감히 고하오니, 오직 충감(沖鑑)하시와 효사(孝思)를 살피소서. 삼가 폐(幣)를 마련하고 청작(淸酌)과 서수(庶羞)를 진설하여 밝게 바치나이다. 상향(尙饗).】 끝나치면, 영의정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다음으로 익조실(翼祖室)에 나아가며, 그 다음 도조실(度祖室)에, 다음 환조실(桓祖室)에, 다음 태조실(太祖室)에 나아가 이상의 의식과 같이 행례(行禮)하고, 전영간(前楹間) 한가운데 나와서 북향하여 재배하고 인도를 받아 제자리에 돌아온다. 봉례랑은 다시 영의정을 인도하여 임시로 모신 책보(冊寶)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하고, 봉책관은 책안(冊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갑(冊匣)을 들고 일어나 전상(殿上) 한가운데 있는 욕위(褥位)에 나아가 꿇어앉아 올려놓기를 마치고 조금 물러나 선다. 봉례랑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전상(殿上)의 욕위(褥位)에 나아가 꿇어앉게 하고, 봉책관이 꿇어앉아 책(冊)을 받들면, 독책관은 북향으로 꿇어앉아 책문(冊文)을 읽는다.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봉책관은 책갑(冊匣)을 받들고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자리에

向立。通贊贊四拜，領議政以下在位官皆四拜訖，奉禮郎引領議政，詣盥洗位，盥洗訖，升自東階，詣穆祖室香案前跪，三上香，執幣、奠幣，執爵奠爵，俛伏興，小退跪。大祝進領議政之左，東向跪，讀祝文，【祝文五室各一道。維永樂十八年歲次庚子，九月丙寅朔，十四日戊寅，哀曾孫嗣王臣署。四室同稱，太祖室稱哀孫嗣王臣署。謹遣臣某，敢昭告于某祖某王某祖妃某王后某氏。伏以，追崇母后，當冊禮之斯陳，肆涓穀朝，仰神明而敢告。惟冀沖鑑，庶諒孝思。謹以制幣，淸酌庶羞，式陳明薦，尙饗。】訖，領議政俛伏興。次詣翼祖室，次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行禮竝如上儀。出就前楹間當中，北向再拜，引降復位。奉禮郎再引領議政，詣權置位立，奉冊官詣冊案前跪，舉冊匣興，升詣殿上當中褥位，跪奠訖，小退立。奉禮郎引領議政，升詣殿上褥位跪，奉冊官跪舉冊，讀冊官北向跪，讀冊文訖，俛伏興，退。奉冊官奉冊匣，降置於權置位，奉禮郎引領議政，降就權置位立，奉寶官詣寶案前跪，舉寶盃

	<p>다 둔다. 봉례량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책보 자리에 서게 한다. 봉보관은 보안(寶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보록(寶籙)을 받들고 일어나 전(殿) 위에 올라 중간에 있는 옥위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올려놓기를 마치고 조금 물러나 선다. 봉례량은 영의정을 인도하여 전(殿) 위의 옥위에 올라와서 꿇어앉는다. 봉보관은 꿇어앉아 보(寶)를 든다. 독보관은 북향으로 꿇어앉아 보(寶)를 읽어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봉보관은 보록을 받들고 내려와 임시로 두었던 자리에 둔다. 봉례량은 영의정을 인도하고 내려와 그 자리에 서향으로 서게 하고, 통찬이 ‘사배하라.’고 하면, 영의정이 이하 자리에 있던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끝나치면, 대축(大祝)은 축(祝)과 폐(幣)를 구덩이에 묻고, 봉책관과 봉보관은 책(冊)과 보(寶)를 받들어 용정(龍亭)에 모신다. 봉례량은 영의정 이하 일을 담당하는 집사관을 인도하여 빈전으로 따라가서 책(冊)과 보(寶)를 받들어 임시로 악내(幄內)에 모신다. 처음에 영의정 이하 행사(行事)하는 집사관이 책보(冊寶)를 받들고 빈전에 나가려 할 때에, 반수(班首)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물러간다.”</p> <p>하였다.</p>	<p>興，升詣殿上當中褥位，跪奠訖，小退立。奉禮郎引領議政，升詣殿上褥位跪，奉寶官跪舉寶，讀寶官北向跪讀寶訖，俛伏興退。奉寶官奉寶盞降置於權置位，奉禮郎引領議政，降復位西向立。通贊贊四拜，領議政以下在位官，皆四拜訖，大祝奉祝幣，瘞於坎，奉冊官、奉寶官奉冊寶，安於龍亭，奉禮郎引領議政以下應行事執事官，隨至殯殿，奉冊寶安於權置幄內。初，領議政以下行事執事官奉冊寶，將詣殯殿，班首以下文武群官皆退。</p>
<p>60. 世宗 9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9月 12日(丁丑) 1번째기사 백관이 빈전에 전을 올릴때의 의례</p>	<p>백관(百官)이 빈전(殯殿)에 전(奠)을 올리는데, 그 의례에 말하기를, “기일에 앞서 통례문은 1품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빈전 앞에 배설하되, 지형에 따라 편의하게 한다.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되, 모두 북향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놓고, 다음에 예찬(禮饌)을 진설하며,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문무 여러 관원으로 1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하고 곡한다. 집사자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p>	<p>丁丑/百官設奠于殯殿。其儀曰： 前期，通禮門設一品以下文武群官位於殯殿前，隨地之宜，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設尊所於戶外之左，設洗於東階東南。時至，通禮門分引文武群官一品以下入就位。立定，通贊贊再拜哭，群官皆再拜哭。執事者</p>

	<p>洗)하기를 마치고, 작(爵)을 씻고 닦아서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尊所)에다 두면, 봉례랑은 반수(班首)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끝마치고, 동계에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봉례랑이 ‘끓어앉으라.’ 하면, 반수(班首)는 끓어앉아 향을 세 번 올린다. 집사자가 다(茶)와 술을 올리면, 반수는 너다(酌茶)하고 전주(奠酒)를 세 번 한다. 봉례랑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끓어앉으라.’ 하고 축(祝)이 영좌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그것이 끝나면, 봉례랑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게 한다. 다시 인도하여 제자리에 서게 되면, 통찬은 ‘재배하고 곡하라.’ 한다.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하고 곡한다. 통례문은 그들을 차례로 인도하여 나아가게 하고, 집사자는 찬(饌)을 거둔다.” 하였다.</p>	<p>詣盥洗位盥帨訖，洗爵拭爵，升自東階，置于尊所。奉禮郎引班首，詣盥洗位盥帨訖，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奉禮郎贊跪，班首跪，三上香。執事者進茶酒，班首酌茶三奠酒，奉禮郎贊俛伏興，小退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奉禮郎贊俛伏興，再拜哭，引降復位。通贊贊再拜哭，群官皆再拜哭。通禮門以次引出，執事者徹饌〔撤饌〕。</p>
<p>61.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5번째기사 사헌부 장령 허성이 윤희의 불경을 고하다</p>	<p>사헌부 장령 허성(許誠)이 상소하기를, “병조 참의 윤희는 책보사(冊寶使)로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고할 때에, 술에 취하여서 반열에 들어와 실의(失儀) 불경(不敬)하였사오니,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윤희는 술을 마시면 곧 취한다. 취중의 일은 논할 것이 없으니, 내가 마땅히 회를 불러서 책하리라.”</p>	<p>司憲掌令許誠上疏曰： 兵曹參議尹淮，於冊寶使率百官，告宗廟時，醉酒入班，失儀不敬。乞治其罪。 上曰：“淮飲酒則輒醉，醉中之事，不必論也。予當召淮責之。”</p>
<p>62.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8번째기사 예조에서 노제 지내는 의식을 아뢰다</p>	<p>노제(路祭) 지내는 의식은, “기일(期日)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가 장전(帳殿)을 성밖에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전하의 악차를 장전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는데, 땅의 형편에 따라서 한다. 집사자는 영좌(靈座)를 장전의 북쪽 가까이 남향하여 설치하고, 그 날에 영좌 왼편에 축판(祝板)을 놓고, 향로와 향합과 아울러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며, 다음에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준소(尊所)는 장전의 동남쪽에</p>	<p>路祭儀曰： 前期一日，忠扈衛設帳殿於城外，南向，設殿下幄次於帳殿東南，西向，隨地之宜。執事者設靈座於帳殿近北，南向。其日，奠祝板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禮饌，</p>

	<p>북향하여 진설하며, 관세위(盥洗位)는 장전 밖의 동쪽 가까이 설치한다. 의장(儀仗)이 장차 도착하게 되면, 서울에 머물러 있는 문무 백관이 땅의 형편에 따라서 반열을 지어 서는데, 문관은 동쪽에 서고, 무관은 서쪽에 서되, 가운데 쪽을 선두로 하여 품위를 따라 겹줄로 서게 하여 모두 북쪽을 향하고, 영가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관통례가 연에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께서 연에서 내리면 앞,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들어가게 하고, 섭관통례가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가 잠깐 정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통찬(通贊)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다 두 번 절하고 곡한다. 집사자가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고 끝난 뒤에 잔을 물에 씻고 행주로 닦아 준소에 놓는다. 봉례랑(奉禮郎)이 반수(班首)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닦은 뒤에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봉례랑이 ‘꿇어앉으라.’고 찬하면, 반수가 꿇어앉아서 세 번 향을 집어 분향하고, 집사자가 차와 술을 가져다가, 반수가 차를 세 번 따라 붓고 술을 올리면, 봉례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가서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축(祝)이 영좌 왼편으로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고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끝나면,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였다. 봉례랑이 반수를 인도하여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여러 관원이 두 번 절하고 곡하여 받들어 하직한다. 섭관통례가 영가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가 떠날 것을 아뢰어 청하고,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에 오르게 하고, 집사자는 제물을 거둔다.” 하였다.</p>	<p>設尊於帳殿東南，北向，設盥洗位於帳殿之外近東。儀仗將至，留都文武群官隨地立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俟靈駕至，判通禮進輦前跪，啓請降輦，殿下降輦。判通禮導殿下入幄次，攝判通禮詣靈駕前跪，啓請靈駕小駐，啓訖，俛伏興。通贊贊再拜哭，群官皆再拜哭。執事者詣盥洗位盥帨訖，洗盞拭盞，置于尊所。奉禮郎引班首，詣盥洗位盥帨訖，詣靈座前北向立。奉禮郎贊跪，班首跪，三上香。執事者進茶酒，班首酌茶三奠酒，奉禮郎贊俛伏興，小退，北向跪。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通贊贊再拜哭，群官皆再拜哭。奉禮郎引班首，退復位，通贊贊再拜哭，群官皆再拜哭奉辭。攝判通禮詣靈駕前跪，啓請靈駕進發，判通禮導殿下降輦，執事者徹饌〔撤饌〕。</p>
<p>63.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p>	<p>집사자가 축판을 영좌 왼편에 드러 두고, 향로와 향합과 초를 아울러 영좌 앞에 배설하고, 준소는 영장전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위를 영장전</p>	<p>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靈帳殿東南，</p>

(永樂) 18년) 9월 13  
일(무인) 9번째기사  
예조에서 천전 제사  
의식을 아뢰다

바깥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모든 집사자의 관세위는 따로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방상씨(方相氏)가 이르러 광중에 들어가 창으로 현궁의 네 구석을 친다. 명기(明器)는 소(筓)가 여덟, 앵(甕)이 셋, 무(甗)가 셋, 개(蓋)가 하나, 종(鍾)이 열둘, 경(磬)이 열둘, 훈(熏)이 하나, 소(簫)가 하나, 생(笙)이 하나, 지(箎)가 하나, 축(祝)이 하나, 오(敵)가 하나, 금(琴)이 하나, 슬(瑟)이 하나, 우(竽)가 하나, 우(羽)·약(籥)·간(干)·순(楯)이 각각 하나, 와조(瓦竈)가 둘, 와부(瓦釜)가 둘, 와증(瓦甕)이 하나, 와정(瓦鼎)이 열둘, 포작(匏勺)이 하나, 와주준(瓦酒尊)이 둘, 포작(匏勺)이 둘, 와배(瓦盃)가 열, 변(籩)이 열둘, 두(豆)가 열둘, 보(簋)가 하나, 켈(簋)가 둘, 준(尊)이 둘, 식발(食鉢)이 하나, 갱발(羹鉢)이 하나, 시접(匙楪)이 하나, 찬접(饌楪)이 하나, 소(蔬)·채(采)·포(脯)·해(醢)·접(楪)이 열둘, 구접(灸楪)이 하나, 주병(酒瓶)이 하나, 식탁(食托)이 하나, 시저(匙筯)가 각각 하나씩, 식탁이 하나, 관반(盥盤)이 하나, 관이(盥匱)가 하나, 향합(香盥)이 하나, 향완(香椀)이 하나, 타우(唾盂)가 하나, 혼병(溷瓶)이 하나, 수기(漉器)가 하나, 목안마(木鞍馬)가 둘, 목산마(木散馬)가 둘, 목노비(木奴婢)가 각각 원, 목향당악인(木鄉唐樂人)이 스물, 증옥(贈玉)이 하나, 단증백현(段贈帛玄)이 여섯, 훈(纁)이 넷, 분홍능겹장삼(粉紅綾袂長衫)이 하나, 자적단자겹격음(紫的段子袂隔音)이 하나, 분홍단자수보로(粉紅段子繡甫老)가 하나, 홍단자적고리(紅段子赤古里)가 하나, 남라겹적마(藍羅袂赤尓)가 하나, 백릉겹말군(帛綾袂襪裙)이 하나, 백저포말군(白苧布襪裙)이 하나, 백초한삼(白綃汗衫)이 하나, 백저포장삼(白苧布長衫)이 하나, 홍단자대(紅段子帶)가 둘, 백저포한삼(白苧布汗衫)이 하나, 백저포활한삼(白苧布闊汗衫)이 하나, 백저포적마(白苧布赤尓) 하나, 백저포태의(白苧布苔衣)가 하나, 수건(手巾)이 하나, 초록단자겹금(草綠段子袂衿)이 하나, 백초단금(白綃單衾)이 하나, 침(枕)이 하나, 홍단자욕(紅段子褥)이 두 자리, 만화침석(滿花寢席)이 하나, 백마포족건(白麻布足巾)이 둘, 백저포이의(白苧布裏衣)가 둘, 홍단자(紅段子)가 다섯,

北向, 設洗於靈帳殿之外東南, 北向, 諸執事洗又於東南, 北向。方相氏至, 入壙以戈擊玄宮四隅。明器: 筓八、甕三、甗二、蓋一、鍾十二、磬十二、熏一、簫一、笙一、箎一、祝一、敵一、琴一、瑟一、竽一、羽籥干楯各一、瓦竈二、瓦釜二、瓦甕一、瓦鼎十二、匏勺一、瓦酒尊二、匏勺二、瓦盃十、籩十二、豆十二、簋一、簋二、尊二、食鉢一、羹鉢一、匙楪一、饌楪一、蔬菜脯醢楪十二、炙楪一、酒瓶一、食托一、匙筯各一、食卓一、盥盤一、盥匱一、香合一、香椀一、唾盂一、溷瓶一、漉器一、木鞍馬二、木散馬二、木奴婢各五十、木鄉唐樂人二十、贈玉一段、贈帛玄六、纁四、粉紅綾袂長衫一、紫的段子袂隔音一、粉紅段子繡甫老一、紅段子赤古里一、藍羅袂赤尓一、帛綾袂襪裙一、白苧布襪裙一、白綃汗衫一、白苧布長衫一、紅段子帶二、白苧布汗衫一、白苧布闊汗衫一、白苧布赤尓一、白苧布苔衣一、手巾一、草綠段子袂衿一、白綃單衾一、枕一、紅段子褥二座、滿花



지수의(指手衣)가 하나, 분홍단자동화(粉紅段子同靴)가 하나, 분홍단자온혜(粉紅段子溫鞋)가 하나, 나전소함(螺鈿梳函)이 하나, 가금잠차(假金簪釵)가 각각 하나, 토등상자(土籐箱子)가 셋, 가금간자(假金竿子)가 둘, 가은간자(假銀竿子)가 하나, 제음동(齊音同)이 하나, 경(鏡)이 하나, 이것들을 현궁 동남쪽에 진열하되, 북쪽을 위로 한다. 혼백차가 이르면, 대축이 혼백 상자를 받들고 영장전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고, 우주케는 그 뒤에 둔다. 집사자가 시책과 보와 애책 및 평시에 책봉되었던 책과 보를 받들고 상 위에 놓고, 유거가 도착하면, 섭판통례가 나아가 유거 앞에 꿇어앉아 차에서 내려 순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선다. 호조 판서가 재궁 메는 관원과 소신들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고 순에 올리면, 섭판통례가 앞에서 재궁을 인도하여, 삼을 받든 자가 삼과 행장과 좌장으로 재궁을 가리고, 여사군이 순을 받들어 영장전 앞에 이르면, 재궁 메는 관원과 소신들이 재궁을 받들어서 탑위에 모시고, 집사자는 명정에서 대를 떼고 그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연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께서 연에서 내린다. 판통례가 전하를 앞에서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들어가 자리에 앉게 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 행주로 닦아 준소에 두고, 제물 찬소를 받들어 올려 영좌 앞에 전드리고, 통례문이 나누어서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예조 판서가 나아가 악차 앞에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관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게 한다. 판통례가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매우 슬피 한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닦기가 끝나면 전하를 전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세 번 향피우기를 아뢰어 청하고, 【향을

寢席一、白麻布足巾二、白苧布裏衣二、紅段子五、指手衣一、粉紅段子同靴一、粉紅段子溫鞋一、螺鈿梳函一、假金簪釵各一、土籐箱子三、假金竿子二、假銀竿子一、齊音同一、鏡一等至，陳於玄宮東南，北上。魂帛車至，大祝奉魂帛函，就靈帳殿安於靈座，虞主置其後。執事者奉諡冊寶、哀冊及平時所封冊寶，置於案上。柳車至，攝判通禮進當柳車前跪，啓請降車升輜，俛伏興。戶曹判書帥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升輜，攝判通禮前導梓宮，奉鬋者以鬋及行障、坐障障梓宮，挽士奉輜至靈帳殿前，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安於榻上，執事者取銘旌去杠，置其上。判通禮進輦前跪，啓請降輦，殿下降輦，判通禮導殿下，權歸幄次卽坐。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置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

	<p>올려 바치고, 향로를 받들고, 향합을 올려놓고, 향로를 올려놓는 것은 근시(近侍)가 한다.】 근시가 차와 술을 올리면, 전하가 따르고 술을 세 번 올린다. 【술을 올리는 것도 역시 근시가 한다.】 (후략)</p>	<p>導殿下，詣盥洗位盥悅訖，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 (후략)</p>
<p>64.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10번째기사 예조에서 능침모신 뒤에 드리는 의례를 아뢰다</p>	<p>능침 모신 뒤에 전 드리는 의례는, “흙 덮는 일이 이미 끝나면, 통례문이 산릉사(山陵使)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여러 집사자의 자리는 산릉사의 뒤에 설치하되, 품계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는데, 모두 서향하여 서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종실 이하 백관의 자리는 연도의 좌우 남쪽 가까이 설치하는데, 종실은 서쪽에 있게 하고, 중심이 선두가 되게 하며, 품계를 달리하여 겹줄로 다 같이 북향하게 한다.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 두고,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여러 집사자의 세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집사자가 손을 씻고 잔을 씻어 행주로 잔을 훑치고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두고, 제물 찬수를 받들고 올라가서 영좌 앞에 진드린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각각 제자리에 서게 하고, 봉례랑이 산릉사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통찬(通贊)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한다. 봉례랑이 산릉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이 끝난 뒤에 산릉사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아 세 번 향을 피워 올리라.’ 하면, 집사자는 차와 술을 산릉사에게 주고, 산릉사는 차를 따르고 술을 세 번 올린다. 봉례랑이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p>	<p>安陵奠儀曰：俟覆土既訖，通禮門設山陵使位於東階東南，西向，設諸執事位於山陵使之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宗室以下群官位於羨道左右近南，宗室在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於靈座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奉禮郎引山陵使就位。立定，通贊贊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奉禮郎引山陵使詣盥洗位，盥悅訖，引山陵使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贊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山陵使，山陵使酌茶三奠酒，奉禮郎贊俛伏興，小退跪。大</p>

	<p>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라.’ 창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으로 나와서 서향하고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끝나면, 봉례랑이, ‘면, 복, 흥, 재배, 곡하라.’ 창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 산릉사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곡한다. 봉례랑이 산릉사를 인도하여 나가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집사자가 제물 찬수를 견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奉禮郎贊俛伏興，再拜哭，引降復位。通贊贊再拜哭，山陵使以下在位者皆再拜哭。奉禮郎引山陵使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執事者徹饌〔撤饌〕，祝版瘞於坎。</p>
<p>65.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11번째기사 예조에서 반혼하는 의식을 아뢰다</p>	<p>반혼하는 의식은, “유사가 의장(儀仗)을 진설하기를 의례대로 한다. 집사자를 시켜서 입주(立主)435) 하는 제수를 거두게 하여 끝나면, 섭판통례가 나아가서 길유궁 앞에 꿇어앉아 연에 오를 것을 청한다. (후략)</p>	<p>返魂儀曰：攸司陳儀仗如儀。使執事者徹立主奠訖，攝判通禮進當吉帷宮前跪，啓請升輦 (후략)</p>
<p>66.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12번째기사 예조에서 우제 지내는 의식을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은 그 수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좌의 왼편에 【점(坫)이 있다.】 올리고, 폐백 광주리를 준소에 진열하고, 향로·향합·촛불을 아울러 영좌 앞에 배설하고, 다음으로 제기(饌具)를 담아 배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고 모두 국자를 얹어서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두되, 소반과 대야가 있게 한다.】 뇌(壘)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 [籠]는 세의 서쪽에 있게 하는데, 남쪽으로 펼쳐 놓고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라면 또 찬(瓚)을 담아 놓는다.】 아헌·종헌관의 세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있게 하고,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얹어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쪽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펼쳐 놓고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의 광주리</p>	<p>(전략) 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左，【有坫】幣籠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皆加勺幕，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瓚】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p>

라면 또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들의 관세는 아헌·종헌관의 세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전사관이 그 수하 사람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물을 그릇에 담는 일이 끝나면, 여러 향관(享官)과 제사에 따르는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자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하고 네 번 절하고 각각 자리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로 들어와서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무릇 집례가 하는 말은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끝내면, 각각 제자리에 돌아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이 나누어서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게 하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서게 하고, 대축은 케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 집사자가 작세에 나아가 찬(贊)을 씻어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작을 씻고 그 물기를 닦아서 광주리에 놓아 가지고 받들어서 준소에 가서 집(坫)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재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초우례(初虞禮)를 행할 것을 아뢰어 청하고, 아뢰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도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면, 내시는 꿇어앉았다가 대야를 들어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부르면, 또 내시가 꿇어앉아 소반을 들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내어 바친다. 전하께서 손 씻는 것을 끝내

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齋殿卽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青苧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初虞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洗)〔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

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담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로 나아가게 하여, 【근시하는 내시가 따라간다.】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보자기[纂]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워 올릴 것을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상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꿇어앉아 찬(瓚)을 드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고 땅에 부을 것을 아뢰어 청하여, 끝나면 찬(瓚)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받아서 그것을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드리면, 판통례가 폐백을 잡고 폐백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고 영좌 앞에 올려 전드리게 한다. 【향합을 드리고, 찬을 드리고, 폐백을 잡아 드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해서 하고, 향로를 올려 드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전드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작을 드리고, 작을 전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게 하며,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술잔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시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작을 가지고 꿇어앉아서 올려 드리면, 판통례가 작을 잡고 작을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께>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북향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대축은 영좌의 왼편으로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

事者舉纂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捧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少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纂酌酒，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少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纂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

(謁者)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며, 손을 씻고 닦기를 끝내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고 창하며,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작을 잡고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하고,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의 의식 절차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도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꿨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뢴다. 아뢰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나누어서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찬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서 있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모두 네 번 절하면,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은 우주(虞主)를 들여 모시기를 의식 절차대로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된 사람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둔다. 대축은 집사자를 거느리고 혼백을 받들어 떨어지고 깨끗한 땅에 묻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열을 동쪽 가까이 옮기면, 반수(班首)는 사람의 이름을 써 올리고 위로한다.”  
하였다.

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少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大祝帥執事者，奉魂帛埋於屏處潔地，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

67.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13  
일(무인) 13번째기사  
예조에서 졸곡 제사  
지내는 의식을 아뢰다

(전략) 전사관이 그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坵)이 있다.】 폐백 광주리는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와 향합과 초는 함께 영좌 앞에 배설하고, 다음에는 제기와 제물 찬수 담은 제구를 진설한다. 준(尊)은 지계문 밖 왼편에 배설하며,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술잔 보를 덮고 북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세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여,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뇌는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쪽에 남으로 벌여 놓고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잔을 씻는 광주리라면 찬(瓚)과 작(爵)을 담아 놓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는 또 그 남쪽에 북향하여 있게 한다.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뇌는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쪽에서 남쪽으로 벌여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잔 씻는 광주리면 잔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종헌관의 세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돌아와서 제물 찬수를 제구에 담은 것이 끝나면, 여러 제관과 제사에 참여한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에 들어와 곁줄로 서며,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며, 네 번 절한 뒤에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사 재랑(大祀齋郎)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로 들어와서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는 것이 있으면, 찬자가 따라서 큰 소리로 창한다.】 전사관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끝나면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이 제사에 참여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서게 하고, 대축이 케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 보

(전략) 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有坵】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爵冪，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亞終獻官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之) [以] 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祀) [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 [帨] 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齋殿卽座，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青苧

로 덮는다. 작세위에 나아가 찬을 씻고 수건으로 훑치며, 작을 씻고 수건으로 훑쳐서 광주리에 담아 준소에 받들고 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재전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제사 행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판위(版位)로 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면, 내시가 꿇어앉아 대야를 집어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부으면, 또 내시가 소반을 가져다 물대야를 받는다. 전하께서 손을 씻고, 내시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 드리어, 전하가 수건에 손 닦기를 끝내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올려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근시하는 내시는 따라서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시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는 세 번 향불을 피워 올릴 것을 아뢰어 청하고, 근시는 향로를 상 위에 올려놓으면, 근시가 찬을 가져다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뢰어 청하고, 끝나면 찬을 들어 근시에게 주면,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가져다가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례가 폐백을 잡아 올리라고 아뢰어 청한다. 폐백은 근시에게 주시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드리고, 찬을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다 동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상에 올려 전드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받는 것은 모두 서에서 동향하여 한다. 잔을 드리고, 잔을 전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於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受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가 작을 꿇어앉아 드린다. 판통례가 작을 잡아 올릴 것을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며,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을 닦는 것이 끝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집사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창하고,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잔을 잡아 헌작하였다가 집사자에게 잔을 주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고 창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이 하던 절차대로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제례(祭禮)가 끝난 것을 아뢰고, 아뢰는 일이 끝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事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

	<p>하고, 찬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서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네 번 절하고,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이 우주 모시기를 절차대로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자리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물 찬수를 걷는다.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고, 여러 관원은 반열을 동쪽 가까운 곳으로 옮긴다. 반수(班首)는 이름을 아뢰며 위문한다.” 하였다.</p>	<p>贊引就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p>
<p>68.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22일(정해) 2번째기사 예조에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재 올리는 의식의 규제를 청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전조로부터 대저 추천(追薦)458 할 적에 재를 올리고 비용을 쓰는데, 남녀가 주야로 모여서 다만 미관(美觀)만을 일삼고, 부처를 섬기며 죽은 이를 추천하는 본의는 거의 잃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나라의 행사나 대부와 사서인(士庶人)의 추천에는 모두 산수 깨끗한 곳에 나아가서 수륙재(水陸齋)를 올리게 하되, 그 차리는 데에는 속인은 금하고 다 승도(僧徒)를 시켜서 공궤하게 할 것이며, 나라의 행사에는 종친 한두 사람과 예조의 당상과 낭청 각 한 사람으로 모든 일을 점검하게 하며, 대부나 사서인은 빈소를 지키는 상주 외에는 자손 한 두 사람만 가게 하고, 이 외의 잡인은 비록 재올린 다음 날에도 참례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법석(法席)에서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다시 신칙하여 엄중히 금지하고, 나라에서 재올리는 물품은 찌밥[蒸飯] 30동이와 유과(油果) 아홉 그릇과 두부탕 아홉 그릇과 정병(淨餅) 아홉 그릇과 정면(淨麵) 아홉 그릇과 과일 아홉 그릇과 좌우 병(瓶)의 꽃이 여섯 가지인데, 흰 꽃을 쓰고, 주지(奏紙) 50권, 수건 저포(手巾苧布) 두 필, 납촉(蠟燭)은 등룡(燈籠)으로 대용하며, 주법 보시(主法布施)하는 목면이 한 필, 재주(齋廚) 보시하는 정포(正布)가 다섯 필로 한다. 2품 이상의 재에는</p>	<p>禮曹啓：“自前朝以來，凡於追薦，設齋糜費，男女晝夜聚會，徒爲美觀，殊失事佛薦亡之意。自今國行及大夫士庶人追薦，皆就山水淨處，設水陸齋，其辦設，除俗人，皆令僧徒供之。如國行則宗親一二、禮曹堂上、郎廳各一，點檢諸事。大夫士庶人，守殯喪主外子孫一二人往焉，此外雜人，雖設齋翼日，不許參與法席之禁，已有著令，自今申明痛禁。其國行物品，蒸飯三十盆，油果九器，豆湯九器，淨餅九器，淨麪九器，實菓九器，左右瓶花六用素花，奏紙五十卷，手巾苧布二匹，蠟燭代用燈籠，主法布施木絲一匹，齋廚布施正布五匹。二品以上齋，蒸飯九盆、油果、豆湯、淨餅、淨</p>

	<p>편밥 아홉 동이,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여섯 그릇, 주지가 15권이요, 3품 이하의 재에는 편밥이 여섯 동이,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여섯 그릇에, 주지가 10권이요, 관직이 없는 사람의 재에는 편밥이 세 동이에, 유과·두부탕·정병·정면·과일이 각각 세 그릇, 주지가 5권인데, 이상 좌우병의 꽃은 여섯으로 흰 꽃을 쓰고, 수건 정포(手巾正布)가 한 필이요, 납초로 등롱을 대용한다. 상항(上項)에 보인 각 품관이나 서인들로, 재물이 있는 자라도 정한 규제를 넘지 못하며, 재물이 없는 자는 자기 집의 정도에 따를 것이다.”</p> <p>고 하였다.</p>	<p>麪、實菓各六器、奏紙十五卷。三品以下齋，蒸飯六盆、油果、豆湯、淨餅、淨麪、實菓各六器、奏紙十卷。無職人齋，蒸飯三盆、油果、豆湯、淨餅、淨麪、實菓各三器、奏紙五卷。已上左右瓶花六，用素花，手巾正布一匹，蠟燭代用燈籠。上項各品及庶人有財者，毋過定制，無財者，稱家有無。”</p>
<p>69.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23일(무자) 3번째기사 예조에서 공정 대왕의 연제에 친행하는 의식에 대하여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좌 오른쪽 【점(坫)이 있다.】에 올려놓고, 폐백 광주리를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는 제기의 찬수 제구를 담아서 진설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는데,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올려 놓고 북향하여 서쪽을 상으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고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벌여 놓되,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라면 작(爵)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종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대축의 관세(盥洗)는 영좌 뒤에 마련한다. 다시 뽕나무 신주 자리를 설치하고, 뽕나무 신주궤를 받들어서 자리에 봉안하고, 다음에는 밤나무 신주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옛 영좌에 모시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두 줄로 서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하여 네 번 절하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p>	<p>(전략) 典祀官率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籠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罌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亞獻、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籠在洗東加(爵) [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大祝於靈座之後，更設桑主座，奉桑主匱安於座，次奉栗木神主匱以入，開匱奉出神主，安于舊靈</p>

위로 나아가 서게 한다. 집례관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관이 하는 말을 찬자가 다 전창(傳唱)한다.】 전사관 이하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은 뒤에 각각 자리에 나아가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집사자가 작을 씻는 자리로 나아가서 찬(瓚)을 씻어 물기를 닦고, 작을 씻어서 물기를 닦아 광주리에 넣어 준소로 받들고 가서 점상(坫上)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나아가서 악차 앞에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청하고, 아뢰기를 끝내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관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가 꿇어앉아서 대야를 들고 일어나서 물을 부으면, 또 한 내시가 꿇어앉아서 소반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 드리고, 전하가 수건에 손을 닦으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올려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근시와 내시가 따라서 올라간다.】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면, 근시가 찬(瓚)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향상 위에 놓는다. 근시가 찬을 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고 땅에 붓기를 아뢰어 청하면, 끝나면 찬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座, 覆以白苧巾。 執禮率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 西上四拜, 各就位。 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 入就殿庭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 典祀官以下四拜。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執事者詣洗爵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坫上。 禮曹判書進當幄前跪, 啓請行禮, 啓訖, 俛伏興。 判通禮導殿下出幄, 詣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四拜哭, 在位者, 皆四拜哭盡哀。 【先拜者不拜】 判通禮導殿下, 詣盥洗位北向立, 內侍跪, 取匱興沃水, 又內侍跪, 取槃承水, 殿下盥手, 內侍跪, 取巾於篚以進, 殿下帨手訖, 內侍受巾, 奠於篚。 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 【近侍內侍從升】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近侍以瓚受酒, 判通禮導殿下, 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奉香合,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

가져다가 꿏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아뢰어 폐백을 잡고 폐백을 올릴 것을 청하고, 폐백을 다시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찬수·폐백을 올리는 것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향로를 올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영좌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은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올려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하며 곡하게 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꿏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꿏어앉아서 작을 올리면,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작을 잡고 작을 드리게 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려 드린다.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꿏어앉게 하고, 대축이 영좌 오른쪽에 나아가 꿏어앉아 축문을 읽는 것이 끝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가서 북향하고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끝내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꿏어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았다가 작을 올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리고,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는 절차도 아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고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판통례가 아

爐于案。 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 近侍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 【凡進香、進饌、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

	<p>퇴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전하께서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기를 슬피 한다. 예조 관서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제사에 참석했던 여러 관원을 나누어서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찬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다 네 번 절하고,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이 신주를 들어 모시기를 의례와 같이 하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로 돌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 관원(本殿官員)이 요여(腰輿)로 뽕나무 신주를 받들어 모시고 종묘로 가서 뜰 사이[階間]에 묻는다. 【《통전(通典)》에는 종묘 전각 북쪽 행각 아래 두 뜰 사이라고 되어 있다.】 여러 백관이 반열을 옮기어 동쪽으로 가까이 가서, 반수(班首)가 명함을 올려서 위문을 아뢴다. 아헌관은 정1품, 종헌관도 정1품, 전사관은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가 하는 것이나, 유고하면 봉상시 윤(奉常寺尹)이 한다. 집례는 하나인데, 3품이다. 대축이 하나, 내·외 지제고(內外知製誥)의 축사(祝史)가 둘인데, 4품이요, 재랑(齋郎)이 둘인데, 5품이요, 알자가 하나인데, 6품이요, 찬자는 둘이며, 통례문 판관·통찬(通贊)·찬인은 하나인데, 참외(參外)이다.”</p> <p>하였다.</p>	<p>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幄次，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本殿官員以腰輿奉桑木主，詣宗廟階間埋之。【通典云：“廟殿北廡下兩階之間。”】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亞獻官正一品，終獻官正一品，典祀官判奉常寺事，有故則尹。執禮一三品，大祝一內外製，祝史二四品，齋郎二五品，謁者一六品，贊者二通禮門判官，通贊、贊引一參外。</p>
<p>70.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23</p>	<p>(전략)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는다. 【집(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는 준소에 놓고, 향로·향합·초를 아울러 영좌 앞에 진설한다. 제기와 찬수 담은 제구를 마련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p>	<p>(전략) 典祀官帥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祭器，實饌</p>

일(무자) 4번째기사  
 예조에서 공정 대왕의  
 연제 때 섭행하는 의  
 식을 아뢰다

왼편에 설치하고,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덮고 북향하여 서쪽을 머리로 한다. 세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鬯)는 세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얹어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벌려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 씻는 광주리면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세는 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영좌 뒤에다 다시 뽕나무 신주 자리를 설치하고, 뽕나무 신주궤를 만들어 자리 위에 봉안하고, 다음에는 밤나무 신주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옛 영좌에 모셔 놓고 흰 모시 보[巾]로 덮는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에 있는 배위에 나아가서 두 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제자리로 간다.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재랑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는 것은 찬자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은 후에 각각 자리로 나가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찬(瓚)을 씻어서 물기를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놓고 받들고 준소로 가서 점상(坫上)에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아헌관·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초헌관 이하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행례하기를 청하고,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는 것이 끝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며, 집사자가 찬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다. 알자가 굿

具。設尊於戶外之左, 【玄酒在西】皆加勺罍, 北向西上,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鬯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則又實以爵】設諸執事洗於獻官洗東南, 北向, 大祝於靈座之後, 更設桑主座, 奉桑主匱安于座, 次奉栗木神主匱以入, 開匱奉出神主, 安于舊靈座, 覆以白苧巾。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四拜訖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 入就殿庭拜位。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 盥(洗) [帨] 訖, 各就位。執事者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 贊引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哭, 初獻官以下皆四拜哭。【先拜者不拜】謁者進獻官之左, 請行禮。謁者引初獻官, 詣盥洗位北向立, 盥手帨手訖, 引初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執事者以瓚受酒。謁者引初獻官, 詣靈座前北向立,

어앉아서 세 번 향을 피우라고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에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잔을 초헌관에게 주고, 초헌관이 잔을 잡아서 땅에 부운 뒤에 잔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 광주리를 가지고 폐백을 드렸다가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려 드리게 한다. 【무릇 향합을 받들고 찬과 폐백을 받드는 이는, 다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받들고, 폐백을 받들어 올리고, 잔을 받들어 올리는 자는 모두 헌관의 왼편에 있다. 작을 주고, 작을 받들어 올리는 이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찬하여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게 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올라가 준소로 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렸다가, 작을 집사하는 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리게 하고,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끝나면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들어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수건에 닦은 후에,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렸다가 작을 집사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리게 하고,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게 하고, 인도하여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跪， 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初獻官， 初獻官執瓚灌地訖， 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靈座前。 【凡奉香授瓚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奠瓚皆在獻官之左。 授爵、奠爵準此。】 謁者贊俛伏興小退， 再拜哭， 引初獻官降自東階復位。 小頃， 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初獻官， 詣靈座前北向立， 贊跪， 執事者以爵授初獻官， 初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 小退北向跪， 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 再拜哭， 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 詣盥洗位， 北向立盥帨訖， 引亞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亞獻官， 詣靈座前北向立， 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謁者贊俛伏興， 小退再拜哭， 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 行禮如亞



	<p>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이 하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나가게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행례가 끝난 것을 고한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 초헌관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찬인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이 신주를 들어 모시기를 의례대로 하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축문과 폐백을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本殿) 관원이 요어로 뽕나무 신주를 받들고 종묘로 나아가서 뜰 사이에 묻는다. 【《통전》에는 종묘 전각 북쪽 행각 아래 두 뜰 사이라고 하였다.】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이다. 전사관은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로서, 유고하면 윤(尹)이 대리한다. 집례는 4품이며, 대축과 문관은 참외(參外)이다. 축사(祝史)가 둘이요, 봉상시는 참외이며, 재랑이 둘이요, 알자가 하나요, 찬인이 하나인데, 모두 참외이며, 제주관(題主官)이 하나이다.” 하였다.</p>	<p>獻儀，引降復位。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典祀官、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本殿官員以腰輿奉桑木主，詣宗廟階間埋之。</p> <p>【通(奠) [典] 云：“廟殿北廡下兩階之間。”】初獻官正一品，亞獻官正二品，終獻官從二品，典祀官判奉常寺事，有故則尹，執禮四品，大祝文官參外，祝史二奉常寺參外，齋郎二、謁者一、贊者一、贊引一竝參外，題主官一。</p>
<p>71.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30일(을미) 3번째기사 예조에서 헌릉에 섭행하는 의식을 아뢰다</p>	<p>섭행하는 의식은, 【졸곡 후 사시에 올리는 큰 제사와 명절에 별달리 올리는 제사와 삭망에 차례 지내는 것도 이에 준한다.】</p> <p>“하루 앞서 능사가 그 속관을 거느리고 능 재실을 소제하고, 제수 차리는 장막을 능소 가까운 땅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설치한다. 집사자가 헌관의 자리를 능 재실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는 헌관의 뒤에 조금 남방으로 서향하고 북쪽을 위로 하여 자리하고, 알자는 집사의 남쪽에 서향하여 자</p>	<p>攝行儀曰：</p> <p>【卒哭後四時大享、有名日別祭、朔望奠皆同。】前一日，陵司帥其屬，掃除陵室，設饌幔於陵所近地，隨地之宜。執事者設獻官位於陵室東南，西向，執事者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北</p>

리하고, 감찰은 서남쪽에 북향하여 자리한다. 당일 행사하기 전에, 능사가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능 재실을 소제하고, 집사자가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다음에는 제기와 찬수를 담은 제구를 마련하여 놓는다. 준소는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알자가 먼저 배위로 나아가 북향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로 가서, 두 줄로 하여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각각 제자리로 나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술을 떠내고, 집사자는 잔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향 피우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에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든 자는 동쪽에 있어 서향하고, 향로를 받들어 올리는 자는 서쪽에 있어 동향한다. 잔을 주는 자와 잔을 올려 드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잔을 잡았다가 잔을 들어 올리고,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神位)앞에 올려 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축(祝)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해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떠내고, 집사자가 잔을 가지고 술을 받으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잔을 잡았다 들어 올리고, 잔을

上, 謁者位於執事之南, 西向, 監察位於西南, 北向。其日未行事前, 陵司帥其屬, 掃除陵室。執事者入, 奠祝版於靈座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時至, 謁者先就拜位, 北向四拜訖, 引監察及諸執事入就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謁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 西向立, 謁者曰四拜, 獻官四拜。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 入詣靈座前北向立, 贊跪,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 小退北向跪, 祝進靈座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出戶降復位。小頃, 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 入詣靈座前北向立, 贊跪,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

	<p>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린다.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 가 일어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내려가 제자 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 이 하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하 고, 알자가 감찰과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게 하고, 알자 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예찬 을 거두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 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出戶降復 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 儀，引降復位。謁者曰四拜，獻官四 拜，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 俱復拜位，謁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 拜訖，以次引出，謁者就拜位，四拜而 出。執事者徹禮饌，祝版瘞於坎。</p>
<p>72.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30 일(을미) 4번째기사 예조에서 광효전 초하 루 보름에 친히 제사 하는 의식을 아뢰다</p>	<p>광효전 초하루 보름에 친히 차례를 올리는 의식은, 【졸곡 뒤에 명절날 별달리 제사하는 것도 같다.】 “하루 앞서 통례문이 전하의 관위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아 헌관·종헌관의 자리는 전하의 관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종 실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중심을 선두로 하여, 품계를 달리하고 두 줄로 하여, 서쪽을 상으로 하고 모 두 북향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 관원을 인솔하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 은 제기와 찬수 담은 제구를 마련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의 동편에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여러 향관(享官)과 제사에 참여하는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殿 門) 밖에 모이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여(輿)를 타고 나와 임시로 재전 (齋殿)에 가게 하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 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 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축이 췌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p>	<p>廣孝殿朔望親享儀：【卒哭後有名日別 祭同】前期，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 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 下版位之後近南，西向，設宗室以下文 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 頭，異位重行西上，俱北向。典祀官， 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 器，實饌具，設奠所〔尊所〕於戶外之 左。時至，諸享官及陪祭群官，皆聚 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 權就齋殿。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 群官入就位，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 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p>

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판통례가 외판(外辦)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에 이르게 하여 서향하고 서게 하고,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하면, 통찬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자리에 있는 제관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오르고 내리는 뜰 위아래에서 모두 읍(揖)하는 자가 있다.】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잔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지계문 밖에서는 읍을 하고,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는 향로를 향안 위에 올려 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자는 동쪽에 있으면서 서향하고, 향로 받드는 자는 서쪽에 있으면서 동향한다. 잔을 받들고 잔을 올려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잔을 잡고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놓게 하고, 판통례가 아뢰어 청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고 꿇어 앉게 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동향하고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서 동계로 내려가 판위에 돌아가게 한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잔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잔을 잡고 들어 올렸다가,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리게 하고, 봉례랑이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조금 물러나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이 하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

覆以青苧巾。判通禮啓外辦，導殿下至版位西向立，啓請四拜，殿下四拜。通贊曰四拜，在位者皆四拜。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升降階，上下皆有揖。】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以盞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戶外有揖，戶內伏地。】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東西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奉禮郎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奉禮郎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通贊曰四拜，在位者皆四拜。判通禮啓禮畢，

	<p>하고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네 번 절하면, 통찬이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자리에 있던 제관이 모두 네 번 절한다. 판통례가 행례하는 것이 끝났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게 하고, 봉례랑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대축이 우주를 들어 모시는 것을 의례와 같이 하고,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을 거두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고, 전하는 여를 타고 궁중으로 돌아간다.” 하였다.</p>	<p>導殿下還齋殿。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大祝納虞主如儀，典祀官帥其屬，撤禮饌，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宮。</p>
<p>73. 세종 9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9월 30 일(을미) 5번째기사 예조에서 광효전 초하루 보름에 섭행하는 의식을 아뢰다</p>	<p>섭행하는 의식은 【졸곡 뒤 명절에 별달리 제사지내는 것도 같다.】 “전기해서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 조금 남쪽으로 두 줄로 서향하여 북쪽을 상으로 하고 자리를 잡는다. 감찰은 전정의 남쪽에서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자리를 잡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행하여 따른다. 알자·찬자는 동계의 서남방에서 서향하고 북쪽을 상으로 하여 자리를 잡으며, 전사관·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좌 오른쪽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는 제기와 제수 담은 제구를 진설하여 놓고, 준소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한다. 시간이 되면, 헌관 이하 모두 전문 밖으로 나가서,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사배하고 난 뒤에 자리로 나간다. 알자가 감찰·전사관·여러 집사자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두 줄로 하여 북향하고 서쪽을 상으로 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찬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하고 난 뒤에 각각 제자리로 간다. 대축이 케를 열고 우주를 받들어 내어 영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p>	<p>攝行儀曰：【卒哭後有名日別祭同。】 前期，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北上。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時至，獻官以下皆就殿門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青苧巾。謁者引獻官，</p>

서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오르내리는 뜰 위와 아래에서는 모두 읊을 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잔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 앞으로 나아가 【지계문 밖에는 읊을 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게 하고,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고 친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든 자가 동쪽에 있어서 서향하고, 향로를 받든 자가 서쪽에 있어 동향한다. 잔을 주는 자와 잔을 받아서 올리는 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잔을 잡아 들어 올렸다가,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앞에 올려놓게 하고,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게 하고, 대축이 영좌 앞 오른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나면,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잔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여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어서, 헌관이 잔을 잡으며 잔을 들어 올렸다가,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영좌 앞에 올려 드리게 하고, 알자가 찬하여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관이 하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에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찬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헌관이 네 번 절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가 감찰·전사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게 하고, 찬자가 ‘사배

入就位西向立，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升降階，上下皆有揖。】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戶外有揖，戶內伏地。】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出。謁者引監察、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大祝納

	<p>하라.’ 찬하여, 감찰 이하가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이 우주를 들어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알자와 찬자가 배위로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虞主如儀， 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 典祀官帥其屬， 徹禮饌， 祝版瘞于坎。</p>
<p>74.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10월 3일(무술) 1번째기사 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잡은 짐승을 종묘에 올리고 의정부 등에 나누어 주라고 하다</p>	<p>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사냥하여 잡은 짐승을 종묘에 올리고, 또 정부·육조 대언사(代言司)에 나누어 주라 하니, 임금은 의정부와 육조에 술까지 내리게 하였다.</p>	<p>戊戌/上王遣人， 以所獲禽薦于宗廟， 又分賜政府、六曹代言司， 上賜酒于議政府、六曹。</p>
<p>75.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10월 7일(임인) 1번째기사 예조에서 광효전의 사시 대향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된 자를 거느리고 들어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 오른쪽에 올려놓고, 【올려놓는 탁자[拈]가 있다. 】 폐백 광주리[幣籠]는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놓아둔다. 다음은 제기에 찬구(饌具)를 담아 진설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 왼쪽에 차려 놓으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 다 국자를 놓고 보자기로 덮어두며,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세(洗)는 동계(東階) 동남쪽에 두되, 북향으로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 뇌(壘)는 세의 동쪽에 두고 국자[勺]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놓고 수건을 넣어 둔다. 【잔을 씻어 담은 광주리에 잔도 담아 둔다. 】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의 세는 그 동남쪽에 북향으로 두고, 【관세는 동쪽에 두고, 작세는 서쪽에 둔다. 】 뇌는 세의 동쪽에 두어 국자를 걸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고 수건을 넣어 둔다. 【잔을 씻어 담은 광주리에는</p>	<p>(전략)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奠祝版於靈座之右， 【有拈】 陳幣籠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 【玄酒在西】 皆加勺罍， 北向西上，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壘在洗東加勺， 籠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 亞終獻洗又於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壘在洗東加勺， 籠在洗西南， 肆實以巾， 【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p>

잔도 담아 둔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는 아헌과 종헌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둔다. 제사를 올릴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소속 관원을 데리고 들어와 제수를 다 차린 다음에, 여러 향관(享官)과 참례하는 여러 신하들이 다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전하의 수레를 인도하여 나와 임시로 재전(齋殿)에 들시거든, 집례(執禮)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뜰 앞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두 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四拜)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과 대축(大祝)과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뜰 앞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집례의 하는 말은 찬자가 다 높은 소리로 전한다.】 전사관 이하가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데리고 관세위에 가서 손을 씻은 다음 각기 제자리에 가서 선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군신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들어가 서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고, 대축(大祝)이 궤를 열고 우주(虞主)를 영좌(靈座)에 모시고 푸른 저포건(苧布巾)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찬(瓚)을 씻어 닦고, 작(爵)을 씻어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가지고 존소(尊所)에 가서 탁자[坫]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계청(啓請)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위(版位)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사배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다 사배한다. 【먼저 절한 자는 다시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가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세수대야를 들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내시가 꿇어앉아 반(盤)으로 그 대야 물을 받아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 으면, 내시가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다 닦으면, 내시가 그 수건을 받아 도로 광주리에 넣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오르고 내릴 때에는 읍(揖)하고, 내시와 근시가 따라 오른다.】 전하가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서

東南北向。時至，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執禮率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唱。】典祀官以下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 [幌] 訖，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臣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青苧巾。執事者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與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筐以進，殿下幌手訖，內侍受巾奠於筐。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升降階，上下皆有揖。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



향으로 서면,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서 들면, 내시가 찬(瓚)으로 그 술을 받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지계문 밖에 선 자는 읍(揖)하고, 문 안에 선 자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기를 계청하고, 내시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또 내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올리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香案) 위에 놓고, 근시가 꿇어앉아 찬을 올린다.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계청하여 마친 뒤에, 찬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꿇어앉아 폐백 광주리[幣篚]를 올린다. 판통례가 ‘폐백을 드리시라.’ 계청하면,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진효(進肴)·진찬(進瓚)·진폐(進幣)는 다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다 서쪽에서 동향으로 하며,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문밖에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뒤에 판통례는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가서 서향으로 서게 한다.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 후 꿇어앉기를 청하고, 근시가 꿇어앉아 잔을 올린다. 판통례가 ‘잔을 잡아 올리라.’ 계청하면,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계청하고, 대축이 영좌 오른 쪽에 나아가서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은 뒤에, 판통례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재배하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손을 씻고 닦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준(尊)을 잡은 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낸다. 집사하는 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

執尊者舉鬯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戶外有揖，戶內有伏地。】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少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酒，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

	<p>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또 찬자가 꿇어앉게 한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잔을 받아 올린다.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고, 알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지계문 밖에 나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관이 하는 의식(儀式)과 같이 행례하게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에 돌아온다. 판통례가 사배하는 계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다 사배하기를 마친다. 예조 관서가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 돌아가고, 알자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군관(文武群官)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절하는 자리에 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가 다 사배한다. 다음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이 우주(虞主)를 모셔 독에 넣기를 의식(儀式)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여 절하는 자리에 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과 폐백을 구덩이[坎]에 묻은 뒤에, 전하는 수레로 환궁하였다.” 하였다.</p>	<p>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出戶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訖，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虞主如儀，執禮率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率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殿下乘輿還宮。</p>
<p>76. 世宗 10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永樂) 18年) 10月 12日(丁未) 1번째기사 변효문으로 하여금 오부 학당을 조성한 관리를 대접하게 하다</p>	<p>정사를 보다. 주서(注書) 변효문(卞孝文)을 명하여 오부 학당(五部學堂)을 조성한 관리에게 음식물을 대접하고 아래로 공장(工匠)들에게까지 내리게 하였다.</p>	<p>丁未/視事。命注書卞孝文，饋五部學堂造成官吏，下逮工匠。</p>
<p>77. 세종 10권, 2년</p>	<p>임금이 말하기를,</p>	<p>上曰：“文昭、廣孝殿之祭用素饌未便，</p>

<p>(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0월 12일(정미) 2번째기사 문소전과 광효전에 올리는 제물에 대해 의논하게 하다</p>	<p>“문소전(文昭殿)과 광효전(廣孝殿)의 제사에 소찬(素饌)으로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정부와 육조에 명하여 함께 의논하여 올리라.” 하였다.</p>	<p>其令政府、六曹同議以聞。”</p>
<p>78. 世宗 10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10月 24日(己未) 5번째기사 강원도 영동 지방의 미곡을 흥원창에 수송하여 서울에 바치게 하다</p>	<p>강원도 영동(嶺東) 지방의 미곡(米穀)을 다 흥원창(興原倉)으로 수송하여 서울에 바치게 하고, 경상도 세공 미곡(歲貢米穀)은 아직 정지하도록 하였다.</p>	<p>命以江原道嶺東米穀，悉輸興原倉，以納于京，姑停慶尙道歲貢米穀。</p>
<p>79.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1월 7일(신미) 3번째기사 예조에서 《원·속육전》에 실린 관지를 관리들이 받들어 시행할 것을 아뢰다</p>	<p>(전략) 1. 영락 10년의 왕지(王旨)인데, 조운(漕運)하였다가 물에 빠져 죽은 수군은 유사(攸司)를 시켜 그의 가족을 충분히 구휼하여 주라 하니, 정부(政府)에서 건의하기를,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이르기를, ‘선군(船軍)으로 병고가 있는 자도 임금에게 올려서 그의 가족을 구휼하여 준다.’ 하였으니, 하물며 미곡(米穀)을 조운(漕運)하였다가 죽음에 이른 자이겠는가. 청컨대, 쌀과 콩을 합하여 4섬씩 주고 3년 동안 그의 집에 부역을 면제하여 주라 하였고, (후략)</p>	<p>(전략) 一，永樂十年王旨：‘因漕運溺死水軍，令攸司完恤其家。’ 政府議：‘《經濟六典》，船軍病故者，轉聞于上，存恤其家，況漕轉米穀，因而致死者乎？請給米豆并四石，限三年復役。’(후략)</p>
<p>80.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1월 25일(기축) 1번째기사</p>	<p>임금이 예관(禮官)에게 이르기를, “종묘(宗廟)의 제수(祭需)를 예문에 제정된 외에 다른 물건을 섞어서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원묘(原廟)에는 이미 속례(俗禮)를 따라 하고 있으니, 육선(肉膳)을 가설하는 것이 어떠하냐.”</p>	<p>己丑/上謂禮官曰：“宗廟禮料，不可雜以他物。若原廟則既從俗禮，就加肉膳何如?” 禮官啓：“宋太祖親享太廟，判太常和峴言：‘唐天寶中享太廟禮料</p>

<p>예관과 원묘에 육선을 가설하는 것에 대해 의논하다</p>	<p>하였다. 예관이 계(啓)하기를,  “송나라 태조(太祖)가 친히 태묘(太廟)에 제사할 때에, 태상(太常) 화현(和峴)이 말하기를, ‘당나라 천보(天寶) 연간의 태묘(太廟)의 제향에 다만 예에 제정된 제품만 진설하고, 각 실(室)마다 상시에 쓰던 식품은 한 아반(牙盤)씩 더 진설하였으니, 지금도 당나라 고사(故事)에 따라 아반(牙盤)을 별도로 진설하라.’ 하였다 하나, 우리 나라에서는 종묘에는 예(禮)에 정한 제수만 진설하고, 상시에 쓰던 식품은 진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소전(文昭殿)과 광효전(廣孝殿)의 대소 제향(大小祭享)에만 별도로 상시에 쓰시던 육선(肉膳)을 진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外，每室加常食一牙盤。今請如唐故事，別設牙盤。’本朝於宗廟，只設禮料，而不設常食。乞於文昭殿、廣孝殿大小祭享，別設常食用肉膳。”從之。</p>
<p>81. 世宗 10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11月 25日(己丑) 2번째기사  울랑합 요비 등 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울랑합(兀郎哈)과 요비(要非) 등 4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兀郎哈) [兀良哈] 要非等四人來獻土宜。</p>
<p>82.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1월 25일(기축) 3번째기사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이 공물과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2천근, 소목(蘇木) 5백 근, 동(銅) 2백 근을 바쳤다. 회답으로 마포(麻布) 30필, 면포(縣布) 4백 70필을 주었다. 농주 태수(濃州太守) 평종수(平宗壽)와 축주 석성 관사(筑州石城管事) 민부소보(民部少輔) 평만경(平滿景)과 석성 상왜(石城商倭) 중금(宗金) 등이 또 각기 사람을 보내어 그 지방 토산물을 바쳤다. 답례로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p>	<p>日本國九州總管源義俊遣人獻硫黃二千斤、蘇木五百斤、銅二百斤，回賜麻布三十四、縣布四百七十四。濃州太守平宗壽、筑州石城管事民部少輔平滿景、石城商倭宗金等亦各遣人，來獻土宜，回賜有差。</p>
<p>83.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p>	<p>임금이 광효전(廣孝殿)에 나아가 초하루 제사를 올리고 비로소 육찬(肉饌)을 들었다.</p>	<p>乙未朔/上詣廣孝殿行朔祭，始用肉饌。</p>

<p>(永樂) 18년) 12월 1일(을미) 1번째기사 광효전에 나아가 초하루 제사를 올리고 비로소 육찬을 들다</p>		
<p>84. 世宗 10卷, 2年 (1420 庚子 / 명 영락 (永樂) 18年) 12月 17日(辛亥) 3번째기사 여진 10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여진(女眞) 10여 명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그들에게 후하게 음식을 먹이라 명하고, 의복과 관(冠)과 신[履]을 주었으니, 이렇게 후대하는 것이 전례이었다.</p>	<p>女眞十餘人來獻土宜，命厚饋之，賜衣服冠履，例也。</p>
<p>85. 세종 10권, 2년 (1420 경자 / 명 영락 (永樂) 18년) 12월 27일(신유) 3번째기사 술 2백 병을 장빙군에 내려 주다</p>	<p>술 2백 병을 장빙군(藏氷軍)에게 내려 주었다.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못하였다 하여, 군정(軍丁)을 모아서 얼음을 저장하게 한 것이다. 상왕이 빙고(氷庫)가 풍양(豐壤)에서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운반하기가 괴롭다 하여, 바로 이궁(離宮)의 동쪽에다가 별도로 빙고를 만들게 하여 그 폐단을 개혁케 하였다.</p>	<p>賜酒二百瓶于藏氷軍。氷不堅合，故合丁藏之。上王以氷庫去豐壤甚遠，輸者苦之，乃於離宮之東，別作氷庫，以革其弊。</p>
<p>86.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월 4일(정묘) 3번째기사 예조에서 금주령의 강화를 청하다</p>	<p>예조에서 금주령을 더 한층 신칙하여, 비록 시제 때 산소에서 차를 쓰고 술을 쓰지 못하도록 청하니, 임금이 제사에 술 쓰는 것은 금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p>	<p>禮曹請：“申明禁酒之令，雖時祭上塚，皆用茶，不得用酒。”上命祭祀用酒者勿禁。</p>
<p>87.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월 13</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주례(周禮)》를 상고하여 보니, 규찬(圭瓚)·장찬(璋瓚)이 모두 받침대[臺]가 없는 것이온데, 우리 나라 종묘에서 쓰는 은찬(銀瓚)은 받침대에 올려</p>	<p>禮曹啓：“謹按《周禮》，圭瓚璋瓚皆無臺。本朝宗廟銀瓚盛於盤，有違古制，請勿用盤。”從之。</p>

<p>일(병자) 2번째기사 예조에서 종묘에서 쓰 는 은찬에 받침대를 쓰지 말도록 아뢰다</p>	<p>놓게 되어 있어, 옛 제도에 어긋나오니, 바라옵건대, 받침대를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88.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월 13 일(병자) 4번째기사 예조에서 각도 진상 물품의 허실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진상하는 물목(物目) 속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는 홍시(紅柿)는 기재하였으나, 건시(乾柿)는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인포(引鮑)는 기재하였으나, 생전복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함길도에서는 고등어는 기재하였으나, 내장젓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백산(白巖)엿은 오직 전주(全州)에서만 만드는 것인데, 역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니, 상의 여러 종류 물건들을 의당 진상하게 할 것이오며, 또 평안도의 고치(膏雉)491) 와 냉동어(冷凍魚)와 제주의 감자(柑子)와 유자(柚子)와 동정굴(洞庭橘)과 유감(乳柑)과 청굴(靑橘)과 표고(標蒿)와 비자(檉子)와 조곽(早藿)과 원포(圓鮑)와 인포(引鮑)와 조포(條鮑)와 추포(搥鮑)와 오징어 등 물건도 또한 그 시절을 따라서 진상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제주도에서 진상하는 것은 면제하도록 명하였다.</p>	<p>禮曹啓: “進上物目內, 於慶尙、全羅二道錄紅柿, 而不錄乾柿, 錄引鮑, 而不錄生鮑。 於咸吉道錄古道魚, 而不錄腹掌醢。 白巖飴糖, 惟產於全州, 而亦不載錄。 右件等物, 宜并令供進。 且平安道之膏雉、凍魚, 濟州之柑子、柚子、洞庭橘、乳柑、靑橘、藿蒿、檉子、早藿、圓鮑、引鮑、條鮑、搥鮑、烏賊魚等物, 亦將趁節供進。” 命除濟州進上。</p>
<p>89.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2月 10 日(癸卯) 3번째기사 올량합 호소로가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올량합(兀良哈) 호소로(好所老)가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兀良哈好所老來獻土宜。</p>
<p>90.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2月 25 日(戊午) 1번째기사</p>	<p>(전략) 방물을 바치는 표문에는, “성신(聖神)하옵게도 계승하여 지키실 제, 큰 서울이 완성된 것을 고하오니, 하늘과 땅이 정성에 감동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겹쳐 이른지라,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 흑세마포 50필, 인삼 1백 근, 잡</p>	<p>(전략) 方物表曰: 聖神繼述, 大邑告成。 天地感孚, 嘉祥荐至。 謹備黃細苧布二十四匹、白細苧布五十四匹、黑細麻布五十四匹、人蔘</p>

<p>중국의 새 서울을 세운 것을 경하하는 표문과 전문</p>	<p>색말 20필을 갖추었사오니, 위의 물건들이 거처른 변지에서 생산된 것이옵고, 제작한 솜씨도 우량하지 아니하오나, 감히 위에 바치는 의식에 충당하옵는 것은, 혹시라도 충심에서 나온 신의를 헤아릴까 함이외다.”</p> <p>하고, 황태자에게 올리는 전문에는 말하기를,</p> <p>“높음이 다음 자리에 계시고, 덕망이 원량(元良)으로 나타나시와 은근히 황제의 계획을 도우시어, 국운이 형통하고 태평이 이룩되어, 경사가 종묘와 사직에 먼먼하옵고, 기쁨이 신하와 백성에 넘치오니, 공경히 생각하옵건대, 위대하신 도량이 못처럼 깊으시고, 영특하신 용모가 옥(玉)같이 온화하신지라, 백성의 뜻을 아름답게 좇으시어 만대에 내려갈 신경(神京)을 건설하시고, 위로는 하늘의 마음을 좇으시어 일월의 좋은 선물을 받으시므로, 중화(中華)와 외이(外夷)가 와서 축하함을 받으심은 진실로 도와드린 공로로 말미암음입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신이 외람되게 용렬한 지격으로 마침 밝은 시대를 만났사와, 나아가 굽으려 하례하는 데에 참례하는 것은 막혔사오나, 오직 찬양하고 축도할 줄은 아나이다.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30필, 인삼 50근, 잡색말 4필을 올리나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서장관(書狀官) 유순도(庾順道)에게 이르기를,</p> <p>“네가 북경에 도착하여 예부에 ‘표·전(表箋) 끝에 어느 날로 쓸까.’를 물어서, 예부에서 대답하거든 다시 ‘처음에 이미 공경해서 모월 모일(某月某日)에 성절 천추절(聖節千秋節)을 만났사옵습니다.’라고 쓰고, 끝에 다시 또 ‘모일(某日)이라고 쓰면 너무나 중첩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하면, 예부에서 반드시 가리어서 말할 것이니, 네가 마땅히 상세하게 물어보라.”</p> <p>하였다.</p>	<p>一百觔、雜色馬二十四。 右件物等，產從荒裔，製匪良工，敢充享上之儀，庶諒由中之信。</p> <p>賀皇太子箋曰：</p> <p>尊居儲位，德著元良。 密贊皇猷，運昇亨泰。 慶縣宗社，喜溢臣工。 恭惟偉量淵沖，英姿玉裕。 丕從民志，建萬世之神京； 上協天心，膺兩儀之嘉貺。 用致華夷之來賀，良由翼亮之膚功。 伏念，臣猥以庸資，端逢昭代，阻參趨蹕之列，惟知頌禱之勤。 獻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三十四、人蔘五十觔、雜色馬四匹。</p> <p>上謂書狀官庾順道曰：“爾到京師，問於禮部曰：‘表箋末書某日乎?’ 禮部曰：‘然。’則復問曰：‘始面既書欽遇某月某日聖節千秋，末又書某日，則無乃疊乎?’ 則禮部必分拆言之，爾當詳問之。”</p>
<p>91.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p>	<p>거가가 뱀내[蛇川]에 머무르매,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저녁에 원주 북교(北郊)에 머물렀는데, 도로가 치도되지 아니하였고, 조식 공궤가 갖추지 못하였</p>	<p>辛酉/駕次蛇川，設小酌，夕次原州北郊，道路不治，供億不備。</p>

<p>(永樂) 19年) 2月 28日(辛酉) 1번째기사 거가가 뱀내에 머물다</p>	<p>다.</p>	
<p>92.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2월 29 일(임술) 1번째기사 거가가 회현을 넘어 저녁에 안흥역 아래에 머물다</p>	<p>거가가 회현(檜峴)을 넘어서 저녁에 안흥역(安興驛) 아래에 머무르니, 전라도 관찰사가 사람을 보내어 말과 궁시(弓矢)를 상왕에게 바치고, 음식물을 임금에게 바쳤다.</p>	<p>壬戌/駕踰檜峴，夕次安興驛下，全羅道觀察使遣人獻馬及弓矢于上王，以膳羞獻于上。</p>
<p>93.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3月 9日 (辛未) 4번째기사 진헌하는 인삼을 서울 에서 포장하게 하다</p>	<p>진하사(進賀使)의 통사(通事) 구경부(仇敬夫)가 평양에서 와서 계하기를, “〈황제에게〉 진헌하는 인삼이 1백 근이나 모자랍니다.” 하였다. 임금이 예조에 명하여 제용감(濟用監)에 비치한 인삼 3백 근을 뽑아내어서 보충하게 하였다. 과거에 진헌하는 인삼은 평안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였으므로, 평양에 와서 비로소 그 수가 부족함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뒤에 평안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진헌하는 물품을 지방에서 포장하게 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제용감의 인삼으로 진헌하게 하고, 정부와 육조·사헌부가 합동하여 포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인하여 본도에 명하여 공물로 올리는 인삼은 예에 따라 상납하게 하였다.</p>	<p>進賀使通事仇敬夫自平壤來啓曰：“進獻人蔘百觔不敷。”上令禮曹擇濟用監人蔘百觔以充之。進獻人蔘，前此令平安道備辦，故到平壤，乃知其不敷也。後，平安道觀察使啓：“進獻之物，令外方封裹，甚爲未便。今後以濟用監人蔘進獻，政府、六曹、司憲府眼同封裹。”從之。仍命本道貢蔘，依例上納。</p>
<p>94.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3월 12 일(갑술) 1번째기사</p>	<p>낮에 독음포(秃音浦)에 머물러 장막에서 술자리를 차렸는데, 효령 대군 이보 등이 참석하였다. 상왕은 풍양의 이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서울로 돌아왔다.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나아가 문안을 드렸다.</p>	<p>甲戌/晝停秃音浦，置酒帳殿，孝寧大君上王還御豐壤宮，上還京。議政府率百官詣闕，問起居。</p>



<p>낮에 독음포에 머물러 장막에서 술자리를 차리다</p>		
<p>95.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3月 17日(己卯) 1번째기사 임금이 상왕에게 고기 반찬을 올리다</p>	<p>임금이 영의정 유정현과 지신사 김익정을 보내어 고기반찬을 상왕에게 올렸다.</p>	<p>己卯/上遣領議政柳廷顯、知申事金益精，進肉膳于上王。</p>
<p>96.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3월 18일(경진) 4번째기사 예조에서 헌릉에 올릴 상식을 미리 준비해 간수해 둘 것을 아뢰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헌릉(獻陵) 은 만일 장마가 지면 왕래하기가 어려우니, 조석으로 상식 올릴 음식을 미리 준비하여 재사(齋舍)에 간수하여 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獻陵若值雨潦，則難於往來。朝夕奠獻之具預備，藏於齋舍。” 從之。</p>
<p>97.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3月 20日(壬午) 1번째기사 세 공신과 공신의 적장들이 상왕께 헌수연을 올리다</p>	<p>공신 등이 번갈아 일어나서 축배를 올리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차례로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임금이 꿇어앉아서 축배를 올리니, 상왕은 왼손으로 석린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잡아 석린에게 술을 먹이었다. 석린은 나이와 인격이 다 높고, 총애와 대우가 특이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며 훌륭하게 여겼다. 연회가 끝난 뒤, 상왕은 풍양 이궁으로 돌아가고, 임금은 궁으로 돌아왔다.</p>	<p>功臣等迭起爲壽，奏樂極歡，以次起舞。上跪上壽，上王左執石璘手，右執觴以飲石璘。石璘年德俱邁，寵遇殊異，人皆嘆美。宴罷，上王還豐壤，上還宮。</p>
<p>98.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p>	<p>주자소(鑄字所)에 술 1백 20병을 내려 주었다. 전자에 책을 찍는데 글자를 구리판[銅板]에 벌여 놓고 황랍(黃蠟)을 끓여 부어, 단단히 굳은 뒤에 이를</p>	<p>賜鑄字所酒百二十瓶。前此印冊，列字於銅板，鎔寫黃蠟凝凝，然後印之，</p>

<p>(永樂) 19年) 3月 24日(丙戌) 2번째기사 구리판을 다시 잘 주조한 주자소에 술 120병을 내려 주다</p>	<p>찍었기 때문에, 납이 많이 들고, 하루에 찍어 내는 것이 두어 장에 불과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임금의 친히 지휘하여 공조 참판 이천(李蕝)과 전 소윤 남급(南汲)으로 하여금 구리판을 다시 주조하여 글자의 모양과 꼭 맞게 만들었더니, 납을 녹여 붓지 아니하여도 글자가 이동하지 아니하고 더 해정(楷正)하여 하루에 수십 장에서 백 장을 찍어 낼 수 있다. 임금은 그들의 일하는 수고를 생각하여 자주 술과 고기를 내려 주고,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찍어 내라고 명령하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곳을 교정하게 하였는데, 경자년(1420) 겨울부터 임인년(1422) 겨울에 이르러 일을 끝냈다.</p>	<p>故費蠟甚多，而一日所印，不過數紙。至是，上親自指畫，命工曹參判李蕝、前(小) [少] 尹南汲，改鑄銅板與字樣相準，不暇鎔蠟，而字不移，却甚楷正，一日可印數十百紙。上念其功役之勞，屢賜酒肉。命印《資治通鑑綱目》，令集賢殿正其謬誤，自庚子冬至壬寅冬乃訖。</p>
<p>99.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3月 28日(庚寅) 4번째기사 전의 판사 원학의 줄기</p>	<p>전의 판사(典醫判事) 원학(元鶴)이 죽었다. 쌀과 콩 50석, 종이 70권을 내려 주었다.</p>	<p>典醫判事元鶴死，賜米豆十石、紙七十卷。</p>
<p>100.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4월 3일 (을미) 2번째기사 길창군 권규의 줄기</p>	<p>(전략) 임금이 즉위한 뒤, 사랑과 대우가 특별히 달랐는데, 이 때에 병으로 죽으니, 나이가 29세이다. 부고가 보고되자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하고, 고기 반찬을 들지 아니하기를 7일 동안에 이르렀다. 규는 성격이 온후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가지며, 자기의 생활을 매우 검소하게 하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쌀을 훔친 것을 청지기가 붙잡아서 아뢰니, 규는 가난한 선비라 하면서 그대로 그에게 주었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그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아들은 권담(權聃)과 권충(權聰)이다. 시호를 제간(齊簡)이라 하였는데, 제(齊)는 마음 가지기를 매우 씩씩하게 한다는 뜻이요, 간(簡)은 한결같은 덕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부마(駙馬)가 죽으면, 특별한 지시가 있는 연후에 시호를 내리는 것인데, 예조에서 아뢰기를,</p>	<p>(전략) 上即位，寵待特異，至是病卒，年二十九。訃聞，輟朝三日，不御肉膳者七日。跬稟性溫厚，持己謙恭，自奉甚約，事母愛敬。門客有盜米者，家僮執以告，跬曰：“貧士也。”仍與之。朝之士大夫聞其卒，莫不惜之。子聃、聰。諡齊簡，執心克壯齊，一德不懈簡。凡駙馬卒，有特旨，然後賜諡。禮曹啓：“駙馬非他大臣之比。今於吉昌君跬之喪，依式禮葬外，殯斂之具，皆令官備。單袂襦衣各三稱、</p>

	<p>“부마는 다른 대신과 견줄 바가 아닙니다. 지금 길창군 규의 상사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하여 예장(禮葬)을 지내는 이외에, 빈소를 드리고 염(斂)을 갖추는 기구를 모두 관가에서 준비하되, 홀저고리와 겹저고리 모두 세 벌씩, 저고리 깃 한 벌, 홀저고리 깃 두 벌, 시체를 묶는 데 쓰는 흰 모시 3필, 명정(銘旌) 감으로 붉은 명주 10척, 흰백 감 1필을 마련하고, 장례는 중등으로 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것은 규의 집이 워낙 가난하여, 저축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p>	<p>襦衿一、單衿二、絞用白苧布三匹、銘旌紅絹十尺、魂帛一匹， 葬用中等。”從之。以跬家貧無所儲也。</p>
<p>101.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4월 4일 (병신) 1번째기사 권규에게 부조하다</p>	<p>권규에게 종이 2백 권과 쌀과 콩 70석을 부조하였다.</p>	<p>丙申/賻權跬紙二百卷、米豆七十石。</p>
<p>102.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4月 6日 (戊戌) 2번째기사 백성이 굶주리므로 풍저창·군자감의 쌀과 밀을 내어 싸게 팔게 하다</p>	<p>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므로, 호조에 명하여 풍저창(豐儲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과 밀을 꺼내어,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사게 하였다. 이 때 저화(楮貨) 한 장으로 쌀 2되를 사는데, 임금이 쌀은 1말 5되, 밀은 3말씩을 주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 때 경기 각 고을의 창고는 진대(賑貸)로 곡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자감의 쌀을 꾸어주니, 경기도의 백성이 이고 지고 가는 자가 잇따라 끊어지지 아니하였다.</p>	<p>上以民飢，命戶曹出豐儲倉、軍資監陳米、小麥，令窮民買之。是時，楮貨一張直米二升，上令給米一斗五升，小麥則三斗，民大悅。時，京畿州郡倉庫，因賑貸罄[竭]，故貸以軍資米，京畿之民載負者，絡繹不絕。</p>
<p>103. 세종 11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4월 12일(갑진) 2번째기사</p>	<p>여러 도(道)에서 전문을 올리기 위하여 파견된 관원을 예조에서 음식을 접대하였다. 이것은 통상 관례에 의한 것이었다.</p>	<p>饋諸道進箋差使員于禮曹，常典也。</p>

<p>여러 도에서 파견된 관원에게 예조에서 음식을 접대하다</p>		
<p>104. 世宗 11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4月 16日 (戊申) 3번째기사 대마도의 좌위문 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용뇌 등을 바치다</p>	<p>대마도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보내어, 용뇌(龍腦) 4냥, 서각(犀角) 2근, 필발(韮發)535) 80근, 육두구(肉荳蔻) 30근을 바치니, 면포 7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對馬島左衛門大郎遣人獻龍腦四兩、犀角二斤、韮發八十斤、肉荳蔻三十斤，回賜縣布七十匹。</p>
<p>105.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5월 8일 (기사) 2번째기사 상왕이 영평에 가려다가 더위로 풍양궁으로 돌아오다</p>	<p>상왕이 영평(永平)에 가고자 하였으나, 날씨가 심히 더우므로, 드디어 풍양궁에 돌아와서 수정(水亭)에 나가서 어가(御駕)를 따라간 여러 신하에게 술을 내려 주었는데, 3품 이상의 관원이 모두 입시하였다</p>	<p>上王欲如永平，以天時熱甚，遂還豐壤，御水亭，賜從駕群臣酒，三品以上皆入侍。</p>
<p>106.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5월 8일 (기사) 4번째기사 예조에서 원경 왕태후의 연제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놓고, 향로·향합과 촛불까지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는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소를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를 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자리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罌)는 세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놓는데,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에는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아현관·종헌관의 세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두되, 【관</p>	<p>(전략) 典祀官率其屬，奠祝板於靈座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幕，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罌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p>

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그 위에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펴서 담아 놓는다.

【만약 술잔 씻는 광주리에는 또 술잔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종헌관의 세(洗)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대축이 들어와서 뿡나무 신주 자리를 영좌의 뒤에 설치하고, 뿡나무 신주의 궤를 받들어 자리에 옮겨 안치하고, 다음에 밤나무 신주의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주를 모셔내어 그전 영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서서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贊者)는 또 그 말을 전하여 부른다.】 전사관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하며,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가 선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爵)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놓고, 준소(尊所)에 받들고 나아가서 점(玷)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서 몸을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서 나와 판위(板位)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선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네 번 절하고 애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관원들은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내시가 꿇어앉아 손대야를 들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다른

洗在西】 篚在洗東加勺， 篚在洗西南， 肆實以巾，【若爵洗之則又實以爵】 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 北向。 大祝入設桑主座於靈座之後， 奉桑主匱， 移安於座， 次奉栗木神主匱以入， 開匱奉出神主， 安于舊靈座， 覆以青(貯) [紵] 巾。 執禮率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四拜訖， 各就位。 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亦傳喝。】 典祀官以下皆四拜。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 盥訖， 各就位，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尊所， 置於玷上。 禮曹判書進當齋殿前， 俛伏跪， 啓請行禮， 啓訖， 俛伏興。 判通禮導殿下出齋殿， 詣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四拜哭， 在位者， 皆四拜哭盡哀。 【先拜者不拜】 判通禮導殿下， 詣盥洗位北向立， 內侍跪， 取匱與沃水， 又內侍跪， 取槃承水， 殿下盥手。 內侍跪， 取巾於篚以進， 殿

내시가 꿰어앉아 반(槃)을 들어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꿰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가져다가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근시(近侍)와 내시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낸다. 근시가 술을 찬으로 받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기를 계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꿰어앉아 올린다. 관통례가 전하에게 향을 세 번 올리기를 아뢰어 청한다. <향을 올린 뒤에> 근시가 향로를 향안(香案)위에 놓고, 근시가 꿰어앉아 찬을 올린다. 관통례가 전하에게 찬을 잡아 술을 땅에 붓기를 계청(啓請)하여,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꿰어앉아 폐백 광주리를 올리면, 관통례가 전하에게 폐백을 잡아 드리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瓚)을 올리고, 폐백을 올릴 때에는 모두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관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아간다. 조금 후에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근시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가 술잔을 꿰어앉아 올린다. 관통례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아 드리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관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꿰어앉기를 계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꿰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

下輓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酒，近侍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輓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

	<p>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떠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섰다가 꿇어앉게 하고,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게 하여,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이 하던 의식(儀式)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사배하고 곡하기를 계청하면, 전하에게 네 번 절하고 곡을 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관서가 꿇어앉아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가고, 알자는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은 제향에 배석(陪席)했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네 번 절하고,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은 신주를 의식(儀式)과 같이 넣어 모시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관속을 거느리고 제찬(祭饌)을 거두고,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후략)</p>	<p>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主如儀，執禮率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후략)</p>
107. 世宗 12卷, 3年	총제(摠制) 강희중(姜淮仲)이 졸(卒)하니, 부의로 미두(米豆) 20석을 내렸으니,	摠制姜淮仲卒，賻米豆二十石，常典

<p>(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6月 4日 (乙未) 3번째기사 총제 강회중의 즐기</p>	<p>정해진 법대로이었다.</p>	<p>也。</p>
<p>108.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年) 6월 4일 (을미) 4번째기사 광록 소경 이무창의 즐기</p>	<p>광록 소경(光祿少卿) 이무창(李茂昌)이 졸하니, 부의로 미두(米豆) 10석과 종이 70권을 내렸다.(후략)</p>	<p>光祿少卿李茂昌卒，賻米豆一十石、紙七十卷。茂昌，文命之子，其妹入侍帝宮。(후략)</p>
<p>109. 世宗 12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6月 10日(辛丑) 2번째기사 일본국 구주 총관 원의준이 글과 공물을 보내 억류 왜인의 귀환을 요청하다</p>	<p>일본국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의준(源義俊)이 예조 판서에게 글을 보내고, 유황(硫黃) 1천 5백근, 동(銅) 9백 90근, 소목(蘇木) 1천근, 명반(明磬) 10근, 침향(沈香) 3근 14냥[兩], 파두(芭豆) 17근 8냥, 천궁(川芎) 19근 9냥, 호초(胡椒) 19근 9냥을 바쳐 원경 왕태후의 상사(喪事)를 조문(弔問)하고, 또 대마도의 억류(抑留) 당한 왜인을 돌려보내기를 청하여 왔다.</p>	<p>日本國九州總管源義俊致書于禮曹判書，獻硫黃一千五百斤、銅九百九十斤、蘇木一千斤、明(磬) [磬] 十斤、沈香三斤十四兩、芭豆十七斤八兩、川芎十九斤九兩、胡椒十九斤九兩，弔元敬王太后之喪，且請還對馬島被留倭人。</p>
<p>110.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年) 6월 18일(기유) 2번째기사 오랜 비로 인하여 궁중의 용도를 감하다</p>	<p>오랫동안 비가 내리므로, 중궁(中宮)의 용도(用度)를 감하였다. 교지(教旨)를 내리기를, “근일에 오랫동안 비가 내려 벼[禾]를 손상하였으니, 천재(天災)가 두렵고, 민생(民生)이 불쌍하다. 경기(京畿)와 외방(外方) 각도에 명하여 진상(進上)하던 물선(物膳)을 정지하게 하고, 제향(祭享)과 외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외에는 서울과 지방에서 술[酒]을 쓰는 것을 금하라.” 하였다.</p>	<p>以久雨，減宮中用度。教曰：“近者久雨傷禾，天災可畏，民生可哀。其令京畿及外方各道，停進上物膳，祭享及饋餉他國使臣外，禁中外用酒。”</p>



<p>111. 世宗 12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6月 19日(庚戌) 2번째기사 장마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백성들에게 군량의 묵은 쌀을 팔게 하다</p>	<p>호조에 명하기를,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 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 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이를 지급하라.” 하였다.</p>	<p>命戶曹曰：“霖雨太甚，米價湧貴，民生可慮。其以軍資陳米一萬石，買楮貨于民間，貧乏人爲先給之。”</p>
<p>112.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6월 20일(신해) 7번째기사 예조의 공정대왕 상제, 담제의 섭행할 의식에 관한 소문</p>	<p>예조에서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상제(祥齋)·담제(禫祭)의 섭행(攝行)할 의식(儀式)과 임금이 친히 행할 의식(儀式)을 계주하였는데, 그 섭행(攝行)할 상제의(祥祭儀)에 이르기를, “재기(再期) 하루 전에,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아헌관과 중헌관의 자리를 초헌관 자리 뒤 조금 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고, 관위가 다르면,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를 전정(殿庭)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한다. 집례의 자리를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은 남쪽에서 조금 뒤로 물러가서 모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그 날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축판(祝板)을 영좌(靈座)의 오른편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두고, 향로와 향합과 촛불까지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勺]와 보자기[幕]를 그 위에 두고,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p>	<p>禮曹啓恭靖大王祥祭、禫祭攝行及親行儀。其攝行祥祭儀曰： 再期前一日，執禮設初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之位於初獻官之後稍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小退，俱西向北上。其日未行事前，典祀官率其屬，奠祝板於靈座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之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鬯，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p>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술그릇[鬯]은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그 위에 놓고, 광주리는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펴서 담는다.【만일 술잔을 씻는 광주리이면 술잔을 담아 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헌관(獻官)의 세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이 그 관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祭需)를 담아 올리고,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곁줄로 서되, 북향으로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세수하기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신다.【먼저 대왕(大王)의 신주를 내어 흰 모시수건으로서 덮고, 다음에 왕후의 신주를 내어 푸른 모시수건으로서 덮는다. 서쪽으로 뒷자리를 한다. 무릇 신주를 모셔 낼 때에는 대왕의 신주를 먼저 내고, 들어 넣을 때는 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어 넣는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贊)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爵)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놓고,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贊引)이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초헌관 이하 네 번 절하고 곡한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행례(行禮)하기를 청하고,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서,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

爵。】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盥〕訖，各就位，大祝開匱奉出神主，設於座。【先出大王神主，覆以白苧巾，次出王后神主，覆以青苧巾，以西爲上。凡出主，大王先出，入則王后先入。】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哭，初獻官以下四拜哭。【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請行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盥手訖，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鬱鬯，執事者以瓚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

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서, ‘끓어얹으라.’ 말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향을 올리게 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香案)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찬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찬을 잡아 땅에 술을 붓고, 이를 마치면,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서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찬을 주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편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주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술잔을 주고, 폐백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준다. 초헌관이 작을 잡아서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으로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 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하였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몸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향하여 끓어얹을 것을 찬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할 것을 찬하고,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사람이 작으로서 술을 받

案。執事者以瓚授初獻官，初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篚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靈座前。【凡奉香授瓚、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授)〔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幣)〔爵〕準此。】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初獻官，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王靈座前。執事者以副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手俛手訖，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授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王靈座前。(후략)

	<p>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아헌관에게 꿇어앉을 것을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후략)</p>	
<p>113.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6월 20 일(신해) 8번째기사 담제의 섭행의</p>	<p>(전략) 그 날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관속(官屬)을 거느리고 축판(祝板)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놓고, 향로·향합과 촛불까지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에 찬구(饌具)를 담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그 위에 놓고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술그릇[鬯]은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그 위에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펴서 담아 놓는다. 【만약 술잔 씻는 광주리면, 또 술잔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관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하여 북향으로 서되,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네 번 절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닦으며,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케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설치한다. 【먼저 대왕(大王)의 신주를 내어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왕후</p>	<p>(전략) 其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 奠祝版於靈座之右, 【有坫】 陳幣籩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 【玄酒在西】 皆加勺幕, 北向西上; 設洗於東階東南, 北向, 【盥洗在東, 爵洗在西。】 鬯在洗東加勺, 籩在洗西南, 肆實以巾, 【若(勺) [爵] 洗之籩則又實以爵】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 北向。 時至, 典祀官帥其屬, 入實饌具畢, 諸享官皆就殿門外。 執禮帥謁者、贊者、贊引, 先就殿庭拜位, 重行北向, 西上四拜, 各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喝。】 監察以下四拜。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 盥悅訖, 各就位。 大祝開匱, 奉出神主, 設於座, 【先出大王神主, 覆以白苧巾, 次出王后神主, 覆以青苧</p>

의 신주를 내어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무릇 신주를 모셔 낼 적에는 대왕의 신주를 먼저 내고, 들여 놓을 적에는 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여 놓는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饌)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며, 작(爵)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두고, 이를 받들어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점(坫)위에 놓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고 말하면, 초헌관 이하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한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행례(行禮)하기를 청하고,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닦게 하며, 이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존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초헌관에게 꿇어앉을 것을 찬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세 번 향을 올리기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香案)에 놓는다. 집사자가 찬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찬을 잡아 술을 땅에 붓고, 이를 마치면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서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무릇 향을 받들고, 찬을 주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獻官)의 오른편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술잔을 주고, 술잔을 받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기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후에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존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

巾，以西爲上。凡出主，大王先出，入則王后先入。】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初獻官，贊引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執禮曰四拜哭，初獻官以下皆四拜哭。【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請行禮。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斲手訖，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鬱鬯，執事者以瓚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初獻官，初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筐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靈座前。【凡奉香授瓚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初獻官，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初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

	<p>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얏으랴.’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향하여 꿨어얏을 것을 찬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꿨어얏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초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할 것을 찬하고, &lt;이를 마치면&gt;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사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얏으랴.’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 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p> <p>하였다.(후략)</p>	<p>王靈座前。 執事者以副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降復位。 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盥手悅手訖，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四) [西] 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王靈座前。 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후략)</p>
<p>114.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6월 20일(신해) 10번째기사 답제를 드리는 의식에 이른다</p>	<p>(전략) 그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이 그 관속을 거느리고 축관을 영좌의 오른편에 드리고, 【점(坫)이 있다. 】 폐백 광주리를 준소에 두고, 향로·향합과 촛불까지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다. 】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올려놓고 북향으로 하며,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세(洗)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 술그릇【鬯】은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올려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p>	<p>(전략) 其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 設尊所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鬯在洗東加勺； 鬯在洗西</p>

쪽에 두되, 수건을 펴서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면 또 작을 담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는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다.】 술그릇[罍]은 세의 동쪽에 두되, 국자를 올려 놓는다.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펴서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면, 또 작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종헌관의 세는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관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수(祭需)를 찬구(饌具)에 담아 올리고,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과 제향에 배석(陪席)한 여러 관원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서, 줄은 곁으로 하고 북향으로 하되,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위에 나와서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전사관 이하의 관원이 네 번 절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아가서 자리에 앉게 한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대축이 궤를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셔 놓는다. 【먼저 대왕(大王)의 신주를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왕후의 신주를 내어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무릇 신주를 낼 적에는 대왕의 신주를 먼저 내고, 신주를 들여 놓을 적에는 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여 놓는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며, 작(爵)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두고,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예조 판서가 악차 앞에 나아가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전하에게 행례(行禮)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亞獻、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神主，設於座。【先出大王神主，覆以白苧巾，次出王后神主，覆以青苧巾，以西爲上。凡出主，大王先〔出〕，入〔則〕王后先〔入〕。】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幄次前俛伏興，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

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사배하고 곡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던 관원이 모두 네 번 절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를 쥐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내시가 꿇어앉아 반을 들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고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근시(近侍)와 내시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두 번 향을 올리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香案)에 놓는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찬을 잡고 술을 땅에 붓기를 계청한다. 이를 마치고, 찬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고, 찬을 올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작을 올리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후에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大王靈座前。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



	<p>서게 하고, 꿏어앉기를 계청하고, 근시가 작을 꿏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작을 잡아 드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근시가 다음 작을 꿏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작을 잡아 드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서서 북향하여 꿏어앉기를 계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꿏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에 돌이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손을 씻고 손을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꿏어앉을 것을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대왕의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집사자가 다음 작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후략)</p>	<p>近侍，奠于王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大王靈座前。 (후략)</p>
<p>115. 世宗 12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7月 5日 (乙丑) 2번째기사 일본국의 축주부 석성 현사(竺州府石城縣使) 민부소보(民部小輔)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2천 근, 구리[銅] 1백 근, 토황(土黃) 10근, 향목(香木) 3근, 부채[扇] 20자루를 바치고, 인하여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喪)을 조문(弔問)하고, 종금(宗金)이 또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竺州府) [筑州府] 石城縣使民部小輔平滿景遣人獻硫黃二千斤、銅一百斤、土黃十斤、香木三斤、扇二十柄，仍弔元敬王太后之喪。宗金亦遣人獻土宜。</p>

이 왕태후 상을 조문하다		
116. 세종 12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7월 11일(신미) 4번째기사 호조의 백성 구휼에 대한 소문	호조에서 유후사(留後司)의 묵은 곡식 2천 석을 민간에 팔아서 백성을 구제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請以留後司陳穀二千石賣于民間, 以救民生, 從之。
117. 世宗 13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8月 3日 (癸巳) 5번째기사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이 조공을 바치다	대마도 도만호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硫黃) 5백 근, 서각(犀角) 한 쌍, 단목(丹木) 3백 근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유황 1천 4백 근, 기린향(麒麟香) 8근, 소유(蘇油) 50근, 서각 한 쌍을 바쳤다.	對馬島都萬戶左衛門大郎遣人獻硫黃五百斤、犀角一對、丹木三百斤、一岐州太守源重亦遣人獻硫黃一千四百斤、麒麟香八斤、蘇油五十斤、犀角一對。
118.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8월 6일 (병신) 3번째기사 일기주 만호 도영이 조공을 바치다	일기주 만호(一岐州萬戶) 도영(道永)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丹木) 1백 근과 육두구(肉豆蔻) 20근, 껍상(貝箱) 1개, 기린혈(麒麟血) 10냥쥬, 빈랑(檳榔) 15근을 바치고, 그 아들 궁내대랑(宮內大郎)이 또한 사람을 보내어 편지와 토산물을 바쳤다.	一岐州萬戶道永遣人獻丹木一百斤、肉豆蔻二十斤、貝箱一介、麒麟血十兩、檳榔十五斤。其子宮內大郎亦因使人獻書, 因獻土宜。
119. 世宗 13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8月 15日 (乙巳) 3번째기사 일본 서해도 구주 전 총관 우무위 원도진이	일본 서해도 구주(九州) 전 총관 우무위(右武衛)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원경 왕태후의 상(喪)을 조문하고, 유황(硫黃) 1천 근, 적동(赤銅) 2백 근, 소목(蘇木) 2백 근, 호초(胡椒) 20근, 백동(白銅) 60근을 바치고, 응주 자사(熊州刺史) 원창청(源昌淸)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면서 그 산물을 바쳤다.	日本西海道九州前總管右武衛源道鎭遣人弔元敬王太后之喪, 獻硫黃一千斤、赤銅二百斤、蘇木二百斤、胡椒二十斤、白銅六十斤。熊州刺史源昌淸亦遣人弔喪, 獻土宜。

<p>원경 왕태후의 상을 조문하다</p>		
<p>120.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8월 18일(무신) 2번째기사 검교 의정부 찬성 조용에게 전토와 곡식을 하사하다</p>	<p>검교 의정부 찬성(檢校議政府贊成) 조용(趙庸)에게 전토 30결과 쌀 및 콩 20섬을 내려 주었다.(후략)</p>	<p>賜檢校議政府贊成趙庸田三十結、米豆二十石。(후략)</p>
<p>121. 世宗 13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9月 9日 (己巳) 4번째기사 일본 평만경이 조공을 바치다</p>	<p>일본 평만경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소합향(蘇合香) 5근, 기린교(麒麟膠) 1근을 바치고, 일기주 태수(一岐州太守) 원중(源重)이 또한 사람을 보내어 그 지방 산물을 바쳤다.</p>	<p>日本平滿景遣人獻蘇木一千斤、蘇合香五斤、麒麟膠一斤，一岐州太守源重亦遣人獻土宜。</p>
<p>122.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9월 11일(신미) 4번째기사 예조에서 담제 뒤에 형식에 대해 올린 소문</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담제(禫祭) 뒤에 광효전(廣孝殿) 제향(祭享)에 풍악을 올리는데, 친향(親享)할 때와 재궁(齋宮)에서 나오실 때에는 주악으로 《성수무강(聖壽無疆)》을 아뢰고, 오르고, 내리고, 술 붓고, 술 올릴 때에는 《태평년(太平年)》을 아뢰고, 재궁(齋宮)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보허자(步虛子)》를 아뢰고, 섭행(攝行)으로 술 부어 올릴 때에는 《태평년》을 아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禫祭後，廣孝殿祭享奏樂。親享時，出齋宮，奏《聖壽無疆》；升降酌獻，奏《太平年》；還齋宮，奏《步虛子》。攝行酌獻，奏《太平年》。”從之。</p>
<p>123. 世宗 13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9月 14</p>	<p>예조에서 광효전(廣孝殿) 삭망제의(朔望祭儀)를 계하여 말하기를, “재계(齋戒)는 제사 거행하기 3일 전에,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이 모두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씩 하는데, 무릇 산재(散齋)하는 것은, 일은 보</p>	<p>禮曹啓廣孝殿朔望祭儀曰：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p>

日(甲戌) 4번째기사  
예조에서 광효전의 삭  
망제의에 관해 올린  
소문

통 때와 같이 보나, 오직 술을 마시거나 과·부추·마늘 등속을 먹지 아니하고, 조상하거나 문병하지 못하며, 음악도 듣지 아니하고 형(刑)을 집행하지 아니하며, 형살(刑殺)하는 서류에 관정 또 서명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간여하지 않는다. 치재하고 나서, 제사(祭祀)에 나가지 못하고 꺾(闕)한 자가 있으면, 여러 관원을 통하여 섭행(攝行)하게 한다. 여러 위(衛)의 무리로서 꺾문을 수위하는 자는 모두 하룻밤 동안 몸을 깨끗이 재계한다. 【향관(香官) 이하 무릇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진설(陳設)은 제삿날 전에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하고,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로 자리하는데, 조금 남쪽에 하고, 여러 줄로 서게 하며,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알자(謁者)와 찬자(贊者)는 동계의 서쪽에 자리하는데 서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된다. 감찰(監察)은 전정(殿庭)의 남쪽에 자리하는데, 동편에 가깝게 하여 서향으로 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게 된다. 제삿날을 당하여, 제사 거행하기 전에 전사(殿司)가 방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털고 정돈하기를 평상시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자기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玷)이 있다.】 향로와 향합 및 초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준소(尊所)는 문밖에 왼편으로 설치하고, 음복 술잔은 준소에 둔다. 제사 거행하기 전 삼각(三刻)쯤 되어서, 전사가 방문을 열고 신악을 털고 정돈하며,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자기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수를 제기에 담기를 끝마친다. 이각(二刻) 앞서서, 헌관 이하는 각기 자기 복장을 차리고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 일각(一刻) 앞서서,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盥洗)하기를 끝마치면, 알자와 찬자는 앞서 전정의 절하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하고 네 번 절하기를 끝마치고, 제자리에 서게 된다. 찬인(贊引)이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절할 자리에 서게 하는데, 여러 줄로

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預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前期，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玷】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設福酒盞於尊所。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服其服，皆就殿門外。前一刻，待獻官以下諸執事盥帨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宮闈令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

서되 북향으로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찬자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관원은 모두 네 번 절하기를 끝마치고 제자리에 선다. 궁위령(宮闈令)이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어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네 번 절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오르고 내리는데 모두 읍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붓는다. 집사자는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문밖에서는 읍하고, 문안에서는 땅에 엎드리게 된다.】 북향으로 선다. ‘홀(笏)을 꽂아라.’ 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향을 세 번 올리게 하여,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 위에 올려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쪽에 있게 되고, 봉로(奉爐)는 헌관의 왼쪽에 있게 되며, 잔(盞)을 받고 잔을 올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가지고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잡았다가 잔을 올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내어 들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하고, 대축(大祝)은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어 마치게 되면,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문에 나서는데, 동계에서 내려 제자리에 서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는 술을 붓고, 집사자는 잔으로 술을 받게 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아라.’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잡았다가 잔을 올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려놓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 내려서 제자리에 서게 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

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升降階，上下皆有揖。】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戶外有揖，戶內伏地。】北向立，贊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奉爐在獻官之左。受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出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俛伏興小退再拜，引出戶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謁者贊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

	<p>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집사자는 음복(飲福)하는 자리를 앞 마루 밖으로 동편에 가깝게 서향으로 배설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잔으로 복주(福酒)를 부으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알자가, ‘끓어앉아 홀을 꽂아라.’ 하고, 대축은 북향으로 끓어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받아 마시기를 끝마친다. 대축은 나가서, 그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둔다. (후략)</p>	<p>祝進受虛盞，復於尊所。(후략)</p>
<p>124.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9월 27일(정해) 1번째기사 사은사 신호에게 물건을 하사하고 태상왕이 황제에게 전할 표문을 이른다</p>	<p>(전략) 방물을 보내는 표(表)에 이르기를,  “임금의 사랑하는 것이 실로 깊어서, 특히 유다른 은혜를 받았습시다. 토산물이 두텁지 못하나, 그대로 감사한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삼가 황색 세저포(細苧布) 25필, 흰 세저포(細苧布) 25필, 검정 세마포(細麻布) 50필, 흰 세면주(細綿紬) 2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송자(松子)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을 갖추었으니, 이상 물품이 정하게 만들지는 못하여서, 명물이라고 할 것이 심히 적으니, 어떻게 물건을 받으시는 마음을 충족하게 하리오. 다만 만물이라도 드린다는 정성만을 본뜬 것이외다.”  하였고, 주상의 표문(表文)에는 이르기를,  “임금의 마음이 작은 나라에 자애하시어, 편케 품어 주기를 돈독히 하였고, 황제의 주심이 분수에 넘치니, 감격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을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뼈에 새겨서 잊을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신이 외람하게도 잔열한 자품으로 감히 제후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 융성한 시대를 맞았으나, 조금도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특히 거룩한 사은을 내리시고, 이에 광주리의 비단을 더 하시었고, 하물며 노친(老親)께서도 받음이 있으려니와, 신의 처까지 영광을 입게 되니, 주심이 주밋하시기를 옛날에도 드</p>	<p>(전략) 方物表曰：  睿眷悉深，特蒙殊渥。土宜不腆，聊表謝儀。謹備黃細苧布二十五匹、白細苧布二十五匹、黑細麻布五十匹、白細綿紬二十四匹、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松子一百斤、雜色馬二十四匹。右件物等，製造非精，名般甚寡。豈足充及物之享？祇以効獻芹之誠。  主上表曰：  宸心字小，庸篤懷綏。帝賚踰涯，不勝感激。撫躬無措，銘骨難忘。伏念臣猥以孱資，叨居弊服。端逢盛代，愧無補於絲毫；特霽鴻私，乃加恩於筐篚。矧老親之蒙賜，而臣妻之荷榮？錫與之稠，前昔所罕。茲蓋伏遇仁推</p>

문 일입니다. 이는 대개 인애하는 마음으로 미루어서 <사해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요, 도량을 넓혀 용납하는 것입니다. 노부(老父)는 오랫동안 충성을 올렸다 하며, 소신에게까지 직분에 따라 부지런히 한다고 어여뻐 여겨, 먼 변방에가지 총애하는 광영을 입게 하셨습니다. 신은 삼가 내리신 글을 받들어, 제후되는 법도에 공경할 것이며, 병풍처럼, 날개처럼 길이 변방의 울타리[藩]가 될 것이며, 수(壽)하시라 강녕하시라 하여, 항상 화봉인(華封人)의 축사를 올리려 합니다.”

하고, 방물표(方物表)에 이르기를,

“황제의 주심이 드디어 내리니, 은혜는 고운 숨에 싸인 것처럼 따스하고 깊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박하니, 드리는 정성은 간절하나이다.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5필, 백세저포(白細苧布) 25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2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송자(松子)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을 갖추었으니, 이상 물품이 먼 땅의 생산이므로, 제작이 잘 되지 못한 것이나, 충심에서 나오는 신의 마음을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윗사람에게 올린다는 예의로 용납하소서.”

하였고,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높음이 다음 자리에 있으시면서 거룩하게 큰 정사를 도와, 임금의 은혜를 내리도록 인도하여, 바다 지경에까지 폭 젖게 하였습니다. 살펴보아도 나에게는 맞지 아니하여 감사하기 너무나 깊었습니다. 생각건대, 신이 다행히도 밝은 시절을 당하여서 외람되이 큰 명령을 받았으나, 돌아보건대, 조그마한 정성의 도움도 없으면서 감히 은덕의 거꾸 이르기를 기대하였으랴. 사신의 오는 데에서 즐겁게 운음이 내림을 받게 되었다. 황제의 주신 것이 빛나고 운택하니, 찬란한 채단이 반사(頒賜)되었도다. 어찌 노친(老親)에만 주신 영광이겠습니까. 또한 처에게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이 역사에도 빛날 것이며, 기쁨

一視，度擴兼容。謂老父久於効忠；憐小臣勤於述職。遂令荒裔，獲被寵光。臣謹當祇奉綸音，恪虔侯度。之屏之翰，永作漢藩；曰壽曰康，恒申華祝。

方物表曰：

天貺聿頒，恩深挾纘。土宜雖薄，誠切獻芹。謹備黃細苧布二十五匹、白細苧布二十五匹、黑細麻布五十匹、白細絲紬二十四匹、黃花席一十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張、人蔘一百斤、松子一百斤、雜色馬二十四匹。右件物等，產自荒陬，製非良匠。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

謝皇太子箋曰：

尊居儲位，丕贊皇猷。導霈睿恩，覃霑海徼。省循匪稱，感佩悉深。伏念，臣幸際熙辰，叨膺景命。顧乏涓埃之小補，敢期雨露之荐加？星使鼎來，欣奉綸音之降；天施渙渥，獲紆彩帛之頒。豈惟老親之與榮？抑亦寡妻之拜賜。事光簡策，喜溢神人。茲蓋伏遇德著溫文，心敦孝敬。諒小臣之嚮慕，體上聖之懷綏。遂使弊封，優承寵賚。臣謹當益述藩宣之職，恒申

	<p>은 신명이나 사람에게 넘치리라. 이는 대개 만나기를, 덕이 따뜻하고 빛난 데에 나타나고, 마음은 효도와 공경에 돈독하여 소신의 향모(嚮慕)하는 것을 알아 주시고, 부황(父皇)의 편케 품어 주는 것을 본떠서, 바로 이 나라로 하여금 은총을 넉넉히 받들게 하심이다. 신은 삼가 더욱 변방 제후의 직분을 다하며, 항상 송도(頌禱)하는 정성을 펴기로 합니다. 삼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인삼(人蔘) 50근, 잡색마(雜色馬) 4필을 갖추어, 이상 물건을 삼가 전(箋)과 함께 드리노라.”</p> <p>하고, 주문(奏文)에 이르기를,</p> <p>“큰아들을 세워서 뒤를 잇게 하는 것은, 예나 이제나 통하는 규례입니다. 신의 맏아들 이향(李珣)이 지금 나이 여덟 살인데, 이 나라의 신민들이 세자(世子)로 세우기를 청하고 있으므로, 신 【어휘(御諱).】 이 감히 마음대로 세울 수 없어서, 삼가 주문을 갖추어 올리고 칙지(勅旨)를 기다립니다.”</p> <p>하였다.</p>	<p>頌禱之誠。 謹備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人蔘五十斤、雜色馬四匹。 右件物等，謹隨箋以進。</p> <p>奏曰：</p> <p>立長繼後，古今通規。 臣之嫡長子珣見年八歲，一國臣民，請立爲世子。 臣諱不敢擅便，謹具奏聞，伏候勅旨。</p>
<p>125.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5일(갑오) 5번째기사 광효전의 사시와 납향 제사에 친향 혹은 섭행하는 의식에 관한 예조의 상소문</p>	<p>예조에서 광효전(廣孝殿)의 사시(四時)와 납향(臘享) 제사에 친향(親享)하거나, 섭행(攝行)하는 의식을 계하였는데, 친향의(親享儀)에 이르기를,</p> <p>“재계(齋戒)는 제삿날 사흘 앞두고서, 전하께서 산재(散齋) 2일과 치재 1일을 하게 되는데, 무릇 산재라는 것은 조상(弔喪)이나 문병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도 듣지 아니하며, 유사(有司)는 형살(刑殺)하는 문서(文書)를 계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치재(致齋)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 계(啓)한다. 무릇 행사 집행관(行事執事官) 및 근시(近侍)의 관원으로 당연히 따라서 참여하게 된 자는, 모두 산재 2일과 치재 1일을 하는데, 무릇 산재라는 것은, 일은 평시와 같이 보나, 다만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파·부추·마늘·호파 같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조문이나 문병을 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刑)을 집행하거나, 형살(刑殺)의 서류에 판정하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치재는 오직 제사 집행할 자로서 하는 것이나, 치재를 다</p>	<p>禮曹啓廣孝殿四時臘親享攝行儀。 親享儀曰：</p> <p>齋戒。 前享三日，殿下散齋二日，致齋一日。 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事。 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致齋一日。 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 已齋而闕者，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衛之屬，宿衛殿門者及</p>



하고 나서 사고로 꺾(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맡은 일은 다른 사람이 섭행(攝行)하게 한다. 모시고 참사할 문무 여러 관원 및 여러 위(衛)의 무리와 전문(殿門)을 숙위(宿衛)하는 자, 그리고 공인(工人)까지 모두 하룻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향관(享官) 이하 무릇 향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제사 거행하기 하루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게 된다.】 진설(陳設)은 제사 거행하기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하루 전에는 전악령(典樂令)이 악(樂)을 설치하여 전정(殿庭)에 달아 놓는데, 서쪽에 가깝게 하고 북향으로 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하(殿下)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통찬(通贊) 2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만일 내정이 협착할 때에는, 외정의 동계 서남쪽에 서향으로 한다.】 전악(典樂)의 자리는 악기 달아 놓은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제향에 참사할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다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가 다르면, 겹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한다. 감찰(監察) 2명의 자리는 동서반(東西班) 뒤로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 모시게 된다. 전사(殿司)가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교서관원(校書館員)이 축판(祝版)을 가지고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아서 전하에게 드린다. 보기를 끝나치면, 근신은 받들고 나와 전사에게 주게 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방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털고 정돈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篋)는 준소(尊所)에 두며, 향로·향함·초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饌)을 담은 기구를 놓는다. 준(尊)은 문밖의 왼편에 설치하는데, 현주(玄酒)는 서쪽에 놓고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올려놓는데,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工人，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一日，沐浴更衣。】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西向，【若內庭窄狹，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典樂位於樂懸之北，北向，設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書吏各陪其後。殿司掃除殿之內外。校書館員以祝版捧進，近臣傳捧以進，殿下署訖，近臣捧出附殿司。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陳幣篋於尊所，設香爐、香合併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幕，北向西上，設福酒爵於尊所。享日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前二刻，書雲觀報時，

복주(福酒)와 작(爵)은 준소에 두고, 제삿날 행사하기 삼각(三刻) 전에, 전사가 방문을 열고 신약을 털고 정돈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아 끝마치고, 여러 향관 및 참사할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모이게 된다. 이각(二刻) 전에, 서운관(書雲觀)이 시간을 알리면,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와서 우선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일각(一刻) 전에, 전악령(典樂令)은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되고, 통례문은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지통례(知通禮)는 아헌관 이하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가 끝나기를 기다려, 아헌관을 인도하여, 【아헌관이 만일 왕세자일 때에는, 봉례랑이 인도하게 된다.】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궁위령은 궤(匱)를 열고 신주를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을 덮는다. 판통례가 외관(外辦)을 아뢰면, 전하는 관세하기를 끝마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편 문에서 들어오면, 【시위(侍衛)로서 들어가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기다린다.】 주악이 시작된다. 전하의 판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판통례가 계하기를,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통찬이 이르기,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주악이 시작되고, 동계에서 올라오기를 마치면, 【계(階)를 오르고 내릴 때에 모두 읍(揖)한다.】 주악이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어 울창(鬱鬯)을 부으면, 근시는 찬으로 울창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문밖에서는 읍하고, 문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고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을 세 번 올리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향을 세 번 올리는데,

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前一刻，典樂令帥工人，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待亞獻官以下諸執事盥帨訖，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奉禮郎引。】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判通禮啓外辦，殿下盥帨訖，判通禮導殿下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樂作。殿下至版位西向立，樂止。判通禮前，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曰衆官四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導殿下，樂作，升自東階訖，【升降階，上下，皆有揖。】樂止。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舉鬯酌鬱鬯，近侍以瓚受鬱鬯，判通禮導殿下，入詣神位前【戶外有揖，戶內伏地。】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殿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近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찬을 잡아 땅에 부으라고 청한다. 전하는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마치고, 찬을 근시에게 준다.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한다. 전하는 집폐하여 헌폐하는데, 폐를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을 올리거나, 찬을 올리거나, 폐(幣)를 올리는 것은 모두 동편에서 하는데, 서향으로 하고, 향로를 올리거나, 찬을 받거나, 폐(幣)를 올리는 서편에서 동향으로 하고, 작(爵)을 올리거나, 작을 받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바로 선다.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는데,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는데, 풍악이 시작한다. 동계에서 올라오기를 마치면, 주악은 그치게 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을 시작한다. 집사자는 보자기를 들어 술을 붓는다. 근시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꿇어앉게 한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執爵)하여 헌작(獻酌)하라고 계청한다. 전하는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으로 꿇어앉고, 주악은 그친다. 대축이 시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치면, 주악이 시작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게 되면, 주악이 시작한다.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

侍, 奠于神位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 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判通禮啓請俛伏興, 小退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 小退再拜興平身。導殿下出戶, 降自東階復位, 樂止。小頃, 判通禮導殿下, 樂作, 升自東階訖, 樂止, 詣尊所西向立, 樂作。執事者舉冪酌酒, 近侍以爵受酒, 判通禮導殿下, 入詣神位前北向跪, 近侍奉爵跪進, 判通禮啓請執爵獻爵, 殿下執爵獻爵, 以爵授近侍, 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 小退北向跪, 殿下俛伏興, 小退北向跪, 樂止。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判通禮啓請俛伏興, 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 再拜興平身, 樂止, 導殿下出戶, 樂作, 降自東階復位, 樂止。知通禮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舉冪酌酒, 執事者以爵受酒。知通禮引亞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 亞獻官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知通禮贊執爵獻爵,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 北向再拜興平身, 亞獻官俛

	<p>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이 시작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어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끓어얹으라.’ 한다. 아헌관은 끓어얹고,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준다. 지통례가 ‘집작하여 헌작하라.’ 하면, 아헌관은 집작하여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지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한다. 아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일어나,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면, 주악은 그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된다. 집사자는 음복 자리를 앞 마루 밖의 동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배설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작에다 복주를 부어 근시에게 준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면, 주악을 시작한다. 음복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작을 받들어 북향으로 끓어얹아 올린다. 판통례가 ‘끓어얹아 작을 받으라.’고 계청하면, 전하는 끓어얹아 작을 받아 마시기를 마치면, 근시는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둔다. (후략)</p>	<p>伏興小退，北向再拜興平身，樂止，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爵酌福酒授近侍，判通禮導殿下，樂作，詣飲福位西向立，近侍捧爵北向跪進，判通禮啓請跪受爵，殿下跪受爵飲訖，近侍進受虛爵，復於尊所。(후략)</p>
<p>126.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0월 5일(갑오) 6번째기사 섭행의 의식 절차</p>	<p>섭행의(攝行儀)에 이르기를, “재계(齋戒)【광효전(廣孝殿) 삭망제(朔望祭)의 의식도 같다.】와 진설(陳設)은 제사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소속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하루 전에, 전악령(典樂令)은 악현(樂懸)을 전정(殿庭)에 배설하는데, 서쪽에 가까이 북향으로 하고, 헌관 자리는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하는데, 조금 남쪽이며, 겹줄로 서게 하고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으로 동편에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모시고 서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p>	<p>攝行儀曰： 齋戒。【廣孝殿朔望祭儀同】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俱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位於東階</p>

서쪽으로 하는데, 모두 서향이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전악 령의 자리는 악현(樂懸)의 북쪽에 북향으로 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제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는 방문을 열고 신악(神幄)을 털어 정돈하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篋)는 준소(尊所)에 두고, 향로·향합·초까지 신위 앞에 늘어놓는다. 그 다음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를 설치하며, 준(尊)은 문밖의 왼편에 두는데, 현주(玄酒)는 서편에 두며, 모두 국자와 보자기를 올려놓되, 북향으로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복주(福酒)의 작(爵)은 준소에 둔다. 제삿날 행사하기 삼각(三刻) 전에, 전사는 방문을 열고 신악을 털어 정돈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수담기를 끝마치고, 이각(二刻) 전에, 헌관 이하는 각기 복장을 차리고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일각(一刻)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가 끝나기를 기다려, 알자·찬자·찬인은 먼저 전정의 배위(拜位)로 나아가는데, 겹줄로 북향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도록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에 나가게 된다. 전악 령은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찰 및 전사관·대축·궁위령·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고, 찬자가 말하기를,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감찰 이하 관원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섰다가, 각기 제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궁위령이 궤(匱)를 열고 신주(神主)를 모셔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서향으로 서게 하고, 찬자가 말하기를,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바로 서라.’ 하면, 헌관은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선다. 찬자가 ‘폐(幣) 올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되고,

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令位於樂懸之北，北向。殿司率其屬，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板於神位之右，【有坫】陳幣篋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幕北向西上，設福酒爵於尊所。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服其服，皆就殿門外。前一刻，待獻官以下諸執事盥(洗)〔悅〕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典樂令帥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宮闈令、齋郎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四拜興平身，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各就位。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四拜興平身，獻官鞠躬四拜興平身。贊者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舉罍酌鬱

주악이 시작한다.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떠내면, 집사자는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문밖에서는 읍(揖)하고, 문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꽂으라.’ 하면,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향을 세 번 올리라.’ 하면, 헌관이 향을 세 번 올리고, 집사자는 향로를 안(案)에 올려 놓고, 집사자가 찬(瓚)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마치고, 찬을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은 폐비(幣篚)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를 잡아 올리게 되는데, 폐를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香)을 받거나, 폐(幣)를 주거나, 찬(瓚)을 주는 것은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올려놓는 것과 찬을 받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잔을 주거나, 잔을 올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홀(笏)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헌관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인도하여 문으로 나오는데,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조금 있다가 찬자가 ‘초헌(初獻)하는 예(禮)를 거행하라.’ 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고 하면, 헌관은 북향으로 꿇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았다가 작을 올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하면, 헌관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면, 주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 읽기를 끝마치면, 주악은 시작한다. 알자가 ‘구부

鬯, 執事者以瓚受鬱鬯。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戶外有揖, 戶內伏地。】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瓚授獻官, 獻官執瓚灌地訖, 以瓚授執事者。 大祝以幣篚授獻官, 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授瓚皆在獻官之右, 奠爐、受瓚皆在獻官之左。 授盞、奠盞準此。】謁者贊執笏, 俛伏興小退, 再拜興平身, 獻官執笏, 俛伏興小退, 再拜興平身, 樂止。 引出戶, 降自東階復位。 小頃, 贊者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北向立, 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小退, 北向跪, 獻官執笏, 俛伏興小退, 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謁者贊俛伏興, 再拜興平身, 獻官俛伏興, 再拜興平身, 樂止, 引出戶, 降自

	<p>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면, 주악은 그친다. &lt;헌관을&gt;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는데, 동계에서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된다. 조금 있다가 찬자는 ‘아헌례를 거행하라.’ 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주악은 시작한다.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부으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았다가 작을 올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라.’ 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두 번 절하고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되면, 주악은 그친다. &lt;헌관을&gt; 인도하여 문으로 나와 내려서 제자리에 서게 한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거행하라.’ 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집사자가 음복할 자리를 앞 마루 밖에 조금 동쪽으로 서향되게 배설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복주(福酒)를 부으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하라.’고 하면, 헌관은 꿇어앉아 홀을 깨끗한다. 대축이 북향으로 꿇어앉아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받아서 마시기를 끝마친다. 대축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둔다. (후략)</p>	<p>東階復位。 小頃， 贊者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舉罍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再拜興平身， 獻官俛伏興再拜興平身， 樂止， 引出戶， 降復位。 小頃， 贊者曰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 西向。 大祝詣尊所， 以爵酌福酒。 謁者引獻官， 詣飲福位西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大祝北向跪， 以爵授獻官， 獻官受酌飲訖， 大祝進受虛爵， 復於尊所。 (후략)</p>
<p>127. 世宗 13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10月 9</p>	<p>호조(戶曹)에 명하여 목은 콩 3천 석을 내어 군사(軍士)및 조사(朝士)들에게 방매케 하였으니, 앞으로 우봉(牛峯)에서 사냥하려는 때문이었다.</p>	<p>命戶曹出陳豆三千石， 和賣于軍士及朝士。 以將畋于牛峯也。</p>

<p>日(戊戌) 3번째기사 호조에 명하여 묵은 콩 3천 석을 방매하게 하다</p>		
<p>128. 세종 13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0월 14 일(계묘) 5번째기사 서울에 남아 있는 의 정부와 육조와 승정원 에 술과 노루를 주다</p>	<p>서울에 남아 있던 의정부(議政府)와 육조(六曹)에 노루[獐] 4마리, 술 20병과 사냥에 참석하지 못한 승정원(承政院)에 노루[獐] 2마리, 술 10병을 주었다.</p>	<p>賜留都議政府、六曹獐四頭、酒二十瓶，留都承政院獐二頭、酒十瓶。</p>
<p>129. 世宗 14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11月 3 日(壬戌) 3번째기사 봉녕부원군 이복근의 졸기</p>	<p>봉녕 부원군(奉寧府院君) 이복근(李福根)이 졸하였다. &lt;복근은&gt; 태조의 맏아들 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의 아들이다. 태상왕이 종사(宗社)를 안정시킬 때에, 복근이 자못 공이 있었으므로, 추충 협찬 정난 정사 공신(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으로 책훈(策勳)하니, 공이 2등으로서 봉녕후(奉寧侯)로 봉해지고, 후에 부원군(府院君)으로 봉해졌다. 이 때에 와서 졸하니, &lt;임금이&gt; 3일 동안 조회를 폐하고 소찬(素饌)을 하였다. 안간(安簡)이란 시호(諡號)를 내리고, 미두(米豆) 80섬과 종이 2백 권을 하사하였다. 아들 두 사람은 이기(李頎)와 이석(李碩)이니, 친첩(賤妾)에서 난 사람이었다.</p>	<p>奉寧府院君福根卒，太祖長子鎭安君芳雨之子。當太上王之定社也，福根頗有功策，爲推忠協贊靖亂定社功臣。功在二等，封奉寧侯，後封府院君，至是卒。輟朝、素膳三日，諡安簡，賜米豆八十石、紙二百卷。子二，頎、碩，賤妾出也。</p>
<p>130. 세종 14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1월 6 일(을축) 6번째기사 일본국 전 구주총관 원도진이 의정부에 전</p>	<p>일본국 전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도진(源道鎭)이 사신을 보내어 의정부에 서신(書信)을 전했는데, 그 서신에, “도진은 이미 병마(兵馬)를 맡은 권력에서 떠나서 아무 일도 없이 한가로이 있는데, 대국에서 여러 번 교린(交隣)의 호의(好誼)를 두터이 하여, 그 전의 예(例)를 차마 버리지 않으므로써 사자(使者)를 보내어 은근한 뜻을 전합니다. 요사이 유구국(琉球國)의 상선(商船)이 대마도의 적(賊)에게 요격(邀擊)되어,</p>	<p>日本國前九州總管源道鎭遣使致書于議政府曰： 道鎭已辭兵馬之柄，居閑無事，以大國屢篤交好，不忍遐棄舊例，遣使者以伸慤懃之意。近琉球國商船爲對馬賊所邀，彼此死者幾乎數百，遂焚毀舟楫，</p>



<p>한 서신</p>	<p>양편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수백 명이나 되었으며, 드디어 배를 불사르고 사람과 물건을 노략하였던 것입니다. 유구국이 근래에 우리 나라에 공헌(貢獻)하는 까닭으로 &lt;대마도에&gt; 그 죄를 묻고자 합니다. 대체 대마도의 적은, 얼굴은 사람이나 마음은 짐승과 다름이 없으니, 교화(教化)와 법령으로써 이를 제어(制御)하기가 어렵습니다. 귀국에서도 연해(沿海) 주군(州郡)에 마땅히 엄중하게 방어하여, 적의 변고에 대비(對備)해야 될 것입니다. 삼가 살펴소서.” 라고 하였다. 인하여 유황(硫黃) 1천 2백 근, 단목(丹木) 1천 근, 명반(明礬) 2백 근, 상아(象牙) 2본(本), 서각(犀角) 2본, 장뇌(樟腦) 5근, 자분(磁盆) 5개, 손상자[手箱] 2개, 식룡(食籠) 1개, 사탕(砂糖) 1백 근을 바쳤다. 평종수(平宗壽)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태후(太后)의 돌아가심을 조문(弔問)하고, 유황(硫黃) 8백 근, 침향(沈香) 30근, 소향(蘇香) 5백 근, 비제(緋提) 2구(具), 감초(甘草) 10근, 서각(犀角) 2본, 손상자[手箱] 1개를 바쳤다.</p>	<p>虜掠人物。琉球國比來貢獻于我，故欲問其罪。夫對馬之賊，人面獸心，難以教化、法令制之，貴國沿海州郡，當嚴戍禦，以待賊變，伏惟照亮。仍獻硫黃一千二百斤、丹木一千斤、明礬二百斤、象牙二本、犀角三本、樟腦五斤、磁盆五事、手箱二介、食籠一介、砂糖一百斤。平宗壽又遣人弔太后之薨，獻硫黃八百斤、沈香三十斤、蘇香五百斤、緋提二具、甘草十斤、水犀角二本、手箱一介。</p>
<p>131. 世宗 14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11月 7日(丙寅) 6번째기사 예조에서 계성전의 사시와 납향의 명일 별제와 삭망제의 의식에 관해 올린 상소문</p>	<p>예조에서 계성전(啓聖殿)의 사시(四時)와 납향(臘享)의 명일 별제(名日別祭)와 삭망제(朔望祭)의 의식을 아뢰었는데, 그 의식은, “재계(齋戒)는 제향 전 3일에, 행사(行事)하는 집사관(執事官)이 산재(散齋)를 2일 동안 하고, 치재(致齋)를 1일 동안 한다. 무릇 산재는, 일을 처리하는 것은 그전과 같이 하지마는, 다만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과·마늘·부추 등의 채소를 먹지 않으며, 남의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으며, 풍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형(死刑)시키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으며, 깨끗하지 못한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치재(致齋)는 다만 제향(祭享)의 일을 이미 재계한 것에 빠진 것만 행한다. 행사(行事)할 적에 여러 위(衛)의 소속으로서,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모두 몸을 깨끗이 제사하고 하룻밤을 잔다. 【제관(祭官) 이하의 모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사지내기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다.】 진설(陳設)은</p>	<p>禮曹啓啓聖殿四時及臘享、有名日別祭朔望祭儀曰：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 陳設。前期，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俱重</p>

기일 전에, 유사(有司)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모두 줄을 곁으로 하고 서쪽을 향하게 하며,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석(陪席)한다. 제향일(祭享日) 아직 행사하기 전에, 전사(殿司)가 제실(祭室)을 열고, 신위(神位)가 있는 악좌(幄座)를 깨끗이 털고 소제하는 일은,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촛대까지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에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술그릇[樽]을 지계문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福酒) 마시는 술잔을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예(禮)를 행한다. 행사하기 전 3각(刻)에, 전사가 제실을 열고, 신위가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고 소제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된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에 제찬(祭饌)을 담아 놓는다. <행사하기> 전 2각(刻)에는, 헌관 이하의 제관이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1각(刻)에는,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가 세수하기[盥洗]를 기다려,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의 배례(拜禮)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줄을 곁으로 하고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선다. 찬자가,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

行西向北上, 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 西向, 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 西向, 書吏陪其後。 享日未行事前, 殿司開室, 整拂神幄如常儀。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設福酒盞於尊所。 行禮。 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實饌具畢。 前二刻, 獻官以下各服其服, 皆就殿門外。 前一刻, 待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 北向西上, 四拜訖各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各就位。 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者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升自東階【升降階上下皆有揖。】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箋)[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桓祖神位前【戶外有揖,

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섬돌 위로 올라오고 섬돌 아래로 내려 갈 적에 모두 읍(揖)을 한다.】 준소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환조(桓祖)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지계문 밖에서는 읍을 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쪽을 향하여 서서, 〈헌관에게〉 ‘꿇어앉아 홀(笏)을 꽂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헌관에게〉 ‘세 번 향을 피우라.’고 말하면, 헌관이 향을 세 번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香案)에 올려놓는다. 【향을 피울 적에는 헌관의 오른쪽에 서고, 향로를 올려놓을 적에는 헌관의 왼쪽에 선다. 술잔을 받들고, 술잔을 드릴 적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고 말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서 왕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헌관에게〉 ‘세 번 향을 피우라.’고 말하면, 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고,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향

戶內伏地。】北向立，贊跪搢笏，獻官跪搢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奠爐在獻官之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獻官執笏俛伏興。謁者引獻官出就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王后神位前北向立，贊跪搢笏，獻官跪搢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堂中，北向跪，獻官執笏，俛伏興，小退堂中，北向跪，大祝進桓祖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俛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

하여 꿇어앉으라. '고 말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환조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고, 알자가 〈헌관에게〉 '면, 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절하고, 또 일어나서 절하고,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찬자가 〈헌관에게〉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환조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고 말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왕후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헌관에게〉 '꿇어앉아 홀을 쫓으라. '고 말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향하여 서라. '고 말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마루 가운데로 조금 물러가서 북쪽을 향하여 선다. 알자가 〈헌관에게〉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

官, 入詣桓祖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 笏俛伏興, 獻官執笏, 俛伏興, 謁者引獻官, 出就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王后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以盞受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 小退堂中, 北向立, 獻官執笏, 俛伏興, 小退堂中, 北向立。 謁者贊鞠躬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平身, 謁者引降復位。 小頃, 贊者曰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 大祝詣尊所, 以盞酌福酒。 謁者引獻官, 詣飲福位西向立, 謁者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大祝北向跪, 以盞授獻官, 獻官受盞飲訖, 大祝進受虛盞, 復於尊所。 謁者贊執笏, 俛伏興, 獻官執笏, 俛伏興, 謁者引降復位。 贊者曰再拜鞠躬拜興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

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후에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집사자가 음복(飲福)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를 따른다. 알자가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서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헌관에게〉 ‘꿨어앉아 홀을 꼴으라.’ 말하면, 헌관이 꿨어앉아 홀을 꼴는다. 대축이 북쪽을 향하여 꿨어앉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대축이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소에 그 전대로 갖다 놓는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고 말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찬자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재배,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면,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헌관에게〉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서게 한다. 찬자가, 〈감찰 이하 제관에게〉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찬자가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밖으로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찬을 걷어치우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간다.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사시(四時)와 납향(蠶享)의 명일 별제(名日別祭)의 헌관은 1품이요, 전사관은 【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상이

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謁者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謁者以次引出。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徹禮饌, 闔戶以降乃退, 祝版瘞於坎。四時及臘享、有名日別祭獻官一品, 典祀官【奉常寺尹以上】大祝【文官參外】謁者【參外】贊者【參外】監察。朔望祭獻官【二品】典祀官【少尹以下】大祝【文官參外】謁者【參外】贊者【參外】監察。又啓廣孝殿有名日別祭親享及攝行儀: 親享儀曰: 齋戒。【廣孝殿四時、臘享親享儀同】陳設。前享二日, 殿司帥其屬, 掃除殿之內外。前一日, 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 北向。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 西向, 設亞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 西向, 【若內庭窄狹, 則設於外庭東階西南, 西向。】設典樂令位於樂懸之北, 北向, 設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

다.】 대축【문관(文官)의 참외(參外)이다.】 알자【참외이다.】 찬자【참외이다.】 감찰이다. 삭망제의 헌관은【2품이다.】 전사관【소윤(少尹) 이하이다.】 대축【문관의 참외이다.】 알자【참외이다.】 찬자【참외이다.】 감찰이다.”

하였다. 또 광효전(廣孝殿) 명일 별제(名日別祭)의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는 의식과 대리로 제사지내는 의식을 아뢰었는데, 임금이 친히 제사지내는 의식은, “재계(齋戒)와【광효전의 사시(四時) 납향(臘享)은 친히 제사지내는 의식과 같다.】 진설은 제향(祭享) 전 2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제향(祭享) 전 1일에 전악령(典樂令)이 풍악을 매다는 틀을 전정(殿庭)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의 동남에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자리를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쪽을 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외정(外庭)의 동계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전악령의 자리는 풍악 매다는 틀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제향에 배석(陪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서쪽에 서며, 중심이 머리가 되고, 자리는 다르고 줄은 겹으로 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 둘을 동반(東班)·서반(西班) 뒤에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 배석하게 한다. 전사가 전의 안팎을 소제하고, 교서관(校書館)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고,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리면, 전하가 〈축문을〉 쓴다. 이를 마치면, 근신이 받들고 나가서 전사에게 넘겨준다. 제향일(祭享日)에 행사(行事)하기 전에, 전사가 제실(祭室)을 열고, 신위가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어 소제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점(坫)이 있다.】 향로와 향합과 촛대까지 신위 앞에 설치한다.

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書吏各陪其後。殿司掃除殿之內外。校書館員以祝版捧進，近臣傳捧以進，殿下署訖，近臣捧出付殿司。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於尊所。行禮。享日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前二刻，書雲觀報時，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前一刻，典樂令帥工人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待亞獻官以下盥洗訖，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奉禮郎引。】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宮闈令開匱，捧出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判通禮啓外辦，殿下盥帨訖，判通禮導殿下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樂作，殿下至版位西向立，樂止。判通禮前，啓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殿下鞠躬

다음에 제기에 제수 담은 찬구를 설치하고, 술그릇[樽]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 술잔을 존소(尊所)에 설치하고 예(禮)를 행한다. 제향일에 행사(行事)하기 전 3각(刻)에, 전사는 제실을 열어 신위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어 소제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에 제수(祭需)를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과 제향에 배석하는 많은 관원이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2각(刻)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보고하면, 전하가 수레를 타고 나가서 임시로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행사하기> 전 1각(刻)에, 전악 령이 공인(工人)593 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통례문은 종실과 문무의 많은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지통례가 아헌관 이하의 제관이 세수하기를[盥洗]를 기다려, 이를 마치면, 아헌관을 인도하고,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王世子)가 아니면 봉례랑(奉禮郎)이 인도한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궁위령(宮闈令)이 케를 열고 신주를 내어 신좌(神座)에 설치하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판통례가 외관(外辦)을 아뢰고, 전하가 세수하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면, 【시위(侍衛)가 들어올 수 없는 자는 문밖에서 그친다.】 풍악이 시작된다. 전하가 축관 자리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서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에게>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통찬이 ‘중관(衆官)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풍악이 시작되고,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이를 마치면, 【섬돌 위로 올라오고 섬돌 아래로 내려갈 적엔 모두 읍(揖)을 한다.】 풍악이 그친다.

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通贊曰衆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判通禮導殿下，樂作，升自東階訖，【升降階上下皆有揖。】樂止。 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近侍以盞受酒。 判通禮導殿下，入詣神位前【戶外有揖，戶內伏地。】北向立，啓請跪，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神位前。 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 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判通禮啓請俛伏興拜興拜興平身，殿下俛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 判通禮導殿下出戶，樂作，降自東階復位，樂止。 知通禮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 知通禮引亞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亞獻官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知通

〈전하가〉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지계문 밖에서는 읊(揖)을 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게 하고, 〈전하에게〉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을 세 번 피우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향을 세 번 피우고, 근시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는다. 【향을 올릴 적에는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올릴 적에는 서쪽에 서서 동향한다.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쪽을 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면, 북, 흥, 배, 흥, 배, 흥, 평신’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면, 풍악이 그치고,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그 전 자리로 가면, 풍악이 그친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고 말하면, 아헌관이 꿇어앉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고, 지통례가 〈아헌관에게〉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라.’고 말하면, 아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亞獻官俛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判通禮導殿下，樂作，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判通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進受虛盞，復於尊所。(중략)

攝行儀曰：

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令設樂懸於殿庭近西，北向，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令位於樂懸之北，北向。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坩】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於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지통례가 〈아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라.’고 말하여,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 자리로 가게 한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관이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종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 자리로 가게 한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를 따라 근시(近侍)에게 준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풍악이 시작되는데, 음복하는 자리에 나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고,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술잔 받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 마신다. 이를 마치면, 근시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소에 그 전대로 갖다 둔다. (중략)

섭행(攝行)하는 의식은,

“진설은 제향 전 2일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관원을 거느리고 전(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제향 전 1일에는, 전악 령이 풍악 매다는 틀을 전정에 서쪽 가까이 북쪽을 향하여 설치한다. 헌관의 자리는 동계의 동남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줄은 겹으로 하고 서쪽을 향하게 하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석하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를 동계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악 령의 자리는 풍악 매다는 틀 북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전사는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전의 안팎을 소제한다. 제향일 행사(行事)전에, 전사는 제실(祭室)을 열고 신주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어 소제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

尊所。

行禮。 享日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實饌具畢。 前二刻， 獻官以下各服其服， 皆就殿門外。 前一刻， 獻官以下諸執事盥帨訖， 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 重行， 北向西上， 四拜訖， 各就位。 典樂令帥工人入就位， 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宮闈令、齋郎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各就位。 宮闈令開匱， 捧出神主設於座， 覆以青紵巾。 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者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升降階上下皆有揖。】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 【戶外有揖， 戶內伏地。】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 執事者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奉香在獻官之右，

위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坵)이 있다.】 향로·향합·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은 제기에 제수 담을 찬구를 설치하고, 술그릇[尊]을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 술잔을 준소(薦所)에 설치하고 예를 행한다. 제향 일 행사 전 3각(刻)에, 전사는 제실을 열고 신주 있는 악좌를 깨끗이 털어 소제하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에 제찬을 담는다. 이를 마치고 제향 전 2각(刻)에, 헌관 이하의 제관은 각기 그 제복(祭服)을 입고 모두 전문 밖으로 나아간다. 제향 전 1각(刻)에, 헌관 이하의 여러 집사가 세수하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줄은 겹으로 하고 북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전악령은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감찰·전사관·대축·궁위령·재랑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의 배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줄은 겹으로 하고 북쪽을 향하되,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의 제관이 모두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궁위령이 궤를 열고 신주를 받들어 내어 신위에 설치하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여러 헌관에게>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혀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편다. 찬자가, ‘초헌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섬돌 위로 올라오고 섬돌 아래로 내려갈 적에 모두 읍(揖)을 한다.】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지계문 밖에서는 읍(揖)을 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奠爐在獻官之左。授盞奠盞準此。】 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獻官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拜興平身，獻官俛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贊者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謁者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俛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謁者贊跪搯笏，獻官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

앞드린다.】 북향하여 서게 하고, 〈헌관에게〉 ‘끓어얹아 홀을 씻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씻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향을 세번 피우라.’고 말하면, 헌관이 향을 세 번 피우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는다.【향합을 받들 적엔 헌관의 오른쪽에 서고, 향로를 올릴 적엔 헌관의 왼쪽에 선다. 술잔을 주고 술잔을 올릴 적에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끓어얹으라.’고 말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끓어얹으면,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풍악이 시작된다. 알자가 〈헌관에게〉 ‘면, 북,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 자리로 간다. 조금 후에 찬자가 〈헌관에게〉 ‘아헌례를 행하라.’ 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면, 풍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헌관에게〉 ‘끓어얹아 홀을 씻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씻는다. 집사자가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잡아 술잔을 드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라.’고 말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절하고 일어나며, 또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그 전대로 펴면, 풍악이 그친다. 헌관을 인도하여

盞飲訖，大祝進受虛盞，復於尊所。  
(후략)

	<p>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동계로부터 내려가서 그 전 자리로 간다. 조금 후에 찬자가, ‘종헌례를 행하라.’고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례를 행한 의식과 같이 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그 전 자리로 간다. 집사자가 음복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를 따르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고 말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쫓는다. 대축이 북향하여 끓어앉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술잔을 받아 마신다. 마시기를 마치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술잔을 받아 준소에 그 전대로 갖다 놓는다. (후략)</p>	
<p>132. 世宗 14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11月 19日(戊寅) 2번째기사 신궁에 나아가서 태상왕께 수를 올린다</p>	<p>임금이 신궁에 나아가서 태상왕에게 수(壽)를 올리고, 종친과 의정부·육조이 당상관이 잔치에 배석하였다.</p>	<p>上詣新宮上壽, 宗親、政府、六曹堂上侍宴。</p>
<p>133. 세종 14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11월 21일(경진) 2번째기사 태상왕과 포천에서 사냥을 구경하다</p>	<p>태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포천(抱川) 등처에서 사냥을 구경하고, 저녁에 행차가 영평현(永平縣)의 객사(客舍)에 머물러, 태상왕은 동쪽 상방(上房)에 유숙하고, 임금은 서쪽 상방에 유숙하였다. 큰 눈이 와서 밤에 추위가 심하므로, 어가(御駕)를 호종(扈從)하는 신료(臣僚)와 군사들에게 술을 내려 준다.</p>	<p>太上王與上觀獵于抱川等處, 夕, 駕次永平縣客舍, 太上王御東上房, 上御西上房。大雪, 夜寒甚, 賜扈駕臣僚及軍士酒。</p>
<p>134. 世宗 14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12月 22日(辛亥) 4번째기사</p>	<p>태상왕이 도성 수축 도감에게 술을 내렸다. 도성 수축 도감에게 계하기를, “무릇 서울과 지방에 행문 이첩(行文移牒)하는 일은, 만약 지체하는 사람이 있으면, 2품 이상의 관원에 대해서는 위에 아뢰어 논죄(論罪)하고, 통정(通政) 이하의 관원에 대해서는 본도감(本都監)에서 바로 처단하게 할 것입니다.”</p>	<p>太上王賜酒于都城修築都監。都城修築都監啓: “凡京外行移之事, 如有稽遲者, 二品以上, 啓聞論罪; 通政以下, 本都監直斷。”從之, 因命都提調與諸</p>

<p>태상왕이 도성 수축 도감에게 술을 내리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도제조(都提調)와 여러 제조에게 명하여 같이 의논하여 죄를 과(科)하게 하였다.</p>	<p>提調同議科罪。</p>
<p>135. 세종 14권, 3년 (1421 신축 / 명 영락 (永樂) 19년) 12월 23 일(임자) 4번째기사 예조에서 올린 왕세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속수의 의식에 관한 소문</p>	<p>예조에서 왕세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속수(束脩)621) 의 의식을 제하였는데, 입학하는 의식은,  “하루 전날에, 유사(攸司)가 문묘의 전당(殿堂)과 학당(學堂)의 안팎을 소제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왕세자의 편차(便次)를 문묘 문밖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유사(攸司)가 왕세자의 판위(版位)를 문묘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왕세자의 판위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되, 【집사자는 모두 학생으로써 이에 충당한다.】 등(等)마다 자리를 다르게 하고, 모두 줄을 곁으로 하고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찬자 두 사람의 자리는 당(堂)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 가까이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학생의 자리는 뜰 가운데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기 그 소속의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연국 복성공(兗國復聖公)·성국 종성공(鄆國宗聖公)·기국 술성공(沂國述聖公)·추국 아성공(鄒國亞聖公)의 신위(神位) 앞에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 신위마다 왼쪽에는 변(籩) 한 그릇을 두고,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쪽에 두(豆) 한 그릇을 두며, 【녹해(鹿醢)를 담는다.】 작(爵) 하나는 변두(籩豆) 앞에 두고, 희준(犧尊) 하나를 설치하되, 【청주(淸酒)를 담는다.】 구기[勺]와 상보[幕]를 더하여 전(殿) 위의 동남 모퉁이에 두고, 【배위(配位)의 술그릇은 정위(正位) 술그릇의 동쪽에 가까이 둔다.】 각기 향로와 향합과 촛대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또 전(殿) 안의 동쪽·서쪽의 종향(從享)과 두 낭무(廊廡)에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기 왼쪽에는 변(籩) 한 그릇을 두고,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p>	<p>禮曹啓王世子入學儀及束脩儀。  入學儀曰：前一日，攸司灑掃廟殿及學堂之內外，忠扈衛設王世子便次於廟門外西向。有司設王世子版位於廟東階東南，西向，設執事者位於王世子版位之後稍南，西向，【執事者皆以學生充之。】每等異位，俱重行西向，北上，設贊者二人位於堂下，俱近東，西向北上；設學生位於庭中，北向西上。廟司及典祀官各率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兗國復聖公、鄆國宗聖公、沂國述聖公、鄒國亞聖公神位之前，每位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設犧樽一，【實以淸酒】加勺幕，在殿上東南隅。【配位酒尊，即於正位尊所之東。】各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又設殿內東西從享及兩廡祭器，各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設象尊四，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幕。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p>

쪽에는 두(豆) 한 그릇을 두며, 【녹해(鹿醢)를 담는다.】 작 하나는 변두(邊豆) 앞에 둔다. 상준(象尊) 네 개를 설치하되, 하나는 전 위의 앞 기둥 동쪽에 두고, 하나는 앞 기둥 서쪽에 두고, 두 개는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 두며, 모두 구기와 상보를 더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술그릇[罍]은 세의 동쪽에 두어 구기를 더하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어 수건을 담는다. 【만약 작을 씻는 그릇을 담은 광주리면, 또 작을 담는다. 점(坫)이 있다.】 집사자의 세를 설치하고,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준(尊)·뇌(罍)·광주리·상보를 잡은 사람의 자리를 준·뇌·광주리·상보의 뒤에 설치한다. 궁(宮)을 나오는 그 날에 유사가 장위(仗衛)를 진설(陳設)하고, 왕세자가 시각에 의하여 편복(便服)으로 요여(腰輿)를 타고 나오면, 궁료(宮僚)와 여러 시종(侍從)이 의식대로 따른다. 작헌례(酌獻禮)는 행사(行事)하기 전에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이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제찬(祭饌)을 담는다. 이를 마치고 시각이 되면, 학생은 청금복(靑衿服)을 입고, 찬자 두 사람은 섬돌 사이의 배례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북쪽을 향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세수를 하고 손을 수건에 닦는다. 이를 마치면 학생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집사자가 작을 씻고 작을 수건에 닦아 광주리에 두고,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점(站) 위에 놓는다.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고 편차(便次)에서 나오면, 시위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상자(相者)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부터 나와 【시위(侍衛)가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문밖에서 그친다.】 관위(版位)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선다. 【매양 서기를 마치면, 상자(相者)는 물러서서 왼쪽에 선다.】 상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한다. 찬자가 네 번 절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有坫。】設執事者洗又於東南，北向，執尊罍篚器者位於尊罍篚器之後。出宮。其日，攸司陳設仗衛。王世子依時刻，便服乘腰輿以出，宮僚及諸侍從如儀。酌獻未行事前，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實饌具畢。時至，學生服靑衿服。贊者二人就階間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執事者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喝四拜，執事者四拜，詣盥洗位盥帨訖，學生入就位。執事者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王世子服學生服出次，侍衛如常儀。相者引王世子，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至版位西向立，【每立定，相者退立於左。】相者前，贊請四拜，王世子四拜。贊者喝四拜，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相者引王世子詣盥洗位北向立盥帨訖，相者引王世子，升自東階，【左右侍衛量入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相者引王世子，

북쪽을 향하여 서게 하고, 세수를 하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올라가서 【좌우의 시위(侍衛)는 사람을 헤아려 따라 오른다.】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존자(執尊者)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선왕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청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상자가 〈왕세자에게〉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청하고, 〈이를 마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상자가 〈왕세자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청하고, 〈이를 마치면〉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배향위(配享位)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가 상보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네 사람이 술잔으로 술을 받는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복성공(復聖公)·종성공(宗聖公)·술성공(述聖公)·아성공(亞聖公)의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예를 행하기를 모두 위의 의식이 같이 하게 한다. 배향위의 작헌례(酌獻禮)를 마치려 하면, 전(殿) 안의 종향(從享)과 두 낭무(廊廡)의 여러 신위 앞에서 전례(奠禮)를 행한다. 이를 마치면,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부터 내려와서 판위로 나아가게 한다. 상자가 네 번 절하기를 청하면, 왕세자가 네 번 절하고, 찬자가 네 번 절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네 번 절한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밖으로 나와 편차로 돌아오면, 시위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차례로 나가면, 집사자는 모두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네 번 절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집사자가 네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찬자 두 사람이 배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밖으로 나간다.”

하였다. 속수(束脩)의 의식은,  
“그 날에 왕세자가 학생복을 입고 학당(學堂)의 문밖에 이르는데, 속백(束帛)

詣文宣王神位前北向立，贊請跪，執事者一人奉香合跪進，執事者一人奉香爐跪進，相者贊請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相者贊請俛伏興。相者引王世子出戶，詣配位尊所西向立，執事者舉罌酌酒，執事者四人以爵受酒。相者引王世子，詣復聖公、宗聖公、述聖公、亞聖公神位前，行禮竝如上儀。當配位酌獻將畢，殿內從享及兩廡諸神位前助奠訖，相者引王世子，降自東階，就版位，相者贊請四拜，王世子四拜。贊者喝四拜，在位者皆四拜。相者引王世子，出門還便次，侍衛如常儀，在位者以次出。執事者俱復拜位，贊者喝四拜，執事者四拜訖，以次出。贊者二人就拜位，四拜而出。

束脩儀：  
其日，王世子服學生服，至學門外，束帛、【三四】酒一壺、【二斗】脩一案【五脯】。相者引王世子，立於門東西面，陳帛篋、脩篋案、酒壺於王世子西南，當門北向，重行西上。博士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出，立門西，東向曰：“敢請事。”王世子少進曰：“某方受業於

【다섯 필.】, 술 한 병【두 말.】수(脩)627) 한 상[案]【다섯 정(脛).】이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비단 광주리와 포상(脯床)과 술병을 왕세자의 서남쪽에 문 가까이 북향하여 진설(陳設)하되, 줄을 겹으로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박사(博士)가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는데, 집사자가 박사를 인도하여 학당(學堂) 동계 위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문 서쪽에 서서 동향하여 아뢰기를, ‘감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 하면, 왕세자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아무가 지금 선생님에게 수업(受業)하려고 감히 뵈옵기를 청합니다.’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박사에게 알리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는 덕이 없으니, 청컨대 왕세자는 욕됨이 없게 하소서.’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알리면, 왕세자가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덕이 없는데, 왕세자께서 자리에 나아가시면, 아무가 감히 뵈옵겠습니다.’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알리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아무가 감히 빈객(賓客)대하는 예(禮)로써 볼 수는 없으니, 마침내 뵈옵게 하도록 청합니다.’ 라고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알리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허락하지 않으므로, 감히 명령대로 따르겠습니다.’ 한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나와서 알리면, 폐백 광주리를 잡은 사람이 광주리를 가지고 동향하여 왕세자에게 주고, 왕세자는 광주리를 잡는다. 박사가 동계 아래로 내려 와서 서쪽을 보고 서면, 상자(相者)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집사자가 술병과 포상(脯床)을 받들어 따른다. 왕세자가 문에 들어가 왼쪽으로 가서 서게 남쪽으로 나아가 동쪽을 보고 서면, 술과 포(脯)를 받든 사람이 왕세자의 서남쪽에 서서 동쪽을 보고 서는데,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왕세자가 꿇어앉아 폐백 광주리를 올리고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례(答禮)로써 두 번 절하는데, 왕세자는 이를 피한다. 드디어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폐백 광주리를 취하면,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박사의 앞으로 나아가서 동향하여 폐백

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無辱。”將命者出告，王世子固請，博士曰：“某也不德，請王世子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王世子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籩者以籩東面，授王世子，王世子執籩。博士降，伺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世子，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王世子入門而左詣西階南，東面，奉酒脩者立於王世子西南，東面北上。王世子跪奠籩再拜，博士答再拜。王世子還避，遂進跪取籩，相者引王世子，進博士前，東面授幣，奉酒脩案者從奠於博士前，博士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王世子，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王世子再拜訖，相者引王世子，出就幕次以俟。博士釋服，升堂就座，【在學堂東壁下，西向。】相者引王世子，詣博士前，講經如常儀。



	<p>을 주게 하고, 술과 포상을 받은 사람은 따라가서 박사 앞에 올린다. 박사가 폐백을 받으면, 집사자가 술·포(脯)·폐백을 가지고 동쪽으로 간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섬들 사이 남쪽 가까이 서서 북향하게 하면, 술과 폐백을 받은 사람이 나온다. 왕세자가 두 번 절하고 이를 마치면,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 막차(幕次)에 나아가서 기다린다. 박사가 예복(禮服)을 벗고 당(堂)에 올라 자리에 나아가면, 【자리는 학당 동쪽 벽 아래에 서쪽을 향하여 있다.】 상자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박사 앞으로 나아가서 경서(經書)를 강(講)하기를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하였다.</p>	
<p>136.世宗 14卷, 3年 (1421 辛丑 / 명 영락 (永樂) 19年) 12月 25日(甲寅) 1번째기사 태상왕에게 헌수하다</p>	<p>임금이 태상왕에게 헌수(獻壽)하였는데, 양녕 대군 이제·효령 대군 이보·경녕군 이비·공녕군 이인·청평 부원군 이백강·평양군 조대림·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운성군(雲城君) 박종우(朴從愚)·영평군(鈴平君) 윤계동(尹季童)·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이 각기 풍정(豐呈)을 바치었으며, 익평 부원군(益平府院君) 석근(石根)·의평군(義平君) 이원생(李元生)·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광록경(光祿卿) 권영균(權永均) 등도 또한 잔치에 배석(陪席)하였다. 입직(入直)한 채추(宰樞)와 병조 당상과 대언에게는 외청(外廳)에서 잔치를 내렸으며, 아래로 군사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을 내리다. 땅거미가 질 무렵에 병조와 대언에게 명하여 모두 들어와서 술잔을 올리게 하고, 밤이 2경(更)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게 즐기고 과하였다.</p>	<p>甲寅/上上壽于太上王。 讓寧大君禔、孝寧大君補、敬寧君禕、恭寧君裊、清平府院君李伯剛、平壤君趙大臨、宜山君南暉、雲城君朴從愚、鈴平君尹季童、漢原君趙璿各獻豐呈、益平府院君石根、義平君元生、順平君群生、光祿卿權永均等亦侍宴。 入直宰樞、兵曹堂上、代言， 賜宴于外廳， 下逮軍士皆賜酒。 初昏， 命兵曹、代言皆入獻爵， 夜至二鼓， 極權而罷。</p>
<p>출처</p>	<p>내용</p>	<p>원문</p>
<p>1. 세종 15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월 15일(계유) 2번째기사</p>	<p>비로소 도성을 수축하였다. 태상왕은 도총제(都摠制) 권희달(權希達)을 보내고, 임금은 총제(摠制) 원민생(元閔生)을 보내어 술을 내리어 제조(提調)를 태평관(太平館)에서 위로하였다. 숙청문(肅淸門)과 창의문(彰義門) 두 문을 열어 군인들의 출입하는 길을 통하게 하고, 도성(都城)의 동쪽 서쪽에 구료소(救療</p>	<p>始修築都城。 太上王遣都摠制權希達， 上遣摠制元閔生， 奉宣醢， 勞提調于太平館。 開肅淸、彰義二門， 以通軍人出入之路。 置救療所四處于都城東西，</p>

<p>도성을 수축하고 4개의 구료소를 설치해 군인들을 치료하다</p>	<p>所) 네 곳을 설치하고, 혜민국 제조(惠民局提調) 한상덕(韓尙德)에게는 의원(醫員) 60명을 거느리고, 대사(大師) 탄선(坦宣)에게는 중 3백 명을 거느리고 군인들의 병들고 다친 사람을 구료(救療)하도록 명하였다. 또 전 유후(留後) 여칭(呂稱)과 검교 참찬(檢校參贊) 허도(許衡)에게 이를 감독하도록 명하였다.</p>	<p>命惠民局提調韓尙德率醫六十人，大師坦宣率僧徒三百名，救療軍人之疾病傷折者，又命前留後呂稱、檢校參贊許衡監之。</p>
<p>2. 세종 15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월 25일(계미) 5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전 판정주목사 변처후를 국문하기를 아뢰다</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전 판정주목사(判定州牧事) 변처후(邊處厚)가 일찍이 양양(襄陽)에 군수(郡守)로 있을 때에, 군아(郡衙) 안에 간직된 추포(麤布) 90필, 건어(乾魚) 1백 50마리, 소금 10말 등의 물품을 온 곳에 바로 공문으로 회답하지 않았으며, 또 군아 안에 있는 건어와 관청 안에 있는 건어 합계 1백 50마리, 해곽(海藿) 40속(束)으로 생고치[生繭] 6석(石)을 바꾸어 사사로이 사용하였으며, 또 무녀(巫女)의 낫쇠 11냥(兩)을 거두어 군아 안에 있는 낫쇠까지 합하여 낫주발을 만들어 사사로이 썼으며, 또 경내(境內) 낙산사(洛山寺)의 진수정 염주(眞水精念珠) 21개를 비밀리 사고, 또 경내(境內)의 산성포 만호(山城浦萬戶) 이양수(李養脩)에게 소금을 청하여 면화(縣花)와 닥나무[楮]를 바꾸었습니다. 공사(供辭)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은 명백히 공사에 자백(自白)하였는데도 처후(處厚)는 승복하지 않으니,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임금은 범죄가 사죄(赦罪) 전에 있었으므로 논죄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司憲府啓：“前判定州牧事邊處厚曾任襄陽時，衙中所藏麤布九十匹、乾魚百五十首、鹽十斗等物來處，不直答通。又以衙中乾魚及官中乾魚并百五十首、海藿四十束，換生繭六石私用。又收巫女鑰鐵十一兩并衙中鑰鐵，造鑰鉢私用。又密買境內洛山寺眞水精念珠二十一枚。又請鹽于境內山城浦萬戶李養脩，換縣花及楮。辭連各人，明白納招，而處厚不承，請收職牒鞫問。 上以犯在赦前，命勿論。</p>
<p>3. 世宗 15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2月 1日 (戊子) 7번째기사 회회교의 사문 도로에게 쌀을 주다</p>	<p>회회교(回回教)의 사문(沙門) 도로(都老)에게 쌀 5석을 내려 주었다.</p>	<p>賜回回沙門都老米五石。</p>
<p>4. 세종 15권, 4년</p>	<p>도성 수축 제조(都城修築提調) 검한성(檢漢城) 박춘귀(朴春貴)가 졸하니, 관곽</p>	<p>都城修築提調檢漢城朴春貴卒，賜棺槨</p>

<p>(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2월 9일 (병신) 4번째기사 도성 수축 제조 검한 성 박춘귀의 즐기</p>	<p>(棺槨)과 미두(米豆) 10석을 하사하였다.</p>	<p>及米豆一十石。</p>
<p>5. 世宗 15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2月 14日(辛丑) 5번째기사 사신이 올 때에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하다</p>	<p>전라도 관찰사가 계하기를, “지방에서 술을 금할 때에, 무릇 특명을 받은 모든 사신(使臣)이 지경에 내려 오는데, 감사(監司)는 규찰(糾察)하는 책임으로써 법을 범할까봐 두려워하여 감히 술을 접대하지 못하니, 전혀 명령을 공경하는 뜻이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사신이 올 적에는 감사가 적당한 형편에 따라 술을 대접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인하여 예조에 명하여 여러 도에 이문(移文)하도록 하였다.</p>	<p>全羅道觀察使啓: “外方禁酒時, 凡特命大小使臣下界, 監司以糾察之任, 畏於犯法, 不敢饋酒, 殊無敬命之義。今後大小使臣之來, 監司隨宜饋餉。” 從之, 仍命禮曹, 移文諸道。</p>
<p>6. 세종 15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2월 30일(정사) 4번째기사 큰 사슴들을 봉상시에 보내다</p>	<p>큰 사슴 아홉 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었으니, 육장[醢]을 만드는데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p>	<p>送大鹿九口于奉常寺, 以供造醢也。</p>
<p>7. 世宗 15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p>	<p>성균관과 학당(學堂)의 학관(學官)과 학생에게 술을 내렸다.</p>	<p>賜成(城) [均] 館學堂學官、學生酒。</p>

<p>(永樂) 20年) 3月 3日 (庚申) 4번째기사 성균관과 학당의 학관· 학생에게 술을 내리다</p>		
<p>8. 세종 15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3월 8일 (을축) 4번째기사 제향에 쓸 짐승을 잡 는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의관을 만들어 쓰게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향(祭享)에 쓸 짐승을 잡는 사람들이 재소(齋所)에서 밤을 지낼 때에 음식을 주고, 또 관(官)에서 깨끗한 의관(衣冠)을 만들어 임시로 쓰도록 허용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大小祭享宰牲人等, 齋宿時 饋食, 且官作淨衣冠, 臨時許著。” 從 之。</p>
<p>9. 世宗 15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3月 11 日(戊辰) 2번째기사 과평군 윤곤의 졸기</p>	<p>과평군(坡平君) 윤곤(尹坤)이 졸하니, 조회를 3일 동안 폐하였다. 두 임금이 행재소(行在所)에 있다가 부음(訃音)을 듣고 육선(肉膳)을 먹지 않았으며, 태 상왕은 그를 부원군(府院君)에 임명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병조와 승정 원에서 계하기를, “기년상(期年喪)은, 대부(大夫)는 강등(降等)을 하고, 제후(諸侯)는 없애는 것 입니다.”라고 하니, 태상왕이 이르기를, “내가 이 제도를 행한 지가 오랜데, 외간(外間)에는 이를 알지 못할 뿐이다. 임금이 대신이 졸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선(減膳)하는 것은 비록 옛날의 제도 에는 없지마는, 신하가 임금을 위하여 삼년상(三年喪)을 입으니, 임금이 신하 를 위하여 3일 동안 육선(肉膳)을 먹지 않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라고 하였다. 산람(山嵐)의 장기(瘴氣)가 두려우므로, 곤이 &lt;육선(肉膳)을 들 기를&gt; 청하니, 그제야 마지못하여 따랐다. 인하여 3일 동안 감선하는 법을 만들게 하였다. 윤곤은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풍채(風彩)가 있었다. 공신(功 臣)으로서 부귀(富貴)를 보전하였으니, 세상에서 복노인이라고 일컬었다. 소정</p>	<p>坡平君尹坤卒, 停朝市三日。兩上在 行在聞訃, 輟肉膳。太上悼不及拜府 院君。兵曹、承政院啓曰: “期之喪, 大夫降, 諸侯絕。”太上曰: “我行此 制久矣, 外間未之知耳。君聞大臣卒, 減膳雖無古制, 臣爲君喪三年, 君爲臣 去三日肉膳, 不亦可乎?” 以山嵐瘴氣 可畏固請, 乃勉從之, 仍命立三日減膳 之法。坤性寬厚有風彩。以功臣, 富 貴保全, 世目以福翁。諡昭靖, 容儀 恭美昭, 寬樂令終靖。子三, 希夷、 希齊、三山。</p>

	(昭靖)이란 시호를 내렸으니, 용의(容儀)가 아름다운 것을 소(昭)라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 고종명(考終命)한 것을 정(靖)이라 하였다. 아들이 셋이니, 윤희이(尹希夷)·윤희제(尹希齊)·윤삼산(尹三山)이었다.	
10. 世宗 15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3月 27 日(甲申) 4번째기사 일본국 대마주의 좌위 문대랑이 토산물을 바 치다	일본국 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 (후략)	日本國對馬州左衛門大郎遣人來獻土宜。(후략)
11.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4월 1일 (정해) 2번째기사 행차가 묘진원 들에 이르다	행차가 묘진원(妙眞院) 들에 이르렀다. 철원 부사 이양(李揚)이 와서 문안드리고, 최부(崔府)는 술과 과일을 바쳤다.	次于妙眞院之野， 鐵原府使李揚來見， 崔府獻酒果。
12.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4月 10 日(丙申) 2번째기사 신궁에 문안하다	임금이 신궁에 문안드렸다. 태상왕이 술자리를 벌이고 풍악을 잡혔는데, 종친·정부·육조 판서와 광록시 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도총제(都摠制) 이징(李澄)·지돈녕(知敦寧) 이담(李湛)·예조 참판 이맹균(李孟均)·병조 참판 이명덕(李明德)·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 등이 연회에 참석하고, 나머지 당번 재추(宰樞)와 대언과 병조는 바깥 대청에서 먹게 하고, 아래로 군사와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술과 과일을 내렸다. 양녕(讓寧)도 부름을 받고 와서 참여하였다.	上朝新宮， 太上王置酒動樂。 宗親、 政府、 六曹判書、 光祿寺卿權永均、 都摠制李澄、 知敦寧李湛、 禮曹參判李孟均、 兵曹參判李明德、 知申事金益精等侍宴， 其餘入番宰樞、 代言、 兵曹， 饋于外廳， 下逮軍士僕隸， 皆賜酒果。 讓寧被召來與。
13. 세종 16권, 4년	임금이 태상왕을 모시고 연화방(蓮花坊) 신궁(新宮)으로 옮겼다. 병환이 위독	甲子/上奉太上王， 移御于蓮花坊新宮，

<p>(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5월 8일 (갑자) 1번째기사 태상왕을 모시고 연화방 신궁으로 옮기다</p>	<p>하여 방위를 피함이었는데, 임금과 여러 왕자들은 모두 걸어서 갔다. 임금이 태상왕을 간호한 이래 약품이나 음식과 반찬을 모두 친히 받들어 올리고, 병환이 심할 때에는 밤새도록 간호하여 잠시라도 옷을 벗고 자지 아니하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걱정하였다.</p>	<p>以疾篤避方也。上及諸王子皆徒步以從。上自侍疾以來，藥餌飲膳，皆親自奉進，及疾篤，通宵侍側，未嘗解衣交睫，群臣皆以爲憂。</p>
<p>14.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5月 10日(丙寅) 3번째기사 상제는 고례에 의해 행하다</p>	<p>목욕(沐浴)시키고, 반함(飯含) 드리고, 얼음 소반[氷盤]을 설치하고, 습(襲)을 하고, 전(奠)드리고, 영좌(靈座)와 혼백(魂帛)을 설치하고, 명정(銘旌)을 세웠는데, 금분(金粉)을 개어 전자(篆字)로 상승 성덕 신궁 태상왕 재궁(上昇聖德神功太上王梓宮)이라 쓰고,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을 올리게 하였는데, 무릇 조석전과 상식을 올릴 때에 임금은 케연(几筵) 곁에 있고, 부마(駙馬)가 전헌례(奠獻禮)를 행하였다. 무릇 상제는 모두 고례(古禮)에 의하여 진행하였다.</p>	<p>沐浴飯含，設氷盤乃襲設奠。設靈座魂帛，立銘旌，以泥金篆書曰上昇聖德神功太上王梓宮，設朝夕奠上食。凡朝夕奠上食，上侍於几筵之側，駙馬行奠獻禮。凡喪制一依古禮。</p>
<p>15.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5월 10일(병인) 7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죽을 들기를 청하다</p>	<p>정부와 육조에서 죽을 들기를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政府、六曹請進粥，不允。</p>
<p>16.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5月 11日(丁卯) 1번째기사 임금이 묻은 죽을 들다</p>	<p>연사종·변계량(邊季良)이 계하기를, “전하께서 &lt;태상의 병을&gt; 간호한 이래 지금까지 음식을 들지 아니하니 성체(聖體)가 상할까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제 정부와 육조에서 청하고, 경들이 이제 또 청하니, 내가 오늘 저녁에 들겠노라.” 하였다. 석전(夕奠) 뒤에 정부와 육조가 모두 나와 울면서 계하기를,</p>	<p>丁卯/延嗣宗、卞季良啓曰：“殿下自侍疾以來，至今不進膳，恐傷聖體。”上曰：“昨日政、府六曹請之，卿等今又請之，予當夕而聽。”夕奠後，政府、六曹咸進涕泣啓曰：“殿下自父王疾劇以來，迄今不進膳。聖人垂訓有曰：</p>

	<p>“전하가 부왕의 병환이 위중할 때로부터 지금까지 음식을 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인의 훈계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생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애통한 마음을 절제하고 음식을 드시어, 큰 효도를 온전하게 하소서.”</p> <p>하였다. 이에 임금의 붉은 죽을 조금 들었으나, 하루 한끼에 그쳤다.</p>	<p>‘無以死傷生。’ 願殿下節哀進膳，以全大孝。” 上乃進淡粥小許，日止一次。</p>
<p>17.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5월 13일(기사) 4번째기사 임금이 죽을 먹다</p>	<p>임금이 비로소 죽을 자셨다.</p>	<p>上始食粥。</p>
<p>18.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5月 13日(己巳) 5번째기사 예조에서 성복의와 삭망전의의를 계하다</p>	<p>예조에서 성복의(成服儀)와 삭망전의의(朔望奠儀)를 계하였다. 성복의에 말하기를,</p> <p>“그날 충호위(忠扈衛)는 전하의 악차(輦次)를 빈전(殯殿) 앞 조금 동쪽에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고, 왕세자의 막차(幕次)는 전하의 악차 뒤로 조금 남쪽에 설치한다. 【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아가, 옷을 벗고 최복(衰服)을 바꾸어 입으며,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들도 자기 위치에 나아가 입었던 옷을 벗고 최복으로 바꾸어 입는다.】 시각이 되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제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옥위(褥位)에 나아가 서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한다. 예조 판서가 악차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 아뢰기를, ‘예조 판서 신 아무는 전하께서 상승한 성덕 신공 태상왕을 위하여 성복(成服)하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뢰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상의(尙衣)가 전하의 입었던 옷을 벗게 하고 최복을 바꾸어 입게 한 다음, 발을 걷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궤연(几筵) 옆 북향으로 된 옥위에 나아가 선다.</p>	<p>禮曹啓成服儀及朔望奠儀。成服儀曰：其日，忠扈衛設殿下幄次於殯殿前近東，隨地之宜，設王世子幕次於殿下幄次之後近南。【知通禮引王世子，就幕次釋服，易衰服。宗室以下文武群官俱就次釋素服，易衰服。】時至，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王世子入就褥位。立定，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禮曹判書進當幄前，俛伏跪啓：“禮曹判書臣某言。請殿下爲上昇聖德神功太上王成服。”啓訖，俛伏興，尙衣爲殿下，釋素服易衰服，簾捲。判通禮導殿下出幄，詣几筵側，北向褥位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p>

판통례가 계하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슬피 운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말하면, 왕세자 이하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와 자리에 앉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돌아오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동으로 가까이 반을 옮기고, 반수(班首)가 명단을 바쳐서 위로하고, 그것이 끝나면,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라고 하였다.

삭망전의(朔望奠儀)에 말하기를, 【찬품(饌品)은 대렴전(大斂奠)과 같다. 이후 어떠한 제전(祭奠)도 다 이와 같다.】

“하루 앞서 충호위가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 조금 동쪽으로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히 하고, 왕세자의 막차는 전하의 악차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전정 길 동쪽으로 북에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 조금 남쪽으로 북향하여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바깥 뜰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에 상관이 서고, 판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는데, 모두 북향한다. 【종실은 길 서쪽 앞줄에 있게 한다.】 그날 새벽에 집사자가 들어와 축판을 영좌 왼편에 올려 놓고, 향로·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술단지[尊]를 문밖 왼편에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 동남쪽으로 북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가 잔을 물에 씻고 행주로 닦아서 동계로부터 올라와 준소에 두고, 찬을 받들고 올라가 영좌 앞에 차려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에 나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가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再拜哭, 王世子以下在位者, 皆再拜哭盡哀。 禮曹判書跪啓禮畢, 判通禮導殿下, 還幄次卽座。 知通禮引王世子還幕次, 通禮門引群官移班近東, 班首進名奉慰訖,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朔望奠儀曰:

【饌品如大斂奠。 後凡祭奠, 皆倣此。】 前一日, 忠扈衛設殿下幄次於殯殿前近東, 隨地之宜, 設王世子幕次於殿下幄次之後近南。 通禮門設殿下版位於殿庭道東近北, 北向, 設王世子位於殿下版位之後稍南, 北向, 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宗室於道西在前行】 其日質明, 執事者入, 奠祝版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戶外之左, 設洗於東階東南北向。 執事者洗盞拭盞, 升自東階, 置于尊所, 奉饌升奠于靈座前。 判通禮導殿下, 詣幄次卽座, 知通禮引王世子就幕次,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 禮曹判書進當幄前跪, 啓請行禮, 判通禮導殿下, 出幄至拜位北向立, 啓



	<p>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배위(拜位)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재배하고 곡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세 번 향을 피우기를 계청한다. 【향과 향로를 올리고, 향을 피우는 것은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가 다(茶)와 술을 올리면, 전하는 다른 땅에 부어서 강신하고, 세 번 술을 잔에 부어서 올린다. 【술을 부어 올리는 것도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아라.’라고 계하고, 대축(大祝)이 영좌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축문이 끝난 다음,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라.’라고 계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재배하고 곡하라.’라고 계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라고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슬피 곡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계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막차로 돌아오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동으로 가까이 반을 읊기고, 반수(班首)가 명단을 바쳐서 위로한 다음,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p>	<p>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帨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導殿下降復位。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還幕次。通禮門引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訖，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p>
<p>19.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5월 14 일(경오) 2번째기사</p>	<p>제궁(梓宮)을 받들어 수강궁(壽康宮)에 빈(殯)하였다. 임금은 소연(素輦)을 타고, 종실과 부마 및 병조·승정원은 도보로 따라갔다. 비로 인하여 백관의 시위는 중지하고, 군사들만 무장하고 〈연화방(蓮花坊)〉 신궁으로부터 수강궁 문밖에 이르기까지 길 좌우에 이중으로 나누어 서게 하고, 병조에서 여러 위</p>	<p>奉梓宮將殯于壽康宮，上乘素輦，宗室、駙馬及兵曹、承政院徒步以從。以雨命除百官、侍衛軍士被甲執兵。自新宮至壽康宮門外，分立路旁，各二</p>

재궁을 받들어 수강궁  
에 빈하다

를 동원하여 길거리와 골목을 나누어 지키게 하고, 드디어 수강궁 정전(正殿)에 빈(殯)하였다. 이보다 앞서 벽돌과 구워 만든 돌·박석(薄石)으로 가실(假室)의 바닥을 정전 중간에 쌓고, 석회로 그 빈 틈을 바르고, 자리를 깔고 그 위에 평상을 놓고, 평상 위에 대자리와 요를 깔고, 또 장막과 요와 병풍을 정전 중간 북쪽 공처에 설치하여, 임시로 혼백(魂帛)과 책보(冊寶)를 둘 자리를 준비하였다. 시간이 되어, 여러 소신(小臣)들이 관을 들어 평상 위에 올려놓았는데, 남쪽으로 머리를 두게 하고, 관의(棺衣)를 덮고, 유단(油單)으로 싸고, 흰 무명으로 묶고, 볏은 기장[黍]·피[稷]·벼[稻]·양(梁)을 각각 두 광주리씩 만들어, 수족(手足) 있는 데에 네 광주리를 놓고, 그 나머지는 좌우로 나누어 놓는다. 여러 소신(小臣)이 가실(假室)을 들어서 관을 덮는데, 가실의 제도는 관을 올려놓는 평상의 장단과 광협에 따라, 먼저 사면에 방틀 나무를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 네 개를 세우고, 대들보와 서까래를 걸고 가는 나무를 피나무 줄로 엮어서 벽을 만들고, 갈대자리를 그 안에 치고 대쪽을 대어 떨어지지 않게 못을 치고, 두꺼운 종이로 두 세 벌 바르고, 다음으로朱雀(朱雀)·현무(玄武)·청룡(靑龍)·백호(白虎)를 사면에 그려 붙이고, 그 다음 둥근 쇠고리를 방틀 네 귀에 박고 숙마 밧줄로 고리를 꿰어 걸박하고, 북쪽 벽과 방틀은 떼어 내고 <가실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밀어 관을 덮게 하고, 도로 북쪽 벽을 막고 진흙으로 밖과 위를 바르고, 다음 숙마포(熟麻布)로 진흙 위를 덮고, 다음 두꺼운 종이로 바르고 백초(白綃)로 장막을 치고 천장도 덮는다. 영좌(靈座)는 찬궁(欝宮) 앞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명정(銘旌)을 영좌 오른편에 세우고, 개선(蓋扇) 두 개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영상(靈床)을 찬궁 동쪽에 설치하고, 거기에 전(奠)을 드리게 한다. 임금은 광연루(廣延樓) 동쪽에 의려(倚廬)를 설치하고 거처하는데, 그 제도는 한 칸으로, 사면에 집이 붙어 있고 띠[茅]로 이은 것이다. 매일 조석전(朝夕奠) 및 상식(上食)을 올릴 때에, 임금은 레연(几筵) 곁에 모시고 있다가, 제사를 마친 뒤 여차(廬次)로 돌아오는 것을

重。兵曹勒諸衛，分守街巷。遂殯于壽康宮之正殿。前期，用輓及熟石、薄石築假室基于正殿中間，以石灰塗其隙，布地衣，安平床，床上又布竹席、地衣、褥席。又設帳、褥席、屏風於殿中近北空處，以備魂帛、冊寶假安之地。時至，諸小臣共舉柩，安於床上南首，覆棺衣，以油單裹之，用白正布束之，用煎黍稷稻粱各二筐，手足置四筐，其餘則設於左右。諸小臣共舉假室，加於柩。假室之制，度柩床長短廣狹，先設四面地防木，次立四柱於其上，架梁拘椽，用椴繩細木作壁，以葦簾帖其內，又以片竹挾之下釘，以厚紙再三塗之。次以朱雀、玄武、靑龍、白虎帖四面，次以圓環下地防四旁，次以熟麻大繩穿環結之。時(之) [至]，去其北隅壁與地防，自南向北推移，覆于柩上，還障北隅，以泥塗外面及上，次以熟麻布其泥上，次以厚紙塗之，設白綃滿頂及帳。置靈座於欝宮之前南向，立銘旌於靈座之右，設蓋扇各二於靈座之前，設靈床於欝宮東，乃設奠。上居倚廬于廣延樓之東。其制，中一間，四面附舍，覆以茅。每日朝夕奠

	<p>규례로 하고, 발인(發引)한 뒤에 폐지한다.</p>	<p>及上食，上侍几筵之側奠訖，還廬次，以爲常，至發引而止。</p>
<p>20.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5月 15日(辛未) 5번째기사      삭망과 명일에는 친히 제사를 지내고, 조석전과 상식에는 종친들에게 잔을 올리게 하다</p>	<p>승정원에 전지(傳旨)하기를,      “예에 초우(初虞) 이전에는 상주가 예를 행한다는 문자가 없으므로, 내가 어머니 초상 때에 삭망(朔望)이나 명일에는 친히 제사를 지내고, 조석전(朝夕奠)과 상식(上食)에는 모두 종친을 시켜 잔을 올렸다. 이제 또 이 예에 의하고자 하니 어떠하냐.”      하였다. 김익정(金益精)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주상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하였다.</p>	<p>傳旨于承政院曰：“禮，初虞以前，主喪者無行禮之文，故予於母后之喪，若朔望、有名日，則親行奠獻，至於朝夕奠上食，皆使宗親奠獻。今欲依此例，如何？”金益精等對曰：“上教允當。”</p>
<p>21.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5월 18일(갑술) 2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들기를 청하나 거절하다</p>	<p>의정부와 육조에서, 안개가 너무 심하므로 술을 조금 들기를 청하였는데, 임금의 허락하지 아니하고 승정원을 꾸짖어 말하기를,      “상중에 술을 마시는 것은 예가 아니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감히 예 아닌 말을 전계(傳啓)하였느냐.”      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익정(金益精) 등이 계하기를,      “전하께서 태상의 병환이 위독한 이래 전혀 찬을 들지 아니하신 지 이미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서습(暑濕)한 때를 당하여, 지극히 높은 몸으로 떠집[茅茨] 아래서 거처하시니, 신들은 성체(聖體)에 손상이 있을까 염려됩니다. 대비의 초상 때, 태상이 날마다 사람을 보내어 찬과 술을 권하고, 전하께서도 태상의 명령을 어기기 어려워 애통한 마음을 억제하고 찬을 드셨나이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므로, 신 등이 어찌할 줄 몰라서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감히 총명을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술을 마시라는 청은 내가 끝내 듣지 아니할 터이니, 금후 다시는 계하지 말</p>	<p>議政府、六曹請：“霾雨已甚，小進酒。”不許，責承政院曰：“居喪飲酒，非禮也。汝等何敢將非禮之言傳啓乎？”知申事金益精等啓曰：“殿下自太上疾劇以後，專不進膳，今已二十餘日。今當暑濕之時，以至尊之體，居茅茨之下，臣等恐傷聖體。大妃之喪，太上日遣人勸進膳與酒，殿下重違太上之命，抑哀進膳，今則異於是矣。是以臣等罔知所措，不計是非，敢煩天聰。”上曰：“飲酒之請，予終不聽，今後勿啓。”</p>

	라.” 하였다.	
22. 세종 16권, 4년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5월 26 日(壬午) 1번째기사 정부와 육조에서 술을 들기를 청하다	정부와 육조가 다시 청하기를, “이제 연일 비가 내려 십여 일 동안 개지 않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비록 술을 자신들 대효(大孝)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종묘와 사직을 위하 여 억지로라도 한 잔 들어 성체(聖體)를 보호하시고, 길이 백성을 편케 하소 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성품이 술을 좋아하지 아니하니 마시지 않는 것이 도리어 편하다. 그러 나 대신이 재삼 청하니, 힘써 그 말을 따르겠다.” 하고, 소주를 올리라 하였으나, 반 잔쯤 자시고 정지하였다.	壬午/政府、六曹復請曰：“今天連雨不 霽，已十餘日矣。殿下雖進酒，何損 於大孝？伏望爲宗社強進一杯，以保聖 體，永綏黎元。”上曰：“予性不好酒， 以不飲爲安，然大臣請至再三，勉從其 言。”乃許進燒酒，半杯而止。
23.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年) 6월 1일 (병술) 2번째기사 한장수가 북경에 가다	한장수(韓長壽)가 길을 떠났다. 주(奏)하여 말하기를, “영락 20년 5월 25일에 배신(陪臣) 오승(吳陞) 등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 거 가(車駕)가 북방에 순행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나이다. 그 동안 성궁(聖躬)이 만 복(萬福)하신 줄 믿고 삼가 예물(禮物)을 갖추어 배신(陪臣) 관중군도총제부사 한장수를 보내어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 문안드리고, 예물 목록을 적어서 함께 주문(奏聞)하나이다.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30 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인삼(人蔘) 1백 근, 잡색마(雜色馬) 10필입니 다.” 하였다. 장수에게 의복과 갓[笠]·신[靴]·약품을 내리고, 통사(通事) 최운(崔雲) 에게는 의복 한 벌을 내렸다.	韓長壽發行奏曰：“永樂二十年五月二 十五日，陪臣吳陞等回自京師，欽聞車 駕巡幸北方，伏惟聖躬萬福。謹備進 獻禮物，差陪臣判中軍都總制府事韓長 壽，齎領前赴行在，欽問起居。今將 禮物開坐，謹具奏聞。黃細苧布二十 匹、白細苧布三十匹、黑細麻布五十 匹、人蔘一百斤、雜色馬一十匹。” 賜長壽衣服、笠靴、藥餌，通事崔雲衣 一領。
24.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양녕 대군 이제가 이천(利川)에서 올라와 빈전에 전을 드리고 돌아갔다. 임금 이 내신(內臣)에게 명하여 이천까지 호송하고, 콩 10섬과 종이 40권을 내렸	讓寧大君提自利川來，設奠于殯殿而 還。上命內臣送至利川，賜豆十石、

<p>(永樂) 20년) 6월 17일(임인) 2번째기사 양녕 대군이 빈전에 전을 드리고 이천으로 내려가다</p>	<p>다</p>	<p>紙四十卷。</p>
<p>25.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6月 25日(庚戌) 2번째기사 경선 공주가 빈전에 전을 드리다</p>	<p>경선 공주(慶善公主)가 빈전에 전을 드렸다.</p>	<p>慶善公主設奠于殯殿。</p>
<p>26.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6월 25일(경술) 3번째기사 산릉 도감에 술을 내리다</p>	<p>술을 산릉 도감(山陵都監)에 내렸다</p>	<p>賜酒于山陵都監。</p>
<p>27.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6月 27日(壬子) 3번째기사 박은에게 부의로 쌀과 콩 주다</p>	<p>박은(朴崑)에게 부의로 쌀과 콩 70석을 내렸다.</p>	<p>賜賻朴崑米豆七十石。</p>
<p>28.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7월 2일</p>	<p>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裊)가 빈전(殯殿)에 전을 드렸다.</p>	<p>敬寧君裊設奠于殯殿。</p>

<p>(정사) 5번째기사 경녕군이 빈전에 전을 드리다</p>		
<p>29.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7月 5日 (庚申) 2번째기사 일본인 삼주 태수와 대마도 좌위문태랑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방(防)·장(長)·풍(豐) 삼주 태수(三州太守) 다다량도웅(多多良道雄)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는데, 중궁(中宮)·동궁(東宮)으로부터 좌우 정승(左右政丞)에 이르기까지 모두 드리는 물건이 있었고, 대마도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도 또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다.</p>	<p>日本國防、長、豐三州太守多多良道雄遣人獻土宜，自中宮東宮至左右政丞，皆有獻物。對馬島左衛門大郎亦遣人獻土宜。</p>
<p>30.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7월 6일 (신유) 3번째기사 일본인 원도진과 평만 경이 방물을 바치고 포로 송환을 요구하다</p>	<p>일본 구주(九州) 전(前) 도원수(都元帥)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조문하고, 방물을 바치고 대마도 왜인의 포로를 돌려보내기를 청하였다. 예조 판서가 그 서계에 답하기를, “만일 종언륙(宗彦六)이 정성을 다하여 조공하면 청하는 바를 들어주리라.” 하였다. 축주부(筑州府) 평만경(平滿景)도 사신을 보내어 동(銅) 5백 근과 유황(硫黃) 1천 근, 소목(蘇木) 3백 근을 바치고, 대마도 사람으로 억류된 자를 보내달라고 청하였다.</p>	<p>日本九州前都元帥源道鎭遣人來弔，獻土宜，仍請對馬島倭人之被虜者。禮曹判書答其書曰：“若宗彦六輸情納款，當從所諭。”筑州府平滿景遣使獻銅五百斤、硫黃一千斤、蘇木三百斤，又請發還對馬島被留者。</p>
<p>31.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7월 8일 (계해) 6번째기사 서울에 쌀이 귀하여 창고의 묵은 쌀을 방 매하게 하다</p>	<p>世宗 16卷, 4年(1422 壬寅 / 명 영락(永樂) 20年) 7月 8日(癸亥) 6번째기사 서울에 쌀이 귀하여 창고의 묵은 쌀을 방매하게 하다</p>	<p>傳旨曰：“京中米貴，民不聊生，其以倉庫陳米，聽賣楮貨一張，折米一升。”</p>
<p>32. 세종 16권, 4년</p>	<p>호조에서 계하기를,</p>	<p>戶曹啓：“山陵伐石軍，今因暑濕，得</p>

<p>(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7월 10 일(을축) 5번째기사 산릉 채석군 중 병든 자를 치료하게 하다</p>	<p>“산릉 채석군(採石軍)이 더위와 습기 때문에, 병든 자가 많으니, 병사(病舍) 10여 칸을 짓고 중들로 하여금 소금·장·죽·쌀을 가지고 치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病者多。 請造病屋十餘間， 令僧徒， 將鹽醬、 粥米治療。” 從之。</p>
<p>33. 世宗 16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7月 17 日(壬申) 3번째기사 별석군 중 죽은 이에 게 쌀·콩을 부조하다</p>	<p>별석하다가 죽은 군사에게 모두 쌀과 콩으로 부조하게 하였다.</p>	<p>伐石軍物故者， 皆賻以米豆。</p>
<p>34. 세종 16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7월 17 일(임신) 4번째기사 한원군 조선이 빈전에 전을 드리다</p>	<p>한원군(漢原君) 조선(趙璿)이 빈전에 전을 드렸다.</p>	<p>漢原君趙璿設奠于殯殿。</p>
<p>35.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1日 (乙酉) 4번째기사 쌀값 등귀를 막기 위해 창고의 쌀을 판매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금년에 곡식이 귀하여, 쌀값이 올라가게 되니, 창고에 있는 묵은 쌀 5천 석도 민가에 판매시키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于戶曹曰：“今年穀貴， 米價騰湧， 其以倉庫陳米五千石， 許民和糶。”</p>
<p>36.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p>	<p>경녕 옹주(敬寧翁主) 왕씨(王氏)가 전(奠)을 빈전(殯殿)에 올렸다.</p>	<p>慶寧翁主王氏設奠于殯殿。</p>

<p>(永樂) 20년) 8월 3일 (정해) 3번째기사 경녕 옹주 왕씨가 빈 전에 전을 올리다</p>		
<p>37.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13 日(丁酉) 3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 느리고 빈전에 전을 올리다</p>	<p>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전(奠)을 빈전(殯殿)에 올렸다.</p>	<p>議政府率百官，設奠于殯殿。</p>
<p>38.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14 일(무술) 1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빈전의·조 전의·견저의·사후토의 를 계하다</p>	<p>(전략) 집사자가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까 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준소(尊所)는 호외(戶外)의 왼쪽으로 북향되게 설치 하고, 세(洗)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서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두게 되면, 봉찬(奉饌)이 올려다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지통례(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차에 나아가게 하 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봉례랑(奉禮 郎)은 공조 판서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位]에 나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중 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여, 좌 석 위차가 정돈이 되었으면,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 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를 거행하기를 청한다. 계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일으켰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 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슬피 운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p>	<p>(전략) 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 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 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 【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 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 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 奠于靈座前。知通禮引王世子就次， 判通禮導殿下詣幄次即座，奉禮郎引工 曹判書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 武群官入就位。立定，知通禮引王世 子入就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 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 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 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 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p>



곡하라'고 말하면, 왕세자 이하 위치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슬피 운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라.' 청하고,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茶酒)를 드리면, 전하는 너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면(俛), 복(伏), 흥(興), 소퇴(小退)하여 끓어앉아라.' 하고, 대축(大祝)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위치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끓어앉아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품을 걷어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먼저 있던 위치로 나아가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봉례랑은 공조 판서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수건을 가진 자도 따라 올라온다.】 찬궁(欝宮)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으로 끓어앉아 계하기를, '삼가 길한 날로 찬궁(欝宮)을 열게 되다.' 하고, 계하기를 마치면, 장사자(掌事者)는 올라와 찬도(欝塗)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우기를 마치면, 공조 판서는 수건을 가지고 재궁(梓宮)을 털고 닦은 뒤에 관의(棺衣)를 덮는다. 막내(幕內)에 집사자가 주변으로 장막을 두르며, 상시(常時)에 먹던 음식으로 된 전(奠)도 올리는데, 보통 때와 같게 한다. 【아침, 저녁 수라(水刺)이다.】 끝나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치에 나아가게 하고, 【공조 판서도 내려와 본반(本班)으로 찾아 서게 한다.】 좌석이 정돈되면,

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執事者徹饌〔撤饌〕，判通禮導殿下權就幄次，知通禮引王世子權就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奉禮郎引工曹判書，升自東階，【執巾者從升】就欝宮南，北向跪啓曰：‘謹以吉辰，啓欝塗。’啓訖，掌事者升，撤欝塗。撤訖，工曹判書以巾拂拭梓宮，覆以棺衣。於幕內，執事者周回設帷及施常食之奠，如常儀【朝夕水刺】訖，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工曹判書降就本班。】立定，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위차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위차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반(班)을 동쪽 가까이 옮기면, 반수(班首)는 이름을 내어 놓고 봉위(奉慰)하기를 끝마친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고 하였다. 조진의(朝奠儀)에 말하기를,  
 “기일 전에 증호위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 앞에 조금 동쪽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그 뒤로 조금 남쪽으로 하는데, 모두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版位)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위(位)는 전하 판위의 뒤로 조금 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위(位)는 외정(外庭)으로 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한다.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위(位)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는데, 모두 북향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하는데, 앞 줄에 서게 된다.】 집사자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와 향합과 초까지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의 왼편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한다.】 여러 집사(執事)의 세(洗)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씻고 닦아 동계에서 올라와 존소(尊所)에다 두면, 봉찬(奉饌)은 올려다가 영좌 앞에 두게 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

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還就次，通禮門引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訖，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祖奠儀曰：

前期，忠扈衛設殿下幄次於殯殿前近東，設王世子次於其後近南，皆隨地之宜。通禮門設殿下版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王世子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北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隨地之宜，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道西，在前行】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所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於尊所，奉饌升，奠於靈座前。知通禮引王世子就次，判通禮導殿下詣幄次卽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

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위치[位]에 나아가게 하고, 좌석이 정돈되면,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禮)를 거행하기를 계(啓)하여 청한다. 계하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라.’고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라.’고 아뢰어 청한다.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茶酒)를 올리면, 전하는 너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하게 된다. 【전주(奠酒)도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大祝)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게 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예(禮)가 끝났다고 꿇어앉아 아뢰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집사자는 찬(饌)을 건어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오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고 하였다. 견전의(遣奠儀)에 말하기를,  
“하루 전에 충호위는 전하의 악차를 빈전(殯殿) 앞에 동쪽에 가깝게 설치하

通禮啓請再拜哭， 殿下再拜哭盡哀。 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 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悅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皆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復位。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 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 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 執事者撤饌，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還就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遣奠儀曰：  
前一日，忠扈衛設殿下幄次於殯殿前近東，設王世子次於其後近南，皆隨地之宜。 其日，通禮門設殿下版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設王世子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北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隨地之宜，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

고, 왕세자의 악차는 그 뒤로 남쪽에 가깝게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그날이 되면,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전정(殿庭)의 길 동쪽으로 북쪽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版位) 뒤로 남쪽에 가깝게 북향으로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 적당하게 하고,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판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하는데, 앞 줄에 있게 한다.】 유사(有司)가 순(輻)을 중문(中門) 밖으로 드리되, 한가운데로 남향되게 하며, 혼백거(魂魄車)와 유거(柳車)는 외문(外門) 밖으로 한가운데에 남향되게 하고, 의장(儀仗)과 명기(明器)는 그 앞에 늘어놓는다. 【길의장(吉儀仗)은 혼백거 앞에 늘어놓고, 흉의장(凶儀仗)과 명기는 유거 앞에 늘어놓는다.】 집사자는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까지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소는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을 닦아서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둔다. 봉찬(奉饌)은 올려다가 영좌 앞에 올린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하며,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 자리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예(禮) 거행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영좌 앞에 나

道西，在前行】 有司進輻於中門外當中南向，進魂帛車及柳車於外門外當中，南向，儀仗、明器序列於其前。【吉儀仗序列於魂帛車前，凶仗、明器序列於柳車前。】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之左，北向，設洗於東階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東南，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升自東階，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知通禮引王世子就次，判通禮導殿下，詣幄次即座，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悅訖，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

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茶酒)를 올리면, 전하는 너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하게 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자리에서 조금 물러서게 한다.

집사자는 애책(哀冊)의 옥위(褥位)를 전(奠)의 동쪽에 설치한다. 직장(職掌)은 책안(冊案)을 받들어 앉아서 옥위에 두게 되는데, 서향으로 한다. 봉책관(奉冊官)은 책(冊)을 받들어 책안(冊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안(案) 위에 올려놓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선다. 판통례가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꿇어앉는다. 전의가 ‘꿇어앉으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꿇어앉는다. 봉책관이 책안(冊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책을 들게 되고, 독책관(讀冊官)은 꿇어앉아 책을 읽어 끝마치며,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물러선다. 봉책관은 책을 가지고 교서 관원(校書館員)에게 주어 상서 사원(尙瑞司員)에게 주게 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면, 북, 흥, 재배,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사자는 찬품(饌品)을 걷어치우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임시로 악차에 나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한다. 여재 궁관(昇梓宮官)이 【무반(武班)으로 4품이다.】 순(輜)을 전계(殿階) 사이로 올리게 된다. 대축은 여(輿)를 가지고 혼백함(魂魄函)을 받들어 차(車)

哭，導殿下小退於位。執事者設哀冊褥位於奠東，職掌先奉冊案，置於褥位西向，奉冊官奉冊，升詣冊案前跪，奠於案上，俛伏興小退。判通禮啓請跪，殿下跪，典儀曰跪，王世子以下在位者皆跪。奉冊官詣冊案前跪舉冊，讀冊官跪讀冊訖，俛伏興退。奉冊官以冊授校書館員，以授尙瑞司員。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典儀曰俛伏興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俛伏興，再拜哭盡哀。執事者撤饌，判通禮導殿下權歸幄次，知通禮引王世子權就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昇梓宮官【武班四品】進輜於殿階間，大祝以輿奉魂帛函，安於車上，虞主匱置其後。執事者奉諡冊、諡寶、哀冊及平時冊寶置於輿，攝判通禮進靈座前跪，啓請升輜，俛伏興。戶曹判書帥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降階升輜，攝判通禮前導梓宮，奉窆者【內官】以窆障梓宮。挽士奉輜至外門外，攝判通禮進輜前跪，啓請升柳車，俛伏興。戶曹判書帥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升柳車，攝判通禮進靈駕前跪，啓請靈駕進發，俛

위에 모시고, 우주궐(虞主匱)은 그 뒤에 두게 된다. 집사자는 시책(諡冊)·시보(諡寶)·애책(哀冊) 및 평시의 책보(冊寶)를 받들어 여(輿)에다 둔다. 섭관통례(攝判通禮)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순에 오르기를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호조 판서는 여재궁 관(昇梓宮官) 및 소신(小臣)을 거느리고 재궁(梓宮)을 받들어 계(階)에 내려 순에 올려놓게 된다. 섭관통례가 재궁을 앞서 인도하면, 봉삽(奉窆)하는 자는 【내관(內官).】 삽(窆)으로 재궁을 가린다. 만사(挽土)는 순을 받들어 외문 밖에 이르게 되면, 섭관통례는 순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유거(柳車)에 오르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호조 판서는 여재궁 관 및 소신(小臣)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유거에 올린다. 섭관통례는 영가(靈駕)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영가(靈駕)가 출발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간다. 의위(儀衛)가 차서대로 앞을 인도하면, 전하는 왕세자 및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차서에 따라 곱하면서 따라가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서울에 남아 있을 여러 신하들은 앞서 성밖에 이르러 하직드리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고 하였다. 사후토의(祠后土儀)에 말하기를,

“제사지내기 3일 앞두고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 2일과 치재(致齋) 1일을 하고, 제삿날 축시(丑時)에 서운관(書雲觀)은 <능소를 드릴> 장소에서 땅의 네 모퉁이를 파는데, 관 흙은 광중 밖으로, 떠내게 되고, 가운데서 관 흙은 남쪽으로 떠내게 되는데, 각기 풋말을 한 개씩 세우고, 남쪽 문이 될 데는 풋말 두 개를 세우게 된다. 집사자는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가운데 풋말 왼편으로 남향되게 설치하는데, 왕골자리를 깎는다. 헌관(獻官)의 자리는 신위의 동남(東南)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헌관의 자리에서 서남쪽으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축관은 신위의

伏興退。 儀衛以次前引， 殿下帥王世子及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哭從如儀。 留都群官徑至城外， 奉辭如儀。

祠后土儀曰：

祭前三日， 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 致齋一日。 祭日丑時， 書雲觀於所得地掘兆四隅外其壤， 掘中南其壤， 各立一標， 當南門立兩標。 執事者設后土氏神位於中標之左， 南向， 席以莞， 設獻官位於神位東南， 西向， 執事者位於其後， 西向北上， 謁者、 贊者位於獻官西南， 西向北上，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 香合并燭於神位前， 設祭器， 實饌具。 籩八在左， 爲三行右上， 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簠簋各二， 在籩豆間， 簠在左， 簋在右， 爵在簠簋前。 設尊於神位東南， 北向， 又於其東南設盥洗二， 北向。 【獻官洗在東， 執事洗在西。】 行事執事官各具公服。 時至， 謁者、 贊者先就拜位， 北向四拜訖就位， 謁者引祝及執事者， 入就拜位北向。 立定， 贊者曰四拜， 祝以下皆四拜， 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 謁者引獻官入就位。 立定，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 詣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변(邊) 여덟 개는 왼편에 세 줄로 놓는데, 오른편이 위가 되게 하고, 두(豆) 여덟 개는 오른편에 세 줄로 놓는데, 왼편이 위가 되게 하고, 보궤(篚) 각 두 개는 변(邊)과 두(豆) 사이에 놓는데, 보는 왼편에 두고, 레는 오른편에 두게 된다. 작(爵)은 보궤 앞에 놓게 되고, 준(尊)은 신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거기서 동남쪽으로 관세(盥洗) 둘을 북향으로 설치한다. 【헌관의 세(洗)는 동쪽에 있게 되고, 집사의 세는 서쪽에 있게 된다.】 제사를 거행할 집사관들은 각기 공복(公服)을 입는다. 시각이 되면, 알자·찬자가 먼저 절할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하기를 마치고 제자리에 서게 된다. 알자가 축(祝) 및 집사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찬자(贊者)가 ‘사배하라.’ 말한다. 축(祝) 이하는 모두 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 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홀(笏)을 꿇고, 손을 씻고 닦아라.’고 찬(贊)하게 된다. 【관수(盥手)하고 세수(洗手)하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 찬하고, 인도하여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는 먹(羶)을 들어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아 홀을 꿇으라.’ 찬하고,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는 작을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리게 한다.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으라.’ 찬한다. 축(祝)은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어 끝마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제자리에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

盥洗位北向立, 贊搯笏, 盥手帨手。

【盥手帨手不贊】贊執笏, 引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羶酌酒, 執事者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贊三上香。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贊執笏, 俛伏興小退, 北向跪祝就神位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退復位。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出。 謁者引祝以下就拜位。 立定, 贊者曰四拜, 祝以下四拜, 謁者引出。 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 執事者撤饌。 獻官一【正三品】, 祝史一、謁者一、贊者一、齋郎一。 【竝參外】

	<p>는 축(祝) 이하를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축 이하는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는 찬(饌)을 걷어 치우게 된다. 헌관이 하나, 【정3품.】 축사(祝史)가 하나, 알자가 하나, 찬자가 하나, 재랑(齋郎)이 하나 【모두 참외(參外).】 이다.”</p>	
<p>39.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16日(庚子) 3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 입주 전의</p>	<p>예조에서 계한 바 입주 전의(立主奠儀)에 말하기를,  “현궁(玄宮) 문을 장차 닫기에 미쳐 통례문은 전하의 관위를 길유궁(吉帷宮)의 남쪽에 북향으로 배설하고, 왕세자의 자리[位]는 전하의 관위 뒤에다 남쪽에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거기서 남쪽으로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한다. 관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되, 모두 북향되게 한다. 【종실은 길서쪽으로 하게 되는데, 앞 줄에 있게 된다.】 집사자는 탁자 세 개를 영좌의 동남쪽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제주(題主) 탁자는 북쪽으로 놓고, 그 다음이 필연(筆硯) 탁자요, 그 다음이 관반(盥盤) 탁자이다.】 붓·벼루·먹·관반(盥盤)·관이(盥匱)·【향탕(香湯)을 갖춘다.】 식건(拭巾) 【백세저포(白細苧布)를 사용한다.】 을 갖추고, 관세(盥洗)는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다음에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준(尊)은 길유궁(吉帷宮)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세(洗)는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며, 여러 집사의 세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게 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하고,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탁자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대축은 손을 씻고 궤(匱)를 열어 상주(桑主)를 받들어내어 탁자 위에 놓고, 향탕(香湯)으로 신주[主]를 목욕시켜 수건으로 닦아 탁자 위에 뉘어 둔다. 제주</p>	<p>禮曹啓立主奠儀曰：  俟閉玄宮將畢，通禮門設殿下版位於吉帷宮之南，北向，設王世子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北向，宗室以下文武群官位又於其南，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道西，在前行】執事者設卓三於靈座東南西向，【題主卓在北，次筆硯卓，次盥盤卓。】具筆硯墨、盥盤盥匱【具香湯】拭巾，【用白細苧布】設盥洗於東南，北向，次奠祝版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吉帷宮東南，北向，設洗於東南，北向，諸執事洗，又於其東南，北向。時至，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立定，判通禮導殿下出幄，詣卓前北向立。大祝盥手開匱，奉出桑主，置於卓上，以香湯浴主，拭以巾，臥置卓上。題主官盥</p>



관(題主官)이 손을 씻고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서 쓰는데, 【전면(前面).】 이르기를,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이라고 먹으로 쓰기를 마치고 물러가게 된다. 대축을 영좌에다 봉안하고 백저건(白紵巾)으로 덮는다. 혼백함(魂帛函)은 그 뒤에 두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게 된다. 집사자는 물을 부어 잔(盞)을 씻고 닦아서 준소에 두면, 봉찬(奉饌)이 받들어다가 영좌 앞에 올린다. 예조 관서가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아뢰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한다.】 근시는 다주(茶酒)를 올린다. 전하는 너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하게 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典儀)가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대축은 우주(虞主)를 받들어 궤(匱)에다 넣고, 예조 관서는 꿇어앉아 아뢰기를, ‘예가 끝났다.’고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악차로 나아가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집사자는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고 하였다.

手，詣卓前西向立，題【前面】云：“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墨書訖乃退。大祝奉安靈座，覆以白紵巾，魂帛函置其後。判通禮導殿下還幄次。執事者盥(水)〔手〕，洗盞拭盞，置于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盥洗位盥帨訖，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大祝奉虞主，納于匱中。禮曹判書跪啓禮畢，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出就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執事者撤禮饌，祝版瘞於坎。

<p>40.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17일(신축) 1번째기사 공신의 적장들이 빈전에 전을 올린다</p>	<p>세 공신(功臣)의 적장(嫡長)들이 전(奠)을 빈전(殯殿)에 올렸다.</p>	<p>辛丑/三功臣嫡長設奠于殯殿。</p>
<p>41.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明 永樂) 20年) 8月 22日(丙午) 2번째기사 예조에서 발인 반차와 천전의례를 계하다</p>	<p>(전략)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版位)를 영장전의 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왕세자의 자리[位]는 전하의 판위 뒤로 남쪽에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또 거기서 남쪽으로 하는데, 문관은 동쪽이요, 무관은 서쪽이며, 중심(中心)이 머리[頭]가 되고, 판위[位]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되는데, 모두 북향이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되는데, 앞줄에 있게 된다.】 집사자는 축판(祝版)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아울러 준비하고, 준(尊)은 영장전에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세(洗)는 영장전 밖에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여러 집사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방상(方相)이 오게 되면, 광(壙)에 들어서서 창[戈]으로 현궁의 네 모퉁이를 치게 된다. 명기소(明器箚)가 8, 앵(甕)이 3, 무(甗)가 2, 동시(彤矢)가 8, 책(箚)이 1, 동궁(彤弓)이 1, 갑(甲)이 1, 주(胄)가 1, 간(干)이 1, 과(戈)가 1, 궤(几)와 장(杖)이 각각 1, 개(蓋)가 1, 종(鍾)이 12, 경(磬)이 12, 훈(熏)이 1, 소(簫)가 1, 생(笙)이 1, 지(箎)가 1, 축(祝)이 1, 어(敌)가 1, 금(琴)이 1, 슬(瑟)이 1, 우(竽)가 1, 우약(羽籥)·간순(干楯)이 각각 1, 와조(瓦竈)가 2, 와부(瓦釜)가 2, 와중(瓦甗)이 1, 와정(瓦鼎)이 12, 포작(匏勺)이 1, 와주준(瓦酒尊)이 2, 포작(匏勺)이 1, 와배(瓦盃)가 10, 변(甕)이 12, 두(豆)가 12, 보(籩)가 2, 궤(簋)가 2, 준(尊)이 2, 식鉢(食鉢)이 1, 갱鉢(羹鉢)이 1, 시접(匙楪)이 1, 찬접(饌楪)이 1, 자접(炙楪)이 1, 소채포해접(蔬菜脯醢楪)이 12, 주병(酒瓶)이 1, 식탁(食托)이 1, 시저(匙筯)가 각</p>	<p>(전략)通禮門設殿下版位於靈帳殿之南, 北向, 設王世子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北向, 宗室以下文武群官位又於其南,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宗室於道西, 在前行】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靈帳殿東南, 北向, 設洗於靈帳殿之外東南, 北向, 諸執事洗又於東南, 北向。方相至, 入壙以戈擊玄宮四隅。明器箚八、甕三、甗二、彤矢八、箚一、彤弓一、甲一、胄一、干一、戈一、几杖各一、蓋一、鍾十二、磬十二、熏一、簫一、笙一、箎一、祝一、敌一、琴一、瑟一、竽一、羽籥干楯各一、瓦竈二、瓦釜二、瓦甗一、瓦鼎十二、匏勺一、瓦酒尊二、匏勺一、瓦盃十、甕十二、豆十二、籩二、簋二、尊二、食鉢一、羹鉢一、匙楪一、饌</p>

각 1, 식탁(食卓)이 1, 관반(盥盤)이 1, 관이(盥匱)가 1, 향합(香合)이 1, 향완(香椀)이 1, 타우(唾盂)가 1, 혼병(溷瓶)이 1, 수기(漉器)가 1, 목안마(木鞍馬)가 2, 목산마(木散馬)가 2, 죽안마(竹鞍馬)가 10, 【유거(柳車)를 소각할 때에 같이 소각한다.】 죽산마(竹散馬)가 2, 【유거를 소각할 때에 같이 소각한다.】 목노비(木奴婢)가 각 50, 목향당악인(木鄉唐樂人)이 20, 증백(贈帛) 【현(玄)이 여섯이요, 혼(堧)이 넷이다.】 증옥(贈玉)이 1, 단면(段冕)·옥규(玉圭)·청의(青衣)·훈상(纁裳)·수(綬)·중단(中單)·폐슬(蔽膝)·옥패(玉珮)·대대(大帶)·적석(赤舄)·홍말(紅襪)·태의(答衣)·수건(手巾)·경(鏡)이 하나씩이요, 소함(梳函)·토등상자(土藤箱子)가 3, 가금간자(假金竿子)가 1, 가은간자(假銀竿子)가 2이다.

도착되기를 기다려 현궁(玄宮)의 동남쪽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늘어놓는다. 혼백거가 이르르면, 대축(大祝)은 혼백함을 받들어 영장전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는데, 우주궐(虞主匱)은 그 뒤에 두게 된다. 집사자는 시책보 및 애책 그 밖에 평시에 봉(封)하였던 책보(冊寶)를 안(案) 위에 둔다. 유거(柳車)가 도착하게 되면, 섭관통례는 유거 앞에 나아가 수레에서 내려 순(輶)에 오르기를 꿇어앉아 아뢰어 청한다. 아뢰기를 마치고 머리를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호조 관서는 여재궁 관(昇梓宮官) 및 소신(小臣)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순에 올린다. 섭관통례는 앞서 재궁을 인도하면, 봉삽자는 삽(矚)으로 재궁을 가린다. 만사(挽士)는 순을 받들어 영장전 앞에 이르게 된다. 여재궁 관 및 소신(小臣)은 재궁을 받들어 탑(榻) 위에 남쪽으로 머리가 가도록 모신다. 집사자는 명정(銘旌)을 가져다가 깃대는 떼어 버리고 그 위에 덮는다. 관통례는 연(輦) 앞에 나아가 연(輦)에서 내리기를 꿇어앉아 계(啓)하여 청한다. 전하는 연에서 내리게 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잠시 악차로 돌아가 자리에 나가게 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나아가게 한다.

시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盞)을 씻고 닦아서 준소(尊所)에 두면, 봉찬(奉饌)은 올려다가 영좌 앞에 놓는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

櫟一、炙櫟一、蔬菜脯醢櫟十二、酒瓶一、食托一、匙筯各一、食卓一、盥盤一、盥匱一、香合一、香椀一、唾盂一、溷瓶一、漉器一、木鞍馬二、木散馬二、竹鞍馬十、【柳車一時焚之】竹散馬二、【柳車一時焚之】木奴婢各五十、木鄉唐樂人二十、贈帛【玄六纁四】贈玉一、段冕·玉圭·青衣·纁裳·綬·中單·蔽膝·玉珮·大帶·赤舄·紅襪·答衣·手巾·鏡一、梳函·土藤箱子三、假金竿子一、假銀竿子二等至，陳於玄宮東南，北上。魂帛車至，大祝奉魂帛函，就靈帳殿，安於靈座，虞主匱置其後。執事者奉諡冊寶及哀冊及平時所封冊寶，置於案上。柳車至，攝判通禮進當柳車前跪，啓請降車陞輶，啓訖俛伏興。戶曹判書率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升輶。攝判通禮前導梓宮，奉矚者以矚障梓宮，挽士奉輶至靈帳殿前，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安於榻上，南首。執事者取銘旌，去杠置其上。判通禮進輦前跪，啓請降輦，殿下降輦。判通禮導殿下，權歸幄次卽座，知通禮引王世子就次。時至，執

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예조 판서는 악차 앞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기를 꿇어앉아 아뢰어 청한다. 아뢰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판통례가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끝마치고,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섰다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게 된다. 【진향(進香)·진로(進爐)·전향(奠香)·전로(奠爐)는 모두 근시가 하게 된다.】 근시가 다주(茶酒)를 올리면, 전하는 뇌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하게 된다. 【전주(奠酒)도 또한 근시가 하게 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어 마치면,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전의가 말하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오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된다. 전기(前期)해서 통례문은 전하의 봉사위(奉辭位)를 연도(羨道) 【연(羨)의 음은 연(衍)이며, 묘도(墓道)이다.】 의 남쪽으로 서향하게 하고, 왕세자의 자리[位]는 거기서 남쪽으로 서향되게 하고,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또 거기서 남쪽으로 동쪽에 가까이 하는데, 관위[位]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고, 모두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영의정의 진책위(進冊位)는 연도(羨道)에서 동남쪽으로 서향되게 하고, 봉애책관위(奉哀冊官位)는 또 거기서 남쪽으로

事者盥手，洗盞拭盞，置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立定，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禮曹判書進當幄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幄，詣版位北向立。判通禮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盥帨訖，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跪三上香。【進香、進爐、奠香、奠爐皆近侍爲之。】近侍進茶酒，殿下酌茶三奠酒。【奠酒亦近侍爲之。】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殿下俛伏興，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盡哀。判通禮導殿下還幄次，知通禮引王世子還次，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前期，通禮門設殿下奉辭位於羨【音衍墓道也】道之南，西向。設王世子位於其南，西向。宗室以下文武群官位又於其南近東，異位重行，俱西向北上。又設領議政進冊位於羨道東南，西向，奉哀冊官位又於

조금 물러나 서향되게 한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아뢰게 되면, 【유사(有司)가 재궁(梓宮) 모시는 옥위(褥位)를 현궁(玄宮) 문밖에 서향되게 설치한다.】 섭관통례는 영장전 앞을 나아가 순(輜)에 올라 현궁(玄宮)에 나가기를 꿇어앉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난다. 대축은 요여(腰輿)를 가지고 혼백을 받들어 길유궁에 나아가 영좌에 모시는데, 우주궤(虞主匱)는 그 뒤에 둔다. 공조 판서는 건(巾)으로 재궁(梓宮)을 씻고 아울러 관의(棺衣)까지 먼지를 털다. 호조 판서는 여재궁 관(昇梓宮官) 및 소신(小臣)을 거느리고 재궁을 받들어 순(輜)에 올린다. 섭관통례는 재궁을 앞에서 인도하고, 봉삽자(奉窆者)는 삽(窆)으로 재궁을 가리게 된다. 만사(挽士)가 순을 받들어 현궁(玄宮)에 나가려 할 때에,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서 나와 곡하면서 따르게 되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모두 곡하면서 따르게 된다. 봉례랑(奉禮郎)은 영의정과 봉애책관(奉哀冊官)을 인도하여 연도(羨道)의 동남쪽 위차(位次)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된다. 재궁을 받들어 연도로 들어와 현궁 안의 탐욕(榻褥) 위에 모시는데, 북쪽으로 머리가 가게 한다. 【장차 현궁(玄宮)에 들어가려 할 때에 문밖의 옥(褥) 위에 모시는데, 호조 판서가 그의 위아래를 보살피게 된다.】 공조 판서는 다시 한번 관의(棺衣)와 명정(銘旌)을 정돈하여 구김이 없도록 한다. 영의정은 애책(哀冊)을 가지고 들어와 재궁의 서편에 현궁(玄宮)의 밖으로 꿇어앉아 올려놓게 되고, 근시는 증백(贈帛)으로 현육(玄六)·훈사(纁四) 및 증옥(贈玉)을 받들어 올린다. 전하는 집백(執帛)과 증옥(贈玉)을 하게 되는데, 근시에게 주어 재궁(梓宮)의 곁에 두게 되고, 보삽(黼窆)·불삽(黻窆)·화삽(畫窆)도 또한 재궁 곁에 세우게 된다.

여러 관원이 각기 봉사위(奉辭位)에 나아가게 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봉사위에 나아가게 하고,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재배

其南小退，西向。書雲觀報時，【有司設安梓宮褥位於玄宮門外南向】攝判通禮當靈帳殿前跪，啓請升輜卽玄宮，啓訖俛伏輿小退。大祝以腰輿奉魂帛，就吉帷宮，安於靈座，虞主置其後。工曹判書以巾進拭梓宮，并拂棺衣。戶曹判書率昇梓宮官及小臣，奉梓宮升輜。攝判通禮前導梓宮，奉窆者以窆障梓宮，挽士奉輜將卽玄宮。判通禮導殿下，出幄哭從，知通禮引王世子，通禮門引宗室以下文武群官，皆哭從。奉禮郎引領議政及奉哀冊官，就羨道東南位，西向立，奉梓宮入自羨道，安於玄宮內榻褥上，北首。【將入玄宮之時，安於門外褥上。戶曹判書察其上下。】工曹判書再整棺衣、銘旌，令平正。領議政以哀冊入，跪奠於梓宮之西於玄宮外。近侍以贈帛玄六、纁四及贈玉奉進，殿下執帛贈玉，授近侍，置于梓宮之旁，黼窆、黻窆、畫窆亦樹於梓宮之旁。群官各就奉辭位，判通禮導殿下詣奉辭位，啓請再拜哭，殿下再拜哭，又再拜哭盡哀。典儀曰再拜哭，王世子以下在位者皆再拜哭，又再拜哭盡哀。奉辭訖，判通禮導殿下還

	<p>하고 곡하며, 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한다. 전의가 말하기를,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며, 또 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봉사(奉辭)하기를 마치고,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오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반(班)으로 옮기게 되면, 반수(班首)는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하기를 마친다.</p> <p>판통례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하고, 유사(攸司)는 후토(后土)에 제사지내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집사자는 명기(明器)도 넣고 지석(誌石)도 묻는다, 선공감(繕工監)은 현궁(玄宮)을 자물쇠로 닫게 되고, 영의정과 사헌(司憲) 한 사람은 함께 서서 현궁을 닫는 것을 감독하게 되고, 공조 판서는 흙 아홉 삽(鍤)을 떠서 덮고, 유사(攸司)는 작공(作工)을 거느리고 계속하여 일을 끝마친다. 유거 및 순 등속은 백성(栢城) 안 경지(庚地)에 불사르게 되는데, 인신(人臣)에 통용될 만한 것을 불사르지 않는다.” 하였다.</p>	<p>幄次，知通禮引王世子還次。通禮門引群官移班，班首進名奉慰訖，判通禮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攸司祠后土如儀，執事者藏明器、下誌石，繕工監鑰閉玄宮，領議政、司憲一人竝監鑰閉玄宮，工曹判書覆土九鍤，攸司率作工，續以終事。柳車及輶之屬於栢城內庚地焚之，其通人臣用者則不焚。</p>
<p>42.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23일(정미) 3번째기사 산릉군 중 사망자에게 쌀·콩으로 부조하다</p>	<p>산릉군(山陵軍)으로서 사망한 자에게 명하여 쌀과 콩을 부조하도록 하였다.</p>	<p>山陵軍死者，命賻以米豆。</p>
<p>43.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23日(丁未) 4번째기사 충의위에서 빈전에 전</p>	<p>충의위(忠義衛)에서 전(奠)을 빈전(殯殿)에 올렸다.</p>	<p>忠義衛設奠于殯殿。</p>

<p>을 올리다</p> <p>44.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25 일(기유) 2번째기사 강원도 경차관 황보인이 영서·영동의 상황 등에 대해서 계하다</p>	<p>강원도 경차관 황보인(皇甫仁)이 계하기를,  “금년에 올곡식이나 늦곡식이 모두 부실하게 되었으니, 영서(嶺西)의 각 관청에 금년의 공물(貢物)을 모두 감면시킬 것이며, 도내가 조잔(凋殘)한데다가 역리(驛吏)들이 전혀 구제하여 주기만 바라며 생계를 유지하니, 말먹이나 죽 쭉어 줄 것을 내놓으라는 공문은 모두 금지하여야 합니다. 굶주린 백성들이 비록 풀을 먹더라도 반드시 염장(鹽醬)을 먹어야만 부종(浮腫)에 걸리지 않는 것인데, 소금이란 영서(嶺西)에서는 없는 것이니, 청컨대 영동(嶺東)의 관염(官鹽)을 갖다가 영서(嶺西)에 적당하게 배급할 것이며, 피육 잔질(疲癯殘疾)이나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풍년들 때에도 남에게 얻어먹고 사는데, 금년에는 호구(糊口)할 데가 없어서 살아갈 수 없으니, 8월 그믐날까지 구제하여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江原敬差官皇甫仁啓：“今年早穀晚穀並皆不稔，嶺西各官今年貢物，請並蠲免。道內彫殘驛吏，全仰賑濟以生，其草料粥飯文字，請皆禁斷。飢饉人民，雖草食，必待鹽醬以食，不至浮腫。鹽乃嶺西所無，請將嶺東官鹽，量移嶺西。疲癯殘疾、鰥寡孤獨在豐年寄食他家，今年無可糊口，不能自存。請八月晦日至賑恤。”從之。</p>
<p>45.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26日(庚戌) 2번째기사 문무과 중시를 보이고 빈전에 전을 올리다</p>	<p>문무과(文武科)의 중시(重試)를 보였다. 전(奠)을 빈전(賓殿)에 올렸다.</p>	<p>文武科重試，設奠于賓殿。</p>
<p>46.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27일(신해) 4번째기사 돈녕부에서 빈전에 전을 올리다</p>	<p>돈녕부(敦寧府)에서 전(奠)을 빈전(賓殿)에 올렸다</p>	<p>敦寧府設奠于賓殿。</p>

<p>47.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28日(壬子) 2번째기사 예조에서 상시책보의를 계하다</p>	<p>(전략) 집사는 예찬(禮饌)을 진설하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늘어놓고, 존(尊)은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하고, 권치 책보 옥위(權置冊寶褥位) 및 안(案)은 빈전 아래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다음에 봉책관·봉보관은 최북으로 모두 빈전 아래 권치옥위(權置褥位)에 이르러 책보를 안 위에 두게 된다. 【책(冊)은 북쪽에 놓고, 보(寶)는 남쪽에 놓는다.】 진책보관 이하는 잠시 막차로 물러가게 된다.</p> <p>유사(有司)의 만반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빈전 안의 동편 밖에 나가는데, 지형의 편의에 따라 반(班)대로 서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서게 되는데, 앞줄이 된다.】 다음에 봉례랑은 독책관(讀冊官)·독보관(讀寶官)을 인도하여 책보안(冊寶案)의 남쪽으로 북향되게 서게 하고, 다음에 봉책관·봉보관을 인도하여 독책관·독보관의 뒤로 서게 하고, 다음에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빈전 아래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통찬이 ‘재배하라.’ 말하면, 진책보관 이하는 모두 재배한다. 다음에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殿)에 올라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게 된다. 집사자가 다주(茶酒)를 진책보관에게 주면, 진책보관은 너다(酌茶)와 삼전주(三奠酒)를 행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고 나서,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조금 있다 다시 진책보관을 인도하여 전계(殿階) 아래 위치에 나아가 북향으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 아뢰어 말하기를, ‘아무 벼슬로 있는 아무 말씀하옵건대, 교(敎)를 받들어 삼가 시책보(諡冊寶)를 올리나이다.’ 한다.(후략)</p>	<p>(전략) 執事設禮饌,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設尊於戶外之左, 設權置冊寶褥位及案於殯殿下東向, 次奉冊官、奉寶官以衰服, 奉諡冊、諡寶入。進冊寶官以下行事執事官以衰服, 竝從至殯殿下, 權置褥位, 置冊寶於案上。</p> <p>【冊北寶南】進冊寶官以下權退幕次, 俟有司排辦畢備。通禮門引宗室以下文武群官, 詣殯殿東裏外, 隨地之宜。立班定, 【宗室於道西, 在前行】次奉禮郎引讀冊官、讀寶官, 詣冊寶案之南, 北向立, 次引奉冊官、奉寶官立於讀冊官、讀寶官之後, 次引進冊寶官, 詣殯殿下西向。立定, 通贊贊再拜, 進冊寶官以下皆再拜。次引進冊寶官, 升殿詣香案前跪, 三上香。執事者以茶酒, 授進冊寶官, 進冊寶官酌茶三奠酒, 俛伏興再拜, 引降復位。小立, 再引進冊寶官, 詣殿階下位, 北向俛伏跪, 啓稱: “某官臣某言。奉教謹奉上諡冊寶。”(후략)</p>
<p>48.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8月 30</p>	<p>(전략) 전사관(典祀官)이 그의 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는다.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 둘을 존소(尊所)에 두게 되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열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를</p>	<p>(전략) 典祀官帥其屬, 入奠祝版於靈座之左,; 【有坫】陳幣篚二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p>



日(甲寅) 3번째기사  
예조에서 우제의를 계  
하다

배설하고,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작(勺)과 먹(鬯)을 올려놓되, 북향이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세(洗)는 동계에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되는데, 반(盤)과 이(匱)가 따르게 된다.】 뇌(罍)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올려놓고, 광주리[篚]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일 작세(爵洗)의 광주리면 찬(瓚)과 작(爵)을 담는다.】 아헌(亞獻)·종헌(終獻)의 세(洗)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으며, 만일 왕세자가 아헌할 경우에는 세를 종헌의 세 서쪽으로 하는데, 반(盤)과 이(匱)가 있다.】 뇌는 세의 동편에 있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편에 늘어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면 작(爵)을 담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아헌의 세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여러 향관(享官)과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들은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게 된다.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이며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찬인은 전사관·대축·제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게 된다.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면,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贊者)는 전하여 외치게 된다.】 전사관 이하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배제(陪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알자는 아헌관과 【만일 왕세자가 아헌할 경우에는 지통례가 인도하게 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實饌具，設尊所於戶外之左，皆加勺鬯，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瓚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傳唱。】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齋殿卽座，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白(貯) [紵] 巾。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虞主在西】執事者詣

나아가게 된다. 대축은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올려놓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어 놓는다. 궁위령(宮闈令)은 궤를 열고 왕후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올려놓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우주(虞主)는 서쪽에 있게 된다.】 집사자는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찬(瓚)을 닦으며, 작(爵)을 씻고 작을 닦아서 광주리에 올려놓아 받들고 준소(尊所)에 나아가 점(坫) 위에 둔다. 예조 판서는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제일우례(第一虞禮)를 거행하기를 무릎을 꿇고 아뢰어 청한다. 【제이우(第二虞)로 제칠우(第七虞)까지 그때에 고쳐 쓴다.】 아뢰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관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내시(內侍)가 이(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게 되고, 또 내시 한 사람은 꿇어앉아 반(盤)으로 물을 받게 된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내어 드린다. 전하는 손 닦기를 마치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두게 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근시가 모셔 따르게 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罍]를 들어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는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면, 관통례는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놓고, 근시는 찬(瓚)을 가지고 꿇어앉아 올린다. 관통례는 찬(瓚)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뢰

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第一虞禮，【第二虞至第七虞隨改】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與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脫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一人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

어 청하고 나서, 찬(瓚)을 근시에게 주게 된다. 근시는 받아서 대축에게 주고, 근시 한 사람은 폐비(幣篋)를 가지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헌폐(獻幣)하기를 청하고, 폐(幣)를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서쪽에서 동향으로 하게 되고,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또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게 되면, 판통례는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를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에서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에 서게 하고, 조금 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한다.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는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근시 한 사람은 부작(副爵)을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나아가 서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에서 나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기를 마치고,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

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奉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出戶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

면, ‘꿨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작(副爵)을 가지고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하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관서는 예(禮)가 끝났다고 무릎을 꿇고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오고, 알자는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통례문은 종신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되고, 찬인(贊引)은 전사관(典祀官)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다시 배위(拜位)로 나아가 서면,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한다. 전사관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찬인은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대축·궁위령(宮闈令)은 신주(神主) 들여놓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게 된다. 전사관은 그의 소속들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대축은 집사자를 거느리고 혼백을 받들어 쓰이지 않은 깨끗한 땅에 묻게 되고, 【제이우(第二虞) 뒤에는 이 절차가 없다.】 축(祝)과 폐(幣)는 구덩이에 묻고, 여러 관원들은 반(班)을 조금 동쪽으로 옮겨 반수에게 이름을 올려 봉위하게 된다.”

하였다.

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撤禮饌，大祝帥執事者，奉魂帛埋於屏處潔地，【第二虞以後，無此節。】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

<p>49.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8월 30 일(갑인) 4번째기사 예조에서 안릉 전의를 계하다</p>	<p>(전략) 집사자는 축판을 영좌의 왼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진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하며, 세(洗)는 동계에서 동남 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된다.】 여러 집사의 세는 또 &lt;거기서&gt;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시 각이 되면, 집사자는 손을 씻고, 잔(盞)을 씻고 잔을 닦아 동계에서 올라와 준소(尊所)에 두면, 봉찬(奉饌)은 올려서 영좌 앞에 둔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서게 한다. 봉례랑은 산릉 사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면, 통찬이 ‘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게 된다. 봉례랑은 산릉사를 인도하여 관세위 (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산릉사를 인도하여 동계에서 영 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한다. ‘끓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라.’고 말하 고, 집사자는 다주(茶酒)를 산릉사에게 준다. 산릉사는 뇌다(酌茶)와 삼전주 (三奠酒)를 하게 된다. 다음에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끓어앉아 삼상향하라.’ 말하고, 집사자는 다주를 산릉사에게 준다. 산릉사는 뇌다와 삼전주를 하게 된다. 봉례랑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한가운데로 북향되게 끓어앉으라.’ 말하고, 대축은 영좌의 왼편에 서 향으로 끓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치면, 봉례랑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서 재배하고 곡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한다. 통찬이 ‘재 배하고 곡하라.’ 하면, 산릉사 이하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재배하고 곡하게 된다. 봉례랑은 산릉사를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 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게 되고, 집사자는 예찬을 걷어치우며, 축판 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전략) 執事者奠祝版於靈座之左，設 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設尊於戶外 之左，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 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東南 北向。時至，執事者盥手，洗盞拭盞， 升自東階，置於尊所，奉饌升奠于靈座 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 就位，奉禮郎引山陵使就位。立定， 通贊贊再拜哭，在位者皆再拜哭。奉 禮郎引山陵使，詣盥洗位盥帨訖，引山 陵使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贊跪 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山陵使，山 陵使酌茶三奠酒。次詣王后神座前北 向立，贊跪三上香。執事者以茶酒授 山陵使，山陵使酌茶三奠酒。奉禮郎 贊俛伏興小退，當中北向跪，大祝進靈 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奉禮郎贊 俛伏興再拜哭，引降復位。通贊贊再 拜哭，山陵使以下在位者皆再拜哭。 奉禮郎引山陵使出，通禮門分引宗室以 下文武群官以次出，執事者撤禮饌，祝 版瘞於坎。</p>
<p>50. 世宗 17卷, 4年</p>	<p>예조에서 사후토의(謝后土儀)를 계하여 말하기를,</p>	<p>禮曹啓謝后土儀曰：</p>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9月 3日  
(丁巳) 4번째기사  
예조에서 사후토의를  
계하다

“흙 덮기가 끝나기를 기다려, 집사자는 현궁(玄宮)의 왼편에서 땅을 소제하고 후토씨(后土氏)의 신위(神位)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왕골자리[莞席]를 깔게 된다. 헌관의 자리는 신위(神位)의 동남쪽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집사자는 그 뒤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자리하고, 알자·찬자는 헌관의 서남쪽으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자리한다. 축판(祝版)은 신위(神位)의 오른편으로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배설하고, 【찬품(饌品)은 개영역(開瑩域)할 때의 제수와 동일하였다.】 준(尊)은 신위의 동남쪽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세(洗)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된다.】 여러 집사의 세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하게 한다.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이 각기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다가, 시각이 되면, 알자·찬자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사배하고 나서 자리에 나아가 서게 된다. 알자는 축(祝) 및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찬자(贊者)가 ‘사배하라.’ 한다. 축 이하는 사배하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홀(笏)을 꽂고 손을 씻고 손을 닦으라.’고 말한다. 【손을 씻고 손을 닦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 하고, 인도하여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는 작(爵)으로 술을 받게 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고 삼상향(三上香)하라.’고 한다. 집사자는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게 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올린다. (후략)

埃覆土既畢，執事者於玄宮之左，除地設后土氏神位南向，席以莞，設獻官位於神位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西向北上，謁者、贊者位於獻官西南，西向北上，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饌品與開瑩域祭同】設尊於神位東南，北上，設洗於其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諸執事洗又於其東南，北向。行事執事官各具公服。時至，謁者、贊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就位。謁者引祝及執事者，入就拜位北向。立定，贊者曰四拜，祝以下四拜，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立定，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三上香。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후략)

51.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9월 14  
일(무진) 3번째기사  
배헌릉의 의식 절차

(전략)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陵司)는 능실을 소제하고, 전사관(典祀官)과 능사(陵司)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올려 놓는다.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며,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한다. 그날 밝기 전 일각(一刻)쯤 되어, 거가(車駕)는 궁중에서 나와 대차에 이르게 된다.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간을 알리게 되면,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봉례랑(奉禮郎)은 아헌관과 【만일 왕세자가 아헌(亞獻)하게 되면, 지통례(知通禮)가 인도하게 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판통례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版位)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게 된다. 통찬(通贊)이 ‘사배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르고, 근시는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 놓게 되고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으로 하는데, 진잔(進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근시 한 사람은 부잔(副盞)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잔(執盞) 헌잔(獻盞)하기를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

(전략) 其日未行事前, 陵司掃除陵室。典祀官、陵司率其屬, 入奠祝版於靈座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其日未明一刻, 車駕出宮, 至大次。書雲觀報時,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奉禮郎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判通禮啓外辦, 導殿下至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 殿下四拜。通贊曰四拜, 在位者皆四拜。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判通禮導殿下, 入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 奠爐在東西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 判通禮啓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盞跪進, 判通禮啓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 大祝進靈座之右, 東向跪, 讀祝文訖, 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 導殿下出戶, 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亞獻

	<p>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봉례랑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와 서향으로 서면, 집사자(執尊者)는 술을 따른다.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봉례랑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봉례랑은 ‘끓어앉으라.’ 말을 한다. 집사자는 잔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면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副盞)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좌(王后神座) 앞에 올린다. 봉례랑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판통례는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게 된다. 통찬이 ‘사배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로 돌아오고, 봉례랑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게 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전사관(典祀官)·능사(陵司)는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며,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고, 거가(車駕)는 궁중으로 돌아온다.” 하였다.</p>	<p>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奉禮郎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奉禮郎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奉禮郎贊俛伏與小退再拜，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通贊曰四拜，在位者皆四拜。判通禮導殿下還大次，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典祀官、陵司帥其屬，撤禮饌，祝版瘞於坎，車駕還宮。</p>
<p>52.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9月 14日(戊辰) 5번째기사 섭행의 의식 절차</p>	<p>섭행의(攝行儀)에 말하기를, “기일에 앞서 유사(有司)는 헌관(獻官)의 위치를 동계의 동남쪽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치는 그 뒤로 조금 남쪽에 가까이하는데, 여러 줄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검찰의 위치는 전정(殿庭)의 남쪽으로 동쪽에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알자·찬자의 위치는 동계의 서남쪽으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전사관(典祀官)·</p>	<p>其攝行儀曰： 前期，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北上。典祀官、殿司各率其</p>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 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헌관 이하는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알자·찬자는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기를 끝마치고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이며, 서쪽이 위가 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하기를 끝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대축은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연제(練祭) 뒤에는 대왕 신주(大王神主)라 한다.】 좌(座)에 모시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宮闈令)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王后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을 사배하게 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말하면, 집사자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전로(奠爐)는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수잔(授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면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고, 또 집사자는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면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알자(謁者)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찬하면,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時至，獻官以下，皆就殿門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練祭後，稱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奠爐在獻官之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自

	<p>일어나서 재배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에 돌아오게 된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존자(執尊者)는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꿨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을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면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면서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올리고,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말한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거행하는데, 아헌하던 의식과 같게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서게 하고,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하게 된다. 알자는 인도하여 나가게 하고,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알자는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신주(神主) 들여 넣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알자·찬자는 배위(拜位)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게 된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축판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撤禮饌，祝版瘞於坎。</p>
<p>53.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9월 15일(기사) 4번째기사 예조에서 졸곡의를 계하다</p>	<p>예조에서 졸곡의(卒哭儀)를 계하였는데, 이르기를, “기일에 앞서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를 동계의 동남방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아헌관·종헌관의 위차는 전하 판위(殿下版位) 뒤로 남쪽에 가까이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차는 그 뒤로 하는데, 판위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고, 모두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집례(執禮)의 위차는 동계에서 서남쪽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은 남쪽에서</p>	<p>禮曹啓卒哭儀曰：前期，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執事者位於其後，異位重行，俱西向北上，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p>

조금 물러나게 되는데, 모두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만일 내정(內庭)이 협착할 경우에는 외정(外庭)의 서남쪽으로 서향되게 한다.】,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위차는 외정(外庭)으로 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官位)가 다르면 여러 줄로 서게 하며,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종실은 길 서쪽으로 앞 줄에 있게 된다.】. 감찰의 자리 둘은 동서반(東西班) 뒤로 북향되게 하는데,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籠)는 둘을 준소(尊所)에 진열하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며,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하는데 【현주(玄酒)는 서쪽에 두게 된다.】, 모두 작(酌)과 먹(羶)을 갖추게 되고, 북향이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되는데, 소반[盤]과 대야[匱]가 따르게 된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되는데 국자[勺]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게 되는데, 수건[巾]을 담아 놓는다 【만일 작세(爵洗)의 광주리이면 작(爵)을 담게 된다.】. 아헌·종헌의 세(洗)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된다. 만일 왕세자가 아헌할 때에는 따로 세(洗)를 종헌관 세(終獻官洗)의 서쪽으로 설치하는데, 소반과 대야가 따르게 된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수건을 담아 둔다 【만일 작세(爵洗)의 광주리이면 작(爵)을 담게 된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아헌·종헌 세(洗)의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饌具)가 끝나게 되면, 여러 향관 및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가고, 집례(執禮)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在南小退，俱西向北上，【若內庭窄狹，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宗室於道西，在前行】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北向，書吏陪其後。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籠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酌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籠在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傳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며, 서쪽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말한다【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는 전하여 외친다.】. 전사관 이하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찬인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하고, 통례문은 배제(陪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알자는 아헌관【만일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지통례가 인도하게 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대축은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좌(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우주는 서편에 있게 된다.】. 집사자는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닦으며,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에 담아 준소(尊所)에 나아가 점(坫) 위에 올려놓는다. 예조 판서는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행례(行禮)하기를 꿇어앉아 아뢰어 청한다. 아뢰기를 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서 나와 판위로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판통례는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운다. 집례(執禮)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운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내시(內侍)는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게 되고, 내시 한 사람은 소반[盤]을 가지고 꿇어앉아 물을 받게 된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수건[巾]을 광주리에서 가져다가 꿇어앉아 올리고,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올려놓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근시·내시도 따라 오르게 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喝。】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判通禮導殿下，詣齋殿即座，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設於座，覆以白紵布，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布。【虞主在西】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筐，奉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衆官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筐以進，殿下帨手訖，內侍受巾奠於筐。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

로 서면, 집준자는 보자기[幕]를 들어 울창(鬱鬯)을 따르고, 근시는 찬(瓚)으로 술을 받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놓게 되고, 근시가 찬(瓚)을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뢰어 청하기를 마치고, 찬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는 대축에게 주고, 근시 한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고, 진로(奠爐)·수찬(受瓚)·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또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꿇어앉아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고 들어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는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爵)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근시는 부작(副爵)을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끝마친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

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以授大祝。近侍一人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筐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捧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出戶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挽手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

	<p>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온다.</p> <p>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서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친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들어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얹으라.’고 말한다.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려놓는다. 또 집사자는 부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준다. 아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후략)</p>	<p>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후략)</p>
<p>54.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9月 19日(癸酉) 3번째기사 술을 사용하다</p>	<p>비로소 술을 사용하였다.</p>	<p>始用酒。</p>
<p>55.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9월 21일(을해) 4번째기사 성산 부원군 이직 등이 소선을 금하고 육선을 권하다</p>	<p>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稷)과 좌의정 이원(李原)·병조 판서 조말생·공조 판서 최윤덕·총제(摠制) 박영(朴齡)·예조 참판 이맹균(李孟均)·이조 참판 원숙(元肅) 등이 청하기를, “졸곡(卒哭) 뒤에도 오히려 소선(素膳)을 하시어, 성체(聖體)가 파괴하고 검게 되어, 여러 신하들이 바라보고 놀랍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며, 또 전하께서 평일에 육식이 아니면 수라를 드시지 못하시는 터인데, 이제 소선(素膳)한 지도 이미 오래되어, 병환이 나실까 염려되나이다. 옛날 원경 왕후(元敬王后) 초상에 태종께서 육선을 권하시면서 이르기를, ‘주상의 한 몸이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것이니,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셨나이다. 신 등의 오늘날 청하는 것도 또한 종사와 생민(生民)을 위하는 것입니다.”</p>	<p>星山府院君李稷、左議政李原、兵曹判書趙末生、工曹判書崔閔德、都摠制朴齡、禮曹參判李孟均、吏曹參判元肅等請曰：“卒哭之後，猶御素膳，聖體瘦黑，群臣望見，莫不驚駭。且殿下平昔非肉未能進膳，今素膳已久，恐生疾病。昔元敬王太后之喪，太宗勸肉膳曰：‘主上一身，係宗社安危，不得自專。’臣等今日之請，亦爲宗社生民也。”上曰：“居喪食肉，於禮何？卿等以我爲不習蔬食，恐生疾病耳。</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상중에 고기 먹는 것이 예로 보아 어떨까. 경들은 내가 소식(蔬食)에 익숙하지 못하여, 병이 날까 염려한 것이나, 내가 이제 병도 없으니 어찌 예에 범할 수가 있겠는가. 승려는 항상 소식만 하여도 오히려 살찐 자가 있는데, 나만 소식을 못한단 말인가.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p> <p>하고,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태조의 초상에 역월(易月)한 뒤에 백관들에게 고기 먹으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제 백관들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고자 하니, 어떠한가.”</p> <p>하니, 조말생이 아뢰기를,  “주상의 한 몸은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에 관계되면서도 오히려 소선(素膳)하시는데, 하물며 여러 신하의 무병한 자이겠사오리까. 늙고 또한 병든 자라면 먹는 것도 가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予今無病，豈可犯禮？僧常蔬食，尙有豐肥者，予獨不能蔬食乎？卿等其勿復言。”俄而曰：“太祖之喪，易月後有百官食肉之命。今欲令百官食肉如何？”趙末生曰：“上之一身，係宗社生靈，尙且素膳，況群臣之無病者乎？老且病者，食之可也。”從之。</p>
<p>56. 世宗 17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9月 29日(癸未) 2번째기사  줄곡 뒤의 광효전 삭망 및 명일 별제에 친향하는 의식 절차</p>	<p>(전략) 전사관(典祀官)·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을 영좌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며, 준(尊)은 지계문 밖에 왼편으로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여러 향관(享官) 및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輿)를 타고 남시어 임시로 채전(齋殿)에 나아가게 되며,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봉례랑(奉禮郎)은 아헌관과 【만일 왕세자가 아헌할 때에는 지통례(知通禮)가 인도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대축은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연제(練祭) 뒤에는 대왕 신주(大王神主)라고 말한다.】 좌(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으</p>	<p>(전략)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設祝版於靈座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時至，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奉禮郎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捧出虞主，【練祭後稱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捧出王后神主，設於座，</p>

며, 궁위령(宮闈令)은 케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어놓는다. 판통례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에 이르러 서향으로 서면,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사배하게 된다. 통찬이 ‘사배하라.’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는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으로,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으로 한다. 진잔(進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근시는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잔(執盞) 헌잔(獻盞)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린다. 또 근시는 부잔(副盞)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잔 헌잔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 신좌 앞에 드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면,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봉례랑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는 술을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봉례랑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후략)

覆以青紵巾。判通禮啓外辦，導殿下，至版位西向立，啓請四拜，殿下四拜。通贊曰四拜，在位者皆四拜。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盞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近侍奉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盞跪進，判通禮啓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奉禮郎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후략)



<p>57. 세종 17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9월 29일(계미) 3번째기사        섭사의 의식 절차</p>	<p>그 섭사의(攝事儀)에 말하기를,        “기일에 앞서 유사(有司)는 헌관의 위치를 동계의 동남쪽으로 서향되게 설치하고, 집사자의 위치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여러 줄로 서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감찰의 위치는 전정(殿庭)에서 남쪽으로 동쪽에 가까이 서향으로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알자·찬자의 위치는 동계의 서남쪽으로 서향이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한다. 전사관·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축판(祝版)을 영좌의 오른편에 놓고,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헌관 이하는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알자·찬자는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기를 끝마친다.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하게 된다. 절하기를 끝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 대축은 궤(匱)를 열고 우주(虞主)를 받들어 내어 【연제(練祭) 뒤에는 대왕 신주(大王神主)라 한다.】 좌(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은 궤(匱)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찬자는 ‘사배하라.’ 말한다. 헌관은 사배하게 되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끓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말하면, 집사자는 노(爐)를 안(案)에 올려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p>	<p>其攝事儀曰：        前期，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西向北上。典祀官、殿司官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時至，獻官以下皆就殿門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大祝開匱，捧出虞主【練祭後稱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捧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於案。【奉香在獻官之</p>
---	---	---

의 오른쪽에서, 전로(奠爐)는 헌관(獻官)의 왼쪽에서 한다. 수잔(授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는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라.’ 말하면, 대축은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알자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술을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으라.’ 말한다. 집사자는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잔(執盞) 헌잔(獻盞)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말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거행하기를 아헌의(亞獻儀)와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알자는 감찰 및 전사관·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에 엎드리게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말하면, 감찰 이하는 모두 사배한다. 알자는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신주 들어 넣기를 의식과 같게 하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게 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며,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右，奠爐在獻官之左。受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與小退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與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贊俛伏與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主如儀，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撤禮饌，祝版瘞於坎。

<p>58.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0月 2日(丙戌) 10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시와 납일에 친히 제사지내는 의식을 정하여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 【점(坵)이 있다.】 에 올린다. 폐백 광주리 둘을 준소(尊所)에 벌여놓고, 향로·향합과 초는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배설하고, 준소(尊所)를 지계문 밖의 왼편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있게 하고, 국자[勺]를 놓고 보자기[罍]로 덮어 북향으로 서쪽이 위가 되게 배설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배설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쟁반과 대야가 있다.】, 술항아리[甕]는 세(洗)의 동쪽에 두되, 모두 국자[勺]를 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어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술잔 씻는 광주리이면, 찬(瓚)과 작(爵)을 담아 놓는다.】. 아헌관·종헌관의 세는 또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만약 왕세자가 아헌관이 되면, 종헌관의 세(洗) 서쪽에 따로 설치하고, 소반과 대야를 놓는다.】, 술항아리[甕]는 세(洗)의 동쪽에 두는데, 국자[勺]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두되, 수건을 담아 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이면, 작(爵)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세는 아헌관·종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물(祭物)을 제기에 담는다. 이를 마치면, 여러 제관과 제사에 참사한 여러 관원들이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견여(肩輿)를 타고 나와서 임시로 재전(齋殿)으로 나아간다. 집례(執禮)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贊引)이 전사관과 대축(大祝)과 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외친다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贊者)</p>	<p>(전략)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靈座之右，【有坵】陳幣篚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瓚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有槃匱。】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唱。】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p>
---	--	--

가 이를 받아 전하여 창한다.】. 전사관 이하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 씻기를 마치고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기 자리로 각각 나아간다. 알자가 아헌관과【만약 왕세자가 아헌관이 되면, 지통례(知通禮)가 인도한다.】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大祝)이 주독(主櫝)을 열고 우주(虞主)【연제(練祭) 뒤에는 대왕의 신주라고 일컫는다.】를 모셔 내어 자리에 모시고 흰 모시보로 덮는다. 궁위령(宮闈令)이 또 주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모셔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덮는다【우주(虞主)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瓚)을 씻어 닦고 작(爵)을 씻고 닦아 광주리에 받쳐 받들고 준소(尊所)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행례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가서 판위(版位)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않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를 받아 들고 일어나서 물을 따르고, 또 내시가 꿇어앉아 쟁반을 받들어 물을 받는다. 전하는 손을 씻고, 내시가 꿇어앉아 광주리에서 수건을 가져다 전하께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근시와 내시가 따라 올라간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가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료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향료

位, 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 捧出虞主【練祭後稱大王神主。】設於座, 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 捧出王后神主, 設於座, 覆以青紵巾。【虞主在西】執事者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筐, 奉詣尊所, 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 啓請行禮, 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 出詣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 殿下四拜。執禮曰四拜, 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 詣盥洗位北向立, 內侍跪, 取匱興沃水, 又內侍跪, 取盤承水, 殿下盥手。內侍跪, 取巾於筐以進, 殿下脫手訖, 內侍受巾奠於筐。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 【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鬯酌鬱鬯, 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 入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 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 以瓚授近侍, 近侍受以授大祝。近侍一人以幣筐跪進, 判通禮啓請執幣獻幣, 以幣授近侍, 奠于靈座

를 향상(香床)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瓚)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서 땅에 부으라고 아뢰어 청하고, 이를 마치면, 찬을 근시에게 주고, 근시는 이를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례가 폐백을 잡아서 폐백을 바치기를 아뢰어 청한다.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한다【무릇 향을 올리고, 찬(瓚)을 올리고, 폐백을 올릴 적에는 모두 동쪽에 서서 서향하고, 향로를 올리고, 찬을 받고, 폐백을 바칠 적에는 모두 서쪽에 서서 동향하게 된다. 작(爵)을 올리고, 작을 바치는 것도 이에 따른다.】. 또 근시 한 사람이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서 올리고, 판통례가 폐백을 잡아서 폐백을 바치기를 아뢰어 청하면,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바치게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를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 한 사람은 꿇어앉아서 작을 올리면, 판통례가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릴 것을 아뢰어 청한다.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하고, 또 다른 근시 한 사람은 다음 부작(副爵)을 꿇어앉아서 올리면, 판통례가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기를 아뢰어 청하면,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여 손 씻기를

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釁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一人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洗)〔帨〕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釁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一人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얏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잔으로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라.’고 창하고,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하던 절차와 같이 하고, 종헌관을 인도하여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사배한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창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예조 판서가 꿨어얏아 예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오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와서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창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은 예식 절차대로 신주를 주독에 들여 모신다. 집례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령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坎]에 묻는다. 전하는 견여를 타고 궁으로 돌아온다.”

하고, 제향의 일을 섭행(攝行)할 때의 의식에 말하기를,  
“기일 전에 집례가 헌관의 자리를 동계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 조금 남쪽에 설치하되, 줄을 겹줄로 서향하여 북쪽을 뒷자리

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出戶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殿下四拜。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訖，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殿下乘輿還宮。

其攝事儀曰：  
前期，執禮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執禮位於東階西南，西向，謁者、贊者、贊引、在南小退，俱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板於靈座之右，【有拈】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

로 하고, 집례의 자리는 동계 서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 두되, 모두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전정(殿庭)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게 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 배석(陪席)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板)을 영좌 오른쪽에 올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배설한다. 향로와 향합과 초는 영좌 앞에 설치한다. 다음으로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勺]와 보자기를 두고 북향하게 하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세(洗)는 동계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되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둔다.】, 술항아리[壘]는 세(洗)의 동쪽에 두는데, 국자를 둔다. 광주리는 수건을 담아 세(洗)의 서남쪽에 둔다. 【만약 작(爵)을 씻는 광주리라면 찬(瓚)과 작(爵)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祭器)에 제물(祭物)을 담는다. 이를 마치면, 헌관 이하의 관원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창하면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모두 전갈(傳喝)한다.】, 감찰 이하의 관원이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다.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大祝)이 주독을 열고 우주(虞主)를 【연제(練祭) 뒤에는 대왕의 신주라고 일컫는다.】 모셔 내어 자리에

【玄酒在西】皆加勺罍，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瓚爵】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獻官以下皆就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大祝開匱，奉出虞主【練祭後稱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虞主在西】執事者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籠，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洗)[帨]訖，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鬱鬯，執

모시고, 흰 모시보로 이를 덮는다. 궁위령(宮闈令)이 주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모셔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보로 이를 덮는다 【우주(虞主)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瓚)을 씻어 수건으로 닦고, 작을 씻어 수건으로 닦아, 광주리에 담아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서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 창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고하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行事)하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고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는다. 이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으라.’ 창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헌관에게 ‘세 번 향을 피우라.’ 창하고, 마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香床)에 가져다 놓는다.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찬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찬을 집사자에게 주고, 대축(大祝)은 폐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을 잡아서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찬을 주고, 폐백을 주는 일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받들고, 찬을 받고, 폐백을 드리는 일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따른다.】. 대축(大祝)은 또 폐백 광주리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폐백을 잡아서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事者以瓚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獻官，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靈座前。【凡奉香、授瓚、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大祝又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一人以副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영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꿨어앉으라.’ 창하고,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꿨어앉아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재배하라.’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꿨어앉으라.’ 창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작으로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서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행하기를 아헌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창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음을 고하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監察)과 전사관(典

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授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一人以副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贊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

	<p>祀官)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례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하고, 찬인이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공위령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여 모신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59.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0月 6日(庚寅) 2번째기사 헌릉에 배례하는 섭사 의식 절차</p>	<p>예조(禮曹)에서 헌릉(獻陵)에 배례하는 섭사(攝事) 의식을 계하였는데, 말하기를 【졸곡 후에는 곡(哭)이 없고, 대축(大祝)이 영좌(靈座)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p> <p>“하루 전에 능사(陵司)가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실(陵室)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능소(陵所)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지형의 적당한 대로 정한다. 집사자가 헌관의 자리를 능실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를 헌관의 뒤로 조금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되,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알자의 자리는 집사의 자리에서 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감찰의 자리는 헌관의 자리에서 서남쪽으로 북향하여 설치한다. 그날 행사하기 전에, 능사(陵司)는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능실을 소제한다. 집사자가 들어와서 축판을 영좌의 왼쪽에 드린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영좌 앞에 배설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고, 존소(尊所)를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알자가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사배하고 나서,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줄은 겹줄로 북향하여 서되,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알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p>	<p>禮曹啓拜獻陵攝事儀曰： 【卒哭後無哭。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前一日，陵司率其屬，掃除陵室，設饌幔於陵所近地，隨地之宜。執事者設獻官位於陵室東南，西向，執事者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北上，謁者位於執事之南，西向，監察位於獻官西南，北向。其日未行事前，陵司率其屬，掃除陵室，執事者入奠祝板於靈座之左，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時至，謁者先就拜位，北向四拜訖，引監察及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謁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各就位。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謁者曰四拜哭，獻官四拜哭。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p>

헌관이 사배하고 곡한다.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다른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며,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 창하고 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香床)에 놓는다【향을 받들 때는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릴 때는 헌관의 왼쪽에 있다. 잔을 받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가 다음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고 창하고, 축(祝)이 영좌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가서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으라.’ 창하고,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또 다른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재배하고 곡하라.’ 창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으로 나가 내려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終獻禮)를 행하게 하되, 아헌례(亞獻禮)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

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奠爐在獻官之左。受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左，西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哭，引出戶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出戶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謁者曰四拜哭，獻官四拜哭，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諸執事，俱復

	<p>와서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사배하고 곡하라.’ 창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곡한다.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알자가 ‘사배하라.’ 창하면, 감찰 이하가 다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차례대로 나간다. 알자가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축판(祝版)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拜位， 謁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以次出。 謁者就拜位， 四拜而出， 執事者徹禮饌， 祝版瘞於坎。</p>
<p>60.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0月 8日(壬辰) 2번째기사 변장들은 다 술을 먹으라고 명하다</p>	<p>변장(邊將)들은 다 술을 먹으라고 명령하였다.</p>	<p>命邊將皆食酒。</p>
<p>61. 세종 18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0월 10일(갑오) 4번째기사 헌릉의 조석전 잔을 한번만 드리도록 하다</p>	<p>헌릉(獻陵)의 조석전(朝夕奠)에 잔을 세 번 드리는 것을 폐하고 평시(平時)의 예(例)에 따라 한 번만 드리도록 하라고 명하였다.</p>	<p>命獻陵朝夕奠獻爵， 除三獻， 依平時例一獻。</p>
<p>62.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0月 12日(丙申) 5번째기사 문소전 삭망 제향에 섭행하는 의식 절차</p>	<p>(전략)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드린다【점(坵)이 있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위(神位)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배설하고, 존소(尊所)를 지계문 밖 왼쪽에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을 존소에 설치한다. 제향하는 날 행사하기 전 3각(刻)에, 전사(殿司)가 실(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 인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기(祭器)에 제수(祭需)를 담는다. 이를 마치면, 행사하기</p>	<p>(전략)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坵】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設福酒盞於尊所。 行禮： 享日行事前三刻， 殿司開室， 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入實饌具畢。 前二刻， 獻官以下各服其</p>

2각(刻) 전에, 헌관 이하가 각기 그 제복을 입고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간다. 행사 전 1각(刻)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의 세수를 마치기 기다려서,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서쪽을 위로 하고 북향하여 사배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서 전정(殿庭)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선다. 찬자가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창한다. 감찰 이하가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그리고 각기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찬자가 ‘사배,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헌관이 허리를 굽히고,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찬자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섬들을 오르고 내릴 때에는 읊(揖)을 한다.】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한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태조(太祖)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 【지계문 밖에서는 읊을 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笏)을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띠에>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고 창하면, 헌관이 세 번 향을 피운다.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香床)에 올려놓는다 【향을 받들 때는 헌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릴 때는 헌관의 왼쪽에 있게 된다. 잔을 주고 잔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이 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창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일어난다 엎드렸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服, 皆就殿門外。前一刻, 待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 北向西上四拜訖, 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鞠躬四拜興平身, 各就位。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贊者曰四拜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鞠躬〕四拜興平身。贊者曰行初獻禮,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升降階上下有揖。】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 入詣太祖神位前【戶外有揖, 戶內伏地】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 奠爐在獻官之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 俛伏興, 獻官執笏, 俛伏興, 謁者引獻官, 出就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 入詣王后神位前北向立, 贊跪搯

한 사람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왕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띠에> 꽂으라.’ 창하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며, 다른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향을 세 번 피우라.’ 창하면, 헌관이 향을 세 번 피우고 나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상(香床)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창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서 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끓어앉는다. 대축(大祝)이 태조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면, 북,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동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아헌례를 행하라.’ 창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띠에> 꽂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창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왕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띠에>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띠에> 꽂는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잔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서서 한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笏, 執事者一人奉香合, 執事者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小退, 當中北向跪, 獻官執笏, 俛伏興小退, 當中北向跪, 大祝進太祖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拜興拜興平身, 獻官俛伏興拜興拜興平身, 引獻官出戶, 降自東階復位。 小頃, 贊者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俛(復)[伏]興, 獻官執笏, 俛伏興, 謁者引獻官, 出就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一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王后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謁者贊執笏, 俛伏興小退, 當中北向立, 獻官執笏, 俛伏興小退, 當中北向立, 謁者贊鞠躬拜興拜興平身,

	<p>서라.’ 창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려서 서 한가운데 자리에서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헌관이 허리를 굽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찬자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되, 아헌례의 절차와 같이 하고,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飮福)하는 자리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하고, 대축(大祝)이 준소에 나아가 잔에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알자가 ‘끓어앉아 홀을 &lt;띠에&gt; 꽂으라.’ 창하면,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lt;띠에&gt; 꽂는다. 대축(大祝)이 북향하여 끓어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서 술을 마시면, 대축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서 준소에 가져다 놓는다. (후략)</p>	<p>獻官鞠躬拜興拜興平身，降復位。小頃，贊者曰行終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謁者贊跪搯笏，獻官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執盞飲訖，大祝進受虛盞，復於尊所。 (후략)</p>
<p>63.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0月 15日(己亥) 2번째기사 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하여 군인을 무휼하도록 하다</p>	<p>전라도 관찰사에게 전지(傳旨)하여 이르기를, “경기도·충청도의 해도(海道) 찰방(察訪)이 관할하는 군관(軍官)과 군인을 수로(水路)로 돌아오지 말게 하고, 모두 다 육로(陸路)로 올려 보내되, 군관 중에 늙고 병들어 능히 행보(行步)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말을 주며, 아울러 군인에게는 죽과 밥을 주라.” 고 하였다.</p>	<p>傳旨于全羅道觀察使曰：“京畿、忠清道海道察訪所管軍官、軍人，除水路回泊，竝皆陸路上送。軍官內老病不能行步者給馬，并給軍人粥飯。”</p>
<p>64. 세종 18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1월 1일(갑인) 1번째기사 임금이 허손병이 있어 대신들이 육선들기를</p>	<p>임금이 허손병(虛損病)을 앓은 지 여러 달이 되매, 정부(政府)와 육조(六曹)에서 육찬(肉饌) 자시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듣지 아니하고, 병세는 점점 깊어 약이 효험이 없으니, 유정현·이원·정탁 등이 육조 당상(六曹堂上)과 대간(臺諫)과 더불어 청하기를, “평인(平人)들이 만사를 제폐(除廢)하고 상제(喪制)를 지켜 행하여도 3년 안에 병에 걸림을 오히려 면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전하께서 지존(至尊)하신 몸</p>	<p>甲寅朔/上患虛損疾者累月，政府、六曹請進肉膳至再三，不允。疾證漸深，方藥無效，柳廷顯、李原、鄭擢等與六曹堂上、臺諫請曰：“平人頓除萬事，以行喪制，三年之內，尚未免邁疾。況殿下以至尊，進素膳，御萬幾，欲終</p>

<p>청하다</p>	<p>으로 소찬(素饌)만 진어(進御)하시고 만기(萬機)를 보살피시면서 3년의 상제(喪制)를 마치고자 하신다면, 병이 깊어 치료하기 어렵게 되시리니, 옛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이를 위하여 산 사람을 상해(傷害)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또 ‘육즙(肉汁)으로서 구미(口味)를 돕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세자(世子)가 어린데, 전하께서 상경(常經)만 굳이 지키어, 병환이 깊어져서 정사(政事)를 보지 못하시게 된다면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의 복이 되지 않습니다. 태종의 유교(遺敎)에도 또한 말씀하시기를,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 권도를 좇아 상제(喪制)를 마치라.’고 하셨으니, 이는 곧 전하께서 예법을 지키시고 지나치게 슬퍼하시므로, 앞으로 건강을 해하실까 미리 아시고 염려하셨사오니, 어찌 위로 조종(祖宗)의 영(靈)을 위로하시고, 아래로 신민(臣民)의 바람에 좇지 아니하십니까.”</p> <p>하니, 임금은 말하기를,  “내가 본디 병이 없고 늙지도 어리지도 않으니, 어찌 감히 뒷날에 병이 날까 봐 염려하여 고기를 먹겠느냐.”</p> <p>하며, 굳이 고집하고 듣지 않으므로, 정현(廷顯) 등이 모두 내정(內庭)까지 나아가 기어이 청을 이루려고 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말하기를,  “여러 경(卿)이 청하기를 마지 아니하니, 오늘은 마땅히 소찬을 아니하겠노라.”</p> <p>하니, 여러 신하들이 육찬을 진어함을 꼭 보고자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은 진실로 필부(匹夫)도 속일 수 없거든 하물며 대신(大臣)에게랴.”</p> <p>하면서, 이에 육찬(肉饌)을 진어하였다. 교지(教旨)를 내리기를,  “이제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니, 여러 도로 하여금 육선(肉膳)을 진상(進上)하지 말게 하고, 또 문소전(文昭殿)·광효전(廣孝殿) 외에 각전(各殿)의 망전(望前)·망후(望後)의 진상(進上)도 또한 이를 아직 정지하라.”</p> <p>하였다.</p>	<p>三年之制，則病深而難療。古人云：‘無以死傷生。’且有肉汁助味之說。今世子幼沖，而殿下固守常經，以至病深，不能視事，則非宗社生靈之福也。太宗遺教亦曰：‘主上非肉不能進饌，吾百歲之後，權宜終制。’此乃先知殿下守經過哀而將至於傷生，何不上慰祖宗之靈，俯從臣民之望？”</p> <p>上曰：“我本無病，非老非幼，安敢慮後日之病，而食肉乎？”堅執不聽。廷顯等咸進內庭，期於得請，上不獲已曰：“諸卿請之不已，今日姑當開素。”群臣欲視肉膳，上曰：“人主固不可以欺匹夫，況大臣乎？”乃進肉膳。下旨曰：“今歲歉民飢，毋令諸道進肉膳。且文昭、廣孝殿外，各殿望前望後進上，亦姑停之。”</p>
------------	---	--



<p>65.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1月 3 日(丙辰) 1번째기사 북경으로 가는 하정사 에게 의관, 약물 등을 주어 보내다</p>	<p>하정사(賀正使) 중군 도총제(中軍都摠制) 권진(權軫)과 부사(副使) 좌군 동지 총제(左軍同知摠制) 이교(李皎)가 북경(北京)에 가는데, 의관(衣冠)과 갓[笠]· 신[靴]·약물(藥物)을 주어 보냈다.</p>	<p>丙辰/賀正使中軍都摠制權軫、副使左 軍同知摠制李皎如京師， 賜衣冠、笠 靴、藥餌遣之。</p>
<p>66. 세종 18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1월 13 일(병인) 4번째기사 왜인이 토산물을 바치 고 《대장경》을 청구 하다</p>	<p>일본의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의준(源義俊)이 본국 황태후(皇太后)의 명 령으로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인하여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 였다</p>	<p>日本九州都元帥元義俊以本國皇太后 之命，遣人獻土物，仍請《大藏經》。</p>
<p>67. 세종 18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 (永樂) 20년) 11월 18 일(신미) 1번째기사 대마도 왜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태종 상을 위문하다</p>	<p>대마도(對馬島)의 종언륙(宗彦六)·등차랑(藤次郎)·우위문 대랑(右衛門大郎) 등 이 사신을 보내 와서 토산물을 바치고 태종(太宗)의 상(喪)을 위문(慰問)하였 다.</p>	<p>辛未/對馬島宗彦六、藤次郎、右衛門 大郎等遣使來獻土物，陳慰太宗之喪。</p>
<p>68.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1月 19 日(壬申) 1번째기사</p>	<p>(전략)또 방물(方物)을 올리는 표문(表文)에는, “군사의 출정이 만전(萬全)하매, 승첩한 소식이 사방에 퍼지니, 기뻐 뛰노는 소리가 구주(九州)에 떠들썩하오며, 나아와 하례함은 천하가 다 같습니다. 삼 가 누른 세모시[黃細紵布] 20필, 흰 세모시[白細紵布] 50필, 검은 세마포[黑</p>	<p>(전략)方物表曰： 師出萬全，捷音旁達。 懽騰九有，趨 賀悉均。 謹備黃細苧布二十四、白細 苧布五十四、黑細麻布五十四、人蔘</p>

<p>이백강·목진공을 북경에 보내 북방을 평정한 것을 하례하다</p>	<p>細麻布] 50필, 인삼 1백 근, 잣[松子] 3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을 갖추었는데, 위의 물건들은 궁벽한 벽지에서 생산되었고, 양장(良匠)이 제작한 것이 아니오나, 충심에서 나오는 정성임을 살피서, 위에 올리는 의례(儀禮)를 용납하소서.”</p> <p>라고 하였다. 전문(箋文)에는,</p> <p>“높이 저위(儲位)에 거하여 참으로 민정(民情)을 위로하시며, 크게 큰 계획을 도와 추한 무리들을 물리쳐 평정하고 이를 널리 고하니, 모두들 기뻐하나이다. 가만히 생각건대, 조그마한 못된 오랑캐가 저 거친 변방에 있어서 깊은 은혜를 저버리고 변경(邊境)을 침략하여, 감히 사시(蛇豕)의 소행을 부리니, 실로 신(神)과 사람이 함께 분노할 바이다. 마땅히 육사(六師)를 정돈(整頓)하여 구벌(九伐)의 위엄을 베푸는 것이었나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황태자 전하는 성품이 영명(英明)하시고, 자질이 인지(仁智)를 겸전(兼全)하시며, 삼선(三善)을 잘 갖추어 성훈(聖訓)을 이어 받들때 어김이 없고, 만기(萬機)를 처결함에 참여하여 요분(妖氛)을 쓸어 없애시니, 의기[義]는 포학을 제거하는데 돈독하고, 마음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데 독실하시니, 무릇 보고 들음에 모두 기뻐 춤을 추었나이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이 성대를 만나서 개선하심을 듣고도 하례하러 나아가는 반열(班列)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다만 강녕하시기를 축수하는 마음만 간절합니다. 흰 세모시 20필, 검은 세마포 20필, 인삼 50근, 잡색마 4필 등, 위의 물건을 삼가 전(箋)에 따라 올립니다.”</p> <p>하였다.</p>	<p>一百斤、松子三百斤、雜色馬二十四匹。右件物等，產自荒陬，製匪良匠。冀諒由中之信，俯容享上之儀。</p> <p>箋曰：</p> <p>尊居儲位，允慰輿情。丕贊皇猷，盪平群醜。屬茲播告，舉有權欣。竊惟蕞爾孽胡，在彼荒裔。辜負恩渥，侵掠邊疆。敢肆蛇豕之所行，實爲神人之共憤。宜整六師之衆，以施九伐之威。恭惟皇太子殿下性稟英明，資全仁智。克備三善，承聖訓以無違；參決萬機，掃妖氛而有截。義敦去暴，心篤好生。凡在瞻聆，悉均蹈舞。伏念臣叨逢盛代，想聞凱旌，阻詣趨賀之班，聊切康寧之祝。白細苧布二十四匹、黑細麻布二十四匹、人蔘五十斤、雜色馬四匹。右件物等，謹隨箋以聞。</p>
<p>69. 世宗 18卷, 4年 (1422 壬寅 / 명 영락 (永樂) 20年) 12月 15日(戊戌) 1번째기사</p>	<p>이 앞서 임금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특별히 교지(教旨)를 내려 술을 금하니, 이로 인하여 금령(禁令)을 범한 자는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처단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p> <p>“술을 금하는 것은 본디 흉년이기 때문인데, 지금 호강(豪強)한 자는 한 사람</p>	<p>戊戌/先是，上以年歉，特下旨禁酒。緣此，犯禁者坐以制書有違。上曰：“禁酒，本以年歉。今豪強無一犯禁者，無知小民獨受重刑，甚爲未便。</p>

<p>술을 금하고, 어긴 자는 논죄하게 하다</p>	<p>도 금령을 범한 자가 없고, 무지한 세민(細民)만이 홀로 중한 형벌을 받게 되니 매우 부당한 일이다. 이제부터는 술의 금령을 범하는 자는 법령을 어긴 죄로만 논죄하라.” 고 하였다.</p>	<p>自今犯酒禁者，以違令論。”</p>
<p>70. 세종 18권, 4년 (1422 임인 / 명 영락(永樂) 20년) 윤12월 16일(기사) 1번째기사 저축한 것이 적은 강원도에 1만 석을 내리다</p>	<p>강원도 관찰사 이명덕(李明德)이 백성이 굶주리는데 도(道) 안에 저축(儲蓄)한 것이 적으므로 쌀과 콩 17만 석을 청구하거늘, 호조에서 먼저 1만 석을 주기로 청하여, 그대로 따랐다.</p>	<p>己巳/江原道觀察使李明德以民飢，道中所儲乏少，請米豆十七萬石，戶曹請先給一萬石，從之。</p>
<p>71.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월 1일 (계미) 3번째기사 구주 총관 원의준이 서신을 보내고 토산물을 바치다</p>	<p>(전략) 조그만 예물은 소목(蘇木) 1천 근(斤), 서각(犀角) 3개(介), 곱향(藿香) 40근, 정향피(丁香皮) 20근, 유황(硫黃) 5천 근, 명반(明礬) 4백 근, 절부(折敷) 20매(枚), 소향유(蘇香油) 2근, 금란(金欄) 1단(段), 감초(甘草) 20근, 구분(朱盆) 2개, 당주(唐朱) 1근이고, 제공(祭供)의 조그만 예물은 소면(素麪) 30근, 갈분(葛粉) 15근, 침향(沈香) 2근, 납거(蠟炬) 50개, 온주굴(溫州橋) 1천 개입니다.” 하였다. 원의준이 또 예조에 글을 올려 사로잡혀 온 대마도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청하고, 인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니, 유황 2천 5백 근, 소목 2천 근, 곱향 10근, 서각 2본(本), 백단(白檀) 30근, 향(香) 8근, 동(銅) 2백 근, 천궁(川芎) 30근, 파두(巴豆) 30근, 육두구(肉豆蔻) 20근이다. 성은(性恩) 등이 친히 드리기를 청하니, 정부(政府)에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영의정 유정현이 아뢰기를, “다른 나라의 사람이 성심으로 올리니, 마땅히 객인(客人)으로 하여금 광효전(廣孝殿)의 뜰에 차례대로 서서 배례(拜禮)를 행하게 하고, 향을 피우고 술잔</p>	<p>(전략) 小禮：蘇木一千觔，犀角三箇，藿香四十觔，丁香皮二十觔，硫黃五千觔，明礬四百觔，折敷二十枚，蘇香油二觔，金欄一段，甘草二十觔，朱盆二箇，唐朱一斤。祭供小禮：素麪三十觔，葛粉十五觔，沈香二斤，蠟炬五十，溫州橋一千箇。 源義俊又奉書于禮曹，請還被擄對馬人，仍獻土物：硫黃二千五百斤，蘇木二千觔，藿香一十斤，犀角二本，白檀三十觔，香八斤，銅二百斤，川芎三十觔，巴豆三十觔，肉豆蔻二十觔。性恩等請親奠，命議于政府，領議政柳廷顯曰：“殊俗之人，誠心奉進，宜令客</p>

	<p>을 드리는 일은 집례관(執禮官)으로서 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人序立於廣孝殿庭，行拜禮，其上香酌獻，以執禮官爲之。”從之。</p>
<p>72.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 (永樂) 21년) 1월 12 일(갑오) 4번째기사 일본국의 사람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의 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薩摩) 세 주(州)의 태수(太守) 조신(朝臣) 원구풍(源久豐)이 사람을 시켜 와서 토산물, 유황(琉黃) 3천 근, 큰 칼[大刀] 10개, 금란(金欄) 1단, 서각(犀角) 2본, 백단향(白檀香) 10근, 침향(沈香) 10근, 백예(白銳) 10근, 감초(甘草) 10근, 소목(蘇木) 1천 근, 부채[扇子] 20자루를 바치니, 그들을 접대하도록 명하였다.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가 구풍(久豐)의 서신(書信)에 답하기를, “영형(令兄)의 뜻을 잘 계승하여 통호(通好)하니 매우 기쁘다. 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드리었다.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인 면포(縣布) 5백 40필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쳐 보낸다.” 라고 하였는데, 구풍(久豐)은 원구(元久)의 아우이다.</p>	<p>日本國日向、大隅、薩摩三州太守源朝臣久豐使人來獻土物：(琉) [硫] 黃三千觔，大刀十箇，金欄一段，犀角二本，白檀香十觔，沈香十觔，白銳十觔，甘草十觔，蘇木一千觔，扇子二十本，命饋之。禮曹判書金汝知答久豐書曰：善繼令兄通好，欣慰殊深。所獻禮物，謹已啓納。不腆土宜縣布五百四十四，就付回人。 久豐，元久之弟也。</p>
<p>73. 世宗 19卷, 5年 (1423 癸卯 / 명 영락 (永樂) 21年) 1月 12 日(甲午) 7번째기사 일본국 축주 관사 평 만경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의 축주 관사(筑州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니, 그를 접대하라고 명하였다. 그 서신(書信)에, “만경(滿景)은 선고 황제(先考皇帝)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적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통곡했으며 땅에 몸을 던져 울었습니다. 크게 의지할 곳을 잃었으니, 불행한 일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었습니다. 우러러 마음을 상하여 평삼랑 좌위문(平三郎左衛門)으로 하여금 글을 받들어 슬픔을 고하오니, 삼가 아뢰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예물(禮物)로 올리는 토산물은 용뇌(龍腦) 50전목(錢目), 소향유(蘇香油) 2근, 당주(唐朱) 2근, 황련위(黃練緯) 2필, 유황(硫黃) 2천 근, 곽향(藿香) 10근, 기린혈(麒麟血) 2근, 감초(甘草) 20근, 부채[扇子] 20자루를 바칩니다.”라고 하였다. 예조 참의 유연지(柳衍之)가 답서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위문(慰問)하니 깊이 감사한다. 바친 예물은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드리었으며, 지금 토산물인 면포(縣布) 4백 70필을 돌아가는 사람에게 부쳐 보낸다.”</p>	<p>日本國筑州管事平滿景使人獻土物，命饋之。其書曰： 滿景承先考皇帝登遐，初聞仰天痛哭，投地泣血，大失庇庥，不幸無大於此焉。仰惟畫傷，使平三郎左衛門奉書告哀，伏願聞達。小禮土宜，龍腦五十錢，(目)蘇香油二觔，唐朱二觔，黃練緯二匹，硫黃二千觔，藿香十觔，麒麟血二觔，甘草二十觔，扇子二十把。禮曹參議柳衍之答書曰： 專人陳慰，深感深感。所獻禮物，謹已啓納。今將土宜縣布四百七十四，就付回人。</p>

	라고 하였다.	
74.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 (永樂) 21년) 1월 16일(무술) 4번째기사 경창의 묵은 곡식으로 저화를 사서 민간을 구제하게 하다	호조에 명하여, 경창(京倉)의 묵은 쌀 2천 석과 묵은 콩 1천 석을 내어 민간(民間)의 저화(楮貨)를 사서 굶주리고 궁핍한 사람을 구제하였다.	命戶曹發京倉陳米二千石、陳豆一千石，買民間楮貨，以救饑乏。
75. 世宗 19卷, 5年 (1423 癸卯 / 명 영락 (永樂) 21年) 1月 17日(己亥) 3번째기사 강원도에 진제미를 내려주다	강원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道內)의 각 고을에서 실농(失農)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햇곡식이 익기까지 창고를 열어 진대(賑貸)해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진제(賑濟) 미두(米豆) 8천 4백 석과 환상(還上) 미두(米豆) 2만 2천 석을 주도록 명하였다.	江原道監司啓: “道內各官失農民飢，請限新穀成熟，發倉賑貸。” 命給賑濟米豆八千四百石、還上米豆二萬二千石。”
76.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 (永樂) 21년) 1월 19일(신축) 1번째기사 각도의 진제를 맡은 경차관이 사목을 아뢰다	각도의 진제(賑濟)를 맡은 경차관(敬差官)이 사목(事目)을 아뢰었는데, “1. 굶주린 백성을 진제(賑濟)하는 조획(條畫)은 각 년(年)의 교지(教旨)를 상고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1. 경차관이 각 고을에 이르러 먼저 수령들의 감결(甘結)을 취하고 미두(米豆)와 염장(鹽醬)을 가지고 바로 사면(四面)으로 가서 그 굶주림이 심한 사람에게는 즉시 진제(賑濟)할 것이며, (후략)”	辛丑/各道賑濟敬差官啓事目: 一, 飢民賑濟條畫, 考各年教旨施行。 一, 敬差官到各官, 先取守令甘結, 將米豆鹽醬, 直至四面村落, 其飢餓甚者, 卽賑濟之。(후략)
77. 世宗 19卷, 5年 (1423 癸卯 / 명 영락 (永樂) 21年) 1月 27日(己酉) 4번째기사 경기·충청·함길도에 곡	경기·충청·함길도의 감사들이 계하기를, “백성들이 종자와 먹을 양식이 없으니, 창고를 열어 진대(賑貸)해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호조에 명하여 함길도 미두(米豆) 각기 1천 석을 주고, 충청도에 미두와 잡곡 3만 석을 주고, 경기도에 미두와 잡곡 1만석을 주게 하였다.	京畿、忠淸、咸吉道監司啓: “民乏種子口糧，請發倉賑貸。” 命戶曹，給咸吉道米豆各一千石，忠淸道米豆、雜穀三萬石，京畿米豆、雜穀一萬石。

<p>식을 내려 진휼하다</p> <p>78.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 (永樂) 21년) 1월 28일(경술) 7번째기사 호조에서 진제할 방법을 아뢰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지금과 같이 농사에 힘쓸 시기에 굶주린 백성의 진제(賑濟)는 전례에 의하여, 건장한 남녀 1명에 1일 동안의 식량을 쌀 4홉, 콩 3홉, 장(醬) 1홉을 주고, 11세부터 15세까지의 남녀는 쌀 2홉, 콩 2홉, 장 반홉을 주고, 10세부터 5세까지의 남녀는 쌀 2홉, 장 반 홉을 주고, 1세 이상까지 진제(賑濟)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如今力農時, 飢民賑濟, 依前例, 壯男女一名一日米四合、豆三合、醬一合, 自十一歲至十五歲男女米二合、豆二合、醬半合, 自十歲至五歲男女米二合、醬半合, 竝一歲以上賑濟。” 從之。</p>
<p>79. 世宗 19卷, 5年 (1423 癸卯 / 명 영락 (永樂) 21年) 1月 28日(庚戌) 9번째기사 일본 구주 총관 원도진이 서신을 보내 종을 청구하고, 준수 태수 원성이 예물을 바치다</p>	<p>일본국의 전(前) 구주 총관(九州總管) 원도진(源道鎭)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어 사로잡힌 인구(人口)를 돌려준 데 대하여 사례하고, 겸해 사종(寺鍾)을 청구하였다. 인하여 유황(硫黃) 5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감초(甘草) 50근, 서각(犀角) 2본(本), 화자주기(花磁酒器) 2개, 상아(象牙)로 만든 약그릇 2개, 비파재(枇杷栽) 5본(本), 비파엽(枇杷葉) 5근을 바쳤다. 예조 판서 김여지(金汝知)가 그 서신에 답하였는데, 그 답서에  “말한 범종(梵鍾)은 본디 &lt;우리 나라에서도&gt; 많이 있지 않은 것인데, 지난 번에 귀국의 여러 진(鎭)에서 구해가서 거의 없어졌으므로, 청구한 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1천 40백 50필을 돌아가는 인편에 부쳐 보낸다.”  라고 하였다. 준수 태수(駿州太守) 원성(源省)이 예조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예물(禮物)을 바쳤으니, 그 예물은 유황(硫黃) 6천 근, 서각(犀角) 8본, 단목(丹木) 5백 근, 백단(白檀) 4근 3냥쫘, 호초(胡椒) 2근, 단목(丹木) 1백 근이다. 예조 좌랑(禮曹佐郎) 성염조(成念祖)가 그 서신에 답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 또 향(香)을 올리는 예(禮)를 차리니 매우 감사하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1천 10필을 돌아가는 인편에 부친다.”  라고 하였다. 비주 태수(肥州太守) 원창청(源昌淸)이 예조에 사신을 보내어 위로하고 예물을 바쳤으니, 그 예물은 곽향(藿香) 10근, 정향피(丁香皮) 10근,</p>	<p>日本國前九州總管源道鎭修書于禮曹, 謝還被虜人口, 兼求佛寺鍾, 仍獻硫黃五千觔、丹木五百觔、甘草五十觔、犀角二本、花磁酒器二、象牙藥器二、枇杷栽五本、枇杷葉五觔。禮曹判書金汝知答書曰:  所諭梵鍾, 本不多有, 曩因貴國諸鎭求去殆盡, 未能塞請。土宜正布一千四百五十四, 付回人。  駿州太守源省修書禮曹陳慰, 獻禮物, 硫黃六千觔、犀角八本、丹木五百觔、恭奠白檀四觔三兩、胡椒二觔、丹木一百觔。禮曹佐郎成念祖答書曰:  專人陳慰, 且修進香之禮, 爲感殊深。土宜正布一千一十四, 付回价。  肥州太守源昌淸修書于禮曹陳慰, 獻禮物, 藿香一十觔、丁香皮一十觔、大黃一十觔、黃耆五觔、膽礬一觔、犀角</p>

	<p>대황(大黃) 10근, 황기(黃耆) 5근, 담반(膽礬) 1근, 서각(犀角) 1본(本), 택사(澤瀉) 10근, 동(銅) 2백 근, 소목(蘇木) 5백 근, 자백자라(磁白磁羅) 3백 개, 자백소발(磁白小鉢) 10개, 대도(大刀) 2자루, 유황(硫黃) 2천 근이다. 예조 참의 유연지(柳衍之)가 그 서신에 답하기를,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고 겸하여 예물(禮物)까지 바치니, 삼가 이미 위에 아뢰어 받아들였다. 토산물인 정포(正布) 4백 필로 사례를 표한다.”  라고 하였다.</p>	<p>一本、澤瀉一十觔、銅二百觔、蘇木五百觔、磁白磁羅三百介、磁白小鉢一十介、大刀二把、硫黃二千觔。禮曹參議柳衍之答書曰：  專人陳慰，兼獻禮物，謹已啓納。土宜正布四百匹，聊表謝忱。</p>
<p>80. 세종 19권, 5년 (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2월 5일 (병진) 5번째기사  좌위문대랑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고, 소한하상가·원도진 등이 글을 올리다</p>	<p>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다. 소조하상가(小早河常嘉)가 사람을 시켜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선고 황제(先考皇帝)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받자와, 처음 듣고 놀라서 음식을 잇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상하건대, 임금의 효성으로 사모하고 슬퍼하심이 지극하사 &lt;멀리 있는&gt; 저의 마음까지 감격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길이 멀어서 능히 몸소 소위(素幃)735) 에 나아가 뵈옵지 못하와 죄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사신으로 행인(行人) 석조선(釋祖禪)을 보내어 각하(閣下)에게 서신을 올리오니 삼가 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였다. 금년 봄에 서신을 가지고 온 사신이 돌아와서 알리기를,  “후한 위로를 받고 아울러 진귀한 물품을 부쳐 보내니 기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변변하지 못한 작은 예물(禮物)로서 향(香) 70근, 수우각(水牛角) 8본(本), 소목(蘇木) 5백근, 백련위(白練緯) 1단(段), 진피(陳皮) 80근, 파두(芭豆) 10근, 당귀(當歸) 2근, 상산(常山) 5근, 연교(連翹) 2근, 기린혈(麒麟血) 2근, 유황(硫黃) 2천 근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좌랑 성엄조(成念祖)가 답서하였는데, 그 답서에,  “사람을 보내어 위로하니 매우 감사하였다. 토산물인 오승포(五升布) 3백 80 필로 후의(厚意)에 사례(謝禮)한다.”  라고 하였다. 원도진(源道鎭)이 예조에 서신을 보내고, 인하여 곽향(藿香) 50</p>	<p>左衛門大郎使人獻土物。小早河常嘉〔小早河常嘉〕使人上禮曹書曰：  承先考皇帝登仙，初聞悲駭，至忘飲食。想聖躬孝履戀哀之極，坐感于懷，海路渺然，不能躬拜素幃，無處乎逃罪。是故差使行人釋祖禪奉書閣下，伏願聞達。今春奉書使回告曰：“甚受厚慰。”并所付珍貺，不堪欣喜者也。不腆小禮，香七十觔，水牛角八本，蘇木五百觔，白練緯一段，陳皮八十觔，芭豆十觔，當歸二觔，常山五觔，連翹二觔，麒麟血二觔，硫黃二千觔。禮曹佐郎成念祖答書曰：  專人陳慰深感。土宜五升布三百八十匹，以謝厚意。源道鎭修書于禮曹，仍獻藿香五十觔、蓬莪木二十觔、白芷三十七觔、胡椒十觔、白芷二十觔、黃芩二十觔、丁</p>

	<p>근, 봉아목(蓬莪木) 20근, 백단(白檀) 37근, 호초(胡椒) 10근, 백지(白芷) 20근, 황금(黃芩) 20근, 정향피(丁香皮) 20근, 초과(草果) 2근, 축사(縮砂) 10근, 부자(附子) 1근, 당사(唐絲) 3근, 비파엽(批把葉) 20근, 백계(白鷄) 20근, 소목(蘇木) 1천 근, 상아(象牙) 30근, 유황(硫黃) 3천 근을 바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정포(正布) 7백 60필을 주었다. 원도진이 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p> <p>“삼가 생각하옵건대, 황고황제(皇考皇帝)께서는, 성문(聖文)은 일월(日月)과 같이 빛나고, 신무(神武)는 뇌정(雷霆)의 위엄을 떨치었습니다. 진실로 이는 백왕(百王)의 종(宗)이요, 만세(萬世)의 법이 될 만합니다. 인(仁)은 온 세계에 흠족하고, 의(義)는 다른 나라에까지 넘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국군(國君)이 인교(隣交)의 화호(和好)를 닦아서 방문(訪問)하는 사신을 자주 보냈으니, 이것이 몇 해가 되도록 소식이 끊어지지 않았으므로, 매양 평안하신 줄 알고 축수(祝壽)하고 기도(祈禱)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심을 듣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비(考妣)가 죽은 것 같사운데, 하물며 성예(聖睿)야 어떠하오리까. 드디어 행인(行人)을 시켜 통신(通信)하여 가서 〈제가〉 배례(拜禮)하는 의식을 대신하게 했는데, 멀고 먼 바닷길에 〈아래로〉 높으신 용서를 주시었습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은 별전(別箋)에 기재되어 있으니, 단목(丹木) 3백 근, 창자(槍子) 20본, 유황(硫黃) 1천 5백 근입니다.”</p> <p>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회사(回賜)로 오승포(五升布) 2백 60필을 주었다.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정부(政府)에 서신을 보내고, 토산물인 단목(丹木) 1천 근, 유황(硫黃) 9천 근을 바치니, 〈우리 나라에서〉 회사로 정포(正布) 1천 2백 20필을 주었다.</p>	<p>香皮二十觔、草果二觔、縮砂十觔、附子一觔、唐絲三觔、枇杷葉二十觔、白鷄二十觔、蘇木一千觔、象牙三十觔、硫黃三千觔，回賜正布七百六十四。</p> <p>源道鎮又書曰： 伏惟，皇考皇帝聖文懸日月之曜，神武震雷霆之威，允是百王之宗，足爲萬世之法。仁浹于寓內，義溢于異邦。是以，我國君深修隣交之好，數憑通禮之使，有年于茲，音耗不絕，每知康安，以祝以禱。承登仙，不知所措，如喪考妣，況於聖睿乎？遂使行人通信，往代拜禮之儀，海路渺茫，枉賜尊恕。不腆土宜，載在別箋。丹木三百觔，槍子二十本，硫黃一千五百斤。回賜五升布二百六十四。左衛門大郎修書于政府，獻土宜，丹木一千觔、硫黃九千觔，回賜正布一千二百二十四。</p>
<p>世宗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2月 6日(丁巳)</p>	<p>울랑합(兀良哈)의 지휘(指揮) 야보(也甫) 등 13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p>	<p>兀良哈指揮也甫等十三人來獻土物。</p>



<p>3번째기사 야인들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다</p>		
<p>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2월 23일(갑술) 3번째기사 호조에서 함길·전라도 에 진휼곡을 청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청컨대, 실농한 함길도에 미두 3만 석을 더 지급하고, 유후사(留後司) 오부(五府)와 속현(屬縣) 개성(開城)에 미두 각 2백 석과 조(租) 5백 석을 지급하고, 전라도에 종자와 양식으로 미두와 잡곡 3만석을 지급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請加支給失農咸吉道米豆三萬石, 留後司五部及屬縣開城米豆各二百石、租五百石, 全羅道種子口糧米豆雜穀三萬石。” 從之。</p>
<p>世宗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2月 28日(己卯) 2번째기사 황해도 경차관이 수안 등지에 환상을 청하다</p>	<p>황해도 경차관이 계하기를, “농사 시기를 잃은 수안(遂安)·곡산(谷山)·서흥(瑞興) 등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각기 미두(米豆) 함께 4백 8석을 주되, 청컨대 환상(還上)으로 시행하고 추수(秋收) 후에 회수하게 하소서.” 라고 하니, 진제(賑濟)로써 시행할 것을 명하였다.</p>	<p>黃海道敬差官啓: “失農遂安、谷山、瑞興等各官飢民, 各給米豆共四百八石, 請以還上施行, 秋成還收。” 命以賑濟施行。</p>
<p>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3월 8일(기축) 1번째기사 창녕 부원군 성석린과 서원 부원군 한상경에 게 부의를 내리다</p>	<p>왕의 교지(教旨)로써 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성석린(成石麟)과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한상경(韓尙敬)에게 부의(賻儀)를 주기를 완산 부원군(完山府院君) 이천우(李天祐)의 예에 의하여 각기 미두(米豆)를 합하여 70석과 종이 1백 50권을 내렸다.</p>	<p>己丑/王旨: “昌寧府院君成石麟、西原府院君韓尙敬致賻, 依完山府院君李天祐例, 各賜米豆共七十石、紙一百五十卷。”</p>
<p>世宗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3月 8日(己丑) 3번째기사</p>	<p>교지(教旨)하기를, “평안도에는 실농하여 연사(年事)가 흉년인데, 지금 오는 사신(使臣)의 행차에 잡물(雜物)을 운반하는 군사에게는 역사하는 날의 양식을 주도록 하라.” 고 하였다.</p>	<p>教旨: “平安道失農年儉, 今來使臣行次雜物擔持軍, 支役日口糧。”</p>

사신 행차에 잡물 운반하는 군사에게 역사하는 날의 양식을 주게 하다		
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3월 12일(계사) 4번째기사 호조에서 개성 유후사 관문에 따라 진제곡 더 주기를 청하다	호조에서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굶주린 백성에게 진제(賑濟)할 쌀 2천 석과 콩 1만 석을 더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開城留後司關啓：“請加支飢民賑濟米二千石、豆一千石。”從之。
世宗 19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3月 12日(癸巳) 5번째기사 충청도 단양·영춘·청풍 등지의 백성에게 진휼하다	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단양(丹陽)·영춘(永春)·청풍(淸風) 고을에 굶주림이 더욱 심한데, 창고가 텅 비었으니, 제천(堤川)의 창고 곡식을 강원도로 옮겨 주는 것을 그만두고, 오로지 본현(本縣)과 영춘·청풍·단양 등 각 고을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다 줄 것이며, 그 강원도로 옮겨 갈 미두(米豆) 3천 석은 경원(慶源)의 창고에서 받아가기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忠淸道監司關啓：“道內丹陽、永春、淸風饑饉尤甚而倉庫虛竭。請堤川倉穀，除移給江原道，全支本縣及永春、淸風、丹陽等各官飢民，其江原道移轉米豆三千石，許於慶源倉受出。”從之。
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3월 13일(갑오) 2번째기사 한확의 어머니 김씨가 죽자 곡식과 관곽을 내리다	소경(少卿) 한확(韓確)의 어머니 김씨(金氏)가 돌아가니, 미두(米豆) 20석과 종이 1백 권과 관곽(棺槨)을 내렸다.	少卿韓確母金氏卒，賜米豆二十石、紙一百卷、棺槨。
世宗 19卷, 5年(1423)	양녕에게 소합원(蘇合元)·청심원(淸心元)·양비원(養脾元)·보명단(保命丹) 등의	賜讓寧蘇合元、淸心元、養脾元、保

<p>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3月 20日(辛丑) 4번째기사 양녕에게 약과 술을 내리다</p>	<p>약과 술 20병을 내렸다.</p>	<p>命丹等藥及酒二十瓶。</p>
<p>세종 19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3월 22일(계묘) 3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진휼곡을 병선으로 운반하도록 아뢰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의 환상(還上)으로 나누어 줄 벼와 콩의 종자가 넉넉하지 못하니, 청컨대, 황해도(黃海道)의 병선(兵船)으로 하여금 봉산(鳳山) 창고의 벼 5천석과 콩 1만 5천 석을 운반하여, 강동(江東)·삼등(三登)·중화(中和)·상원(祥原) 등 각 고을에 나누어 주고, 안악(安岳)·은율(殷栗)·장련(長連)·문화(文化) 등 고을 창고의 벼 5천 석과 콩 1만 5천 석을 운반하여, 평양(平壤)·강서(江西)·삼화(三和)·용강(龍崗)·함중(咸從) 등 각 고을에 나누어 주소서” 하니, 평양 등 각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와 받고서 황해도 병선(兵船)으로써 운반케 명(命)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道內還上分給租豆之種不敷, 請令黃海道兵船運鳳山倉租五千石、豆一萬五千石, 給江東、三登、中和、祥原等各官, 運安岳、殷栗、長連、文化等官倉租五千石、豆一萬五千石, 給平壤、江西、三和、龍崗、咸從等各官。” 命令平壤等各官人前來交受, 以黃海道兵船漕轉。</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일(신해) 2번째기사 양녕 대군 처소에 해마다 쌀과 밀을 내려 주게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 양녕 대군 처소에 갑진년부터 해마다 술쌀[酒米] 30섬과 밀[少麥] 10섬을 내어 주라.” 고 하였다.</p>	<p>傳旨于戶曹: “讓寧大君處, 自甲辰年始, 歲支酒米三十石、小麥十石。”</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1日(辛亥) 4번째기사 경기에 환상곡을 주게 하다</p>	<p>호조에 명하여, 경기에 환상(還上)으로 쌀·콩·잡곡을 합하여 모두 1만 2천 5백 80석을 주게 하였으니, &lt;이는&gt; 감사가 계(啓)한 때문이다</p>	<p>命戶曹給京畿還上米豆、雜穀共一萬二千五百八十石, 因監司之啓也。</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일(신해) 6번째기사 함길도에 환상곡 3만 석을 추가하다</p>	<p>호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으로 쌀·콩을 합하여 3만 석을 더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咸吉道監司關啓：“加支還上米 豆并三萬石。”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6日(丙辰) 2번째기사 예부에서 사신에게 준 고명과 제문에 대해 아뢰다</p>	<p>예부(禮部)에서 고부(告訃)에 대한 일을 말하기를, “조선 국왕(朝鮮國王) 이모(李某)의 부(父), 이모(李某)가 홍서(薨逝)하였으 므로, 본부 낭중(本部郎中) 양선(楊善)을 보내어 고명(誥命)과 제문(祭文) 등을 가지고 내관(內官)과 함께 본국에 가서 조제(弔祭)하라 하였는데, 이들이 경과 하는 지방에서는 사실을 조사한 뒤에 놓아 보낼 것. 이에 비준(批准)함. 계 (計), 고명(誥命)이 한 통이요, 제문(祭文)이 한 통이며, 제물(祭物)로는, 생초 (生絹)가 5백 필, 마포(麻布) 5백 필, 단향(檀香) 일 주(一炷), 전향(箋香) 3근 이니, 위의 이것들을 허락하기 바람.” 하였다.</p>	<p>禮部爲告訃等事：“該朝鮮國王李諱父 李諱薨逝，欽差本部郎中楊善，齎捧誥 命、祭文等，與同內官前去本國弔祭。 經過去處，驗實放行，須至批者。計 齎去誥命一道、祭文一道、祭物壇生 絹五百匹、麻布五百匹、檀香一炷、 箋香三斤。右仰準此。”</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6일(병진) 5번째기사 충청도에 미곡과 잡곡 6만 석을 추가 지급하 다</p>	<p>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에 흉년을 대비하는 잡곡을 임인년의 숫자로서 지급하는 것은 부족하오 니, 청컨대, 쌀과 콩과 잡곡을 합하여 6만 석을 더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忠淸道監司關啓：“道內救荒雜 穀，以壬寅年數支給不敷，請加支米 豆、雜穀并六萬石。”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2일(임술) 3번째기사</p>	<p>분황제 의주(焚黃祭儀注)에, “사시(賜諡)하는 예가 끝나기를 기다려, 황지(黃紙)에다 고명(誥命)을 옮겨 써 서 고함(誥函) 뒤에 두고, 각 장관(掌官)들이 배설하기를 끝마치면, 집행(執 禮)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p>	<p>焚黃祭儀注： 俟賜諡禮畢，以黃紙傳寫誥命，置于誥 函之後。各掌官排設訖，執禮率謁 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p>

분향제 의주의 절차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四拜)하고 각기 제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은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執事)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통례문(通禮門)이 배제(陪祭)하는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면, 알자가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대축(大祝)은 궤(櫃)를 열고 대왕 신주(大王神主)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宮闈令)은 궤를 열고 왕후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는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닦으며,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筐]에 담아, 받들어 존소(尊所)에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판서는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에서 나와 판위(版位)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관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여러 관원들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관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내시는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한 내시는 꿇어앉아 쟁반[盤]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가져다 드린다. 전하가 손 닦기를 끝마치면, 내시는 수건을 받아 광주리에 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내시(內侍)와 근시(近侍)가 따라 오른다.】 존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사자는 보자기[褙]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고, 근시는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

向, 西上四拜各就位。 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 執禮曰四拜, 典祀官以下皆四拜。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悅訖, 各就位,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臣入就位, 謁者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大祝開櫃, 捧出大王神主設於座, 覆以白苧巾。 宮闈令開櫃, 捧出王后神主, 設於座, 覆以青苧巾。 執事者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筐, 捧詣尊所, 置於坫上。 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 啓請行禮, 俛伏興。 判通禮導殿下, 出齋殿, 詣版位西向立。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衆官四拜哭, 在位者皆四拜哭盡哀。 【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 詣盥洗位北向立, 內侍跪取匱興沃水, 又內侍跪取盤承水, 殿下盥手。 內侍跪取巾於筐以進, 殿下悅手訖, 內侍受巾奠於筐, 判通禮導殿下, 升自東階, 【內侍、近侍從升】詣尊所西向立, 執尊者舉罍酌鬱鬯, 近侍以瓚受酒。 判通禮導殿下, 入詣靈座前北向立, 啓請跪, 近侍一人捧香合跪進, 近侍一人捧香爐跪進, 判通禮啓請三上香, 近侍奠爐于

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근시가 노(爐)를 안(案)에 올린다. 근시(近侍)가 찬(瓚)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기를 아뢰어 청한다. 끝나치면, 찬을 근시(近侍)에게 준다. 근시는 <찬을> 받아 대축(大祝)에게 준다.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幣籠]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靈座) 앞에 올린다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게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서쪽에서 동향하게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準)한다. 】. 또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동계(東階)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조금 이따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청한다. 대축(大祝)이 고(誥)를 가지고 동향하여 꿇어앉아 읽기를 마치면, 판통례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가 영좌(靈座)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작(爵)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執爵)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근시가 부작(副爵)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는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王后)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

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一人以幣籠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籠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大祝取誥東向跪讀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出戶，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罇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入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捧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少退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謁者引亞獻官，入詣靈座前北向

다. 대축이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 읽기를 마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손을 씻고, 손을 수건으로 닦기를 끝마치게 하고,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찬한다.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분황(焚黃)하라.’ 찬하면, 대축은 고명(誥命)을 【사본(寫本)이다.】 받들어 요소(燎所)에 서서 불사르기를 마친다. 판통례는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여러 관원들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아뢰기를 끝마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가고, 알자는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온다.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나오고, 찬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다시 배위(拜位)로 가면,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신주를 들어 넣기를 평상시의 의식과 같게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온다. 전사관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어 치우고, 축(祝)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대축은 고명(誥命)을 함(函)에 넣어둔다. 여러 관원은 반(班)을 동쪽

立, 贊跪,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靈座前。 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座前。 謁者贊俛伏興少退再拜哭, 引降復位。 謁者引終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執禮贊焚黃, 大祝奉誥命【寫本】立燎所焚訖, 判通禮啓請四拜哭, 殿下四拜哭盡哀。 執禮曰衆官四拜哭, 在位者皆四拜哭盡哀。 禮曹判書跪啓禮畢, 啓訖俛伏興。 判通禮導殿下還齋殿, 謁者引亞終獻官出,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臣出。 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 俱復拜位, 執禮曰四拜, 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 贊引以次引出。 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 四拜而出。 典祀官帥其屬, 徹禮饌, 祝幣瘞於坎, 大祝以誥命納于函藏之。 群官移班近東, 班首進名奉慰。

	<p>가까이 옮기고, 반수(班首)가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한다.” 하였다.</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13日(癸亥) 1번째기사 임금이 사제례 행하고 술과 고기를 금하다</p>	<p>인시(寅時)에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광효전에 나아가고, 사신은 백의(白衣)와 오모(烏帽) 차림으로 친왕(親王)의 예(例)로써 사제례(賜祭禮)를 행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사흘 동안 재계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지 아니한다.】. 그 제문에, “황제는 내관(內官) 유경(劉景)과 예부 낭중(禮部郎中) 양선(楊善)을 보내어, 조선 국왕 이모(李某)의 영(靈)에 유제(諭祭)한다. 오직 왕은 돈후(敦厚) 지성(至誠)하고, 총명(聰明) 현달(賢達)하여, 동토(東土)의 울타리[藩]가 되어 조정을 공경하여 섬겨, 충순(忠順)한 마음이 시종 여일하였다. 지난날에 나이 많다 하여 &lt;국왕의 자리를 내놓고&gt; 집에서 휴양하므로, 오래 수(壽)하여 안영(安榮)하기를 바랐더니, 어찌하여 병에 걸려 덧없이 작고하였는가. 멀리서 부음(訃音)을 듣게 되니, 진실로 슬픔이 깊도다. 이에 특별히 홀전(恤典)을 융숭히 하여 시호를 공정(恭定)이라 내리고, 사신을 보내어 생품(牲品)과 의물(儀物)로 사제(賜祭)하니, 영(靈)이여 얹어 있다면 이 지극한 뜻을 살피라.” 하였다. 양(羊)·시(豕)·계(鷄)·아(鵝)가 각각 두 마리이고, 주면(酒麪)·화과(花果)·의장(儀仗)·백폐(帛幣)·지전(紙錢) 등의 물건이 대단히 많았다. 제사를 마치고 사신은 관(館)으로 돌아가니, 임금이 문밖에서 배송(拜送)하였다. 사시(巳時) 초(初)에 환궁하여 좌의정 이원(李原)에게 명하여 태평관에 나아가 두 사신에게 사례하기를, “대사(大祀)를 이미 행하였으니 온 나라가 감사해 한다.” 고 하였다. 두 사신이 서로 읊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삼가 대사(大祀)를 행함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고, 예식도 허물됨이 없었다.” 하고,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p>	<p>癸亥/寅時, 上率群臣, 詣廣孝殿, 使臣着白衣、烏帽, 以親王之例, 行賜祭禮如儀。【三日齋戒, 不飲酒、食肉。】其祭文: 皇帝遣內官劉景、禮部郎中楊善, 諭祭于朝鮮國王李諱之靈曰: 惟王篤厚至誠, 聰明賢達。 作藩東土, 敬事朝廷。 忠順之心, 終始不替。 頃以年高, 致休於家。 方期壽考, 樂此安榮。 夫何嬰疾, 遽爾長逝? 訃音遠聞, 良深感悼。 茲特隆以恤典, 賜諡曰恭定, 遣使祭以牲品儀物。 靈其有知, 鑑此至意。 羊豕鷄鵝各二, 酒麪、花果、儀仗、帛幣、紙錢等物甚多。 祭畢, 使臣還館, 上拜送于門外, 已初還宮。 命左議政李原, 詣太平館謝兩使臣曰: “大祀已行, 舉國感謝。” 兩使臣相揖語曰: “吾等受帝命而來, 敬行大祀, 無小差謬, 式禮莫愆。” 謂黃喜曰: “副牲羊豕鵝各一, 明日賜賻時, 兼持而去可乎。” 喜曰: “賜賻, 帝賜也。 此兩使之私也, 今日亦可。” 使臣曰: “子言</p>



	<p>“부생(副牲)으로 양(羊)·시(豕)·아(餓)가 각각 한 마리씩 있으니, 내일 사부(賜膊)할 때에 곁하여 가지고 가는 것이 가하겠소.”</p> <p>하니, 희(喜)가 말하기를,  “사부(賜膊)는 황제가 내리는 것이고, 이것은 두 사신이 사사로이 주는 것이니, 오늘이라도 가할 것이다.”</p> <p>하였다. 사신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그대가 즉시 받들어 올리라.”</p> <p>하니, 희가 가지고 가서 임금에게 바치니, 임금이 대답하기를,  “제(帝)의 명을 받들고 와서 지성껏 사흘 동안 제계(齋戒)하여, 술과 고기도 들지 아니하고 공경히 사제(賜祭)를 행하였으니, 황은(皇恩)이 망극하여 감사함이 매우 깊다.”</p> <p>하고, 바로 명하여, 양(羊)과 시(豕)는 전구서(典廐署)에, 당안(唐雁)은 예빈시(禮賓寺)에 내려 기르도록 하였다.</p>	<p>是矣，子即奉進。”喜齋進，上答曰：“奉帝命而來，至誠齋戒三日，不進酒肉，敬行賜祭，皇恩罔極，感謝殊深。”仍命羊豕下典廐署，唐雁下禮賓寺養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6일(병인) 3번째기사  전라도의 실농 백성에게 미곡과 잡곡을 추가급케 하다</p>	<p>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각관(各官)의 실농한 백성에게 식량으로 묵은 쌀과 콩과 잡곡을 합하여 2만 석과 종자용으로 햇콩 5만 석을 더 주게 하소서.”</p> <p>하여,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全羅道監司關啓：“請加給道內各官失農人民口糧，陳米豆、雜穀共二萬石、種子新豆五萬石。”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6일(병인) 4번째기사  서울 인민에게 환상조미를 추가급하다</p>	<p>호조에서 군자감(軍資監)의 첩보에 의하여 계하기를,  “서울 안 각부(各部)와 성(城) 밑 10리 안에 사는 인민에게 환상 조미(還上糙米) 5백 석을 더 지급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軍資監牒啓：“京中各部及城底十里人，加支還上糙米五百石。”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16日(丙寅) 5번째기사 황해도에 환상미를 지 급케 하다</p>	<p>또 황해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 각 관청에 환상(還上)으로 묵은 쌀과 콩을 합하여 7만 석을 더 지급하 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又據黃海道監司關啓：“請加支道內各 官還上陳米豆共七萬石。”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18일(무진) 1번째기사 사은하는 표문</p>	<p>(전략) 방물표(方物表)에 말하기를, “성심(聖心)이 신민(臣民)을 사랑하사, 은혜를 특별히 마지막 길에 높이시니, 낮은 정성이 중심(中心)에서 나오니, 예(禮)는 윗사람을 꾀는 데 더욱 부지런 하여,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5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 흑세마포(黑 細麻布) 10필, 사마겸직포(絲麻兼織布) 20필, 황화석(黃花席) 10장, 만화석(滿 花席)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10장, 인삼(人蔘) 1백 근, 송자(松子) 2백 근, 잡색마(雜色馬) 30필, 위의 물건은 궁벽한 지방에서 생산된 것이며, 제작 도 좋은 솜씨는 아닙니다만 한 지방을 지키는 의례(儀禮)로 변변치 못한 충정 을 포함합니다.” 하고, 전(箋)에 말하기를, “높이 이극(二極)에 거(居)하시어 공손히 밝은 계모(計謨)를 받들어 은혜를 구 중(九重)에서 인도하시어 나오매, 특히 홀전(恤典)을 베푸시니, 충심으로 감사 하여 마치 아니하매, 몸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그웁이 생 각건대, 신은 비운(否運)이 더하여 부왕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시호와 제 사를 내리시어, 예(禮)는 마지막 길에 높이셨고, 부의를 주시어 산 이를 위로 하시니, 어짐은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데 더욱 두터우셨습니다. 지하에서 감사 히 알고, 온 나라가 영광스러움을 같이합니다. 이것은 대개 뜻이 두터우시고, 밝히 도우심에 공이 많습시다. 선부(先父)가 직분을 다함을 기억하시고 소신 (小臣)의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어, &lt;선부의&gt; 무덤으로 하여금 특이한 은택</p>	<p>(전략) 其方物表曰： 聖心字小，恩特隆於示終；卑懇由中， 禮益勤於享上。謹備黃細苧布五十 匹、白細苧布五十匹、黑細麻布十 張、絲麻兼織布二十四、黃花席一十 張、滿花席一十張、雜彩花席一十 張、人蔘一百觔、松子二百觔、雜色 馬三十匹。右件物等，產自僻地，製 匪良工。聊陳執壤之儀，用表獻芹之 志。 箋曰： 尊居二極，祇奉睿謨。恩導九重，特 施恤典。佩銘無已，糜粉難酬。竊念 臣否運所加，嚴顏奄逝。易名賜祀， 禮聿隆於示終；致賻撫存，仁益敦於字 小。九原知感，一國與榮。茲蓋伏遇 志篤順承，功多翼亮。記先父之述職， 憐小臣之茹哀，遂令弊封獲蒙異渥。 臣謹當恪守藩宣之寄，恒申頌禱之誠。</p>

	<p>을 입게 하셨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변방(藩邦)의 부탁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항상 송도(頌禱)하는 정성을 펴려고 하나이다. 삼가 백세저포(白細苧布) 2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0필, 만화석(滿花席) 6장, 잡채화석(雜彩花席) 6장, 인삼(人蔘) 50근, 잣[松子] 백 근, 잡색마(雜色馬) 10필을 올립니다.” 하였다.</p>	<p>謹獻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滿花席六張、雜彩花席六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觔、雜色馬一十匹。</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21日(辛未) 5번째기사 사신에게 석등잔 등의 물품을 주다</p>	<p>조서로(趙瑞老)·원민생(元閔生)을 보내어 석등잔(石燈盞) 각 하나, 여름철 의복 각 한 벌, 세저마포(細苧麻布) 각 20필, 인삼(人蔘) 각 30근, 표지(表紙) 각 10권, 만화침석(滿花寢席) 각 4장, 만화석(滿花席) 각 4장과 회증(回贈)으로 세저마포(細苧麻布) 각 10필을 가지고 가서, 먼저 유경(劉景)에게 주니, 경이 임시로 받았다. 다음에 양선에게 주었는데, 선(善)이 말하기를, “전하(殿下)의 은덕을 받은 것이 이미 두터웠다.” 하며 굳이 사양하니, 조서로·원민생·황희(黃喜)·신상(申商) 등이 다시 청하기를, “이것은 토산물이요, 귀한 물품은 아니며, 다만 전하께서 정성을 표하는 조그마한 예(禮)라 받지 아니할 수 없소.” 하니, 그제야 의복과 석등잔(石燈盞)·인삼(人蔘)은 받고, 그 밖의 물건들은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유경이 양선을 만나 말하기를, “오늘 증여한 것은 받는 것이 가하오.” 하며 의복 한 벌, 인삼(人蔘)·석등잔(石燈盞)과 회증(回贈)으로 저마포(苧麻布)는 받고, 나머지는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두목 세 사람에게는 의복 각 한 벌, 저마포 각 두 필을 주고, 주자(廚子) 두 사람에게는 의복 각 한 벌, 저마포 각 다섯 필을 내리니, 모두 감사히 받고 배사(拜謝)하였다.</p>	<p>遣趙瑞老、元閔生，齎石燈盞各一、夏節衣服各一襲、細苧麻布各二十四、人蔘各三十斤、素紙各十卷、滿花寢席各四張、滿花席各四張、回贈細苧麻布各十四，先贈劉景，景權受之，次贈楊善，善曰：“受殿下之恩已厚。”固辭。趙瑞老、元閔生、黃喜、申商等更請曰：“此是土產，非貴物。第殿下表誠小禮，不可不受。”乃留衣服、石燈盞、人蔘，其他物皆不受。劉景會于楊善曰：“今日贈與一般，取受可也。”乃留衣一襲、人蔘、石燈盞與回贈苧麻布，餘皆不受。賜頭目三人衣各一襲、苧麻布各二匹，廚子二人衣各一襲、苧麻布各五匹，皆感受拜謝。</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4월 25일(을해) 4번째기사</p>	<p>(전략) 의정부와 병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말하기를, “먼저 일에 익은 사람을 아목하(阿木河)에 보내어,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과연 나왔거든 왕지(王旨)로써 일깨우기를, ‘너희들이 먼저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것은 반가우나, 근년에 함길도(咸吉道)가 실농(失農)하여, 국고(國庫)</p>	<p>(전략) 命下議政府、兵曹，議云：“先令練事人送于阿木河，童猛哥帖木兒果若出來，以王旨諭曰：‘汝等還來舊居可喜，然近年咸吉道失農，國庫米豆，</p>

<p>경원에 돌아오려는 도망야인에 대한 계획을 의논케 하다</p>	<p>의 쌀과 콩은 전부 환상(還上)으로 준 까닭에 구제하려고 남은 것은 적고 다만 두(豆)·속(粟)·직(稷)의 종자 30섬과 쌀 20섬으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려는 것이니, 사람을 보내어 받아 가라.’ 하고, 저들이 만일 사은(謝恩)하려고 서울에 들어오기를 청하여도 압래(押來)하기를 5,6인에 지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다시 양목탑울(楊木塔兀)이 옛 경원(慶源)으로 다시 와서 살겠다는 뜻에 대하여 말하기를, ‘본인은 본시 중국에서 거주하던 사람이니, 경내(境內)에 거주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할 것이며, 계속하여 일의 변함을 탐지하여 계달(啓達)할 것입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盡支于還上賑濟，遺在數少，只將豆粟稷種共三十石、米二十石，以補不足，可遣人領受。’ 彼若欲謝恩，請來于京，不過五六人押來。且更言楊木塔兀欲來居古慶源之意則答云：‘本人元是中國居住人，不可許接于境內。’ 續探事變啓達。”</p> <p>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25日(乙亥) 5번째기사 경상도에 미곡 6만 석을 지급하다</p>	<p>호조에서 경상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에서 실농한 백성들이 콩 종자가 부족하니, 6만 석을 내어 주기를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慶尙道監司關啓：“道內失農人民豆種不足，請支六萬石。” 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年) 4월 25일(을해) 6번째기사 개성민에게 환상미를 지급하다</p>	<p>또 유후사(留後司)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사내(司內) 오부(五部)와 속현(屬縣) 개성(開城) 인민의 식량으로 환상미(還上米) 5천 석을 줄 것을 청합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又據留後司關啓：“司內五部及屬縣開城人民口糧，請給還上米五千石。” 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4月 26日(丙子) 3번째기사 첨총제 민심언을 보내</p>	<p>첨총제(僉摠制) 민심언(閔審言)을 보내어 아목하(阿木河)·수주(愁州)·동건(童巾) 등지의 도을한(都乙漢)·자라로(者羅老)·모당합(毛當哈) 등에게 선위(宣慰)하기를, “너희들은 원래 배은(背恩)하여 침범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잡아간 인마(人馬)를 지시하여 찾아 보내게 하니, 특히 술을 주어서 위로한</p>	<p>遣僉摠制閔審言，宣慰阿木河、愁州、童巾等處都乙漢、者羅老、毛當哈等曰：“汝等本不背恩來寇，今又他人虜去人馬，指示刷還，特賜酒以慰之。若畢刷送，尤加賞賚。” 諭里麻安赤、</p>

<p>아목하의 도을한 등 선유하다</p>	<p>다. 만일 전부 돌려보내 준다면 더욱 상을 줄 것이다.”      하였고, 이마안적(里麻安赤)·어허취(於虛取)·야질다(也叱多)·송고로(松古老)·홍소로(洪所老)·안모량합(安毛良哈) 등에게 효유하기를,      “너희들이 처음에는 비록 은덕을 배반하고 와서 도적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전과 같이 귀순(歸順)하여 잡아간 인마(人馬)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술을 주어 위로하는 것이다. 만일 숫자대로 다 돌려보낸다면 전과 같이 완전히 구휼할 것이다.”      라 하였다.</p>	<p>於虛取、也叱多、松古老、(洪所志) [洪所老]、安毛良哈等曰：“汝等初雖背恩來寇，今乃如舊歸順，刷還虜去人馬，茲用賜酒以慰之。若盡數刷送，如舊完恤。”</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7日(丙戌) 1번째기사      예조에서 태종 공정대왕의 연제의주에 대해 아뢰다</p>	<p>(전략) 전사관(典祀官)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축판(祝版)을 영좌(靈座)의 오른편에 올려놓고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幣籠) 둘을 존소(尊所)에 늘어놓는다. 향로·향합·초를 영좌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베풀고, 준(尊)은 지게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罽]을 덮어 놓는데, 북향이면서 서쪽을 위로 한다. 세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놓는데, 쟁반[槃]과 대야[匱]가 있다.】 뇌(壘)는 세(洗)의 동쪽에 놓되, 국자[勺]을 올려 놓는다. 광주리[籠]는 세(洗)의 서남쪽에 벌여놓되, 수건[巾]을 담아놓는다 【만약 작(爵)을 씻는 광주리라면 또한 찬(瓚)이나 작(爵)을 담아놓는다.】. 아헌·중헌의 세(洗)는 또 〈거기서〉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는데, 쟁반과 대야가 있게 된다. 만일 대군(大君) 이하가 아헌이 되면 별설(別說)하지 아니한다.】, 뇌(壘)는 세(洗)의 동쪽에 있는데, 국자를 올려 놓는다. 광주리는 서남쪽에 벌여놓되, 수건[巾]을 담아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광주리라면 작(爵)도 담아 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중헌의 세(洗) 동남쪽으로 북향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인도하여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여</p>	<p>(전략) 典祀官帥其屬，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籠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罽，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槃匱。】壘在洗東加勺，籠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籠則又實以瓚以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亞獻洗有槃匱。若大君以下爲亞獻，則不別設。】壘在洗東加勺，籠在西南，肆實以巾，【若爵之籠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p> <p>時至，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p>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한다.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傳喝)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만일 대군(大君) 이하가 아헌이 되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은 들어와 뿡나무 신주[桑主]의 자리[座]를 영좌(靈座)의 뒤에 설치하고 상주궤(桑主櫃)를 받들어 옮겨 좌(座)에 모시고, 다음에 율주궤(栗主櫃)를 받들어 들어와서, 궤를 열고 율주(栗主)를 받들어 구영좌(舊靈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궁위령(宮闈令)은 궤를 열고 왕후(王后)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집사자는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을 씻고 닦으며,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籠]에 담아서 받들어 준소에 나아가 점(坫) 위에 둔다. 예조 판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아뢰기를 마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판위(版位)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를 가지고 일어나 물을 붓는다. 또 〈한〉 내시는 꿇어앉아 쟁반으로 물을 받고, 전하는 손을 씻는다. 내시가 꿇어앉아 수건을 광주리에서 내어 올리면, 전하는 손을 닦기를 마친다. 내시는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근시와 내시도 따라 오른다.】 준소

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悅訖，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亞獻官，【若大君以下爲亞獻，則謁者引。】謁者引終獻官入就位。大祝入設桑主座於靈座之後，捧桑主櫃，移安於座，次捧栗主櫃入，開櫃捧栗主安於舊靈座，覆以白苧巾。宮闈令開櫃，捧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籠，捧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俛伏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槃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籠以進，殿下悅手訖，內侍受巾奠於籠。判通禮導殿下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冪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

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罽]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른다. 근시는 찬(瓚)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면,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을 세 번 올리라고 아뢰어 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올린다. 근시가 찬(瓚)을 가지고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부으라고 아뢰어 청하고 나서, 찬을 근시에게 주면,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대개 진찬(進瓚)·진폐(進幣)·진향(進香)은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또 근시 한 사람은 폐백 광주리를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이따가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한다. 근시는 작을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올린다. 또 근시는 부작(副爵)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神座) 앞에 올린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으로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은 영좌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어 마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地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

【凡進瓚、進幣、進香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篚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再拜哭，導殿下降自東階復位。

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罽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副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四拜哭，導殿下降復位。知通禮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手帨手訖，知通禮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罽酌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친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는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는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자 앞에 올린다. 또 집사자는 부작(副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좌 앞에 올린다. 지통례가 ‘구부렸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곡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거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오고,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며,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오고, 통례문은 제향에 참석하였던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은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한다.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하고,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은 신주를 들며 넣기를 보통 때 의식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문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본전관(本殿官)은 상주(桑主)를 요여(腰輿)에 받들어 종묘에 나아가 계간(階間)에 묻는다 【《통전(通典)》에 이르기를, ‘묘전(廟殿)의 북렴(北廉) 아래 서계(西階)의 사이라.’ 하였다. 】. 여러 신하는 반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班首)는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한다.”

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知通禮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再拜哭，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啓請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知通禮引亞獻官，謁者引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本殿官以腰輿奉桑主，詣宗廟階間埋之，【通典云：“廟殿北簾下西階之間。”】群臣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



	하였다.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11日(庚寅) 3번째기사 전라도에 환상미곡을 추가 지급하다</p>	<p>호조에서 전라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還上)으로 쌀·콩·잡곡 합하여 2만 석을 더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全羅道監司關啓: “請加支還上米豆、雜穀并二萬石。” 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11일(경인) 4번째기사 사헌부에서 국상기간에 술 마신 이등·홍해옹주의 처벌을 아뢰다</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개성군(開城君) 이등(李登)과 당성군(唐城君) 홍해(洪海) 등 두 옹주(翁主)가, 국상(國喪)과 금주(禁酒)의 시기를 당하여, 신을 섬기는 모임이라 핑계하고 거문고를 타고 술도 마셨으며, 또 이등·홍해 등이 가장(家長)으로서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p>	<p>司憲府啓: “開城君李登、唐城君洪海等兩翁主當國喪及禁酒之時, 稱爲事神聚會, 彈琴飲酒。 且李登、洪海等以家長不禁, 請科罪。” 不允。</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12日(辛卯) 2번째기사 순덕후 진이의 처에게 곡식을 내려주다</p>	<p>순덕후(順德侯) 진이(陳理)의 처 이씨에게 쌀·콩 10석을 내렸다.</p>	<p>賜順德侯陳理妻李氏米豆十石。</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13일(임진) 6번째기사 전라도 감사가 익사 선군에게 부의할 것을</p>	<p>전라도 감사가 계하기를, “법성포 만호(法聖浦萬戶) 이수산(李壽山)과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선군(船軍) 26명에게 각기 부의로 쌀과 콩을 주소서.” 하였다.</p>	<p>全羅道監司啓: “法聖浦萬戶李壽山一時溺死船軍二十六名, 各賻米豆。”</p>

아뢰다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18日(丁酉) 2번째기사 함길도 감사가 요청한 유리 기민의 구제미를 지급케 하다</p>	<p>호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도내의 기민(飢民)과 타도에서 유리하여 들어온 기민이 총 7천 2백 62명이 오니, 청컨대, 구제할 쌀·콩 4백 석을 지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咸吉道監司關啓：“道內飢民及他道流移飢民，總七千二百六十二名。請支賑濟米豆四百石。”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18일(정유) 3번째기사 호조에서 오부의 인민에게 환상미 추가 지급을 청하다</p>	<p>호조에서 군자감(軍資監)의 첩보(牒報)에 의하여 계하기를, “오부(五部)와 성 밑 10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민들에게 환상미(還上米) 4백 석을 더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軍資監牒啓：“請加給五部城底十里人還上米四百石。”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19日(戊戌) 3번째기사 일본국 관서도 원준신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관서도(關西道) 구주부(九州府) 석성(石城) 식부소보(式部小輔) 원준신(源俊臣)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비록 오랫동안 규심(葵心)을 가졌으나, 근성(芹誠)을 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형 원도진(源道鎭)이 교린(交隣)의 의(義)를 굳게 하여 사람을 보내는 데 해를 넘기지 아니하였고, 편지를 보내어 문안하는 데 달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기(同氣)로서 어찌 다른 마음을 갖겠습니까. 바로 행인(行人)을 보내어 답답한 회포를 쏟는 바입니다. 약속한 토산물로서 유황 1천 5백 근, 단목 5백 근, 주봉(朱鋒) 10묶음, 사탕 1백 근, 양강(良薑) 30근, 연철(鉛鐵) 15근, 납촉(蠟燭) 2백 자루, 호초(胡椒) 10근, 다잔(茶盞) 4개, 아불약(阿佛藥) 5근, 적동(赤銅) 3백 근을 보냅니다.” 하니, 예조 참의 성개(成概)에게 명하여 답서(答書)하기를,</p>	<p>日本國關西道九州府石城式部小輔源俊臣使人來獻土宜，修書于禮曹曰：雖久懷葵心，未得投芹誠，何者？余兄源道鎭堅結隣交之義，使令不踰年，音問無虛月。余辱同氣，豈肯異調？遂發行人，以瀉憤悱。不腆土宜：硫黃一千五百斤，丹木五百斤，朱鋒十把，砂燭一百斤，良薑三十斤，鉛鐵十五斤，蠟燭二百挺，胡椒一十斤，茶盞四介，阿佛藥五斤，赤銅三百斤。命禮曹參議成概答書曰：</p>

	“족하(足下)가 영형(令兄)의 좋은 뜻을 이어받아 정성을 표함이 심히 부지런 하도다. 보낸 예물은 삼가 이미 아뢰어 수납하였고, 이제 돌아가는 인편에 토산물로 정포(正布) 4백 필을 부쳐 사례하는 정성을 표하노라.” 하였다.	足下承令兄好意，輸款甚勤，所獻禮物，謹已啓納。今因使回，就付土宜正布四百匹，聊表謝忱。
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25일(갑진) 2번째기사 구주 도원수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유황(硫黃)이 1천 근, 단목(丹木)이 1천 근, 동철(銅鐵)이 2백 근, 대도(大刀) 2자루였다. 회사(回賜)로 정포(正布) 3백 70필, 면주(綿紬) 30필을 주었다.	九州都元帥源義俊使人來獻土物，硫黃一千斤，丹木一千觔，銅鐵二百觔，大刀二把。回賜正布三百七十四、絲紬三十四。
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25日(甲辰) 3번째기사 축주부 석성관사 평만경이 토산물을 바치다	축주부(筑州府)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쳤는데, 유황 2천 5백 근, 단목 5백 근, 사탕(砂糖) 50근, 곽향(藿香) 10근, 동철 2백 근, 황랍(黃蠟) 30근, 파두(巴豆) 10근, 침향(沈香) 2근이다. 회사로 정포 1백 60필, 면주(綿紬) 60필을 주었다.	筑州府石城管事平滿景使人來獻土宜，硫黃二千五百觔，丹木五百觔，砂糖五十觔，藿香一十觔，銅鐵二百觔，黃蠟三十觔，巴豆一十觔，沈香二觔。回賜正布一百六十四、絲紬六十四。
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5月 25日(甲辰) 4번째기사 작주 전 자사 평상가가 토산물을 바치다	작주(作州) 전(前) 자사(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유황 2천 근, 단목 5백 근, 곽향 20근, 감초(甘草)·천궁(川芎)·향백지(香白芷) 각 10근, 소향유(蘇香油) 2근, 광명주(光明朱) 1근, 서각(犀角)·자단(紫檀) 각 1본(本)을 바쳤다. 회사로 정포 1백 40필, 면주(綿紬) 60필을 주었다.	作州前刺史平常嘉使人來獻硫黃二千觔、丹木五百觔、藿香二十觔、甘草·川芎香·白芷各十觔、蘇香油二觔、光明朱一觔、犀角·紫檀各一本，回賜正布一百四十四、絲紬六十四。
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5월 25일(갑진) 5번째기사	구주(九州) 전(前) 총관(總管)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 1천 근, 단목 4백 근, 동철 1천 근, 부채[扇子] 60자루, 서각(犀角) 3본, 소향유(蘇香油) 1근, 곽향(藿香) 20근, 아선약(阿仙藥) 10근을 바쳤다. 회사로 정포 3백 80필을 주었다.	九州前總管源道鎭使人來獻硫黃一千觔、丹木四百觔、銅鐵一千觔、扇子六十把、犀角三本、蘇香油一觔、藿香二十觔、阿仙藥十觔，回賜正布三百

<p>구주 전 총관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p>		<p>八十四。</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6月 3日(壬子) 2번째기사 왜인 등차랑의 모친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왜인(倭人) 등차랑(藤次郎)의 모친이 사람을 보내어, 차랑에게 근친하도록 사가(賜暇)한 것에 사례하고, 겸하여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회사(回賜)로 정포 2백 20필을 주었다. 등차랑도 또한 토산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 2백 필을 주었다. 삼미삼보라(三味三寶羅)도 사람을 시켜 단목(丹木) 3백 근, 유황(硫黃) 1천 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 3백 필을 주었다.</p>	<p>倭人藤次郎母, 使人謝賜暇次郎來觀, 仍獻土宜, 回賜正布二百二十四。 藤次郎亦獻土宜, 回賜正布二百匹。 三味三甫羅使人獻丹木三百觔、硫黃一千斤, 回賜正布三百匹。</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3일(임자) 3번째기사 북경에 가는 사신의 물건 정수를 정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경기·유후사·황해·평안도에서 북경(北京)으로 가는 사신(使臣)에게 사례(私禮)로 주는 물건의 정수(定數)가 없으므로, 혹 많기도 하고, 혹 적기도 하여 불편하오니, 지금부터는 유립모(油笠帽)·납촉(蠟燭)·소도자(小刀子)는 두 가지에 불과하게 할 것이요, 녹비(鹿皮)는 두 장에 불과할 것이며, 도련지(搗練紙)도 세 권에 불과하며, 석등잔(石燈盞)도 한두 번에 불과하게 하고, 인삼(人蔘)·오미자(五味子)·안식향(安息香)도 3근에 불과하며, 잣[松子]은 3, 4두(斗)에 불과하게 하고, 그 나머지 계속하기 어려운 물건과 금물(禁物)은 일절 금할 것이며, 숫자 외로 지나치게 많이 주는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京畿、留後司、黃海、平安道於朝廷使臣處私禮之物, 緣無定數, 或多或小, 似爲不便。 自今油笠帽、蠟燭、小刀子不過二事, 鹿皮不過二張, 搗練紙不過三卷, 石燈盞不過一二事, 人蔘、五味子、安息香不過三觔, 松子不過三四斗, 其餘難繼之物及禁物一禁, 數外濫給者, 論罪。” 從之。</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6月 4日(癸丑) 2번째기사 대마도 화지난쇄무에게 면포 등을 하사하다</p>	<p>대마도(對馬島) 화지난쇄무(和知難灑無)가 피로(被虜)된 당인(唐人) 남삼(藍三) 등 4명을 돌려보내니, 면포(綿布) 40필과 쌀 10석을 주게 하고, 남삼 등에게는 의과(衣袴)와 갓[笠]·신을 주게 하였다.</p>	<p>對馬島和知難灑無刷還被虜唐人藍三等四名, 命賜綿布四十匹、米十石。 賜藍三等衣袴、笠靴。</p>
<p>세종 20권, 5년(1423</p>	<p>호조에서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p>	<p>戶曹據開城留後司關啓: “請加支還上</p>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7일(병진) 2번째기사 호조에 환상미 추가 지급을 청하다	“환상미(還上米)로 6백 석을 더 지급할 것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米六百石。”從之。
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7일(병진) 3번째기사 충청 감사에게 환상미 곡을 지급하다	호조에 충청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還上)으로 쌀과 콩 각 2백 석을 더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쌀과 콩 각 4백 석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戶曹據忠淸道監司關啓：“請加支還上米豆各二百石。”命給米豆各四百石。
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6月 10日(己未) 3번째기사 군자감의 묵은 쌀을 경기도에 추가 지급하 다	호조에서 경기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還上)으로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 2천 석과 유후사(留後司) 창고의 묵은 쌀 1천 석을 더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戶曹據京畿監司關啓：“還上請以軍資監陳米二千石、留後司倉陳米一千石加給。”從之。
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13일(임술) 3번째기사 충청동 환상미곡을 추 가지급하다	호조에서 충청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還上)으로 쌀과 콩 1백 50석을 더 줄 것을 청합니다.” 하니, 쌀과 콩 합하여 6백 석을 주라고 명하였다	戶曹據忠淸道監司關啓：“請加支還上米豆各一百五十石。”命給米豆共六百石。
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람을 보내어 유황 2천 3백 근, 동철(銅鐵) 3백 근, 호초(胡椒) 20근, 봉출(蓬朮) 17근을 바쳤으므로, 예조 좌랑 성엄조(成念	左衛門大郎使人來獻硫黃二千三百觔、銅鐵三百觔、胡椒二十觔、蓬朮

<p>21年) 6月 15日(甲子) 5번째기사 유황·동철 등을 바친 좌위문대랑에게 보내 는 답서</p>	<p>祖)가 답서하기를, “회례사(回禮使)가 돌아갈 때에 바다를 건너는 데 필요한 식량 30석을 회사(回使)에게 주어 가지고 가게 했는데, 회례사가 돌아올 때에 다행히 전하였던가. 전하는 말에, ‘본국 사람으로서 박귀산(朴貴山)·김동(金同) 등이 일찍이 본주(本州) 사람에게 잡혔는데, 족하(足下)에게 팔려 들어가 종이 되어 심부름을 한다.’ 하는데, 그들의 부모가 밤낮으로 울며 생각하고 있으니, 족하는 반드시 귀산과 김동을 돌려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부자와 함께 단란하게 살도록 하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토산물로 정포(正布) 4백 70필을 보내니 받아주기를 바란다.” 하였다.</p>	<p>十七觔。禮曹佐郎成念祖答書曰： 回禮使回程過海糧三十石，授回使前去，回禮使還至幸傳與？有人言本國人朴貴山、金同等曾被本州人虜掠，轉賣于足下，爲奴使喚。其父母日夜涕泣懸望，足下須將貴山、金同發還，俾令父子完聚幸甚。就付土宜正布四百七十匹，領納。</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17일(병인) 5번째기사 알타리 등 4명이 토산 물을 바치다</p>	<p>알타리(斡朶里)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의 관하(管下) 동가오하(童家吾下) 등 네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니,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돌아갈 때 면포(縣布)를 주게 하고, 예조에 명하여 후대하게 하였다.</p>	<p>斡朶里童猛哥帖木兒管下童家吾下等四人來獻土物，命饋之，回賜縣布，仍命禮曹加等厚待。</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6月 21日(庚午) 4번째기사 환상미곡을 개성에 지 급케 하다</p>	<p>호조에서 개성 유후사(開城留後司)의 관문에 의하여 계하기를, “환상(還上)으로 쌀과 콩 각 2백 50석을 더 지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據開城留後司關啓：“請還上米豆各二百五十石加給。”從之。</p>
<p>세종 20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21일(경오) 6번째기사</p>	<p>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시켜 단목(丹木) 1천 근, 유황(硫黃) 1천 9백 근, 향(香) 37근, 동철(銅鐵) 5백 근, 명(皿) 5백 개, 검(劍) 15자루, 서각(犀角) 2개, 상산(常山) 3근, 노감석(爐甘石) 5근, 울금(鬱金) 20근, 필발(華撥) 20근, 진피(陳皮) 5근, 상아향합(象牙香合) 5개, 침향(沈香) 10냥종을 바쳤으므로, 회사</p>	<p>平滿景使人進丹木一千斤、硫黃一千九百斤、香三十七斤、銅鐵五百斤、皿五百箇、劍十五腰、犀角二丁、常山三觔、爐甘石五觔、鬱金二十觔、</p>

<p>평만경이 단목·유황 등을 바치다</p>	<p>(回賜)로 정포(正布) 3백 80필을 내리고,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시켜 단목 1천 근, 감초(甘草) 10근, 유황 3천 근, 부채[扇子] 10자루, 동철(銅鐵) 2백 근, 호초(胡椒) 10근, 침향(沈香) 10근, 대도(大刀) 10자루를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80필을 내렸다.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시켜 동철(銅鐵) 1천 근, 대도(大刀) 15자루, 진피(陳皮) 50근, 주반(朱盤) 50편(片), 소면(素麪) 2백 근, 건매(乾梅) 1천 개, 사탕 50근, 갈분(葛粉) 30근, 유황 2백 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50필을 내렸다. 원준신(源俊信)이 사람을 시켜 동철 6백 근, 단목 1백 근, 반(盤) 50편(片), 대도(大刀) 10자루, 소면(素麪) 1백 근, 갈분(葛粉) 30근, 동와(銅鍋) 10개, 건매(乾梅) 1천 개를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1백 70필을 내렸다. 상가(常嘉)가 사람을 시켜 유황 1천 근, 개(鎧) 1냥쥬, 대도(大刀) 10자루, 소목(蘇木) 5백 근, 동철 1천 근, 납촉(蠟燭) 1백 자루, 기린혈(麒麟血) 5근을 바쳤으므로, 회사로 정포(正布) 3백 70필을 내렸다.</p>	<p>華撥二十觔、陳皮五觔、象牙香合五箇、沈香十兩，回賜正布三百八十四。源道鎭使人進丹木一千觔、甘草一十觔、硫黃三千觔、扇子一十把、銅鐵二百觔、胡椒一十觔、沈香一十斤、大刀一十把，回賜正布三百八十四。源義俊使人進銅鐵一千觔、大刀十五把、長刀五柄、陳皮五十觔、朱盤五十片、素麪二百斤、乾梅一千枚、砂糖五十觔、葛粉三十觔、硫黃二百觔，回賜正布三百五十四。源俊信使人進銅鐵六百觔、丹木一百觔、盤五十片、大刀一十把、素麪一百觔、葛粉三十觔、銅鍋一十口、乾梅一千枚，回賜正布一百七十四。常嘉使人進硫黃一千觔、鎧一兩、大刀子十柄、蘇木五百觔、銅鐵一千觔、蠟燭一百挺、麒麟血五觔，回賜正布三百七十四。</p>
<p>世宗 20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6月 26日(乙亥) 3번째기사 대마주 대관 야마다로 중구가 단목 등을 바치다</p>	<p>대마주 대관(對馬州代官) 야마다로중구(野馬多老重久)가 사람을 보내어 단목(丹木) 1천 2백 근, 동(銅) 5백 20근, 감초(甘草) 15근, 서각(犀角) 3개를 바치니, 회사로 정포(正布) 3백 20필을 주었다.</p>	<p>對馬州代官野馬多老重久使人來獻丹木一千二百觔、銅五百二十觔、甘草十五觔、犀角三箇，回賜正布三百二十四。</p>
<p>세종 20권, 5년(1423</p>	<p>경상도 감사가 보고하기를,</p>	<p>慶尙道監司報：“自願投化倭人平三甫</p>

<p>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6월 27일(병자) 2번째기사 귀화 왜인 평삼보라에게 조애미두를 하사하다</p>	<p>“자원(自願)해서 귀화한 왜인(倭人) 평삼보라(平三甫羅)의 처부(妻父) 전거(全車)가 사망하였으니, 조애미두(助哀米豆) 각 3석을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羅妻父全車物故， 請給助哀米豆各三石。” 從之。</p>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7月 8日(丙戌) 2번째기사 동맹가첩목아에게 잡곡을 주되 절제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다</p>	<p>함길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동맹가첩목아가 먹을 양식을 청하니, 잡곡 1백 석을 주되, 만약 다시 청하면, 위에 아되는 일이 너무 잦아 귀찮다는 것으로 핑계를 삼아, 평상시에 저들을 대접하는 예에 의하여 잡곡·물고기·소금·포물(布物)을 형편에 따라서 보내 주고, 보낸 즉시 사유대로 급히 보고하라.” 고 하였다.</p>	<p>傳旨于咸吉道監司曰：“童猛哥帖木兒乞口糧，其給雜穀一百石。 後若更請，以啓達煩數爲辭， 依常時彼人待接例，雜穀、魚鹽、布物隨宜贈送， 隨即具由馳報。”</p>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7月 9日(丁亥) 1번째기사 범을 잡다 죽은 감사 부사직 신을경에게 부의를 주다</p>	<p>전지하기를, “광주(廣州) 등지에서 범을 잡을 때에 상처를 입어 죽은 감사 부사직(副司直) 신을경(申乙卿) 집에 미두 5석을 부의로 주고, 광주의 관원으로 하여금 장사를 치르고 치제하게 하라.” 고 하였다.</p>	<p>丁亥/傳旨：“廣州等處捉虎時，被傷致死甲士副司直申乙卿家， 給賻米豆五石，令廣州官治葬、致祭。”</p>
<p>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7월 9일(정해) 2번째기사 전 지신사 김익정에게 술을 하사하다</p>	<p>전 지신사 김익정에게 술을 내리었다.</p>	<p>賜前知申事金益精酒。</p>



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7月 11日(己丑)  
3번째기사  
원의준이 예조에 보낸  
서신문

원의준·평만경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었다. 원의준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우리 국왕이 청구한 대장 석전(大藏釋典)을 주심을 보니 은혜롭습니다. <대장석전을> 실은 배가 대마도에서 바로 장문주(長門州)의 적간관(赤間關)에 이르러 닻줄을 매고, 귀조(貴朝)의 사신이 탄 배가 오기를 기다린 지가 이제 며칠이 되었습니다. 금 4월 초 4일에 박성(博城)의 냉천진(冷泉津)에 도착하여 순풍에 아무 탈 없이 곧 서울로 들어갔으니, 추측하건대 전하께서도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의준이 청구한 존경(尊經)도 내려 주시니 너무 기뻐서 발을 구르며 춤이 나와도 모를 지경입니다. 사례하는 뜻에서 조그마한 성의를 표시합니다. 유황 5천 근, 소목 1천 근, 금란 1단, 화단자 1단, 소향유 3근, 서각(犀角) 1본, 갈상(葛箱) 1개, 흑칠상(黑漆箱) 1개, 절(櫛) 10편(片), 초(椒) 10근, 정향피(丁香皮) 10근, 진피(陳皮) 10근, 상아척(象牙尺) 1개, 먹[黑] 1백 정(挺), 담반(淡礬) 1근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에게 명하여 답서하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安好)가 이미 귀하의 관하를 지나갔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3백 필로써 후한 뜻에 사례하오.”  
라고 하였다. 평만경이 예조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  
“귀국의 사신이 타고 온 배가 이달 초 4일에 해안에 도착하니, 우리 임금의 예로써 대접함을 주재하였습니다. 이미 청구한 석전 대장 전부를 주시니,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사오며, 또한 진귀한 물품까지 주시니 우리 임금께서 기뻐하심이 끝이 없었습니다. 다만 인국의 호의(好誼)가 더욱 두터워져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례(薄禮)이나 유황 3천 5백 근, 흑시(黑柿) 90근, 향 25근, 동 5백 근, 연위(練緯) 2필, 납(蠟) 1백 근, 부채[扇子] 20 자루[把], 대도 2자루, 납촉(蠟燭) 3백 정, 견(絹) 2필을 보냅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참의 성개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서에,

源義俊、平滿景等使人來獻土物。 源義俊致書于禮曹曰：  
吾國王所求《大藏》釋典，見賜恩惠。 所載船隻，自對馬直至長門州赤間關繫纜，待貴朝使船，有日于茲。 今四月初四日，到於博城冷泉津，風帆無恙，即日入京。 殿下想是歡喜無量。 義俊所求尊經，曲辱恩賜，權忭之至，不知蹈舞，爲致謝忱，聊表芹誠。 硫黃五千斤，蘇木一千斤，金欄一段，華段子一段，蘇合油三斤，犀角一本，葛箱一箇，黑漆箱一箇，櫛一十片，椒一十斤，丁香皮一十斤，陳皮一十斤，象牙尺一箇，墨一百挺，淡礬一斤。  
命禮曹判書申商答書曰：  
承諭知回禮使安好已經貴管， 慰喜。 土宜正布三百匹，以謝厚意。  
平滿景致書于禮曹曰：  
貴國使船，今月初四日到岸，十日，吾寡君摠管禮接。 既所求釋典《大藏》全部，芳惠無大於此。 又辱珍產之賜，寡君歡喜無量。 茲惟隣好益厚，永世不渝。 薄禮硫黃三千五百斤，黑柿九十斤，香二十五斤，銅五百斤，練緯二匹，蠟一百斤，扇子二十把，大刀二柄，

	“서신을 받아 회례사 안호가 이미 귀국의 경내에 도착하였음을 알았으니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 1백 6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오.” 라고 하였다.	蠟燭三百挺，絹二匹。 禮曹參議成概答書曰： 承書知回禮使安好已到貴境， 慰喜。 姑將土宜正布一百六十四， 付回价。
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7월 14일(임진) 2번째기사 대제학 변계량에게 술 을 내리다	내신을 보내어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에게 소주(燒酒)를 내리었다.	遣內臣， 賜大提學卞季良燒酒。
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7月 26日(甲辰) 2번째기사 순혜 옹주에게 부의를 내리다	순혜 옹주(順惠翁主) 장씨(張氏)에게 종이 80권과 미두 20석을 부의(賻儀)로 내리었다.	賜賻順惠翁主張氏紙八十卷、米豆二十石。
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8월 21일(기사) 4번째기사 사신이 청구한 물품을 각도에 전하여 준비케 하다	교지를 각도에 전하여, 사신이 청구한 물선(物膳)은 풍성하고 깨끗한 것을 준비하여 바치게 하였으니, 전라도는 해채(海菜)와 마른 은구어(銀口魚)·마른 송이(松茸)요, 경상도·함길도는 해채·마른 연어(連魚)·마른 은구어·마른 송이·마른 문어(文魚)요, 유후사(留後司)와 경기·충청도는 마른 송이요, 강원도 해채·마른 연어·마른 송이·마른 문어이다.	傳旨于各道：“使臣求請物膳， 豐潔備辦來進。 全羅道海菜、乾銀口魚、乾松茸， 慶尙道、咸吉道海菜、乾連魚、乾銀口魚、乾松茸、乾文魚， 留後司及京畿、忠清道乾松茸， 江原道海菜、乾連魚、乾松茸、乾文魚。”
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8月 23日(辛未)	김용기(金龍奇)를 보내어 송이(松茸) 한 합(榘)과 연어(連魚) 알젓 한 항아리를 사신하게 증정하였다.	辛未/遣金龍奇， 贈松茸一榘、連魚卵醢一缸于使臣。

<p>1번째기사 사신에게 송이·연어알 젓을 증정하다</p>		
<p>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8월 27일(을해) 1번째기사 북경에 보내는 사은 표문와 전문</p>	<p>(전략) 삼가 안자(鞍子) 두 면(面)에 밀치[鞞]·고삐·말다래·등자[鐙]·피체(皮替)·한체(汗替)·안룡(鞍籠)·채찍 등을 갖춘 것과 황백 세저포(黃白細苧布) 각 5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2백 50필, 세주(細紬) 30필, 황화석(黃花席) 40장(張), 만화석(滿花席)·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렴석(滿花簾席)·잡채화석(雜彩花席) 각 20장(張), 인삼(人蔘)·잣[松子] 각 2백 근, 오미자(五味子) 50근, 석등잔(石燈盞) 6개[事], 잡색마(雜色馬) 50필을 드립니다.” 라고 하였다. 전(箋)에는, “위(位)는 세자로 높아 비밀히 예모(睿謨)를 돕고, 은혜는 중신(中宸)에 인도되어 해요(海徼)762) 에까지 베풀어졌습니다. 몸을 어루만져 감격함을 알게 되니 뼈에 새겨 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히 천박한 재주로 좋은 운수를 만나, 멀리 동표(東表)에 있으면서 외람히 모토(茅土)를 나누는 충애를 입었으며, 북신(北宸) 을 바라보면서 감히 세자(世子) 세우는 것을 진청(陳請)하였사온바, 어찌 사신을 보내어 특별히 운명(綸命)을 내리심을 기대하였겠습니까. 황제의 훈계가 심히 밝으니 나라의 근본이 더욱 공고(鞏固)하여졌습니다. 더구나, 찬란한 화은(花銀)을 내리시고, 채백(綵帛)의 인은(氤氳)함을 더하시니, 경사는 종방(宗祫) 에까지 미치고, 기쁨은 신서(臣庶)를 뛰놀게 하였습니다. 삼가 영자(英姿)가 옥처럼 부드럽고, 위량(偉量)이 못처럼 깊어서, 마음은 항상 회수(懷綏)하는 데 돈독하고, 공은 더욱 보필(輔弼)하는 데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폐방(幣邦)으로 하여금 거듭 큰 사정(私情)을 입게 하여, 신이 제잠(鯤岑)765) 에서 길이 번국(藩國)이 되고, 학금(鶴禁) 에서 항상 축원하게 되었습니다. 삼가 백색 세저포(細苧布) 50필, 흑색 세마포 1백 필, 세주(細紬) 10필, 인삼(人蔘)·잣[松子] 각 1백 근, 만화석(滿花席)·만화방</p>	<p>(전략) 謹獻鞍子二面, 鞞轡鞞鐙、皮替、汗替、鞍籠、鞭子俱全, 黃白細苧布各五十四、黑細麻布二百五十四、細紬三十四, 黃花席四十張、滿花席·滿花方席·滿花簾席·雜彩花席各二十張、人蔘·松子各二百觔、五味子五十觔、石燈盞六事、雜色馬五十匹。 箋曰: 位尊貳極, 密裨睿謨。 恩導中宸, 覃霑海徼。 撫躬知感, 銘骨何忘? 伏念, 臣猥將譴材, 端逢熙運。 邈居東表, 叨襲寵於分茅; 顛望北宸, 敢陳請於樹嫡。 何期使華之至, 特承綸命之頒? 聖訓孔昭, 邦本彌鞏。 且賜花銀之燦爛, 仍加綵帛之氤氳。 慶延宗祫, 歡騰臣庶。 茲蓋伏遇英姿玉裕, 偉量淵沖。 心常篤於懷綏, 功益隆於翼亮。 遂令弊服, 荐荷洪私。 臣謹當永作藩於鯤岑, 恒申祝於鶴禁。 謹獻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一百匹、細紬一十四、人蔘·松子各一百觔、滿花席</p>

	<p>석(滿花方席)·잡채화석(雜彩花席) 각 10장(張), 석등잔(石燈盞) 3개[事], 잡색마(雜色馬) 6필을 바칩니다.”</p> <p>라고 하였다. 주본(奏本)에는,  “영락 21년 8월 18일 흠차 소감 해수가 본국에 도착하여 칙유(勅諭)를 전했는데, 그 절목(節目)에 왕은 곧 말 1만 필을 뽑아 바쳐서 국용(國用)을 도우라고 하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어 힘을 다하여 조판(措辦)해서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p> <p>라고 하였다.</p>	<p>· 滿花方席 · 雜彩花席 各一十張、石燈盞三事、雜色馬六匹。</p> <p>奏本曰：  永樂二十一年八月十八日，欽差少監海壽到國，欽蒙勅諭節該：“王卽選取馬一萬匹來進，以資國用。”欽此。 臣敢不欽承？儘力措辦以進。</p>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9月 3日(辛巳) 2번째기사  사신에게 흑세마포 등을 증명하다</p>	<p>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를 보내어 두 사신에게 각기 흑세마포 20필, 백세저포 20필, 인삼 30근, 만화방석(滿花方席) 6장(張), 만화침석(滿花寢席) 6장, 석등잔(石燈盞) 1개, 겨울옷 한 벌, 초구(貂裘)·초관(貂冠)·이엄(耳掩)·호슬(護膝)·화투(靴套)를 증명하고, 두목(頭目) 24명에게 각기 저포(苧布)·마포(麻布) 각 2필, 옷 한 벌, 모관(毛冠)·화투(靴套)를 증명하였다.</p>	<p>遣知申事趙瑞老，贈兩使臣各黑細麻布二十匹、白細苧布二十匹、人蔘三十斤、滿花方席六張、滿花寢席六張、石燈盞一事、冬衣一襲、貂裘、貂冠、耳掩、護膝、靴套，頭目二十四各苧麻布各二匹、衣一領、毛冠、靴套。</p>
<p>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9월 16일(갑오) 2번째기사  일본국 구주도원수 원의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구주 도원수(九州都元帥) 원의준(源義俊)과 미작 태수(美作太守) 평상가(平常嘉) 등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원의준에게는 정포(正布) 1백 40필을, 평상가에게는 1백 5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日本國九州都元帥源義俊、美作太守平常嘉等使人獻土物，回賜源義俊正布一百四十匹，平常嘉一百五十匹。</p>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9月 16日(甲午)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의창(義倉)은 진제(賑濟)와 환상(還上)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고, 국고(國庫)는 곧 군국(軍國)의 수용(需用)에 대비(對備)한 것입니다. 근년 이후로 여러 번 흉년이 들어, 모든 백성의 생활이 오로지 진제(賑濟)와 환상(還上)만 바라</p>	<p>戶曹啓：“義倉爲賑濟還上而設，國庫乃軍國之需，近年以來，屢致凶荒，凡民之生，專仰賑濟還上。緣此義倉不敷，不得已以國庫支給救恤，軍需漸至</p>

호조에서 의창제도의  
건설한 운영책에 대해  
건의하다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의창(義倉)이 넉넉지 못하므로, 부득이 국고(國庫)로 지급(支給) 구휼(救恤)하게 되매, 군수(軍需)가 점차로 거의 없어지게 되니 진실로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청컨대, 임인년과 계묘년의 흉년에 각도의 환상(還上)·진제(賑濟)에서 급여한 원수(元數)와 기축년에 장부에 올린 민호(民戶)의 수를 작량(酌量)하여 국고(國庫)에서 덜어내어 의창(義倉)에 보침(補添)하되, 환상 진제할 때를 당하여는 오로지 의창(義倉) 것만으로 지급(支給)하고, 국고(國庫)의 것은 경솔히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군수(軍需)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의창에 보침(補添)할 정수(定數)는 서울의 민호(民戶) 1만 1천 56호(戶)에 의창(義倉)의 미두(米豆)·잡곡(雜穀)이 모두 7천 1백 98석이고, 유후사(留後司)의 의창(義倉) 곡식이 1만 석이요, 경기의 만호 1만 9천 6백 27호에 의창의 곡식이 13만 43석이요, 경상도의 민호 4만 3천 2백 84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7백 43석이요, 충청도의 민호 2만 3천 98호에 의창의 곡식이 17만 9천 5백 56석이요, 전라도의 민호 1만 5천 9백 23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7천 1백 25석이요, 황해도의 민호 1만 7천 7백 1호에 의창의 곡식이 10만 6천 4백 77석이요, 강원도의 민호 1만 5천 2백 90호에 의창의 곡식이 8만 8천 11석이요, 평안도의 민호 3만 4천 6백 9호에 의창의 곡식이 20만 6천 4백석이요, 함길도의 민호 1만 6천 7백 87호에 의창의 곡식이 5만 4천 62석입니다. 신축년 이상의 국고(國庫)에서 받아 낸 환상(還上)은 의창(義倉)에 수납(收納)하여 보침(補添)하고, 만약 신축년 이상의 환상(還上)이 없으면 각 고을에서 임인년의 환상으로 의창(義倉)에 수납하여 숫자를 보침할 것이며, 또 주문공(朱文公)의 사창모미(社倉耗米)의 법에 의하여 매 1석마다 각기 3승(升)씩 더 수납하여 후일의 모손(耗損)에 대비(對備)하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殆盡，誠爲可慮。請將壬寅、癸卯儉年各道還上賑濟所給元數及己丑年付籍民戶之數，酌量除出國庫，以添義倉，當還上賑濟時，專以義倉支給，國庫毋令輕支，以備軍需。其義倉補添定數，京中民戶一萬一千五十六，義倉米豆雜穀并七千一百九十八石。留後司，義倉一萬石。京畿民戶一萬九千六百二十七，義倉十三萬四十三石。慶尙道民戶四萬三千二百八十四，義倉二十萬七百四十三石。忠清道民戶二萬三千九十八，義倉十七萬九千五百五十六石。全羅道民戶一萬五千九百二十三，義倉八萬七千一百二十五石。黃海道民戶一萬七千七百一，義倉十萬六千四百七十七石。江原道民戶一萬五千二百九十，義倉八萬八千十一石。平安道民戶三萬四千六百九，義倉二十萬六千四百石。咸吉道民戶一萬六千七百八十七，義倉五萬四千六十二石。其辛丑年以上國庫受出還上，令收納義倉補添，如無辛丑年以上還上各官，以壬寅年還上收納義倉添數。又依朱文公社倉耗米之法，每一石各三升加收納，以備後日耗損。”從之。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9月 18日(丙申) 2번째기사</p> <p>일본 전 총관 원도진이 대장경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p>	<p>일본 구주(九州) 전 총관(總管) 원도진(源道鎭)과 축주부(筑州府)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원도진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p> <p>“우리 전하께서 전년에 대장경(大藏經)을 구하니, 귀국(貴國)에서 즉시 보내주신 은혜를 베푸셨으며, 또 내 자식 의준(義俊)이 존경(尊經)을 구할 때에도 역시 보내주신 은혜를 반자와 요행함이 지극하매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회례사(回禮使)는 4월 4일에 축주(筑州) 석성(石城)의 냉천진(冷泉津)에 닿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예(禮)는 별록(別錄)에 기록돼 있습니다. 부채[扇子] 1백 50자루[把], 연위(練緯) 2필, 서각(犀角) 2(本), 토황(土黃) 10근, 금란(金欄) 1단(段), 기린혈(麒麟血) 1근 반, 진피(陳皮) 1백 근, 정향(丁香) 5근 반, 초과(草菓) 10근, 사(紗) 2필, 황금(黃金) 10근, 곽향(藿香) 30근, 소향유(蘇香油) 5근, 동(銅) 5백 근, 소목(蘇木) 1천 근, 유황(硫黃) 6백 근을 바칩니다.”</p> <p>라고 하였다. 예조 관서 신상(申商)에게 명하여 서신에 답하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p> <p>“바친 예물(禮物)은 삼가 위에 아뢰어 수납(收納)하였는데, 인하여 회례사(回禮使)가 이미 냉천진(冷泉津)에 도착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니 매우 기쁘오. 토산물인 정포(正布) 6백 80필을 수납(收納)하시오.”</p> <p>라고 하였다. 평만경(平滿景)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p> <p>“우리 나라 장주(長州) 사람 수좌근(鬚左近)이 대국(大國)의 기내(畿內)에 기우(寄寓)했는데, 전해 듣건대, 귀양을 가서 황복(荒服)770)에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곳에 노모(老母)가 있어 본주(本州)에 사는데,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으며, 밤낮으로 슬피 울어 밥 먹는 것까지 잊고 있으니, 삼가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장주(長州)와 구주(九州)는 심히 가까우므로, 그 친족이 여러 번 와서 슬피 호소하여, 제가 그 정경(情景)을 견딜 수 없으므로 구구한 말로써 알리오니 삼가 위에 아뢰기를 원합니다. 토산물은 연위(練緯) 2필, 연(鉛) 50근,</p>	<p>日本九州前總管源道鎭、筑州府石城管事平滿景等使人獻土物。源道鎭奉書于禮曹，其書曰：</p> <p>吾殿下前年求《大藏經》，貴國即見恩惠。又愚息義俊求尊經，同辱厚惠，僥倖之至，得罪得罪。回禮使四月四日到筑州石城冷泉津。薄禮在別錄：扇子百五十把，練緯二匹，犀角二本，土黃十斤，金欄一段，麒麟血一斤半，陳皮百斤，丁香五斤半，草菓十斤，紗二匹，黃芩十斤，藿香三十斤，蘇合油五斤，銅五百斤，蘇木一千斤，硫黃六百斤。</p> <p>命禮曹判書申商答書曰：</p> <p>所獻禮物，謹啓收納。仍知回禮使船已到冷泉津，欣喜。土宜正布六百八十四匹領納。</p> <p>平滿景奉書于禮曹，其書曰：</p> <p>吾國長州人鬚左近寄寓大國畿內，傳聞被謫在于荒服。此有一老母在于本州，年既邁耄，晝夜悲泣忘食，伏請見還。長州與九州隣甚，其族屢來哀訴，余不勝其情，故告以區區，伏乞啓達。土宜練緯二匹，鉛五十斤，蘇木一千斤，銅五百斤，縮砂十斤，獐腦〔樟腦〕五</p>
--	---	---

	<p>소목(蘇木) 1천 근, 동(銅) 5백 근, 축사(縮砂) 10근, 장뇌(樟腦) 5근, 침향(沈香) 5근, 화분(禾盆) 2편(片)을 바칩니다.”</p> <p>라고 하였다. 예조 좌랑 성엄조(成念祖)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답한 서신에, “말한바 수좌근(鬚左近)이 죄를 입어 외방(外方)에 귀양가서 있다고 한 것은 감히 아뢰어 조실(照悉)하지 못하오. 토산물인 정포(正布) 4백 40필을 수납(受納)하시오.”</p> <p>라고 하였다.</p>	<p>斤, 沈香五斤, 朱盆二片。</p> <p>禮曹佐郎成念祖答書曰： 所諭鬚左近被罪， 謫在外方， 未敢稟啓， 照悉。 土宜正布四百四十匹領納。</p>
<p>세종 21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9월 24일(임인) 4번째기사 일본 축전주 태수 등 원만정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축전주 태수(筑前州太守) 등원만정(藤源滿貞)과 그 막하(幕下)인 비주자사(備州刺史) 지상 대장씨종(砥上大藏氏種)과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등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다. 만정(滿貞)이 예조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 “본조(本朝)에서 귀국(貴國)에 사신을 보냈는데, 답례(答禮)하는 전사(專使)가 4월 4일에 석성(石城)의 나루에 이르러, 드디어 재부(宰府)의 사제(私第)에 오시어 글을 내려 관선(官船)으로 호송(護送)하라는 일을 알리니, 어찌 감히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까. 관선(官船)이 조회하는 날에 사례하여, 답하는 정성을 쓰겠습니다. 먼저 서신과 방물(方物)을 바쳐 바닷 길에 탈이 없는 경사를 보이오니, 하정(下情)이 자세히 도달되어 들리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유황(硫黃) 2천 5백 근, 단목(丹木) 4천 5백 근, 청자분(靑磁盆) 70개, 백자완(白磁碗) 크고 작은 것 20개, 양향(良香) 13근, 진피(陳皮) 16근, 정향피(丁香皮) 65근, 베투[硯] 2개, 금화수첩(金畫手篋) 1개, 화근(火筋) 2쌍, 의상(倚箱) 1개, 부태상(付太箱) 화근(火筋) 2쌍, 패도(佩刀) 5개, 동(銅) 1백 50근을 바칩니다.”</p> <p>라고 하였다. 예조 참의 성개(成概)가 그 서신을 답하였는데, 그 서신에, “바친바 예물(禮物)은 삼가 이미 수납(收納)하였소. 아울러 회례사(回禮使)의 배가 석성(石城)의 나루에 이르렀는데 관선(官船)을 내어 호송(護送)한다고 말하니 감사합니다. 지금 토산물인 정포(正布) 1천 6백 50필로써 성의를 표시하</p>	<p>日本國筑前州太守(藤源滿貞) [藤源滿貞] 及其幕下備州刺史砥上大藏氏種、左衛門大郎等使人獻土物。 滿貞奉書于禮曹曰： 本朝行聘於貴國， 答聘之專价， 四月四日到石城之津， 遂枉騶駕於宰府之私第。 賜書告以官船護送之事， 豈敢不奉命哉？ 官船歸朝之日， 可致謝答之忱焉。 先奉書并方物， 聊申海路無恙之慶耳。 下情得備達明聞則是幸。 硫黃二千五百斤， 丹木四千五百斤， 靑磁盆七十箇， 白磁碗大小二十箇， 良香十三斤， 陳皮十六斤， 丁香皮六十五斤， 硯二枚， 金畫手篋一箇， 火筋二雙， 倚箱一箇， 付太箱火筋二雙， 佩刀五腰， 銅一百五十斤。</p> <p>禮曹參議成概答書曰： 所獻禮物， 謹已收納。 并諭回禮使船</p>

오나, 변변치 못하여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였다. 대장씨종(大藏氏種)이 예조에 서신을 바쳤는데, 그 서신에,  
 “제가 귀국(貴國) 풍화(風化)의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돌보아 생각하여 마지  
 않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군(寡君)이 저로 하여금 본주(本州)의  
 크고 작은 정사(政事)를 모의(謀議)하게 하므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편안히 거처할 여가가 없었으니, 이런 까닭으로 능히 예(禮)를 따라 어리석은  
 정성으로 문안(問安)하지 못하고 천 리 밖에서 한갓 우러러보는 마음만 쓸 뿐  
 입니다. 방금 과군(寡君)이 귀국에 사신을 보내어 예물(禮物)을 교환하오니,  
 제가 진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변변치 못한 토산물인 단목(丹木) 4백 근, 유  
 황(硫黃) 4백 근, 장도(長刀) 4자루, 곽향(藿香) 8근, 주석[錫] 27근, 주완(朱  
 腕) 70개, 패도(佩刀) 4개로써 성의를 표합니다.”

라고 하였다. 예조 좌랑 성염조(成念祖)가 서신에 답했는데, 그 서신에,  
 “태수(太守)를 따라 성심을 다하여 수호(修好)하니, 진실로 기쁘게 생각하오.  
 바친바 예물(禮物)은 위에 아뢰어 수납(收納)하도록 하였소. 인하여 토산물인  
 정포(正布) 1백 5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쳐 보내오.”

라고 하였다. 대랑(大郎)은 서신과 함께 토산물인 단목(丹木) 3백 근, 호초(胡  
 椒) 1백 10근, 유황(硫黃) 1천 근, 빈랑자(檳榔子) 50근, 연소(鉛燒) 8근을 바  
 쳤다. 예조 좌랑 성염조가 이에 답서(答書)하기를,  
 “바친바 예물(禮物)은 위에 아뢰어 수납(收納)하도록 하였소. 전자에 회례사  
 (回禮使)에게 과해량미(過海糧米) 30석을 전인(專人)으로 전해 보냈음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오. 지금 또 양미(糧米) 1백 석을 귀국 사신에게 부쳐 보내어  
 회례사(回禮使)에게 전해 주기를 희망하오. 토산물인 정포(正布) 1백 80필을  
 영수(領受)하기 바라오.”

라고 하였다.

到石城之津，撥官船護送，爲感爲謝。  
 今將土宜正布一千六百五十四表意，惟  
 不腆是愧。  
 大藏氏種奉書于禮曹曰：  
 僕聞貴國風化之美，而眷慮不已者久  
 矣。然寡君使與謀本州大小之政事，  
 夙夜靡遑寧處，以故未能循禮問，獻愚  
 懇，千里之外，徒馳仰而已。方今寡  
 君行聘於貴國，僕固所願也。不腆土  
 宜，丹木四百斤、硫黃四百斤、長刀四  
 把、藿香八斤、錫二十七斤、朱腕七  
 十箇、佩刀四腰表誠。  
 禮曹佐郎成念祖答書曰：  
 能從太守，輸誠修好，良用爲喜。所  
 獻禮物，轉啓收納。仍將土宜正布一  
 百五十四，就付回价。  
 大郎修書，仍獻土物，丹木三百斤、胡  
 椒一百十斤、硫黃一千斤、檳榔子五  
 十斤、鉛燒八斤。禮曹佐郎成念祖答  
 書曰：  
 所獻禮物，轉啓收納。前者回禮使處  
 過海糧米三十石，專人傳送，喜喜。  
 今又將糧米一百石，付貴价送去，希回  
 禮使處傳送。土宜正布一百八十四照  
 領。



<p>世宗 21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9月 26日(甲辰) 2번째기사</p> <p>뇌물을 쓴 의주 목사 김을신 등을 핵문케 하다</p>	<p>의금부에서 계하기를,  “의주 목사(義州牧使) 김을신(金乙辛)·판관(判官) 최윤복(崔閏福)이 관청 안에 있는 노루·사슴의 가죽과 살코기를 가지고 서울과 지방의 여러 곳에 뇌물로 쓰고, 또 졸곡(卒哭) 전에 고기를 서로 증정하였으니, 청컨대, 형률에 의하여 죄를 과(科)하되, 그 뇌물로 쓴 물건은 추징(追徵)하여 관청에 몰수하고, 증정을 받은 각 사람도 모두 핵문(劾問)하소서.”</p> <p>하니, 을신(乙辛)과 윤복(閏福)은 형률에 의하여 아뢰게 하고, 그 뇌물을 받은 자는 논죄(論罪)하지 말도록 하였다. 본부(本府)에서 형률을 상고하여 계하기를,  “을신이 관청 안의 가죽과 살코기를 여러 곳에 뇌물로 쓴 죄는, 합계하면 장물(贓物)이 1백 89관(貫)이니, 사사ροι 전량(錢糧)을 빌려준 율(律)로써 참형(斬刑)에 처할 것이며, 윤복(閏福)은 합계한 장물(贓物)이 13관(貫)이니, 감수(監守)가 스스로 도적질한 율(律)로 곤장 80대를 치고 도형(徒刑) 2년에 자자(刺字)에 처할 것입니다.”</p> <p>라고 하니, 명하여 을신은 원종 공신(元從功臣)이고, 윤복은 공신의 아들이므로, 다만 직첩(職牒)만 회수하고 원방(遠方)에 부처(付處)하도록 하여, 을신은 경상도의 안음(安陰)으로 귀양보내고, 윤복은 장기(長鬐)로 귀양보냈으며, 그 뇌물로 쓴 물건은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추징(追徵)하도록 하였다.</p>	<p>義禁府啓: “義州牧使金乙辛、判官崔閏福將官中獐鹿皮肉, 賄賂京外各處, 且卒哭前以肉相贈。 請依律文科罪, 其行賄之物, 追徵沒官, 受贈各人, 竝皆劾問。” 命: “乙辛、閏福照津〔照律〕以聞, 其受贈者勿論。” 本府照律啓: “乙辛將官中皮肉, 各處賄賂罪, 計贓一百八十九貫, 以私借錢糧, 律斬。 閏福計贓十三貫, 以監守自盜律, 杖八十, 徒二年, 刺字。” 命乙辛元從功臣, 閏福功臣之子, 止收職牒, 遠方付處。 乙辛配於慶尙道安陰, 閏福配於長鬐, 其賄賂之物, 令漢城府追徵。</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0月 3日(庚戌) 2번째기사</p> <p>예조에서 명나라 사신에게 지응하는 폐단 시정조건을 아뢰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명나라 사신에게 지응(支應)하는 폐단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1. 서울 및 평양(平壤)·황주(黃州)·유후사(留後司)의 연탁(宴卓)에만 사화봉(絲花鳳)772) 을 쓰게 하고, 그 외 각도 각 고을에서는 나화(羅花)를 쓴다.  1. 숙소(宿所)에서 하는 잔치와 주정(晝停)773) 에서의 연회 음식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 그 숙소에 있어서는 전례에 의하여 외탁(外卓)에는 유밀과(油密果) 너 줄을 쓰고, 내탁(內卓)에는 어육과 채과(菜果)를 섞어서 쓰며, 주정</p>	<p>禮曹啓朝廷使臣支應除弊條件:  一, 京中及平壤、黃州、留後司宴卓, 用絲花鳳外, 各道各官皆用羅花。 一, 宿所及晝停宴享, 不可如一。 其宿所則依前例, 外卓用油蜜果四行, 內卓雜用魚肉、菜果。 晝停則依京中晝奉杯例, 一卓, 四行, 外行用油行果, 內三</p>

	<p>에 있어서는 서울에서의 주봉배례(晝奉杯例)에 의하여 한 탁자에 너 줄을 배설(排設)하되, 바깥 줄에는 유밀과를 쓰고, 안으로 석 줄은 어육과 채과를 섞어서 쓴다.</p> <p>1. 태평관(太平館)과 경과하는 각 고을과 각 참(站)의 청당(廳堂)과 방사(房舍)의 도배는 모두 주지(奏紙)를 쓰고, 창문에는 하급품의 도련지(擣鍊紙)를 쓴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行雜用魚肉、菜果。一，太平館及所過各官、各站廳堂房舍塗壁，皆用奏紙，窓戶用下品擣鍊紙。從之。</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4일(신해) 2번째기사 대마주 태수 종정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성(宗貞盛)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예조에 글을 보내기를,</p> <p>“귀국의 성덕 신공 태상 태종 전하(聖德神功太上太宗殿下)께옵서 지난해 승하 하옵신 날에는, 하늘과 땅이 막히고 멀어서 번번히 못한 말로 슬픈 뜻을 드리 지 못하였더니, 금월에 보내신 사절이 이르러, 저의 선고(先考)775)가 죽은 것을 집행(執問)하심을 살펴서 알았으므로, 마음속으로 해가 목은 남은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나이다. 보시고 살피시기 바랍니다. 향(香) 7근(斤), 기린혈(麒麟血) 13근, 빈랑(檳榔) 1백 26근, 단목(丹木) 3백 70근을 예물로 올립니다.”</p> <p>하였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성개(成概)에게 명하여 답서하기를,</p> <p>“서간이 이르니, 비로소 족하가 선대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진달하니 자못 감사하오. 헌납한 제사에, 쓸 물자는 삼가 계주하여 수납되었소. 토산물로서 정포(正布) 2백 50필을 회환하는 사신에게 부치는 바시오.”</p> <p>하였다. 정성이 또 글을 올리기를,</p> <p>“공경히 생각하옵건대, ‘귀국 성황께옵서 왕위에 오르시니, 하정(下情)에 경사스럽고 기쁨이 무궁하옵니다. 하늘과 더불어 덕을 합하신 운수가 널리 먼 변방의 백성에게까지 미치심을 경건히 축하하오며, 폐읍(弊邑)의 산물은 별지[別幅]에 갖추어 올리나이다. 호초(胡椒) 1백 근, 용뇌(龍腦) 1근 4냥쫘[兩], 청</p>	<p>對馬州太守宗貞盛使人來獻土物，致書于禮曹曰：</p> <p>貴國聖德神功太上太宗殿下去歲游雲之日，以霄壤阻遠，不致薦悼蕪辭，今月專价至，得審知。以我先考執問，故中腸不勝宿草之餘哀，冀照。香七斤，麒麟血十三斤，檳榔百二十六斤，丹木三百七十斤。</p> <p>命禮曹參議成概復書曰：</p> <p>書至，乃知足下繼承先志，專人陳慰，良用爲感。所獻供祭之資，謹啓收納。土宜正布二百五十匹，就付回价。</p> <p>貞盛又致書曰：</p> <p>欽惟貴國聖皇踐阼，下情慶忭無窮。虔賀配天之運，普及遠裔之民。弊邑產物，具在別幅。胡椒一百斤，龍腦一斤四兩，青沙檿四十四箇，青沙桶一</p>

	<p>사반(靑沙槃) 44개, 청사통(靑沙桶) 1개, 등(藤) 1백 82본입니다.”      하였다. 정포(正布) 1백 7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정성은 정무(貞茂)의 아들이다.</p>	<p>箇, 藤一百八十二本。      回賜正布一百七十四。 貞盛, 貞茂之子也。</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8일(을묘)      5번째기사      예조에서 상제의 절문을      고쳐 의정하여 아      띠다</p>	<p>예조에서 상제(喪祭)의 절문(節文)을 고쳐 의정(議定)하여 계하기를,      “1. 옛날 제도에, ‘천자는 3일 만에 소렴(小斂)하고, 7일 만에 대렴(大斂)하여 빈(殯)한다.’ 하였고, ‘제후(諸侯)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 하였으며, ‘대부(大夫)와 사(士)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여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엄하고 빈하는 날수는, 지위가 높은 자는 더디고, 낮은 자는 속히 하는 것이, 본디 정한 제도가 있어 앞당기고 물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태종 대왕 초상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3일에 있었고, 제5일에 이르러 수강궁으로 옮겨 빈하였으니, 이것은 그 때의 일기가 더웠기 때문에 권도(權道)를 좇았을 따름이요, 상례의 떳떳한 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번 의궤(儀軌)내에는 한결같이 고례(古禮)를 좇아서 제5일에 대렴하고 빈하는 것으로 실어서 기록하였습니다.</p> <p>1.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하면, ‘주제(周制)에 대상(大喪)776) 에 봉인(封人)777) 이 그 우생(牛牲)778) 을 깨끗이 차려 놓고, 조석전(朝夕奠)에는 포(脯)와 해(醢)를 쓰며, 초하룻날과 보름날과 조전(祖奠)과 대건(大遣) 등의 전(奠)에는 모뢰(牡牢)779) 를 쓴다.’ 하였고, 문공(文公)780) 의 《가례》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소과(蔬果)와 포·해를 쓰며, 삭망(朔望)에는 여러 가지 찬품(饌品)을 갖춘다.’ 하였으니, 그 조석과 삭망전의 찬의 품목이 융숭하고 감쇄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태조의 초상에는 조석전이 없었고, 다만 주전(晝奠)만을 설행하였으며, 찬품에 있어서는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탕국[湯水]을 썼고, 공정 대왕(恭靖大王)의 초상 때에 이르러 비로소 조석전을 설행하였는데, 찬품은 태조의 주전(晝奠)의 여에 의하였으며,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초상에는 처음에 태조 때</p>	<p>禮曹議改喪祭之文以啓：      一, 古制, 天子三日小斂, 七日大斂而殯; 諸侯三日小斂, 五日大斂而殯; 大夫士二日小斂, 三日大斂而殯, 則其斂殯日數, 尊者緩而卑者速, 自有定制, 不可進退也。 我太宗之喪, 小斂、大斂皆在第三日, 至第五日, 移殯于壽康宮。 此以時熱, 故從權而已, 非喪禮之常經也。 今儀軌內一從古禮, 以第五日大斂而殯, 載錄。</p> <p>一, 《文獻通考》周制, 大喪, 封人飾其牛牲, 而朝夕奠, 用脯醢。 朔月、月半祖奠、大遣等奠, 皆用牡牢。 《文公家禮》, 朝夕奠, 設蔬菓脯醢, 朔望則具盛饌。 其朝夕、朔望奠饌之品, 自有隆殺。 我太祖之喪, 無朝夕奠, 只設晝奠, 而饌品則油蜜果、實果交排, 九果卓、三味湯水。 恭靖大王之喪, 始設朝夕奠, 而饌品依太祖晝奠例。 元敬王太后之喪, 初依太祖時例, 後改加油蜜果四行卓。 太宗之喪, 亦用四行卓, 饌品之盛, 幾於朔望。 一</p>

	<p>의 예에 의하였다가, 뒤에 이를 고쳐서 유밀과 녁 줄의 탁자를 더 진설하였고, 태종의 초상에도 또한 그와 같은 녁 줄의 탁자를 쓰니, 찬품의 융성함이 거의 삭망전과 같아서, 하루 동안에 두 번이나 은전(殷奠)781) 을 진설하였으니, 이것이 고제에 어긋남이 있는가 합니다. 이번 의궤(儀軌)안의 조석전 찬품은 태조의 주전의 예에 의하여 유밀과와 실과로 번갈아 배설하여 아홉 가지 과일과 세 가지 탕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p> <p>1. 《문헌통고》의 주제(周制)에 의하면, ‘친자와 제후의 초상에는 참취자(斬衰者)가 전을 드린다.’하였고, 주(注)에 이르기를, ‘모든 신하가 다 참취이기 때문에, 참취자가 전을 드린다는 것이니, 무릇 초상 때에 전 드리는 것은, 주인은 슬프고 애통하여 친히 행사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친히 전 드리지 않는 것이니, 초하루와 보름의 은전도 같다.’하였고, 《문공가례》에는, ‘초상으로부터 제주전(題主奠)782) 에 이르기까지 모두 축이 술잔을 드리고, 우제(虞祭)에 이르러서 주인이 비로소 친히 전을 드리는 것은, 대개 주나라의 제도를 좇은 것이다.’하였으며, 대당(大唐) 《원릉의주(元陵儀注)》와 송나라 효자 연성 황제(孝慈淵聖皇帝)의 초상에도 대렴전(大斂奠)에 사황제(嗣皇帝)783) 가 모두 친히 전을 드렸으니, 이것은 주나라 제도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태조의 상사 때에는 초상으로부터 우제 전날까지의 조석전은 다 주나라의 제도와 《문공가례》에 의하여 집사자로서 전을 대행하게 하였고, 삭망은 당·송의 제도를 따라 전하께서 친히 전을 드리셨으니, 이것은 주나라 제도의 ‘주인이 슬프고 애통하여 친히 행할 겨를이 없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번 의궤 안에는 우제 전의 삭망과 각 전을 아울러 주나라의 제도와 《문공가례》에 의하여, 집사자가 전을 대행하도록 기재 하였습니다. (후략)</p>	<p>日之內，再設殷奠，有違古制。今儀軌內，朝夕奠饌品，依太祖畫奠例，以油蜜果、實果交排，九果卓、三味湯水載錄。</p> <p>一，《文獻通考》周制，天子、諸侯之喪，斬衰者奠。注云：“諸臣皆斬衰，故斬衰者奠。”凡喪奠，以主人悲哀，不暇執事，故不親奠。朔月、月半殷奠，同《文公家禮》。自初喪至題主奠，皆祝奠酒，至虞祭，主人始親奠者，蓋從周制也。大唐《元陵儀注》及宋孝慈淵聖皇帝喪大斂奠，嗣皇帝皆親奠，此與周制不同也。我太祖之喪，自初喪至虞祭前朝夕奠，皆依周制及《文公家禮》，竝以執事者代奠，朔望則緣唐、宋之制，殿下親奠，與周制主人悲哀不暇執事之意異矣。今儀軌內，虞祭前朔望及各奠，竝依周制及《文公家禮》，以執事代奠載錄。(후략)</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p>	<p>일본 구주(九州) 다다량덕웅(多多良德雄)·축진주 관사(筑前州管事) 평만경(平滿景)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다다량덕웅이 예조에 글을 올려</p>	<p>日本九州多多良德雄、筑前州管事平滿景等使人來獻土物。多多良德雄致</p>

<p>21년) 10월 15일(임술) 3번째기사 일본 구주 다다량덕웅·평만경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말하기를, “받들어 듣건대, 지난해에 태상황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하니, 이는 귀국의 큰 상고(喪故)입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금상 전하(今上殿下)께옵서 공경히 오히려 상복중에 계시오니 비통(悲痛)하시고 애모(哀慕)하심이 어떠하오리까. 다시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절에 좇으시어 큰 효도(孝道)를 온전히 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소자는 경사(京師)788)의 객사(客舍)에 있으면서 밤낮으로 공직에 종사하므로, 정무가 많고 복잡하여 다른 일에 미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조문(弔問)의 예절을 펴지 못한 채 이제 해를 넘겼습니다. 더디고 게으른 죄는 마땅히 견책(譴責)하시어, 거절하셔서 용서받지 못할 것이오나, 고명하신 귀관계서 살피시어 용서하여 주시면 다행하겠습니다. 특히 건당 수좌(建幢首座)를 보내어 글을 받들어 올리고, 아울러 변변하지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습니다. 비록 족히 부의(賻儀)가 될 것이 못되오나, 또한 추도(追悼)하는 정성의 만분의 일을 표하는 바입니다. 종이[紙]를 임하매, 목이 메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나이다. 홍직 금단자(紅織金段子) 1필, 백필 금단자 1필, 유황(硫黃) 1천 근, 붕사(硼砂) 1근, 소향유(蘇香油) 2근, 홍련견(紅練絹) 1필, 동(銅) 5백 근, 장뇌(樟腦) 10근, 향백지(香白芷) 10근, 은지선자(銀地扇子) 20본, 홍칠다반(紅漆茶椀) 50매, 황금(黃芩) 20근, 토황(土黃) 20근, 두충(杜沖) 3근, 부자(附子) 3근, 파두(巴豆) 10근, 서각(犀角) 5본, 마황(麻黃) 30근, 소목(蘇木) 1천 근, 자단(紫檀) 50근, 백단향(白檀香) 50근, 소향(蘇香) 23근, 납촉(蠟燭) 1백 정(丁)이라.”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회답하는 서간에 이르기를, “특히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진달하니 감사하다. 헌납한 부의는 삼가 계주하여 수납하고, 인하여 토산물로 정포 1천 3백 60필과 면주 20필을 가지고서 정의를 표하노라.” 하였다. 평만경이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안장을 청구하고, 인하여 토산물로</p>	<p>書于禮曹曰： 承聞，去歲太上皇厭世，是貴國之大故也。伏惟殿下儼然猶在憂服之中，摧痛哀慕奈何？更望節哀就禮，以全大孝。小子館于京師，夙夜在公，政事浩穰，何暇及他？以故，不伸弔問一禮者，踰年于茲矣。緩慢之罪，宜在譴絕，而不可追焉。高明審察賜恕則多幸也。專差建幢首座奉書，并不腆土宜，具如別幅，雖不足爲賻贈，聊表追悼之萬一爾。臨紙哽塞，無勝悽惋之至。紅織金段子一匹，白織金段子一匹，硫黃一千斤，鵬砂一斤，蘇香油二斤，紅練絹一匹，銅五百斤，樟腦〔樟腦〕十斤，香白芷一十斤，銀地扇子二十本，紅漆茶椀五十枚，黃芩二十斤，土黃二十斤，杜沖三斤，附子三斤，巴豆十斤，犀角五本，麻黃三十斤，蘇木一千斤，紫檀五十斤，白檀香五十斤，疎香二十三斤，蠟燭一百丁。 禮曹判書申商復書曰： 專人陳慰爲感。所獻賻儀，謹啓收納。仍將土宜正布一千三百六十四、絁紬二十匹，以表謝忱。 平滿景致書禮曹，求鞍子，仍獻土物。</p>
---	--	---

	<p>동(銅) 3백 근, 유황 5백 근, 서각 2본, 패모(貝母) 10근, 장뇌 5근, 소목 1천 근, 진피(陳皮) 50근, 곱향(藿香) 30근, 정향피(丁香皮) 1백 근, 마황(麻黃) 20근, 파극(巴戟) 10근, 백자다완(白磁茶碗) 10개, 청자다완(靑磁茶碗) 30개, 청자반(靑磁盤) 30개를 바쳤다. 예조 좌랑(禮曹佐郎) 성염조(成念祖)에 명하여 회답 서간을 주게 하였으니, 이르기를, “말안장은 제조하기가 쉽지 않아 즉시 청구에 응하지 못하고, 다만 토산물인 정포 6백 90필을 회사(回使)에게 부치노라.” 하였다.</p>	<p>銅三百斤，硫黃五百斤，犀角二本，貝母十斤，獐腦〔樟腦〕五斤，蘇木一千斤，陳皮五十斤，藿香三十斤，丁香皮一百斤，麻黃二十斤，巴戟十斤，白磁茶碗十箇，靑磁茶碗三十箇，靑磁盤三十箇。命禮曹佐郎成念祖復書曰：馬鞍製造非易，未卽從請。唯土宜正布六百九十匹，付回使。</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0月 18日(乙丑) 3번째기사 일본국 구주 원의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 구주(九州)의 원의준(源義俊)·평상가(平常嘉)·원창청(源昌淸)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쳐 왔는데, 의준은 유황 5천 근, 소목 3천 근, 동 5백 근, 소향유 5근, 서각 3본, 곱향 30근, 정향피 50근, 백단향 14근을 바쳤으므로, 정포 7백 70필을 회사하였고, 평상가는 소향유 3근, 단향 8근, 천궁(川芎) 10근, 호초 10근, 흑시(黑柿) 1백 50근, 동 2백 근, 단목(丹木) 1천 근, 유황 5천 근을 바쳤으므로, 정포 2백 50필을 회사하였으며, 창청은 소향유 3근, 서각 3근 6냥쫘, 곱향 30근, 빈자(檳子) 30근, 동 5백 근, 소목 2천 근, 유황 5천 근을 바쳤으므로, 정포 5백 필을 회사하였다.</p>	<p>日本國九州源義俊、平常嘉、源昌淸等使人獻土宜。義俊進硫黃五千斤、蘇木三千斤、銅五百斤、蘇香油五斤、犀角三本、藿香三十斤、丁香皮五十斤、百檀香十四斤、回賜正布七百七十四。平常嘉進蘇香油三斤、檀香八斤、川芎十斤、胡椒十斤、黑柿一百五十斤、銅二百斤、丹木一千斤、硫黃五千斤，回賜正布二百五十四。昌淸進蘇香油三斤、犀角三斤六兩、藿香三十斤、檳子三十斤、銅五百斤、蘇木二千斤、硫黃五千斤，回賜正布五百十四。</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25일(임신) 2번째기사 내온 20병을 헌릉 수</p>	<p>내온(內醞) 20병을 헌릉 수릉관(獻陵守陵官)에게 하사하였다.</p>	<p>賜內醞二十瓶于獻陵守陵官。</p>

<p>릉관에 하사하다</p>	<p>일본국의 원의준(源義俊)·평만경(平滿景)·원성(源省)·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등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쳐 왔는데, 의준은 향 10근, 서각 4본, 소고유(蘇膏油) 12근, 유황 3천 근, 단목 1천 근, 빈랑 20근, 호초 10근, 등(藤) 3백 본을 바쳤으므로, 정포 3백 40필을 회사하고, 만경은 서각 2본, 장뇌 10근, 유황 3천 근, 대분(大盆) 2개, 염첩(燄捷)794) 6근, 단사(丹砂) 3근, 연위(練緯) 2필, 소목 1천 근, 연 40근, 부채(扇子) 1백 자루[把], 소분 30개, 호초 10근을 바쳤으므로, 정포 3백 50필을 회사하고, 원성은 유황 1만 근, 단목 1천 근, 서각 5본을 바쳤으므로, 정포 9백 10필을 회사하고, 대랑은 짐향 3편, 단목 1천 근, 유황 6천 근, 호초 1백 근을 바쳐 왔으므로, 정포 2백 90필을 회사하였다.</p>	<p>日本國源義俊、平滿景、源省、左衛門大郎等使人獻土物。 義俊進香一十斤、犀角四本、蘇膏油十二斤、硫黃三千斤、丹木一千斤、檳榔二十斤、胡椒一十斤、藤三百本，回賜正布三百四十四。 滿景進犀角二本、獐腦〔樟腦〕一十斤、硫黃三千斤、大盆二箇、燄捷六斤、丹砂三斤、練緯二匹、蘇木一千斤、鉛四十斤、扇子一百把、小盆三十箇、胡椒一十斤，回賜正布三百五十四。 源省進硫黃一萬斤、丹木一千斤、犀角五本，回賜正布九百一十四。 大郎進沈香三片、丹木一千斤、硫黃六千斤、胡椒一百斤，回賜正布二百九十四。</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0월 27일(갑술) 3번째기사 예조에서 봉상시서 만드는 원단은 제사후 새로 갖추어 사용토록 건의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두씨통전》을 상고하건대, ‘주나라에서 하늘에 제사할 때에, 술 담은 준(尊)과 제물 담은 그릇에 있어서, 기물은 질그릇[瓦]으로 하고, 술잔[爵]은 바가지[匏]로 하고, 또 전작(禫勺)을 썼다.’ 하였는데, 주(注)에 이르기를, ‘백리목(白理木)799) 으로 구기[勺]를 한다.’ 하였습니니다. 이번 봉상시(奉常寺)에서 만드는 원단(圓壇)의 제기 속에 보(簠)·궤(簋)·대준(大尊)·상준(象尊)·호준(壺尊)·저준(著尊)·희준(犧尊)·산뢰(山壘)·뇌세(壘洗)·향로(香爐)는 자기(磁器)를 쓰고, 촉대(燭臺)와 전작은 백리목을 써서 모두 체제에 의하여 제조하고, 박술잔은 봉상시로 하여금 씨를 심어서 예비하게 할 것이며, 그 촉대와 전작과 박술잔 등은 쓴 뒤에는 묻어버리도록 하고, 비록 제사에 쓰지 아니한 것이라도</p>	<p>禮曹啓：“謹按《杜氏通典》：‘周祀天尊及薦器，以瓦爵以匏，又用禫勺。’ 注云：‘白理木爲勺。’ 今奉常寺所造圓壇祭器內， 簠簋、大尊、象尊、壺尊、著尊、犧尊、山壘、壘洗、香爐用磁器，燭臺、禫勺用白木，竝依體制製造。 匏爵令奉常寺(裁)〔裁〕種預備，其燭臺、禫勺、匏爵等，用畢埋之。 雖未經行祭，立秋後依式埋之，後祭時更備以祭。” 從之。</p>

	<p>입추(立秋)후에는 법식에 의하여 땅에 묻고, 다음 제사 때에는 다시 갖추어 제사하도록 하여야 되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0月 27日(甲戌) 4번째기사 일향·대우·원구풍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향(日向)·대우(大隅)·살마주 태수 수리대부장작(薩摩州太守修理大夫匠作)인 원구풍(源久豐)과 〈그의〉 아들 원귀구(源貴久)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구풍이 좌·우대정승(左右大政丞)에게 글을 보내기를, “훈풍(薰風) 만리(萬里) 길에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니, 오색 구름[五雲]이 삼각산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하옵니다. 삼가 짝막한 소를 받들어 사자 좌공(使者佐恭)을 보내어 선제의 선화(仙化)를 조위(弔慰)하옵니다. 아아, 비탄(悲歎)함을 어찌 견디오리까. 토산물을 받들어 드리옵니다. 유황 8천 근, 금란 2단, 소목 7천 근, 사탕 1백 근, 호초 1백 근, 녹비(鹿皮) 50장, 백랍(白蠟) 1백 근, 백단향(白檀香) 50근, 유록비(柔鹿皮) 10개, 괴어피(鬼魚皮) 10개, 수우각(水牛角) 3개, 보사(寶砂) 반근, 지채(紙彩) 4둘레[員], 주준(酒尊) 5개.” 라 하고, 구풍이 또 예조에 서간을 보내기를, “피로(被擄)된 사람 10인을 찾아서 돌려보내고, 인하여 유황 1천 근, 백은선(白銀扇) 30개, 주장창(朱長槍) 2개, 소목 1백 근을 드리나이다.”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구풍의 서간에 회답하기를, “특별한 사람을 보내어 위문을 베풀고 겸하여 수호(修好)의 성의를 밝게 고함이 오래 갈수록 변함이 없으니, 깊이 아름답게 여기고 기뻐하노라. 헌납한 두 차례의 예물과 피로된 인구는 삼가 이미 아뢰고 받았으며, 토산물로 정포(正布) 1천 5백 16필을 회환하는 사절편에 부친다.” 하였다. 귀구가 토산물로 유황 5천 근, 백랍 50근, 소목 2천 근, 백단향 25근, 장도 2개, 대도 5개를 바쳤으므로, 좌랑 성염조(成念祖)가 귀구의 서간에 답하기를, “글월이 이르러 족하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 받들어 비로소 인국(隣國)과의 수</p>	<p>日向、大隅、薩摩州太守修理大夫匠作源久豐及子源貴久使人來獻土物。久豐致書于左右大政丞曰：薰風萬里，海天觀望，入五雲三角山樣聞。謹奉短疏，遣使佐恭，弔慰先帝仙化。於戲堪悲歎？奉獻土宜。硫黃八千斤，金欄二段，蘇木七千斤，砂糖一百斤，胡椒一百斤，鹿皮五十領，白(銳)〔銀〕一百斤，白檀香五十斤，柔鹿皮十箇，鬼魚皮十箇，水牛角三箇，寶砂半斤，紙彩四員，酒尊五箇。久豐又致書于禮曹，刷還被擄十人，仍進硫黃一千斤、白銀扇三十箇、朱長槍二箇、蘇木一百斤。禮曹判書申商復久豐書曰：專人陳慰，兼諭修好之誠，愈久不替，良深嘉悅。所獻兩度禮物與被擄人口，謹已啓納。土宜正布一千五百十六匹，就付回價。貴久獻土宜。硫黃五千斤，白蠟五十斤，蘇木二千斤，白檀香二十五斤，長刀二，大刀五。佐郎成念祖復貴久書</p>



	<p>호의 성의를 통합을 알고 몹시 아름답게 생각한다. 헌납한 예물은 아뢰어 수납하였으며, 토산물 약간을 회환하는 사절에게 부치노라.” 하였다.</p>	<p>曰： 書至，知足下奉承父志，始通隣好之誠，良以爲嘉。所獻禮物，轉啓收納。土宜若干，付回价。</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1月 13日(庚寅) 2번째기사 북방의 난을 평정한 하례의 표문과 전문</p>	<p>(전략) 삼가 황세저포(黃細苧布) 2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5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50필, 인삼(人蔘) 1백 근, 잡색마(雜色馬) 20필을 바치나이다.” 하고, 또 전문(箋文)에 이르기를, “단정하게 저위(儲位)에 있으면서 공경히 성인(聖人)818) 의 모유(謀猷)819) 를 받으시고, 황제의 위엄을 크게 받드시와 추악한 무리를 다 평정하고 이에 널리 포고(布告)하시니, 온 세상이 다 기뻐하는 빛이로다. 생각하건대, 조그마한 간사한 호로(胡虜)가 멀리 모래벌판[砂磧]에 있으면서 간혹(奸譎)한 꾀를 품고 잠간 붙어 있다가, 다시 횡포(橫暴)하게 날뛰면서 개전(改悛)하지 않아서 천지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니, 실로 신명과 사람이 다 같이 분노(憤怒)하는 바이다. 이에 육사(六師)의 대군을 정돈하여 엄하게 구벌(九伐)의 위엄을 더하였도다. 저들의 괴수로 하여금 와서 조현케 하여 추악한 군중들의 귀화[向化]를 이루게 되었다. 공경히 생각하건대, 자질은 용기와 지혜를 완전히 갖추시고, 성품은 영명하게 타고 났도다. 문교와 덕화를 크게 베푸심을 도우시니, 만방이 다스려져 평화롭고, 군복과 병기를 능히 정제하여 &lt;무위(武威)를&gt; 선양하니, 사해가 길이 청명하도다. 무릇 보고 듣는 자 어느 누가 뛰고 춤추지 않으리오. 앞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다행히 맑고 밝은 성세(聖世)를 만나, 개가(凱歌) 부르는 소리를 상상하여 듣고, 비록 반열에 달려 나아가는 것은 막혀져 있으나, 강녕하시라는 축원은 몇 배나 더 드리나이다. 삼가 백세저포 20필, 흑세마포 20필, 인삼 50근, 잡색마 4필을 바치나이다.” 라고 하였다.</p>	<p>(전략) 謹獻黃細苧布二十四、白細苧布五十四、黑細麻布五十四、人蔘一百觔、松子三百觔、雜色馬二十四。 箋曰： 端居儲位，祇奉睿謀。丕贊皇威，悉平獷俗。屬茲播告，學有歡欣。竊以蕞爾擊胡，邈處沙磧。乃懷奸譎而乍附，復肆跳梁而不悛。忘天地之大恩，實神人之共憤。爰整六師之衆，以嚴九伐之加。俾渠首而來朝，致群醜之向化。恭惟資全勇智，性稟英明。翼文德於誕敷，萬邦作乂；揚戎兵於克詰，四海永清。凡在瞻聆，疇非蹈舞？伏念臣幸逢昭代，想聞凱歌，雖阻趨造之班，倍申康寧之祝。謹獻白細苧布二十四、黑細麻布二十四、人蔘五十斤、雜色馬四匹。</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p>	<p>일본국 원의준(源義俊)이 사람을 보내어 대장경(大藏經)을 청구하고, 인하여 유황 5천 근, 동 2백 근, 감색직 금단자(紺色織金段子) 1필, 단목 5백 근, 호</p>	<p>日本國源義俊使人求《大藏經》，仍獻硫黃五千斤、銅二百斤、紺色織金段</p>

<p>21年) 11月 17日(甲午) 3번째기사 일본국 원의준이 대장경을 청구하다</p>	<p>초 20근, 등 2백 본, 곽향(藿香) 20 근, 마황 10근을 바쳐왔으므로, 정포 2백 10필을 회사(回賜)하고,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단목 4천 근, 염증(炎蒸) 20근, 진피(陳皮) 50근, 장뇌(樟腦) 10근, 동 2백 근, 서각 2본을 헌납해 왔으므로, 정포 7백 80필을 회사하고, 원조신(源朝臣)이 사람을 보내어 대반야경(大般若經)을 요구하고 포로된 사람을 돌려보내 줄 것을 청하면서, 인하여 대도 2자루[腰], 연자(硯子) 2면(面), 유황 7천 근, 진피(陳皮) 30근, 곽향 5근, 고량강(高良姜) 10근, 육두구(肉豆蔻) 5근, 소목 3백 근을 바쳐 왔으므로, 정포 60필을 회사하였다.</p>	<p>子一匹、丹木五百斤、胡椒二十斤、藤二百本、藿香二十斤、麻黃十斤、回賜正布二百一十四。平滿景使人獻丹木四千斤、炎蒸二十斤、陳皮五十斤、樟腦〔樟腦〕一十斤、銅二百斤、犀角二本，回賜正布七百八十四。源朝臣使人求《大般若經》，請還俘擄人，仍獻大刀二腰、硯子二面、硫黃七千斤、陳皮三十斤、藿香五斤、高良姜十斤、肉豆蔻五斤、蘇木三百斤，回賜正布六十四。</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1월 17일(갑오) 4번째기사 서계에서 제외된 원중의 석유황은 수납치 아니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원의준(源義俊)이 보내 온 객인과 일기주(一岐州)의 원중(源重)이 보내 온 객인이 헌납한 석유황(石硫黃) 9백 50근은 서계(書契)없이 가져 온 것이오니 수납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源義俊使送客人及一岐州源重使送客人所獻石硫黃九百五十斤，無書契持來，請勿收納。”從之。</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1월 24일(신축) 3번째기사 일본국 원도진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일본국의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인 유황 5천 근, 동 1백 근, 소목 3백 근, 마황 10 근, 천궁 5 근, 황금(黃芩) 5 근, 나한석 10 근, 육종용(肉從容) 1 근, 양강 10 근, 서각 3 본, 상아 1 본을 바쳤으므로, 정포 1백 60필을 답례로 하사하고, 평만경(平滿景)이 또 사람을 보내어 예조에 글을 올리기를, “회례사가 4월 4일에 석성(石城)의 냉천진(冷川津)에 도착하였고, 23일에 이진(津)을 출발하였는데, 순풍에 돛을 달았으니, 며칠 안에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상에는 곳곳마다 아무 일 없도록 당부하였기에 등삼랑(藤三</p>	<p>日本國源道鎭使人獻土物，硫黃五千斤、銅一百斤、蘇木三百斤、麻黃一十斤、川芎五斤、黃芩五斤、羅漢石一十斤、肉從容一斤、良薑一十斤、犀角三本、象牙一本，回賜正布一百六十四。平滿景使人致書禮曹曰：回禮使，四月四日上岸石城冷川津，二十三日發津，順風揚帆，想是不日到</p>

	<p>郎)을 보내어 품고(稟告)하오며, 예에 따라 보잘것없는 물품이나 별지에 기록하였나이다. 유황 5천 근, 양강 20 근, 육두구(肉豆蔻) 10 근, 용뇌 3 냥쫘, 소목 2백 근, 마황 10 근, 금강사(金剛砂) 1백 근, 서각 1본, 황금 3 근, 정향피(丁香皮) 5 근.”</p> <p>이라 하여 바쳐 왔으므로, 정포 80필을 회사하였다.</p>	<p>京，且海上隨處囑護無恙。使藤三郎稟告隨例薄物記于別幅，硫黃五千斤、良薑二十斤、肉豆蔻十斤、龍腦三兩、蘇木二百斤、麻黃十斤、金剛砂一百斤、犀角一本、黃芩三斤、丁香皮五斤，回賜正布八十匹。</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1月 27日(甲辰) 1번째기사 장빙고 역군에게 술을 하사하다</p>	<p>술 8백 30병과 생선[魚] 1천 6백 50마리[尾]를 장빙고(藏氷庫) 역군에게 내리었다.</p>	<p>甲辰/賜酒八百三十瓶、魚一千六百五十尾于藏氷軍。</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1月 28日(乙巳) 3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금년에 한하여 공물을 견감토록 청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고을의 이번 계묘년 공물중에, 부득이한 국가 소용의 표피(豹皮)·오미자(五味子) 전량과 인삼 절반을 상납하는 이외에, 나머지 다는 공물은 청컨대 금년에 한하여 다 아울러 견감(蠲減)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平安道監司啓：“道內各官，今癸卯年貢物內，不得已國用豹皮、五味子全數，人蔘減半上納外，他餘貢物，請限今年，竝皆蠲減。”從之。</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2月 5日(壬子) 5번째기사 회례사로 일본서 죽은 선군 김정·위사준을 치제하고 세금 면제케</p>	<p>왕지하기를, “선군(船軍) 경상도 함창(咸昌)에 거주하던 김정(金貞)과 청도(淸道)에 거주하던 위사준(魏思俊)이 회례사의 배에 따라갔다가 일본에서 죽었으니, 그 도(道)로 하여금 혼(魂)을 불러 치제(致祭)할 것이며, 미두(米頭) 6석을 지급하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하게 하라.” 하였다.</p>	<p>王旨：“船軍慶尙道咸昌住金貞、淸道住魏思俊隨回禮使船，死於日本。令其道招魂致祭，給米豆六石，復其家。”</p>

하다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2月 20日(丁卯) 5번째기사          을적합 천호 조랑장동합·백호 허리응합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을적합(兀狄哈) 천호(千戶) 조랑장동합(照郎將同哈)과 백호(百戶) 허리응합(虛里應哈)·송당응합(宋當應哈) 등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므로, 옷·갓·신을 주고 면포를 차등 있게 회사하였다.</p>	<p>兀狄哈千戶照郎將同哈, 百戶虛里應哈、宋當應哈等來獻土宜, 各賜衣笠靴, 回賜絺布有差。</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2월 25일(임신) 1번째기사          일본 국왕의 사신 규주·범령 등 135명이 토산물을 바치다</p>	<p>(전략) 변변치 못한 토산물을 별폭(別幅)과 같이 갖추었고, 넷물이 밀어 닥치듯이 이르는 상서(祥瑞)를 많이 맞으시고, 또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감히 바랍니다. 별폭 경사류제(經史類題) 20권, 백련위(白練緯) 50단(段), 침향(沈香) 30근, 백단(白檀) 50근, 단목(丹木) 1천 근, 호초(胡椒) 30근, 감초(甘草) 50근, 광향(藿香) 20근, 동(銅) 2백 50근.”          이라 하였다.</p>	<p>(전략)不腆土宜, 具如別幅, 敢冀茂迎川至之祥, 卽膺天錫之祉。 別幅: 經史類題二十卷, 白練緯五十段, 沈香三十斤, 白檀五十斤, 丹木一千斤, 胡椒三百五十斤, 甘草五十斤, 藿香二十斤, 銅二百五十斤。</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2月 25日(壬申) 2번째기사          대마주 좌위문대랑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로 단목(丹木) 1천 6백근과 호초(胡椒) 70근, 유황(硫黃) 1천근을 바치고, 등차랑(藤次郎)은 사자를 보내어 토산물로 호초 20근과 단목 2백 근을 바쳐 왔으므로, 각각 정포를 차등 있게 회사하였다.</p>	<p>對馬州左衛門大郎使人獻土物, 丹木一千六百斤、胡椒七十斤、硫黃一千斤, 藤次郎使人獻土物, 胡椒二十斤、丹木二百斤, 各回賜正布有差。</p>
<p>세종 22권, 5년(1423 계묘 / 명 영락(永樂) 21년) 12월 25일(임신) 3번째기사          흥년으로 사신 접대</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청컨대, 오는 갑진년 정월부터 대소의 제향(祭享)과 각전(各殿)의 공상(供上)과 명나라 사신의 접대와 인국 객인(隣國客人)855)의 공궤(供饋) 이외에는 공사(公私)간에 쓰는 술을 일절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니, 흥년이 들었기 때문이었다.</p>	<p>司憲府啓: “請自來甲辰年正月, 大小祭享、各殿供上、上國使臣支應、隣國客人饋餉外, 公私用酒一禁。” 從之, 因歲歉也。</p>

이외에는 술을 금지하다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2月 27日(甲戌) 7번째기사  규주·범령 등이 대장경판 청구하는 글을 예조에 올리다</p>	<p>(전략) 규주가 사사로이 바친 물품이 기린혈(麒麟血) 1근, 향(香) 5근, 침속(沈束)·백단(白檀) 각각 13근, 서각(犀角) 2머리[頭], 혁피상(洟皮箱) 1개, 연위(練緯) 1단, 대모분(玳瑁盆) 1개, 동(銅) 2백 근, 단목(丹木) 1백 근, 호초(胡椒) 10근, 감초(甘草) 10근, 광향(藿香) 5근이고, 범령이 사사로이 바친 것이 오색채화 유리배(五色綵花琉璃盃) 1개, 침속향(沈束香) 5근, 환도(環刀) 20자루[柄], 서각 1머리, 백단(白檀) 30근, 동 1백 근, 감초 10근, 광향 5근, 호초 10근이었다.</p>	<p>(전략) 圭籌私進麒麟血一斤、香五斤、沈束白檀各十三斤、犀角二頭、革皮箱一、練緯一段、玳瑁盆一、銅二百斤、丹木一百斤、胡椒十斤、甘草十斤、藿香五斤。 梵齡私進五色綵花琉璃盃一、沈束香五斤、環刀二十柄、犀角一頭、白檀三十斤、銅一百斤、甘草十斤、藿香五斤、胡椒十斤。</p>
<p>世宗 22卷, 5年(1423 癸卯 / 명 영락(永樂) 21年) 12月 28日(乙亥) 1번째기사  구주 도원수 원조진이 토산물을 바치다</p>	<p>구주(九州)의 전 도원수(都元帥) 원도진(源道鎭)이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로 유황(硫黃) 1만 2천 근, 대도(大刀) 20자루[把], 소목(蘇木) 1천 근, 침향(沈香) 2근 4냥쯤, 동(銅) 3백 근, 호초(胡椒) 30근을 바쳐 왔으므로, 정포(正布) 3백 70필을 하사하였다.</p>	<p>乙亥/九州前都元帥源道鎭使人獻土物, 硫黃一萬三千斤、大刀二十把、蘇木一千斤、沈香二斤四兩、銅三百斤、胡椒三十斤, 回賜正布三百七十四匹。</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일(기유)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육선을 올리게 하다</p>	<p>정사를 보았다. 육선(肉膳)을 드리게 하였다.</p>	<p>己酉/視事。 進肉膳。</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4日(庚戌)</p>	<p>각도 감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복약(服藥)할 때에는 술을 사용하라.”</p>	<p>傳旨于各道監司、都節制使、處置使, 服藥用酒。</p>

<p>6번째기사 약으로 쓰는 술은 사 용하라고 각도 감사· 도절제사·처치사에 게 전지하다</p>	<p>하였다.</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3일(기미) 6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 빚 을 쌀 30석, 간장 담 글 콩 30석, 탄 25석 을 주다</p>	<p>양녕 대군에게 술 빚을 쌀 30석과 간장 담글 콩 30석과 탄(炭) 25석을 이천(利川) 사저(私邸)에 내려 주었다</p>	<p>賜釀酒米三十石、末醬三十石、炭二十五石于讓寧大君利川第。</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15日(辛酉) 4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도내 20고을의 기민들의 숫 자와 구제상황을 보고 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안주(安州)·영유(永柔)·가산(嘉山)·숙천(肅川)·박천(博川)·정주(定州)·양덕(陽德)·순천(順川)·정령(定寧)·개천(价川)·선천(宣川)·성천(成川)·의주(義州)·곽산(郭山)·태천(泰川)·삭주(朔州)·수천(隨川)·함중(咸從)·용천(龍川)·운산(雲山) 등 20고을의 기민(飢民) 남녀 노소의 총수가 3천 1백 88명인데, 정월 초하룻날에 구제할 쌀과 콩이 합하여 51석 5두 2승이요, 간장이 4석 3두 2승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道內安州、永柔、嘉山、肅川、博川、定州、陽德、順川、定寧、价川、宣川、成川、義州、郭山、泰川、朔州、隨川、咸從、龍川、雲山等二十邑飢民男女老少, 摠三千一百八十八名。正月朔賑濟米豆, 并五十一石五斗二升, 醬四石三斗二升。”</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0일(병자) 4번째기사 지방 각도에 발생한</p>	<p>예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다 하나, 그 고을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살리려고 하지 아니 한다고 하니, 그들에게 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소시호탕(小柴胡湯) 등을 약재로 제작(劑作)하게 하고, 의학 생도(醫學生徒)들을 시켜서 병이 나는 대로 바로 진찰하여 치료(治</p>	<p>傳旨于禮曹: “予聞, 外方各道疾疫興行, 各官守令不爲用心救活。其以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合用藥材劑作, 令醫學生徒隨卽(診)候療治, 仍使各其近處巫女, 無</p>

<p>역질의 치료와 처방에 관해 예조에 전지하다</p>	<p>療)하도록 하고, 또 각기 그 근처에 있는 무녀(巫女)들을 시켜 무시(無時)로 출입하며 죽을 쑤어 공급하게 하고, 항상 고찰하여 비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時出入，烹粥供給，常加考察，勿令夭 札。”</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4日(庚辰) 5번째기사 호조에서 경외의 환곡 량과 구제용 곡식량, 평안도에 건감한 환곡 량을 보고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계묘년에 경외(京外)의 환상곡(還上穀)으로 나누어 준 쌀·콩 및 잡곡의 총수가 1백 19만 8천 5백 89석이고, 구제하여 준 쌀·콩·장(醬)의 총수가 4만 7천 2백 94석이요, 평안도(平安道)에 건감(蠲減)하여 준 환상곡인 쌀·콩·잡곡 (雜穀)이 총계 5만 9천 7백 7석입니다.” 하였다.</p>	<p>戶曹啓: “去癸卯年京外還上分給米 豆、雜穀，摠一百十九萬八千五百八十 九石，賑濟米豆醬，摠四萬七千二百九 十四石。平安道蠲減還上米豆、雜穀， 摠五萬九千七百七石。”</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7일(계미) 2번째기사 약주 10병과 청밀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다</p>	<p>약주 10병과 청밀(淸蜜)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었다.</p>	<p>賜藥酒十瓶、淸蜜一器于讓寧大君。</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2日(戊戌) 4번째기사 충청 감사가 도내 기 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p>	<p>충청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37읍에 굶주린 백성의 수가 1천 5백 4명이요, 구제한 쌀과 콩 및 잡곡이 52석 3두이며, 간장이 7석 11두이고,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18읍이 1천 7백 65호에 환상곡으로 나누 어준 쌀과 콩 및 잡곡이 3백 87석입니다.” 하였다.</p>	<p>忠淸道監司啓: “去二月朔，道內丹 陽、淸風等三十七邑飢民一千五百四 名，賑濟米豆雜穀五十二石三斗，醬七 石十一斗。丹陽、淸風等十八邑一千 七百六十五戶，還上分給米豆雜穀三百 八十七石。”</p>

<p>보고하다</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2일(무술) 5번째기사</p> <p>평안도 감사가 도내 기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 보고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숙천(肅川)·박천(博川) 등 30읍에 기민(飢民)이 3천 4백 35명에 구제한 쌀과 콩이 2백 45석 5두이고, 양덕(陽德)·영유(永柔) 등 22읍이 1만 1천 6백 9호에 환상곡으로 나누어준 쌀·콩·잡곡이 1천 2백 62석 4두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去二月朔, 道內肅川、博川等三十邑飢民三千四百三十五名, 賑濟米豆二百四十五石五斗; 陽德、永柔等二十二邑一萬一千六百九戶, 還上分給米豆雜穀一千二百六十二石四斗。”</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7日(癸卯) 6번째기사</p> <p>황해도 감사가 국고에 충수될 의창 곡식 일부를 헛곡이 날 때까지 쓰게 해 줄 것을 청하다</p>	<p>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관(官)의 의창(義倉) 원수(元數)가 쌀·콩·잡곡을 합하여 10만 6천 4백 77석인데, 그 속에서 환상곡(還上穀)으로 이미 수납된 것이 6만 2천 7백 19석이고, 미수된 것이 4만 6천 7백 57석이니, 청컨대 국고(國庫)에 충수(充數)할 것 중에서 헛곡이 성숙될 때까지 종자용과 식량으로 존절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黃海道監司啓: “道內各官義倉元數米豆雜穀共十萬六千四百七十七石內, 還上已收六萬二千七百十九石, 未收四萬六千七百五十七石。 請以國庫充數, 限新穀成熟, 以種子、口糧擲節分給。”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4월 9일(갑인)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사재감의 소목 지출에 여유가 있다 하여 공소목 수납의 중지를 청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소목(燒木)이 63만 7천 9백 47근인데, 감(監)에 지금 있는 것이 62만 3천 4백 2근이고, 또 기인(其人)의 일역(日役)과 전운서(轉運署) 노자(奴子)의 일역이 다 같이 47만 9천 13근이므로 1년에 소용되는 수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방 각 관(官)에서 상납하는 금년 공소목(貢燒木) 5만 4천 3백 50근과 각 포(浦)에서 공바치는 72만근과 지난해에 미수(未收)된 2만 1천 40근은 그만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司宰監燒木一年所支六十三萬七千九百四十七斤, 監見在六十二萬三千四百二斤。 又其人日役及轉運奴子日役, 共四十七萬九千十三斤, 一年所用之數有餘。 請除外方各官上納今甲辰年貢燒木五萬四千三百五十斤、各浦貢七十二萬斤、往年未收二萬一千四十斤。”</p>



		從之。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5월 1日(乙亥) 3번째기사</p> <p>10일이 대상인 까닭에 궐내의 육선을 금하다</p>	<p>궐내의 육선(肉膳)을 철폐하였으니, 초10일이 대상(大祥)이기 때문이었다.</p>	<p>闕內徹肉膳, 爲初十日大祥也。</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8일(신해) 4번째기사</p> <p>모자라거나 망비·도용된 의창 곡식 등의 보충 방안에 관한 호조의 계</p>	<p>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제문형(經濟文衡)》을 상고하니, 주문공(朱文公)이 건녕부(建寧府) 개요향(開耀鄉)에 사창(社倉) 하나를 설치하고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두었다가 방출하곤 하였는데,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대로 교지(教旨)를 받아 의창(義倉)의 쌀·밀가루도 1석당 그 본색(本色)에 따라 3되를 더 바치게 하여 후일의 모손(耗損)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창의 제도로 서울과 외방 각 고을의 모자라는 쌀·밀가루에, 망비(妄費)·도용(盜用)한 것은 정식(定式)대로 추징(追徵)하고, 그 외에 비가 새거나, 바닥이 습해서 모자라게 된 것은 그 본색에 따라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계산해서 제감(除減)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按《經濟文衡》, 朱文公於建寧府開耀鄉立社倉一所, 逐年斂散, 每一石收耗米三升。 依此制受教, 義倉米畚每一石, 隨其本色, 加納三升, 以備後日之耗損。 願自今義倉之制, 京外各官虧欠米畚, 除妄費盜用及雨漏地濕所損者, 依式追徵外, 隨其本色, 每一石計除耗米三升。”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4일(정사) 4번째기사</p> <p>태종의 신주를 부모하는 의주에 관한 예조의 계</p>	<p>(전략)동가(動駕)를 고(告)하기 하루 전에,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板位)를 광효전 동계(東階)의 동남쪽에다가 서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의 위차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신은 동쪽에, 무신은 서쪽으로,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여 서게 한다. 그날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편에 놓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과 축(燭)은 모두 신위 앞에 진설(陳設)하며, 찬수를 제구에 담는다. 【찬품은 예고제(預告祭)와 같다.】 준소(尊所)는 지계문[戶]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전하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왕세자는 조복(朝服)을</p>	<p>(전략) 告動駕: 前一日, 通禮門設殿下版位於廣孝殿東階東南, 西向, 設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其日, 典祀官帥其屬, 入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實饌具【饌品與預告祭同】設尊於戶外之左。 殿下具冕服, 王世子具朝服,</p>

입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행사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大祝)이 〈신주〉 궤(櫃)를 열고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좌차(座次)에 모셔 놓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궤를 열고 왕태후(王太后)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차에 모셔 놓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되, 서쪽을 위로 하게 한다. 찬례(贊禮)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근시(近侍)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아서 규(圭)를 〈띠에〉 꽃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쫓는다. 【만약 꽃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든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며,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린 다음,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와 같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부작(副爵)을 올리면, 찬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태후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규(圭)를 잡고 구부렸다 옆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其行事執事官服祭服，陪祭群官服朝服。時至，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大祝開櫃，捧出太宗神主，設於座，覆以白苧巾。次宮闈令開櫃，捧出王太后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以西爲上訖，贊禮導殿下，詣版位西向立，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贊禮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如搯不便，近侍承奉。】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近侍捧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東階)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唱)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악차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외문(外門) 밖의 길 왼편에 서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외문 밖에 나와 좌우로 나누어 차례대로 서게 한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어 넣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신주를 〈모시고〉 종묘(宗廟)에 나아가는 동가제(動駕祭)를 마쳤음을 고유(告由)한다. 유사(攸司)가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에 설치하되, 신위(神位) 앞에 남향으로 한다.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은 각기 그 복색(服色)을 한다. 요여(腰輦) 둘을 옥위위[上]에 놓는다. 【태종의 〈신주를 모실〉 여(輦)는 오른편에, 왕후의 〈신주를 모실〉 여는 왼쪽에 둔다.】 산(繖)과 선(扇)을 들여다가 전(殿)의 섬돌 사이에 좌우로 나누어 진열(陳列)한다. 도지(都知) 등은 그 복색을 하고 탁자(托子)를 받들고 좌우로 나누어 서며, 책보 누자(冊寶樓子) 등은 전정(殿庭)에 둔다. 【양위(兩位)의 누자를 각각 좌우로 나누어 둔다.】 또 옥위(褥位) 둘을 남문(南門) 밖에 설치하고, 상로(象輅) 둘을 그 앞에 남향으로 둔다. 【양위(兩位)

跪，讀祝文訖，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贊禮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出，至大門外幄次卽座。知通禮引王世子出，立於外門外道左，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出外門外，分左右序立。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神主詣宗廟。告動駕：祭畢，攸司設褥位二於殿上神位前南向。指諭、牽龍等各服其服，以腰輦二置於褥位上，【太宗輦在右，王后輦在左。】繖扇入陳於殿階間分左右。都知等服其服，捧托子左右分立，置冊寶樓子等於殿庭。【兩位樓子各分左右。】又設褥位二於南門外，置象輅二於其前南向。【兩位象輅分左右。】儀仗、樂部排立於其南如儀。時至，攝判通禮入詣太宗神位前跪，啓請降座升輦附廟，啓訖俛伏興。次詣王太后神位前亦如之，俛伏興退。內侍捧太宗冊寶，又內侍捧王太后冊寶，

의 상로를 좌우로 나누어 둔다.】 의장(儀仗)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의식대로 배립(排立)한다.

시각이 되면, 섭판통례(攝判通禮)가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좌차(座次)에서 내려 여(輦)를 타고 가서 부모(耐廟)하기를 계청한다.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은 왕태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태종 신위 앞에서와 같이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내시(內侍)가 태종의 책보(冊寶)를 받들고, 또 한 내시는 왕태후의 책보를 받들어 차례로 섬돌을 내려와 누자(樓子)에 둔다. 또 내시는 안석[几]을 받들어 여(輦) 위에 둔다. 대축은 태종의 신주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은 왕태후의 신주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여 【무릇 신주를 꺼낼 때에는 선왕의 신주를 먼저 꺼내고, 들여 넣을 때에는 선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여 넣는다.】 받들어 모시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는데, 책보 누자 등이 앞에 가고,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이 신여(神輦)를 받들어 메고 나가 상로(象輅) 뒤의 옥위에 이르러 잠깐 머무른다. 섭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여(輦)에서 내려 노에 타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노 안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케를 받들어 노에 태운다. 【대축은 노 안에 편승(便乘)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음은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케를 받들어 태우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공신 누자(功臣樓子)는 노가 머문 앞 길[街]의 동쪽에서 노가 출발하기를 기다려서 가는데, 노의 뒤를 의식대로 따른다.】

천우 장군은 노를 양쪽에서 빠르게 모시고, 【태종의 노가 먼저 가고, 왕태후의 노가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앞에서 간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노를 잠깐 머물러 여러 관원들의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

以次先降階，置於樓子，又內侍捧几置於輿上。大祝捧太宗神主櫃，安於輦上几後，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安於輦上几後，【凡主出則先王神主先出，入則先后神主先入。】扶侍降自西階，冊寶樓子等前行。指諭、牽龍等捧昇神輦而出，至象輅後褥位小駐。攝判通禮跪，啓請降輦升輅，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輅中，大祝捧太宗神主櫃升輅，【其大祝便於輅中侍奉】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升輅，如上儀訖，【功臣樓子駐輅前街東，俟輅將發乃行，隨輅後如儀。】千牛將軍夾輅而趨。【太宗輅先行，王太后輅次之，各有儀仗、樂部。】判通禮導殿下升輦前行，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輅小駐，敎文武群官上馬。啓訖，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上馬前導。攝判通禮啓請輅進發，啓訖俛伏興退。輅進發，鼓吹振作。至宗廟大門外，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下馬，左右序立。殿下降輦，入大門內幄次卽座，鼓吹止，分左右。【其鼓吹俟享訖退，儀仗等并於廟南門外左右列立，俟享禮畢退。】輅至，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鞠躬，過則平身。

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한다. 섭관  
 통례는 노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물러난다.  
 노가 진발하면 고취(鼓吹)를 시작한다. 종묘 대문 밖에 이르러서는 왕세자 이  
 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좌우로 차례대로 선다. 전하가 연(輦)  
 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악차의 자리[座]에 앉으면, 고취는 중지하고  
 좌우로 나누어 선다. 【고취는 제향(祭享) 마치고 기다려서 물러나고, 의장  
 (儀仗) 등은 아울러 묘 남문 밖에서 좌우로 벌여 섰다가 제향례 마치고 기  
 다려서 물러난다.】 노가 이르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국궁하  
 고, 노가 지나가면 평신(平身)한다. 노가 대문에 이르면 노를 둘러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이 요여(腰輦)를 노(輅)의 뒤 옥위(褥位) 위에 놓는다. 【임시  
 로 옥위 둘을 설치한다.】 섭관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려 여(輦)를 타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  
 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궐  
 (神主櫃)를 받들어 여 위에 봉안하되, 앞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여(神輦)가  
 대문에 들어가게 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祇迎位)에 나아간다.  
 신여가 이르면, 전하는 국궁했다가, 여가 지나간 뒤에 평신한다. 판통례는 전  
 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간다. 신여가 묘 남문의 악좌(輦座) 앞에 이르면,  
 섭관통례는 꿇어앉아 여에서 내려 악좌에 들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  
 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두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신주궐을 받들어 악좌에 봉안한다. 【왕후의 신주는 왼쪽에 둔  
 다.】 산·선·누자 등은 악좌 앞에 머물러 정렬(整列)한다. 【공신 누자는 신문  
 (神門) 밖에 머무른다. 신주를 승부(升祔)한 뒤에 집사자(執事者)가 위판(位版)  
 을 받들고 서문(西門)으로 들어와서 그 위차에 봉안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輦)를 타고 재궁(齋宮)으로 들어가는데, 산·선·  
 화개(華蓋)·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

輅至大門，廻輅南向。尙輦以腰輦進  
 輅後褥位上，【臨時設褥位二】攝判通  
 禮進當輅前跪，啓請降輅升輦，啓訖俛  
 伏興。內侍捧几，置於輦上，大祝、  
 宮闈令各捧神主櫃，安於輦上如前儀。  
 神輦將入大門，判通禮導殿下就祇迎  
 位，神輦至，殿下鞠躬，過則平身，判  
 通禮導殿下還入次。神輦至廟南門幄  
 前，攝判通禮跪啓請降輦入幄，啓訖俛  
 伏興。內侍捧几置於幄座，大祝、宮  
 闈令各捧神主櫃，安於幄座，【王后神  
 主在左】其繖扇、樓子等停列於幄  
 前。【功臣樓子止於神門外，神主升祔  
 後，執事者捧位版從西門入，安於其  
 位。】判通禮導殿下，升輦入齋宮，繖  
 扇、華蓋、侍衛如常儀。知通禮引王  
 世子入次，其宗廟陳設尊彝酒醴坩爵，  
 省牲告潔，進署祝版【其祝文兼述祔享  
 意。】陳設樂器，并如常儀。初神輅  
 將至廟，攸司設祔謁褥位二於廟庭橫階  
 南當中北向，【太宗褥位在西】執禮設  
 殿下版位，贊者設諸享官位及陪祭群官  
 位，并如常儀。晨禋時至，宗廟令、  
 典祀官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  
 引監察，升自阼階，按視堂之上下，糾

차로 들어간다. 종묘에 준(尊)·이(彝)·술[酒]·단술[醴]·점(坫)·작(爵)을 진설하고, 희생(犧牲)을 살피 정결하다고 아뢰며, 축관을 서(署)하고, 【축문에는 부향(祔享)한다는 뜻을 아울러 기술한다.】 악기를 진설하는 것 등은 평상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 신로(神輅)가 장차 묘에 이르게 되면, 유사는 부알(祔謁)할 옥위 둘을 묘정(墓庭) 횡계(橫階)의 남쪽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태종 신위의 옥위는 서쪽에 있게 한다.】 집례(執禮)는 전하의 관위(版位)를 설치하고, 찬자(贊者)는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와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새벽 강신(降神)할 시각이 되면,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수를 찬구(饌具)에 담고 나면, 찬인(贊引)은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와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서 의식대로 못하거나 앓았는가를 규찰(糾察)한 다음 돌아간다. 집례(執禮)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섬돌 사이 [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서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 현(懸) 북쪽에 늘어서고, 무무(武舞)는 현(懸)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통례문은 배제(陪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자·찬인은 각각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량(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협률랑(協律郎)·봉조관(奉俎官)과 준(尊)·뇌(罍)·비(篚)·떡(饌)을 맡은 자와 칠사공신(七祀功臣)의 축사·재량과 준·뇌·비·떡을 맡은 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현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는 ‘국궁, 사배, 흥,

察不如儀者，還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謁者引。】謁者、贊引各引諸享官，俱就東門外位，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奉俎官、執尊罍篚罍者，七祀功臣祝史、齋郎、執尊罍篚罍者，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唱鞠躬四拜興平身，【凡執禮有辭，贊者皆傳唱。】監察以下皆鞠躬四拜興平身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知通禮引亞獻官，謁者、贊引各引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功臣獻官入就位。贊引引大祝、宗廟令、宮闈令升自阼階，詣第一室，入開(坳) [龕] 室，大祝、宮闈令捧出神主設於座，【詣神幄內於几後，開匱設於座。先王神主，大祝捧出，覆以白苧巾。先后神主，

평신'이라 전창(傳唱)한다.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여러 집사(執事)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찬인은 각각 종헌관(終獻官)·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과 칠사 공신(七祀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은 대축·종묘령·궁위령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와 제1실에 들어가서 감실(炤室)을 열면, 대축과 궁위령이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신다. 【신악(神幄) 안의 안석 [几]뒤에 나아가 궤(櫃)를 열고 좌(座)에 모신다.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제2실 이하의 신주도 차례로 받들어 내는데, 제1실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과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籩]에 담아, 받들어 태계(泰階)로 나아가면, 여러 축사가 각각 섬돌 위에서 맞이하여 준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이를 마치면, 전(殿) 위의 여러 집사는 각각 형편에 따라 섬돌을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대로 섰다가, 신여(神輦)가 전(殿)에 오르기를 기다려 각각 섬돌 위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오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 밖에 이르면, 근사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규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화개와 의장은 문밖에서 머무른다.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소차(小次) 옆에 진설하고,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온다. 【정문은 동문(東門)을 말한다.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협률랑(協律郎)이 꿇

宮闈令捧出，覆以青苧巾，以西爲上。】以次捧出第二室以下神主如第一室儀。贊引引齋郎，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籩，奉詣泰階，諸祝史各迎取於階上，置於尊所坫上，其殿上諸執事各逐便下階，相向序立，竣神輦升殿，各復階上位。判通禮跪啓外辦，導殿下出，繖扇、華蓋、侍衛如常儀。禮儀使導殿下至東門外，近侍跪進圭，禮儀使跪啓請執圭，殿下執圭。華蓋、仗衛停於門外。尙瑞官奉寶陳於小次之側，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協律郎跪，俛伏舉麾輿，【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輿。奠物則跪奠訖，俛伏而後興。】工鼓祝，軒架作《承安之樂》，殿下詣版位西向立。【每立定，禮儀使退立於左。】協律郎偃麾戛敵，樂止。【凡樂協律郎跪，俛伏舉麾，典工鼓祝而後作，偃麾戛敵而後止。】初，殿下將入門，攝判通禮進當太宗神主幄前跪，啓請降座升輦附謁，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於輦上，大祝捧太宗神主櫃，安于几後。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安于几後訖，執

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麾旗)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取)하려는 자는 모두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취하여 일어난다. 물품을 드리는 때는 꿇어앉아서 드린 다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악공(樂工)이 축(祝)을 치면,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전하는 판위(版位)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설 때마다 예의사는 전하의 원편으로 물러선다.】 협률랑이 휘기를 높히고 어(敵)를 치면, 풍악은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랑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악을 시작하고, 휘기를 높히며 어를 치면 악을 정지한다.】

처음에 전하가 문을 들어오려 하면, 섭관통례가 태종의 신주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좌(座)에서 내려 여를 타고 가서 부알(祔謁)하기를 계청하고, 계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한다. 다음에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하고 나면, 집례【당하관의 집례이다.】가 신여를 인도하여 묘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정열(整列)한다. 【시위하는 원리(員吏)는 모두 물러간다.】 재랑(齋郎)들이 신여를 모시고 정문으로 들어와 부알(祔謁)할 옥위(褥位)에 이르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례를 받들어 옥위에 봉안하고 례를 열면, 대축은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趺)위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은 왕태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 위에 봉안한다. 【태종의 신주는 서쪽에 놓는다.】

섭관통례가 옥위 서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지금 길신(吉辰)이므로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를 부알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섭관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여를 타고 가서 부향(祔享)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

禮【堂下執禮】引神輿至廟南門，繖扇停列於門外。【侍衛員吏皆退】齋郎等陪神輿入自正門，至祔謁褥位，大祝、宮闈令各捧櫃，安於褥位開櫃。大祝捧出太宗神主，安於趺上。次宮闈令捧出王太后神主，安於趺上訖，【太宗神主在西】攝判通禮進於褥位西北面跪啓稱：“以今吉辰，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太后祔謁。”啓訖，俛伏興退。小頃，攝判通禮進褥位之西東面跪，啓請升輿祔享，啓訖俛伏興退，降就本班。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各捧神主安於輿。【其匱蓋亦置輿上近後。】神輿既升，【升自泰階】大祝、宮闈令奉引入第六室，至幄座前，內侍捧几置於座。大祝、宮闈令各捧神主安於座，覆以巾，以西爲上。【執事者奉冊寶入，置於案上。】其腰輿降自阼階，由東門出。禮儀使前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執禮曰四拜，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執禮曰禮儀使啓請行事，禮儀使前跪，啓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軒架作《景安之



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본래의 반차(班次)로 내려온다. 대축과 궁위령은 옥위에 나아가 꿇어앉아 각각 신주를 받들어서 여에 봉안한다. 【신주께 뚜껑도 여 위의 뒷편 가까운 곳에 둔다.】 신여가 올라오면 【태계(泰階)로 올라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제6실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악좌 앞에 이른다. 내시가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놓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기 신주를 받들어 악좌에 봉안하고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책보를 받들고 들어와서 안(案) 위에 둔다.】 요여(腰輦)는 조계(阼階)로 내려와 동문(東門)으로 나간다.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집례가 ‘예의사는 행사(行事)하기를 계청하라.’ 하면,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한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간다. 헌가(軒架)는 경안지악(景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하여 아홉 번을 거듭하고 그친다. 근시(近侍)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조계로 올라가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창례(裸鬯禮)를 행하라.’ 하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아 규(圭)꽃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꽃는다.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내시 한 사람은 꿇어앉아 반(盤)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서 수건을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 담는다. 예의사는 규(圭)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홀을 잡는다. 예의

樂》，烈文之舞作，九成止。近侍詣盥洗位盥帨訖，還侍立。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詣盥洗位盥帨訖，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裸鬯禮。”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詣盥洗位北向立，跪啓請搯圭，殿下搯圭。內侍跪，取匱與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帨手訖，內侍受巾奠於篚。禮儀使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升自阼階【禮儀使、近侍、內侍從升】訖，【樂止】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鬯，進幣瓚爵官酌鬱鬯，近侍以瓚受鬱鬯，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瓚跪進，禮儀使啓請執瓚，殿下執瓚灌地訖，以瓚授奠幣瓚爵官，奠幣瓚爵官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幣跪進，禮儀使啓請執幣

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고 나면, 【예의사·근시·내시가 따라 오른다.】 악은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등가(登歌)는 숙안지악(肅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울창(鬱鬯)을 따르고, 근시는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전하에게〉 꿇어앉아 규를 씻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를 씻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근시가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받아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찬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찬을 잡아 땅에 부은 다음 찬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면, 전폐 찬작관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篋)를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집폐 헌폐하는데, 폐백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안(案)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는데,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桓祖室)에, 다음은 태조실에, 다음은 공정왕실(恭靖王室)에,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관창(裸鬯)하며, 폐백을 드리는 것도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것이 끝나면,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등가(登歌)는 그친다.

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奠幣瓚爵官，奠于案。【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訖，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登歌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樂止】當登歌止時，諸祝史各取毛血盤、肝膋鑿於前楹外，俱入奠於神位前。【毛血盤在鑿之後，肝膋鑿在鑿之左。】諸祝史俱取肝膋，燔於爐炭，還尊所饋食。殿下既升裸，贊引引典祀官，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一鼎，次升羊實于一鼎，次升豕實于一鼎，【每室牛羊豕各一鼎。】皆設扃罨。祝史對舉，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奉俎官隨之，俟殿下裸訖復位。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은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서게 하면, 예의사가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전하가> 조계(阼階)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은 그친다. 등가가 그칠 때에 여러 축사(祝史)가 앞기둥 밖에서 각각 모혈반(毛血盤)·간료등(肝膾鐙)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신위 앞에 놓는데, 【모혈반은 등(鐙)의 뒤쪽에 놓고, 간료등은 변(籩)의 왼쪽에 놓는다.】 여러 축사가 함께 간요를 가져와서 화로의 숯불에 구워 준소(尊所)로 돌아가 케식(饋食)한다. 전하가 이미 관창(裸鬯)을 올렸으며, 찬인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부엌[廚]에 나아가,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들어올려 정(鼎)에 담고, 다음은 양(羊)을 들어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시(豕)를 들어올려 정에 담는데,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정씩이다.】 모두 경떡(肩羶)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맞들고 들어가서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謁者)는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 찬소(饌所)에 나아가는데, 봉조관(奉俎官)이 따른다. 전하가 관창을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집례가 ‘진찬(進饌)’ 하면, 축사는 경(肩)을 뽑아 정(鼎) 오른쪽에 두고, 떡(羶)을 벗긴 다음 비(匕)와 필(畢)을 정(鼎)에 얹어 둔다. 전사관(典祀官)이 비(匕)로 우를 들어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시를 들어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갑씩이다.】 다음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奉俎官)은 각각 생갑을 받드는데,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 【남문.】으로 들어온다. 조(俎)가 문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헌가(軒架)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여러 축사는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盤)을 걸어서 조계(阼階)를 통해 재랑(齋郎)에게 주어 보낸다. 찬

【樂止】執禮曰進饌，祝史抽局委于鼎右，除羶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奉翼祖室俎，奉俎官各奉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徹毛血槃，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諸大祝迎於階上。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奉奠，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諸大祝各取蕭黍稷揉於脂，燔於爐炭，還尊所。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升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初獻禮。”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升自阼階訖，【樂止】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列文之舞) [烈文之舞] 作】執尊者舉羶，進幣瓚爵官酌醴齊，近侍二人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搢圭，殿下跪搢圭，近侍

(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이 섬돌 위에서 맞이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우를 드리고, 다음은 양, 다음은 시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의 뚜껑을 연다.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 다음은 태조실, 다음은 공정왕실,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은 그친다.

알자는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은 각기 소(蕭)·서직(黍稷)을 가지고 고기 기름을 묻혀 화로의 숯불에 구워서 준소로 들어간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준소로 올라가 북향하여 서면,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는데, 〈전하가〉 조계로 오르기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등가(登歌)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가 떡(饔)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예제(醴齊)를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圭)를 쫓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쫓는다. 근시가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근시가 부작(副爵)을 진폐 찬작관에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王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禮儀使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樂止】以次酌獻竝如上儀。【翼祖室歌昭寧之曲，度祖室歌貞明之曲，桓祖室歌威明之曲，太祖室歌昭明之曲，恭靖王室歌純明之曲，太宗室歌仁明之曲。】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曲終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禮儀使跪啓請入小次，殿下將至小次，禮儀使跪啓請釋圭，近侍受圭，殿下入小次簾降。【樂止】文舞退武舞進，軒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은 시작된다. 예의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고, 악은 그친다. 차례로 작헌(酌獻)하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익조실에는 소녕지곡(昭寧之曲)을, 도조실에는 정명지곡(貞明之曲)을, 환조실에는 위명지곡(威明之曲)을, 태조실에는 소명지곡(昭明之曲)을, 공정왕실에는 순명지곡(純明之曲)을 태종실에는 인명지곡(仁明之曲)을 노래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곡(曲)이 끝나고, 악도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도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조계로 내려와 위차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소차(小次)에 들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소차에 이르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 놓기를 계청하여, 근시가 규를 받는다. 전하가 소차에 들면, 주렴을 내리고, 악은 그친다.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오면, 헌가는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시작하는데, 무자(舞者)가 지정된 자리에 서면, 악도 그친다.

아헌·중헌은 【칠사 공신의 작헌(酌獻)도 덧붙인다.】 처음에 전하가 소차로 돌아가게 되면, 집례(執禮)가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으라.’ 찬한다. 아헌관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 익조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헌가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소무지무(昭武之舞)를 시작하며, 향악(鄉樂)도 섞어 아된다. 집준자가 먹(罍)을 들고 양제(盎齊)를 따르면, 집사

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

亞終獻：【七祀功臣酌獻附】初，殿下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知通禮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訖，【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亞獻官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西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鄉樂交奏。】執尊者舉罍酌盎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知通禮引亞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亞獻官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知通禮贊執笏俛伏興，亞獻官執笏俛伏興。引出以次酌獻，竝如上儀訖，知通禮贊執笏俛伏興，亞獻官執笏俛伏興。【樂止】引出就前楹外當中北向立，知通禮贊鞠躬再拜興平身，亞獻官鞠躬再拜興平身，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初，終獻官既升，贊引引七祀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者舉罍酌酒。

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하여, 아헌관은 끓어앉아서 홀을 깨끗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지통례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찬하여, 아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에서 북향하여 서면, 지통례가 ‘국궁, 재배, 흥, 평민’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을 마치게 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하던 의식대로 행례(行禮)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이 올라오면, 찬인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홀을 깨끗하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먹(羶)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 전작(奠爵)하는데,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는다. 사명(司命)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끓어앉으면, 축(祝)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북향하여 끓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것이 끝나면, 헌관은 조금 물러나 한가운데에서 서향하여 재배하고,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칠사 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게 되면, 찬인이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홀을 깨끗하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먹(羶)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以次奠訖，執笏俛伏興，就司命神位前西向跪。祝就獻官之左北向跪，讀祝文訖，獻官少退當中西向再拜，贊引引復位。初，七祀獻官將詣盥洗位，贊引引配享功臣獻官，詣盥洗位，搯笏盥手悅手訖，執笏詣尊所，執尊者舉羶酌酒，執事者以爵受酒。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執事者授爵，獻官執爵獻爵奠爵，以次奠訖執笏。祝史奉教書，進神位之右立讀訖，贊引引獻官復位飲福。初，終獻官既復位，謁者引進幣瓚爵官、薦俎官升自阼階，詣飲福位北向立。大祝詣翼祖室尊所，以爵酌上尊福酒，又大祝持俎，進減神位前俎肉，執禮曰：“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禮儀使跪啓請詣飲福位，簾捲出次，【軒架作《承安之樂》】近侍跪進圭，禮儀使跪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西向立。【樂止，登歌作《壽安之樂》】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北向跪進，禮儀使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受爵飲訖，進幣瓚爵官受虛爵，以授大

서서 홀을 쫓으면, 집사자는 작을 주어, 헌관이 집작 헌작 전작한다.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으면, 축사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읽는다. <읽는 것이 끝나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飮福)은, 초헌·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 음복위(飮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이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상준(上尊)의 복주(福酒)을 따른다.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신위 앞에 나아가 조의 <담긴> 고기를 들어낸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음복위에 나아가기를 계청한다. 주렴을 걷고 소차에서 나오면,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한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규(圭)를 올리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규를 잡도록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악은 그치고, 등가는 수안지악을 시작한다. 대축이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꿇어앉아 규를 쫓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를 쫓고, 작을 받아 마시고 나면, 진폐 찬작관이 빈 잔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이를 받아서 다시 점(坫) 위에 놓고, 대축은 조(俎)를 천조관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를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조(俎)받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는데, 근시는 조를 받들고 조계로 내려와 문을 나와 사옹(司饗)에게 주고,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祝, 大祝受復於坫。 大祝以俎授薦俎官, 薦俎官奉俎北向跪進, 禮儀使啓請受俎, 殿下受俎, 以授近侍, 近侍奉俎降自阼階出門, 授司饗。 進幣瓚爵官、薦俎官皆降復位。 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 殿下執圭俛伏興。【樂止】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復位,【樂止】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 執禮曰再拜, 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 執禮曰徹籩豆, 諸大祝入室徹籩豆,【徹者, 籩豆各一小移於故處。 登歌作《雍安之樂》。】七祀功臣祝史、齋郎各徹籩豆。 徹訖, 樂止, 軒架作《景安之樂》, 鄉樂交奏。 禮儀使啓請鞠躬四拜興平身, 殿下鞠躬四拜興平身。 執禮曰四拜, 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樂一成止】禮儀使啓禮畢, 導殿下還齋宮【軒架作《承安之樂》】出門。【樂止】禮儀使跪啓請釋圭, 殿下釋圭, 近侍跪受圭, 侍衛如常儀。【入齋宮釋冕服】執禮曰望瘞, 知通禮引亞獻官, 詣望瘞位北向立, 執禮帥贊者, 詣望瘞位西向立, 諸大祝取黍稷飯, 藉用白茅束之, 以篚取祝版及

바로 한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철거하라.’ 하면, 여러 대축이 묘실에 들어가 변·두를 철거하며, 【철거한다는 것은 변·두 각 하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옮긴다.】 등가는 웅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칠사 공신의 축사·재량도 각각 변·두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마치면, 악은 그치고, 헌가는 경안지악(景安之樂)을 아뢰며, 향악(鄉樂)도 섞어서 아뢰는다. 예의사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도 한 차례 연주하다가 그친다. 예의사는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궁(齋宮)으로 돌아가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문을 나오면,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규를 놓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고,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재궁에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는다.】 집례가 ‘망예(望瘞)’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여러 대축이 서직반(黍稷飯)을 백모(白茅)로 갈아서 묶고, 비(篚)로 축판과 폐백을 담아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가예(可瘞)’라 하면, 흙으로 구덩이를 반쯤 메우는데, 종묘령이 감시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와 찬인은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례문은 배제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돌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雅樂令)은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종묘령·

幣, 降自西階置於坎。 執禮曰可瘞, 置土半坎, 宗廟令監視。 知通禮引亞獻官, 謁者贊引各引諸享官出, 執禮率贊者還本位, 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 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 立定, 執禮曰四拜, 監察及諸執事皆鞠躬四拜興平身訖, 贊引以次引出。 雅樂令帥工人、二舞出, 大祝、宗廟令、宮闈令納神主如常儀。 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 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 執事者置祝版於瘞坎。 瘞訖, 功臣祝史奉教書, 出西門外焚之退, 典祀官, 宗廟令各帥其屬徹禮饌, 宮闈令闔戶以降乃退。

車駕還宮: 攸司陳大駕鹵簿於還途如常儀, 典樂令陳樂部於齋宮南門外。 王世子以下文武群官, 各具朝服, 殿下服冠袍。 王世子以下文武群官序立於大門外, 文武侍臣詣齋宮迎, 判司僕進象輅於大門外南向, 千牛將軍立於輅前。 判通禮跪啓外辦, 判司僕升執綬, 殿下乘輿出次, 繖扇、華蓋侍衛如常儀。 千牛將軍前執轡, 殿下至門外降輿升輅, 判司僕立受綬, 知通禮跪啓請車駕



궁위령은 〈감실(塙室)에〉 신주를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칠사(七祀)의 헌관은 서문(西門) 밖의 칠사의 예감(瘞坎)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 놓고 묻는다. 공신의 축사(祝史)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서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고 물러난다. 전사관·종묘령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견어치우고, 궁위령은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거가 환궁(車駕還宮)은, 유사가 대가(大駕)의 노부(鹵簿)를 돌아갈 길에 진열하는데,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악 령(典樂令)은 제궁(齊宮) 남문 밖에다가 악부(樂部)를 배운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전하는 관을 쓰고 도포[袍]를 입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대문 밖에 차례대로 서고, 문무 시신(侍臣)은 제궁에 나아가서 맞이한다. 판사복(判司僕)은 상로(象輅)를 대문 밖에 남향하여 진배(進拜)하고, 천우 장군(千牛將軍)은 노(輅) 앞에 선다. 판통례는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뢰고, 판사복은 올라와 유(綏)를 잡는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악차에서 나오면, 산(繖)·선(扇)·화개(華蓋)·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천우 장군이 앞에서 고삐를 잡는다. 전하가 문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노를 타면, 판사복은 서서 유(綏)를 받는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시신(侍臣)이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례가 꿇어앉아, ‘거가를 잠깐 머물러 시신들이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可)하다고 하신다.’ 하고, 통찬(通贊)이 ‘문무 시신은 말을 타라.’고 창한다. 상서관(尙瑞官)은 보(寶)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수레 오른쪽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 하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進發，退復位。車駕動，千牛將軍夾輅而趨，至侍臣上馬所，知通禮跪啓：“請車駕小駐，敎侍臣上馬。”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可，通贊唱文武侍臣上馬，尙瑞官奉寶前導。知通禮跪，啓請敎車右升，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可，知通禮退復位。千牛將軍升訖，知通禮跪，啓請車駕進發，退復位。車駕動，鼓吹振作而還，文武群臣導從如常儀。駕至景福宮門外侍臣下馬所，車駕小駐，文武侍臣皆下馬分立鞠躬。千牛將軍降立於輅右，車駕動，千牛將軍夾輅而趨，駕至勤政門，【樂止】回輅南向。判通禮進輅前跪，啓請降輅，俛伏輿還侍立，殿下降輅，乘輿以入，設香爐二於前楹外，設案於殿階上。通禮門設協律郎位於殿階上近西東向，設左右侍臣及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如常儀。繖扇、仗衛陳於殿階上下，樂部陳於群官之南如常儀訖。禮曹員引諸道進箋員由東門入，樂官奏樂前導至正門外，【樂止】升自東階，以箋文置於案上訖退。王世子以下文武群官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지통례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우 장군이 타고 나면, 지통례는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고취(鼓吹)를 울리면서 환궁하는데, 문무 여러 신하가 인도하여 따르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거가가 경복궁 문밖의 시신이 말에서 내리는 장소에 이르면, 거가는 잠깐 멈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국궁(鞠躬)하고, 천우 장군은 〈수레에서〉 내려 노 오른편에 선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거가가 근정문(勤政門)에 이르면, 악은 그치며, 노를 돌려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 판통례가 노 앞에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리기를 계청하고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전하는 노에서 내려 여를 타고 들어가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시신은 전정(殿庭)까지 따른다. 유사는 근정전 한가운데에 남향으로 악좌(幄座)를 포설(鋪設)하고, 향로(香爐) 둘을 앞기둥 밖에 베풀며, 안(案)은 전(殿)의 섬돌 위에 베풀다. 통례문은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를 전(殿)의 섬돌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侍臣)과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산·선·장위(仗衛)는 전의 섬돌 위 아래에 진열(陳列)하고, 악부(樂部)는 여러 관원의 남쪽에 진열(陳列)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관원(禮曹官員)이 여러 도(道)의 전문(箋文)을 올리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면, 악관(樂官)이 악을 아뢰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정문(正門) 밖에 이르면, 악은 그친다. 동계로 올라가서 전문(箋文)을 안(案) 위에 놓고 나서 물러간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도의 진전관(進箋官)은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악 령(典樂令)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며, 협률랑도 자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及諸道進箋員，皆就門外位，典樂令帥工人就位，協律郎就位，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入就位。通贊唱班齊，判通禮進跪啓請陞殿。中禁傳嚴，爐烟升，尙瑞官奉寶前行，殿下乘輿以出。上護軍啓看，協律郎跪俛伏舉麾輿。【樂作】典儀招通贊贊鞠躬，群官皆鞠躬。殿下升座，上護軍啓看，協律郎偃麾。【樂止】通贊贊平身，群官皆平身。典儀招通贊贊致詞，致詞官【致詞官通禮門】代班首，就月臺中心近北。通贊贊跪，群官皆跪。致詞曰：“具銜臣某等，大祀既成，禮當慶賀。”俛伏輿退復位。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通贊贊跪，群官皆跪，山呼，【千歲】山呼，【千歲】再山呼。【千千歲】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典儀唱進箋，執事官舉諸道箋案，由東門入，判通禮引至簾前置案訖，判通禮贊宣箋，宣箋官宣最高官箋文訖，執事官撤箋案，置於寶案之南。判通禮跪啓禮畢，通贊贊禮畢，殿下降座，【樂作】通贊贊鞠躬，群官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면, 통찬은 ‘반열(班列)을 정제(整齊)하라.’ 창(唱)한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전(殿)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하고, 향로에서 향연(香烟)이 오르면,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어 앞서 가고, 전하는 여(輦)를 타고 나오는데, 상호군(上護軍)이 간심(看審)하기를 아뢴다. 협률량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악은 시작된다. 전의(典儀)가 통찬(通贊)을 불러서 ‘국궁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한다. 전하가 좌(座)에 오르면, 상호군이 간심하기를 아뢴다. 협률량이 휘를 눕히면, 악은 그친다. 통찬이 ‘평신(平身)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평신한다. 전의가 통찬을 불러서 ‘치사(致詞)하라.’ 찬하면, 치사관(致詞官)이 【치사관은 통례문이다.】 반수(班首)를 대신하여 월대(月臺)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나아가간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치사(致詞)가 말하기를, ‘구함(具銜) 신 아무 등은 대사(大祀)를 이미 마쳤으니, 경하(慶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 나간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아, ‘산호(山呼) 【천세(千歲).】 , 산호 【천세(千歲).】 , 재산호(再山呼) 【천천세.】 ’ 한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전의(典儀)가 ‘전문(箋文)을 올리라.’고 창(唱)하면, 집사관이 여러 도의 전문안(箋文案)을 들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는데, 판통례가 주렴 앞까지 인도해와서 안(案)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문을 펴라.’고 찬하면, 선전관(宣箋官)은 <직계(職階)가> 가장 높은 관원의 전문을 선독(宣讀)한다. 이를 마치면, 집사관이 전문안을 거두어 보안(寶案) 남쪽에 놓는다. 판통례는 꿇어앉아서,

皆鞠躬。 殿下乘輿以入，【樂止】贊平身，群官皆平身。 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以次出。 還宮時，義禁府、軍器監進儺禮雜戲於宗廟洞口，成均館生徒等進歌謠於鍾樓西街，教坊進歌謠於惠政橋邊，仍呈才，又於景福宮門外左右結山臺。 殿下既還宮受賀禮如儀畢，仍頒教書及宥旨，賜享官諸執事宴。

	<p>‘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찬한다.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면, 악이 시작되고, 통찬이 ‘국궁’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히고, 전하가 여를 타고 들어오면, 악은 그친다. ‘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바로 한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p> <p>환궁(還宮)할 때에 의금부와 군기감(軍器監)에서는 나례(難禮)와 잡희(雜戲)를 종묘의 동구(洞口)에서 벌이고, 성균관 생도(成均館生徒)들은 종루(鍾樓) 서가(西街)에서 가요(歌謠)를 아뢰며, 교방(敎坊)에서는 혜정교(惠政橋) 가에서 가요를 아뢰고, 이어 정재(呈才)하며, 또 경복궁 문밖 좌우에는 산디[山臺]를 맺는다. 전하가 환궁한 뒤에 하례를 의식대로 받고 나서, 이어 교서(敎書)와 유지(宥旨)를 내리고,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에게 잔치를 하사한다.”</p> <p>하였다.</p>	
<p>世宗 24卷, 6年(1424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16日(己未) 5번째기사</p> <p>일본국 구주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p>	<p>구주 원의준(原義俊)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는데, 선자(扇子) 1백 자루, 소목(蘇木) 2천 근, 금란(金欄) 1단, 동(銅) 5백 근, 서각(犀角) 2본, 주절부(朱折敷) 20편(片), 견(絹) 10필, 사금(砂金) 1봉지, 단사(丹砂) 4근, 빈랑자(檳榔子) 10근이었다. 돌아가는 편에 정포(正布) 5백 30필을 하사하였다.</p>	<p>九州原義俊使人獻土宜。 扇子一把、蘇木二千斤、金欄一段、銅五百斤、犀角二本、朱折敷二十片、絹一十匹、砂金一裹、丹砂四斤、檳榔子一十斤、回賜正布五百三十四。</p>
<p>세종 24권, 6년(1424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8일(신유) 2번째기사</p> <p>예조가 계한 태종과 원경 왕후의 위판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p>	<p>예조에서 태종 대왕과 원경 왕후의 위판(位版)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儀注)를 아뢰었는데,</p> <p>“하루 전에 충후위(忠扈衛)는 임시로 봉안할 악차[幄]를 광효전 서쪽에 동향으로 땅의 형편에 따라 설치하고, 유사(有司)는 상석(床席)과 욕위(褥位)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먼저 위판(位版) 둘을 독(櫝)과 아울러 만들어 두었다가, 이 때에 요여(腰輿)로 받들어 광효전으로 나아가간다. 【연주(練主)의 예(例)와 같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이 각각 위판과 독을 욕위에 봉안(奉安)한다. 【태종의 위판을 북쪽에 둔다.】 부묘(祔廟)하는 날에 상로</p>	<p>禮曹啓太宗大王、元敬王后位版奉安廣孝殿儀註：</p> <p>前一日，忠扈衛設權安幄於廣孝殿之西東向，隨地之宜，有司設牀席褥位二於幄內。 奉常寺先造位版二并櫝，至是以腰輿奉詣廣孝殿，【如練主例】大祝、宮闈令各奉位版櫝，安於褥位。 【太宗位版在北】祔廟日， 竣象輅進</p>

(象輅)가 진발(進發)하는 것을 기다려, 집사(執事)는 광효전 신악(神幄)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붓·벼루·먹·광칠(光漆)을 갖춘다.】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관세위(盥洗位)를 설치한다.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들은 각기 제복(祭服)을 갖춘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탁자의 남쪽에 북향하여 선다. 대축은 태종의 위판과 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놓혀 둔다. 제위판관(題位版官)이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와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공정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먹으로 쓴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먹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거듭 칠한다.】 대축이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후의 위판독(位版櫝)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서 탁자 위에 놓혀 둔다. 제위판관이 먹으로 ‘창덕 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라 쓴 다음 광칠로 거듭 칠하고 물러난다. 궁위령은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는다.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위판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신악 안에 남향으로 봉안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나간다. 【유사가 배판(排辦)하기를 기다려 들어가 안신제(安神祭)를 행한다.】 유사는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여러 줄로 서향 되게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 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윗자리가 되게 한다. 전사관(典祀官)·전사(殿司)는 각자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板)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은 축(燭)과 아울러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바깥 왼편에 설치한다.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

發, 執事設卓於廣孝殿神幄東南西向, 【具筆硯墨、光漆】設盥洗於東階東南北向。 獻官、諸執事各具祭服,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卓南北向立。 大祝奉太宗位版櫝以入, 開櫝奉出位版, 臥置卓上。 題位版官盥手, 升自東階, 詣卓前西向立, 題云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墨書訖, 以光漆重模之, 【待墨書乾重模】大祝奉位版, 納于櫝中。 次宮闈令奉王后位版櫝以入, 開櫝奉出位版, 臥置卓上。 題位版官題云彰德昭烈元敬王太后, 墨書訖, 以光漆重模之乃退, 宮闈令各奉位版, 納于櫝中訖。 大祝、宮闈令各奉位版, 入安于神幄內, 南向西上。 謁者引獻官, 降自東階出。 【俟有司排辦畢, 入行安神祭。】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 重行西向北上, 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 西向, 書吏陪其後, 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 西向北上。 典祀官、殿司各率其屬, 入奠祝板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訖。 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謁者、

아가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독(櫝)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받들어 내어서 악좌에 모시고, 다음에 궁위령이 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악좌에 모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헌관이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꿍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편에서 하고, 전로(奠爐)는 헌관의 왼편에서 한다. 수잔(受盞)·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가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꿍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꿍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북, 흥, 재배’라 찬하고, 인도하여 지계문[戶]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꿍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就位， 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 立定，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 大祝開櫝， 奉出太宗位版， 設於座， 次宮闈令開櫝， 奉出王后神主， 設於座。 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贊者曰四拜， 獻官四拜。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 【奉香在獻官之右， 奠爐在獻官之左。 受盞奠盞準此。】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又執事以副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跪，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謁者贊俛伏興再拜， 引出戶降自東階復位。 小頃， 謁者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 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搢笏， 執事者以盞授獻官， 獻官執

	<p>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행하는데, 아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앞기둥[前楹] 바깥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음복위(飲福位)를 배설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르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한다. 대축은 북향하여 끓어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다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다시 준소에 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라.’ 하면, 헌관은 재배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다시 돌아가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판을 &lt;독에&gt; 들여놓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며,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摺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執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贊者曰再拜，獻官再拜。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21일(갑자) 1번째기사 유계문을 보내 김성을 위로하고, 함길도 감사는 김성에게 곡식 등</p>	<p>전 사간(司諫) 유계문(柳季聞)을 보내어 선운(宣醞)으로서 소주(燒酒) 20병을 가지고 가서 김성(金聲)을 위로하게 하고, 이어 김성에게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15필,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傳旨)하여 지휘 김성에게 술·과일·생선·고기와 참쌀 2석, 맷쌀 1백 50석을 지급(支給)하도록 하고, 유계문에게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p>	<p>甲子/遣前司諫柳季聞，齋宣醞燒酒二十瓶，往慰金聲，仍賜金聲苧麻布十五匹、夏衣一襲。傳旨咸吉道監司，給指揮金聲酒果、魚肉、粳米二石、糙米一百五十石，賜柳季聞夏衣一襲。</p>

<p>을 주라고 전지하다</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29日(壬申) 2번째기사</p> <p>예조에서 계한 원경 왕후에게 존호를 더 올리는 의주</p>	<p>예조에서 원경 왕후(元敬王后)에게 존호(尊號)를 더 올리는 의주(儀注)를 계하기를,</p> <p>“기일(期日)보다 3일 전에 전하는 별전(別殿)에서 재계(齋戒)하고, 책사(冊使)와 헌관(獻官) 이하 여러 집사는 본 아문(衙門)에서 재계한다. 2일 전에 책(冊)을 임시로 봉안(奉安)할 악차(幄次)를 광효전(廣孝殿) 중문 밖에다 지형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설치한다. 하루 전에 예고제(預告祭)를 거행한다. 【삭망제(朔望祭)의 예(例)를 사용한다.】 새벽 3각(刻) 전에 유사는 근정전 월대(勤政殿月臺) 위의 한가운데에다 전하의 전책위(傳冊位)를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배설(排設)하고, 책안(冊案)은 전책위의 서쪽에 남향으로 설치하여, 내시(內侍) 두 사람이 책안의 좌우에 갈라 서게 한다. 향안(香案)은 책안 앞에 설치하고,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 위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책사(冊使)와 헌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한가운데에 서쪽으로 가까이 북향되게 설치하고, 압책관(押冊官)은 책함(冊函)을 받은 자와 책안을 가진 자를 거느리고 책사의 남쪽에 있는데, 등급에 따라 자리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찬자(贊者) 두 사람의 자리는 여러 관원의 배위(拜位) 북쪽에 설치하되, 동서(東西)에서 서로 향하게 하며,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儀仗)은 전정의 안팎에 진설(陳設)하고, 악부(樂部)는 백관의 남쪽에 진설한다. 【진설하여 놓기만 하고 연주하지는 아니한다.】</p> <p>시각이 되면, 유사는 책함과 축판함(祝版函)을 안(案) 위에 둔다. 【책함은 서쪽에 있게 한다.】 협률랑(協律郎)이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과 책사(冊使) 이하 행례(行禮)할 관원(官員)들은 각기 평상복(平常服)과 흑대(黑帶) 차림으로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면, 통례문(通禮門)이 왕세자 이하 문무 백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다음에 책</p>	<p>禮曹啓元敬王后加上尊號儀注： 前期三日，殿下齋于別殿，冊使及獻官以下諸執事齋于本衙門。 前期二日，設權安冊幄於廣孝殿中門外， 隨地之宜。 前期一日，行預告祭。 【用朔望祭例】 晨前三刻，有司設殿下傳冊位於傳冊位之西南向，內侍二人分立冊案左右，設香案於冊案前，設協律郎位於西階上東向，冊使及獻官位於殿庭中央近西北向， 押冊官帥奉冊函者及持冊案者，在冊使之南，每等異位重行，北面東上， 設贊者二人位於衆官拜位之北，東西相向，設王世子以下文武百官位於殿庭東西如常儀， 陳儀仗於殿庭內外，陳樂部於百官之南。 【陳而不作】 時至，有司奉冊函及祝版函置案上。 【冊函在西】 協律郎先入就位，王世子以下文武百官及冊使以下應行禮官，各以常服、黑帶，俱就殿門外。 通禮門引王世子以下文武百官入就位，次引冊使以下應行禮官入就位。 立定，殿下常服黑帶，出殿詣褥位，贊禮贊再拜，殿下再拜。 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p>
--	---	---



사 이하 행례할 관원들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하는 평상복과 흑대로, 전(殿)을 나와 옥위(褥位)에 나아간다. 찬례(贊禮)가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通贊)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과 책사·헌관 및 행례할 관원들은 모두 재배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이 향합(香合)을 받들고 꿇어앉아 전하의 오른편에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왼편에서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찬례가 ‘상향(上香)하라.’ 찬하면, 전하가 상향하고, 근시(近侍)가 향안 위에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 이라 찬하면, 전하는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봉례랑(奉禮郎)이 책사와 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서 전책위의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동쪽을 위로 하여 선다. 지신사(知申事)가 책함을 받들어 올리면, 찬례가 ‘꿇어앉으라.’ 찬하면, 전하가 꿇어앉고, 통찬이 ‘꿇어앉으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꿇어앉는다. 전하가 책함을 받아서 책사에게 전해 주면, 책사는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지신사가 축관을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리면, 전하는 또 받아서 헌관에게 전해 주는데, 헌관은 꿇어앉아서 받고, 서향하여 선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찬하면, 전하가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통찬이 ‘부복, 흥, 평신’ 이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재배하라.’ 찬하면, 전하가 재배하고, 통찬이 ‘재배하라.’ 외치면, 여러 관원은 모두 재배한다. 책사와 헌관은 가운데 길을 통해서 나오고 내시는 책안을 받들고 책사의 뒤를 따라 나와서 안(案)을 가진 자에게 전해준다.

압책관(押冊官)과 책안을 받든 자는 책사의 뒤를 따르고, 전하는 섬돌을 내려

及冊使、獻官、應行禮官皆再拜。近侍一人奉香合，跪進於殿下之右，一人奉香爐，跪進於左，贊禮贊跪，殿下跪。通贊喝跪，衆官皆跪。贊禮贊上香，殿下上香，近侍奠于案上。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王世子以下衆官皆再拜。奉禮郎引冊使、獻官升自西階，詣傳冊位之南，北面東上，知申事奉祝版跪進，殿下又受，傳授獻官，獻官跪受西向立。贊禮贊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通贊喝俯伏興平身，衆官皆俯伏興平身。贊禮贊再拜，殿下再拜。通贊喝再拜，衆官皆再拜。冊使、獻官由中道出，內侍奉冊案，隨冊使後，傳授持案者。押冊官與奉冊案者隨冊使後，殿下降階至門祇送，衆官皆鞠躬。冊使出門，以冊函安於樓子，儀仗、樂部前導，殿下還內。通禮門引王世子以下衆官以次出，各司一員隨後。至廣

문으로 가서 지송(祇送)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鞠躬)한다. 책사가 문을 나와 책함을 누자(樓子)에 봉안하면, 의장(儀仗)과 악부(樂部)가 앞에서 인도한다. 전하는 내전(內殿)에 돌아가고, 통례문은 왕세자 이하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각사(各司)의 한 사람씩이 뒤를 따라 광효전에 이르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중문 밖의 악차에 들어와 임시로 안(案) 위에 봉안하고, 전사(殿司)가 이를 지키며, 【백관은 궁문 밖에 차례로 서서 사배하고 물러간다.】 책사 이하는 물러나 자리에 나아간다. 그날 행례(行禮)하기 전에, 유사는 책사 이하 행례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전(殿)의 내정(內庭)에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관위를 달리 하여 여러 줄로 서향하며, 북쪽이 위가 되게 설치한다.

시각이 되면, 책사는 책함을 받들고 정문(正門)으로 들어오고, 봉책관(奉冊官)은 책사의 뒤를 따라 중계(中階)로 올라온다. 【안(案)을 가진 자가 먼저 올라와서 안을 태후의 신좌(神座) 앞에 둔다.】 책사는 꿇어앉아 책함을 안 위에 봉안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나서 동계(東階)로 내려와 배위(拜位)로 나아가고, 행례할 관원은 모두 배위(拜位)에 나아간다. 찬자가 ‘사배하라.’ 외치면,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한다. 책사가 동계로 올라가 태후(太后)의 신좌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독책관(讀冊官)이 책안 앞에 나아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책함을 열고 책을 받들어 조금 물러나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책을 읽고 나서 함 안에 도로 들여넣는다. 책사와 독책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내려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외친다. 책사 이하 모두 사배하고, 찬자가 ‘예(禮)가 끝났다.’고 외치면, 차례로 인도하여 나온다. 유사가 찬품(饌品)을 진설하며, 【찬품은 별제(別祭)의 예(例)와 같다.】 헌관이 제사를 거행하는 것은 삭제와 망제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문에 헌책(獻冊)을 고한다는 뜻도 겸한다.】.”

하였다.

孝殿，冊使奉冊函，入詣中門外幄次，權安於案上，殿司守之，【百官止於宮外序立，四拜而退。】冊使以下退就次。其日未行禮前，有司設冊使以下應行禮官位於殿內庭東階東南，異位重行，俱西向北上。時至，冊使奉冊函，入自正門，奉冊官隨冊使後，升自中階，【持案者先升，置案於太后神座前。】冊使以冊函跪安於案上，俛伏興退，降自東階，就拜位，應行禮官皆就拜位。贊者喝四拜，冊使以下皆四拜訖，冊使升自東階，就太后神座前北向跪，讀冊官詣冊案前俛伏興，開函奉冊小退東向跪，讀冊訖，還納函中。冊使及讀冊官俛伏興退降復位，贊者喝四拜，冊使以下皆四拜。贊者喝禮畢，以次引出，有司設饌。【饌品用別祭例】獻官行祭如朔望儀。【祝文兼告獻冊意】”

世宗 24卷, 6年  
(1424 甲辰 / 명 영락  
(永樂) 22年) 6月 29  
日(壬申) 3번째기사  
사시와 납일·명절에  
친향하는 의주

사시(四時)와 납일(臘日)·명절(名節)에 친향(親享)하는 의주(儀註)는,  
“친향하기 3일 전에, 전하는 이틀 동안 산재(散齋)하고, 하루 동안 치재(致齋)  
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아니하고, 풍악을 듣지 아  
니하며, 유사는 형살(刑殺)에 관계되는 문서를 아뢰지 아니하고, 치재(致齋)는  
오직 향사할 일만을 아뢴다. 무릇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 및 근시(近侍)  
할 관원과 당연히 따라 오를 자도 아울러 이틀 동안 산재하고, 하루 동안 치  
재한다. 무릇 산재할 때에는 일은 전(前)같이 다스리나, 오직 술을 함부로 마  
시지 아니하고, 과·달래·마늘·부추 따위를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노래를 듣지 아니하며, 형(刑)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刑殺)에 관  
계된 문서를 판결하거나 서명(署名)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에 관여(關與)하  
지 아니한다. 치재(致齋) 중에는 오직 향사(享事)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궐(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배  
제(陪祭)할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위(衛)의 소속(所屬)과 전문(殿門)을 수위  
(守衛)하는 자와 공인(工人)도 아울러 하루 밤을 청재(淸齋)한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자는 모두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 입는  
다.】

진설(陳設)은, 친향(親享)하기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  
(殿) 안팎을 소제한다. 하루 전에 전악 령(典樂令)이 악현(樂懸)을 전정(殿庭)  
의 서쪽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東階)  
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해서 설치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만약 내정  
(內庭)이 좁으면, 외정(外庭)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전악(典  
樂)의 자리는 악현(樂懸)의 북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배제(陪祭)할 종실 이  
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에 무관은

四時及臘, 有名日親享儀:  
前享三日, 殿下散齋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不弔喪、問疾、不聽樂, 有司  
不啓刑殺文書, 致齋唯啓享事。 凡行  
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齋  
二日, 致齋一日。 凡散齋, 治事如故,  
唯不縱酒, 不食葱韭蒜薤, 不弔喪、問  
疾, 不聽歌, 不行刑, 不判署刑殺文書,  
不與穢惡事, 致齋唯行享事。 已齋而  
闕者, 通攝行事。 陪祭文武群官及諸  
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  
宿。 【享官以下凡與祭者, 皆前享二  
日, 沐浴更衣。】

陳設: 前享二日, 殿司率其屬, 掃除殿  
之內外。 前一日, 典樂令設樂懸於殿  
庭近西北向。 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  
階東南西向, 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  
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設通贊二  
人位於東階之西西向, 【若內庭狹窄,  
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 設典樂  
位於樂懸之北北向, 設陪祭宗室以下文  
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  
頭, 異位重行, 俱北向, 設監察位二於  
東西班後北向, 書吏各陪其後, 殿司掃  
除殿之內外。 校書官員以祝版奉進,

서쪽으로 하며,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관위를 달리하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 둘은 동·서반(東西班)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는 각기 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 전사는 전(殿)의 안팎을 소제한다. 교서관(校書館)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받들어 전하여 올려, 전하가 서(署)한 다음,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에게 교부한다. 친향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는 묘실(廟室) 문을 열어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먼지를〉 털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축을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구(饌具)를 진설한다. 존소(尊所)는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은 존소에 둔다. 예향(禮享)을 행사하기 3각 전에, 전사는 묘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며 〈먼지를〉 털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찬수를 담는다. 여러 향관과 배제할 관원은 모두 전문(殿門) 밖으로 나아간다. 2각 전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시각을 알리면,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와 임시로 재전(齋殿)에 나아간다. 1각 전에 전악 령이 악공(樂工)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고, 통례문이 종실 이하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간다. 지통례는 아헌관 이하가 관세(盥洗)하기를 기다려 아헌관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봉례랑(奉禮郎)이 인도한다.】 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독(楮)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모셔 내어서 좌차에 봉안하고, 궁위령은 독을 열고 왕태후의 위판을 모셔내어서 좌차에 봉안한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뢴다.

전하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며,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악(樂)이 시작된다. 전하가 관위에 와서 서향하여 서면, 악이 그친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국궁, 사

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出附殿司。 享日未行事前，殿司開室，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於尊所。

行禮： 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室，整拂神幄。 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 前二刻，書雲觀報時，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 前一刻，典樂令率工人入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 知通禮待亞獻官以下盥訖訖，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奉禮郎引。】 奉禮郎引終獻官入就位。 大祝開楮，奉出太宗位版設於座次。 宮闈令開楮，奉出王太后位版設於座。 判通禮跪啓外辦，殿下盥訖訖，贊禮導殿下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 樂作】 殿下至版位西向立，【樂止】 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 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 贊禮導殿下 【樂作】 升自東階

배, 흥, 평신'이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을 시작했다가, 동계로 올라간 뒤에 【섬돌을 오르내릴 때에는 상하가 모두 읍(揖)을 한다.】 악은 그친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을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지계문 밖에서는 읍하고, 지계문 안에서는 땅에 엎드린다.】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리는데,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리게 한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잔(進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근시가 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執盞獻盞)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근시가 꿇어앉아 부잔(副盞)을 올리면 찬례가 집잔 헌잔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근시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다 읽으면, 악을 시작한다. 찬례가 '면, 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악이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면, 악이 시작되고,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악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

訖, 【升降階上下皆有揖。樂止】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 入詣神位前 【戶外有揖, 戶內伏地。】 北向立, 啓請跪, 殿下跪, 近侍一人奉香合跪進, 近侍一人奉香爐跪進, 贊禮啓請三上香, 殿下三上香, 近侍奠爐于案。 【進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 近侍奉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神位前。又近侍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 殿下俛伏興小退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 讀祝文訖, 【樂作】 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 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 【樂止】 贊禮導殿下出戶, 【樂作】 降自東階復位。 【樂止】 知通禮引亞獻官, 升自東階, 詣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知通禮引亞獻, 官入詣神位前北向立, 贊跪, 亞獻官跪, 執事者以盞授亞獻官, 知通禮贊執盞獻盞, 亞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神位

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꿨어얏으라’ 찬(贊)하여, 아헌관이 꿨어얏는다. 집사자가 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는 ‘집잔 헌잔하라.’ 찬한다.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副盞)을 아헌관에게 주면, 지통례가 ‘집잔 헌잔하라.’ 찬하여, 아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태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지통례가 ‘면, 복, 흥, 소퇴(小退),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악은 그친다. 그리고 인도해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행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음복위(飲福位)를 앞기둥[前楹]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설치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라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면, 악이 시작되고,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잔을 받들어 북향하여 꿨어얏아 올린다. 찬례가 꿨어얏아서 잔을 받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꿨어얏아서 잔을 받아 마시고, 근시는 빈 잔을 받아서 도로 준소에 둔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악은 그친다.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면,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아뢰고, 전하를 인도해서 재전으로 돌아가면, 악이 시작되고, 문을 나오면, 악이 그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봉례랑은

前。又執事者以副盞授亞獻官，知通禮贊執盞獻盞，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太后神位前。知通禮贊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亞獻官俛伏興小退再拜興平身，【樂止】引降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通贊贊鞠躬再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贊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齋殿【樂作】出門【樂止】知通禮引亞獻官，奉禮郎引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典樂令率工人出。大祝、宮闈令納位版，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

	<p>중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며, 통례문은 배제(陪祭)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전악 령은 악공을 거느리고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관을 들여넣는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축관은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를 타고 환궁한다. 행사할 집사관은, 아헌관【왕세자.】, 중헌관【정일품(正一品).】, 전사관【봉상시 윤(奉常寺尹) 이상.】, 대축【내제(內製).】, 궁위령【내시부(內侍府).】, 응봉관 근시(應奉官近侍)【승정원(承政院).】, 찬례【종2품(從二品).】, 판통례【통례문.】, 통찬【통례문.】이며, 섭행(攝行)할 때의 행사할 집사관은, 헌관【1품.】, 전사관【봉상시.】, 대축【문관 참외(文官參外).】, 궁위령【내시부.】, 알자(謁者)【참외(參外).】, 찬자【참외.】, 찬인【참외.】, 재랑(齋郎)【참외.】, 감찰이다. 삭망제(朔望祭)에는 악현(樂懸)이 없다.”</p> <p>하였다.</p>	<p>宮。 行事執事官： 亞獻官【王世子】 終獻官【正一品】 典祀官【奉常寺尹以上】 大祝【內製】 宮闈令【內侍府】 應奉官近侍【承政院】 贊禮【從二品】 判通禮【通禮門】 通贊【通禮門】。 攝行則行事執事官： 獻官【一品】 典祀官【奉常寺】 大祝【文官參外】 宮闈令【內侍府】 謁者【參外】 贊者【參外】 贊引【參外】 齋郎【參外】 監察。 朔望祭則無樂懸。</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7월 2일(을해) 2번째기사</p> <p>기일 전에 통례문이 자리 배치를 하고 대왕과 왕후의 신주 앞에 담제를 지내다</p>	<p>담제의 의주(儀注)에,</p> <p>“기일 전에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아헌관과 중헌관의 자리는 전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는데,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겹줄로 서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남쪽으로 조금 물려서 설치하되, 모두 서향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만약 내정(內庭)이 좁으면 찬자의 자리는 외정(外庭)에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의 자리는 외정에 설치하는데,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하고, 중심이 위가 되게 하되, 관위(官位)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종실은 길 서쪽에서 앞줄에 있게 한다.】 감찰의 자리 둘을 동·서반(東西班)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각기</p>	<p>禫祭儀註：</p> <p>前期， 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 設亞獻官、 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 西向北上， 執事者位於其後， 異位重行， 俱西向北上， 設執禮位於東階西南， 西向， 謁者、 贊者、 贊引在南小退， 俱西向北上； 【若內庭窄狹， 則設贊者位於外庭東階西南西向。】 設宗室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 文東武西， 中心爲頭， 異位重行， 俱北向， 【宗室於道西在前行】 設監察位二於東西班後， 北向， 書吏各陪其後。 典祀官</p>

	<p>그 뒤에서 모시게 된다.</p> <p>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들을 인솔하여 축관을 영좌의 오른쪽에 【점(坫)이 있다.】 올려놓고, 폐백 광주리 둘은 준소에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축(燭)을 영좌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尊)은 지계문 밖의 왼쪽에 설치하되, 【현주(玄酒)는 서쪽에 둔다.】 모두 국자를 올려놓고 보자기를 덮어 놓는데,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세(洗)는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게 하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소반[盤]과 대야[匱]를 갖춘다.】 뇌(罍)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는데,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籩]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작(爵)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찬(瓚)과 작(爵)을 담는다.】 아헌관과 중헌관의 세(洗)는 또한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p> <p>【관세는 동쪽에 있고, 작세는 서쪽에 있게 하는데,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따로 세를 중헌관의 세 서쪽에 설치하는데, 소반과 대야를 갖춘다.】 뇌는 세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광주리는 세의 서남쪽에 늘어 놓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을 씻는 광주리면 또한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는 아헌관·중헌관의 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p> <p>시각이 되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으면, 여러 향관과 배제(陪祭)하는 여러 관원은 모두 전문(殿文) 밖으로 나아간다. 관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나오게 하여, 임시로 재전(齋殿)으로 나아가서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고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서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각기 제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무릇 집례가 말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傳唱)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기 자</p>	<p>率其屬， 奠祝版於靈座之右，【有坫】陳幣籩二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靈座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玄酒在西】皆加勺鬯，北向西上，設洗於東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籩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籩，則又實以瓚爵】亞終獻洗又於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若王世子亞獻，則別設洗於終獻洗之西，有盤匱】罍在洗東加勺，籩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籩則又實以爵】設諸執事盥洗於亞終獻洗東南北向。時至，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群官，皆就殿門外，判通禮導殿下乘輿以出，權就齋殿卽座。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殿庭拜位。立定，執禮曰四拜，【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謁者引亞獻官【若王世子亞獻，則知通禮引。】終獻官入就位。大祝開匱，</p>
--	--	--



리로 나아간다. 통례문이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만약 왕세자가 아헌하게 되면, 지통례가 인도한다.】 중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匱)를 열고 대왕의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자리[座]에 모시고 흰 모시수건으로 덮고, 궁위 령(宮闈令)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자리에 모시고 푸른 모시수건으로 덮는다. 【대왕의 신주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작세위에 나아가서 찬을 씻고 찬을 닦고, 작을 씻고 작을 닦아 광주리에 넣어 준소로 받들고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예조 관서가 재전(齋殿)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행례(行禮)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에서 나와 관위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내시가 꿇어앉아 대야를 집어서 물을 떠서 부으면, 또 한 내시가 소반으로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가 꿇어앉아서 광주리에서 수건을 집어서 올린다. 전하가 손을 닦기를 마치면, 내시가 수건을 받아서 광주리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솔하여 동계로 올라 【근시와 내시가 따라 오른다.】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보자기를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근시가 찬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 위에 올려놓는다. 근시가 찬을 꿇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찬을 잡아 땅에 붓고 나서 찬을 근시에게 주기를 아뢰어 청한

捧出大王神主，設於座，覆以白紵巾。宮闈令開匱，捧出王后神主，設於座，覆以青紵巾。【大王神主在西】執事者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置於篚，捧詣尊所，置於坫上。禮曹判書進當齋殿前跪，啓請行禮，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出齋殿詣版位西向立，判通禮啓請四拜哭，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先拜者不拜】判通禮導殿下詣盥洗位北向立，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脫手訖，內侍受巾奠於篚。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近侍、內侍從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鬯酌鬱鬯，近侍以瓚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捧香爐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跪進，判通禮啓請執瓚灌池訖，以瓚授近侍，近侍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靈座前。【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

다. 근시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백 광주리를 꿰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고,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하여 한다.】 또 근시 한 사람이 폐백 광주리를 꿰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폐백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조금 있다가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른다. 근시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근시가 작을 꿰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영좌 앞에 드리게 하고, 또 한 사람의 근시가 다음 작을 꿰어앉아 올리면, 판통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아뢰어 청하여, 작을 근시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꿰어앉기를 아뢰어 청한다. 대축이 영좌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꿰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판통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재배하기를 아뢰어 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그 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서 관세하기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보자기를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좌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꿰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

奠爵準此。】又近侍一人以幣篚跪進，判通禮啓請執幣獻幣，以幣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自東階復位。小頃，判通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判通禮導殿下詣靈座前北向立，啓請跪，近侍以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靈座前。又近侍以副爵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后神座前。判通禮啓請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靈座之右東向跪，讀祝文訖，判通禮啓請俛伏興再拜，導殿下降復位。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盥悅訖，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詣靈座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靈座前。又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座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判通禮啓請四拜哭，

	<p>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영좌 앞에 전드리게 하고, 집사자 또 한 사람이 다음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왕 후 신좌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고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그전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판통례가 사배하고 곡하기를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집례가 ‘사배하고 곡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곡하여 슬피 한다. 예조 판서가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p> <p>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으로 돌아가고, 알자가 아헌관과 종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고, 통례문이 배제(陪祭)하였던 종실 이하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전사관 이하 여러 집사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 령이 신주를 들여 모시기를 의식과 같이 한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을 인솔하여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이 그 속관을 인솔하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축과 폐백은 구덩이에 묻는다. 여러 관원이 반(班)을 동쪽 가까이 옮기고, 반수(班首)는 이름을 올려 봉위(奉慰)한다. 상의원(尙衣院)에서 길복(吉服)과 안장 갖춘 말[鞍馬]을 올리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길복을 입고 환궁한다. 예조에서 또 세자전(世子殿)에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문무 백관은 뜰에 들어와서 하례를 올린다.”</p> <p>하였다.</p>	<p>殿下四拜哭盡哀。執禮曰四拜哭，在位者皆四拜哭盡哀。禮曹判書跪啓禮畢，啓訖俛伏興。判通禮導殿下還齋殿，謁者引亞獻官、終獻官出，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引典祀官以下諸執事，俱復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諸執事皆四拜，贊引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幣瘞於坎。群官移班近東，班首進名奉慰。尙衣院上吉服及鞍馬，王世子以下文武群臣，皆服吉服還宮。禮曹又上世子殿鞍馬，文武群臣入庭陳賀。”</p>
<p>世宗 25卷, 6年(1424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7月 16日(己丑)</p>	<p>지신사 광존증을 보내어 사신에게 고하기를, “이제 진헌(進獻)할 어물(魚物)은 말은 관청에서 잘못 계산하여 1만 근이 차지 못하므로, 내가 즉시 그 관청에 명령하여 1만 근을 채우게 하고, 또 2백</p>	<p>遣知申事郭存中，告使臣曰：“今進獻魚物，所掌官司錯計，未滿一萬斤。予卽命其司，充一萬斤，又加二百</p>

<p>3번째기사 진헌할 어물의 수를 채우게 하였음을 지신사 곽존중을 보내어 사신에게 말하다</p>	<p>근을 더하였노라.” 하니, 사신 왕현(王賢)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나는 황제에게는 종ियो, 전하에게는 아들이니, 지성으로 갖추어 진헌하니 기쁘기 비할 데 없습니다.” 하였다.</p>	<p>斤。”王賢喜云：“我於皇帝奴也，殿下子也。至誠備獻，喜無可比。”</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0일(임술) 3번째기사 흉년에 대비해 일정한 수량의 도토리를 예비하도록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농사가 흉년이 든 각 고을의 구황(救荒)할 초식(草食)은 정한 수량이 없기 때문에, 많을 때는 일을 전폐하기에 이르고, 적을 때는 흉년을 구제하지 못하게 되오니, 지금부터 대호(大戶)에는 60석, 중호(中戶)에는 40석, 소호(小戶)에는 20석, 잔호(殘戶)에는 10석으로 일정한 수량을 정하여서 도토리[橡實]를 예비하게 하고, 농사가 비교적 잘 된 각 고을은 반드시 수량에 구애되지 말고 적당하게 예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失農各官救荒草食，因無定數，多或至於廢事，小或失於荒政。自今大戶六十石，中戶四十石，小戶二十石，殘戶十石，定爲恒數，以橡實爲先考察預備，其農事稍稔各官，不必拘數，隨宜儲備。”從之。</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8月 21日(癸亥) 9번째기사 구주의 작주 자사 평상가가 소목 유향·정향·곽향 등을 바치다</p>	<p>구주(九州)의 작주 자사(作州刺史) 평상가(平常嘉)가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1천 근, 유향 1천 근, 정향(丁香) 50근, 곽향(藿香) 30근, 백단(白檀) 15근, 서각(犀角) 3개, 금란(金欄) 1필, 상아(象牙) 1개, 구리 2백 근, 납[鉛] 20근을 바쳤으므로, 정포(正布) 3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九州作州刺史平常嘉使人獻蘇木一千觔、硫黃一千觔、丁香五十觔、藿香三十觔、白檀十五斤、犀角三本、金欄一段、象牙一本、銅二百觔、鉛二十觔，回賜正布三百四十匹。</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8월 21일(계해) 12번째기사 진상해 올리는 연어와 대구어의 알것이 간이</p>	<p>전지하기를, “경상도·강원도·함길도 감사가 진상해 올리는 연어(年魚)와 대구어(大口魚)의 알것[卵醢]은 9, 10월 간에 진상해 올리게 하고자 하니, 모름지기 간이 맞게 하여 정밀히 연구하여 담가서 진상(進上)하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慶尙、江原、咸吉道監司：“進獻年魚、大口魚卵醢，欲於九十月間進獻，須令醃淡適中，精究沈造上進。”</p>

<p>맞도록 때에 맞춰 담 그도록 하다</p>		
<p>世宗 25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9月 22日(甲午) 1번째기사 제사를 올릴 때의 예 물 내용과 처리 방법 에 대한 예조의 계문</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당나라 장경(長慶) 3년에 태상예원(太常禮院)에서 아뢰기 를, ‘교단(郊壇)에서 제사를 올리는데 큰비나 눈을 만나면 제사를 폐하옵고, 그 예물은 아래와 같이 하였나이다. 어서 축관(御署祝版)은 태상시 칙고(太常 寺勅庫)에 거두어 저장하고, 옥폐(玉幣)와 태울 나무와 신주(神酒)도 태울 폐 백과 단술[醴]·제(齊)와 개암[榛]·밤·포(脯)·젓[醢]과 초[燭] 같은 것은 교사서 (郊社署)를 시켜서 각기 유사(有司)에게 통지하여 다음 제사에 소용되게 하고, 생뢰(牲牢)는 제사에 생(牲)이 죽으면 파문는 예에 의하여 감찰사(監察司)와 예관(禮官)에게 위임하여 제사하러던 곳에 파문게 하고, 제수를 만들 곡식과 오이[瓜] 절임, 죽순 절임 등 이미 만든 찬수는 생(牲)에 따라 파문게 하라.’ 하여, 영영 일정한 방식으로 삼았사오니, 국조(國朝)에서 무릇 대소 제향에 기 일을 당해서 연고가 생겨 정지하게 되면, 그 예찬(禮饌)은 당나라 제도에 의 하여, 축관은 봉상시(奉常寺) 별고(別庫)에 저장하고, 술과 폐백·개암·밤·포·젓 과 촛불 같은 제사에 쓰러던 물건은 모두 봉상시에 저장하여 다음 제사 소용 에 충당하게 하고, 생뢰(牲牢)와 제수를 만들 곡식과 갱(羹) 김치[菹] 등 무릇 이미 만든 물건은 감찰(監察)이 전사관(典祀官)과 함께 감시하여 제사지내는 곳 정결한 땅에 묻게 하여, 향식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甲午/禮曹啓: “謹按, 唐長慶三年, 太 常禮院奏: ‘郊壇祠祀, 遇大雨雪廢祭, 其禮物條件如後。 御署祝版, 於太常 寺勅庫收貯, 玉幣、燎柴、神酒、燎 幣、醴齊并榛栗、脯醢及應行事燭等, 令郊社署各牒有司, 充次祭支用。 牲 牢比附祠令, 牲死則埋之例, 委監察使 及禮官, 於祀所瘞埋, 棗盛、瓜菹、笋 菹應已造成饌物, 隨牲瘞埋。’ 旨依永 爲定式。 國朝凡大小祭享, 及期遇故 停廢, 其禮饌, 乞依唐制, 祝版於奉常 寺別庫藏貯, 酒幣、榛栗脯醢及燭應緣 祭物, 皆藏奉常寺, 以充次祭支用。 若牲牢、棗盛、羹菹凡已造之物, 監察 與典祀官監瘞祠所潔地, 以爲恒式。” 從之。</p>
<p>세종 25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9월 22일(갑오) 2번째기사 마제 의주에 대한 예 문의 계문</p>	<p>예조에서 마제(禡祭) 의주(儀注)를 계하기를, “【춘추로 강무(講武)할 때에 하루 전에 행제(行祭)한다.】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헌관(獻官) 이하로 응당 참여해야 할 집사관이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 밤을 지내고, 제사지내기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제사지낼 곳을 닦아서 깨끗 하게 한다. 또 물을 구덩이[瘞坎]를 신좌(神座) 서북방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넉넉히 한다. 집례(執禮)가 헌관의 자리를 신좌 동남쪽에 서</p>	<p>禮曹啓禡祭儀注: 【當春秋講武時, 前期一日行祭。】前 祭一日, 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俱淸齋 一宿。 前祭一日, 有司修除祭所, 又 爲瘞坎於神座西北方, 深取足容物。 執禮設獻官位於神座東南西向, 執事者</p>

향하여 설치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위[上]로 한다. 집례의 자리는 헌관의 서쪽으로 북쪽 가까이 설치하되, 서향하게 한다. 알자·찬자는 남쪽으로 조금 물러나 서향하여 설치하되, 모두 북쪽을 위로 한다. 또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묻을 구덩이[瘞坎]의 남쪽에 북향되게 설치한다. 집사자가 두 개의 깃대를 남문 밖에 세우고, 그날 행사 전(行事前)에 헌관 이하 무릇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무복(武服)을 입고, 유사(有司)가 웅석(熊席)을 받들고 들어와서 치우(蚩尤) 신위(神位)를 남향하여 설치하고, 갑주(甲冑)와 궁시(弓矢)를 자리 옆에 놓고, 초(稍)917) 를 자리 뒤에 세운다. 전사관(典祀官)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올려놓는다.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 【흰 빛깔을 사용한다.】 를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향로와 향함과 함께 초[燭]를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는 제기(饌具)를 설치하는데, 변(籩)이 여덟인데, 왼편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오른쪽을 상(上)으로 하고, 두(豆)가 여덟인데, 오른쪽에 놓되, 석 줄로 해서 왼쪽을 상(上)으로 한다. 보(簠)와 궤(簋)는 각각 둘씩인데, 변과 두 사이에 보가 왼편에 있고, 궤가 오른편에 있게 놓는다. 조(俎)가 하나인데, 보·궤 앞에 놓고, 작(爵)이 셋인데, 조 앞에 놓는다. 상준(象尊) 둘을 신좌(神座)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서쪽을 상(上)으로 해서 설치하고, 세(洗)는 준소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뇌(鬯)는 세(洗)의 동쪽에 있게 하되 국자[勺]를 올려놓는다.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벌여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 그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전(丑時前) 5각(刻)에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수를 제기에 담기를 끝내고, 전(前) 3각에 헌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이 각기 무복을 입고,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가간다. 전 1각에

位於其後稍南，俱西向北上，執禮位於獻官之西近北西向，謁者、贊者在南小退，俱西向北上。又設望瘞位於瘞坎之南北向，執事者建二旗於南門外。其日未行事前，獻官以下凡行事執事官，俱服武服，有司奉熊席，入設蚩尤神位南向，置甲冑、弓矢於座側，建稍【矛屬】於座後。典祀官率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陳幣【用白色】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八在左爲三行右上，豆八在右爲三行左上。簠簋各二在籩豆間，籩在左、簋在右，俎一在簠簋前，爵三在俎前。設象尊二於神座東南，北向西上，設洗於尊所東南北向，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設諸執事盥洗，又於東南北向。祭日丑前五刻，典祀官率其屬，入實饌具畢。前三刻，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服武服。執禮率謁者、贊者，先就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

알자가 전사관·대축·재량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전창(傳唱)하여,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면,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량이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작을 씻고 닦아서 비(篋)에다 넣어 받들고 준소로 나아가 점(坫) 위에 놓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하고, 알자가 나아가서 헌관의 왼편에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폐백 드리는 예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 찬하고,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라.’ 찬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전(奠)드린다. 대축이 폐백을 가져다가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되, 폐백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俛), 복(伏), 흥(興)’이라 하고, 인도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꿘어앉으라.’고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꿘어앉으라.’ 하고, 대축이 신위 오른편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꿘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 재배’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

[悅] 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置於篋，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盥悅訖，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伏興引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俛伏興小退再拜引復位。小頃，執禮曰行終

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작 헌작하되,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전드리게 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말하기를, ‘종헌례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례와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음복(飲福)하고 조육(胙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준소로 나아가서 작으로 복주를 떠낸다.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俎) 위의 고기를 덜어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얹으라.’ 고 찬하고, 대축이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받아 마시고 작을 비우면, 대축이 빈 작을 받아서 점 위에 도로 올려놓는다. 집사자가 북향하고 조(俎)를 헌관에 주면, 헌관이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 알자가 ‘면, 복, 흥’이라 찬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말하기를,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변·두를 걷어치우라.’ 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헌관이 사배한다. 집례가 말하기를, ‘묻는 것을 바라보라.’ 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묻는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비(篚)에다 축판과 폐백을 담아 구덩이에 넣으면, 집례가 말하기를, ‘묻으라.’ 하여, 흙을 구덩이에 반쯤 넣는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에 나아가서 고하기를, ‘예식이 끝났다.’ 하고, 알자가

獻禮，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禮，引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尊所，以爵酌福酒，執事者持俎進神位前俎肉。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立贊跪，大祝進獻官之左北向，以爵授獻官，獻官受爵，飲卒爵，大祝受虛爵復於坵。執事者北向，以俎授獻官，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者受俎以出。謁者贊俎伏興引復位，執禮曰再拜，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大祝進徹籩豆。執禮曰四拜，獻官四拜。執禮曰望瘞，謁者引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大祝以篚取祝版及幣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就拜位。立定，執禮曰四拜，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出。執禮帥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乃退。【獻官一人僉摠制執禮一人司直，典祀官一人注簿以下，贊者、大祝、謁者各一人司正，齋郎二人、尊所盥洗位各一人副司正。】



	<p>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여, 전사관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집례가 알자·찬자를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가면, 전사관이 그 속관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물러간다. 【헌관 한 사람은 첨총제(僉摠制), 집례 한 사람은 사직(司直), 전사관 한 사람은 주부(注簿)이고, 이하 찬자·대축·알자 각 한 사람은 사정(司正)이요, 재랑 두 사람과 준소·관세위 각 한 사람은 부사정(副司正)이다. 】.”</p> <p>하였다.</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6일(정미) 7번째기사</p> <p>일본국에서 소목 8백 근, 금장식 식룡 1개 등을 바치다</p>	<p>일본국(日本國) 일기주 수(一岐州守) 조신(朝臣) 원중(源重)이 사람을 보내어 소목(蘇木) 8백 근, 금장식 식룡(金粧飾食籠) 1개, 기린혈(麒麟血) 1근, 서각(犀角) 1개, 은마부선자(銀磨付扇子) 10자루, 등자(藤子) 50본을 바치니, 정포(正布) 1백 50필을 회사하였다.</p>	<p>日本國一岐守源朝臣重使人獻蘇木八百斤、金粧飾食籠一箇、麒麟血一斤、犀角一箇、銀磨付扇子十本、藤子五十本，回賜正布一百五十匹。</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0月 10日(辛亥) 2번째기사</p> <p>정부와 육조에서 육서능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해 따르기로하다</p>	<p>정부와 육조에서 육선(肉膳)을 상시와 같이 들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p> <p>“나는 7일이 지난 뒤에 먹으려고 하였는데, 이제 경 등이 청하고 또 그 손님이 오게 되었으니 경들의 말에 따르겠다.”</p> <p>하였다.</p>	<p>政府、六曹請復肉膳，上曰：“予欲過七日乃復，今卿等請之，且大賓入京，姑從之。”</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0월 30일(신</p>	<p>대사헌 이지강(李之剛)이 겨울 동안에 금주하는 것이 어떠냐고 계하니, 임금이 이르기를,</p> <p>“심히 추우니 금하지 말고 봄을 기다려서 금하라.”</p>	<p>大司憲李之剛啓曰：“冬月禁酒如何?” 上曰：“祁寒毋禁，待春乃禁。” 卽召掌令梁活，命限十二月毋禁酒。</p>

<p>미) 2번째기사 봄이 되고나서 금주령 을 내리라고 이르다</p>	<p>하고, 곧 장령(掌令) 양활(梁活)을 불러서 명하기를, “12월까지 금주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0月 30日(辛 未) 3번째기사 영돈녕 유정현이 중국 사신의 연회에 사신의 시신을 참석시키지 말 것을 아뢰다</p>	<p>영돈녕(領敦寧) 유정현(柳廷顯)이 계하기를, “중국 사신을 연회에 초대할 때 시신까지 초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금후로 는 다만 술과 고기를 주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도 옳다고 말하였다.</p>	<p>領敦寧柳廷顯啓曰：“當宴上國使臣時， 賜宴於侍臣，未便，今後但賜酒肉可 矣。”上曰：“然。”</p>
<p>世宗 26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11月 23日(甲 午) 2번째기사 일본국 석성관사 평만 평이 방물을 바쳐 정 포 550필을 회사하다</p>	<p>일본국(日本國) 석성 관사(石城管事) 평만경(平滿景)이 사람을 보내어 방물을 바쳤는데, 금란(金欄) 1단(段),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4개 [頭], 축사 (縮砂) 10근, 동(銅) 3백 근, 선자(扇子) 1백 자루, 장뇌(樟腦) 20근, 납(鑛) 50근, 반(盤) 20개, 천궁(川芎) 10근, 봉아출(蓬莪朮) 10근, 청피(靑皮) 10근, 명반(明礬) 5백 근, 감초(甘草) 10근이다. 정포 5백 50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日本國石城管事平滿景使人獻土宜：金 欄一段、丹木五百斤、犀角四頭、縮 砂十斤、銅三百斤、扇子一百本、樟 腦 [樟腦] 二十斤、鑛五十斤、盤二 十片、川芎一十斤、蓬莪朮一十斤、 靑皮一十斤、明礬五百斤、甘草十斤、 回賜正布五百五十四匹。</p>
<p>세종 26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12월 8일(기유) 2번째기사 장빙군에게 술 3백 병 을 주다</p>	<p>장빙군(藏氷軍)에게 술 3백 병을 주었다.</p>	<p>賜藏氷軍酒三百瓶。</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p>	<p>예조에서 봉상시(奉常寺)의 첩정(牒呈)에 의하여 계하기를, “종묘(宗廟)의 사시 대향(四時大享) 및 삭망(朔望)과 명일(名日)의 별제(別祭)</p>	<p>○(壬午) [癸未] /禮曹據奉常寺牒呈 啓：“宗廟四時大享及朔望有名日別祭，</p>

<p>1년) 1월 12일(계미) 1번째기사 종묘의 사시 대향 삭망과 명일의 별제 때의 사람 수와 절차에 대한 예조의 계문</p>	<p>에는 다만 종묘서(宗廟署)의 관원 한 사람만으로 하여금 명첩(命牒)을 받아 재계(齋戒)하고 드릴 제물을 간검(看檢) 진설(陳設)하게 하고, 그 나머지의 관원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금후로는 대제 때에는 두 사람, 삭망과 별제 때에는 한 사람이 미리 재계하고, &lt;제삿날을&gt; 이를 앞두고서 제소(祭所)에 나아가서 드릴 제물을 분장(分掌)하여 감독 제조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대제 때에는 2일간 세 끼를 주고, 삭망과 별제 때에는 1일 동안 두 끼를 주도록 하옵고, 또 대제를 당하여 여러가지 드릴 제물을 종묘서의 소수의 노자(奴子)들이 밤을 새우며 장만하기 때문에 불결하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전사관(典祀官)이 재계할 때에는 본시(本寺)의 사무는 제쳐 놓고 제삿날 3일 전에 찬품(撰品)을 받들어 만질 사람들을 거느리고 종묘서에 나아가서 치재(致齋)하면서 종묘서의 관원과 합동하여 같이 제수(祭需)를 장만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只令宗廟署官員一人，受命牒齋戒，監設奠物，其餘官不與，甚爲未便。今後大祭則二員，朔望別祭則一員預先齋戒，前期二日詣祭所，其奠物分掌監造，其供給則大祭二日三時，朔望別祭一日兩時。且當大祭，諸般奠物，以宗廟署數少奴子，連夜熟設，以致不潔。今後典祀官清齋，除本寺，前期三日，帥執饌人，詣宗廟署致齋，同署官供饗。”從之。</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1월 14日(乙酉) 5번째기사 영녕전에서 춘향을 섭행하며 그 의례를 이르는 내용</p>	<p>영녕전(永寧殿)에서 춘향(春享)을 섭행(攝行)하였다. 그 의주(儀注)에 이르기를, “재계(齋戒)에 관한 의절. 제향을 7일 앞두고 행사 집사관(行事執事官)들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서계(誓戒)를 받는다. 당일에 날이 밝기 전 7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는데, 헌관(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설치하되 남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며,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두되 동향으로 설치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전사(殿司)·궁위령(宮闈令)·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두되 서향으로 설치하며, 등(等)마다 위치를 달리 하여 겹줄로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밝기 전 5각에 봉례랑(奉禮郎)이 행사한 집사관들을 각각 나누어 인도</p>	<p>攝行春享于永寧殿。其儀注： 齋戒：前享七日，行事執事官受誓戒於奉常寺。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位，獻官在北南向，薦俎官在南北向，監察在西東向，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殿司、宮闈令、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異位重行，俱北上。未明五刻，奉禮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引獻官就位。通贊就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享于永寧殿。凡行事執事官，</p>

하여 자리에 나아간 뒤에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면, 통찬(通贊)이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서, 서문(誓文)을 대독(代讀)하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영녕전에 제향을 드리니,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말 것이며, 파[葱]와 부추[韭]와 마늘[蒜] 염교[薤]를 먹지 말 것이며, 조상(弔喪)하거나 문병[問疾]하지 말 것이며, 음악을 듣지 말며, 형벌을 행하지 말며, 형살(刑殺)하는 문서를 판결 서명하지 말며, 예악(穢惡)한 일에 간여하지 말고 각각 그 직무를 거행하라. 혹시 이에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읽기를 마치고 나서, 통찬이 ‘재배(再拜)하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난다. 무릇 행사 집사관은 산재(散齋)의 4일간을 모두 정침(正寢)에서 자고, 3일 간의 치재(致齋)를 2일은 본사(本司)에서 행사고, 1일은 향소(享所)에서 행한다. 대저 산재 중에는 사무를 다스리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나, 치재 중에는 오직 향사에 관한 일만을 행하며, 이미 재계하고 켜(闕)하게 된 자는 <다른 사람으로> 변통하여 섭행하게 한다. 모든 위(衛)의 속원(屬員)과 전문(殿門)을 수위(守衛)하는 자는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 모퉁이마다 각각 1인으로 한다.】 각기 본사(本司)에서 재계하고 하룻밤을 자며,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는 재계하고 예조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치재하기 하루 전에 모두 봉상시에 모여서 의식의 절차를 익히고, 행사하기 하루 전에 모두 향소(享所)에 집합한다. 【무릇 제향에 참여할 자는 향사를 이틀 앞두고 모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다니는 길을 청소하여 모든 흉하고 추악한 것과 최질(衰絰) 등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그 곡읍(哭泣)하는 소리가 향소에 들리는 것은 임시 금지하도록 한다.】

진설(陳設)에 관한 의절.

향사를 앞두고 충호위(忠扈衛)에서는 모든 향관의 자리를 재방(齋坊)안에 설치하면, 전사(殿司)가 그 속원을 거느리고 신전(神殿)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

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迄，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竝散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享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惟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殿門者，【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清齋一宿，工人、二舞清齋一宿於禮曹。前致齋一日，竝集奉常寺肄儀，前享一日，竝集享所。【凡預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清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享所者權斷。】

陳設：前享二日，忠扈衛設諸享官次於齋坊之內。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設饌幔於東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堂上前楹間，設軒架於殿庭，俱北向。掌牲令牽牲詣享所，典祀官、殿司各帥其屬，設祭器位於堂上東側階北，【凡設祭器，皆藉以席，加以巾蓋。】以俟告潔。執禮設獻官位於阼階東南西向，

만(饌幔)을 동쪽 문밖에 설치하되, 지형에 따라서 적당한 곳을 택하여 한다. 하루를 앞두고서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속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941)의 악기(樂器)를 마루 위의 앞 기둥 사이에 설치하고, 헌가(軒架)942)는 신전 뜰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마련한다. 장생령(掌牲令)은 희생(犧牲)을 끌고 향소로 나아가면,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받들어 둘 자리를 마루 위의 동편 계폐(階陛) 북쪽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모두 자리를 깔고 그 위에 수건을 덮어 둔다.】 <그 희생과 제기가> 깨끗하고 아무 이상 없다는 보고를 기다린다. 집례(執禮)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천조관(薦俎官)의 자리를 헌관의 뒤에 약간 남쪽으로 설치하되 역시 서향으로 하며, 집사자(執事者)는 그 뒤에 자리하게 하는데, 등마다 위치(位次)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하되, 서향하며 북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신전 뜰 남쪽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며, 서리(書吏)가 그 뒤에 배석(陪席)하게 된다. 집례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조계(阼階)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위로 한다.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는 마루 위의 앞기둥 밖에 서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동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현(軒懸) 북쪽에 설치하되 북향으로 하고, 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마루 위의 앞기둥 자리에 동편으로 가깝게 설치하되 서향으로 하고, 또 문밖에 향관 및 여러 집사의 자리를 동편 문밖의 길남쪽에다 설치하되, 등마다 위치를 달리 하고 모두 겹줄로 북향하여 마련하며, 서쪽을 위로 한다. 생방(牲勝)943)의 자리는 동문 밖에 문을 마주 보고 서향하여 설치하되, 남쪽을 위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희생의 서남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는 희생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희생의 뒤로 하며, 축사(祝史)도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서향하게 한다. 천조관의 희생을 살피는 자리는 희생의

設薦俎官位於獻官之後稍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具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於堂上前楹外近東西向，謁者、贊者、贊引位於阼階西南西向北上，協律郎位於堂上前楹外近西東向，雅樂令位於軒懸之北北向，設獻官飲福位於堂上前楹位近東西向，設門外位享官及諸執事於東門外道南，每等異位，俱重行，北向西上。設牲勝於東門外，當門西向，以南爲上。設掌牲令位於牲西南，大祝位於牲東當牲後，祝史在其後，俱西向。設薦俎官省牲位於牲前近北，設監察位於薦俎官之西，俱南向，【監察位稍却】開瘞坎於殿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陛，設望瘞位於瘞坎之南，獻官在南北向，執禮、大祝、贊者在東，俱重行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宮闈令帥其屬開室，整拂神幄，鋪筵設几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坩】陳幣篚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籩十二在左，爲二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乾魚、乾棗、栗

앞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깝게 하고, 감찰의 자리는 천조관의 서쪽으로 하고, 모두 남향하여 마련한다. 【감찰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린다.】 〈축판(祝版)과 폐백을〉 물을 구덩이는 신전의 북쪽 임지(壬地)에 네모지게 파되, 깊이는 족히 물건을 용납할 정도로 하고, 남쪽 계폐(階陞)로 나오게 한다. 망예위(望瘞位)는 구덩이의 남쪽에 설치하되, 현관은 남쪽에 자리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와 대축과 찬자는 동쪽에 자리하여 모두 겹줄로 서서 서향하게 하며, 북쪽을 위로 한다. 제향하는 날에, 행사하기에 앞서 궁위령(宮闈令)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의 문을 열고 신막(神幪)을 정돈하고 털고 닦은 뒤에 자리를 펴고 쟈상[几]을 설치하기를 평상시의 의절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殿司)가 각기 그의 소속 부하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축판을 드리고, 【점(坫)이 있다.】 폐백 상자를 준소(尊所)에 진열하고는, 향로(香爐)와 향함(香奩)을 초와 함께 신위(神位)앞에 배설해 놓는다. 다음에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친구를 담은 친구를 설치하는데, 변(籩) 12개는 왼쪽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위로 한다. 【첫 줄에는 형염(刑鹽)을 머리에 두고, 어해(魚醢)·건조(乾棗)·율황(栗黃)·진자(榛子)·능인(菱仁)을 그 다음에다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능인을 앞에 두고, 녹포(鹿脯)·백병(白餅)·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糝)를 그 다음에다 배설한다.】 두(豆) 12개는 오른쪽에 배설하되, 두 줄로 하고 왼쪽을 위로 삼는다. 【첫 줄에는 구저(韭菹)를 앞에 두고 염해(鹽醢)·정저(菁菹)·녹해(鹿醢)·근저(芹菹)·토해(兔醢)를 그 다음에 배설하며, 둘째 줄에는 순저(筍菹)를 앞에 놓고 어해(魚醢)·비절(脾折)·돈박(豚拍)·타식(駝食)·삼식(糝食)을 그 다음에 차례로 배설한다.】 조(俎)는 셋을 마련하되, 둘은 변(籩) 앞에 놓고, 하나는 두(豆) 앞에 놓는다. 【변 앞에 놓는 조는, 하나는 우성(牛腥)을 담고, 하나는 양성(羊腥)의 칠체(七體)를 담는데, 양쪽 허파와 양쪽 어깨와 양쪽 갈비에다가 등심을 아울러 쓰되, 허파는 양쪽 끝에 놓고, 어깨와 갈비는 그 다음에 놓고, 등심은 한가운데 놓는다. 두 앞에

黃、榛子、菱仁次之。 第二行(菱) [芡] 仁在前, 鹿脯、白餅、黑餅、糗餌、粉糝次之。】 豆十二在右, 爲二行左上。【第一行韭菹在前, 醢醢、菁菹、鹿醢、芹菹、兔醢次之。 第二行荀菹在前, 魚醢、脾折、豚拍駝食糝食次之。】 俎三, 二在籩前, 一在豆前。 【籩前俎, 一實牛腥, 一實羊腥七體, 兩脾、兩肩、兩脅并脊, 而脾在兩端, 肩脅次之, 脊在中。 豆前俎, 實豕腥七體, 其載如羊。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豆右之俎三, 【一實牛熟腸胃肺, 一實羊熟腸胃肺, 一實豕熟膚, 豕在前, 牛羊次之, 凡俎皆有牲匣。】 簠簋各四在籩豆間, 簠居前, 簋次之。【簠實以稻粱, 簋實以黍稷。】 鐙、鉶各六, 在簠簋後, 鉶在前, 鐙次之, 【鐙實以大羹, 鉶實以和羹加芼滑。】 爵六在簠簋前。【各有坫】 又設尊彝於戶外之左, 【如宗廟儀】 皆加勺鬯, 北向西上。【凡尊彝明水玄酒爲上。 凡享神之物, 當時所無者, 以時物代之。】 設瓚盤一於尊所坫上, 設爐炭於前楹間, 毛血盤、肝膋鐙、蕭籩、黍稷籩各一於其後, 設飲福

놓는 조에는 시성(豕腥)의 칠체를 담는데, 그 배치하는 순위는 양성과 같이 한다. 송(宋)의 《석전의(釋奠儀)》에 이르기를, ‘무릇 앞에 놓는다는 것은 모두 남쪽을 이르는 것이다’고 하였다.】 두의 오른쪽에도 조 셋을 배설한다. 【하나는 쇠고기로써 익힌 내장 위(胃)와 폐(肺)를 담고, 하나는 양고기로써 익힌 내장 위와 폐를 담고, 하나는 돼지고기로써 익힌 피부를 담는데, 돼지고기를 앞에 놓고, 쇠고기와 양고기는 그 다음에 놓는다. 대저 조에는 모두 희생을 덮는 갑(匣)이 있다.】 보[簠]와 궤[簋]는 각각 넷으로서, 변과 두의 사이에 배설하는데, 궤를 앞에 놓고, 보는 그 다음에 진설한다. 【보에는 도(稻)와 양(粱)으로 채우고, 궤에는 서(黍)와 직(稷)으로 채운다.】 등(鐙)과 형(銅)이 각각 여섯으로서 보·궤 뒤에 진설하되, 형을 앞에 놓고, 등을 뒤에 놓는다. 【등에는 대갱(大羹)을 채우고, 형에는 화갱(和羹)을 채우고는 모활(茅滑)을 가한다.】 술잔 여섯 개를 보·궤 앞에 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또 술그릇[尊壘]을 지계문 밖 왼편에 설치해 놓고, 【종묘의 의적과 같다.】 모두 술국자를 넣거나 보자기를 덮어 두되, 북향으로 하여 서쪽을 위로 한다. 【대저 준퇴(尊壘)에는 명수(明水)와 현주(玄酒)로 채우는 것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삼으며, 신에게 제향하는 물건으로 당시에 없는 것은 그 계절에 생산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한다.】 찬반(瓚盤) 한 개를 준소의 점 위에 설치하고, 화로[爐]와 솥을 앞 기둥 사이에 설비해 놓고, 모혈반(毛血盤)과 간료등(肝膋鐙)과 소변(蕭籩)과 서직변(黍稷籩)을 각각 하나씩 그 뒤에 설치한다. 음복(飲福)하는 술잔 【점(坫)이 있다.】 과 조육조(胾肉俎) 각각 하나를 준소에 설비하고, 또 조 하나를, 찬수를 받들어 둔 장막 안에 설치해 둔다. 세(洗)는 조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동쪽에 두고, 잔세(爵洗)는 서쪽에 두게 한다.】 뇌(雷)는 세의 동쪽에 설치하되, 국자를 올려놓고, 비(篚)는 세의 서남쪽에 설치하되, 수건을 넣어 둔다. 【만약 작을 씻는 비이면 또 찬(瓚)과 작(爵)을 넣어 둔다. 점(坫)이 있다.】 모든 집사의 관세하는 자리는 현관의 세

酒爵【有坫】胾肉俎各一於尊所，又設俎一於饌幔內，設洗於阼階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壘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若爵洗之篚則又實以瓚爵。有坫。】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東南北向，執尊壘篚罍者位於尊壘篚罍之後。受香祝：前享一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香祝案於勤政殿當中南向，設香案於其前，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北向。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通贊二人在南少退，俱西向，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相對異位重行，俱北上，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竝集闕門外，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奉香合，西向跪進，近侍一人奉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於案。近侍奉香祝，

위(洗位)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떡(饗)을 맡을 집사자의 자리는 준·뇌·비·떡 뒤에 설치한다.

향축(香祝)을 받는 의절.

제향을 하루 앞두고, 주루(晝漏)의 상수(上水)가 1각이 되면, 유사(有司)가 향축안(香祝案)을 근정전(勤政殿) 중앙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하며, 전하(殿下)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중앙에 북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통례문의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두되, 약간 뒤로 물러서 모두 서향하게 마련하고, 좌우의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계·서계의 남쪽에 서로 상대하여 마련하되, 위치(位次)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모두 북쪽을 위로 하여 설치한다. 노부(鹵簿)를 궐문 밖에 설비해 두고, 시신들이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대기하고, 3각에 현관 이하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궐문 밖에 집합한다. 전하가 관포(冠袍)를 갖추고 나오면,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이를 전해 받아 받들어 올려, 전하가 서결(署決)을 마친 뒤에, 근신이 축판과 향을 향안(香案)위에 놓는다. 5각이 되면, 봉례랑(奉禮郎)이 좌우의 시신을 나누어 인도하고 들어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에 현관 이하의 제관들을 인도하고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는데, 봉례랑이 현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오르면, 【봉례랑은 계하(階下)에서 그치고 만다.】 판통례(判通禮)가 전하를 인도하고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서, 재배(再拜)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 바치면,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 바친다. 판통례가 세 번 향불 피워 올리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향안 위에 올리고, 또 근시가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향축을 받아 현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현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향안 위에 놓

東向跪進，判通禮啓請取香祝授獻官，獻官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俛伏興，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上東向。獻官奉香祝降自正階，判通禮啓請鞠躬，獻官沒階，殿下平身。獻官出門，置香祝於鼻擔，薦俎官以下隨獻官，以次出門上馬。軍士奉鼻擔，鹵簿前導，至齋坊門外下馬，入門就殿東門外，重行北上西向立，四拜訖，各就齋所，香祝安於卓上。

省牲器：前享一日未後二刻，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加以巾蓋，如陳設儀。未後三刻，薦俎官以下應省牲器者，俱以常服，就東門外，執禮帥謁者贊者、先入殿庭，掌牲令牽牲就位，贊引引監察升自阼階，行掃除於上，降行樂懸於下訖復位。謁者引薦俎官，贊引引監察，升自阼階，視滌濯。執事者皆舉罍告潔訖，引降就省牲位南向立，掌牲令小前曰請省牲，退復位，薦俎官省牲。掌牲令又前舉手曰臚，復位，大祝巡牲一匝，西向舉手曰充，復位。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授典祀官。謁



는다. 판통례가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를 계청한다. 다시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가서 월대 위에 동향하여 선다. 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정계(正階)로 내려가면, 판통례가 국궁(鞠躬)하기를 계청하고, 헌관이 계단을 다 내려간 뒤에, 전하가 몸을 편다. 헌관이 문밖에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鼻擔)에 놓으면, 천조관 이하는 모두 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밖으로 나와서 말에 오르고, 군사(軍士)가 여담과 노부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 신전[殿] 동문 밖으로 나아가서, 겹줄로 북쪽을 위로 하여 서향하고 서서 네 번 절한 다음에, 각기 재소(齋所)로 나아가서 향과 축문을 탁자 위에 안치(安置)한다.

희생과 제기를 살피는 의절.

향사하기 전날 미시 후(未時後) 2각(刻)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의 안팎을 소제하고 나면, 집사자가 제기를 들여다가 각기 제자리에 벌여 놓고, 보자기로 덮기를 진설의 의절과 같이 한다. 미시 후 3각에 천조관 이하 응당 희생과 제기를 살피볼 사람들이 모두 평복 차림으로 동문 밖으로 나아가면, 집례가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신전 뜰에 들어간다. 장생령(掌牲令)이 희생을 끌고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贊引)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오르내리는 곳을 소제하고, 악현(樂懸)은 그 밑에 선행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서 <제기의> 세척(洗滌)한 상황을 살피본다. 집사자들이 모두 먹(羶)을 들고 정결히 되었다고 고(告)하고 나서, 다시 인도하고 내려와 희생을 살피보는 성생위(省牲位)로 나아가 남향하여 선다. 장생령이 조금 앞으로 나서서 말하기를, ‘희생의 점검을 청합니다.’ 하고는 물러가 제자리로 되돌아간다. 천조관이 희생을 살피며,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서서 손을 들고 ‘돈(鑪)’이라 <살편 희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축(大祝)이 희생을

者引薦俎官，詣廚省鼎鑊，申視滌濯，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取火於陽燧。陰鑑未能猝辦，以井水代之。火以供爨，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帥宰人，以鸞刀割牲，祝史以槃取毛血，又取肝及胷膂，實於鏡，各置饌所，遂烹牲。【連皮煮熟。肝洗於鬱鬯。胷膂，腸間脂膏。肝膂共實一鏡，毛血共實一盤，其餘毛血，以淨器盛貯，祭畢埋之。】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

晨裸：享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前一刻。】宮闈令帥其屬開室，整拂神幄，鋪筵設几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凡行事執事官升降，皆自阼階。】按視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前三刻，諸享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謁者、贊引各引享官，俱就東門外位。前一刻，

한 바퀴 <돌며> 순시하고 나서 서향하여 손을 들고, ‘충(充)’이라 <충만함을> 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와 같이 하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희생을 끌고 주방(廚房)으로 나아가서 이를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그러면, 알자는 천조관을 인도하고 주방으로 나아가, 정확(鼎鑊)이 정결히 세척되어 있는가를 거듭 살피고, 명수(明水)와 명화(明火)를 잘 취하였는가를 본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遂)에서 취한다. 음감을 줄연히 관득할 수 없으면, 우물물로 이를 대신한다. 불은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불뿔 때에 쓰고, 물은 준(尊)을 채운다.】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으로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고 나서 각각 채소로 돌아간다. 포시(晡時) 【신시(申時).】 후 1각에, 전사관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난도(鸞刀)로 희생을 벤다. 축사는 쟁반을 가지고 모혈(毛血)을 취하고, 또 간(肝)과 수료(臍膂)를 취하여 등(鏡)에 채워 각각 찬소(饌所)에 두게 되면, 드디어 희생을 삶는다. 【가죽째 그대로 삶는다. 간은 울창(鬱鬯)에 씻는다. 수료는 창자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脂]이다. 간과 요는 함께 한 등에 담고, 털과 피도 함께 한 쟁반에 담고서, 그 나머지의 털과 피는 정결한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례를 마친 다음에 이를 묻는다.】 전사가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전 안팎을 깨끗이 소제한다. 신관(晨禠)에 관한 의절.

제향 당일 축시(丑時) 전 5각에 【축시 전 5각은 즉 3경 3점(三更三點)이니, 행사하는 시각은 축시 전 1각이다.】 궁위령이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신실(神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깨끗이 털고 나서 자리를 펴고 례(几)를 설치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전하관과 전사는 각기 그의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 찬구를 채우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와서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조계로 오르내린다.】 당(堂)의 상하를 순시하고 의절과 같게 하지 못한 것은 규찰하여 도로 내보낸다. 행사하기 전 3각에, 모든 향관이 각기 그 복색(服色)을 갖추고, 집례가 알자와 찬자와 찬인을 거느리고 동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殿司、宮闈令、協律郎、捧俎官、入就懸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帨訖，各就位。贊引引殿司、大祝、宮闈令入開(埒) [龕]室，奉出神主，設於座，【詣神幄內，於几後開匱設於座。先王神主大祝奉出，覆以白苧布；先后神主宮闈令奉出，覆以青苧布，以西爲上。】引降復位。贊引引齋郎詣爵洗位，洗瓚拭瓚，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泰階，祝史迎就於階上，置於尊所玷上。謁者引獻官，贊引引薦俎官入就位，執禮曰四拜，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協律郎跪俛伏舉麾興，【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興，奠物則跪奠訖，俛伏而後興。】工鼓柷，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作九成，協律令偃麾戛敵，樂止。【凡樂，皆協律郎跪俛伏舉麾興，工鼓柷而後作，偃麾戛敵而後止。】執禮曰行晨禠

문으로부터 들어와 조계 사이의 현(縣) 북쪽의 배위(拜位)로 먼저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네 번 절하고 나서 각각 자리로 나아가간다. 또 아악 령이 공인(工人)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서, 문무(文舞)는 현 북쪽에 벌여 놓고, 무무(武舞)는 현 남쪽 길 서편에 세워 둔다. 그리고 나면, 알자와 찬인이 각각 향관을 이끌고 함께 동문 밖의 자리로 나아가간다. 행사하기 전 1각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재랑·전사·궁위령·협률랑·봉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현(懸)의 북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고 선다. 집례가 말하기를, ‘사배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다시〉 전갈(傳喝)하여,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찬인이 감찰을 이끌고 자리로 나아가간다. 또 찬인은 여러 집사들을 이끌고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각각 자리에 나아가면, 찬인이 전사·대축·궁위령을 이끌고 들어와서, 감실(塙室)을 열고 신주(神主)를 받들어 내어 신좌(神座)에 설치하고, 【신악 안에 나아가 상[几]뒤에 궤(匱)를 열고 신좌에 설치한다. 선왕(先王)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백저포(白苧布)로 덮어 놓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청저포(靑苧布)로 덮어 놓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다시 이끌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찬인이 다시 재랑을 이끌고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서 찬(瓚)을 씻고 닦는다. 또 작(爵)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비(篚)에 담아 받들고 태계(泰階)로 나아가고, 축사가 계상(階上)에서 이를 맞아 존소(尊所)의 점 위에 놓는다. 그리고 나면, 알자는 헌관을 이끌고, 찬인은 천조관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네 번 절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가서 고하기를, ‘유사가 삼가 〈예를〉 갖추었으니 행사(行事)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범률랑이 꿇어 앉아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詣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酌鬱鬯，執事者以瓚受鬱鬯。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捧香合，執事者一人捧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執事者以瓚授獻官，獻官執瓚灌地訖，以瓚授執事者。大祝以幣篚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案，【凡奉香授瓚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受瓚奠幣，皆在獻官之左。授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登歌止】謁者引獻官，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謁者贊再拜，引降復位。當登歌止時，祝史取毛血槃、肝膋鑿於前楹外，入奠於神位前。【毛血槃在鑿之後，肝膋鑿在籩之左。】祝史取肝出戶，燔於爐炭，還尊所饋食。獻官既升裸，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獻官裸訖復位。執禮

자는 모두 꿰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때에는 꿰어앉아 드린 뒤에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악공(樂工)이 축(祝)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경안(景安)의 악(樂)과 열문(烈文)의 춤이 시작된다. 구성(九成)944 을 마치면 협률령이 휘를 줄히고, 어(敵)를 쳐서, 악이 그친다.【무릇 악은 모두 협률령이 꿰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그친다.】집례가 말하기를, ‘신관례(晨禋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홀(笏)을 꽃으라.’ 찬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손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고 서며, 등가(登歌)가 연주되며, 숙안(肅安)의 악과 열문의 춤이 시작된다. 집준자가 먹을 들고 울창(鬱鬯)을 따르면, 집사자가 찬(瓚)으로 이 울창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神位)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꿰어앉아 홀을 꽃으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올리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올린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가 노(爐)를 향안[案]에 드린다. <분향을 마치면> 집사자가 찬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찬을 잡고 술을 땅에 부은 다음에, 찬을 도로 집사자에게 준다. 대축(大祝)이 폐백 광주리[幣籠]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폐백을 받아 가지고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안(案)에 드린다.【무릇 향을 바치거나, 찬을 주거나,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노를 드리거나, 찬을 받거나,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알자(謁者)가 찬하기를, ‘홀을 잡으라.’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 기둥 밖에 나아가서 중앙에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찬하기를, ‘재배하라.’ 하고, 다시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등가(登歌)가 그칠 때를 당하여 축사는 모혈반(毛血槃)과 간료등

曰進饌，謁者引薦俎官、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祝史進徹毛血槃，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泰階，大祝迎引於階上，薦俎官詣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大祝取蕭黍稷，搗於脂，燔於爐炭，還尊所。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詣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罍酌醴齊，執事者二人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執事者以副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歌純寧之曲。】謁者贊俛伏興。【曲終樂止】謁者引獻官，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謁者贊再拜引降復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獻官復位。

(肝膋鐙)을 앞 기둥 밖에서 가지고 들어가 신위 앞에 드리고, 【모혈반은 간료 등 뒤에 놓고, 간료등은 변의 왼편에 놓는다.】 축사가 다시 간(肝)을 취하여 지계문을 나와 이를 노의 숯불에 구워 가지고 준소로 돌아가서 헌관에게 준다. 이미 관(裸)을 이루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다시 진찬(進饌)할 사람들을 거느리고 주방으로 나아가서,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건져 내어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는 양(羊)과 시(豕)를 건져서 각각 생갑에 담아 가지고, 【우와 양과 시를 각각 한갑씩 한다.】 찬만(饌幔) 안으로 들어가 벌여 놓으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찬소(饌所)로 나아가고, 봉조관도 따라가 헌관이 관(裸)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진찬하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과 봉조관을 인도하여 각각 생갑을 받들어 올리고, 전사관은 찬수를 인도하여 정문 【남문(南門).】 으로 들어간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가면, 헌가에서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한다. 축사는 나아가서 모혈반을 거두어 가지고 조계로부터 재랑(齋郎)에게 주어 내보내고, 찬수가 태계에 이르면, 대축이 조계 위에서 맞아 인도하고, 천조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고 꿇어앉아 드리되, 먼저 우(牛)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양(羊)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시(豕)를 드린다. 【대축이 전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생갑의 덮개를 열면, 악(樂)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대축은 소(蕭)·서(黍)·직(稷)을 취하여 가지고 기름[脂]에 버무려 노의 숯불에 구워 준소로 돌아간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등가(登歌)가 시작되어 수안(壽安)의 악을 연주하고, 열문(烈文)의 춤을 춘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예제(醴齊)945) 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小頃, 執禮曰行亞獻禮, 謁者引獻官, 詣尊所西向立, 【軒架作, 壽安之樂、昭武之舞作, 鄉樂交奏。】 執尊者舉罍酌盞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謁者引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執事者以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獻官, 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俛伏興。 【樂止】 謁者引獻官, 出戶就前楹外, 當中北向立, 謁者贊再拜, 引降復位, 獻官復位。 小頃, 執禮曰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獻官既復位, 執禮曰飲福受胙, 大祝詣尊所, 以爵酌壘福酒, 祝史持俎進, 減神位前胙肉。 謁者引獻官, 詣飲福位西向立, 贊跪搯笏。 大祝進獻官之左北向, 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卒爵, 大祝受虛爵, 復於坵,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俎, 降自阼階出門。 謁者贊執笏俛伏興, 引降復位。 執禮曰再拜, 在位者皆再拜。 執禮曰徹籩豆, 大祝入徹籩豆。 【徹者, 籩豆各一, 小移故處。登歌作雍安之樂。】 徹訖, 【樂止, 軒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는 또 부작(副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악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 하고,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을 <다시> 시작한다. 【순녕(純寧)의 곡(曲)을 노래한다.】 알자가 찬하기를, ‘면, 복, 흥’이라 하고, 곡(曲)이 마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 문을 나와서 앞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고 서면, 알자가 ‘재배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아가고, 헌가는 서안(舒安)의 악을 시작한다. 춤추는 사람들이 각기 설 자리에 서면, 악이 그치고,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헌가에서는 수안(壽安)의 악과 소무(昭武)의 춤이 시작되고, 향악(鄉樂)도 같이 연주한다. 집준자가 먹(羃)을 들고 양제(盎齊)946)를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작으로 술을 받고,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찬하기를,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한다.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또 부작(副爵)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지게문을 나와 앞 기둥 밖으로 나아가서 중앙에서 북향하여 서면, 알자는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헌관이 이미 제자리로 돌아오면, 집례가 ‘음복 수조(飲福受胙)하라.’ 한다. 대축이 준소로

架作景安之樂, 鄉樂交奏。】執禮曰四拜, 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 謁者引獻官, 詣望瘞位北向立, 執禮帥贊者, 詣望瘞位西向立, 大祝取黍稷飯, 藉用白茅, 束之以篚, 取祝版及幣, 降自西階, 置於坎。執禮曰可瘞, 寘土半坎, 殿司監視。謁者進獻官之左白禮畢, 謁者引獻官出。執禮帥贊者還本位, 贊引引監察及諸執事, 俱復懸北拜位。立定, 執禮曰四拜, 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 贊引以次引出, 雅樂令帥工人、二舞出, 殿司、大祝、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 就懸北拜位, 四拜而出, 典祀官、殿司各帥其屬, 徹禮饌, 宮闈令闔戶以降乃退復命。獻官以下行事執事官, 各還齋所。住一刻頃, 有司陳鹵簿於齋坊南門外 如來儀。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 以次上馬, 行至闕門外, 下馬入庭, 序立復命, 四拜訖退。獻官一、【一品】薦俎官一、【二品】執禮一、【四品】典祀官一、【奉常寺官】大祝一、祝史一、齋郎一、協律郎一、殿司一、宮闈令一、掌牲令一、雅樂

나아가서 작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르고, 축사는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신위 앞의 조육(胙肉)을 던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면, 찬하기를, ‘끓어얹아 홀을 씻으라.’ 하고, 대축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 북향하고 서서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대축은 빈 작을 받아 점 위에 도로 갖다 놓고,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 가지고 조계로 내려가 문밖으로 나간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재배하고, 또 집례가 ‘변(籩)·두(豆)를 거두라.’ 하면, 대축이 들어가서 변·두를 거두고, 【거둔다는 것은 변·두 각 한 개를 제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이다.】 등가는 용안(雍安)의 악을 연주하며, 거두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는 경안(景安)의 악을 연주하며, 향악도 함께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사배하고, 악은 한 곡[一成]을 마치고는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서향하고 선다. 대축이 기장밥[黍飯]과 피밥[稷飯]을 취하여 백모(白茅)로 싸서 비(篋)로 묶고, 또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가지고 서계(西階)로 내려가서 구덩이[坎]에 놓는다. 집례가 ‘묻는 것이 가하다.’고 말하면, 흙을 넣어 구덩이의 반쯤 차도록 묻는데, 전사가 이를 감시한다. 알자가 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서 예가 끝났음을 고하고, 알자는 다시 헌관을 인도하고 나간다.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 및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및 여러 집사들은 모두 사배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은 공인과 〈문무·무무〉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전사·대축·궁위령은 신주를 감실에 들여넣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令一、捧俎官三、謁者一、贊者一、贊引一。

	<p>집례는 알자·찬자 찬인을 거느리고 현 북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은 문을 닫고 내려와서 물러가 복명(復命)하면,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은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1각쯤 있다가,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벌여 놓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헌관 이하 행사한 집사관들은 바깥 문밖에 이르러 차례로 말에 오르고, 궐문 밖에 이르러서는 다시 말에서 내려서 뜰로 들어가 차례로 서서 복명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헌관(獻官) 1인 【1품.】, 천조관(薦俎官) 1인 【2품.】, 집례(執禮) 1인 【4품.】, 전사관(典祀官) 1인.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으로 한다.】, 대축(大祝) 1인, 축사(祝史) 1인, 재랑(齋郎) 1인, 협률랑(協律郎) 1인, 전사(殿司) 1인, 궁위령(宮闈令) 1인, 장생령(掌牲令) 1인, 아악령(雅樂令) 1인, 봉조관(捧俎官) 3인, 알자 1인, 찬자 1인, 찬인 1인이다.”</p> <p>하였다.</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2월 15일(을묘) 2번째기사 광주 목사에게 명나라 에 바칠 백자 장본 10 개를 잘 구워 올리게 하다</p>	<p>좌부대언(左副代言) 김자(金緒)가 사신에게 문안하니, 윤봉이 말하기를, “종이를 제조하는 방문(方文)과 사기(沙器)를 바치라는 성지(聖旨)가 있었소.” 하므로, 김자가 묻기를, “사기의 수효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 봉이 말하기를, “수효에 대해서는 성지가 없었소. 그러나, 내 생각에는 10개의 탁자(卓子)에 필요한 것으로 한 탁자마다 대·중·소의 주발[椀]이 각각 1개, 대·중·소의 접시[櫛兒]가 각각 5개, 대·중·소의 장본(獐本) 【장본은 술 그릇이다. 형상이 도고(鼈鼓)와 같고, 배에 주둥이가 있는 것을 속칭 장본이라 한다.】 10개면 될 것이요.” 하고, 또 말하기를, “척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청하여 &lt;어떻게 알지 모르나&gt;, 나는</p>	<p>左副代言金緒問安于使臣，尹鳳曰：“造紙方文及沙器進獻，有聖旨？”緒問曰：“沙器數幾何？”許鳳曰：“數則無聖旨，然吾心以謂，十卓所用，每卓大中小椀各一，大中小櫛兒各五及大中小獐本【獐本，酒器，形如鼈鼓，腹有口，俗號獐本。】十事可也。”且曰：“勅書不載，而如此請之者，予本無私藏，將用之何處乎？”金緒將此言以啓，卽傳旨于全羅道監司，全州紙匠，給驛上送，傳旨廣州牧使，進獻大中小白磁獐本十事，精細(磻)[燔]造以進。</p>



	<p>본래 따로 사장(私藏)하는 것이 없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소.”          하였다. 김자가 이말을 임금에게 아뢰니, 곧 전라도 감사에게 전지하여,          “전주(全州)의 지장(紙匠)에게 역마(驛馬)를 주어 올려 보내라.”          하고, 광주 목사(廣州牧使)에게 전지하여,          “명나라에 바칠 대·중·소의 백자(白磁) 장본(獐本) 10개를 정세(精細)하게 구          워 만들어 올리라.”          하였다.</p>	
<p>世宗 27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2月 20日(庚申)          11번째기사          윤봉이 구리로 만든          주발 국자 주전자를          원하니 이를 주다</p>	<p>윤봉이 구리[銅]로 만든 우자(孟子)984) 2개, 작[杓]985) 2개, 관자(灌          子)986) 1개를 요구하므로, 명하여 이를 주게 하였다.</p>	<p>尹鳳索銅孟子二、杓二、灌子一，命與          之。</p>
<p>세종 27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3월 16일(병술)          3번째기사          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장군 절제사에게 술과 고기를 내렸다.</p>	<p>賜酒肉于掌軍節制使。</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4月 1日(庚子) 1          번째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고, 간략한 술잔치를</p>	<p>조회를 받고 나서 정사를 보고, 이어서 간략한 술잔치를 베풀어, 조회에서 일          을 아뢴 재추(宰樞)와 대간(臺諫)들을 대접하고, 영돈녕(領敦寧) 유정현과 정          부와 여러 부원군에게,          “모두 들어와서 술자리에 참여하라.”          고 명하였다.</p>	<p>庚子朔/受朝，視事，仍小酌，饋朝啓宰          樞、臺諫，命領敦寧柳廷顯及政府、諸          府院君，皆入侍酌。</p>

<p>베풀다</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4월 13일(임자) 4번째기사 광명 백반 제조 법의 개발과 그 공납에 관 한 호조의 계</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침지사역원사(僉知司譯院事) 김귀룡(金貴龍)이 시험하였는데, 함길도 갑산군에서 생산되는 광명 백반(光明白礬)을 만드는 법은, 하루에 4, 5인이 뿔나무를 하여 오고, 5, 6인이 백반석(白礬石)을 주워다가 석회(石灰) 1만여 근을 만들어서 한두 달 동안 묻어 두어 시고 매운 맛이 나게 된 뒤에, 석회 50근을 가져다가 먼저 더운 물을 부어 녹여 내리고, 또 맑은 물 다섯 동이를 붓고 끓여서 세 동이가 되게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광명 백반은 30근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1년 동안 국가에 소용되는 수량을 참고하여 보면 상의원(尙衣院)에 9근 14냥중이요, 도염서(都染署)에 2백 7근 15냥중이오니, 지금 갑산에서 백반을 구워내는 것은 인력이 적게 들고 소출은 많사오니, 앞으로는 위에 아뢴 두 관사에서 1년에 소용되는 수량 외에 불시에 쓸 것까지 예비하여, 모두 3백 근을 본군의 상시 공납(常時貢納)으로 공안(貢案)에 등록하고 매년 상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僉知司譯院事金貴龍所試咸吉道甲山郡產出光明白礬造作之法, 一日四五人取薪, 五六人拾白礬石, 燒爲石灰一萬餘斤, 埋經一二朔酸辛後, 將石灰五十斤, 先以溫水淋下, 又以清水五盆, 煮至三盆, 則所取光明白礬可三十斤。 據此參考, 一年國用, 尙衣院九斤十四兩, 都染署二百七斤十五兩。 今甲山白礬煮取, 力役輕而所出多, 乞自今上項兩司一年經費外, 加不時備用共三百斤, 爲本郡常貢, 錄之貢案, 每年上納。” 從之。</p>
<p>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4月 16日(乙卯) 2번째기사 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다</p>	<p>생선과 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보내 주었다.</p>	<p>賜送魚肉于讓寧大君。</p>
<p>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4월 29일(무진) 4번째기사 영접과 전송 이외에는</p>	<p>사헌부에 전교하기를, “영접하고 전송하는데 모여 마시는 외에 술마시는 것을 금하던 것을 아직 그대로 금하라.” 고 하였다.</p>	<p>傳旨于司憲府: “除迎餞會飲外, 姑停禁酒。”</p>

금주령을 그대로 하라고 사헌부에 전교하다		
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6월 2일(경자) 5 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식을 선사하다	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을 선사하였다.	遣內官金淳，饋別膳于使臣。
世宗 28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6月 7日(乙巳) 2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다	양녕 대군에게 소주를 보내 주었다.	賜送燒酒于讓寧大君。
세종 28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6월 9일(정미) 3 번째기사 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다	궁중의 음식을 양녕 대군에게 주었다.	賜內膳于讓寧大君。
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윤7월 19일(병진) 5번째기사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의정부에서 백관을 거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였다. 그 제문에 “삼가 배신 좌군 총제 김겸을 보내어 맑은 술과 태뢰(太牢) 제물로써 감히 대행 황제 신어 좌전(神御座前)에 고합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하늘이 성덕을 내셨으니 가극하심은 형언하기 어려웠습니다. 태자로 계실 때부터 진실로 민심에 화합하셨고, 대통을 계승하심에 바야흐로 태평하였습니다. 우리 소국에서	議政府率百官，拜進香祭文及陳慰表。其祭文曰：謹遣陪臣左軍總制金謙，以清酌太牢之奠，敢昭告于大行皇帝神御座前。伏以天縱聖德，大哉難名。自居儲位，

<p>느리고 진향 제문과 진위 표문을 배송하다</p>	<p>명정(明庭)에 진하하였더니, 특히 상을 주시고 말씀이 정녕(丁寧)하였습니다. 신은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 항상 만수를 축원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하호(何怙)1025) 를 추념하시고 민막(民瘼)을 염려하시다가 슬픔과 근심으로 병환이 되셨는데, 위독하시어 빈천(賓天)하심이 이렇게 급할 줄을 어찌 뜻했겠습니까. 조서를 받들어 읽음에 통곡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삼가 슬픈 정상을 받들어 이에 맑은 술잔을 올리오니, 조그만 충정을 살피시어 굽어 흠향하시기를 바랍니다.”</p> <p>하였고, 표문에는, “성정(聖情)이 속세(俗世)를 싫어하시어 선어(仙馭)가 하늘에 오르셨도다. 부음(訃音)이 대궐에서 나오니 슬픔이 만국에 얽히도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황제께서는 효성이 지극하심에 호모(號慕)하기에 못 견디리니, 슬픔을 억제하시고 예제(禮制)를 따르기 바라옵니다.”</p> <p>하였다.</p>	<p>允協輿情。嗣承大統，方迓隆平。惟予小國，陳賀明庭。特加賞賚，天語丁寧。臣拜稽首，恒祝遐齡。帝念何怙，且慮民瘼。哀毀憂勞，乃致邁疾，豈意大漸？賓天斯迫。欽讀詔辭，不勝號(僻) [擗]。謹敘哀誠，仍陳洞酌。冀諒微衷，俯垂愍格。</p> <p>其表曰： 聖情厭世，仙馭賓天。訃發中宸，悲纏萬國。伏惟皇帝陛下孝誠純至，號慕難居。冀抑哀思，府循禮制。</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1日(戊 午) 1번째기사 내관 김순을 보내 사 신에게 별찬을 대접하 다</p>	<p>내관 김순(金淳)을 보내어 사신에게 별찬(別饌)을 대접하였다</p>	<p>戊午/遣內官金淳，饋別膳于使臣。</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閏7月 28日(乙 丑) 1번째기사 황제·황태후에게 존시·</p>	<p>(전략) 방물표에는, “큰 명호(名號)를 책봉하고 성한 예식을 선양하니, 깊은 축하의 정으로 작은 정성을 표하나이다. 삼가 황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황화석·잡채화석 각 10장, 인삼·잣·오미자 각 50근을 드리웁니다. 황태후께 드리는 방물은 홍세저포·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 10장, 황화석·잡채화</p>	<p>(전략) 方物表曰： 冊封鴻名，誕揚縟禮，情深燕賀，聊効卑忱。謹獻黃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匹，滿花席、黃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人蔘、松子、五味子</p>

<p>존호를 올린 것과 중궁의 책봉을 축하하는 표문에 배례하다</p>	<p>석 각 6장입니다. 하였다. 중궁에게 드리는 방물도 같았다.</p>	<p>各五十觔。 皇太后方物，紅細苧布、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滿花席一十張，黃花席、雜彩花席各六張。中宮方物同。</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10日(丙午) 1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연어를 내려 주다</p>	<p>양녕 대군에게 연어(鱧魚)를 내려 주었다.</p>	<p>丙午/賜鱧魚于讓寧大君。</p>
<p>세종 29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9월 10일(병오) 2번째기사 강무할 때 잡은 노루·사슴은 적당히 포육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게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강무(講武)1039) 하는 예절의 한 조목으로 내리신 교지에, ‘짐승을 쏘 적에 왼편에서 쏘아서 오른편 어깨죽지까지 통한 것을 첫째로 삼아서, 그것을 건두(乾豆)로 하여 종묘에 바친다.’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강무할 때에 잡은 노루와 사슴은 적당히 포육(脯肉)을 만들어 건두를 준비하오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曾降教旨, 講武之禮一款, 凡射獸自左(標) [標] 而射之, 達于右膈爲上, 以爲乾豆, 奉宗廟。請自今以講武所獲獐鹿, 量宜作脯, 以備乾豆。” 從之。</p>
<p>世宗 29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 1年) 9月 29日(乙丑) 1번째기사 건지산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를 쏘다</p>	<p>건지산(巾之山)에서 몰이하여 임금이 사슴 한 마리를 쏘았다. 낮참에 아고개(牙古介) 동구에서 머물렀는데, 수행한 종친이 술자리에 모셨다. 수행한 대신과 대언 및 감사·경력·찰방 등에게 음식을 대접하도록 명하고, 감사가 진상한 술은 시위한 군사에게 나누어 주면서 장군 절제사에게는 술과 고기를 별도로 주었다. 병조 지인(兵曹知印) 이극강(李克剛)을 보내어 건두(乾豆)로 만들 사슴 2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고, 도성(都城)에 머물러 있는 영돈녕 유정현·영의정 이직·우의정 유관에게는 노루 각 한 마리씩, 의정부와 육조에는 멧</p>	<p>乙丑/驅巾之山, 上射鹿一。晝停于牙古介洞口, 隨駕宗親侍酌, 命饋隨駕宰樞、代言及監司、經歷、察訪等。監司進酒, 分賜于侍衛軍士, 別賜酒肉于掌軍節制使。遣兵曹知印李克剛, 送乾豆鹿二于奉常。賜留都領敦寧柳廷顯、領議政李稷、右議政柳觀獐各一,</p>

	<p>돼지·사슴 각 한 마리씩을 주고, 이어 술을 주도록 명하였다. 저녁에 경안역(慶安驛) 아랫쪽 평지에 유숙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대저 대신이 된 자는 마땅히 백성을 구휼하는 것으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데, 내 이제 장군 절제사 전홍과 조모(趙慕)의 군사 거느리는 것을 보니, 곡식밭을 밟아 손해를 주니 어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겠는가.”</p> <p>하고, 곧 병조에게 핵문하여 아뢰도록 명하고, 장군 절제사는 여산군(礪山君) 송거신(宋居信)과 첨총제 최보로(崔甫老)로 대체하게 하였다.</p>	<p>議政府、六曹猪鹿各一，仍命賜酒，夕次于慶安驛下平。上曰：“大抵，宰相者當以恤民爲心。予今見掌軍節制使田興、趙慕率軍士踐損穀田，豈宰相愛民之心乎？”卽命兵曹劾問以啓，以礪山君宋居信、僉摠制崔甫老代之。</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1일(병인) 2번째기사 건두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내다</p>	<p>건두(乾豆)로 쓸 사슴 한 마리를 봉상시에 보냈다.</p>	<p>送乾豆鹿一于奉常。</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0월 9일(갑술) 5번째기사 평안도에서 반화피·건어·녹포·모피·개암·약재 등을 공납하지 않게 하다</p>	<p>찬성 황희(黃喜)·이조 판서 허조(許稠)·공조 판서 조비형(曹備衡) 등이 평안도 백성의 민폐(民弊)에 대한 고통을 전변에 아뢰었으므로,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그 도에서 공납하는 물품의 양을 감하게 하였는데, 이번에 호조에서 마감하고 계하기를,</p> <p>“공조에 바치는 반화피(斑樺皮), 사재감(司宰監)에 바치는 건어(乾魚)·건저(乾猪)·건장(乾獐)·녹포(鹿脯), 제용감(濟用監)에 바치는 모피(毛皮), 의영고(義盈庫)에 바치는 개암[榛子]·마른 버섯(乾菌), 도염서(都染署)에 바치는 지초(芷草), 제생원(濟生院)에 바치는 약재(藥材) 등은 없애는 것이 좋겠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初，贊成黃喜、吏曹判書許稠、工曹判書曹備衡等啓平安道居民受弊之苦，上令戶曹量減本道納貢之物。至是戶曹磨勘啓：“工曹納斑樺皮，司宰監納乾魚、乾猪、乾獐鹿脯，濟用監納毛皮，義盈庫納榛子、乾菌，都染署納芷草，濟生院納藥材宜除。”從之。</p>
<p>世宗 30卷, 7年(1425) 乙巳 / 명 홍희(洪熙)</p>	<p>진하사(進賀使) 도총제 이순몽(李順蒙)·호조 참판 목진공(睦進恭)·지돈녕 조너(趙賚) 등이 흠사약재 칙서(欽賜藥材勅書)를 받들고 돌아왔다. 임금이 세자 이</p>	<p>壬寅/進賀使都摠制李順蒙、戶曹參判睦進恭、知敦寧趙賚等捧欽賜藥材、</p>

<p>1年) 11月 7日(壬寅) 1번째기사 이순몽·목진공·조뇌 등이 흠사약재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다</p>	<p>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화루에 나아가 칙서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러 약재를 아뢰어 청하므로, 지금 부치어 보내니 받아주기 바란다. 용뇌(龍腦) 1근, 소합유(蘇合油) 1근, 침향(沈香) 5근, 노회(蘆薈) 5근, 주사(硃砂) 5근, 사향(麝香) 5근, 담반(膽礬) 10냥쫘, 부자(附子) 5근, 천오(川烏) 5근, 쇠양(鎖陽) 1근.” 이라 하였다. 임금이 경회루 아래에서 사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부마·영돈녕·의정부·육조·여러 부원군과 판부사 맹사성·대제학 변계량·대사헌·여섯 대언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그 종사관과 종인(從人)에게도 공궤(供饋)하기를 명하고, 순몽·진공·뇌에게는 안장 갖춘 내구마(內廐馬)를 각 한 필씩 하사하고 환궁하였다.</p>	<p>勅書而回，上率世子以下群臣，幸慕華樓迎勅，至景福宮行禮如儀。其勅曰：使者至，奏請藥材，今付去，至可領也。龍腦一斤、蘇合油一斤、沈香五斤、蘆薈五斤、硃砂五斤、麝香五斤、膽礬十兩、附子五斤、川烏五斤、鎖陽一斤。 上御慶會樓下設慰宴，宗親、駙馬、領敦寧、議政府、六曹、諸府院君、判府事孟思誠、大提學卞季良、大司憲六代言等侍宴。其從事官、從人，亦命饋之。賜順蒙、進恭、賚鞍具內廐馬各一匹，還宮。</p>
<p>세종 30권, 7년(1425) 을사 / 명 홍희(洪熙) 1년) 11월 18일(계축)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주육과 화투를 하사하다</p>	<p>양녕 대군에게 주육(酒肉)과 화투(靴套)를 하사하였다.</p>	<p>賜酒肉、靴套于讓寧大君。</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月 4日(己亥) 4 번째기사 일본의 원창청·평상가 가 사람을 시켜 토산</p>	<p>일본의 원창청(源昌淸)이 사람을 시켜 유황·단목·서각·광견(光絹)·약재 등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 1백 40필을 내려 주고, 평상가(平常嘉)도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올리니, 답례로 정포를 내려 주었다.</p>	<p>日本源昌淸使人，獻硫黃、丹木、犀角、光絹、藥材等物，回賜正布一百四十匹。平常嘉使人獻土宜，回賜正布。</p>

<p>물을 바치다</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月 19日(甲寅) 3번째기사</p> <p>밤에 연회를 벌여 음주하는 자가 발각되면 해당 지역 순찰자를 엄중 문책하게 하다</p>	<p>사헌부에서 계하기를,</p> <p>“연회에서 술이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기는 하오나, 밤을 이용하여 술자리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자가 종종 있사온대, 이것은 순찰하는 자가 체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밤에 술을 마시다가 발각된 자가 있을 때에는 곧 그날 그 지역을 순찰한 관원을 추궁하여 엄중 처단하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司憲府啓: “宴會酣飲, 非不嚴禁, 然乘夜宴飲者, 比比有之。 此徼巡者不能搜捕故耳。 請自今夜飲現露, 則其日其面行巡官, 推劾重論。” 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4일(무진) 3번째기사</p> <p>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에 납부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p> <p>“근래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상림원(上林園)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내자시와 내섬시에 납부하게 하는 것은, 그 폐단이 여전하오니, 과거의 예에 의하여 상림원으로 납부하게 하소서. 또한 과일이 결실하는 것이 그 해와 지방에 따라 잘되고 못되는 수가 있는데, 각 지방에 대하여 고정된 액수를 한결같이 상납하게 하면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 주워 모아서 상납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홍시[紅柿子]·모과·석류·배·유자·감자(柑子) 등 물품은 각 지방에서 상납하게 하지 말고, 각도의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역의 각 지방의 결실이 잘되고 못된 것을 조사하여, 공안(貢案)에 매긴 수대로 적당히 나누어 배정하여 제 시기에 따서 좋은 것으로 골라서 올려보내게 하며, 상림원의 서울 안에 있는 과원과 유후사의 강화(江華)에 있는 과원에서, 과일이 잘되어 풍성한 해로서 용도(用度)에 족하면, 각도의 산물건[產物]은 임시로 적당히 수를 줄이고, 또 《원전(元典)》의 조항에, ‘각 지방 관청에는 원포(園圃)를 두어 철을 따라 과일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관가의 수요에 대비할 것이며, 민가의 과일이나 대나무를 사용하고 그 값을 치르지 않고 공공연히 가져다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장물죄에 처한다.’ 고 되어 있으나, 지금 각 지방 관청에서 주의하여 따르지 아니하오니 실로 타</p>	<p>戶曹啓: “近來各官菓物, 除納上林園, 納于內資、內贍寺, 其弊如前, 請依舊例, 納于上林園。 且菓物結實, 隨其年分地面, 或有實不實, 而令各官定額, 一體上納, 非徒有弊, 箇箇收合上納, 未爲淨潔。 今後紅柿子、木瓜、石榴、生梨、柚子、柑子等物, 勿使各官上納, 令各道監司, 考其各官結實多少, 依貢案數, 隨宜分定, 趁時摘取, 擇善上納。 若上林園京中菓園及留後司江華菓園, 菓物繁盛結實之年, 用度已足, 則各道(酸) [產] 物, 臨時量減。 又《元典》一款: ‘各官置其園圃, 以時多植菓木, 以備官用, 民戶菓實竹木, 毋得不給其直, 公然取用, 違者計贓論罪。’ 今各官守令, 不能用心遵行, 實爲未便。 各色菓木, 令監司</p>



	<p>당하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과일 나무에 대하여 감사로 하여금 그 담당 지방의 크고 작은 데 따라 포깃수를 정하여 재배하게 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그중에 도마다 생산되지 않는 유자와 감자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연변인 여러 고을에서 포깃수를 재배하게 하고, 그것이 잘되고 못되는 것을 손실 경차관(損實敬差官)으로 하여금 직접 본조에 보고하도록 하여, 영구히 일정한 규례로 삼게 하소서.”</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隨其各官大小，量定條數栽植，會計施行。其中每道不產柚子、柑子，於全羅、慶尙道沿邊各官，栽種條數，實不實，令損實敬差官，親審報曹，永爲恒式。”從之。</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2월 12일(병자) 1번째기사 석견주·대마도의 사물 관압사 대호군 이예가 사조하니 인견하다</p>	<p>석견주(石見州)·대마도(對馬島)의 사물 관압사(賜物管押使) 대호군(大護軍) 이예(李藝)가 사조하니, 임금(世宗)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p> <p>“종정무(宗貞茂)는 지성으로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부왕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항상 보호를 베푸셨는데, 정무가 죽은 뒤에 그 섬의 도둑들은 &lt;이때까지&gt; 보호하여 준 은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틈을 타서 좀도둑질을 감행하고 있음은 그대도 아는 바이다. 이제 그대는 가서 그 뜻을 종언칠(宗彦七)에게 전하라.”</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p> <p>“소신이 이 섬에 왕래한 것이 여러번이었습니다. 정무가 살았을 때에, 신이 이르기를, ‘너희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정성껏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여 왔습니다.”</p> <p>하니, 임금(世宗)이 이르기를,</p> <p>“몇 번이나 갔다 왔느냐.”</p> <p>하니, 예가 대답하기를,</p> <p>“모두 16번이었습니다.”</p> <p>하였다. 임금(世宗)이 이르기를,</p> <p>“모르는 사람은 보낼 수 없어서, 이에 그대를 명하여 보내는 것이니, 귀찮다</p>	<p>丙子/石見州、對馬島賜物管押使大護軍李藝辭，上引見曰：“宗貞茂至誠歸順，父王嘉之，常加撫育，自貞茂死後，其島賊人，不念撫育之恩，投間鼠竊，汝之所知。今汝往傳此意于宗彦七。”藝對曰：“小臣往來本島屢矣。其在貞茂時，臣諭曰：‘汝等向本國，不可不至誠以事之。’”上曰：“往來幾度?”藝對曰：“凡十六度。”上曰：“不知之人，不可以遣，茲用命汝以送，勿憚煩數。”遂賜笠靴。禮曹參議柳季聞答石見州長濱(因番守)〔因幡守〕書曰：</p> <p>本國遭風人一十名，厚恤送還，仍獻禮物，謹具啓達，上甚嘉之。茲將土宜白細絺紬·白紬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正布六十五匹、滿花寢席一十</p>

	<p>생각하지 말라.”</p> <p>하고, 드디어 갖과 신을 하사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柳季聞)이 석견주(石見州)의 장빈(長濱) 인번수(因幡守)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p> <p>“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히 보호하여 돌려보내고, 또 예물까지 바쳤기로 삼가 사실을 갖추어 주상께 보고하였더니, 주상께서 매우 가상히 여기시었다. 여기에 토산물로 백세면주(白細綿紬)·백세저포(白細苧布)·흑세마포(黑細麻布) 각 20필, 정포 25필, 만화침석(滿花寢席) 10장, 청사피(靑斜皮) 5장, 자사피(紫斜皮) 3장, 호피(虎皮) 3장, 표피(豹皮) 2장, 인삼 20근, 잣 5백 근, 꿀 15말, 말린 범고기 2마리 분을 좌위문대랑의 사절인 좌위문 삼랑과 등차랑 등에게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으라.”</p> <p>하고, 예조 좌랑 신기(愼幾)가 대마주(對馬州)의 좌위문대랑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p> <p>“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들을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송환하여 주었으니 깊이 감사하며, 이제 토산물인 백세면주 10필, 백세마포·흑세마포 각 5필, 소주 30병과 곱감 30첩, 잣·밤·대추 30 말씩과 건대구(乾大口) 2백 마리, 건청어 5백 마리를 대호군 이에에게 부쳐 보내니 받아주기 바라며, 이제 인번수에게 보내는 서한과 물품을 등차랑과 돌아가는 좌위문 삼랑에게 부쳐 보내니, 전하여 보내 주면 다행으로 생각하겠다.”</p> <p>하고, 신기가 대마주의 중언칠에게 회답하는 서한에 이르기를,</p> <p>“선대부터 우리 나라에 충성을 바치고 귀순하였으므로, 본조에서는 삼가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 대호군 이에를 파견하여 토산물인 조미(糙米) 평두(平斗)로 40석을 부쳐 보내니, 조사하여 받아 주고, 자당(慈堂)과 조모님께 보내는 토산물은 따로 별지에 목록을 적었으니, 하나하나 전하여 올려주면 다행으로 여기겠다. 자당(慈堂)에게 조미 평두 40석, 곱감 20첩, 건대구 2백 마리, 소주 10병, 건청어 3백 마리, 꿀 3말, 잣·밤·대추 15말씩, 다식(茶食)과 계(桂) 각</p>	<p>張、靑斜皮五領、紫斜皮三領、虎皮三領、豹皮二領、人蔘二十觔、松子五百觔、淸蜜十五斗、乾虎肉全體二就付、左衛門大郎使人左衛門三郎及藤次郎等前去、惟照領。</p> <p>禮曹佐郎愼幾答對馬州左衛門大郎書曰：</p> <p>本國遭風人等，專人解送，深謝深謝。茲將土宜白細綿紬一十四匹、白細苧布·黑細麻布各五匹、燒酒三十瓶、乾柿子三十貼、松子·黃栗·大棗各三十斗、乾大口魚二百首、乾靑魚五百首，委差大護軍李藝齋去，惟照。今送因幡守處書契并土宜，差付藤次郎及回去左衛門三郎等轉送爲幸。</p> <p>愼幾答對馬州宗彥七書曰：</p> <p>自從先世，輸誠來附。本曹敬奉王旨，差大護軍李藝，齋土宜糙米平四十石前去，惟照領。慈堂及祖母處付送土宜，具在別幅，一一轉上爲幸。慈堂糙米平四十石、乾柿子二十貼、乾大口魚二百首、燒酒一十瓶、乾靑魚三百首、淸蜜三斗、松子黃栗大棗各十五斗、茶食桂各二角。</p> <p>致書于對馬州越浦藤次郎曰：“本國遭</p>
--	---	--

	<p>2근이다.”</p> <p>하고, 대마주의 월포(越浦) 등 차랑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  “풍파를 만난 본국 사람 10명을 후하게 접대하여 보낸 데 대하여 위로하는 바이다. 토산물로 면포 5필을 보내니 받으라.”</p> <p>하였다. 예조 참의 유계문이 대마주 태수 종정성(宗貞盛)에게 보내는 서한에 이르기를,  “이제 좌위문대랑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귀하의 조모와 어머니의 상사를 듣고, 삼가 임금께 갖추어 보고하였더니, 임금께서 마음으로 슬프게 여기시고, 대호군 이에에게 명하여 조미 1백 석, 콩 50석, 종이 2백 권, 백세면주·백세저포 각 10필과 곱감 50첩, 잣 3석, 대추·밤 각 2석을 주어 보내어 부조를 드리는 것이니 받기 바란다.”</p> <p>하였다.</p>	<p>風人一十名，厚接以送，爲慰。土宜縣布五匹，至可領也。”禮曹參議柳季聞致書于對馬州太守宗貞盛曰：“今因左衛門大郎使人，得聞祖母及慈親奄逝，謹具啓聞，上心軫悼，命差大護軍李藝，齎糙米一百石、豆五十石、紙二百卷、白細縣紬·白細苧布各一十匹、乾柿子五十貼、松子三石、大棗·黃栗各二石，前去致賻，惟照領。”</p>
<p>세종 31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3월 23일(정사) 1번째기사  좌대언 조종생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하게 하다</p>	<p>좌대언 조종생(趙從生)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두 사신이 말하기를,  “우리는 부모의 나라에 온 사람인데 여러가지 폐를 많이 끼치고 있으니, 이제부터 낮에 술을 가져오는 일은 준비하지 마시오. 우리가 만일 술을 마시고 싶으면 전하께 아뢰겠소.”</p> <p>하였다. 종생이 와서 보고하니, 명을 내리어 영접 도감사(迎接都監使) 신인손(辛引孫)을 불러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사신에게 낮에 주는 술은 5일에 한 차례씩으로 하고, 만일 초하루나 보름일 경우에는 5일로 따지지 말고 공급하라.”</p> <p>하였다.</p>	<p>丁巳/命左代言趙從生，問安于兩使，兩使曰：“我等來父母之國，多有停害，今後勿辦晝奉盃。我等如欲飲酒，達于殿下。”從生來啓，命召迎接都監使辛引孫曰：“自今使臣晝奉盃，五日一次，若值朔望日，則不計五日饋之。”</p>
<p>世宗 31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p>	<p>지신사 곽존중·우대언 정흠지·대제학 변계량 등이 계하기를,  “경신 공주가 죽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전하께서는 지금까지 소선(素膳)</p>	<p>知申事郭存中、右副代言鄭欽之、大提學卞季良等啓曰：“慶愼公主之卒，</p>

<p>1年) 3月 25日(己未) 3번째기사 경신 공주의 상으로 인해 소식하다</p>	<p>을 드시오니, 신 등이 껍 두렵게 여기는 바는, 모든 일을 살피시며 수고하시는 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까 하옵니다. 하물며 태종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을 해서는 안된다.’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보통 때에 성(姓)이 다르고 복(服)이 없는 사람의 초상에도 반드시 3일간은 소찬을 했는데, 더구나 같은 성의 고모가 아닌가. 가깝고 먼 관계는 차이가 없을 수 없는 법이다.”</p> <p>하니, 계량 등이 다시 아뢰기를, “전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태종의 마음에는 비록 부모상을 당했을 때라도 여러 날 동안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더구나 그밖의 상사에서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태종의 혼령께서 밝게 하늘에 계시오며, 태종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사오니, 이를 어길 수 없사옵나이다. 성상의 귀중하신 몸은 하루라도 손상되거나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위로 태종의 가르치심을 받드시며, 아래로 신하와 백성의 기대에 보답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며칠 동안 소식(素食)을 한다고 해서 태종의 가르치심에 거스리게 되지는 않을 터이니 경 등은 더 청하지 말라.”</p> <p>하였다.</p>	<p>已過三日，殿下迨今進素膳，臣等竊恐以萬機之勞，不可如此，而況太宗常以爲，‘主上一日不可素膳’，請復肉膳。”</p> <p>上曰：“予常時雖異姓無服之喪，必三日素食，況同姓之姑乎？親疎之分，不可不異也。”</p> <p>季良等更啓曰：“殿下之言是矣。然太宗之心以爲，‘雖有大故，不可日久素膳’，況其他乎？太宗之靈，於昭于天，太宗之言，昭昭在耳，其可違乎？聖體不可使一日虧疎，伏望上遵太宗之訓，俯答臣民之望。”</p> <p>上曰：“雖數日素食，於太宗之訓，不爲悖逆，卿等勿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6일(기사) 1 번째기사</p>	<p>경연에 나아갔다. 임금이 참찬관 곽존중(郭存中)에게 이르기를,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나, 근년에는 천기가 순조롭지 못함이 더욱 심하여, 지난해 겨울에는 늘 따뜻하였으며, 지금 농사 철에 비가 시기를 어기니,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내가 심히 이를 염려하는 바이다.”</p>	<p>己巳/御經筵。上謂參贊官郭存中曰：“水旱之災，自古有之。然近年天氣不順尤甚，前冬恒燠，今於農月，雨澤愆期，未知所由，予甚懼之。”存中對</p>

<p>경연에 나아가다</p>	<p>하니, 존중(存中)이 대답하기를,  “지금 한창 보리가 여물고 또한 씨를 뿌릴 시기인데, 이와 같이 비가 오지 않는다면 기근(飢饉)이 이를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드디어 여러 곳의 제향(祭享)과 조정(朝廷)의 사신과 이웃 나라 객인(客人)들에게 대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달 4월 15일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술 쓰는 것을 금하고, 또 각도에서 진膳(進膳)하는 것을 정지시키고자 하니, 존중(存中)이 청하기를,  “지금은 중국[朝廷]의 사신이 있고 또한 내膳(內膳)이 넉넉하지 못하니, 선(膳)을 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曰：“今方麩麥秀實，又正播種之時，若是不雨，則飢饉將至矣。”上遂命除諸處祭享、朝廷使臣及隣國客人支持外，自今四月十五日，禁中外用酒。又欲停各道進膳。存中請曰：“今有朝廷使臣，且內膳不充，不可不進。”</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7日(庚午) 3 번째기사 외방에서 뽑혀 서울에 온 처녀에게 양식·소금·장·어물을 전례대로 주게 하다</p>	<p>호조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외방(外方)에서 뽑아 온 처녀가 서울에 머물고 있으면, 양식·소금·장·어물(魚物)을 그 전의 예에 따라 주게 하라.”  하였다.</p>	<p>傳旨戶曹：  自今外方選來處女留京糧料、鹽醬、魚物，依前例給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3일(병자) 9번째기사 대제학 변계량이 술 드시기를 청하므로 따르다</p>	<p>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이 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므로, 대궐에 나아가 술 드시기를 청하기를,  “술은 사기(邪氣)를 물리치고 혈맥(血脈)을 통하게 하니, 실로 좋은 약입니다. 만약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사 조금도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기운이 손상됨이 없지 않을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술을 드시어 기맥(氣脈)을 기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大提學卞季良以上憂旱不進酒，詣闕請進曰：“酒所以關邪氣、通血脈，實是良藥。若夙夜憂懼，暫不進酒，不無損氣，伏望須進酒，以養氣脈。”從之。</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4月 15日(戊寅) 5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었다</p>	<p>임금이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마시기를 그만두었다.</p>	<p>上憂旱徹酒。</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4월 16일(기묘) 1번째기사 이직 등이 임금의 건강을 걱정하여 술을 금하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p>	<p>의정부와 육조에서 대궐에 나아가 단 이슬에 대한 하례(賀禮)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늘이 상서를 내린 것이 내릴 시기에 내리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마음에 상서가 아니고, 재변(災變)으로 생각되니 하례하지 말라.” 하였다. 또 이직(李稷) 등이 계하기를, “주상께서 한재(旱災)를 근심하여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전하의 두려워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서는 의당합니다마는, 술은 풍랭(風冷)을 치료하고 기맥을 통하게 하는 것이니, 한재(旱災)가 있는 까닭으로 술을 드시지 않으신다면 신 등은 성체(聖體)에 병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본디 술을 즐기지 않으며, 비록 술을 금할 때가 아니더라도 한두 잔에 지나지 않았다. 또 기체(氣體)가 편안하니 비록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무슨 병이 있겠는가. 만약 약으로 먹는다면 염탕(鹽湯)이 좋을 것이다. 나는 들어 따르지 않겠노라.” 하였다. 이직 등이 다시 계하기를, “전하께서 오늘 기체가 편안하시다 하여 술을 드시지 않는다면, 아침 저녁으로 풍습(風濕)의 독기가 몸에 맞아서 병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실 때에 술 한 두 잔 드시는 것이 무엇이 불가(不可)하겠습니까. 신 등의</p>	<p>己卯/議政府、六曹詣闕，請賀甘露，上曰：“天之降祥，非其時，故予心以爲非祥，乃災變也，其勿賀。”李稷等又啓曰：“上憂旱不進酒，以殿下恐懼修省之心宜矣。然酒，所以治風冷、通氣脈，以旱之故而不進，則臣等恐聖體生病矣。”上曰：“予本不嗜酒，雖非禁酒之時，不過一二鍾。且氣體平康，雖不飲酒，何病之有？若服藥，則鹽湯亦可，予不聽從。”稷等更啓曰：“殿下以今日氣體平康，不進酒，則晨昏風濕之毒，中而成疾，未可知也。服藥之時，進酒一二鍾，何不可之有？臣等之請，非爲殿下縱酒，而忘憂懼也。”上曰：“卿等以予年前憂勞成疾，故發此言也。予於其時，爲半減膳，故得病。今則但不飲酒而已，何疾得生？且禁人飲酒，而予獨飲之可乎？”</p>

	<p>청은 전하께서 술을 흠뻑 마시시고 근심과 두려움을 잊으시라는 것은 아닙니다.”</p> <p>라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경 등은 내가 연전(年前)에 근심과 걱정으로 병을 얻었던 까닭으로, 이같은 말을 하는 것이나, 내가 그 때에는 선(膳)을 반이나 줄였던 까닭으로 병을 얻은 것이요, 지금은 술만 마시지 않을 뿐인데, 어찌 병이 생길 수 있겠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술마시는 것을 금하고 나만 홀로 마신다면 되겠는가.”</p> <p>하고, 윤휴하지 아니하였다.</p>	<p>遂不允。</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8일(신해) 1번째기사</p> <p>공비의 어머니 안씨에게 작첩을 돌려 주게 하다</p>	<p>좌의정 이직(李穰) 이하 정부·육조의 참관 이상의 관원들이 대궐에 나아가 계하기를,</p> <p>“어제 신 등이 소(疏)를 올렸는데, 다만 천안(賤案)에 제명하는 것만 명하셨으니, 신 등의 마음에 미안함이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윤휴하시고 시행하소서.”</p> <p>하니, 임금이 말하기를,</p> <p>“태종께서 시행한 일은 내가 변경할 수 없고, 또 그 천안을 삭제하였다면 안씨(安氏)는 이미 왕비의 어머니가 되니, 비록 봉작(封爵)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이 혐의스럽겠는가.”</p> <p>하였다. 또 계하기를,</p> <p>“천안에서만 삭제하면 서인이 될 뿐인데, 국모의 어머니로서 어찌 서인이 되겠습니까.”</p> <p>하니, 임금이 마지 못하여 그대로 따랐다. 이직 등이 또 술을 드시기를 청하기를,</p> <p>“전하께서 한재를 근심하여 술을 거두시니, 신 등은 근심하고 과로하사 병이 될까 두려워하여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휴를 얻지 못했으므로 마음으로 항상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어제는 비가 흠족하게 내렸으니, 바라옵</p>	<p>辛亥/左議政李穰以下， 政府、六曹參判以上， 詣闕啓曰：“昨日臣等上疏， 但命除賤案， 臣等之心， 有所未安， 伏望依允施行。” 上曰：“太宗施行之事， 予疑其未可盡變。 且削其賤案， 則安氏已爲王妃之母矣。 雖無封爵， 何嫌焉？” 又啓曰：“但削賤案， 則爲庶人而已， 安有國母之母， 而爲庶人者乎？” 上勉從之。 穰等又請進酒曰：“殿下憂旱徹酒， 臣等恐憂勞成疾， 請進酒， 終不得蒙允， 心常憂懼， 乃於昨日， 雨澤滂沱。 伏望小許酒， 以慰臣等之心。” 上曰：“雨澤才降， 隨即飲酒， 於心未安。 然卿等固請， 從之。” 穰等退， 上謂代言等曰：“吾獨飲之， 而不許臣民之飲未便。 若許飲酒， 必有醉酒放</p>

	<p>건대 조금 술을 드시어 신 등의 마음을 위로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가 조금 내렸다고 뒤따라서 곧 술을 마신다면 마음에 미안하다. 그러나, 경 등이 굳이 청하니 그대로 따르겠노라.”  하였다. 이직 등이 물러나니, 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만 홀로 술을 마시면서 신민이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반드시 술에 취하여 방종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곽존중(郭存中)이 계하기를,  “성상께서 잠시 술 드시기를 허락했을 뿐이온데 어찌 신민들로 하여금 다 술을 마시도록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었다.</p>	<p>肆之弊，如之何則可耶？”郭存中啓曰：“上暫許進酒而已，豈可使臣民皆飲也？”上然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5월 19일(임자) 5번째기사  예조에서 송나라 원풍의 《예제》에 의거하여 제사 지내자고 청하다</p>	<p>(전략) 그 의주(儀注)에,  “제사 전 3일에 행사(行事)해야 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2일 동안 산재(散齋)하고 정침(正寢)에서 자며, 제사지낼 곳에서 1일 동안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치사(治事)는 전과 같이 하되, 다만 술을 마음대로 마시지 말고, 과·부추·마늘을 먹지 않으며, 조상(弔喪)과 문병(問病)을 하지 않으며, 음악을 듣지 않으며, 형벌을 행하지 않으며,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말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치재는 오직 제사지내는 일만을 행한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2일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1일 전에 충후위(忠扈衛)는 여러 사관(祀官)의 자리를 설치하고,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모두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한다. 전사관(典祀官)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례(執禮)는 헌관의 자리를 단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집사(執事)의 자리</p>	<p>(전략) 儀注：  前祀三日，應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宿於正寢，致齋一日於祀所。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菹·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致齋，唯行祀事。【凡預祭者，皆前二日，沐浴更衣。】前祀一日，忠扈衛設諸祀官次，又設饌幔，皆於東門外隨地之宜。典祀官帥其屬，掃除壇之內外。執禮，設獻官位於壇下東南，西向，執事位於其後稍南，西</p>



는 그 뒤로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서향하게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는 단 위에 설치하고, 알자(謁者)와 찬자(贊者)의 자리는 단 아래에 설치하되, 모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게 한다. 헌관의 음복(飮福)하는 자리는 단 위의 남계(南階) 서쪽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썬[柴]을 요단(燎壇)에 쌓아 놓고 【신단(神壇)의 남쪽 병방(丙方)이다.】 망료(望燎)하는 자리는 요단의 북쪽에 설치한다. 헌관은 북쪽에 있게 하되, 남향하게 하고, 집례(執禮)·대축(大祝)·찬자(贊者)는 동쪽에 있게 하되, 서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찬자는 조금 물려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평상복(平常服) 차림으로 주방(廚房)에 나아가 세척(洗滌)한 것을 보고, 찬구(饌具)를 살피고, 생(牲)이 살졌는가를 보고 재소(齋所)로 돌아온다. 포시(晡時) 후에 전사관(典祀官)이 재인(宰人)을 거느리고 생(牲)을 본다. 【가죽째 삶아 익힌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노인성좌(老人星座)를 단 위의 북방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골자리를 깎는다. 축판(祝版)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폐비(幣篚)는 준소(尊所)에 진설하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과 축(燭)을 신위 앞에 설치하고, 제기(祭器)와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설치하되, 변(籩) 8개는 왼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오른쪽을 윗자리로 한다. 【첫 줄은 소금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가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건조(乾棗)가 앞에 있고, 과황(果黃)과 진자(榛子)가 그 다음이고, 세째 줄은 능인(菱人)이 앞에 있고, 검인(芡仁)과 녹포(鹿脯)가 그 다음에 있다.】 두(豆) 8개는 오른쪽에 있게 하여 세 줄로 하고, 왼쪽을 윗 자리가 되게 한다. 【첫 줄은 부추김치가 앞에 있고, 짓이 그 다음이며, 둘째 줄은 무우김치가 앞에 있고, 사슴젓과 미나리김치가 그 다음이며, 세째 줄은 토끼젓이 앞에 있고, 죽순김치와 물고기젓이 그 다음에 있다.】 보(簠)와 궤(簋)가 각각 2개씩 변(籩)·두(豆) 사이에 있게 하되, 보는 왼쪽에 있게 하고, 궤는 오른쪽에 있게 한다. 【보(簠)는 벼와 메조를 채우는데, 메조는 벼의 앞에 있고,

向北上, 執禮位於壇上, 謁者贊者位於壇下, 俱近東西向, 設獻官飮福位於壇上南陞之西北向, 積柴於燎壇, 【在神壇南丙地。】 設望燎位於燎壇之北。 獻官在北南向, 執禮、大祝、贊者在東西向北。 【大祝贊者稍却。】 謁者引獻官, 以常服詣廚, 視滌濯、省饌具及視牲充膳, 還齋所。 晡後, 典祀官帥宰人割牲。 【連皮煮熟。】 祀日未行事前, 典祀官帥其屬, 設老人星座於壇上, 北方南向, 席以莞, 奠祝版於神位之右, 【有坫。】 陳幣篚於尊所,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設祭器、實饌具。 籩八在左, 爲三行右上, 【第一行, 形鹽在前, 魚鱸次之。 第二行, 乾棗在前, 栗黃、榛子次之。 第三行, 菱仁在前, 芡仁、鹿脯次之。】 豆八在右, 爲三行左上, 【第一行, 韭菹在前, 醯醢次之。 第二行, 菁菹在前, 鹿醢、芹菹次之。 第三行, 兔醢在前, 笋菹、魚醢次之。】 簠簋各二在籩豆間, 簠在左 簋在右。 【簠實以稻梁, 梁在稻前。 簋實以黍稷, 稷在黍前。】 俎一在簠簋前, 【實以豕牲。 宋釋奠儀云: ‘凡言在前者, 皆謂南也。’】 爵三

례(簋)는 메기장과 차기장을 채우는데, 차기장이 메기장의 앞에 있다. 【조(俎) 1개는 보·례의 앞에 있게 하고, 【돼지를 채운다. 송(宋)의 《석전의(釋奠儀)》에 ‘무릇 앞에 있다.’고 말한 것은 모두 남쪽에 있는 것을 말한다.】 작(爵) 3개는 조(俎) 앞에 있게 한다. 【각각 점(坫)이 있다.】 상준(象尊) 2개를 놓는데, 【하나는 현주(玄酒)를 채우되, 상준(上尊)에 채우고, 하나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무릇 신(神)에게 제사하는 물건이 그 당시에 없는 것은 현시(現時)의 물건으로 대신한다.】 단 위의 동남 모퉁이에 북향하여 서쪽을 뒷자리로 하고, 세(洗)는 단 아래 동남쪽에 북향하여 설치하며, 【관세(盥洗)는 동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서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 동쪽에 있게 하되, 구기[勺]를 얹어 두고, 비(篚)는 세(洗)의 서남쪽에 늘어놓는다. 【수건과 작을 담아 놓는다.】 여러 집사의 관세(盥洗)는 또한 동남쪽에 모두 북향하여 설치한다. 준(尊)과 뇌(罍)와 비(篚)와 떡(饗)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축시 전 5각은 곧 삼경(三更) 삼점(三點)이니, 행사는 축시 1각(刻)을 쓴다.】 전사관(典祀官)이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祭需)를 담고 나면, 물러가서 자리에 나아가 제복(祭服)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좌전(座前)에 설치한다. 3각(刻)에 행사할 집사관은 각기 제복을 입는다. 집례는 알자와 찬자를 거느리고 먼저 단 남쪽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사배하고 나서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알자가 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재랑(齋郎)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단 남쪽의 배위에 나아가 겹줄로 북향하여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가 ‘사배하라.’ 말하고, 찬자가 전갈(傳喝)하면,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갈한다.】 전사관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손을 씻고 수건에 닦고 나면, 각기 자기 자리로 나아간다. 재랑이 작세위(爵洗位)로 나아가 작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篚)에다 담아서 받들고 준소에 나아가 점(坫) 위에 둔다. 알자가

在俎前。【各有坫。】設象尊二，【一實玄酒爲上尊，一實淸酒。凡祀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在壇上東南隅，北向西上。設洗於壇下東南北向，【盥洗在東，爵洗在西。】罍在洗東加勺，篚在洗西南肆，【實以巾爵。】設諸執事盥洗，又於東南，俱北向，設執尊篚罍者位於尊罍篚罍之後。祀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升設神位版於座前，三刻行事。執事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先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就位前一刻，謁者引典祀官、大祝、齋郎，入就壇南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典祀官以下皆四拜訖，謁者引詣盥洗位，盥洗訖，各就位。齋郎詣爵洗位，洗爵拭爵訖，置於篚，奉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執禮曰：‘四拜。’獻官四拜。謁者進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執禮曰：‘行奠幣禮。’謁者引獻官，詣盥洗位北向立，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알자가 헌관의 헌관은 왼쪽에 나아가 유사(有司)에게 아뢰어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꽂고 손을 씻고 수건에 닦기를 찬한다. 【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단으로 나아가 남계(南階)로 올라 【여러 집사(執事)들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모두 동계로 한다.】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 꽂기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집사자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세 번 향을 피우기를 찬하면,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리고, 대축이 폐백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폐(執幣) 헌폐(獻幣)하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향합을 받들고, 폐백을 주는 것은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을 주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먹(饗)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기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은 헌관에게 주고, 헌관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찬하고, 대축은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축문(祝文)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에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올라가 준소로

贊搯笏，盥手、帨手，【盥手、帨手不贊。】贊執笏，引詣壇升自南陛，【諸執事升降，皆自東陛。】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授獻官，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奉香授幣，皆在獻官之右，奠爐奠幣，皆在獻官之左。獻爵奠爵，準此。】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獻官，升自南陛，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引降復位。小頃，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獻官，升詣尊所西向立，執尊者舉罍酌酒，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獻官，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獻官，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小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집준자가 떡(糲)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홀을 씻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고 말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예(禮)를 행하기를 아헌례의 의식과 같게 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고 말하면, 집사자가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복주(福酒)를 따르고, 또 집사자가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 신위 앞에 있는 조육(胙肉)을 덜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계로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씻기를 찬하고, 집사자가 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작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작을 받아 마신다. 작을 다 비우면 집사자는 빈 작을 받아 다시 점(坫) 위에 놓는다. 집사자가 서향하여 조(俎)를 헌관에게 주면, 헌관은 조를 받아서 집사자에게 준다. 집사자는 조를 받아서 남계로 내려와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홀을 잡고 부복하였다 일어나기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고 말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걷어치우라.’고 말하면, 대축이 나아가 변·두를 걷어치운다. 【걷어치운다 함은 변·두 각각 1개를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기는 것이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고 말하면, 헌관은 사배한다. 집례가 ‘망료(望燎)하라.’고 말하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망료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贊者)를 거느리고 망료하는 자리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면, 대축이 축관과 폐백을 가지고 요단(燎壇)위에 나아가 태울 나무에 놓는다. 집례가 ‘태우라.’고 말하면, 태울 나무의 반을 태운다. 알자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가 끝났다고 아뢰

頃, 執禮曰: ‘行終獻禮.’ 謁者引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執禮曰: ‘飲福受胙.’ 執事者詣尊所, 以爵酌福酒, 又執事者持俎, 進滅神位前胙肉, 謁者引獻官, 升自南陛, 詣飲福位, 北向立, 贊跪摺笏。 執事者進獻官之右, 西向以爵授獻官, 獻官受爵飲, 卒爵, 執事者受虛爵, 復於坫。 執事者西向, 以俎授獻官, 獻官受俎, 以授執事者, 執事者受俎, 降自南陛出門。 謁者贊執笏, 俛伏興, 引降復位。 執禮曰: ‘再拜.’ 在位者皆再拜。 執禮曰: ‘徹籩豆.’ 大祝進徹籩豆。 【徹者, 籩豆各一, 小移於故處。】 執禮曰: ‘四拜.’ 獻官四拜。 執禮曰: ‘望燎.’ 謁者引獻官, 詣望燎位南向立, 執禮帥贊者, 詣望燎位西向立, 大祝取祝版及幣, 詣燎壇上, 置於燎柴, 執禮曰: ‘可燎.’ 燎半柴, 謁者進獻官之左, 白禮畢, 謁者引獻官出。 執禮帥贊者, 還本位, 謁者引典祀官及諸執事者, 就壇南拜位。 立定, 執禮曰: ‘四拜.’ 典祀官諸執事皆四拜訖, 謁者引出。 執禮帥贊者、謁者, 就壇南拜位, 四拜而出。 典祀官帥其屬, 藏神位版,

	<p>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전사관과 집사자를 인도하여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 서게 하고, 집례가 ‘사배하라.’고 하면, 전사관과 여러 집사는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가 찬자와 알자를 거느리고 단 남쪽의 배위로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둬치우고 내려가서 곧 물러간다.” 하였다.</p>	<p>徹禮饌以降，乃退。</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5월 19日(壬子) 10번째기사 산릉 삭망제·사시 대향·유명일 별제의 산뢰·작의 규모를 정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여러 산릉(山陵)의 삭망제는 산뢰(山壘) 2개와 작 3개를 쓰고,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유명일 별제(有名日別祭)에는 산뢰 3개와 작 3개를 쓰되, 양위(兩位)이면 작 6개를 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諸山陵朔望祭, 用山壘二爵三, 四時大享、有名日別祭, 用山壘三爵三, 兩位則用爵六。” 從之。</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3일(을해) 2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p>	<p>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었다.</p>	<p>賜酒肉于讓寧大君。</p>
<p>세종 32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6월 14일(병자) 4번째기사</p>	<p>의정부에서 계하기를, “지금 제사에 쓸 제수(祭需)는 망패(網牌)라고 일컫는 사냥꾼으로 하여금 철원(鐵原)·평강(平康)에서 사냥하여 바치게 하는데, 오로지 내선(內膳)만을 일정하게 맡은 사람이 없으므로 혹시 절핍(絶乏)할 때가 있어, 신하가 임금을 받</p>	<p>議政府啓: “今祭供之需, 令鐵原、平康獵人, 稱網牌獵獲供進, 獨內膳無有掌之者, 或致乏絶, 有乖臣子奉上之意。 況兩官獵人, 多至百數, 每月但</p>

<p>제사에 쓸 제수 공급의 방안을 청했으나 윤택하지 않다</p>	<p>드는 뜻에 어긋납니다. 더군다나, 두 고을에서 사냥하는 사람은 1백 명이나 되면서도 매달 문소·광효 두 전(殿)의 삭망(朔望)에 쓸 제수만 공급하고 있사오니, 이름만 사냥하는 사람이실상은 한역(閑役)에 불과합니다. 원컨대 우리나라 제도의 수인(獸人)의 직책에 의거하여 내선(內膳)까지 겸하여 공급하게 하고, 그 사냥하는 사람들을 세 번(番)으로 나누어 관청에서 그물 만드는 비용을 주어 윤택으로 10일 마다 한 번씩 사냥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택하지 아니하였다.</p>	<p>供文昭、廣孝兩殿朔望之羞而已。名爲獵人，實是閑役。乞依周制獸人之職，兼供內膳。其獵人分爲三番，官給網罟之資，輪次每十日一獵以進。”不允。</p>
<p>世宗 32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6月 16日(戊寅) 2번째기사 마른 고등어 2레씩과 곤쟁이젓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내다</p>	<p>마른 고등어[古道魚] 2레씩[櫃]과 동자개[童子瓜]와 섞어 담근 곤쟁이젓[紫蝦鹽] 2항아리를 영접 도감에 보냈으니, 백언(白彦)이 〈이것을〉 진헌하고자 한 때문이었다.</p>	<p>送乾古道魚二櫃、童子瓜交沈紫蝦鹽二缸于迎接都監白彦，欲進獻也。</p>
<p>세종 33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9월 5일(을미) 2번째기사 황랍을 2년 동안 강제하게 하고, 건장·건록 등의 납부도 강제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봉상시(奉常寺)에서 1년간에 소용되는 황랍(黃蠟)이 2백 50여 근에 불과한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천 1백 66근이나 되오니, 청하건대 각도에서 공납(貢納)하는 황랍 5백 94근 8냥중을 2년 동안 강제(減除)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충청도 도절제사(都節制使)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하기를, “근래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땅을 개간하므로 인하여, 노루와 사슴이 매우 희귀하여, 올 병오년 이상의 3년 동안 각 관사(官司)에 공납할 건장(乾獐)·건록(乾鹿) 아울러 61구(口), 녹포(鹿脯) 70첩(貼), 녹각(鹿角) 9대(對)와 장피(獐皮)·녹피(鹿皮) 아울러 1백 8장 등을 갖추어 납부하지 못하였사온대, 각 관사에 저축되어 있는 경비가 유여(有餘)하오니, 이를 강제(減除)하소서.”</p>	<p>戶曹啓：“奉常寺黃蠟一年所用，不過二百五十餘斤，而見在一千一百六十六斤。請各道貢黃蠟五百九十四斤八兩，限二年減除。”從之。又據忠清道都節制使關啓：“近來人多地闕，獐鹿稀罕。今丙午年以上三年，各司納乾獐鹿并六十一口、鹿脯七十貼、鹿角九對、獐鹿皮并一百八張，未得備納。各司所儲經費有餘，請減除。”從之。</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0月 7日(丁卯) 2번째기사 건두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에 보 내다</p>	<p>건두(乾豆)에 소용될 노루 30마리를 봉상시(奉常寺)에 보내었다.</p>	<p>送乾豆所需獐三十于奉常寺。</p>
<p>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1일(경인) 5번째기사 일본 축주 석성관사 종금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치므로 정 포를 회사하다</p>	<p>일본(日本) 축주(筑州) 석성 관사(石城管事) 종금(宗金)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보내어 &lt;앞서 우리 나라에서&gt; 도서(圖書)를 내려준 것에 사례하고, 인하여 접선(摺扇) 1백 자루, 장뇌(樟腦) 5근, 대도(大刀) 10자루, 서각(犀角) 1개, 울금(鬱金) 20근, 동(銅) 2백 근, 광향(藿香) 20근, 유황(硫黃) 1천 근을 바치므로, 정포(正布) 2백 40필을 회사(回賜)하였다. 축전주(筑前州) 태재(太宰) 소이(少貳) 등원 만정(藤原滿貞)이 사람을 시켜 예조(禮曹)에 글을 바치고, &lt;인질(人質)로 잡혀 와 있는&gt; 대마도(對馬島)의 속신(屬臣) 평노전(平奴田) 형제 등을 돌려보내기를 재차 청하고, 인하여 대도(大刀) 5자루, 천산갑(穿山甲) 1장, 장뇌(樟腦) 1근, 초과(草菓) 10근, 비단 2필, 쟁반[盤] 1백 개, 자완(磁椀) 1천 개, 소향유(蘇香油) 3근, 우피(牛皮) 10장, 동(銅) 3백 근, 단목(丹木) 5백 근, 유황(硫黃) 1천 근, 정향피(丁香皮) 3근, 연(鉛) 1백 근을 바쳤다. 예조 참의(禮曹參議)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여 말하기를, “평노전(平奴田) 형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lt;그들은&gt; 이미 우리 조정에 인질(人質)로 와 있어, 상감의 은혜를 두터이 입었는데도 도리어 간사한 마음을 품어 국법에 중하게 저촉되어 외방에 귀양가 있는 중이며, 우선 정포(正布) 4백 30필을 돌아가는 사신에게 부치노라.” 하였다. 대마주(對馬州) 종정성(宗貞盛)·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 등이 예조(禮</p>	<p>日本筑州石城管事宗金， 使人奉書禮曹， 謝賜圖書， 仍進摺扇一百本、樟腦五斤、大刀十柄、犀角一頭、鬱金二十斤、銅二百斤、藿香二十斤、硫黃一千斤， 回賜正布二百四十匹。 筑前州大宰少貳藤原滿貞， 使人奉書于禮曹， 再請發還對馬， 屬臣平奴田昆季等， 仍獻大刀五柄、穿山甲一張、樟腦一斤、草菓十斤、紗二段、盤一百片、磁椀一千、蘇香油三斤、牛皮十張、銅三百斤、丹木五百斤、硫黃一千斤、丁香皮三斤、鉛一百斤。 禮曹參議金孝孫答書云：“諭及平奴田昆弟， 既委質我朝， 厚蒙上恩， 反懷譎詐， 重干邦憲， 謫在于外。 姑將正布四百三十四， 就付回价。” 對馬州宗貞盛·左衛門大郎等奉書禮曹， 再請發還平道</p>

	<p>曹)에 글을 올리고 평도전(平道全)을 돌려보내 주기를 재차 청하니,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를 보내 말하기를,  “도전(道全)에 대하여 말한다면 &lt;그가&gt; 국법에 크게 저촉되었으니, 성명(性命)을 보전하게 된 것만도 그 은혜가 지극히 우약(優渥)한 것인 줄 알라.” 하였다.</p>	<p>全,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 “諭及道全, 重干邦憲, 然得保性命, 恩至渥也。”</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3日(壬辰)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현릉의 비문을 고치게 하다</p>	<p>(전략) 상(商)이 또 계하기를,  “외빙고(外氷庫)에 얼음 저장하는 것을 원컨대 전의 숫자보다 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얼음을 저장하고 얼음을 내는 것은 비단 상제(喪祭)를 위할 뿐 아니라, 실상 음양(陰陽)의 부조화(不調和)를 고르게 하는 데도 관계가 있는 것이니 가벼이 하지 말라. 그러나 얼음을 저장할 때에 백성들의 힘이 너무 많이 드니, 그 숫자를 감해서 얼음을 쓸 때에는 절약해 쓰도록 하고 낭비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후략)</p>	<p>(전략) 商又啓曰: “外氷庫藏氷, 願減前數。” 上曰: “藏氷發氷, 非徒爲喪祭也。 變調愆伏, 所係勿輕。 然藏氷之時, 民力太多, 量減其數, 用氷之時, 撙節毋使濫費。”(후략)</p>
<p>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26日(乙卯) 2번째기사  대마주 종정성이 어선의 나포를 항의하는 글을 올리니 그 사유를 답하다</p>	<p>(전략) 예조 참의 김효손(金孝孫)이 답서하기를,  “말한 바 사로잡힌 선척은 우리 나라 변장(邊將)이 함부로 잡은 것이 아니라, 본조(本朝)에서 족하(足下)의 청으로 인하여 먼저부터 상선(商船)이 왕래하는 내이(乃而)1131) ·부산(富山)1132) 두 포구(浦口) 이외에 울산(蔚山) 염포(鹽浦)에도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도록 아뢰어서 성상의 허가를 얻어서 그대에게 글을 보냈으며, 또 우리 나라 변진(邊鎭)에도 일러둔 지 이미 오래 되었도다. 위의 세 곳 이외에 만일 선척이 범람하면 그곳에 있는 진수(鎭守)가 그때그때에 체포하는 것이 그 직책이다. 그러한데 금년 3월에 전라도 만경(萬頃) 사람이 고기를 잡는데 적선(賊船) 한 척이 몰래 와서 군인 4명을 죽였으며, 4월에는 충청도 태안(泰安) 사람이 해산물을 캐는데 적선 한 척이 또 군인 3명을 잡아갔으므로 그때에 파해관(把海官)이 쫓아가 잡았으며, 또 8월에는 전라도</p>	<p>(전략) 禮曹參議金孝孫答書曰: 諭及被捉船隻, 非我朝邊將妄行捕獲。 本曹因足下之請, 在先商船來往乃而、富山兩浦外, 蔚山、鹽浦, 亦令販賣, 啓奉王旨, 書達左右, 又諭我國邊鎭, 已有日矣。 前項三處外, 如有汎濫船隻, 則所在鎭守, 臨機逮捕, 乃其職也。 況今年三月, 全羅道萬頃人捕魚, 賊船一隻潛來, 殺死軍人四名。 四月, 忠清道泰安人採海產, 賊船一隻, 又捉軍人三名以歸, 其時把海官追捕。 又</p>



	<p>서쪽 여서도(餘鼠島)에 적선 두 척이 몰래 와서 머뭇거리므로, 파해관(把海官)이 앞서 왔던 도둑인가 의심해서 뒤쫓아갔다가 많은 적선을 만나서 싸웠으나 마침내 이기지 못하였고, 단지 적선 안의 군장(軍裝)을 뺏고 보니 절반이나 우리 나라 사람의 기물(器物)이었다. 또 충청·전라도는 귀국(貴國) 경계와는 수로(水路)가 몹시 멀어 보통 때에는 어선(漁船)이 올 수도 없는 곳이니, 생각하건대 이것은 간사한 무리들이 족하(足下)의 통호(通好)하는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변흔(邊釁)을 빚어낸 것일 것이니, 우리 나라 장수의 과실이 아닐 것이다. 바라건대 전에 정한 세 곳 이외에는 왕래하는 선척을 굳게 금지하라. 천아(天鵝) 5마리, 청어(靑魚) 6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40마리, 소주(燒酒) 30병을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치노라.”</p>	<p>於八月，全羅道西餘鼠島，賊船二隻，隱泊逡巡，把海官，疑其似前盜竊，追蹤及到，多般逆戰，終至不勝，所獲船內軍粧，半是我國人器物也。且忠淸、全羅，與貴境水路寫遠，非常時漁船所可及也。意是奸詐之徒，不體足下通好之意，構生邊釁，非我國將帥之過也，惟照。前定三處外，來往船隻，堅行禁止。將天鵝五首、靑魚六百尾、大口魚四十尾、燒酒三十瓶，就付回人。</p>
<p>세종 35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월 9일(무술) 3 번째기사 예조에서 계를 올린대로 종묘에 제향할 때의 절차를 따르게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본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함께 삼가 살펴보니, 당(唐)나라의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祭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대축(大祝)이 축관(祝版)을 가지고 제실의 지계문 밖 오른편에 나가서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고 또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송(宋)나라 제도는 태묘(太廟)에 제향할 때에, 황제가 한 제실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서면, 독축관(讀祝官)이 책문(冊文)을 읽고, 이를 마치면, 황제는 두 번 절하는데, 나머지 제실(祭室)에서도 이와 같이 합니다. 《홍무예제(洪武禮制)》에는 부(府)·주(州)·현(縣)에서 사직(社稷)에 제사지내는 의주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헌관(獻官)이 조금 물러나서 꿇어앉으면, 독축(讀祝)하는 사람이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부복(俯伏)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p>	<p>禮曹啓：“曹與儀禮詳定所，謹按唐制享太廟，皇帝詣一室，酌獻後，出戶外北向立。大祝持版，進於室戶外之右，讀祝文訖，皇帝再拜，又再拜。餘室同。宋制享太廟，皇帝詣一室，酌獻後，出戶外北向立。讀祝官，讀冊文訖，皇帝再拜。餘室同。《洪武禮制》，府州縣祭社稷儀，酌獻後，獻官少退跪，讀祝者讀祝文訖，俯伏興平身無拜。《事林廣記》國朝公侯祀先儀，高曾祖考位前酌獻訖，俯伏興平身，復位再拜。本朝永樂十三年詳定宗廟儀，依朝廷禮制，各室酌獻訖，出戶外當</p>

	<p>로 하고 절은 하지 않습니다. 《사림광기(事林廣記)》와 《국조공후사선의(國朝公侯祀先儀)》에는, 고조고(高祖考)와 증조고(曾祖考)의 위(位) 앞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그전 자리로 돌아와서 두 번 절하게 됩니다. 본조(本朝) 영락 13년의 상정 종묘의(詳定宗廟儀)에는 명나라의 예제(禮制)에 의거하여 각 제실(祭室)마다 술을 따라 드리고 난 뒤에,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한가운데 서서 다만 두 번 절하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조정(朝廷)의 《친왕혼례묘현의(親王婚禮廟見儀)》를 살펴보면 보건대 왕과 비(妃)가 봉선전(奉先殿)에 이르러, 덕조 현황제(德祖玄皇帝)와 현황후(玄皇后)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그전 자리로 돌아가서 양쪽에 배례(拜禮)를 행하고, 다음에 의조(懿祖)·희조(熙祖)·인조(仁祖)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조정(朝廷)에서는 태묘(太廟)에 제향(祭享)할 때에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난 뒤에, 매 제실(祭室)마다 두 번 절하는 것이 송나라 제도와 같은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지금부터는 종묘에 제향할 때에, 전하께서 제1 제실(祭室)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울창(鬱鬯)으로 강신(降神)하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두 번 절하고, 술을 잔에 따라 드리고,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지계문 밖으로 나가서 북향하여 꿇어앉고, 대축(大祝)이 지계문 밖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전하께서 두 번 절하고, 제2 제실 이하에서도 예(禮)를 이와 같이 행할 것입니다. 이 밖의 절차는 《원정의(元定儀)》에 의거할 것입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中，只行再拜。今按朝廷親王婚禮廟見儀，王與妃至奉先殿，詣德祖玄皇帝、玄皇后神位前，酌獻訖，俯伏興復位，行兩拜禮。次詣懿祖、熙祖、仁祖神位前，行禮同。由此觀之，朝廷享太廟酌獻後，每室再拜，與宋制同，從可知矣。伏望自今享宗廟，殿下詣第一室神位前，裸鬯訖，俛伏興出戶外，北向再拜，酌獻訖，俛伏興出戶外，北向跪，大祝進戶外之右，東向跪讀祝文訖，殿下再拜。第二室以下行禮同。此外節次，依元定儀。”從之。</p>
<p>世宗 35卷, 9年(1427)</p>		<p>左衛門大郎使其子朝見，仍獻硫黃一千</p>

<p>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8번째기사 좌위문 대랑이 토산물을 바치니 회사하다</p>	<p>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이 그 아들을 시켜 조현(朝見)하고 인하여 유황(硫黃) 1천 근, 단목(丹木) 5백 근, 서각(犀角) 8개, 오매목(烏梅木) 5백 근, 감초(甘草) 10근, 목향(木香) 2근, 백단향(白檀香) 2근, 진피(陳皮) 3근, 주홍(朱紅) 1근, 침향(沉香) 2근, 사발(沙鉢) 1백 개를 바치므로, 정포(正布) 3백 필을 회사(回賜)하였다.</p>	<p>斤、丹木五百斤、犀角八介、烏梅木五百斤、甘草十斤、木香二斤、白檀香二斤、陳皮三十斤、朱紅十斤、沉香二斤、沙鉢百介。 回賜正布三百匹。</p>
<p>世宗 35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月 13日(壬寅) 9번째기사 비전주의 송포에 교거한 원신창명이 토산물을 바치다</p>	<p>비전주(肥前州)의 송포(松浦)에 교거(僑居)한 원신창명(源臣昌明)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인 유황(硫黃) 2천 근, 남목향(南木香) 2근, 적동(赤銅) 50근, 용뇌(龍腦) 3냥쫘, 호초(胡椒) 5근, 절탁(折卓) 1각(脚), 과자분(菓子盆) 10편(片), 대분(大盆) 1편(片)을 바쳤다.</p>	<p>肥前州松浦僑居源臣昌明使人獻土物, 硫黃二千斤、南木香二斤、赤銅五十斤、龍腦三兩、胡椒五斤、折卓一脚、菓子盆十片、大盆一片。</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2번째기사 왕세자 납빈의</p>	<p>왕세자 납빈의(王世子納嬪儀). 마루에서 초계(醮戒)한다. 이틀 전에 유사(攸司)는 안팎에 널리 지시하여 각기 직임을 맡아 하도록 한다.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전하의 악좌(幄坐)를 근정전 조계(阼階) 위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그날이 되면 향로(香爐)와 보안(寶案)을 전하의 자리 앞에 설치하기를 보통 때와 같게 하고, 왕세자의 좌석은 서북편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다방(茶房)에는 주준탁(酒罇卓)을 동편 자리[東序]의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잔(盞) 하나를 탁자 위에 놓아두며, 또 찬탁(饌卓)을 주준탁 서쪽에 설치한다. 전악(典樂)은 풍악을 전정(殿庭)에 베풀고, 판사복(判司僕)은 여연(輿輦)과 말을 늘어놓는데,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시(申時) 초삼각(初三刻)1180) 이 되면, 통례문(通禮門)은 왕세자의 배위(拜位)를 전정(殿庭)길 동쪽으로 북쪽에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고, 문관 1품 이하의 자리는 왕세자 배위의 남쪽으로, 종실·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길 서쪽으로 설치하되, 문관의 때 품등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겹줄로 북향되게 하고, 상대하여 머리가 되게</p>	<p>王世子納嬪儀: 臨軒醮戒前二日, 攸司宣攝內外, 各供其職。 前一日, 有司, 設殿下幄坐於勤政殿阼階上西向。 其日, 設香爐及寶案於殿下坐前如常, 設王世子席位於西北南向。 茶房, 設酒罇卓於東序下稍南, 置盞一於桌上, 又設饌卓於罇西。 典樂, 設樂於殿庭, 判司僕, 陳輿輦及馬竝如常儀。 晡前三刻, 通禮門, 設王世子拜位於殿庭道東近北北向, 設文官一品以下位於王世子拜位之南, 宗室武官一品以下位於道西, 當文官每等異位, 重行北向, 相對爲首, 設</p>

한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동서반 뒤로 설치하고, 판통례(判通禮)와 전의(典儀)의 자리는 전계(殿階) 아래 동남쪽에 설치하되, 모두 서향으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하고, 또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하나는 전의(典儀)의 남쪽에 조금 물려서 서향으로 하고, 하나는 서계(西階)의 서남쪽에다 동향하여 설치한다. 충호위(忠扈衛)는 왕세자의 위차를 근정문 밖에 길 동편으로 북쪽에 가깝게 서향으로 설치하고, 통례문은 여러 관원의 문밖 위차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북이 초엄(初嚴)을 올리면, 동궁(東宮) 관원들은 모두 궁문 밖에 모여 각기 자기 자리에 나아가 모두 각자의 복장을 입으며, 익위사(翊衛司)는 소속 장위(仗衛)를 거느리고 진설(陳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병조는 제위(諸衛)를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전정(殿庭)에 진열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종실·문무 여러 관원은 조당(朝堂)에 모여 모두 자리에 나아가 각기 조복을 입는다. 북이 이엄(二嚴)을 올리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문밖 위차로 나아간다. 좌중호(左中護)가 중엄(中嚴)을 찬하여 청하면, 제위(諸衛) 관원들이 차례로 함(閣)1181)에 나아가 맞이하고, 【우중호(右中護)는 인(印)을 짊어지기를 의식대로 한다.】 동궁 관원 [宮官]으로서 따라야 할 사람들은 각기 자리에서 나와 문밖에서 서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겹줄로 마주 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좌중호(左中護)가 바깥에 준비가 되었음을 아뢰면, 왕세자가 조복을 입고 나오는데, 좌우의 시위함이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하고, 좌중호가 인도하여 근정문 밖에 이르러 자리에 나아가 앉게 하는데, 시위함은 보통 때 의식과 같다. 판통례가 꿇어앉아 임금께 중엄(中嚴)을 아뢰면, 전하가 사정전(思政殿)에 나오는데 원유관과 강사포로 몸차림 하고, 근신(近臣)과 집사(執事)가 예를 행한다.

통찬이  
“사배, 흥, 평신”  
이라 찬하고,

監察位二於東西班後，設判通禮典儀位於殿階下東南，俱西向北上。又設通贊二人位，一於典儀之南少退西向，一於西階西南東向。忠扈衛，設王世子次於勤政門外道東近北西向。通禮門，設群官門外位如常儀。鼓初嚴，東宮官俱，集宮門外，各之次，皆服其服。翊衛司勒所部仗衛，陳設如常儀。兵曹勒諸衛，陳儀仗於殿庭如常儀。宗室文武群官，集朝堂，俱就次，各服朝服。鼓二嚴，宗室文武群官，俱就門外位。左中護，贊請中嚴，諸衛之官，以次詣閣奉迎。【右中護，負印如式。】宮官應從者，各出次立於門外，文東武西，重行相向北上。左中護，白外辦，王世子服朝服以出，左右侍衛如常儀。左中護，引詣勤政門外就次坐，侍衛如常儀。判通禮，跪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服遠遊冠絳紗袍，近臣及執事行禮。通贊，贊四拜興平身，贊各供事。典樂，帥工人入就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司官奉寶，俱詣閣奉迎。鼓三嚴，奉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入就位。立定，鍾聲止。判通禮跪啓外辦，請陞殿，中禁

	<p>“각기 맡은 일을 행하라.”</p> <p>찬하면, 전악(典樂)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여러 시위하는 관원들은 각기 기구와 복장을 차리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은 보(寶)를 받들고 모두 함(閣)에 나아가 맞이한다. 북이 삼엄(三嚴)을 울리면, 봉례랑(奉禮郎)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제자리에 선 다음에, 종소리는 그친다. 판통례가 꿰어앉아 바깥 준비가 되었음을 임금께 아뢰어 전(殿)에 오르기를 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한다. 화로의 연기가 오르면, 전하는 나와서 자리에 오르고,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와 같이 한다. 전의(典儀)가 말하기를,</p> <p>“국궁, 사배, 흥, 평신”</p> <p>이라 하면, 통찬이 받아 찬(贊)한다.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시중하기는 평소의 의식과 같다. 왕세자의 모든 행사에는 좌중호와 집의가 진행을 찬하고 도와준다.】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선다. 전의가 말하기를,</p> <p>“국궁, 사배, 흥, 평신”</p> <p>이라 하고, 통찬이 받아 찬하면, 왕세자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편에 남향하고 선다. 다방(茶房)의 제거(提舉)가 자리[序]에서 술을 부어가지고 왕세자의 서남쪽으로 나아가 동향하고 서면, 왕세자가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꿰어앉아 흘(笏)을 꿋고 술잔을 받는다. 제거가 또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올리면, 왕세자가 술을 조금 따르고 일어나 자리 서쪽으로 내려 남향하여 꿰어앉아 술을 조금 마시고 제거에게 빈 잔을 준다. 왕세자가 흘(笏)을 빼어 들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하고 제거가 음식을 거둬치운다.</p>	<p>傳嚴，爐烟升。殿下出陞座，尙瑞司官奉寶，置於殿下座前如常。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侍從如常式。王世子每行事，左中護執儀贊相。】入就拜位北面立，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通贊傳贊，王世子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詣西階，升就席西南面立，茶房提舉酌酒於序，進詣王世子西南東面立。王世子再拜，升席南面跪，摺笏受盞，提舉又薦饌卓於席前，王世子祭酒興，降席西南面跪，啐酒授提舉虛盞，王世子出笏，俯伏興再拜，提舉徹薦。僉知通禮，引王世子進當殿下座前東面跪，殿下命之曰：“往迎爾相，承我宗事，勛率以敬。”王世子曰：“臣某謹奉教旨。”俯伏興，遂鞠躬四拜興平身。僉知通禮，引王世子，降自西階出門。初王世子將出，典儀曰：“鞠躬四拜興平身。”宗室文武群官，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就殿庭正中，跪啓禮畢，俯伏興還侍位。通贊唱禮畢，殿下降座入內，奉禮郎分引宗室文武群官以次出。</p>
--	---	---

	<p>첨지통례(兪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는다. 전하가 명하기를,  “가서 너의 짝을 맞아들여 우리 종실을 잇게 하되, 힘써 공경으로써 함께하라.”  하면, 왕세자가 말하기를,  “신 아무[某]는 삼가 교지(教旨)를 받들겠나이다.”  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바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내려 문으로 나간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나가려 할 때, 전의가,  “국궁, 사배, 흥, 평신”  이라 말하면,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정(殿庭) 한가운데 나아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예가 끝났다.”  고 창하면, 전하는 자리에서 내려 내전으로 들어가고, 봉례랑(奉禮郎)은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4번째기사 동퇴의</p>	<p>동퇴의(同牢儀)1184) 그날 사규(司閨)가 빈(嬪)의 위치를 동합(東閣) 안의 길 동쪽으로 남향되게 설치하고, 장연(掌筵)은 요와 자리를 펴 놓는다. 저녁이 되면 사규가 동퇴(同牢)할 자리를 실내에 설치하는데, 왕세자의 자리는 동상(東廂)에 서향되게 하고, 빈은 서상(西廂)에서 동향되게 하되, 자리와의 거리가 너찬(牢饌)을 놓을 만하게 한다. 전선자(典膳者)가 주준탁(酒罇卓)을 한가운데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근(罇)과 잔(盞)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아 둔다. 왕세자의 연(輦)이 시신 하마소(侍臣下馬所)에 이르러서는 잠시 멈추고, 문무 궁관(宮官)이 모두 말에서 내린다. 연이 광화문의 동편문(東偏門)에 이르면, 좌</p>	<p>同牢儀:  其日, 司閨, 設嬪次於東閣內道東南向, 掌筵鋪褥席。 將夕, 司閨, 設同牢之席於室內, 王世子之席東廂西向, 嬪西廂東向, 席間量容牢饌。 典膳者, 設酒罇卓於正中稍南, 置兩盞罇於卓上。 王世子輦, 至侍臣下馬所, 權停文武宮官皆下馬。 輦至光化門東偏門,</p>

중호(左中護)가 연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연에서 내리기를 청하고, 엎드렸다  
 가 일어나 모시던 자리로 돌아온다. 왕세자는 연에서 내려 들어와 내전문(內  
 殿門) 밖의 동쪽에서 서향하고 기다리는데, 시위하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고, 중호(中護) 이하는 모두 물러난다. 빈이 궁문에 이르러서는 의장(儀仗)  
 은 문밖에 머물러 두고 가까이 모시는 자만 보통 때와 같이 따르고, 들어와  
 좌합(左閣) 밖에 이르면, 사칙(司則)이 연 앞에 나아가 빈에게 연에서 내리기  
 를 청하고, 장연(掌筵)이 앞뒤에서 집촉(執燭)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게  
 한다. 빈은 연에서 내려 위차에 나아가 몸치장을 정식으로 차리면, 사규가 빈  
 을 인도하여 내전 문밖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왕세자가 빈에게 읍  
 하여 들어오게 하면, 사규가 앞서 서계(西階)로 오르고, 빈이 뒤따라 오르는  
 데, 촛불 잡은 자가 동·서계(東西階) 안에 늘어서고, 왕세자가 빈에게 읍하면  
 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고 서고, 빈은 자리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사칙  
 (司則)이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재배(再拜)하기를 청하면, 빈이 재배하며  
 왕세자는 답으로 재배한 다음, 빈에게 읍하여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 사찬(司  
 饌)이 계간(階間)에 나아가 북향하고 꿇어앉아 뇌찬(牢饌)의 준비되었음을 아  
 뢰고 일어서면, 사찬이 소속을 거느리고 찬탁(饌卓)을 받들고 올라와서 왕세  
 자와 빈의 좌석 앞에 진설한다. 사찬 두 사람이 술상 앞에 나아가 잔을 가지  
 고 술을 부어, 한 사람은 왕세자에게 드리고 한 사람은 빈에게 드리면, 왕세  
 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조금씩 따르고, 사찬들이 각각 안주를 올리면 함께  
 마신다. 사칙이 함께 나아가서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사찬이 또 함께 잔  
 에 술을 부어 두 번째 드리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잔을 받아 마시고, 사칙  
 (司則)이 나아가 빈 잔을 받아 상에 놓으며, 세 번째 술을 드릴 때는 근(鬯)을  
 사용하되, 두 번째 드릴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사찬이 북향으로 꿇어앉아  
 “뇌찬이 끝났다.”  
 고 아뢰면, 사찬이 찬탁을 거두어 치우고, 사칙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 왕

左中護進當輦前，跪請降輦，俯伏興，  
 還侍位。王世子降輦，入俟於內殿門  
 外之東西面，侍衛如常儀，中護以下皆  
 退。嬪至宮門，仗儀停於門外，近侍  
 者從如常。入至左閣外，司則進當輦  
 前，請嬪降輦，掌筵前後執燭如常儀。  
 嬪降輦，就次正飾。司閨引嬪詣內殿  
 門外之西東面，王世子揖嬪以入，司閨  
 前升自西階，嬪後升，執燭者陳於東西  
 階內。王世子揖嬪，卽席西向立，嬪  
 卽席東向立，司則前跪請再拜，嬪再  
 拜，王世子答再拜，揖嬪就坐。司饌  
 進詣階間，北面跪請具牢饌，司饌率  
 其屬升，奉饌卓入，設於王世子及嬪座  
 前。司饌二人詣酒卓，以盞酌酒，一  
 人進授于王世子，一人進授于嬪，王世  
 子及嬪，俱受盞祭酒。司饌各進饌俱  
 飲，司則俱進授虛盞，置於卓。司饌  
 又俱以盞酌酒再醑，王世子及嬪，俱受  
 盞俱飲，司則進受虛盞，置於卓。三  
 醑用鬯，如再醑禮。司饌北面跪白牢  
 饌畢，司饌徹饌卓。司則前跪請邸下  
 入，俯伏興，還侍位，王世子入於東房，  
 釋朝服。司則請嬪入幃幄，王世子及  
 嬪俱入室。媵餽王世子之饌，御餽嬪

	<p>세자에게 들어가시기를 청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모시던 자리로 돌아오면, 왕세자가 동방(東房)으로 들어가 조복을 벗으며, 사칙이 빈에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하면, 왕세자와 빈이 함께 실(室)로 들어간다. 잉(媵)1185) 은 왕세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고, 어(御)1186) 는 빈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는다.</p>	<p>之饌。</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4월 26일(갑신) 5번째기사 빈조현의</p>	<p>빈조현의(嬪朝見儀). 그날에 낮 누수(漏水)가 일각(一刻)이 되면, 유사(有司)가 전하의 좌석을 내전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왕비[中宮]의 좌석은 서벽에 동향하여 설치한다. 상식(尙食)이 예준탁(醴罇卓)을 동벽 아래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고, 잔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또 찬탁(饌卓)은 준(罇) 북쪽에 설치한다. 그날 빈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데, 사칙(司則)이 꿇어앉아 빈에게 내엄(內嚴)1187) 을 부탁하고, 동틀 무렵에 여러 위(衛)에서는 각기 소속을 거느리고 의장(儀仗)을 진열하는데,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내구위(內廐尉)가 연(輦)을 정침(正寢) 서계(西階) 앞에 남향으로 모셔 놓은 다음에, 사칙이 외관(外辦)을 아뢰면, 빈이 명복(命服)을 입고 수식(首飾)도 갖추고 나와 서계(西階)로 내려 연(輦)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하고, 연(輦)이 내릴 곳에 이르면, 사규가 빈에게 연에서 내리기를 찬(贊)한다. 사규가 빈을 인도하여 들어가는데, 장위(仗衛)는 함(閤) 밖에 머무르며, 시종은 보통 때와 같이 한다. 빈이 침문(寢門) 밖에 이르러 서상(西廂)에서 동향하고 서면, 근시(近侍)가 중엄(中嚴)을 아뢰고, 상의(尙儀)가 중궁(中宮)에게 내엄(內嚴)을 계청한다. 빈이 이미 침문(寢門)에 이르면, 근신(近臣)이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뢴다. 전하는 원유관과 강사포를 차리고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위는 보통 의식과 같으며, 상의가 또 중궁에게 외관을 아뢰면, 중궁은 적의(翟衣)를 입고 수식(首飾)을 차린다. 사언(司言)이 상궁(尙宮)을 인도하고, 상궁이 중궁을 인</p>	<p>嬪朝見儀： 其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殿下座於內殿東壁，西向，中宮座於西壁，東向。尙食，設醴罇卓於東壁下稍南，置盞一於卓上，又設饌卓於罇北。其日，嬪夙興，司則跪請嬪內嚴。質明，諸衛帥其屬，陳布儀仗如常儀，內廐尉，進輦於正寢西階之前南向，司則白外辦，嬪服命服加首飾以出，降自西階升輦，侍衛如常。至降輦所，司閤贊嬪降輦，司閤引嬪入，仗衛停於閤外，侍從如常。嬪至寢門之外，立於西廂東面，近侍啓請中嚴，尙儀啓請中宮內嚴。嬪既至寢門，近臣跪啓外辦，殿下服遠遊冠絳紗袍，以出陞座，侍衛如常儀。尙儀又啓中宮外辦，中宮翟衣首飾，司言引尙宮，尙宮引中宮出陞座，侍從如常。司賓引嬪入，立於阼階下北面，司饌一人，奉棗栗盤，一人，</p>



도하여 나와서 좌석에 오르는데, 시종은 보통과 같다.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동계[阼階] 아래에 북향하여 서게 하면, 사찬(司饌)이 한 사람은 조율(棗栗) 쟁반을 받들고, 한 사람은 단수(殿脩)1188) 쟁반을 받들고 따른다. 사칙(司則)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찬이 조율 쟁반을 빈에게 드리면, 빈은 받는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게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 놓아 드리면, 전하가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司賓)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가면,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 아래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게 하고,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하고, 사찬이 단수(殿脩) 쟁반을 빈에게 주면, 빈은 받아 놓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올라와 중궁(中宮)의 자리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상식(尙食)이 탁자를 받들어 중궁의 자리 앞에 놓는다. 빈이 꿇어앉아 쟁반을 탁자 위에 올려놓아 드리면, 중궁이 손으로 어루만져 보인다. 상식(尙食)이 나아가 거두어 가지고 동쪽으로 나가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사칙이 사배하기를 찬하여, 빈이 사배한다. 사설(司設)이 빈의 자리를 중궁 자리의 동북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사빈이 빈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 자리의 서쪽에 남향하여 서면, 상식(尙食)이 잔에 감주[醴]를 부어 들고 빈의 서남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선다. 빈이 재배하고 자리에 올라 남향하여 꿇어앉아 잔을 받으며, 상식이 찬탁(饌卓)을 자리 앞에 놓아 드리면, 빈이 감주[醴]를 조금 따르고 일어나서 자리의 서쪽으로 내려가 남향하여 꿇어앉아서 감주를 조금 마시고 상식에게 빈 잔을 주고서, 빈이 엎드렸다가 일어나 재배한다. 상식은 드렸던 것을 치우고, 사빈은 빈을 인도하여 서계로 내려와 함(閤)을 나와서 연에 올라 환궁하는데, 시종은 올 때의 의식과 같았다.

奉殿脩盤以從。 司則贊四拜， 嬪四拜。 司饌以棗栗盤授嬪， 嬪受， 司賓引嬪升自西階， 進殿下座前東面立， 尙食奉卓置於殿下座前， 嬪跪奠盤於卓上， 殿下撫之， 尙食進徹以東， 司賓引嬪降復位。 司則贊四拜， 嬪四拜。 司賓， 引嬪詣西階下北面立， 司則贊四拜， 嬪四拜。 司贊以殿脩盤授嬪， 嬪受， 司賓， 引嬪升進中宮座前西面立， 尙食奉卓， 置於中宮座前， 嬪跪奠盤於卓上， 中宮撫之， 尙食進徹以東， 司賓引嬪降復位。 司則贊四拜， 嬪四拜。 司設， 設嬪席於中宮座之東北南向， 司賓， 引嬪詣西階， 升就席西南面立， 尙食以盞酌醴， 進詣嬪西南東面立， 嬪再拜升席， 南面跪受盞， 尙食薦饌卓於席前， 嬪祭醴興降席， 西南面跪啐醴， 授尙食虛盞， 嬪俯伏興再拜， 尙食徹薦。 司賓引嬪， 降自西階出閤， 升輦還宮， 侍從如來儀。

<p>世宗 36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5月 2日(己丑) 2 번째기사 세 사신에게 청글을 대접하다</p>	<p>내관 이귀(李貴)를 보내어 세 사신에게 청글(靑橘)을 대접하고, 창성(昌盛)에게는 쇠자철갑(鑣子鐵甲) 한 벌과 투구 하나를 주었다.</p>	<p>遣內官李貴，饋靑橘于三使。贈昌盛鑣子鐵甲一領、頭口一。</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5월 25일(임자) 3번째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오고와 인정과 파루의 북을 치지 말게 하다</p>	<p>임금이 가뭄을 근심하여 술을 끊고, 오고(五鼓)1192) 와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종을 치고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였다.</p>	<p>上憂旱輟酒，命午鼓、人定、罷漏撞鍾，勿擊鼓。</p>
<p>세종 36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6월 10일(정묘) 3번째기사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올려 아뢰다</p>	<p>(전략) 1. 민간에서 과일 나무를 가꾸는 것은 앞으로 그 이익을 얻어서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하는 것이며, 또 민가에서 과일을 거두지 못하게 금하는 것은 이미 분명한 법령이 있는데, 지방관이 민가의 감귤(柑橘)로써 진상한다고 칭탁하고 나무를 세어 장부에 기록하고, 열매가 겨우 맺을 만하면 열매 수를 세어 감독해서 봉하여 두고, 혹시 그 집 주인이 따는 일이 있으면 절도죄로 몰아대고 전부 관에서 가져가므로, 백성은 이익을 보지 못하여 서로가 원망하고 한탄하오니, 청하건대 수령들로 하여금 해마다 심게 하고 동네마다 심은 것을 인계 서류에 등록하게 하면 십 년 뒤에는 장차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만큼 될 것이오니, 관은 민가에서 거두는 폐단이 없게 되고, 백성들은 죄를 받는 원망이 없게 될 것이오며, 만일 부득이 민가의 감귤을 가지고 진상할 경우에는. 그 값을 넉넉하게 주어 사람들이 모두 심고 가꾸기를 권장하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후략)</p>	<p>(전략) 一。民家栽培果木，所以將見其利，而爲子孫計也。且禁取民戶菓實，已有著令。州官以民戶柑橘，托稱進上，計株載籍，纔結其實，計箇監封，或其主摘取，論以竊用之罪，盡取於官，民不見利，相與怨咨。請令守令，每年栽植等內所種，錄於解由十年之後，將不勝其用，而官無斂民之弊，民無受罪之怨。若民戶柑橘，不得已摘取進上，優給其價，則人皆勸於栽植，而怨咨息矣。(후략)</p>

<p>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6日(壬辰) 1 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해마다 소금을 지급할 것을 전지하다</p>	<p>전지하기를, “ 양녕 대군의 처소에 해마다 소금 20석(石)을 지급하고 항상 이렇게 하라.” 하였다.</p>	<p>壬辰/傳旨: 讓寧大君處, 歲支鹽二十石, 以爲恒。</p>
<p>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7월 11일(정유) 7번째기사 윤봉의 청에 따라 소주와 향을 각 30병을 주다</p>	<p>윤봉에게 소주와 향운(香醞) 각 30병을 주었으니 그의 청에 따른 것이었다. 장차 진헌하려고 한 것이었다.</p>	<p>贈尹鳳燒酒香醞各三十瓶, 因其請也, 將以進獻也。</p>
<p>世宗 37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7月 29日(乙卯) 10번째기사 양녕 대군이 병이 나니 약과 술 등을 내리다</p>	<p>양녕 대군이 병이 났으므로 약·술·고기를 내리고, 곧 이천현(利川縣)에 전지하기를, “양녕이 만약 다른 병증(病症)이 있으면 그 가동(家僮)으로 하여금 역마로 달려 와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p>	<p>讓寧大君有疾, 賜藥餌酒肉, 仍傳旨利川縣曰: “讓寧若有他証, 令其家僮, 馳驛以聞。”</p>
<p>세종 37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8월 20일(을해) 7번째기사 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p>	<p>물고기를 양녕 대군에게 내렸다.</p>	<p>賜魚于讓寧大君。</p>

<p>계 내리다</p> <p>世宗 38卷, 9年(1427 丁未 / 명 선덕(宣德) 2年) 10月 19日(癸酉) 4번째기사</p> <p>평상시뿐만 아니라 환영과 전별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라고 명하다</p>	<p>사헌부에 진지하기를, “환영과 전별(餞別)에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은 굳게 금하고, 평상시에 술을 쓰는 것도 금하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 堅禁迎餞會飲, 勿禁常時用酒。</p>
<p>세종 38권, 9년(1427 정미 / 명 선덕(宣德) 2년) 11월 13일(정유) 3번째기사</p> <p>사재감의 묵은 어물을 화매하지 말고 성균관 등에 공급하게 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의 묵은 어물(魚物)을 성균관과 오부 학당(五部學堂)에 요량해 주고 그 나머지는 화매(和賣)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물을 판매하는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 같으니 성균관·오부 학당 및 공처(公處)에 공급하여 주라.” 하였다.</p>	<p>戶曹啓: “司宰監陳魚物, 量給城均館及五部學堂, 其餘和賣何如?” 上曰: “販賣魚物, 是與民爭利也。 於成均五部學堂及公處, 供給與之。”</p>
<p>世宗 39卷, 10年(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2月 11日(癸亥) 4번째기사</p> <p>성달생이 사신 백언이 명나라의 어용감 소감에 제수되었음을 보고 하다</p>	<p>공조 판서 성달생(成達生)이 명나라에 있으면서 보고하기를, “사신 백언(白彦)이 찬녀(饌女)를 시켜 술·과일·두부(豆腐)를 만들어 올리니, 황제가 매우 가상(嘉尙)히 여겨 곧 백언을 어용감 소감(御用監小監)으로 제수(除授)하고 관대(冠帶)를 내려 주었습니다.” 하였다.</p>	<p>工曹判書成達生, 在中朝報: “使臣白彦, 使執饌女, 造酒果豆腐以進, 帝甚嘉之, 卽除彦御用監小監, 賜冠帶。”</p>
<p>세종 39권, 10년</p>	<p>예조에서 계하기를,</p>	<p>禮曹啓: “宗貞盛使送宗大郎告云: ‘本</p>

<p>(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2월 17일 (기사) 6번째기사          종정성과 좌위문대랑의 아들 육랑의 화매에 대한 청을 받아들이다</p>	<p>“종정성(宗貞盛)이 사신으로 보낸 종대랑(宗大郎)이 아뢰기를 ‘본도(本島)는 땅이 모두 바위이어서 일찍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오직 쫄뿌리와 도토리로 식물(食物)을 삼으니, 생계(生計)가 몹시 곤란하여 물고기와 소금으로 곡식을 사고자 해서 내이포(乃而浦)에 와서 정박(碇泊)했으나, 화매(和賣)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까지 돌아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화매하게 하여 연명(連命)하게 하소서.’ 하며, 좌위문대랑(左衛門大郎)의 아들 육랑차랑(六郎次郎)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대마도와 일기주(一岐州)·상송(上松)·하송(下松) 등지의 적인(賊人)의 소식을 정탐해서 마음을 다하여 금지 방어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또 여러 곳에서 사신으로 보낸 무역선(貿易船)들이 바람을 만나 침몰되어 거의 굶주리게 되었으므로 불쌍히 여겨 살려 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땅히 종정성에게 쌀·콩 각 1백 석과 소주(燒酒) 30병을 내리고, 좌위문대랑에게 쌀·콩 합계 50석과 소주 20병을 내릴 것이며, 그 물고기와 소금의 무역은 의정부의 수판(受判)에 의거하여 행할 것이며, 만약 자원하여 화매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변(沿邊) 각 고을의 국고(國庫)에 있는 묵은 쌀과 콩으로써 무역하여, 물고기와 소금을 자원하는 인민(人民)들에게 화매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島地皆巖石，未營業農，惟以葛根橡實爲食，生理甚艱，欲以魚鹽買穀，來泊乃而浦，因無和賣者，至今未還。請令和賣，俾得連命。’ 左衛門大郎子六郎·次郎告云：‘我輩探候對馬島及一岐州上松·下松等處賊人聲息，盡心禁禦，衆所共知。且諸處使送與販船艘，遭風滄沒，殆將饑饉，請加憐活。’ 宜賜宗貞盛米豆各一百石、燒酒三十瓶，左衛門大郎米豆并五十石、燒酒二十瓶。其魚鹽與販，則依政府受判，若無自願和賣者，以沿邊各官國庫陳米豆貿易，其所易魚鹽，於自願人民和賣。”          從之。</p>
<p>世宗 39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3月 21日 (癸卯) 4번째기사          성균관과 사부학당의 생도에게 술을 내리다</p>	<p>성균관(成均館)과 사부학당(四部學堂)의 생도(生徒)에게 술을 내렸다.</p>	<p>賜酒于成均館四部學堂生徒。</p>
<p>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p>	<p>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問安)하게 하고, 각각 여름 옷 한 벌, 화투(靴套)·저포 각 10필, 마포 20필,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침석(滿</p>	<p>命知申事鄭欽之，問安于兩使臣，各贈夏衣一襲、靴套苧布十匹、麻布二十</p>

<p>(善德) 3년 4월 16일 (무진) 2번째기사 지신사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게 하 다</p>	<p>花寢席) 각 4장, 석등잔(石燈盞) 1벌, 인삼·잣 각 30근, 차[茶] 7근을 주었다.</p>	<p>匹、滿花方席滿花寢席各四張、石燈盞一事、人蔘·松子各三十斤、茶七斤。</p>
<p>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선덕(善德) 3년) 4월 23日(乙亥) 4번째기사 날이 가물어 사헌부에서 금주를 청하다</p>	<p>사헌부에서 날이 가물어 금주(禁酒)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임금이 말하기를, “봄에 가물면 심한 피해는 없는 것이지만, 대·소맥(大小麥)에 어떠할까.” 하니, 대언 김자가 대답하기를, “보리는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 것이니, 이같은 작은 가뭄에는 반드시 손상하거나 피해됨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비가 오면 또한 넉넉히 풍년이 들 것입니다.” 하였다.</p>	<p>司憲府以旱，請禁酒，從之。上曰：“春旱無甚害，然於兩麥何如？”代言金赭對曰：“麥則耐寒暑，如此小旱，必不損害，若有小雨，亦足稔矣。”</p>
<p>세종 40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윤4월 11일(임진) 7번째기사 가뭄 걱정으로 술을 들지 않자 신하들이 술 드시기를 청했으나 완곡히 거절하다</p>	<p>의정부와 육조가 계하기를, “옛날에 한재(旱災)를 만나면 감선(減膳)한다고 한 것은 천자(天子)의 칠성(七腥)과 제후의 오성(五腥)을 말한 것이고, 술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또 감(減)할 뿐이고 철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하께서 가뭄을 근심하시어 술을 드시지 않으시니, 원컨대 술을 드시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는 본래부터 술을 먹지 않는 자도 있는데, 내가 비록 술을 먹지 않아도 기운이 스스로 평안하다. 어찌 꼭 마실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p>	<p>政府六曹啓：“古者遇旱減膳云者，天子七腥，諸侯五腥之謂也，非謂酒也。且減之耳，非徹之也。今殿下憂旱不進酒，願許之。”上曰：“人有本不飲酒者，予雖不飲，氣自平安，何必飲乎？”</p>
<p>世宗 40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p>	<p>평안도 영유현(永柔縣)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를 낳으니, 전례에 따라 쌀을 하사하였다.</p>	<p>平安道永柔縣人，一產三男，命依例賜米。</p>

<p>(善德) 3年) 6月 21日 (壬寅) 6번째기사 평안도 영유현 사람이 한 번에 세 사내아이 를 낳으니 쌀을 하사 하다</p>		
<p>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7월 21일 (신미) 3번째기사 이귀를 보내어 별선을 사신에게 내리다</p>	<p>이귀(李貴)를 보내어 별선(別膳)을 사신에게 내렸다.</p>	<p>遣李貴，贈別膳于使臣。</p>
<p>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8月 30日 (己酉) 3번째기사 윤봉이 매사냥을 하니 내사 이귀를 보내어 위로하게 하다</p>	<p>윤봉(尹鳳)이 동교(東郊)에서 매[鷹]사냥을 하니, 내사(內史) 이귀(李貴)를 보 내어 내온(內醢)과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p>	<p>尹鳳放鷹于東郊，遣內史李貴，齎內醢 魚肉，往慰之。</p>
<p>세종 41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9월 19일 (무진) 1번째기사 상림원에서 각 고을에 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감하기를 건의</p>	<p>상림원(上林園)에서 계하기를, “본원(本園)에서 심은 배나무와 감나무의 열매가 매우 많이 열었사오니, 금년 각 고을에서 바치는 배와 감의 수량을 절반으로 감(減)하소서.” 하였다.</p>	<p>戊辰/上林園啓：“本院所植梨柿之實， 甚多。” 命減今歲各官所貢梨柿之 半。</p>

<p>하다 世宗 41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9月 20日 (己巳) 1번째기사 세 사신이 노량에 나 가 노니 좌부대언 정 연에게 명하여 위로하 게 하다</p>	<p>세 사신이 노량(露梁)에 나가 노니, 좌부대언(左副代言) 정연(鄭淵)을 명하여 내온(內醢)과 어육(魚肉) 등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했다.</p>	<p>己巳/三使臣出遊露渡, 命左副代言鄭淵, 齎內醢魚肉等物, 往慰之。</p>
<p>세종 42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10월 7일 (을유) 4번째기사 강원도 감사가 방물과 주육을 올리다</p>	<p>강원도 감사가 방물(方物)과 주육(酒肉)을 올렸다.</p>	<p>江原道監司進方物及酒肉。</p>
<p>世宗 42卷, 10年 (1428 戊申 / 명 선덕 (善德) 3年) 11月 8日 (丙辰) 3번째기사 절일사 한혜가 건년 어·대구어·연어자·대문 어를 받들고 출발하다</p>	<p>절일사(節日使) 한혜(韓惠)가 &lt;황제에게&gt; 바치는 건년어(乾年魚) 2천 미(尾)·대구어(大口魚) 1천 미·연어자(年魚子) 10병(瓶)·대문어(大文魚) 3백 수(首)를 아울러 받들고 출발하니, 한혜에게 모관(毛冠)과 옷·갓·목화 등을 하사하였다.</p>	<p>節日使韓惠并齎進獻乾年魚二千尾、大口魚一千尾、年魚子十瓶、大文魚三百首以行。賜惠毛冠及衣笠靴。</p>
<p>세종 42권, 10년 (1428 무신 / 명 선덕 (善德) 3년) 11월 12 일(경신) 3번째기사</p>	<p>진응사(進鷹使) 상호군(上護軍) 이열(李烈)이 해청(海靑) 3연, 진응(陳鷹) 2연, 건년어(乾年魚)·관포(貫脯)·연어(年魚) 각 1천 미(尾), 연어자(年魚子) 10병을 싸받들고 떠나니, 이열에게 모관(毛冠)·옷·갓·목화를 하사하고, 응사(鷹師) 2인과 양응(養鷹) 3인에게는 옷·갓·목화를 내려 주었다.</p>	<p>進鷹使上護軍李烈, 齎海靑三連、陳鷹二連、乾年魚貫脯年魚各一千尾、年魚子十瓶以行。賜烈毛冠及衣笠靴, 鷹師二人、養鷹三人衣笠靴。</p>



<p>진응사 상호군 이열이 해청과 건연어 등을 가지고 떠나다</p>		
<p>世宗 43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月 24日 (辛未) 4번째기사 김만이 요구하는 물품 을 주게 하다</p>	<p>김만(金滿)이 우산·황밀(黃蜜)·숨·수달피·인삼·작설차(雀舌茶)·수유(酥油)·소주· 잣술[栢子酒]등을 요구하니, 이를 주라고 명하였다.</p>	<p>金滿求雨傘、黃蜜、繇子、水獺皮、 人蔘、雀舌茶、酥油、燒酒、栢子酒， 命與之。</p>
<p>세종 43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2월 10일 (병술) 6번째기사 태종과 원경 왕태후의 상장 의례를, 고제를 상고 보충하여 기록해 두도록 하다</p>	<p>예조에서 계하기를, “지은 바 태종 공정 대왕(恭定大王)과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장 의례 (喪葬儀軌)는 창졸간에 된 것으로 꽤 미진한 절목이 많사옵기로, 이제 고제를 상고하여 의례의 끝에 기록하여 후고(後考)에 빙거를 삼게 하고자 합니다. 1. 고제에, ‘천자는 3일 만에 소렴(小斂)하고 7일 만에 대렴(大斂)하여 빈(殯) 하며, 제후는 3일 만에 소렴하고 5일 만에 대렴하여 빈하며, 대부(大夫)와 사 (士)는 2일 만에 소렴하고 3일 만에 대렴하고 빈한다.’ 하였으니, 그 엄하고 빈하는 날짜 수는 그 지위에 따라 높은 자는 더디하고 낮은 자는 빨리하여 본래 정한 제도가 있으니, 이를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늦출 수는 없는 것입니 다. 이제 이 의례 안에는 소렴과 대렴이 모두 제 3일로 되어 있사온바, 이는 특히 더운 때이기 때문에, 권도에 따라 행하였을 뿐이요, 상례(喪禮)의 상도는 아닌 것입니다. 1. 《문헌통고(文獻通考)》의 주제(周制)에 의하면, ‘대상(大喪)에 봉인(封 人)1320) 이 우생(牛牲)을 씻고, 조석전(朝夕奠)에는 포혜(脯醢)를 쓰며, 초하 루와 보름날, 그리고 조전(朝奠)·대견(大遣) 등 전에는 모두 생뢰(牲牢)를 쓴 다.’ 하였고, 《문공가례(文公家禮)》에 의하면, ‘조석전에는 채소·과일과 포혜 를 진설하고, 삭망에는 성찬(盛饌)을 갖춘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그</p>	<p>禮曹啓: “所撰太宗恭定大王、元敬王 太后喪葬儀軌, 因倉卒, 頗有未盡節 目, 今考古制, 錄於儀軌之末, 以憑後 考。 一, 古制, 天子三日小斂, 七日 大斂而殯; 諸侯三日小斂, 五日大斂而 殯; 大夫士二日小斂, 三日大斂而殯, 則其斂殯日數, 尊者緩而卑者速, 自有 定制, 不可進退也。 今儀軌內小斂大 斂, 皆在第三日。 此特以熱時, 故從 權而已, 非喪禮之常經也。 一, 《文 獻通考》: “周制, 大喪封人, 飾其牛 牲, 而朝夕奠用脯醢。 朔月月半祖奠, 大遣等奠, 皆用牲牢。” 《文公家 禮》: “朝夕奠, 設蔬果脯醢, 朔望則 具盛饌。” 其朝夕朔望奠饌之品, 自有 隆殺, 我太祖之喪, 無朝夕奠, 只設晝 奠, 而饌品則油蜜果、實果、交排九果</p>

	<p>조석전과 삭망전에 쓰는 찬품(饌品)을 본래 높이고 내리고 하는分別이 있는 것이운데, 우리 태조의 상사에는 조석전에 없었고, 다만 주전(晝奠)만을 배설하였사오며, 찬품은 유밀과(油蜜果)와 실과(實果)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의 상[九果床]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로 하였삽고, 공정 대왕(恭靖大王) 상사에 비로소 조석전을 진설하였사오며, 찬품은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와 같이 하였삽고, 원경 왕태후(元敬王太后)의 상사에는 조석전을 처음은 태조 때의 예에 의하여 행하옵다가 뒤에 유밀과 너 죽의 상(床)을 더하였삽고, 태종의 상사에도 역시 너 죽의 상을 썼으되 그 찬품의 융성함이 거의 삭망 때와 같았으며, 하룻 동안에 두 차례의 별전(別奠)을 진설하여 고제와 달리 하였사온즉, 조석전의 찬품도 마땅히 태조의 주전(晝奠)의 예에 의하여 유밀과와 실과를 섞어 배설하여 구과(九果)의 상과 삼미(三味)의 반물(飯物)을 써야 할 것입니다.</p> <p>(후략)</p>	<p>床、三味飯物，恭靖大王之喪，始設朝夕奠，而饌品依太祖晝奠例。元敬王太后之喪，朝夕奠，初依太祖時例，後加油蜜果四行床，太宗之喪，亦用四行床，饌品之盛，幾於朔望。一日之內，再設別奠，異於古制。朝夕奠饌品，當依太祖晝奠例，用油蜜果、實果、交排九果床、三味飯物。(후략)</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4月 13日 (戊子) 1번째기사 사신이 구하는 어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다</p>	<p>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정흠지(鄭欽之)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사신이 어물(魚物)을 구하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데, 고도어(高道魚)와 대하(大蝦)도 또한 구한다고 하니, 대하는 중국에서 생산되지마는, 그러나 이미 청구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다.” 하였다.</p>	<p>戊子/視事。 上謂知申事鄭欽之曰：“聞使臣爲求魚物而來， 高道魚大蝦，亦在所求。 大蝦則產於中國， 然既徵求， 亦當預備。”</p>
<p>세종 44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5월 14일 (기미) 6번째기사 물고기젓을 주본에 기록하는 일에 대해서</p>	<p>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지금 찬(饌)을 보살피는 비(婢)와, 노래를 부르는 여자와, 매·개·술·잣[松子]과 물고기젓·새우젓 등의 물건을 바치는데, 사신이 준비한 물고기젓은 주본(奏本)에 함께 기록할 수 없다. 만일 반드시 함께 기록하려면 그 색깔과 맛과 수량을 상세히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한다면 사신은 이미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p>	<p>上謂左右曰：“今獻執饌婢、唱歌女、鷹、犬、酒、松子、魚·蝦醢物，使臣所備魚醢，不可并錄於奏本，若必并錄，則不可不詳其色味與數。然則使臣既自備而私藏矣，如之何？”孟思誠對曰：“雖自備私藏，不可不錄於奏</p>

<p>논의하다</p>	<p>하니, 맹사성(孟思誠)이 대답하기를,  “비록 자기가 준비하여 사사로이 간수하더라도 주본(奏本)에 기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p>	<p>本。”</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宣德) 4年) 5月 24日 (己巳) 1번째기사  예조에서 문묘의 작헌의에 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문묘(文廟)의 작헌의(酌獻儀)에 대해 계하기를,  “하루 전에 유사(有司)가 묘정(廟庭)의 안팎을 깨끗이 소제하고, 충扈위(忠扈衛)가 대차(大次)를 묘정(廟庭)의 동문 밖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幄次)는 대차(大次)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한다. 그 날 통례문(通禮門)은 왕세자 및 문무 군신(文武群臣)의 자리를 묘정(廟庭)에 설치하되, 왕세자는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문무 군신은 동서로 나누어 설치하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관위를 달리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북향하게 한다. 학생(學生)의 자리는 군신(群臣)의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의(典儀)의 자리는 동계(東階)의 서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두 사람의 자리는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려 모두 서향하게 한다. 묘사(廟司)와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제기(祭器)를 대성 지성 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왼쪽에 변(籩) 하나, 【녹포(鹿脯)를 담는다.】 오른 쪽에 두(豆) 하나를, 【녹해(鹿醢)를 담는다.】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희준(犧尊) 하나는 【청주(淸酒)를 담는다.】 국자[勺]를 담아 놓고, 떡(羶)은 전상(殿上)의 동남쪽 모퉁이에 놓고, 향로(香爐)·향합(香合)·촉(燭)은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또 배향위(配享位)1363) 와 종향위(從享位)1364) 의 제기(祭器)를 설치하되, 각기 왼쪽에는 변(籩) 하나, 【포(脯)를 담는다.】 오른쪽에는 두(豆) 하나를 【것을 담는다.】 놓고, 작(爵) 하나는 변·두 앞에 놓고, 상준(象尊) 네 개를 함께 설치하되, 【술을 채운다.】 한 개는 전상(殿上)의 앞기둥 동쪽에 놓고, 한 개는 앞기둥 서쪽</p>	<p>己巳/禮曹啓文廟酌獻儀：  前一日，有司灑掃廟庭之內外。忠扈衛，設大次於廟殿東門外，南向，設王世子次於大次東南，西向。其日，通禮門設王世子及文武群官位於廟庭，王世子在東階東南，北向，文武群官分東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設學生位於群官之後，北向西上，設典儀位於東階之西，通贊二人在南差退，俱西向。廟司及典祀官各帥其屬入，設祭器於大成至聖文宣王神位前。左一籩，【實以鹿脯。】右一豆，【實以鹿醢。】爵一在籩豆前，犧尊一【實以淸酒】加勺幕，在殿上東南隅。設香爐香合燭於神位前，又設配享及從享位祭器，各左一籩，【實脯】右一豆。【實醢】爵一在籩豆前。共設象尊四，【實酒】一在殿上前楹東，一在前楹西，其二分兩廡，俱加勺幕。車駕出宮：前出宮三日，攸司宜攝內外，各供其職。</p>

에 놓고, 두 개는 두 낭무(廊廡)에 나누어 놓되, 모두 국자[勺]와 먹(羶)을 올려놓는다. 거가(車駕)가 출궁(出宮)하기 전, 출궁하기 3일 전에 유사(攸司)가 내외(內外)를 도와서 각기 그 직책을 다하게 한다.

그 날이 되면, 어가(御駕)를 따라야 할 문무관(文武官)은 시각에 맞추어 조당(朝堂)으로 집합한다. 여러 위(衛)에서는 장위(仗衛)를 진설(陳設)하고, 판통례(判通禮)가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계(啓)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문무의 관원은 시종(侍從)하기를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어가가 장차 이르면, 관관(館官)과 학관(學官)이 학생을 거느리고 길 왼편에서 영접한다. 어가가 대차(大次)에 이르러 연(輦)에서 내려 악차(輦次)로 들어가면, 통례문은 문무 군신과 관관(館官)·학관(學官)을 나누어 인도하는데, 모두 조복(朝服) 차림으로 하고, 학생은 청금복(靑衿服)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가고, 첨지통례(僉知通禮)는 왕세자를 인도하는데, 조복 차림으로 들어가서 자리로 나아간다. 판통례가 대차(大次)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작헌례(酌獻禮)를 행할 것을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면복(冕服)을 입고 대차에서 나온다. 판통례가 앞으로 인도하여 동문(東門)으로 들어와서, 동계(東階)로 올라 문선왕(文宣王)의 신위(神位)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선다. 판통례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하고, 통찬(通贊)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근시(近侍) 한 사람은 향합(香盥)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香爐)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꿇어앉아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시가 향로를 신위(神位) 앞에 올리고, 근시가 술을 따라 꿇어앉아 올린다. 판통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면, 작(爵)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神位) 앞에 드리게 한다. 판통례가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을 계청하면, 전하는 구부렀다 앞드렸다가 일어나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其日，應從駕文武官，依時刻、集朝堂，諸衛陳設仗衛。判通禮跪啓外辦，殿下乘輦，文武侍從，竝如常儀。駕將至，館官、學官帥學生，奉迎於路左。駕至大次，降輦入幄。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學官俱朝服，學生靑衿服，入就位，僉知通禮引王世子，朝服入就位。判通禮進大次前，跪啓請行酌獻禮，殿下服冕服出次，判通禮前導，入自東門，陞自東階，詣文宣王神位前北向立。判通禮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近侍一人奉香盥跪進，一人奉香爐跪進，判通禮啓請跪三上香，近侍奠爐于神位前。近侍酌酒跪進，判通禮啓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判通禮啓請俛伏興四拜興平身，殿下俛伏興四拜興平身。通贊贊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及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判通禮前導，降自東階還大次。館官學官，分詣配享及從享位，酌獻如儀訖，判通禮啓禮畢，僉知通禮引王世子出，通禮門，分引文武群官及館官以下，以次出。判

	<p>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찬(贊)하면, 왕세자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판통례가 앞에서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서 대차(大次)로 돌아가고, 관관(館官)·학관(學官)은 배향위(配享位)와 종향위(從享位)로 나누어 나아가서 작헌(酌獻)을 의식대로 한다.</p> <p>이를 마치면, 판통례가 ‘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가고, 통례문이 문무와 군관과 관관(館官)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례가 시각을 헤아려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계하면, 전하는 연(輦)을 타고 환궁(還宮)한다. 관관(館官)·학관(學官)이 길 왼편에서 하직하고, 왕세자와 문무 군관은 배종(陪從)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通禮量時刻，跪啓外辦，殿下乘輦還宮，館官學官奉辭於路左，王世子及文武群官陪從，如來儀。從之。</p>
<p>世宗 44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宣德) 4年) 6月 28日 (癸卯) 1번째기사 부안현의 사비가 한꺼번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으니 쌀을 내리게 하다</p>	<p>부안현(扶安縣)에 거주하는 사비(私婢)가 한꺼번에 사내아이 둘과 계집아이 하나를 낳았으므로,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쌀을 내리게 하였다.</p>	<p>癸卯/扶安縣住私婢，一產二男一女，命依前例賜米。</p>
<p>세종 45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宣德) 4년) 7월 19일 (계해) 2번째기사 임금이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서토를</p>	<p>(전략)전문에는 말하기를, “춘방(春坊)1393) 에서 덕을 길러 무성함이 번창한 시기를 만났고, 천도(天道)가 상서(祥瑞)를 낳으시어 신령한 복주심을 드러내셨으니,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다 기뻐하나이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lt;태자께서는&gt; 천성(天性)이 영명(英明)하시고 자세(姿勢)가 높고 의젓하사 높이 태자궁(太子宮)에 계시니, 온 천하 백성들의 마음에 진실로 부합하며, 황제의 곁에 가까이 모시어 항상</p>	<p>(전략)箋曰： 春坊毓德，茂對昌期。天道產祥，克彰靈貺。見聞所及，歡忭惟均。恭惟性稟英明，姿凝岐嶷。尊居鶴禁，允符四海之心；昵侍龍樓，常荷兩宮之眷。致茲貞符之見，實是泰亨之徵。</p>

<p>축하하는 배송하다</p> <p>표·전문을</p>	<p>〈황제와 황후〉 양궁(兩宮)의 권애(眷愛)하심을 입으셨나이다. 이에 바른 서응(瑞應)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실로 크게 형통(亨通)할 징조입니다. 엿드려 생각하건대, 신(臣)은 멀리 외방(外方)에 있어 마침 태평 성세를 만났습니다. 비록 물오리 떼처럼 달려가서 반열(班列)에는 참여할 길이 막혔으나, 〈큰 집이 이루어졌을 때에〉 제비가 즐겨하듯 배나 축하(祝賀)하는 정성을 다하나이다.”</p> <p>하고, 주본(奏本)에는 말하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에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尹鳳)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를 전하기를, ‘궁중에서 사용할 해물(海物) 등의 물건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공손히 받들어 해미(海味) 등의 물품을 갖추어 마련하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權蹈)를 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헌하게 하나이다.</p> <p>1. 진어(眞魚) 1천 8백 30마리, 민어 5백 50마리, 상어[沙魚] 90마리, 망어(芒魚) 3백 80마리, 홍어 2백 마리, 농어[蘆魚] 1백 마리, 연어 5백 마리, 대구 1천 마리, 잉어 2백 마리, 송어[秀魚] 4백 40마리, 문어 2백 마리, 조기[石首魚] 1천 마리, 청어 5백 근, 송어[蘇魚] 5백 근, 도미 5백 근, 복어 7백 근, 고등어 2백 근, 오징어 2백 근, 대하 2백 근, 황어젓 6통(桶), 잉어젓 1통, 토화(土花)젓 9병[壘], 굴[石花]젓 3병, 생합(生蛤)젓 4병, 송어젓 3병, 백하(白蝦)젓 7병, 자하(紫蝦)젓 4병, 조기 새끼젓 4병, 홍합젓 2병, 조해채(早海菜) 5백 근, 해채(海菜) 1천 근, 사해채(絲海菜) 3백 근, 해채이(海菜耳) 3백 근, 곤포(昆布) 4백 근, 해의(海衣) 1백 근, 감태(甘苔) 2백 근, 해화(海花) 2백 근, 황각(黃角) 3백 근, 잣 1천 근, 황주(黃酒) 5병, 소주 5병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宣德)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欽差太監)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화자(火者)와 다반(茶飯)</p>	<p>伏念臣邈處荒陬，端逢盛際。雖阻鳧趨之列，倍殫燕賀之誠。</p> <p>奏本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中用的海味等件，進將來。”欽此。備辦到海味等物，差陪臣左軍同知摠制權蹈，齎領赴京進獻。一。眞魚一千八百三十尾，民魚五百五十尾，沙魚九十尾，芒魚三百八十尾，洪魚二百尾，蘆魚一百尾，年魚五百尾，大口魚一千尾，鯉魚二百尾，秀魚四百四十尾，文魚二百首，石首魚一千尾，青魚五百觔，蘇魚五百觔，鯽魚五百觔，鰻魚七百觔，古道魚二百觔，烏鯽魚二百觔，大蝦二百觔，黃魚鮓六桶，鯉魚鮓一桶，土花鮓九壘，石花(酢)[鮓]三壘，生蛤鮓四壘，蘇魚鮓三壘，白蝦鮓七壘，紫蝦鮓四壘，石首魚子鮓四壘，紅蛤鮓二壘，早海菜五百觔，海菜一千觔，絲海菜三百觔，海菜耳三百觔，昆布四百觔，海衣一百觔，甘苔二百觔，海花二百觔，黃角三百觔，松子一千觔，黃酒五壘，燒酒五壘。</p> <p>又奏曰：</p>
-----------------------------------	---	--

	<p>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와,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下女)를 데리고 오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공손히 받들어, 이제 선택해 뽑은 화자(火者)와 부녀자 등을 거느리고 배신(陪臣)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차정(差定)하여 인솔하고 흠차관(欽差官) 등을 따라 북경에 가게 하였습니다. 화자(火者) 6명, 다반을 지을 줄 아는 부녀자 12명, 음악을 배울 어린 하녀 8명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宣諭)하여 전하기를, ‘안교자(鞍橋子)를 만드는 데에 쓸 화문목(花文木)과 석등잔(石燈盞)을 바치게 하여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이제 화문목과 석등잔을 준비하고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보내어 싸가지고 북경에 가서 진현하게 하나이다. 화문목으로 안교자 제작용 6부(副), 석등잔 10벌입니다.”</p> <p>하고, 또 아뢰기를,  “선덕 4년 5월 초2일, 흠차 태감 창성(昌盛)·윤봉 등의 관원이 우리 나라에 와서 공손히 선유를 전하기를, ‘네가 조선국에 가서 국왕(國王)에게 알도록 설명하고 개[狗]와 매[鷹]를 구하여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공손히 이 뜻을 받들어 이제 여러가지 새매와 큰 개를 배신 좌군 동지총제 권도를 보내어 관리하여 북경에 가서 진현하게 합니다. 아골(鴉鵲) 30연(連), 황웅(黃鷹) 10연, 조웅(皂鷹) 4연, 큰 개 40마리입니다.”</p> <p>하였다.</p>	<p>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火者及會做茶飯的婦女、學樂的小妮子與將來。”欽此。今將選揀到火者婦女等，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管領根同欽差官等赴京。火者六名，會做茶飯的婦女一十二名，學樂的小妮子八名。</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做鞍橋子的花文木并石燈盞進將來。”欽此。今備花文木并石燈盞，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齎領赴京進獻。花文木鞍橋子六副，石燈盞一十事。</p> <p>又奏曰：  宣德四年五月初二日，欽差太監昌盛、尹鳳等官到國，欽傳宣諭：“爾去朝鮮國，對國王說知，尋將狗鷹來。”欽此。今將雜鷹并大狗，差陪臣左軍同知總制權蹈，管送赴京進獻。雅鵲三十連，黃鷹一十連，皂鷹四連，大狗四十隻。</p>
<p>世宗 45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p>	<p>예조에서 대신(大臣)이 사신(使臣)으로 나갈 때에 진별연(餞別宴)을 내리는 예 조에서의 의식(儀式)을 아뢰기를,</p>	<p>禮曹啓大臣出使時賜餞禮曹儀：其日，奉命者【禮曹判書參判及代言。</p>

(宣德) 4年) 9月 29日  
(壬申) 3번째기사  
예조에서 대신이 사신  
으로 나갈 때에 내리  
는 전별연 의식에 대  
해 아뢰다

“그날 <사연(賜宴)하라는> 왕명을 받은 자【예조 판서·참판과 대언(代言)·판서가 유고하면 타조(他曹)의 판서가 대신하게 한다.】와 사연(賜宴)을 받게 된 자가 대궐에 나아가 왕명을 받는다. 예조에 가서 좌석에 앉을 때에는 봉명(奉命)한 자는 동쪽에 앉고, 사연을 받는 자는 서쪽에 앉는다. 참판과 대언(代言)은 차례로 조금 뒤로 물러나 앉는다. 만약 사연을 받는 자가 판서보다 관등(官等)이 한 등(等) 낮거나 그 이하이면 판서는 북벽(北壁)에 앉고, 참판 대언은 동벽(東壁)에 앉는다. 집사자(執事者)가 찬탁(饌卓)과 잔을 준비하고 술을 잔에 따르면 사연을 받는 자는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아 마신다.【봉명(奉命)한 사람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술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고 나면 집사자(執事者)가 잔을 거두고 찬탁(饌卓)을 치운다. 이튿날 일찍이 봉명한 사람은 대궐에 나아가 복명(復命)하고, 사연을 받은 사람을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

하고, 사신(使臣)을 각도(各道)에 보내어 선로(宣勞)하는 절차와 모임의 의식은,

“사신(1418) 이 도착하는 날에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그의 소속과 그 주관(州官)을 거느리고 시복(時服) 차림으로 교외(郊外)에서 영접한다. <사신의 행차에> 뒤따라와서 객관(客館)에 이르면 사신이 선운(宣醞)을 당상(堂上)의 탁자(卓子) 위에 놓고【물품을 하사하는 것이 있으면 하사품을 놓는 탁자는 동쪽에 두고 선운을 놓는 탁자는 서쪽에 둔다.】탁자의 동쪽에 서향하여 선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서쪽 문으로부터 뜰에 들어와 북향하여 서면, 사신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남향하여 서서 ‘왕지(王旨)가 있다.’고 일컫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응당 수사할 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하고 나서 서계(西階)로 당상(堂上)에 올라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사신이 서향하여 왕지

判書有故，則代以他曹。】及應受賜者詣闕受命，赴禮曹就座。奉命者在東，受賜者在西，參判代言以次差退。若受賜者與判書差等以下，則判書北壁，參判代言東壁。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奉命者，亦於坐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座。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翼日早，奉命者詣闕復命，受賜者詣闕謝恩。

遣使各道宣勞並會儀：

使臣【三品以下，六品以上朝官。】至日，應受賜者率其屬及州官，時服迎於郊外，隨至館。使臣以宣醞置堂上卓上，【有賜物，則賜物卓在東，宣醞卓在西。】立於卓東西向，應受賜者自西門入庭北向立。使臣小前南向立，稱有旨，退復位，應受賜者行稽首四拜，由西階升堂北向跪，使臣西向，宣旨云云，應受賜者俛伏興【有賜物，則使臣以授，受者小前跪，受以授從者，俛伏興。】就座。【使臣在東，受賜者在西。】執事者設饌卓及盞斟酒，受賜者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使臣朴於前俛伏跪先舉。】訖，俛伏興就



	<p>(王旨)를 선유(宣諭)한다. 응당 수사(受賜)할 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하사할 물품이 있으면 사신이 이를 주는데, 받는 자는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꿇어앉아 받아 수종자(隨從者)에게 주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좌석에 가 앉으면, 【사신은 동쪽에 있고 수사자는 서쪽에 있다.】 집사자가 찬탁과 잔을 베풀어 놓는다. 잔에 술을 따르면 수사자가 각기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 잔을 잡아 마신다. 【사신도 또한 좌석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꿇어앉아서 먼저 잔을 든다.】 다 마시고 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자리에 앉는다. 안주를 들고 술을 마시기를 일곱 순배에 이르면, 집사자가 잔을 걷고 찬탁을 치운다. 수사자가 뜰에 내려와 서면, 사신이 탁자의 동쪽에 도로 가서 선다. 수사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하고 나서 문밖에 나가 섰다가, 사신이 나가면 몸을 굽혀 전송한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座。進饌行酒至七周後，執事者收盞徹卓，受賜者降立於庭，使臣復於卓東。受賜者行稽首四拜訖，就門外立，使臣出，躬身以送。從之。</p>
<p>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0月 2日 (乙亥) 4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어육을 하사하다</p>	<p>양녕 대군 이제(李禕)에게 어육(魚肉)을 하사하였다.</p>	<p>賜魚肉于讓寧大君禕。</p>
<p>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3일 (을해) 5번째기사 박서생이 시행할 만할 일들을 갖추어 아뢰다</p>	<p>(전략) 1.사역원(司譯院) 생도(生徒) 이생(李生)이 말하기를, ‘감자(甘藷)1432)는 맛이 달고 좋아서 생으로 먹어도 사람의 기갈(飢渴)을 해소하게 되고, 또 삶으면 사탕(沙糖)이 되는데, 유구국(琉球國)에서는 강남(江南)에서 얻어다가 많이 이를 심고 있으며, 또 서여(薯蕷)1433) 라는 것이 있어, 큰 것은 기둥만 하고 작은 것은 서까래만 한데, 역시 남만(南蠻)에서 얻어다가 이를 재배한다.’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모두 채취해 오게 하여 그 재배를 널리 보급하도록 하소서.(후략)</p>	<p>(전략) 一。司譯院生徒李生言：‘甘藷味恬美，生食之，令人解飢渴，又煮爲沙糖，琉球國得于江南，多種之。又有薯蕷，大者如柱，小者如椽，亦得于南蠻，種之。’ 伏望竝令採來，以廣其種。(후략)</p>

<p>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2月 14 日(丙戌) 4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사 신에게 별선을 주다</p>	<p>내관(內官)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別膳)을 주었다.</p>	<p>命內官韓龍鳳，贈別膳于使臣。</p>
<p>세종 46권, 11년 (1429 기유 / 명 선덕 (宣德) 4년) 12월 22 일(갑오) 1번째기사 왕세자에게 명하여 백 관을 거느리고 사은하 는 표 전문을 받들고 떠나게 하다</p>	<p>(전략) 예물은 백세저포(白細苧佈) 20필, 흑세마포 50필, 만화석·잡채 화석·만 화 방석 각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마 6필이다. 이친(李訥)이 진 헌할 마른 연어 2천 마리, 대구어 1천 마리, 문어 5백 마리도 아울러 받들고 가니, 친에게 초구(貂裘)·모관(毛冠)·이엄(耳掩)·전(氈)·초립(草笠)·유의(襦衣) 1 습과 호슬(護膝) 및 신을 하사하고, 맹균에게는 초구·모관과 유의 1벌·갓·신을 하사하였다.</p>	<p>(전략) 禮物: 白細苧布二十四、黑細 麻布五十四、滿花席雜彩花席滿花方 席各一十張、人蔘五十觔、松子一百 觔、雜色馬六匹。 訥并齋進獻乾年魚 二千尾、大口魚一千尾、文魚五百首 以行。 賜訥貂裘毛冠耳掩氈草笠襦衣 一襲、護膝及靴，孟詢貂裘·毛冠·襦 衣一領、笠靴。</p>
<p>世宗 46卷, 11年 (1429 己酉 / 명 선덕 (宣德) 4年) 12月 27 日(己亥) 5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다</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술과 고기를 하사하였다.</p>	<p>賜酒肉于讓寧大君禔。</p>
<p>세종 47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1월 6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종친들이 입</p>	<p>예조에서 종친(宗親)들의 입학(入學)하는 의식을 아뢰기를, “종친은 학생복을 입고 종학(宗學) 문 밖에 이르고, 폐백으로 속백(束帛)을 한 광주리에 한 필, 술은 한 병에 두 말, 육포(肉脯)는 한 상에 세 정(脛)을 차린 다. 상자(相者)1443) 가 종친을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게 하고, 폐 백 광주리와 술병, 육포 상을 종친의 서남쪽에 진설(陳設)하되, 바로 문 앞에</p>	<p>禮曹啓: 宗親入學儀: 宗親服學生服，至學門 外，束帛一籠、一匹，酒一壺二斗，脩 一案三脛。 相者引宗親，立於門東西 面，陳帛籠、酒壺、脩案於宗親西南當</p>

<p>학하는 의식에 대해 아뢰다</p>	<p>북향하여 곁줄로 놓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교관(敎官)이 공복(公服)을 갖추어 입고, 집사자(執事者)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쪽 섬돌 위에 서향하여 서게 하면, 전명(傳命)하는 사람이 문 서쪽에 동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사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면, 종친이 조금 나아와서 말하기를, ‘아무가 지금 선생님께 수업(受業)하고자 하여 뵈옵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말을 고하면, 교관(敎官)이 말하기를, ‘아무는 덕이 없사오니 종친은 욕되게 하지 마시기를 청하나이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종친에게 고하면, 종친은 굳이 청한다.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덕이 없으니, 종친께서 자리에 나아가려면 아무가 감히 뵈옵겠습니다.’ 하고, 전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고한다. 그러면 종친이 말하기를, ‘아무는 감히 빈객(賓客)을 대할 수 없사오니 마침내 뵈옵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 뜻을 고하면, 교관이 말하기를, ‘아무가 사양하여도 듣지 아니하시니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다. 전명하는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고하면, 폐백 광주리를 잡은 사람이 광주리를 가지고 동향하여 종친에게 주고, 종친은 광주리를 받아 든다. 교관이 동쪽 섬돌 아래로 내려와서 서향하여 서면, 상자(相者)가 종친을 인도하고,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들고 따른다. 종친이 문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쪽 섬돌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육포를 받든 사람은 종친의 서남쪽에 서되, 동향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종친이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재배하면 교관도 답하여 재배한다. 이때에 종친은 돌아서서 피하고 이내 나아가서 꿇어앉아 광주리를 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교관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폐백을 바치고, 술병과 육포 상을 받든 사람도 따라서 교관 앞에 드린다. 교관이 폐백을 받으면 집사자가 술·육포·폐백을 받아 가지고 동쪽으로 선다.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섬돌 중간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게 한다. 술과 육포를 받든 사람이 나가고, 종친이 재배하고 나면 상자가 종친을 인도하여 나간다. 종</p>	<p>門北向，重行西上，敎官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立門西東面曰：“敢請事。”宗親少進曰：“某方受業於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敎官曰：“某也不德，請宗親無辱。”將命者出告，宗親固請，敎官曰：“某也不德，請宗親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宗親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敎官曰：“某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籩者以籩東向，授宗親，宗親執籩，敎官降候于東階下西面，相者引宗親，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宗親入門而左，詣西階之南東面，奉酒脩者，立於宗親西南，東面北上。宗親跪奠籩再拜，敎官答再拜，宗親還避，遂進跪取籩，相者引宗親進敎官前，東面受幣。奉酒壺脩案者，從奠於敎官前，敎官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宗親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宗親再拜訖，相者引宗親出。宗親入宗學儀：三四品敎官坐正廳北壁，五六品敎官東壁，迎送拜揖，依已定禮。敎官既坐，宗親就敎官前【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p>
-----------------------	---	---

	<p>친이 종학(宗學)에 들어가는 의식. 3, 4품의 교관은 정청(政廳)의 북쪽 벽에 앉고, 5, 6품의 교관은 동쪽 벽에 앉으며, 영접하고 전송하며, 절하고 읊(揖)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예식대로 한다. 교관이 자리에 앉고 나면, 종친은 교관 앞에 나아가서 【2품 이상이 한 줄, 3품 이하가 한 줄,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 줄이 된다.】 돈수재배(頓首再拜)하면, 동시에 답배(答拜)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각 재(齋)에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한다. 교관과 종친이 모두 평등히 차리되, 관복(冠服)은 작(爵)이 있는 사람은 품복(品服)을 입고, 작이 없는 사람은 학생복(學生服)을 입는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者爲一行。】 頓首再拜，教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教官宗親竝平排，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生服。從之。</p>
<p>世宗 47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3月 6日 (丙午) 3번째기사 예조에서 왕자 알성의 에 대하여 아뢰다</p>	<p>예조에서 왕자(王子)의 알성의(謁聖儀)에 대하여 아뢰기를, “왕자는 학생복(學生服)을 입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문묘의 뜰에 들어가서 서향하여 서게 한다. 집사자(執事者)가 ‘국궁(鞠躬), 사배(四拜), 흥(興), 평신(平身)’이라 찬(贊)하면, 왕자는 몸을 굽혀 네 번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고, 상자(相者)가 인도하여 나간다. 종친(宗親)도 왕자의 입학하는 의식과 같다. 왕자가 학생복을 입고 국학(國學)의 문 밖에 이르면, 속백(束帛) 한 광주리 【한필.】, 술 한 병 【두 말.】, 포육(脯肉) 한 상 【세 조각.】 을 준비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문 동쪽에 서서 서향하게 하고, 폐백 광주리와 술병과 포육상을 왕자의 서남 쪽에 진설하되, 바로 문 앞에 북향하여 겹줄로 놓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박사(博士)1488) 가 공복(公服)을 갖추고 있으면, 집사자가 인도하여 학당(學堂)의 동계(東階)에 서향하여 서게 한다. 장명자(將命者)1489) 가 나와서 문 동쪽에 서향하여 서서 말하기를, ‘행사(行事)하소서.’ 하면, 왕자가 조금 앞으로 나아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바야흐로 선생에게 수업(受業)하려 하오니, 감히 뵈옵기를 청합니다.’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으니 왕자는 욕되이 함</p>	<p>禮曹啓： 王子謁聖儀：王子服學生服，相者引入廟庭西向立。執事者贊鞠躬四拜興平身，王子鞠躬四拜興平身，相者引出。宗親同。王子入學儀：王子服學生服，至國學門外，束帛一籠、【一匹】酒一壺、【二斗】脩一案，【三甗】相者引王子，立於門東西面，陳帛籠、酒壺、脩案於王子西南當門北向，重行西上。博士【宗學博士】具公服，執事者引立於學堂東階上西面。將命者出，立門東西面曰：“敢請事。”王子小進曰：“某方受業於先生，敢請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也不德，請王子無辱。”【若宗親，則云宗親無辱】將命</p>

이 없기를 청합니다.’ 한다. 【만약 종친(宗親)이면, ‘종친은 옥되이 함이 없게 하십시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면, 왕자는 굳이 청한다. 박사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덕이 없사오니, 왕자께서 자리에 나오소서. 그러면 아무개는 감히 뵈오리다.’ 한다. 장명자가 나가서 고하면, 왕자가 말하기를, ‘아무개는 감히 빈객을 뵈올 수 없사오니 부디 뵈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한다. 장명자가 들어가서 고하면, 박사는 ‘아무개는 사양하여도 허락하지 않으시니 감히 좃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다. 장명자가 나와서 고하고, 폐백 광주리를 잡은 자가 광주리를 동향하여 왕자에게 주면, 왕자가 광주리를 받아 든다. 박사가 내려와서 동계 아래에 서향하여 서서 기다린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면 집사자(執事者)는 술병과 포육상을 받들고 따라간다. 왕자가 문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서계(西階)의 남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왕자의 서남쪽에 동향하여 서되, 북쪽을 위로하여 선다. 왕자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드리고 두 번 절하면 박사가 답하여 두 번 절하는데, 왕자는 돌아서서 피하였다가, 나아가 꿇어앉아서 폐백 광주리를 취한다. 상자(相者)가 왕자를 인도하여 섬돌 사이에 남쪽 가까이 북향하여 서게 하고, 술과 포육을 받든 자는 나간다. 왕자가 두 번 절하고 나면, 상자가 왕자를 인도하여 나간다. 종학(宗學)의 의식. 종학(宗學)의 정청(正廳)에 3품(品) 교관(敎官)은 북쪽 벽에, 4품 교관은 동쪽 벽에 5, 6품 교관은 서쪽 벽에 앉는다. 【만약 3품 교관이 없으면 4품 교관이 북쪽벽에, 5, 6품 교관은 동쪽 벽에 앉게 된다.】 교관을 맞이하고 보내며, 절하고 읊(揖)하는 절차는 이미 정해 있는 예에 의한다. 교관이 이미 앉았으면, 왕자 이하는 교관의 앞으로 나아가서 【대군(大君)이 한 줄이 되고, 2품 이상이 한 줄이 되고, 3품 이하가 한 줄이 되고, 작(爵)이 없는 사람이 한줄이 된다.】 돈수 재배(頓首再拜)한다. 교관은 다 같이 한꺼번에 답하여 절한다. 예(禮)를 마치면, 각기 서재[齋]로 나아가서 차례대로 수업(受業)을 하는데, 교관과 왕자 이하가 모두 자리에 앉는다.

者出告，王子固請，博士曰：“某也不德，請王子就位，某敢見。”將命者出告，王子曰：“某不敢以視賓客，請終賜見。”將命者入告，博士曰：“某辭不得命，敢不從？”將命者出告，執籩者以籩東向授王子，王子執籩，博士降俟于東階下西面。相者引王子，執事者奉酒壺脩案以從。王子入門而左，詣西階之南東面，奉酒脩者立於王子西南，東面北上。王子跪奠籩再拜，博士答再拜，王子還避，遂進跪取籩，相者引王子，進博士前東面授幣。奉酒壺脩案者從，奠於博士前，博士受幣。執事者取酒脩幣以東，相者引王子，立於階間，近南北面，奉酒脩者出。王子再拜訖，相者引王子出。宗學儀：宗學正廳，三品敎官北壁，四品東壁，五六品西壁。【若無三品敎官，則四品敎官北壁，五六品敎官東壁。】敎官迎送拜揖，依已定禮。敎官既坐，王子以下就敎官前【大君爲一行，二品以上爲一行，三品以下爲一行，無爵者爲一行。】頓首再拜，敎官一時答拜。禮畢，各就齋以次受業，敎官王子以下竝坐席。冠服則有爵者品服，無爵者學

	관복(冠服)은 관작이 있는 사람이면 품복(品服)을 입고, 관작이 없는 사람이면 학생복을 입는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生服。 從之。
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4日 (癸卯) 1번째기사 왕세자와 백관을 거느 리고 사은 표전을 배 송하다	(전략) 예물로는 백세저포·흑세마포 각 20필, 만화석·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50근, 잣 1백 근, 잡색말 4필이었다. 문귀(文貴)가 문어 2백 40마리, 전복 2백 근, 붉은 새우젓[紫蝦鮓] 10항아리[壘], 곤포(昆布) 5백 근, 조해채(早海菜) 2백 근, 김[海衣] 1백 50근, 해채(海菜) 3백 근을 함께 가지고 갔다. 귀와 익정 등에게 옷·갓[笠]·신을 하사하였다.	(전략) 禮物: 白細苧布·黑細麻布各二十四, 滿花席雜彩花席各一十張, 人蔘五十觔, 松子一百觔, 雜色馬四匹。文貴并齋文魚二百四十首、鮆魚二百觔、紫蝦鮓一十壘、昆布五百觔、早海菜二百觔、海衣一百五十觔、海菜三百觔以行, 賜貴、益精等衣笠靴。
世宗 48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5月 16日 (乙卯) 2번째기사 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다	사헌부에 명하여 술을 금하게 하되, 그 먹은 것이 취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자와 약으로 먹는 자라도 모두 태형(笞刑) 40대 이하로 하고, 그 경중(輕重)을 가려서 죄를 다스리되 아주 가벼운 자는 논하지 말게 하였다.	命司憲府禁酒, 其飲不至醉者、服藥者, 竝以笞四十以下, 分其輕重治罪, 最輕者, 勿論。
세종 48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5월 18일 (정사) 2번째기사 고기와 미역을 허성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다	고기[肉]와 미역[海菜]을 지신사 허성(許誠)의 어머니에게 하사하니, 병이 있기 때문이었다.	賜肉及海菜于知申事許誠母, 以有疾也。
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戊辰/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宗親宴使臣時, 自相行酒之禮何如?”

<p>(宣德) 5年) 7月 30日 (戊辰) 1번째기사 종친들이 사신과 연회할 때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에 대해 의논하다</p>	<p>“종친(宗親)들이 사신과 연회할 때, 서로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판서 권진(權軫)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모든 종친이 효령(孝寧)·진평(晉平)·안평(安平) 세 대군(大君)에게는 읍례(揖禮)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서로 읍하고 마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찬성(贊成) 허조(許稠)는 아뢰기를, “모두 무릎 꿇고 마시게 하되, 오직 효령만은 서서 받아 마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좌의정 황희(黃喜)·우의정 맹사성(孟思誠)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진평 대군(晉平大君) 이유(李瑀) 이하의 모든 종친이 사신에게 술을 따라 올린 뒤에 효령 대군 이보(李補)에게도 읍례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고, 효령은 서서 이를 받아 마시고 나면, 또 읍례를 행하고, 나머지 종친들은 다만 서로 읍례만을 행하게 하며, 효령이 술을 따라 권할 때에 모든 종친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며, 관반(館伴)은 효령 대군 이하 모든 종친에게 읍례만을 행하고 무릎 꿇지 않게 하고, 모든 종친들이 술을 따라 권하는 예절도 또한 같게 하소서. 좌차(座次)에 있어서는 효령(孝寧)·진평(晉平) 및 안평 대군(安平大君)은 동벽(東壁)으로 하고, 경녕군(敬寧君)·공녕군(恭寧君) 이하 모든 종친은 서벽(西壁)으로 하되, 효령 대군의 자리에 대하여 약간 아래로 내려서 하고, 오직 신의군(愼宜君)·순성군(順城君)은 동벽의 대군들 아래에 자리하되, 약간 뒤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p>	<p>判書權軫對曰：“諸宗親於孝寧、晉平、安平三大君處，則行揖跪進，其餘相揖而飲可也。”贊成許稠曰：“皆跪而飲，唯孝寧，立而受飲可也。”上曰：“更與左議政黃喜、右議政孟思誠共議。”僉曰：“晉平大君瑀以下諸宗親，行酒使臣之後，竝於孝寧大君補，行揖跪進，孝寧立而受之，飲畢，又行揖禮，其餘宗親，則只行相揖。孝寧行酒時，諸宗親亦同。館伴則孝寧大君以下諸宗親處，行揖不跪，諸宗親行酒禮亦同。座次則孝寧、晉平及安平大君東壁，敬寧君、恭寧君以下諸宗親西壁，對孝寧大君座差下。唯愼宜君、順成君，座東壁大君之下，差後。”</p>
<p>세종 49권, 12년</p>	<p>내관 김순(金淳)에게 명하여 별선을 가지고 가서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p>	<p>命內官金淳，齎別膳分贈兩使臣。</p>

<p>(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8월 1일 (기사) 3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p>	<p>였다.</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3日 (辛未) 3번째기사 허성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케 하다</p>	<p>지신사 허성(許誠)에게 명하여 두 사신에게 문안하니, 창성(昌盛)이 진헌해야 할 물건의 숫자를 써서 보였는데, 해칭(海靑) 등매[鷹] 50연, 표범[豹子] 30마리, 선구(驪狗)1590) 60마리, 어하(魚蝦) 등 해미(海味)·젓[鮮] 60항아리, 여석(礪石) 30덩이였다</p>	<p>命知申事許誠，問安于兩使臣，昌盛書示進獻物數，海靑等鷹五十連、豹子三十兒、驪狗六十隻、魚蝦海味鮮六十壘、礪石三十塊。</p>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6日 (甲戌) 4번째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심 별감이 보고한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뢰다</p>	<p>(전략) 1. 각 고을에서 변(籩)·두(豆)·보(簠)·궤(簋)·등(鐙)·형(銅)·준(尊)·늬(壘)·조(俎)·점(坫)·작(爵)·비(篚) 등 제기(祭器)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봉상시(奉常寺)의 각색(各色) 제기를 각도로 나누어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鑄造)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壇直]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조항은 아뢴 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祭器)의 주조(鑄造)는 우선 자기(磁器)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후략)</p>	<p>(전략) 一。各官壇壝之制，長廣高低不一，又無垣墻，故人畜踏毀污穢，宜考古制，令各道築壇壝，竝造瘞坎，而繚以周垣，南作一門，常加扃閉。一。神位版，或用松栗及雜木製造，長廣厚薄不同，或用紙榜，又以位版，藏之寺院，未便。宜於壇壝近北造一室，以藏位版，至祭時，安於壇上致祭。又年終內願狀，隨即沈水，宜懸於藏位版室，待翌年還願時沈之。已上二條，依所申施行。一。各官未知籩豆、簠簋、鐙銅尊壘俎坫爵篚等，祭器之制，妄意造作，未得精潔，宜以奉常寺諸色祭器，分送各道，見樣鑄成。又造藏祭器庫，令壇直看守。右條，</p>



		依所申施行，其鑄器，姑以(鎡) [磁] 器燔造。” (후략)
<p>世宗 49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8月 25日 (癸巳) 2번째기사 석전에서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아뢰도록 명하다</p>	<p>임금이 대언들에게 이르기를, “석전(釋奠)에 희생(犧牲)을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반만 쓰기 때문에, 배위(配位)와 좌·우무(左右廡)에 조금씩 나누어서 쓰므로 풍결(豐潔)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번육(膳肉)을 삼전(三殿)에 바치고, 대언사·의정부·예조에도 보내므로, 나머지가 극히 적어서 문신과 생도들이 음복(飲福)할 때에 고루 얻어 먹지 못하니 역시 불가한 일이다. 석전이란 온 천하가 다 같이 지내는 제사이다. 그 희생의 수효와 번육을 보내는 곳 등을 옛 문헌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p>	<p>上謂代言等曰：“釋奠犧牲，只用牛一及豕一半，故於配位左右廡，小小分奠，似不豐潔。且其膳肉，進于三殿及代言、司議、政府、禮曹，所餘甚少，文臣生徒飲福之時，不得均食，亦不可也。釋奠，通天下之祭也，其犧牲之數、致膳之處，稽古文以啓。”</p>
<p>세종 49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9월 16일 (갑인) 5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선왕 석전제에 쓰이는 희생의 수를 늘릴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문선왕(文宣王) 석전제(釋奠祭)에 정배(正配) 5위(位)와 종향(從享) 10위, 동·서무(西廡)에 종사(宗祀)한 1백 8위에 희생(犧牲)을 소[牛] 한 마리와 돼지 [豕] 한 마리를 가지고 모두 같이 쓰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기에 매우 넉넉지 못하옵니다. 비읍건대, 주문공(朱文公)의 석전제의(釋奠祭儀)에 양(羊)·돼지 각각 5마리를 쓴다는 예에 의하여, 소 한마리는 그대로 쓰되 양 5마리의 수효에 대신하게 하고, 돼지는 5마리를 쓰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文宣王釋奠祭，正配五位，從享十位，東·西廡從祀一百八位，犧牲共用牛一豕一，分獻不周。乞依朱文公 釋奠祭儀，羊豕各五之例，牛一仍舊，以代羊五之數，豕用五。” 從之。</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10월 4일 (신미) 4번째기사 정초가 식거의 음악과</p>	<p>총제(摠制) 정초(鄭招)가 상언(上言)하기를, “《주례(周禮)》 대사악(大師樂)에, ‘왕이 큰 식사[大食]를 할 때에 음식을 권하는 절차[侑食]가 세 번 있는데, 모두 종(鍾)과 북(鼓)을 연주하게 한다.’ 하였고, 주(註)에, ‘왕이 하루에 음식을 드는 큰 그릇[鼎]이 열두 가지인데, 음악으로 음식을 권[侑食]하며, 식사를 마치[卒食]면 음악으로 상을 물린[徹]다.’</p>	<p>摠制鄭招上言： 《周禮》《大師樂》，王大食三侑，皆令奏鍾鼓。註：“王日舉鼎十有二物，以樂侑食，卒食，以樂徹。” 漢武帝百官賀正月，二千石以上，上殿稱萬歲，</p>

출입악에 대해 아뢰다

하였습니다. 한 무제(漢武帝) 때에 백관이 정월 하례를 올리는데, 이천석(二千石)1604) 이상이 전(殿)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며 어전(御前)에서 술잔[觸]을 들고, 사공(司空)은 국그릇[羹]을 받들고, 대사농(大司農)은 수라를 받들고 식거지악(食舉之樂)을 연주하였으며,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에 교묘(郊廟)와 상릉(上陵)의 모든 제사에 대여악(大予樂)을 연주하고 식거(食舉)를 실시하였으며, 그 뒤에 장제(章帝)는 직접 가시(歌詩) 네 장(章)을 지어서 식거(食舉)의 악장(樂章)으로 쓰게 하고, 또 운대십이문(雲臺十二門)의 시를 지어 각기 그 달에 지내는 제사에서 연주하게 하였으며, 장제(章帝) 건초(建初) 5년에 처음으로 십이월 양기악(十二月仰氣樂)을 실시하였는데, 입춘(立春) 날에 동교(東郊)에서 봄의 신을 맞이하며 청양(靑陽)을 노래하고, 입하(立夏) 날에 남교(南郊)에서 여름의 신을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보다 18일 앞서서 황령(黃靈)을 중조(中兆)에서 맞이하며 주명(朱明)을 노래하고, 입추(立秋) 날에는 가을의 신을 서교(西郊)에서 맞이하여 서호(西皓)를 노래하고, 입동(立冬) 날에는 겨울의 신을 북교(北郊)에서 맞이하며 현명(玄冥)을 노래하였습니다. 이 때에 마방(馬防)이 상언하기를, ‘성인이 음악을 연주한 까닭은 기운이 퍼지고 화기가 돌며 음양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것이오니, 신은 생각하건대, 연초(年初)에 태주(太簇)의 율(律)을 발표하며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연주하여 화기를 맞아들이게 하옵소서.’ 하였으며, 순제(順帝) 양가(陽嘉) 2년 10월 경오에 벽옹(辟雍)에서 예를 행하고 응종(應鍾)을 연주하여 비로소 황종(黃鍾)의 악기를 복구시켰고, 각각 해당하는 달의 음률[月律]에 따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진 무제(晉武帝)의 함녕원회의(咸寧元會儀)에, ‘대관령(大官令)이 국그릇을 들고, 사도(司徒)가 밥그릇을 들고, 상서(尙書)가 상[案]을 들어 모두 지절(持節)에게 주면, 지절은 꿇어앉아 임금의 자리 앞에 나아가 바치며, 여러 신하들이 좌석에 앉으면, 태악령(太樂令)이 꿇어앉아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양 무제(梁武帝) 때에 수주(壽酒)를 올릴 때에는

舉(觸) [觴] 御前。司空奉羹，大司農奉飯，奏《食舉之樂》。後漢明帝《大予樂》郊廟上陵，諸食舉之。其後章帝親著歌詩四章，列在《食舉》，又制雲臺十二門詩，各以其月祀而奏之。章帝建初五年，始行十二月仰氣樂。立春之日，迎春于東郊，歌《春陽 [靑陽]》；立夏之日，迎夏于南郊，歌《朱明》；先立秋十八日，迎黃靈于中兆，歌《朱明》；立秋之日，迎秋于西郊，歌《西皓》；立冬之日，迎冬于北郊，歌《玄冥》。馬防上言：“聖人作樂，所以宣氣、致加，順陰陽也。” 臣愚以謂可因歲首，發大簇之律，奏雅頌之音，以迎和氣。順帝陽嘉二年十月庚午，行禮辟雍，奏應鍾，始復黃鍾樂器，隨月 [用] 律。晉武帝咸寧元會儀，大官令持羹，司徒持飯，尙書持案，竝授持節，持節跪進御座前，群臣就席，大樂令，跪奏《食舉》。梁武帝時，上壽酒奏《介雅》，食舉奏《需雅》。陳宣帝時，定三朝之樂，採梁故事，奏《相和五引》，各隨王月。帝舉酒奏《綏韶》，進膳奏《侑韶》。後周武帝時，大會食舉，

개아(介雅)를 연주하며 식거(食舉)에는 수아(需雅)를 연주하였습니다. 진 선제(陳宣帝) 때에는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하는데 모두 양(梁)의 고사(故事)를 채택하여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하고, 각각 달에 따라서 황제가 술을 들 때에는 유소(綏韶)를 연주하며, 찬을 들 때에는 유소(侑韶)를 연주하였습니다. 후주 무제(後周武帝) 때에는 큰 연회[大會]에서의 식거(食舉)는 심하(深夏)를 연주하였습니다. 수 문제(隋文帝) 때에 우홍(牛弘) 등이 건의하기를, ‘옛적에 궁(宮)·상(商)·각(角)·치(徵)·우(羽)의 오인(五引)이 있었는데, 양(梁)에서는 삼조(三朝)와 원회(元會)에서 이를 연주하다가, 지금은 오음(五音)으로 고쳤는데, 그 음성이 모두 궁(宮)과 상(商)에 의거하여 그다지 다르지 아니하며, 다만 오교(五郊)에서 새 기운을 맞아들이는 제사를 지낼 때에 강신(降神)하는 데만 이를 연주하고 있으니, 월령(月令)에 봄의 첫달에는 그 음악이 각(角)이라고 한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는 임금이 식사할 적에 모두 그 달의 음악을 연주하여, 시율(詩律)의 소리를 채택하여 오상(五常)의 본성(本性)을 잃지 아니하며, 몸[四體]을 조화 창달하여 시기(時氣)의 화함을 얻게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동한(東漢)의 태자승(太子丞) 포업(鮑業)은 건의하기를, ‘천자가 음식을 들 때에는 반드시 사시(四時)에 따라서 식거(食舉)의 음악을 연주해야 한다. 그 까닭은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신명(神明)을 기르며, 12달[月]의 음운(音韻)에 의하여 천지의 화기를 감동시키는 것이니, 이는 곧 전정월조(殿庭月調)의 뜻입니다. 제사에서 이미 음악을 구별하여 기운을 맞아들이고 있는즉, 궁중에서 조회(朝會)를 행하는 데에도 아울러 그 달의 음악을 사용하여, 정월에는 태주(太簇)의 음운을 연주하며 12월에는 대려(大呂)의 음운을 사용할 것이니, 이것은 임금의 성정(性情)을 감화시켜 음양의 차서와 들어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당(唐)의 조효손(祖孝孫)의 십이화(十二和)에, ‘아홉째는 소화(昭和)이니 황제와 황태자가 술을 드실 때에 사용하며, 열째는 휴화(休和)이니 황제가 수라를 들거나 황태자가 식사를 들 때에 사용

奏《深夏》。隋文帝時，牛弘等議曰：“古者宮商角徵羽五引，梁以三朝元會奏之，今改爲五音，其聲悉依宮商，不使差越，惟迎氣於五郊，降神奏之。《月令》所謂孟春其音角是也。”又曰：“古者人君食，皆用當月之調，以取詩律之聲，使不失五常之性，調暢四體，令得時氣之和，故東漢太子丞鮑業上言：‘天子食飲，必順四時。爲《食舉樂》，所以順天地、養神明，可依十二月均感天地和氣。’此則殿庭月調之義也。祭祀既已分樂迎氣，臨軒朝會，並用當月之律。正月懸大簇之均，及十二月，懸大呂之均，欲感人君性情，允協陰陽之序也。唐祖孝孫十二和，九曰《昭和》，皇帝、皇太子以舉酒。十曰《休和》，皇帝以飯，皇太子亦以飯，皆以其月之律均。《開元禮》會儀，皇帝舉酒及飯，《休和之樂》作。宋元豐會儀，皇帝舉第一爵，作《和安之樂》。臣招謹按《食舉之樂》，載於《周禮》，其來遠矣。以十二月之律均，則始見於《漢書》，而定於唐制，歷代又以此迎氣五郊，蓋本於《禮記》《月令》焉。如後漢《大予樂》，

하되, 모두 그 달의 운율(韻律)을 사용한다.’ 하였고,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는 ‘황제가 술이나 수라를 들 때에 휴화지악(休和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회의(元豐會儀)에, ‘황제가 첫번째로 술잔을 들면 화안지악(和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조사하온즉, 식거(食舉)의 음악은 《주례(周禮)》에 벌써 기재되어 있사와 그 유래가 오래 되었습니다. 12개월에 따르는 음률을 사용한다 함은 《한서(漢書)》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당대(唐代)의 제도에서 완전하게 정해졌으며, 역대 왕조에서 모두 이것에 의거하여 오교(五郊)에서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였사오니, 이것은 《예기(禮記)》의 월령(月令)에 의거한 것입니다. 후한(後漢)에서 대여악(大予樂)을 교묘(郊廟)와 여러 능(陵)에서 사용한 것은 음식을 올리는 것이요, 오교(五郊)에서 사용한 것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한 것이요, 벽옹(璧雍)에서 예를 거행하는 것은 노인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당(唐)의 개원례회의(開元禮會儀)에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술과 수라를 들 때에 사용하게 한 것은, 조효손(祖孝孫)이 제정한 것이며, 송(宋)의 원회의(元會儀)에, ‘황제가 술을 들 때에 화안(和安)을 연주한다.’ 하였는데, 이것은 곧 당(唐)의 휴안(休安)의 명칭을 고친 것입니다. 송에서 음악의 명칭을 안(安)으로 하면서 당(唐)에서 쓰던 화(和)만을 고친 것은 구태여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나타낸 것뿐이요, 사실은 마찬가지로입니다. 다만 진(陳)에서는 양(梁)의 고사(故事)에 따라, 상화오인(相和五引)으로 삼조(三朝)의 음악을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세에 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우홍(牛弘)이 말한, ‘오인(五引)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때에 쓰고 식거(食舉)에서 조화하여 사용한다.’ 함은 포업(鮑業)의 말과 같으며, 다만, ‘궁전에서 조회할 때에 아울러 그 달의 음률을 사용한다.’ 함이 위에서 든 글의 내용과 같지 아니한데, 이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수(隋)의 왕조에서는 다만 황중(黃鍾) 한 가지의 음률만을 사용하며, 12울 가운데서 오중(五鍾)은 아중(啞鍾)이라 하고, 각 달에 따라서 율을 사용하여, 돌아가며 서로 궁(宮)이

用於郊廟諸陵者，薦食也；用於五郊者，迎氣也；行禮(璧) [辟] 雍者，養老也。唐《開元禮》會儀，《休安之樂》，用於舉酒及飯，祖孝孫之所定也。宋元會儀，皇帝舉酒，其樂《和安》，即唐《休安》之改名也。宋名樂以安，改唐之和，示不相襲，其實一也。唯陳採梁故事，以《相和五引》，定為三朝之樂，然而後世無述焉。牛弘所論五引，用於迎氣，月調用於食舉者，合於鮑業之論，獨臨軒朝會，並用當月之律之云，與上文所言不倫，果何謂歟？隋代唯用黃鍾一均，十二律內五鍾，謂之啞鍾，隨月用律，旋相為宮，豈牛弘等所及也！臣愚考之未精，伏望睿裁。

命下詳定所。招又云：出入樂，《周禮》《樂師》：“教樂儀，行以《肆夏》，趨以《采薺》。”註：“堂上謂之行，門外謂之趨。”禮曰：“升車有鸞和之聲，行步有環佩之聲。天子左五鍾，右五鍾。出撞黃鍾，右五鍾皆應；入撞蕤賓，左五鍾皆應。”由是觀之，黃鍾，所以奏《肆夏》也；蕤賓，所以奏《采薺》也。呂叔玉曰：

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우홍(牛弘)의 무리가 어찌 미처 알 수 있었겠습니까. 신은 연구가 아직 정밀하지 못하오니 성상께서 재량하시와 상정소(詳定所)에 명을 내리시옵소서.”

하였다. 정초는 또 아뢰기를,  
“출입악(出入樂)에 있어 《주례(周禮)》의 악사교악의(樂師教樂儀)에, ‘거닐[行]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고 총총걸음[趨]일 때는 채제(采薺)를 연주한다.’ 하고, 주(註)에 당상(堂上)에서 걷는 것을 「거닌다」 하며, 문 밖에서 걷는 것을 「총총 걸음[趨]」이라. ’고 하였습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수레에 오를 때에 난화(鑾和)의 소리가 있으며, 걸어 다닐 때에는 환패(環佩)의 소리가 있다. 천자(天子)는 왼쪽에 오종(五鍾)이 있으면 오른쪽에도 오종(五鍾)이 있다. 밖으로 나갈 때에 황종(黃鍾)을 치면 오른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하며, 들어올 때에 유빈(蕤賓)을 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응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다면, 황종(黃鍾)은 사하(肆夏)를 연주하는 것이며, 유빈(蕤賓)은 채제(采薺)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여숙옥(呂叔玉)은, ‘사하(肆夏)는 시대(時邁)다.’ 하였고, 대사악(大司樂)에, ‘왕이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게 하며, 시(尸)가 출입할 때는 사하(肆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씨(陳氏)는, ‘왕이 대향례(大饗禮)와 대사례(大射禮)에서 출입할 때에는 왕하(王夏)를 연주하며, 이런 경우가 아니면 출행할 때에 사하(肆夏)만을 연주할 뿐이다.’ 하였고, 종사(鍾師)에, ‘모든 음악의 행사는 종고(鍾鼓)로서, 구하(九夏)·왕하(王夏)·사하(肆夏)·소하(韶夏)·납하(納夏)·장하(章夏)·제하(齊夏)·족하(族夏)·계하(械夏)·오하(鵞夏)를 연주한다.’ 한 데에 대하여, 진씨(陳氏)는, ‘사하(肆夏)는 천자(天子)가 제사지내는 데에 사용할 때에는 시(尸)를 맞이하고 전송하며, 자신에게 사용할 때에는 걸어나가거나 수레에 오를 때에 패옥(佩玉)을 사용할 뿐이다.’ 하였는데, 한 고제(漢高帝) 때에 숙손통(叔孫通)이 주악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종묘(宗廟)의 음악을 제정하여서, 황제가 종묘(宗廟)

“《肆夏》, 《時邁》也。” 《大司樂》: “王出入則令奏《王夏》, 尸出入則令奏《肆夏》。” 陳氏曰: “王於大饗大射出入奏《王夏》, 非此則行以《肆夏》而已。” 鍾師: “凡樂事, 以鍾鼓奏九夏, 《王夏》、《肆夏》、《韶夏[昭夏]》、《納夏》、《章夏》、《齊夏》、《族夏》、《械夏》、《鵞夏》。” 陳氏曰: “《肆夏》, 天子用之於祭, 則送迎尸; 施於身, 則行步; 登車, 佩玉而已。” 漢高帝時, 叔孫通因奏樂人, 制宗廟樂, 皇帝入廟門, 奏《乾安》以爲行步之節, 猶古《采薺》、《肆夏》也。 後漢班固《東都賦》: “春王三朝, 會同漢京。 是日也, 萬樂備、百供暨, 皇權洽、群臣醉, 降烟燼、調元氣, 然後撞鍾告罷, 百僚遂退。” 註: “天子將入, 撞蕤賓之鍾。” 梁武帝十二雅, 皇帝出入奏《皇雅》, 皇太子出入奏《胤雅》, 王公出入奏《寅雅》。 陳宣帝大建元年, 定三朝之樂。 帝出入奏《穆昭》, 賓客入奏《相和五引》。 後周武帝時朝會, 皇帝出入奏《皇夏》, 皇太子出入奏《肆夏》, 王公出

의 문을 들어갈 때에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여 걸어가는 음절에 맞추었으니, 이것은 옛적의 채제(采薺)·사하(肆夏)와 마찬가지로입니다. 후한(後漢)의 반고(班固)의 동도부(東都賦)에, ‘정월 초하루에 서울에서 조회를 베푼다. 이날에는 모든 음악이 갖추어지고 모든 음식이 장만된다. 황제는 기뻐 흐뭇해하시고 여러 신하는 술에 취한다. 화한 기운[烟熾]이 내리고 원기(元氣)가 조화된다. 그리고 나면 종(鍾)을 두들기어 연회가 끝남을 알리고, 모든 관료들은 마침내 물러간다.’ 하였고, 그 주(註)에, ‘천자가 들어오려 할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긴다.’ 하였으며, 양 무제(梁武帝)의 십이아(十二雅)에, ‘황제가 출입할 때는 황아(皇雅)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운아(胤雅)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인아(寅雅)를 연주한다.’ 하였고, 진선제(陳宣帝) 대건(大建) 원년(元年)에 삼조(三朝)의 음악을 제정했는데,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목소(穆昭)를 연주하고, 빈객(賓客)이 들어올 때에는 상화오인(相和五引)을 연주한다.’ 하였고, 후주(後周)의 무제(武帝) 때에, ‘조회에서 황제가 출입할 때에는 황하(皇夏)를 연주하며, 황태자(皇太子)가 출입할 때에는 사하(肆夏)를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오하(鶩夏)를 연주한다.’ 하였고, 당 태종(唐太宗) 때에 조효손(祖孝孫)이 처음으로 사궁법(徙宮法)을 만들고 십이화(十二和)를 제작하여, 천도(天道)의 성수(成數)를 법으로 삼고 명칭을 대당아악(大唐雅樂)이라 하였는데, 그 중에 일곱째가 대화(太和)인데, 이것은 거닐 때의 음절을 맞추는 것으로 황중(黃鍾)을 가지고 궁(宮)을 삼은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지낼 때라든가, 천자가 문에 들어와서 임금의 자리에 나앉는다든가, 또는 오르고 내리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이르기까지 거닐 때에 연주하고 머물 때에는 중지하였습니다. 조정에서는 천자가 안에서 나오려 할 때에 황중(黃鍾)의 종을 두들기면 오른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고, 예를 마치고 일어나서 들어갈 때에는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들기면 왼쪽에 있는 오중(五鍾)이 이에 응하여 연주하였습니

入奏《鶩夏》。唐太宗時，祖孝孫始爲徙宮之法，造十二和，以法天之成數，號大唐雅樂。七曰《太和》，以爲行節，以黃鍾爲宮。凡祭祀，天子入門而卽位，與其升降至于還次，行則作，止則止。其在朝廷，天子將自內出，撞黃鍾之鍾，右五鍾應乃奏之；禮畢興而入，撞蕤賓之鍾，左五鍾應乃奏。八曰《館和》，以出入二舞及皇太子、群公、國老、若皇后之妾御、皇太子宮臣出入門則奏之，皆以大蔟之商。若駕出則撞黃鍾奏《太和》，出太極門而奏《采薺》，至于嘉德門而止，其還也亦然。《開元禮》正至朝賀儀，皇帝將出，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協律郎舉麾，奏《太和之樂》。王公出入奏《館和》。及禮畢，皇帝與大樂令，撞蕤賓之鍾，左五鍾皆應，奏《太和之樂》。宋元豐元正、冬至大朝會儀，侍中奏外辦，殿上鳴蹕，大樂令，令撞黃鍾之鍾，右五鍾皆應。皇帝出西閣，協律郎舉麾，奏《乾安之樂》，百官出入，奏《正安》。禮畢，殿下鳴蹕，大樂令，令撞蕤賓之鍾，左五鍾皆應。協律郎舉

다. 여덟째가 관화(館和)로서 출입(出入)할 때 추는 이무(二舞)인데, 황태자와 여러 공(公), 국가의 원로(元老) 또는 황후의 시녀[妾御], 황태자 궁의 신하가 출입할 때에 이것을 연주하니, 모두 태주(太簇)의 상(商)을 사용하며, 만일 어가(御駕)가 외출할 때라면 황종(黃鍾)을 두드리고 태화(太和)를 연주하며, 태극문(太極門)을 나서면 채제(采薺)를 연주하여 가덕문(嘉德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중지하였고, 돌아 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였습니다. 개원례(開元禮)의 정지조하의(正至朝賀儀)에, ‘황제가 나가려 할 때에는,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하며, 왕공(王公)이 출입할 때에는 관화(館和)를 연주하고, 예(禮)가 끝날 때에는, 황제가 태악령(太樂令)에게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의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호응하며 태화(太和)의 음악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송(宋)의 원풍(元豐) 연간의 원정 동지 대조회의(元正冬至大朝會儀)에는, ‘시중(侍中)이 외관(外辦)을 아뢰면, 전상(殿上)에서는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황종(黃鍾)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오른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황제가 서각(西閣)에 나갈 때에는,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하며, 백관(百官)이 출입할 때에는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하고, 예가 끝날 때에는 전(殿) 아래에서 필(蹕)을 울리고, 태악령(太樂令)이 유빈(蕤賓)의 종(鍾)을 두드리게 하면, 왼쪽에 있는 오종(五鍾)이 모두 이에 응한다. 협률랑(協律郎)이 휘(麾)를 들면 건안지악(乾安之樂)을 연주한다.’ 하였으며, 황명초백(皇明抄白)에는, ‘성절(聖節)·동지(冬至)·정조(正祖)의 예(禮)에, 임금이 자리에 오르면 음악을 중지하며,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절차가 없다.’ 하였고, 전조(前朝)1605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에는, ‘임금이 출입할 때에만 음악이 있고, 그 밖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예가 없다.’ 하였습니다. 신(臣) 정초(鄭招)가 삼가 조사한 바로는, 조하지악(朝賀之樂)은 다만 출입

靡，奏《乾安之樂》，《皇明抄白》，聖節、冬至、正朝禮，上陞座樂止，自餘無用樂節次。前朝《詳定古今禮》，聖上出入有樂，自餘無用樂。臣招謹按，朝賀之樂，唯奏出入行步之節，歷代用律，未聞當月之調。然而禮樂制度，廣大精微，臣愚不會樂音，區區微見，豈能萬一？伏惟睿裁。命下詳定所。

	<p>하며 걸어다니는 음절에 맞추어 연주할 뿐이며, 역대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데 있어 그 달에 맞추어 연주하는[當月之調]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악(禮樂)의 제도는 광대 정미(廣大精微)한 것이운데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서 어찌 그 만분의 일이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결재를 내리시와 상정소(詳定所)에 회부하시옵소서.” 하였다.</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11月 12日(己酉) 3번째기사 법주에 노루 뼈를 넣지 말 것을 명하다</p>	<p>궁중에서 사용하는 법주(法酒)에 노루 뼈를 넣는데, 상호군 김척(金陟)과 대호군 마변자(馬邊者)가 그 때문에 풍양(豐壤)에서 사냥을 하는데 사복시의 제원(諸員)인 엄용(嚴龍)이 멧돼지에게 살해되었다. 명령을 내리어 의금부에 가두었다가 곧 석방하고, “지금부터는 노루 뼈를 넣어서 담는 술은 만들지 말라.” 하고, 엄용에게는 쌀과 콩 아울러 5석, 종이 50권을 내렸다.</p>	<p>內法酒用獐骨。 上護軍金陟、大護軍馬邊者，以獵于豐壤，司僕諸員嚴龍爲猪所害死，命囚義禁府，尋釋之。 仍命自今勿釀獐骨酒， 賜嚴龍米豆并五石、紙五十卷。</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1월 12일(기유) 6번째기사 예조에서 무반의 배제를 허락치 말 것을 건의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교지(教旨)를 받자온즉, ‘서반(西班)에서 호군(護軍) 이상은 독제(蠶祭)를 지낼 때에 재계(齋戒)를 드리지도 않고 배제(陪祭)도 드리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한 듯하니, 옛 제도를 조사하여 들이라.’ 하셨사온데, 《홍무예제(洪武禮制)》를 자세히 보면, ‘모든 지방의 수어관(守禦官)은 모두 관청 청사 뒤에 대를 쌓고 기독묘(旗蠶廟)를 세우고 군아(軍牙)와 여섯 독신(蠶神)의 신위(神位)를 설치하여 놓고 봄철의 제사는 경칩(驚蟄)날에 지내고, 가을철의 제사는 상강(霜降)날에 지내며, 제물은 양 1마리, 돼지 1마리, 백(帛) 1필인데 흰 빛을 사용하며, 축문 1장, 향·촛불·술·과일이다. 제사가 있기에 앞서 모든 관리는 하루 동안 재계를 드리고, 제사지내는 날이 되면 수어 장관(守禦長官)은 무관복(武官服) 차림으로 삼헌(三獻)의 예를 집행한다. 만일 군대를 출동할 때에는 기독(旗蠶)을 내어 놓고 제사를 지내며, 군대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대로 묘</p>	<p>禮曹啓: “今承教旨: 西班護軍以上於蠶祭，無齋戒陪祭，未便。 其齋戒及陪祭有無， 考古制以聞。 謹按《洪武禮制》，凡各處守禦官，俱於公廨後築臺，立旗蠶廟，設軍牙六蠶神位，春祭用驚蟄日，秋祭用霜降日，祭物用羊、一豕、一帛一白色、祝一、香燭酒果。 先期，各官齋戒一日，至日，守禦長官，武服行三獻禮。 若出師，則取旗蠶以祭，班師則仍置于廟。 儀注與社稷同。 本朝諸祀儀式</p>



	<p>(廟) 안에 들여 둔다. 의주(儀注)는 사직(社稷)에서와 같다.’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제사지내는 의식에는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執事)이외에 배제관(陪祭官)이란 것이 따로 없사오니, 《홍무예제》에 의하여 헌관과 여러 집사자 이외에 다른 무반(武班)은 배제(陪祭)를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內，獻官諸執事外，無陪祭官，請依《洪武禮制》，獻官諸執事外，武班不許陪祭。”從之。</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12月 22日(戊子)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윤희의 치죄를 아뢰었으나 허락치 않다</p>	<p>사헌부에서 아뢰기를, “빈객(賓客) 윤희(尹淮)가 서연(書筵)에 나아가서 강의를 맡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여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니, 도무지 공경하며 참가하는 뜻이 없습니다. 청하건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인하여 회에게 이르기를, “경이 술을 마시어 도를 지나치는 일이 한 차례가 아니었고, 내가 경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게 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신이 임금의 명령에 대하여는 물이나 불 속을 들어가라 하여도 오히려 피하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 밖의 일이겠는가. 자기의 주량(酒量)을 생각하여 한두 잔쯤 마시든지, 반잔쯤만 마신다면 그렇게 정신이 없고 체면을 잃게까지야 되겠는가. 이제부터는 부디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따르지 않으면 죄를 받을 것이다.” 하고, 들어와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윤희가 술을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재주를 아껴서 과음하지 말라고 경계한 적이 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또 과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술을 조심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조금도 고치는 빛이 없었고, 지금 또 취해 가지고 서연(書筵)에 나아가지 않았으니 세자(世子)를 보도(輔導)하는 도리에 있어 어떨겠는가. 임금의 명령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노력하여 따라야 될 터인데, 더구나, 술을 삼가라는 명령을 따르기가 무엇이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도리를 알 만한 선비도 이러하니 무식한 소인의 무리야 말할 것도 없다.”</p>	<p>司憲府啓：“賓客尹淮當進講書筵，縱酒未參，殊無敬謹之意，請治其罪。”不允，仍謂淮曰：“卿之飲酒失度者非一次，予之禁卿崇飲，亦非一再矣。臣之於君，雖命入水火中，尚且不避，況其他乎？量己之量，或飲一二盃，或飲半盃，則何至於迷亂失性，以喪威儀乎？自今慎勿過飲，不從則當罪之。” 入謂金宗瑞曰：“尹淮好飲，予愛其才，嘗禁其過飲，未幾如前，更命謹酒，略無悛心，今又因醉不進書筵，其於輔養儲副之義何如？君父之命，雖險艱，亦當曲從，況謹酒之命，從之何難？識理儒者尚然，無知儉少之輩，不足言也。”</p>

	<p>하였다.</p>	
<p>세종 50권, 12년 (1430 경술 / 명 선덕 (宣德) 5년) 윤12월 16일(임자) 3번째기사 이조에서 동궁 내관의 관제 칭호 품질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 하여 아뢰다</p>	<p>이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칭호·품질(品秩)에 대하여 옛 제도를 참고하여, 내관(內官)은 양계(良娣) 정2품, 양원(良媛) 정3품, 승휘(承徽) 정4품, 소훈(昭訓) 정5품이요, 궁관(宮官)은 사규(司閨) 한 사람, 빈(嬪)을 인도하는 일을 맡고, 장정(掌正)과 장서(掌書)를 총괄한다. 사칙(司則)한 사람, 예의(禮義)와 참견(參見)하는 사무를 맡고, 장봉(掌縫)·장장(掌藏)을 총괄한다. 사찬(司饌)한 사람, 식사를 올리며 먼저 맛 보는 것을 맡으며, 장식(掌食)·장의(掌醫)를 총괄한다. 모두 종6품이다. 장정(掌正)한 사람, 문서의 출납과 자물쇠와 규찰(糾察)과 벌을 주는 일을 맡는다. 장서(掌書)한 사람, 경적(經籍)과 교학(敎學)을 전하는 일을 맡는다. 장봉(掌縫)한 사람, 재봉과 길쌈을 맡는다. 장장(掌藏)한 사람, 재산과 피륙을 맡는다. 장식(掌食)한 사람, 음식·술·단술·등불·촛불·멜나무·숯·그릇을 맡는다. 장의(掌醫)한 사람, 처방한 약을 맡는다. 이 상은 모두 종8품으로 정하였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吏曹啓: “今以東宮內官制稱號品秩, 參考古制, 內官, 良娣正二品、良媛正三品、承徽正四品、昭訓正五品。 宮官, 司閨一人, 掌導引嬪, 總掌正、掌書; 司則一人, 掌禮儀參見, 總掌縫, 掌藏; 司饌一人, 掌進食先嘗, 總掌食、掌醫, 竝從六品。 掌正一人, 掌文書出入、管籥、糾察、推罰。 掌書一人, 掌經籍、宣傳、敎學。 掌縫一人, 掌(裁) [裁] 紉、織績。 掌藏一人, 掌財貨、縑綵。 掌食一人, 掌膳羞、酒醴、燈燭、薪炭、器皿。 掌醫一人, 掌方藥, 竝從八品。” 從之。</p>
<p>世宗 50卷, 12年 (1430 庚戌 / 명 선덕 (宣德) 5年) 閏12月 23日(己未) 6번째기사 승정원에 전지하여 형제의 아내와 서로 대면하는 예에 대해 묻다</p>	<p>승정원(承政院)에 전지(傳旨)하기를,  “세자와 세 대군(大君)이 이제 헌수(獻壽)하려 하는데, 옛적 예법에 형제의 아내는 서로 대면하지 않는 법이다. 지금 세자와 대군과 죽성군(竹城君) 안맹담(安孟聃)과 순빈(純嬪)과 옹주(翁主) 세 사람이 동서에 마주 앉으면 곧 서로 보게 될 것이니,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는가. 내가 태종(太宗) 때에는 서로 보았지만, 이것은 부모의 앞에서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의 일반 풍속이 어떠한가.”  하니, 대언(代言)들이 아뢰기를,  “일반 풍속으로는 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서로 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p>	<p>傳旨承政院:  世子及三大君, 今欲獻壽。 古禮, 兄弟之妻, 不得相見, 今世子、大君、竹城君安孟聃及純嬪、三翁主東西對座, 則必與之相見, 處之如何? 予在太宗時相見, 以在父母之前也。 我朝世俗如何?  代言等曰: “世俗有相見者, 有不相見者, 安孟聃則不宜侍宴。 如欲進酒,</p>

	<p>안맹담(安孟聃)은 연회에서 모실 수 없으며, 만일 술잔을 올리려 하면, 곧 차례대로 들어가서 술잔을 드리고, 곧 되돌아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조계(朝啓) 때에 정승과 함께 직접 의논하겠다.”</p>	<p>則隨次入獻，還出可也。” 上曰：“明日朝啓，當與政丞親議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1월 19일      (갑신) 4번째기사      강무시 강원도에서 어      육, 해물을 바치는 것      을 금지하라 명하다</p>	<p>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나도 강원도의 금년 실농(失農)은 알고 있다. 그러나 강무(講武)를 하지 않으면 군졸들의 기운을 기르고 향오(行伍)를 연습할 기회가 없다. 근래 사신이 오고 흉년이 들고 해서, 매양 춘추 양등의 강무를 폐해 왔으나 이번만은 폐할 수 없다. 내 그 실농을 우려하여 일수(日數)를 줄이게 하였으니 응당 그 도의 감사로 하여금 어육(魚肉)과 해물(海物)을 바치지 말도록 할 것이다.”      하니, 대언들이 대답하기를,      “대가(大駕)가 경내에 임하옵는데 감사가 어찌 〈안연하게〉 물러 있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도 감사가 와서 알현하는 것을 금하신 바 있다. 그러나 항상 가까운 지경에 와서 문안하곤 하여, 폐단을 없애려는 본의에 유익함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금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엔 비록 와서 보더라도 신선한 해산물 등의 식물은 바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p>	<p>上謂代言等曰：“予知江原道今歲失農，然不講武，則士卒無以養氣力、習行伍。近因使臣及年歉，每廢兩等講武，今則不可廢也。予恐失農，使約日數，宜令其道監司，不得來進魚肉海錯。”      代言等對曰：“大駕臨境，監司豈得退處？”      上曰：“太宗禁監司來見，然常在近地問安，無益於除弊，故不禁。今雖來見，勿進新鮮之味。”</p>
<p>世宗 51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2月 12日      (丁未) 3번째기사      양녕 대군 제에게 고      기를 내려주다</p>	<p>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고기를 내려 주었다.</p>	<p>賜肉于讓寧大君禔。</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2월 25일 (경신) 1번째기사 영전의 어염을 선군에 게 주는 것에 관한 논 의</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각도 영전(營田)에서 나는 어염(魚鹽)을 다 선군(船軍)들에게 주어 부방(赴防)하는 데 식량을 돕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호조 판서 안순(安純)·우의정 맹사성(孟思誠) 등이 대답하기를, “영전(營田)의 어염이란 한갓 선군을 괴롭힐 뿐이요, 그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군들은 말하기를, ‘차라리 식량을 가지고 부방할 망정 영전의 일을 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군들이 처음 부방할 때 각자 식량을 넉넉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관에서 지급하는 요식(料食)을 혹은 병영(兵營)·진무(鎭撫)에 유치하거나, 혹은 술을 빚는 등 실상 선군에게 전혀 무익한 일이오니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군의 노고란 막심한 것으로서 마땅히 애호와 보호를 가해야 할 것이니, 국고의 미곡으로 부족한 양을 보급해야 옳을 것이요, 그러나 부방하여 일이 없으면 모두 일 없이 노는 사람이 될 것이니, 이 일 없이 노는 사람들로 하여금 황폐한 전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맹사성이 아뢰기를, “선군이 꼭 밭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황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슨 이유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근처에 사는 백성들만으로도 모두 개간 경작할 수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이를 생각해 보겠노라.” 하였다.</p>	<p>庚申/受常參, 視事。 上謂左右曰: “各道營田魚鹽所出, 盡給船軍, 以助赴防之糧若何?” 戶曹判書安純、右議政孟思誠等對曰: “營田魚鹽, 徒困船軍, 利不及焉, 故船軍等言: ‘寧齋糧赴防, 不願爲營田等事.’ 船軍等赴防之初, 各自(贏) [贏] 糧而至, 故官給之料, 或遺留營鎭撫, 或以釀酒, 誠無益於船軍, 不如不爲之爲愈也。” 上曰: “船軍勞苦莫甚, 宜加憐恤, 以國庫之米, 補給不足可矣。 然赴防無事, 則皆遊手, 以遊手而耕荒田, 無乃可乎?” 思誠曰: “船軍雖不耕田, 必不荒矣。” 上曰: “何也?” 對曰: “近處之民, 皆得耕墾矣。” 上曰: “予更思之。”</p>
<p>世宗 51卷, 13年</p>	<p>의원(醫員) 김자견(金自堅)이 황해도 백령(白翎)·대청(大靑) 두 섬에서 나는 상</p>	<p>醫員金自堅採黃海道白翎·大靑兩島</p>

<p>(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3月 10日 (甲戌) 3번째기사 의원 김자건이 상기생 50근을 바치다</p>	<p>기생(桑寄生) 50근을 채취하여 바쳤다. 본국에 예전에는 상기생이 없던 것을 순심 별감(巡審別監) 고전성(高全性)이 순찰 발견하여 비로소 이를 얻게 된 것이다.</p>	<p>所產桑寄生五十斤以進。 本國舊無桑寄生，自巡審別監高全性始得之。</p>
<p>세종 51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年) 3월 26일 (경인) 2번째기사 지갈시킬 약으로 닭·꿩·앵을 강권하다</p>	<p>대언들이 아뢰기를,  “일찍이 신들에게 지갈(止渴)시킬 약을 문의하라 명하셨사온데, 의원(醫員)은 말하기를, ‘마땅히 먼저 식물(食物)로 다스려야 할 것인데 흰 장닭[白雄鷄]·누른 암꿩[黃雌雉]·양고기[羊肉] 등은 모두 능히 갈증(渴症)을 지식시킨다.’ 하오며, 뒤를 잇기가 어려운 물건도 아닙니다. 닭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와 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에서 날마다 돌려가며 바치게 하고, 꿩은 응패(鷹牌)로 하여금 날마다 사냥해 바치게 하고, 양은 5, 6일마다 한 마리를 바치게 하소서.”  하니, 임금(上)이 말하기를,  “어찌 자봉(自奉)을 이같이 후히 하겠는가. 닭은 이어댈 수 없고, 꿩은 바치는 자가 있지만, 양은 본국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니 더욱 먹을 수 없는 것이다.” 하였다. 대언들이 또 아뢰기를,  “양이 많이 번식하고 있사오며, 또 약용이오니 우선 한 마리씩 바치게 하여 치료에 시험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해도, 오히려 허락하지 않는 것을 강권하니, 드디어 말하기를,  “내 이를 시험하겠다. 그러나 다시 내 명령을 기다리라.” 하였다.</p>	<p>代言等啓：“曾命臣等，議問止渴之藥，醫曰：‘宜先食治。’ 白雄雞、黃雌雉、羊肉，皆能止渴，而非難繼之物也。 雞兒則仁順、仁壽府、內贍、禮賓寺輪日進之， 雉則令鷹牌逐日獲進，羊則五六日進一口。” 上曰：“何爲自奉如此？ 鷄兒不可繼也。 雉則有進之者， 羊則本國不產之物， 尤不可食也。” 代言等又啓：“羊多孳息，且是藥用也。 請姑進一口， 試其療治。” 上猶不許， 強之乃曰：“吾當試之， 然更待予命。”</p>
<p>世宗 52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5月 17日</p>	<p>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였다.</p>	<p>上憂旱，禁闕內用酒。</p>

<p>(庚辰) 2번째기사 임금이 한재를 근심하여 대궐 안에서 술의 사용을 금하다</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5월 22일 (을유) 5번째기사 안승선이 술 드시기를 청하였으나 윤희하지 않다</p>	<p>지신사 안승선(安崇善)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임금이 한재를 만나면 반드시 반찬을 감하나, 반찬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짓수만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비가 조금 내렸으니 술을 드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오늘은 비가 내렸지만, 내일 만약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올리지 말라.” 하였다. 승선이 또 아뢰기를, “오늘 비는 벌써 흠족하게 왔고, 또 계속 비 올 징조가 보입니다. 더욱 기후가 고르지 못하와 술을 잡수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반찬을 전의 수(數)보다 줄여서 나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희하지 아니하였다.</p>	<p>知申事安崇善啓: “自古人君遇旱必減膳, 然非盡除膳羞, 只減其數而已。今雨澤稍足, 請進酒。” 上曰: “今日雖雨, 明日不雨, 則得無愧乎? 其勿進。” 崇善又啓曰: “今日之雨既洽, 且雨徵不絕, 況氣候不調, 酒不可不進! 請減前數以進。” 不允。</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6월 8일 (경자) 3번째기사 종묘와 양전에 천신할 배·밤·대추·은행·능금류의 예법에 관해 논의하다</p>	<p>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종묘와 양전에 천신(薦新)할 배·밤·대추·은행·능금[林檎]과 같은 종류는, 벌레가 먹었을까 염려되므로 쪼개고 깎아서 올리고자 하니, 그것을 상정소(詳定所)로 하여금 옛 제도를 널리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우의정 맹사성과 찬성 허조 등은, “벌레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스러우나, 쪼개고 깎아서 온전치 못한 과실을 올리는 것은 옛글에 없는 바이오며, 또 설만(褻慢)에 가까우니 다시 정하게 고르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하였고, 판서 정초(鄭招)는, “《제사예과(祭祀禮科)》에, ‘변(籩)을 채웠으되 율황(栗黃)이 있다.’ 하였은즉,</p>	<p>傳旨承政院: 宗廟及兩殿薦新, 如梨、栗、棗、杏、林檎之類, 恐有螯蟲, 欲割剝以薦, 其令詳定所博考古制以聞。 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等以爲: “有蟲者可疑, 然薦割剝不全之果, 古文所無, 且近褻慢, 宜更精擇。” 判書鄭招以爲: “祭祀禮科, 籩實有栗黃, 則栗取其實, 似亦有制, 至如梨、棗、林檎之類, 古無割剝之文, 宜以全果薦</p>

	<p>밤은 그 속만 취하는 것은 법에 있는 듯하오나, 배·대추·능금과 같은 것은 예전에 쪼개고 깎아서 쓰는 글이 없으니, 온전한 실과로 올리는 것이 마땅하옵니다.”</p> <p>하므로, 예조와 문소전과 광효전의 전지기[殿直] 등에게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은행·배·대추·밤·녹리(綠李)·능금 등의 물건은, 천진(薦進)할 때에 쪼개어 살펴보고, 10분의 8, 9분의 벌레가 먹지 않은 것이면 정하게 골라서 올리고, 만약 3, 4분의 벌레가 먹은 것은 다시 고르지 말라.” 하였다.</p>	<p>獻。” 傳旨禮曹及文昭、廣孝殿直等曰：</p> <p>自今如杏、梨、棗、栗、綠、李、林檎等物薦進時，開剝看審，十分內八九分不蟲損，則精究揀擇以薦，若至三四分蟲損，則勿復揀擇。</p>
<p>세종 52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宣德) 6년) 6월 23일 (을묘) 3번째기사 맹사성·허조·정초 등이 원윤 이하에게 치부하는 것에 관해 논의하여 아뢰다</p>	<p>상정소 제조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판서 정초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원윤(元尹) 이하에게 치부(致賻)할 때에는, 기친(暮親)1683)에는 미·두(米豆) 아울러 30석, 대공친(大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5석, 소공친(小功親)에는 미·두 아울러 20석, 시마친(總麻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 단문친(袒免親)에는 미·두 아울러 15석으로 하였습니다.” 하였다.</p>	<p>詳定所提調右議政孟思誠、贊成許稠、判書鄭招等議啓元尹以下致賻：“期親米豆并三十石，大功親米豆并二十五石，小功親米豆并二十石，總麻親米豆并十五石，袒免親米豆并十石。”</p>
<p>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宣德) 6年) 7月 20日 (壬午) 4번째기사 사신을 공궤키 위해 부족한 닭 등을 서울 안 각부에서 거두게 하다</p>	<p>호조에서 아뢰기를, “사신을 접대[支供]하는 육물(肉物)을 이미 각도에 상납(上納)하게 하였사오나, 그 수가 심히 많아서 줄지에 변통하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서울 안 각부(各部)에 환과 고독(鰥寡孤獨) 등 살아가기 어려운 집을 빼놓고, 각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가릴 것 없이 대호(大戶)에는 다섯 마리, 중호(中戶)에는 세 마리, 소호(小戶)에는 한 마리씩을 바치게 하며, 예빈시(禮賓寺)·인수부(仁壽府)·인순부(仁順府)에 명령하여 여러 곳에 공궤(供饋)하는 데는 닭을 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使臣支待肉物，已令各道上納，然其數甚多，未易猝辦。請令京中各部除鰥寡孤獨外，勿論雞鴨，大戶納五首，中戶三首，小戶一首。又令禮賓寺、仁壽、仁順府於諸處供饋，毋用鷄兒。”從之。</p>
<p>세종 53권, 13년</p>	<p>예조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諸君以上則有禮葬，自元尹</p>

<p>(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7월 23일 (을유) 2번째기사 예조에서 군 이상의 예장에 대해 아뢰다</p>	<p>“여러 군(君) 이상에게 예장(禮葬)이 있사온즉, 원윤(元尹) 이하부터 기친(基親)에 이르기까지는 쌀과 콩 30석을 부의로 주고, 대공친(大功親)에게는 25석, 소공친에게는 20석, 시마친에게는 15석, 단문친에게는 10석으로 부의하며, 아울러 전을 드리고 조문(弔問)을 행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以下至期親，則致賻米豆并三十石，大功親二十五石，小功親二十石，總麻十五石，袒免親十石，并行致奠致弔。” 從之。</p>
<p>世宗 53卷, 13年 (1431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8月 23日 (乙卯) 3번째기사 창성·윤봉 등이 요구하는 불공·복두칠성제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게 하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창성(昌盛)·윤봉은 불공(佛供)에 쓸 유밀과(油蜜果)와 과일·떡·밥 등과, 복두칠성제(北斗七星祭)에 사용되는 유밀과·식과·떡쌀 등을 청하며, 장정안 및 두목 유복(劉福) 등 열 사람만은 칠성제에 사용되는 실과·밥·향유(香油) 등을 청하오니, 아울러 날마다 마련하여 바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昌盛、尹鳳，請供佛油蜜果實菓餅飯及(此斗七星) [北斗七星] 祭所用油蜜果實菓餅米；張定安及頭目劉福等十人，請七星祭所用實菓飯香油，請竝逐日備進。” 從之。</p>
<p>世宗 53卷, 13年 (1431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9月 8日 (己巳) 3번째기사 윤봉이 귤·모과 등을 요구하므로 주다</p>	<p>윤봉이 귤·모과 각 1백 개와, 곱감 30첩, 올벼[早稻] 종자 30말을 요구하므로, 모두 주도록 허락하였다.</p>	<p>尹鳳求柑橘·木瓜各一百箇、乾柿子三十貼、早稻種三十斗，皆許之。</p>
<p>세종 53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9월 24일 (을유) 1번째기사 상정소에 세자가 회례연에 참여하는 의식을 논하게 하다</p>	<p>상정소에 명하여 세자가 회례연(會禮宴)에 참여하는 의식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맹사성·허조·신상 등이 아뢰기를, “삼가 당나라의 의식을 상고하온즉, 황태자가 먼저 예를 행하면 상공이 여러 관원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하며 예물을 드린다고 하였삽고, 《당송회의(唐宋會儀)》에는 상공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헌수한다고 하고, 황태자가 헌수하는 절차는 없사오며, 또 당나라 옛 제도에는 황태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공이 헌수한다 하였고, 송나라 진종(眞宗)의 제도에는 황태자가 문무 백관의 반열</p>	<p>乙酉/命詳定所，議王世子參會禮宴儀。黃喜、孟思誠、許稠、申商等以爲：“謹按唐朝儀，皇太子先行禮，上公率群官行禮，奏禮物。唐、宋會儀，上公率群官上壽，而無皇太子上壽之節。又唐舊制，皇太子獻壽，次公獻壽。宋〈眞〉宗制，皇太子押文武百</p>



	<p>을 거느리고 술잔을 받들어 헌수한다고 하였으며, 전조의 예는 상공은 주전자를 받들고 태자는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였습니다. 이제 회례에는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가 먼저 들어가서 헌수를 마치고 앉은 뒤에, 의정 이하 전상에 오를 만한 여러 신하들이 근정문으로 들어가서 예를 행하고 헌수하게 하려면, 그 첫째 잔을 둘째 잔을 올리는 사이의 동안이 떠서, 예를 행하는 절차가 매우 더디고 늦으며, 또한 회례하는 뜻에 맞지 아니합니다. 만약 세자가 여러 관원의 반열을 거느리고 올라가서 홀로 헌수하고서, 의정이 헌수하라는 예가 없으면 당·송 회례 의식에 상공이 헌수한다는 예식과는 합하지 않으며, 더욱 조례의 예를 바치는 뜻과 서로 반대가 되웁니다. 원컨대, 당의 옛 제도와 송 진종(眞宗)의 제도에 의하여, 왕세자가 자리에 들어가면, 의정 이하가 따라 들어가서 왕세자가 헌수하고, 다음에 의정이 헌수하게 함이 어떠하옵니까. 또 전조 예에 의하여, 의정이 술을 따르고 왕세자가 술잔을 받들어 헌수하며 축하하기를, ‘신 아무 등이 운운(云云)’함이 어떠하오리까.”</p> <p>하니, 정초는, 아뢰기를,  “당·송 제도의 회례는 조례와 그 체재와 양식이 동일하운데, 조례에는 왕세자는 이미 달리 따로 모이게 되었사운데, 회례에는 어찌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혼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왕세자가 홀로 첫째 잔을 드리면 답(答)1751)이 없는데, 의정이 군신들을 거느리고 둘째 잔을 드리면 특히 답은 해야 할 것이니, 이러면 어찌 왕세자가 군신들을 거느리고 예를 행한다고 이르오리까. 마땅히 조례에 의하여 왕세자는 달리 따로 회를 하면 시종(始終)이 한결같으며, 하루 동안에 예를 행하는 데에 서로 어긋남이 없을 것입니다.”</p> <p>하니, 정초의 의논에 따르기를 명하였다.</p>	<p>官班，奉觴上壽。前朝禮，上公奉注子，太子奉盞上壽。今會禮，欲依朝禮，王世子先入上壽畢坐後，議政以下應升殿群臣入勤政門行禮上壽，則其第一爵第二爵之間，隔絕行禮，節次甚遲緩，亦非會禮之義也。若世子押班獨上壽，而無議政上壽之禮，則不合於唐、宋會儀上公獻壽之禮，抑與朝禮獻禮物之意相反矣。乞參酌唐舊制及宋眞宗制，王世子入位，議政以下隨入，王世子上壽，次議政上壽何如？又依前朝禮，議政酌酒，王世子奉爵上壽賀稱曰：‘臣某等云云。’何如？”鄭招以爲：“唐、宋制會禮，與朝禮同一體樣。朝禮，王世子既已殊會，會禮豈可與群臣混同？且王世子獨獻第一爵，無宣答，議政押群臣，獻第二爵，特宣答，豈謂王世子押群臣行禮乎？宜依朝禮，王世子殊會，庶得始終一樣，一日之內，行禮不相牴牾。”命從招議。</p>
<p>世宗 53卷, 13年 (1431 辛亥 / 명 선덕 (宣德) 6年) 9月 24日</p>	<p>내관 한용봉을 명하여 별선을 창성(昌盛)에게 가져다 주게 하였다. 성이 모든 받은 물품을 주방[廚庖]에 내어 주지 아니하고 비밀히 두목을 시켜 말려서 간직하고, 날마다 어육(魚肉)을 영접 도감에게 요구하여 젓을 담고, 혹은 생우</p>	<p>命內官韓龍鳳，齎別膳贈昌盛。盛凡受贈物，不下廚庖，密令頭目，乾而藏之，日索魚肉于迎接都監造醢，或索生</p>

<p>(乙酉) 5번째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 선을 창성에게 주다</p>	<p>유[生酪]를 요구하여 문혀서 종이에다 펴 말리니, 모두 가지고 가려고 함이었 다.</p>	<p>酪，點列於紙乾之，欲皆齋去也。</p>
<p>세종 54권, 13년 (1431 신해 / 명 선덕 (宣德) 6년) 10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예조에서 회례의주를 아뢰다</p>	<p>(전략) 다방 제조(茶房提調)가 수존(壽尊)을 전상에 설치하되, 남쪽 가까이 북 향하게 하고, 점(坫)을 준의 남쪽에 설치하여 작을 놓아 둔다. 유사가 전에 오 른 사람의 술동이[酒尊]를 전계 위의 동쪽과 서쪽에 설치하되 북쪽으로 가까 이 한다. 전정의 군관(群官)의 주존은 각각 그 자리 앞에 설치한다. 종실과 문 무 군관이 시각에 따라 모두 문밖의 자리[門外位]에 나아가면, 좌중호(左中 護)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輦次)로 나아가고, 시위는 보통 때와 같이 한 다. 협률랑(協律郎)이 들어와서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가고, 전의 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봉례랑은 군관의 3품 이 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간다. 판통례가 외관을 아뢰면, 중금이 엄을 전한다. 전하가 여를 타고 나오고, 산선의 시위는 보통 때의 의 식과 같이 한다. 전하가 장차 나오면 의장이 움직인다. 협률랑이 구부렸다 앞 드렸다 휘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을 두드리면, 헌가가 융안지악(隆安之 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香爐)의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 (尙瑞官)이 옥새[寶]를 받들어 자리 앞에 두고, 협률랑이 휘를 눕히면, 어(敎) 를 굽고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와 전의가 올라와 전계(殿階) 위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고, 첨지통례(僉知通禮)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 가서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하면,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 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 하여 선다.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첫째 작을 왕세자에게 주면, 왕세자가 작 을 받아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근시가 이 를 받들어 &lt;전하의&gt; 자리 앞에 전하여 놓으면, 왕세자가 조금 물러서서 북</p>	<p>(전략) 茶房提調設壽尊於殿上近南， 北向，設坫於尊南加爵。 有司設升殿 者酒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殿庭群官 酒尊，各於其座之前。 宗室及文武群 官，依時刻皆就門外位，左中護引王世 子就次， 侍衛如常， 協律郎入就舉麾 位， 典儀帥通贊先入就位， 奉禮郎分引 群官三品以下入就位。 判通禮啓外辦， 中禁傳嚴， 殿下乘輿以出， 繖扇侍衛如 常儀。 殿下將出仗動， 協律郎俛伏舉 麾興， 工鼓祝， 軒架作隆安之樂。 殿 下升座， 爐烟升。 尙瑞官奉寶置於座 前， 協律郎偃麾戛敎， 樂止， 判通禮及 典儀， 升就殿階上西向立， 僉知通禮， 引王世子入就位。 立定， 典儀曰：“四 拜。” 通贊傳贊， 王世子鞠躬舒安之樂 作， 四拜興平身。 樂止， 僉知通禮， 引王世子升自東階， 詣尊所北向立。 茶房提調酌酒第一爵， 授王世子， 受爵 詣殿下座前， 北向跪進， 近侍傳奉置于 座前， 王世子少退北向跪稱：“臣某稽 首言。 三元首祚， 【冬至云：“天正長</p>

향하여 꿇어앉아, ‘신아무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이 대단히 경사스러워서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서 전계 위의 북쪽으로 물러선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贊)하면, 왕세자가 꿇어앉는다. 전하가 작(爵)을 들면 헌가(軒架)는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한다. 【월률(月律)을 사용한다.】 다방 제조가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 준소로 가면, 풍악이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술 마시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왕세자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자리 뒤에 나아가서 선다. 처음에 왕세자가 장차 자리에 나아가려 하면,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종실과 문무 군신들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물러나서 섬들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가 있다.’고 말한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면, 군관이 모두 꿇어앉는다. 대언이 교지를 알리기를, ‘종실과 문무 군신을 영접하여 전에 오르라.’ 한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종실과 문무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가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으로서 마땅히 전에 오를 사람을 나누어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 전계 위에 나아가서 반열을 가로[橫班]해서 북향하여 서게 한다. 봉례랑이 의정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면, 다방 제조가 술을 따라 둘째 작을 의정에게 준다. 의정이 작을 받아 전하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리면, 근시(近侍)가 전해 받들어 자리 앞에 놓는다. 통찬이 ‘꿇어앉으라.’ 찬하

至。”】臣不勝大慶，謹上千千歲壽。” 俯伏興退殿階上北，通贊贊跪，王世子跪。 殿下舉爵，軒架作休安之樂。 【用月律。】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 樂止，【凡進爵樂作，舉訖樂止。】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王世子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僉知通禮引就座後立。 初，王世子將就位，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以次入就位，判通禮進當殿下座前，北向跪，啓請迎宗室及文武群臣升殿，俯伏興退復位。 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稱有旨，通贊贊跪，群官皆跪，代言宣教曰：“迎宗室及文武群官升殿。” 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宗室及文武群官，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 樂止，代言還侍位。 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應升殿者，由西階升就殿階上，橫班北向。 立定，奉禮郎，引議政詣尊所北向立，茶(旁)[房]提調，酌酒第二爵授議政，受爵詣殿下座前，北向跪進，近侍傳奉置于座前。 通贊贊跪，群官上下皆跪， 議政少退北向跪稱：“議政具官臣某稽首言。 三元首祚，

면, 상하의 여러 관원이 모두 꿇어앉는다. 의정이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의정 신(臣) 아무는 머리를 조아려 말씀 드립니다. 새해를 당하와 【동지(冬至)에는, ‘시기는 동지를 당하와’라고 한다.】 신 등은 대단히 경사스러워 삼가 천천세수(千千歲壽)를 올립니다. ’하고,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서 교지를 받고 말하기를, ‘삼가 경 등의 술잔[觴]을 든다.’ 하고, 전하가 작을 든다. 헌가가 휴안지악을 연주한다.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준소로 가져가면 풍악이 그친다.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통찬이, ‘부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상하의 군관이 모두 부복하였다 일어나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전의가 ‘자리에 앉으라.’ 말하면 통찬이 전하여 찬한다.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인도하여 모두 자리 뒤에 나아가서게 한다. 사옹 제조(司饗提調)가 안을 올리면, 휴안지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왕세자와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관통례·전의·통찬·봉례랑도 또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의 노래 부르는 자와 금슬(琴瑟)을 인도하여 올라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왕세자의 탁자(卓子)를 받들고, 집사관은 군관의 탁자를 설치하고 꽃을 놓는다. 사옹 제조가 밥을 올리고,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무릇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밥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왕세자와 군관이 모두 일어서고, 밥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무릇 술잔을 올리고, 밥을 올리면 모두 일어서고, 올리기를 마치면 모두 앉는다.】 왕세자가 밥을 먹고, 집사관과 군관이 법을 먹는다. 먹기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매양 사옹 제조가 전하의 밥을 올리고 제거(提舉)가 왕세자의 밥을 올리고, 집사관이 밥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세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登哥)가 연주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에게 술을 돌린다. 【매양 다방 제조가 전하에게 작을 올리고, 제거가 왕세자에게 술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

【冬至云：“天正長至。”】臣等不勝大慶，謹上千千歲壽。” 俯伏興退復位跪。 代言前承教曰：“敬舉卿等之觴。” 殿下舉爵，【軒架作休安之樂】茶房提調進受虛爵， 復於尊所，【樂止】代言還侍位。 通贊贊俯伏興四拜興平身，群官上下皆俯伏興，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典儀曰：“就座。” 通贊傳贊，奉禮郎引群官上下，皆就座後立。 司饗提調進案，休安之樂作，近侍進花訖，樂止，王世子及群官上下皆座。 【判通禮、典儀、通贊、奉禮郎，亦皆赴座。】典樂引歌者及琴瑟升就位， 司饗提舉， 供王世子卓，執事官設群官卓散花。 司饗提調進食， 受寶籙之樂作，【凡進食樂作，食畢樂止。】王世子及群官皆起立，進訖皆坐。 【凡進爵進食，皆起立，進訖皆坐。】王世子食， 執事官群官食。 食畢，樂止，【每司饗提調進食，提舉供王世子食， 執事官設群官食。】茶(旁)[房]提調進第三爵，登歌作，提舉供王世子酒， 執事官行群官酒，【每茶房提調進爵，提舉供王世子酒，執事官行群官酒。】文舞入作，三成止出。

관에게 술잔을 올린다.】문무(文舞)가 들어와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전하에게> 밥을 올리면 헌가가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을 올리면 등가가 연주된다. 밥을 올리면 헌가가 해서지악(海瑞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을 올리면 무무가 들어와서 춤을 추는데, 삼성이 되면 그치고 나간다. 밥을 올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술잔을 올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를 시작한다. 밥을 올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이 시작된다. 일곱 번째 작을 올리면 포구악지기(拋毬樂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을 올리면 아백지기(牙白之伎)를 시작하고, 밥을 올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을 올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시작하되 모두 전의 예와 같이 한다.【전하께서 만약 편차(便次)에 들면, 왕세자는 동계 밑에 내려와 서고, 군관들은 동·서전(東西殿)에 나누어 서고, 가까운 사람은 모두 섬돌 밑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서며, 전하가 나와서 자리에 오르면, 왕세자가 자리에 나아가고, 상하의 군관이 모두 자리에 나아가간다.】사용 제조가 대선을 올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곡(靖東方曲)을 노래한다. 제거가 왕세자에게 선(膳)을 올리고, 집사관이 군관의 선을 진설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사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하의 앞에 있는 안을 치우고, 제거가 왕세자의 탁자를 치우며, 집사관이 군관의 탁자를 치운다. 전의가 ‘일어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침지통례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내려와 전정의 배위로 돌아가고, 봉례랑이 상하의 군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말하면,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한다. 왕세자가 몸을 굽히고, 헌가가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랑이 종실과 문무 군관의 2품 이상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예를 마쳤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 일어

進食，軒架作《觀天庭之樂》。進第四爵，登歌作。進食，軒架作《海瑞之樂》。第五爵，武舞入作，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進食，《黃河淸之樂》。第八爵，牙白之伎。進食，《萬年歡之樂》。第九爵，舞鼓之伎，竝如前例。【殿下若入便次，則王世子降立東階下，群官分東西殿，近者皆出座階下立。其於殿下出升座，王世子就座，群官上下皆就座。】司饗提調進大膳，《太平年之樂》，仍歌《靖東方之曲》。提舉供王世子膳，執事官設群官膳訖，樂止，司饗提調進撤殿下前案，提舉撤王世子卓，執事官撤群官卓。典儀曰：“可起。”通贊傳贊，僉知通禮，引王世子降復殿庭拜位，奉禮郎分引群官上下，俱復拜位。立定，典儀曰：“四拜。”通贊傳贊，王世子鞠躬軒架作舒安之樂，四拜興平身。樂止奉禮郎，分引宗室及文武群官二品以上次出。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協律郎俛伏舉磨興，軒架作

	<p>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가 용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여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간다. 산선의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이 따라서 함문까지 이르면 풍악이 그친다. 봉례량이 군관의 3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나간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隆安之樂，殿下降座，乘輿還內，繖扇侍衛如來儀。侍臣從至閣，樂止，奉禮郎，分引群官三品以下出。從之。</p>
<p>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7일 (정묘) 5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의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양로연의(養老宴儀)를 아뢰기를, “음력 8월 달에 예조에서 좋은 날을 선택하여 아뢰고, 먼저 여러 노인들 【80세 이상.】 에게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유사가 전하의 자리[座]를 근정전의 북쪽 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로 두 개를 앞 기둥[前楹]밖에 좌우로 설비한다. 전악(典樂)이 전정(殿庭)에 헌현(軒懸)을 벌여 놓고, 전상의 서계의 서쪽에 거휘위(擧麾位)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대로 한다. 전의가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인 자의 자리를 전내의 동·서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4품 이상의 자리는 전의 계상에 동·서에 설치하고, 5품 이하의 자리는 계하에 설치하되, 모두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서인은 전정의 동·서에 자리를 정하되, 겹줄로 하여 서로 마주보게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관통례 및 전상의 전의의 자리는 [位]는 전상의 동계의 동쪽에 설치하되 서향으로 한다. 계하의 전의의 자리는 악현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통찬 1인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한다. 통찬 1인의 자리는 악현의 서북쪽에 있게 하되 동향하게 하고, 또 여러 노인들 중에 1품 이하의 배위(拜位)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상대하여 우두머리가 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설치한다. 봉례량이 여러 노인들의 악차를 흥례문 안에 설치하고, 다방 제조가 전상에 남쪽으로 가까이 준을 설치하되 북향하게 하고, 점을 설치하고 작을</p>	<p>禮曹啓養老宴儀： 仲秋之月，禮曹擇吉辰啓聞，先戒群老。【年八十以上。】其日，有司設殿下座於勤政殿北壁，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左右典樂展軒懸於殿庭，設舉麾位於殿上西階之西，竝如常儀。典儀設群老二品以上座於殿內東西，重行相向北上，四品以上，座於殿階上東西，五品以下座於階下，俱重行相向北上，庶人座於殿庭東西，重行相向北上，設判通禮及殿上典儀位於殿上東階之東，西向，階下典儀位於縣之東北，通贊一人在南差退，俱西向，通贊一人在縣之西北，東向。又設群老一品以下拜位於殿庭東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庶人位差後。奉禮郎設群老次於弘禮門內。茶房提調設尊於殿上近南北向，設坩加爵。有司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非升殿</p>

올려놓는다. 유사가 전에 오른 자를 위한 준(尊)을 전의 계상(階上)의 동·서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며, 전에 오르지 않는 자를 위한 준(尊)을 각각 그들의 자리 앞에 설치한다. 병조에서 제위(諸衛)를 정돈하고, 의장을 베풀어 문과 전정에 벌여 서게 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여러 노인들은 각각 자기의 〈신분에 의거한〉 옷차림을 하고 【품관은 사모(紗帽)와 품대(品帶), 서인(庶人)은 시복(時服).】 시각(時刻)에 따라 모두 문밖의 악차에 나아간다. 통례문이 중엄을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사정전에 나와 앉으면, 유사가 산선(緘扇)의 시위(侍衛)를 베풀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근신과 집사관이 먼저 사배례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행한다. 전악이 악공들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협률랑이 들어와 거휘위에 나아간다. 여러 시위관은 각기 기구와 복색을 갖춘다. 상서관이 옥새(玉璽)를 받들고 함께 함문에 나아가 봉영(奉迎)한다. 전의가 통찬을 거느리고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간다. 판통례가 외판을 아뢰면, 중금이 전엄(傳嚴)한다. 전하가 장차 나가려 하여 의장이 움직이면, 협률랑(協律郎)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다 휘(麾)를 들고 일어난다. 악공이 축(祝)을 치고, 헌가(軒架)가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 오르면 향로에서 연기가 오른다, 상서관(尙瑞官)이 옥새를 받들어 〈전하의〉 자리 앞에 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협률랑이 휘를 놓으면, 어를 쳐서 풍악을 그친다. 판통례와 전의가 전의 계상에 올라 서향해 선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어떤 이는 옆에서 붙든다.】 차례로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임시하여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拜)은 한 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하여 찬하면, 여러 노인들은 지팡이를 놓고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이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기를 계청하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물러나와 제자리에 들

者尊各於其座之前。兵曹勒諸衛列仗屯門及陳於殿庭如常儀。群老各服其服，【品官紗帽品帶，庶人時服。】依時刻皆就門外次。通禮門啓請中嚴，殿下出思政殿坐，有司陳緘扇侍衛如常儀。近臣及執事官，先行四拜禮如常儀。典樂帥工人入就位，協律郎入就舉麾位，諸侍衛之官，各服其器服。尙瑞官奉寶，俱詣閣奉迎。典儀率通贊先入就位。判通禮啓外辦，中禁傳嚴，殿下乘輿以出，緘扇侍衛如常儀。殿下將出仗動，協律郎俛伏舉麾興，工鼓祝，軒架作隆安之樂。殿下升座，爐烟升。尙瑞官奉寶置於座前如常儀，協律郎偃麾戛敵。樂止，判通禮及典儀，升就殿階上西向立，奉禮郎分引群老【或杖或挾扶】以次入就位。立定，典儀曰：“四拜。”【臨時有旨則拜，一坐再至。】通贊傳贊，群老去杖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判通禮進當殿下座前，北向跪，啓請迎群老升殿，俯伏興退復位。代言前承教，退臨階西向立，宣教曰：“迎群老升殿。”代言還侍位。奉禮郎分引群老應升殿者，【仍杖挾持如初】由西階升

아간다. 대언이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고 물러나와 섬돌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서 교지를 선포하기를, ‘여러 노인들을 맞아 전에 오르게 하라.’ 하고, 대언이 시위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 중에서 마땅히 전상의 오를 자를 나누어 인도하여 【지팡이를 짚거나, 혹은 옆에서 붙들기를 처음과 같이 한다.】 서계로 올라 자리에 나아간다. 【계하(階下)와 전정(殿庭)에 자리할 자도 또한 인도해 자리에 나아간다.】 전악이 가(歌)와 금(琴)·슬(瑟)을 인도하여 올라가 자리에 나아간다. 사옹 제조가 상[案]을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근시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배설하고, 다방 제조가 첫 번째 작에 술을 따르고, 풍악을 연주한다. 전하의 자리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서 이를 좌전에 놓는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 들고나면 다방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빈 작을 받아 가지고 존소(尊所)로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무릇 작을 올릴 때에는 풍악을 연주하고, 들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사옹 제조가 식사(食事)를 올리고, 풍악을 연주한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식사를 베풀어 놓고, 먹기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무릇 식사를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식사를 마치면 풍악을 그친다.】 다음은 술을 올린다. 【다방 제조가 술을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술을 돌린다.】 다음 식사를 올린다. 【다방 제조가 식사를 올릴 때마다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에게 식사를 베푼다.】 술잔이 다섯 순배를 들고 난 뒤에 사옹 제조가 앞으로 나아가 상을 치우고, 집사관이 여러 노인들의 탁자를 걷는다. 봉례랑이 상하의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로 돌아가 선다. 전의가 ‘사배하라.’ 한다. 【전하의 명령이 있으면 절은 한번 하고 앉았다가 다시 한다.】 통찬이 이를 전찬(傳贊)하면, 몸을 굽히고 서안지악을 연주한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여러 노인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전하의 자리 앞에 꿇어앉아서 ‘예가 끝났다.’고 아뢰고,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就座。【其位於下及庭者，亦引就坐。】典樂引歌及琴瑟升就位，司饗提調進案。樂作，近侍進花訖。樂止，執事官設群老卓。茶房提調酌酒第一爵，樂作，詣殿下座前，北向跪，置于座前。執事官行群老酒，舉訖，茶房提調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凡進爵樂作，舉訖樂止。】司饗提調進食，樂作，執事官設群老食，食畢，樂止【凡進食樂作，食畢樂止。】次進酒，【每茶房提調進酒，執事官行群老酒。】次進食，【每茶房提調進食，執事官設群老食。】觴行五周訖，司饗提調進徹案，執事官徹群老卓。奉禮郎，分引群老上下，俱復拜位。立定，典儀曰：“四拜。”【有旨則拜，一坐再至。】通贊傳贊，鞠躬，舒安之樂作，四拜興平身。樂止，奉禮郎，分引群老以次出。判通禮進當殿下座前，跪啓禮畢，俯伏興還本位。協律郎伏舉磨輿，軒架作隆安之樂殿下降座，乘輿還內，繖扇侍衛如來義，侍臣從至閤。樂止，明日，群老詣闕謝恩。



	<p>제자리로 돌아온다. 협률랑(協律郎)이 엎드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헌가(軒架)가 용안지악을 연주한다. 전하가 자리에서 내려 여(輿)를 타고 대내(大內)로 돌아가고, 산선(緘扇)의 시위(侍衛)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시신(侍臣)이 수종(隨從)하여 합문(閤門)까지 이르면 풍악을 그친다. 이튿날 여러 노인들이 대궐에 나아가 사은(謝恩)한다.”</p> <p>하였다.</p>	
<p>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宣德) 7年) 1月 16日 (丙子) 5번째기사</p> <p>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주·부·군·현의 양로 의식을 아뢰기를,</p> <p>“중추에 예조에서 아뢰고 각도에 행이한다. 소재지 관에서 좋은 날을 택하고, 기일에 앞서 관내의 80세 이상 되는 여러 노인들에게 선포하여 알린다. 그 날이 되면 수령의 자리를 대청의 동벽에 서향으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 중에서 2품 이상의 자리는 서벽에 설치하되, 겹줄로 하여 동향으로 하고,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3품 이하의 자리는 남행으로 하였다. 【만약 2품 이상이 없으면 6품 이상을 서벽으로 하고, 참외를 남행으로 한다.】 서인의 자리는 뜰의 동쪽과 서쪽으로 하고, 또 배위는 뜰에 설치하되, 동쪽에 있게 한다. 여러 노인들의 배위는 서쪽에 있게 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하며, 동쪽이 위가 되게 하여 모두 북향되게 한다. 서인의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여러 노인들은 시각이 되면 모두 대문 밖에 모인다. 수령이 나와서 맞이하여 서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노인들이 따라 들어가서 【지팡이를 짚거나 옆에서 부축한다.】 모두 배위에 나아가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수령은 동계로, 여러 노인들은 서계로 모두 자리에 나아간다. 집사자가 탁자와 술잔을 배설하고 술을 따른다. 각기 자리 앞에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꿇어앉아서 잔을 잡고 마신다. 이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자리에 앉는다. 식사를 올리고 술을 돌려 다섯 순배에 이른 뒤에, 집사가 술잔을 거두고 탁자를 걷어 치운다. 수령이 여러 노인과 더불어 모두 배위에 돌아와서 사배한다. 이를 마치고 나면 여러 노인들이 곧 나간다. 수령이 대문 밖에서 전송한다.”</p>	<p>禮曹啓州府郡縣養老儀： 仲秋，禮曹啓聞，行移諸道，所在官擇吉辰，前期，布告境內群老年八十以上者。其日，設守令座於廳事東壁，西向；群老二品以上座於西壁重行，東向北上；三品以下座於南行；【若無二品以上，則六品以上西壁，參外南行。】庶人座於庭東西；又設拜位於庭在東，群老拜位在西，異位重行東上，俱北向，庶人位差後。群老依時刻俱集大門外，守令出迎，入自西門，群老隨入，【或杖或挾扶】俱就拜位行四拜訖，守令由東階，群老由西階皆就座。執事者設卓及盞斟酒，各於座前，俛伏跪執盞飲訖，俛伏興就座。設食行酒，至五周後，執事收盞徹卓。守令與群老，俱復拜位行四拜訖，群老乃出，守令送於大門外。從之。</p>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55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월 19일 (기묘) 1번째기사 원묘 묘실의 탁자에 대해 의논하다	이보다 앞서 문소전·광효전 두 전의 대제 때에는 예찬을 진설하는데, 가운데에는 큰 탁자(卓子)가 있고, 왼편과 오른편에 협탁(挾卓)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설의 길이가 전내에 가득 찼었으나, 지금 원묘는 묘실이 하나가 아닌데, 만약 <큰 탁자 외에> 좌우의 협탁을 갖춘다면 묘실이 작아서 수용할 수가 없고, 만약 간각(間閣)을 증축한다면 묘제가 너무 넓으므로, 정부에 명을 내려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마땅히 평시에 진사하는 예에 의방(依倣)하여 다만 가운데의 큰 탁자와 정면의 협탁만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己卯/前此文昭、廣孝兩殿大祭設禮饌，中有大卓，左右有挾卓，故其陳設之長，竟殿內。今原廟廟室非一，若具左右挾卓，則室小難容，若增構間閣，則廟制過闊。下政府議之，皆以爲：“宜依平時進上例，只用中大卓及面挾卓。”從之。
世宗 55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2月 19日 (戊申) 1번째기사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다	평강 등지에서 강무하였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들이 흥인문 밖에서 공손히 전송하였다. 풍천에 머무르니 경기 감사는 활·살·새매·사냥개·우구(雨具)·마장(馬粧)과 술·물고기를 바치고, 함길도 감사는 여러가지 해물(海物)을 올렸다.	戊申/講武于平康等處，王世子及百官，祇送于興仁門外。次于楓川，京畿監司，進弓矢、鷹犬、雨具、馬粧及酒果、魚菜，咸吉道監司進諸色海物。
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4월 3일 (신묘) 1번째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제향을 치행하고, 경회루에서 음복연을 베풀다	비가 왔다. 임금의 면류관(冕旒冠)과 곤룡포(袞龍袍) 차림으로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제향을 친행(親行)하매, 왕세자(王世子)가 아헌(亞獻)하였다. 대궐에 돌아와 경회루 아래에서 음복연(飲福宴)을 베풀니, 왕세자와 종친들이 시연(侍宴)하였다. 드디어 종친들의 활 쏘는 것을 관람하고, 의정부(議政府)에서 여러 집사(執事)들에게 연회를 내렸다.	辛卯/雨。上冕服率群臣行祭，王世子亞獻。還宮，設飲福宴于慶會樓下，王世子及宗親侍宴。遂觀宗親射侯，賜諸執事宴于議政府。
世宗 56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4月 3日	예조에서 아뢰기를, “과거에 응시하는 생도(生徒)들에게 매 장옥(場屋)마다 장수(醬水) 8단지[盆]와 술 30병씩 주게 하소서.”	禮曹啓：“赴試生徒，每場屋，請饋醬水八盆、酒三十瓶。”從之。

<p>(辛卯) 2번째기사 과거보는 매 장옥마다 장수(醬水)와 술을 주 게 하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세종 56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5월 23일 (경진) 2번째기사 한해 때문에 경범죄인 을 석방하고 금주령 내리다</p>	<p>날씨가 가문다고 하여 가벼운 죄의 죄수(罪囚)를 석방하고 술을 금지하였다.</p>	<p>以旱放輕繫，禁酒。</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7월 26일 (임오) 1번째기사 상호군 이예와 호군 김구경을 보내어 일본 에 회빙하다</p>	<p>상호군(上護軍) 이예(李藝)와 호군(護軍) 김구경(金久冏)을 보내어 일본에 회빙(回聘)하였다. 일본 국왕에게 답하는 서신에 말하기를, “우리 두 나라는 대대로 인국(隣國)의 호의(好誼)를 닦아 항상 신의를 돈독히 했는데, 지금 또 전사(專使)로 보빙(報聘)하니 매우 기쁘고 위로되오. 선사한 예물은 삼가 이미 영수(領受)하였으며, 이에 신하 이예(李藝) 등을 보내어 가서 사례(謝禮)하는 뜻을 표하오. 변변치 못한 토산물과 부탁한 바 《대장경(大藏經)》은 모두 별록(別錄)에 적었으니 영납(領納)하기 바라오.” 하였다. 중국 판인(中國板印) 《대장경(大藏經)》 2부, 백면포막(白緜布幕) 1좌, 백포장(白布帳) 2조(條), 잡채화석(雜彩花席)·협지의(袂地衣) 1부(副), 흑세마포(黑細麻布)와 백세저포(白細苧布) 각각 20필, 백세면주(白細綿紬) 30필, 만화방석(滿花方席)·만화석(滿花席) 각각 10장, 잡채화석(雜彩花席) 20장, 호피(虎皮)·표피(豹皮) 각각 10영(領), 남색 사피(斜皮)·홍색 사피(斜皮) 각각 5영, 인삼(人蔘) 1백 근, 잣[松子] 4백 근, 꿀[淸蜜] 20두(斗)이다. (후략)</p>	<p>壬午/遣上護軍李藝、護軍金久冏，回聘于日本，答國王書曰： 我兩國世修隣好，常敦信義，今又專使報聘，喜慰喜慰。所惠禮物，敬已領受，茲遣臣李藝等，往申謝意。不腆土宜及所示《藏經》，俱在別錄，切希領納。中國板印《大藏經》二部、白緜布幕一座、白布帳二條、雜彩花席袂地衣一副、黑細麻布·白細苧布各二十四匹、白細綿紬三十四匹、滿花方席·滿花席各一十張、雜彩花席二十張、虎豹皮各一十領，藍紅斜皮各五領、人蔘一百斤、松子四百斤、淸蜜二十斗。(후략)</p>
<p>世宗 57卷, 14年</p>	<p>예조에서 아뢰기를,</p>	<p>禮曹啓：“使臣張童兒所送頭目，因他</p>

<p>(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7月 27日 (癸未) 2번째기사 예조에서 장동아가 보낸 두목이 소금·장 등을 청구하니 없다고 대답할 것을 아뢰다</p>	<p>“사신 장동아가 보낸 두목(頭目)이 다른 일로 인하여 와서 소금·장·물고기·미역을 청구하니, 청컨대 변방 군문(軍門)은 간고(艱苦)하여 저장한 것이 없다고 대답하고, 만약 사신이 전위(專委)하여 사람을 보낸다면 소금·장 한두 섬과 물고기·미역 한두 바리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事以來，求鹽醬魚藿，請答以邊塞軍門艱苦無儲。若使臣專委送人，則給鹽醬一二石、魚藿一二駄。”從之。</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7월 27일 (계미) 4번째기사 향온과 소주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다</p>	<p>향온(香醞)과 소주(燒酒)를 양녕 대군에게 내리었다.</p>	<p>賜香醞及燒酒于讓寧大君。</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7月 29日 (乙酉) 3번째기사 예조에서 사직에 섭행하는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사직(社稷)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예조에서 의례 상정소(儀禮詳定所)와 다시 시일을 의논하고, 서운관(書雲觀)에서 미리 계절(季節)을 걸러서 시일을 갖추어 【봄·가을 두 중월(仲月)의 상무일(上戊日)과 납일(臘日)이다.】 예조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계문(啓聞)하고, 유사(攸司)에 나누어 알려져 직책에 따라 공관(供辦)하게 한다. 재계(齋戒)를 제사전 7일 동안 하고,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이 서계(誓戒)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받는다. 그날 미명(未明) 7 각(刻)에 통례문(通禮門)이 자리를 설치하되, 초헌관(初獻官)의 자리는 북쪽에 있게 하여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천조관(薦俎官)의 자리는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서쪽을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서쪽에 있게 하여 동향하게 하고, 집례(執禮)·전사관(典祀官)·대축(大祝)·축사(祝史)·재랑(齋郎)·협률랑(協律郎)·장생령(掌牲令)·아악령(雅樂令)·봉조관(捧俎官)·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쪽에 있게 하여 서향하게 하되, 매 관등(官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p>	<p>禮曹啓社稷攝事儀注： 曹與儀禮詳定所更議時日，書雲觀預於隔季，具時日【春秋二仲上戊及臘日】報禮曹，禮曹啓聞，散告攸司，隨職供辦。 齋戒：前祭七日，行事執事官，受誓戒於議政府。其日未明七刻，通禮門設位，初獻官在北南向，亞獻官終獻官、薦俎官、在南北向西，上，監察在西東向，執禮、典祀官、大祝、祝史、齋郎、協律郎、掌牲令、雅樂令、捧俎官、謁者、贊者、贊引在東西向，每等異位，俱重行北上。未明五刻，奉禮</p>

여, 모두 겹줄로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미명(未明) 5 각(刻)에 봉례랑이 행사할 집사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통찬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서 서문(誓文)을 대신 읽기를, ‘금년 모월(某月) 모일(某日) 상무(上戊)에 사직(社稷)에 제사한다. 【납일(臘日)에 종묘(宗廟)의 향관(享官)이 같이 서계(誓戒)를 받을 적엔 마땅히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종묘(宗廟)에 제향한다.’ 한다. 】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않고, 파·부추·마늘을 먹지 않고, 조상(弔喪)과 문병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형벌을 집행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문서에 판결 서명(署名)하지 않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며, 각기 그 직책을 처리할 것이니, 혹시 어김이 있으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한다. 읽기를 마치면, 통찬(通贊)이 ‘재배(再拜)하라.’ 찬(贊)하면,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두 재배하고 물러간다. 무릇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4일 동안 산재(散齋)할 적엔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3일 동안 치재(致齋)할 적엔 2일은 본사(本司)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한다. 무릇 산재(散齋)에는 일 처리하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치재(致齋)에는 다만 제사(祭事)만 행할 뿐이다. 이미 재계하였는데도 빠진 사람과, 섭행(攝行)을 통하여 제위(諸衛)의 수속으로서 유문(墪門)을 수위하는 사람은 【대장(隊長)은 문마다 각각 2인이요, 모퉁이 마다 각각 1인이다. 】 각기 본사(本司)에서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자고,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는 봉상시(奉常寺) 앞에서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자고, 1일 동안 치재(致齋)하고, 모두 의정부(議政府)에 모여서 의식을 연습하고, 제사 전 1일에 모두 제소(祭所)로 모인다. 【무릇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모두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한성부(漢城府)로 하여금 행로(行路)를 깨끗이 하게 하며, 여러 가지 흉하고 더러운 것과 상복(喪服)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제소(祭所)에 들리는 것은 임시로 중단시킨다. 】

郎分引行事、執事官就位，引初獻官就位。通贊就初獻官，之左西向立，代讀誓文曰：“今年某月某日上戊，祭于社稷。【臘日宗廟享官，同受誓戒，當云：“祭社稷。”·“享宗廟。”】凡行事、執事官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預穢惡事，各揚其職，其或有違，國有常刑。”讀訖，通贊贊再拜，在位者皆再拜乃退。凡行事、執事官，竝散齋四日，宿於正寢，致齋三日，二日於本司，一日於祭所。凡散齋，治事如故，致齋，唯行祭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諸衛之屬守衛墪門者【隊長每門各二人，每隅各一人。】各於本司淸齋一宿。工人二舞淸齋一宿於奉常寺，前致齋一日，竝集議政府肄儀；前祭一日，竝集祭所。【凡預祭者，皆前祭二日，沐浴更衣，令漢城府淸所行之路，不得見諸凶穢衰絰，其哭泣之聲，聞於祭所者權斷。】陳設：前祭二日，忠扈衛設諸祭官次于齊坊之內，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設饌幔於西門外，隨地之宜。前一日，雅樂令帥其屬，設登歌之樂於壇

진설(陳設)은 제사 전 2일에 한다. 충호위(忠扈衛)에서 여러 제관(祭官)의 악차(幄次)를 재방(齋坊) 안에 설치하는데, 사직승(社稷丞)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찬만(饌幔)을 서문(西門) 밖에 설치하되,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설치한다. 하루 전에 아악 령(雅樂令)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등가(登歌)의 악을 단(壇) 북쪽에 설치하고, 헌가(軒架)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한다. 사직승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를 각기 단 위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의 신좌(神座)를 국사(國社)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고, 후직씨(后稷氏)의 신좌를 국직(國稷) 신좌의 왼쪽에 설치하되, 모두 동향하게 하고, 돛자리[席]는 모두 왕골자리로 한다.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전사관(典祀官)은 제기위(祭器位)를 존소(尊所)에 설치하고 【무릇 제기(祭器)를 설치할 적에는 모두 돛자리를 깔고 수건과 덮개를 올려 놓는다.】 청결(淸潔)하다고 말하기를 기다린다. 【이미 마치면 임시로 걷어 치운다.】 집례(執禮)가 초헌관의 자리를 북문 안에 설치하되, 단 한가운데에 남향하게 하고, 아헌관·종헌관·천조관의 자리를 서문 안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감찰(監察)의 자리는 북문 안의 서북 모퉁이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설치하되, 동향하게 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 모시고 서게 한다. 집례(執禮)의 자리를 둘을 설치하되, 하나는 유문(壝門) 안에, 하나는 유문(壝門) 밖에 있게 하고, 모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게 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유문 밖 집례(執禮) 자리의 뒤에 있게 하되, 조금 북쪽으로 해서 동향하게 하고, 남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협률랑의 자리는 사단(社壇) 아래에 있게 하되,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으로 하고, 아악 령(雅樂令)의 자리는 헌현(軒懸)의 남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초헌관의 음복위(飲福位)는 직단(稷壇) 위 신좌(神座)의 동북쪽에

北，設軒架於北門內，俱南向。社稷丞帥其屬，設國社國稷神座各於壇上近南，北向；后土氏神座於國社神座之左，后稷氏神座於國稷神座之左，俱東向，席皆以莞。掌牲令牽牲詣祭所，典祀官設祭器位於尊所，【凡設祭器，皆藉以席，加以巾蓋。】以俟告潔。【既畢，權撤。】執禮設初獻官位於北門內，當壇南向，設亞獻官、終獻官、薦俎官位於西門內道北，東向；執事者位於其後，每等異位，俱重行東向南上，設監察位於北門內西北隅東向，書吏陪其後，設執禮位二，一於壝門內，一於壝門外，俱近西東向。謁者、贊者、贊引在壝門外執禮之後稍北，東向南上，協律郎位於社壇下近東，西向，雅樂令位於軒懸之南，南向，設初獻官飲福位於稷壇上神座之東北，南向，設門外位祭官及諸執事於西門外道北，每等異位，俱重行南向東上，設牲勝於西門外當門東向，以北爲上，設掌牲令位於牲東北，設諸大祝位於牲西，各當牲後，祝史各在其後，俱東向，設亞獻官省牲位於牲前近南，設監察位於亞獻官之東，俱北向，【監察位稍却】開瘞坎

남향하여 설치하고, 문밖의 자리[門外位]와 제관(祭官) 및 여러 집사(執事)의 자리는 서문 밖의 길 북쪽에 설치하되, 매 품등(品等)마다 자리를 달리 하여 모두 겹줄로 남향하게 하고, 동쪽이 위가 되게 한다. 생방(牲榜)을 서문 밖에 설치하되, 문 앞에 동향하여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장생령(掌牲令)의 자리는 생(牲)의 동북쪽에 설치하고, 대축(大祝)의 자리를 생(牲)의 서쪽에 설치하되, 각각 생(牲)의 뒤에 있게 하고, 축사(祝史)는 각기 그 뒤에 있게 하되, 모두 동향하게 한다. 아헌관이 생(牲)을 살필 자리는 생(牲) 앞에 설치하되, 남쪽으로 가까이 설치하고, 감찰(監察)의 자리는 아헌관의 동쪽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하게 한다. 【감찰 자리는 조금 뒤로 물려서 설치한다.】 예감(瘞坎) 둘을 단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을 용납할 만하게 하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예감(瘞坎)을 바라보는 자리[望瘞位]는 예감의 남쪽에 설치한다. 초헌관은 남쪽에 있게 하여 북향하게 하고, 집례·대축·찬자는 서쪽에 있게 하여, 모두 겹줄로 동향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제일(祭日) 행사하기 전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서 축판(祝版)을 신위(神位) 오른쪽에 각기 하나씩 놓고, 【각기 점(坫)이 있다.】 폐백 광주리를 준소(尊所)에 각기 하나씩 진설하고, 향로·향합과 초[燭]를 신위(神位)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祭器)와 제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되, 매 위(位)마다 각기 변(籩) 12개가 왼쪽에 있어 세 줄이 되게 하는데, 오른쪽이 상(上)이 되고, 【첫째 줄에는 형염(刑鹽)이 앞에 있고, 어수(魚鱸)·건조(乾棗)·율황(栗黃)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춘자(椿子)가 앞에 있고, 능인(菱仁)·감인(芡仁)·녹포(鹿脯)가 그 다음이요, 셋째 줄은 백병(白餅)이 앞에 있고, 흑병(黑餅)·구이(糗餌)·분자(粉餈)가 그 다음이다.】 두(豆) 12개가 오른쪽에 있어 세 줄이 되는데, 왼쪽이 상이 되고, 【첫째 줄에는 부추 김치가 앞에 있고, 해해(醯醢)·무우 김치·사슴 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둘째 줄에는 미나리 김치가 앞에 있고, 토끼 고기젓·죽순 김치·물고기젓이 그 다음이요, 셋째

二於壇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陞，設望瘞位於瘞坎之南，初獻官在南北向，執禮、大祝、贊者在西，俱重行東向北上。祭日未行事前，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陳幣籩各一於尊所，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每位各籩十二在左，爲三行右，上，【第一行，形鹽在前，魚乾棗栗黃次之。第二行，捺子在前，菱仁、芡仁、鹿脯次之。第三行，白餅在前，黑餅、糗餌、粉餈次之。】豆十二在右，爲三行左上。【第一行，蕝蒞在前，醯醢菁菹鹿醢次之。第二行，芹蒞在前，兔醢筍菹魚醢次之。第三行，脾析在前，豚拍、醢食、糝食次之。】俎三，二在籩前，一在豆前，【籩前俎一實牛腥，一實羊腥七體、兩脾兩肩兩脅并脊，而髀在兩端，肩脅次之，脊在中。豆前俎實豕腥七體，其載如羊。宋釋奠儀云：“凡言在前者，皆謂南也。”】豆右之俎三。【一實牛熟腸胃肺，一實羊熟腸胃肺，一實豕熟膚。豕在前，羊牛次之。凡俎皆有牲匣。】簋各二在籩豆間，簋在左簋

줄에는 비석(脾析)이 앞에 있고, 돈박(豚拍)·이식(醢食)·삼식(糝食)이 그 다음이다.】 조(俎) 3개 중에서 2개는 변(籩) 앞에 있고, 1개는 두(豆) 앞에 있다. 【변(籩) 앞의 조(俎) 한 개는 소의 날고기를 담고, 한 개는 양의 날고기·칠체(七體)·양비(兩脾)·양견(兩肩)·양협(兩脅)과 등골을 담는데, 넓적다리는 양쪽 끝에 있고, 어깨와 겨드랑이는 그 다음에 있고, 등골은 가운데 있다. 두(豆) 앞의 조(俎)에는 돼지의 날고기와 칠체(七體)를 담는데, 그 담은 것은 양(羊)의 상(床)과 같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무릇 앞에 있다.’ 하는 것은 모두 남쪽에 있음을 이룸이라 한다.】 두(豆) 오른쪽의 조(俎)는 3개이다. 【한 개는 소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양의 삶은 장(腸)·위(胃)·폐(肺)를 담고, 한 개는 돼지의 삶은 살코기를 담는데, 돼지고기는 앞에 있고, 양고기와 쇠고기는 그 다음에 있다. 무릇 조(俎)는 모두 성갑(牲匣)이 있다.】 보(簠)·궤(簋)가 각각 2개인데, 변(籩)·두(豆) 사이에 있다. 보(簠)는 왼쪽에, 궤(簋)는 오른쪽에 있다. 【보에는 벼와 기장을 담는데, 기장은 벼 앞에 있고, 궤에는 메기장과 피를 담는데, 피가 메기장 앞에 있다.】 형(鉶) 3개는 보(簠)·궤(簋) 뒤에 있고, 【형(刑)에는 화갱(和羹)을 채우는데 모활(茅滑)을 더한다.】 작(爵) 3개는 보·궤 앞에 있다. 【각기 집(坫)이 있다.】 또 준(尊)과 뇌(罍)를 설치하는데, 국사(國社)에는 대준(大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醴齊)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明水)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盎齊)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설치하여 세 줄로 하되, 【첫째 줄은 대준(大尊), 둘째 줄은 저준(著尊), 셋째 줄은 산뢰(山罍)이다.】 모두 작(勺)과 먹(鬯)을 얹어 놓아 단(壇) 아래 서북쪽 모퉁이에 둔다. 후토씨(后土氏)에는 상준(象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단술을 채운다.】 저준(著尊) 2개, 【한 개는 명수를 채우고, 한 개는 양제를 채운다.】 산뢰(山罍) 2개 【한 개는 현주(玄酒)를 채우고, 한 개는 청주(淸酒)를 채운다.】 를

在右。【簠實以稻粱，粱在稻前。簋實以黍稷，稷在黍前。】 銅三在簠簋後，【實以和羹，加茅滑】 爵三在簠簋前。【各在坫】 又設尊罍國社大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 爲三行，【第一行大尊，第二行著尊，第三行山罍。】 皆加勺鬯，在壇下西北隅。后土氏象尊二【一實明水，一實醴齊。】、著尊二【一實明水，一實盎齊。】、山罍二【一實玄酒，一實淸酒。】 於國社酒尊之西，俱南向東上。【凡尊實明水，玄酒爲上。凡祭神之物，當時所無者，以時物代之。】 國稷后稷氏尊罍，并如國社后土氏之儀。設福酒爵【有坫】 胙肉俎各一於國社國稷尊所，又設國社俎一於饌幔內，設洗於壇門外之西北南向，【盥洗在西，爵洗在東。】 罍在洗西加勺，簠在洗東北，肆實以巾。【若爵洗之簠，則又實以爵，有坫。】 設諸執事盥洗於獻官洗西北，南向，執尊罍簠者位於尊罍簠之後。受香祝：前祭一日，晝漏上水一刻，有司設香祝案於



국사(國社) 주준(酒尊)의 서쪽에 설치하되, 모두 남향하게 하고, 동쪽을 위로 한다. 【무릇 준(尊)과 뇌는 명수와 현주(玄酒)를 채운 것이 상(上)이 된다. 무릇 신에게 제사하는 물건은 그 당시에 없는 것은 시물(時物)로서 대신한다.】

국직(國稷)과 후직씨(后稷氏)의 준(尊)·뇌도 모두 국사(國社)·후토씨(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복주작(福酒爵)과 【점(坫)이 있다.】 조육조(胙肉俎) 각각 1개씩을 국사·국직의 준소(尊所)에 설치하고 또, 국사의 조(俎) 1개를 찬만(饌幔) 안에 설치하고, 세(洗)는 유문(墀門) 밖의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관세(盥洗)는 서쪽에 있고, 작세(爵洗)는 동쪽에 있다.】 뇌(罍)는 세(洗)의 서쪽에 있게 하되 작(勺)을 얹어 놓고, 비(篚)는 세(洗)의 동북쪽에 있게 하되, 수건을 담아 놓는다. 【만약 작세(爵洗)의 비(篚)이면 또 작(爵)을 담아 놓는다. 점(坫)이 있다.】 여러 집사(執事)의 관세(盥洗)는 헌관의 세(洗) 서북쪽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준(尊)·뇌(罍)·비(篚)·떡(饗)을 잡는 사람의 자리는 준·뇌·비·떡의 뒤에 설치한다. 향과 축문은 제사 전날 주루(晝漏) 상수(上水) 1각(刻)에 받는데, 유사가 향과 축문의 안(案)을 근정전(勤政殿) 한가운데에 남향하여 설치하고, 향안(香案)은 그 앞에 설치한다.

전하의 배위(拜位)는 월대(月臺)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설치한다. 통례문(通禮門)이 전의(典儀)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쪽에 설치하고, 통찬(通贊) 2인은 남쪽에 있게 하되, 조금 뒤로 물러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좌우 시신(侍臣)의 자리는 동·서계(東西階)의 남쪽에 설치하되 서로 마주보게 하고, 자리를 달리 겹줄로 하여, 모두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초헌관 이하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의 자리는 전정(殿庭) 길 동쪽에 설치하되, 자리를 달리 하여 겹줄로 북향하게 하고,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노부(鹵簿)는 대궐 문밖에 설치하고, 시신(侍臣)이 각기 조복을 갖추어 입는다. 3각(刻)에 헌관 이하 마땅히 행사할 집사관이 모두 대궐 문밖에 모인다. 전하

勤政殿當中，南向，香案於其前，設殿下拜位於月臺當中，北向。通禮門設典儀位於東階之東，通贊二人在南少退，俱西向，設左右侍臣位於東西階之南，相對異位重行，俱北上，設初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位於殿庭道東，異位重行，北向西上，設鹵簿於闕門外。侍臣各具朝服。三刻，獻官以下應行事執事官，並集闕門外，殿下具冠袍。校書館員以祝版捧進，近臣傳捧以進，殿下署訖，近臣捧祝版及香，置於案上。五刻，奉禮郎分引左右侍臣入就位，次引獻官以下入就位。奉禮郎引初獻官升自東階，【奉禮郎止於階下】判通禮導殿下，出就拜位北向立，啓請再拜，導殿下詣香案前啓請跪。近侍一人捧香合西向跪進，一人捧香爐東向跪進，判通禮啓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捧香祝東向跪進，判通禮啓請取香祝授初獻官，初獻官西向跪受興，還置於案上。判通禮啓請俛伏興，導殿下復位，啓請再拜，導殿下退立於月臺西東向。初獻官捧香祝降自西階，判通禮啓請鞠躬，初獻官沒階，殿下平身。初獻官出門，置香祝於鼻擔。亞

가 관(冠)과 포(袍)를 갖추어 입는다. 교서관(校書館)의 관원이 축판(祝版)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올린다. 전하가 이를 쓰고 나면, 근신이 축판과 향을 받들어 안(案) 위에 둔다. 5각(刻)에 봉례랑이 좌우 시신(侍臣)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다음은 헌관 이하의 관원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계(東階)로부터 올라오고, 【봉례랑은 섬돌 아래에서 그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재배(再拜)하기를 계청(啓請)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향안(香案)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기를 계청한다. 근신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면, 근신이 향로를 안(案)에 놓고, 근신이 향과 축문을 받들어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올린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향과 축문을 집어서 초헌관에게 주기를 계청하면, 초헌관이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받아 가지고 일어나서 도로 안(案) 위에 놓는다. 판통례가 〈전하에게〉 구부렀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고, 〈이를 마치면〉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가서 재배하기를 계청하고,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와 월대(月臺) 서쪽에 동향하여 서게 한다. 초헌관이 향과 축문을 받들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면, 판통례가 〈전하께〉 몸을 굽히기를 계청하고, 초헌관이 다 내려서면 전하께서 몸을 편다. 초헌관이 문을 나가서 향과 축문을 여담(昇擔)에 두고, 아헌관 이하의 관원이 초헌관을 따라 차례로 문을 나가서 말에 오른다. 군사가 여담(昇擔)과 노부(鹵簿)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여 재방문(齋坊門) 밖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문으로 들어가서 각기 재소(齋所)에 나아간다. 향과 축문은 탁자(卓子) 위에 안치하여 놓고 생기(牲器)를 살핀다.

제사 전 1일 미시(未時) 후 2각(刻)에,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단의 안팎을 소제하고, 집사자는 제기(祭器)를 가지고 들어가 자리에 진

獻官以下，隨初獻官以次出門上馬，軍士捧昇擔鹵簿前導，至齋坊門外，下馬入門，各就齋所，香祝安於卓上。

省牲器：前祭一日未後二刻，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執事者以祭器入設於位，加以巾蓋，如陳設儀。未後三刻，亞獻官以下應省牲器者，俱以常服就西門外，執禮帥謁者、贊者、贊引先入壇下，掌牲令牽牲就位。贊引引監察詣社壇西階升，行掃除於上，升稷壇，亦如之，降行樂懸於下訖復位。謁者引亞獻官，贊引引監察詣社壇，升自西階，視滌濯。執事者皆舉冪告潔，升稷壇，亦如之。訖，引降省牲位北向立。掌牲令少前曰：“請省牲。”退復位。亞獻官省牲，掌牲令又前舉手曰：“臚。”復位。諸大祝各巡牲一匝，東向舉手曰：“充。”俱復位。諸大祝與掌牲令以次牽牲，詣廚授典祀官。謁者引終獻官，詣廚省鼎鑊，申視滌漑，監取明水火。【取水於陰鑑，取火於陽燧。陰鑑未能猝辦，以井水代之。火以供爨，水以實尊。】贊引引監察詣廚省饌具訖，各還齋所。晡後一刻，典祀官率宰人，以鬯刀割牲，

설하고, 수건과 덮개를 덮어 농기를 진설하는 의식과 같이 한다. 미시(未時) 후 3각(刻)에 아헌관 이하의 마땅히 생기(牲器)를 살피야 할 사람이 모두 평상시의 의복을 입고 서문 밖에 나아간다. 집례가 알자·찬자·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먼저 단 아래로 들어오고, 장생령(掌牲令)은 생(牲)을 이끌고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 서계(西階)에 나아가서 올라가 소제를 행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내려온다. 악현(樂懸)은 섬돌 아래에 베풀어 놓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고,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척탁(滌濯)을 살피는데, 집사자가 모두 떡(羶)을 들어 정결함을 알린다.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인도하여 생(牲)을 살피는 자리로 내려와서 북향하여 서계 한다. 장생령(掌牲令)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청컨대 생을 살피소서.’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가면, 아헌관이 생을 살핀다. 장생령이 또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면서 ‘둔(臚)’ 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면, 여러 대축(大祝)이 각기 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동향하여 손을 들면서 ‘충(充)’ 하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다. 여러 대축과 장생령이 차례로 생을 이끌고 주방(廚房)에 청하여 전사관(典祀官)에게 준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정(鼎)·확(鑊)을 살피고 깨끗이 씻었는가를 보고 명수와 불을 취한다. 【물은 음감(陰鑑)에서 취하고, 불은 양수(陽燧)에서 취하는데, 음감에서 창졸히 취할 수 없으면 정수(井水)로써 이를 대신한다. 불은 때는 데 쓰고 물은 준(尊)에 채운다. 】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주방에 나아가서 찬구(饌具)를 살피게 하고, 이를 마치면 각기 재소(齋所)로 돌아간다. 포시(晡時)1871) 후 1각(刻)에 전사관이 재인을 거느리고 난도(鑿刀)로서 생을 베는데, 축사(祝史)가 쟁반으로 털과 피를 취하여 찬소(饌所)에 두고 마침내 생을 삶는다. 【가족째 삶고, 그 나머지 털과 피는 그릇에 담아 두었다가 제사가 끝난 뒤에 땅에 묻는다. 】 사직승(社稷丞)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祝史以盤取毛血，置於饌所，遂烹牲。【連皮煮熟，其餘毛血以清器盛貯，祭畢埋之。】社稷丞帥其屬，掃除壇之內外。尊幣：祭日丑前五刻，【丑前五刻，卽三更三點。行事，用丑時一刻。】典祀官帥其屬入，實饌具畢，退就次服其服。社稷丞服其服升，設國社后土氏國稷后稷氏神位版於座。贊引引監察詣社壇，升自西階，按視壇之上下，糾察不如儀者，升稷壇，亦如之，還出。前三刻，諸祭官各服其服，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西門，先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南，武舞立於懸北道東。謁者贊引各引祭官，俱就西門外位。前一刻，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社稷丞、協律郎、捧俎官，入就懸南拜位，重行南向東上。立定，執禮曰：“四拜。”贊者傳喝，【凡執禮有辭，贊者皆傳喝。】監察以下皆四拜訖，贊引引監察就位。贊引引諸執事詣盥洗位盥(洗)〔帨〕訖各就位。贊引引齋郎詣洗爵位，洗爵拭爵訖，置於筐，捧詣尊所，置於坫上。謁者引初

단의 안팎을 소제한다. 폐백은 제일(祭日) 축시(丑時) 전 5각에 드리는데, 【축시 전 5각은 곧 3경(更) 3점(點)인데, 행사는 축시 1각에 한다.】 전사관이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찬구(饌具)에 제수를 담고, 이를 마치면 물러가서 약차(幄次)에 나아가서 자기 제복(祭服)을 입으며, 사직승(社稷丞)도 자기 제복을 입고 올라와서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의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사단(社壇)에 나아가서,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단의 위 아래를 살펴보고 의식과 같지 않은 것을 규찰(糾察)하고, 직단(稷壇)에 올라가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도로 나온다.

3각(刻) 전에 여러 제관(祭官)들이 각기 자기의 제복(祭服)을 입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서 먼저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곁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공인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악현(樂懸)의 남쪽에 들어와서 진열하고, 무무(武舞)는 악현(樂懸)의 북쪽 길 동쪽에 선다. 알자와 찬인이 각각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모두 서문 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1각(刻) 전에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사직승(社稷丞)·협률랑(協律郎)·봉조관(捧俎官)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나아가서 곁줄로 남향하여 동쪽을 위로 해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하여, 【무릇 집례가 말이 있으면 찬자가 이를 받아 창한다.】 감찰 이하의 제관(祭官)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세수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재랑을 인도하여 세작위(洗爵位)에 나아가서 작(爵)을 씻고 닦고 나서 비(篚)에 넣어, 준소(尊所)로 받들고 나아가서 점(坫) 위에 둔다. 알자는 초헌관을, 찬인은 아헌관·종헌관·천

獻官, 贊引引亞獻官、終獻官、薦俎官入就位, 執禮曰: “四拜。” 衆官在位者皆四拜。【先拜者不拜】謁者進初獻官之左白: “有司謹具請行事。” 退復位。 協(津) [律] 郎俛伏舉麾興, 【凡取物者皆跪, 俛伏而取以興。 尊物則跪奠, 俛伏而復興。】 工鼓祝軒架作《順安之樂》, 烈文之舞作。 八成, 協律郎偃麾戛敵。 樂止, 【凡樂, 協律郎跪俛伏舉麾興, 工鼓祝而後作, 偃麾戛敵而後止】 執禮曰: “瘞毛血於坎。” 執禮曰: “再拜。” 衆官在位者皆再拜。 執禮曰: “行奠幣禮。”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南向立, 贊搯笏盥水悅手。【盥手悅手不贊】 贊執笏引詣社壇, 升自北陞, 詣國社神位前南向立, 登歌作肅安之樂, 烈文之舞作。 贊跪搯笏。 執事者一人捧香合, 一人捧香爐, 謁者贊三上香, 執事者奠爐于神位前。 大祝以幣篚授初獻官, 初獻官執幣獻幣, 以幣授大祝, 奠于神位前。【凡捧香授幣, 皆在獻官之右, 奠爐奠幣, 皆在獻官之左。 受爵奠爵, 準此】 謁者贊執笏俛伏興, 引初獻官詣后土氏神位前西向立, 贊跪搯笏。 執

조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사배한다. 【먼저 절한 사람은 절하지 않는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아뢰기를,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어 행사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협률량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하는 사람은 모두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물건을 취하고 일어나며, 물건을 드릴 적에는 꿇어앉아서 드리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다시 일어난다.】 공인이 축을 치고,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되어 팔성(八成)이 되면, 협률량이 휘(麾)를 눕히고, 어(敵)를 굽어 풍악이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량이 꿇어앉아 구부렸다 엎드렸다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공인이 축을 친 후에 시작되고, 휘를 눕히고 어(敵)를 굽은 뒤에 그친다.】 집례가, ‘털과 피를 구덩이에 묻으라.’ 한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폐백 드리는 예(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笏)을 씻으라.’ 찬(贊)하여,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게 한다. 【물에 손을 씻고, 수건에 손을 닦는 것은 찬하지 않는다.】 ‘홀을 잡으라.’ 고 찬하여, 인도하여 사단(社壇)으로 나아가서 북계(北階)로 올라가서, 국사 신위(國社神位)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면, 등가(登歌)에서 숙안지악(肅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꿇어앉아 홀을 씻으라.’ 고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贊)하고,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올린다. 대축이 폐백광주리[幣]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무릇 향을 받들고 폐백을 줄 적에는 모두 헌관의 오른쪽에 하고, 향로를 드리고 폐백을 드릴 적에는 모두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작(爵)을 받고 작을 드리는 것도 이에 준한다.】 알자가

事者一人捧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神位前。大祝以幣篚授初獻官，初獻官執幣獻幣，以幣授大祝，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登歌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陛，詣國稷后稷氏神位前，樂作，上香奠幣，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登歌止，謁者引降復位。進熟：初獻官既升奠幣，贊引引典祀官出，帥進饌者詣廚，以匕升牛于鑊，實于牲匣，次升羊豕，各實于牲匣，【每位牛羊豕，各一匣。】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捧俎官隨之，俟初獻官奠幣訖復位。執禮曰：“進饌。”謁者引薦俎官，捧國社之俎，捧俎官各捧牲匣，典祀官引饌入。國社、國稷之饌，入自正門，配位之饌，入自左闕。俎初入門，軒架作《雍安之樂》。國社、國稷之饌，升自北陛；配位之饌，升自西陛，諸大祝迎引於壇上。薦俎官詣國社神位前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次詣后土氏神位前西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謁者引薦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초헌관을 인도하여 후토씨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알자가 <초헌관에게>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향로를 신위 앞에 드린다. 대축이 폐백 광주리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폐백을 잡아 폐백을 드리는데, 폐백을 대축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고, 풍악을 연주한다. 향을 피우고 폐백을 드리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한다. 이를 마치면 등가(登歌)가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삶은 제수를 드린다. 초헌관이 이미 올라가서 폐백을 드렸으면, 찬인이 전사관을 인도하여 나와서 진찬(進饌)하는 사람을 거느리고 주방(廚房)에 나아가서, 비(匕)로서 소를 확(鑊)에서 들어 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은 양(羊)과 돼지를 들어 올려서 각기 생갑(牲匣)에 담아 【매 위(位)마다 소·양·돼지가 각기 한 갑(匣)이다.】 들어와 찬만(饌幔) 안에 설치한다. 알자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서 찬소(饌所)에 나아가면, 봉조관(捧俎官)이 이를 따르고, 초헌관이 폐백을 드림을 기다려, 이를 마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찬(饌)을 올리라.’ 하면,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捧俎官)이 각기 생갑(牲匣)을 받들고,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들어오는데,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정문으로 들어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왼쪽 문[闕]으로 들어오게 된다. 조(俎)가 처음 문에 들어올 때 헌가(軒架)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찬(饌)은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오고, 배위(配位)의 찬(饌)은 서계(西階)로부터 올라오는데, 여러 대축(大祝)이 단 위에서 맞아 인도한다. 천조관이 국사(國社) 신위 앞에 나아

俎官降自西陞，詣國稷后稷氏神位前俸奠，竝如國社后土氏之儀。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西陞復位，諸大祝還尊所，執禮曰：“行初獻禮。”謁者引初獻官，詣國社尊所東向立，登歌作壽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陞，詣神位前南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西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引初獻官降自北陞，詣后土氏尊所東向立，樂作，執尊者舉冪酌醴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初獻官升自北陞，詣神位前西向立，贊跪摺笏。執事者以爵授初獻官，初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少退西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俛伏興。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陞，詣國稷后稷氏神位前，樂作，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曲終樂止。謁者引初獻官降自北陞復

가서 남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데 도운다.】 드리기를 마치면 생갑(牲匣)의 덮개를 연다. 다음은 후토씨(后土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소를 드리고, 다음은 양을 드리고 다음은 돼지를 드린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을 연다.】 알자가 천조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기를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천조관 이하의 제관(祭官)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여러 대축은 존소(尊所)로 돌아온다. 집례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국사(國社)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한다. 등가(登歌)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열문지무(烈文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羶)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北階)로부터 올라와 신위 앞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계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하라.’ 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爵)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남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俛), 복(伏), 흥(興)’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계 하면,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羶)을 들고 단술[醴齊]을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올라가서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계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位。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亞終獻：初獻官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謁者引亞獻官詣盥洗位南向立，贊搯笏，盥手俛手，贊執笏，引詣國社尊所東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執尊者舉羶酌盞齊，執事者以爵受酒。謁者引亞獻官升自西階，詣神位前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爵授亞獻官，亞獻官執爵獻爵，以爵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謁者引亞獻官降自西階，詣國稷后稷氏神位前，升獻竝如國社后土氏之儀訖，樂止，引降復位。亞獻官獻將畢，執禮曰：“行終獻禮。”謁者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禮曰：“飲福受胙。”大祝詣國社國稷尊所，以爵酌疊福酒，合置一爵。又大祝持俎進，減國社、國稷神位前，俎肉合置一俎。謁者引初獻官詣稷壇，升自北階，詣飲福位南向立，贊跪(進)搯笏。大祝進初獻官之右東向，以爵授初獻官，初獻官受爵飲卒爵，大祝進受虛爵，復於坫。大祝東向，以俎授初獻官，初獻官受俎，以授執事者，執事

초헌관이 작(爵)을 잡아 작(爵)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뒤로 물러나서 서향하여 꿇어앉으라.’ 찬한다. 풍악이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이를 마치면, 풍악을 연주한다. 알자가 ‘면,복,홍’이라 찬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면, 풍악을 연주한다. 올라가서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악곡(樂曲)이 끝나고, 풍악이 그친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북계로부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가면, 문무(文舞)는 물러가고 무무(武舞)가 나오는데, 헌가(軒架)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춤추는 사람이 서면 풍악이 그친다.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초헌관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집례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라.’ 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홀을 깨끗이 씻으라.’ 찬하여, 손을 씻고 손을 수건에 닦게 한다. <이를 마치면> ‘홀을 잡으라.’ 찬하여, 인도해서 국사(國社)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헌가(軒架)에서 수안지악(壽安之樂)을 연주하고, 소무지무(昭舞之舞)가 시작된다. 집준자(執尊者)가 떡(饗)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앞에 나아가 남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깨끗이 씻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爵)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부터 내려와서 후토씨(后土氏)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한다. 집준자가 떡(饗)을 들고 양제(盞齊)를 따르면, 집사자가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와서, 신위

者受俎，降自北陛出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執禮曰：“再拜。”衆官在位者，皆再拜。執禮曰：“徹籩豆。”諸大祝進徹籩豆。【徹者，籩豆各一，少移於古處。】登歌作雍安之樂，徹訖，樂止。軒架作順安之樂，執禮曰：“四拜。”衆官在位者，皆四拜。樂一成止，執禮曰：“望瘞。”謁者引初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東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篋，取祝版及幣，各由其陛降壇，置於坎，執禮曰：“可瘞。”(寘)[填]土半坎，典祀官監視。謁者進初獻官之左，白禮畢。謁者贊引各引初獻官以下，以次出。執禮帥贊者還本位，贊引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四拜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懸南拜位，四拜而出。社稷丞藏神位版，典祀官帥其屬徹禮饌以降乃退。復命：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各還齊所住一刻。坎有司陳鹵簿於齊坊南門外如來儀。初獻官以下行事執事官至外門外，以次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쫓으라.’ 찬한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작을 잡아 작을 드리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아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내려와서, 국직 후직씨(國稷后稷氏) 신위 앞에 나아가 헌작(獻爵)하는 것은 모두 국사 후토씨(國社后土氏)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풍악이 그친다. 그리고 아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獻爵)을 마치려 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행례(行禮)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례가 ‘음복(飲福)하고 제육(祭肉)을 받으라.’ 하면, 대축이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작(爵)으로 뇌(鬯)의 복주(福酒)를 따라 한 작(爵)에 합해 두고,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나아가서 국사·국직(國稷) 신위 앞에 있는 조육(俎肉)을 덜어서 조(俎)에 합해 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직단(稷壇)에 나아가, 북계로 올라가서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서 남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앞으로 나와서 홀을 쫓으라.’ 찬한다. 대축이 초헌관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작(爵)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작을 받아서 마신다. 작을 비우면,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서 빈 작을 받아 점(坩)에 다시 둔다. 대축이 동향하여 조(俎)를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이 조를 받아 집사자에게 주고, 집사자가 조를 받아 북계로 내려와서 문으로 나간다. 알자가 <초헌관에게>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례가 ‘재배(再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이 모두 재배한다.

집례가 ‘변(饔)·두(豆)를 걷어 치우라.’ 하면, 여러 대축이 앞으로 나아가 변(饔)·두(豆)를 걷어 치운다. 【걷어 치우는 것은 변과 두 각각 하나씩을 전에

上馬，行至闕門外下馬，入門序立復命，四拜訖退。從之。

있던 자리에서 조금 옮겨 놓는 것을 말한다.】 등가(登歌)에서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연주한다. 다 걷어 치우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헌가(軒架)에서 순안지악(順安之樂)을 연주한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자리에 있던 여러 관원은 모두 사배한다. 풍악은 일성(一成)이 되면 그친다. 집례가 ‘망예(望瘞)하라.’ 하면,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게 하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서게 하고, 여러 대축이 서반(黍飯)·직반(稷飯)을 취하여 띠[白茅]로서 깔고 비(篚)로 묶고, 축판(祝版)과 폐백을 취하여 각기 그 섬돌로 하여 단에 내려와서 구덩이에 둔다. 집례가 ‘묻으라.’ 하면, 흙을 구덩이에 반을 채우는데, 전사관이 감시(監視)한다. 알자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면, 알자와 찬인이 각기 초헌관 이하의 제관을 인도하여 차례대로 나간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본디 자리로 돌아가고,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모두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선다. 집례가 ‘사배(四拜)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들이 모두 사배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이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아악 령(雅樂令)은 공인(工人)과 문무(文舞)·무무(武舞)를 거느리고 나가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악현(樂懸)의 남쪽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사직승(社稷丞)은 신위판(神位版)을 간수하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 관원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 치우고 내려와서 물러나와, 전하에게 복명(復命)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각기 재소(齋所)에 돌아가서 1각(刻) 동안 머무른다. 유사가 노부(鹵簿)를 재방(齋坊) 남문 밖에 진열하기를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초헌관 이하의 행사한 집사관이 외문 밖에 이르러, 차례대로 말에 올라 대궐문 밖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다. 문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서서 전하에게 복명(復命)하고, 사배하고 나서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8월 14일 (경자) 4번째기사 임금이 정척에게 양로 연에 서민 남녀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논하 여 아뢰라 이르다</p>	<p>임금이 정척(鄭陟)에게 이르기를, “양로연(養老宴)에 사대부(士大夫)로서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게 되는데, 명부(命婦) 연로자(年老者)는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실로 옳지 못하다. 또 양로연이라 이른다면 서민(庶民)의 남녀들도 마땅히 모두 참여해야 될 것이니, 그것을 제조(提調)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황희(黃喜)가 아뢰기를, “부녀로서 연로한 자는 거동하기가 어려우므로 대궐 안에 출입하기가 불편할 것 같사오니, 마땅히 술과 고기를 그 집에 내리어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대궐 안에 말을 타고 온 사람도 있었으니 교자(轎子)를 타고 바로 자리에 들어오게 하고, 여종으로 하여금 곁에서 부축하여 모시게 하고, 중궁(中宮)이 친히 나아가서 연회를 베푸는 것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 없겠다. 사대부와 명부와 서민의 남녀에게 연향(宴享)하는 의주(儀注)를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p>	<p>上謂鄭陟曰：“養老宴，士大夫年老者得與焉，命婦年老者，未得與焉，實爲未便。且謂之養老宴，則庶人男女，當盡得與，其議于提調以啓。”黃喜曰：“婦女年老者，難以舉動，闕內出入，似乎未便，宜賜酒肉於其家。”上曰：“古有騎馬闕內者，乘轎直入於坐，使婢扶持，中宮親臨以宴，無害於義，其議士大夫與命婦庶人男女宴享，儀注以啓。”</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8月 16日 (壬寅) 3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서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않음을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각 고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婦女)들은, 수령과 그의 아내가 친히 보고 접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오니, 관직이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과 술 5병을, 관직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1석과 술 3병을 그 집에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나누어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各官養老宴，婦女則守令及妻，親見饋餉，未便。請有職人之妻，給米一石、酒五瓶；無職人之妻，米一石、酒三瓶于其家，并分魚肉。”從之。</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8月 20日</p>	<p>내관 한용봉(韓龍鳳)에게 명하여 술과 과실을 가지고 사서 창(昌)·장(張) 두 사신에게 주게 하였다.</p>	<p>丙午/命內官韓龍鳳，齎酒果往贈昌、張兩使臣。</p>

<p>(丙午) 1번째기사 내관 한용봉에게 명해 술과 과실을 창·장 두 사신에게 주게 하다</p>		
<p>세종 57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8월 21일 (정미) 2번째기사 예조에서 왕비의 양로 연 의주를 아뢰다</p>	<p>(전략) 사찬(司贊)의 자리를 동계(東階)의 동남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 전찬(典贊) 두 사람의 자리를 사찬(司贊)의 남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물려서 모두 서향하게 하고, 상식(尙食)1886 은 준(尊)을 전상(殿上)에 남쪽으로 가까이 북향하여 설치하되, 점(坫)을 설치하고 작(爵)을 올려놓는다. 전(殿)에 오른 사람의 준(尊)은 전계(殿階) 위의 동·서쪽에 북쪽 가까이 설치하고, 전(殿)에 오르지 않는 사람의 준(尊)은 각기 그 자리[座]의 앞에 설치한다. 여러 위(衛)에서 소속을 거느리고 문에 둔치고, 의장(儀仗)을 배열하고, 정문 밖에 포진(布陣)하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노부녀들이 시각에 따라 궁문 밖의 자리[次]에 모이면, 상의(尙儀)1887 가 중엄(中嚴)을 계청(啓請)하고,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아들기를 법식대로 하여, 모두 내함(內閣)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사악(司樂)이 여공인(女工人)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올라가 휘(麾)를 드는 자리[舉麾位]에 나아간다. 사찬(司贊)이 먼저 들어가 자리에 나아가고, 내전인(內典引)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모두 정문 밖의 자리에 나아간다. 상의(尙儀)가 외판(外辦)을 아뢰어 왕비가 나오는데, 산선(繖扇)과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왕비가 장차 나오려 하면 전악(典樂)이 휘(麾)를 들고, 정안지악(正安之樂)을 연주한다. 왕비가 자리에 오르면 사보(司寶)가 인(印)을 받들어 자리 앞에 두는데, 안(案)은 보통 때와 같이 있다. 전악(典樂)이 휘(麾)를 눕혀,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대로 자리에 들어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贊)한다.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언(司言)이</p>	<p>(전략) 設司贊位於東階東南，西向，典贊二人位於司贊之南差退，俱西向。尙食設尊於殿上近南北向，設坫加爵，設升殿者尊於殿階上東西近北，設不升殿者尊各於其座之前。諸衛勒所部屯門列仗及陳布於正門外如常儀，老婦女等依時刻集到宮門外次。尙儀啓請中嚴，司寶奉印依式，俱詣內閣奉迎。司樂帥女工人入就位，典樂升就舉麾位，司贊先入就位，內典引老婦女俱就正門外位。尙儀啓外辦，王妃出，繖扇侍衛如常儀。王妃將出，典樂舉麾，奏正安之樂，王妃升座，司寶奉印置於座前，有案如常。典樂偃麾，樂止，司賓承引老婦女以次入就位。立定，司贊曰：“再拜。”典贊傳贊，舒安之樂作，老婦女再拜興。樂止，司言前承令，退臨階東向立，宣令曰：“迎老婦女升殿。”還侍位。司賓引老婦女應升殿者，由西階升就座，其不升殿者，亦引就座。尙食進案，樂作，尙</p>

	<p>앞으로 나아가서 영을 받고 물러나와, 전계(殿階)에 다달아 동향하여 서서 영을 전하기를, ‘노부녀의 맞이하여 전(殿)에 올라왔다가 시위(侍位)로 돌아가라.’ 하면, 사빈(司賓)이 노부녀로서 마땅히 전(殿)에 오를 사람을 인도하여 서계(西階)로 올라가서 자리에 오르게 하고, 전(殿)에 오르지 못할 사람도 또한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상식(尙食)이 안(案)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하고, 상의(尙儀)가 꽃을 올리고 나면 풍악을 그친다. 노부녀의 탁자(卓子)를 설치하여 꽃을 뿌리고, 상식(尙食)이 첫째 작(爵)에 술을 따르면, 풍악을 연주한다. 왕비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서 북향하여 꿇어앉아 자리 앞에 &lt;술잔을&gt; 두고, 또 노부녀(老婦女)의 술을 따라 술잔을 든다. 이를 마치면,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빈 작(爵)을 받아서 준소(尊所)에 도로 갖다 둔다. 풍악이 그친다. 상식(尙食)이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올리면 풍악을 연주한다. 또 노부녀의 밥을 설치하여 다 먹고 나면, 풍악이 그친다. 다음에 술을 올리고, 그 다음에 밥을 올리며, 술잔을 다섯 번 돌리고 그친다. 상식(尙食)이 나아가서 상을 걸어 치우고, 또 노부녀의 탁자를 걸어 치운다. 사빈(司賓)이 전(殿)의 아래 위에 있는 노부녀를 나누어 인도하여 모두 배위(拜位)로 돌아가서 서면, 사찬(司贊)이 ‘재배(再拜)하라.’ 하고, 전찬(典贊)이 이를 받아 찬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노부녀가 재배하고 일어나면, 풍악이 그친다. 사빈(司賓)이 노부녀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상의(尙儀)가 앞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나서 시위(侍位)로 돌아온다.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면 풍악을 연주한다. 내전(內殿)으로 돌아가는데 산선(繖扇)과 시위는 올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풍악이 그친다. 노부녀가 사은(謝恩)하고 물러간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儀進花訖，樂止，設老婦女卓散花，尙食酌酒第一爵，樂作，詣王妃座前北向跪，置于座前，又行老婦女酒。舉訖，尙食進受虛爵，復於尊所。樂止，尙食進食，樂作，又設老婦女食，食畢，樂止，次進酒，次進食。觴行五周訖，尙食進撤案，又撤老婦女卓。司賓分引老婦女上下，俱復拜位。立定，司贊曰：“再拜。”典贊傳贊，樂作，老婦女再拜興，樂止，司賓引老婦女以次出。尙儀前啓禮畢，遂還侍位。王妃降座，樂作，還內，繖扇侍衛如來儀。樂止，老婦女謝恩而退。從之。</p>
<p>世宗 57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9月 19日</p>	<p>상정소(詳定所)에서 회례악(會禮樂)에 대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장차 나가매 헌가(軒架)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p>	<p>詳定所啓會禮樂：殿下將出，軒架《隆安之樂》；王世子拜，軒架《舒安之樂》；王世子獻壽，</p>

<p>(甲戌) 3번째기사 상정소에서 회례악에 대하여 아뢰다</p>	<p>자가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왕세자가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여러 신하들이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의정(議政)이 헌수(獻壽)하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상[案]을 드리면 헌가에서 휴안지악(休安之樂)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수보록지악(受寶籙之樂)을 연주한다. 세 번째 술잔[爵]을 드리면 등가【文明지곡(文明之曲)이라 이름한다.】에서 문무(文舞)를 시작하여 삼성(三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근천정지악(觀天庭之樂)을 연주한다. 네 번째 작(爵)을 드리면 등가(登歌)에서 하황은지곡(荷皇恩之曲)을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헌가에서 해서지악(海瑞之樂)과 개수명명지악(改受明命之樂)을 연주한다. 다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헌가에서 【무열지악(武烈之樂)이라 이름한다.】 무무(武舞)를 시작하여, 이성(二成)이 되어 그치고 나가며, 밥을 드리면 서차호지악(瑞鷓鴣之樂)을 연주한다. 여섯 번째 작(爵)을 드리면 하황은지기(荷皇恩之伎)와 개몽금척지기(改夢金尺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수룡음지악(水龍吟之樂)을 연주한다. 일곱 번째 작(爵)을 드리면 포구악지기(拋毬樂之伎)와 개오양선지기(改五羊仙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황하청지악(黃河淸之樂)을 연주한다. 여덟 번째 작(爵)을 드리면 아박지기(牙拍之伎)를 연주하고, 밥을 드리면 만년환지악(萬年歡之樂)을 연주한다. 아홉 번째 작(爵)을 드리면 무고지기(舞鼓之伎)를 연주하고, 대선(大膳)을 드리면 태평년지악(太平年之樂)을 연주하고, 이내 정동방지곡(靖東方之曲)을 노래한다. 왕세자와 여러 관원이 절하면 헌가에서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연주하고, 전하께서 장차 들어가려 하면 헌가에서 융안지악(隆安之樂)을 연주한다.”</p> <p>하니, 이를 예조(禮曹)에 내리게 하였다.</p>	<p>軒架《休安之樂》；群官拜，軒架《舒安之樂》；議政獻壽，軒架《休安之樂》。進案，軒架《休安之樂》；進食，軒架《受寶籙之樂》。第三爵，登歌【名文明之曲】文舞入作，三成止出。進食，軒架《觀天庭之樂》。第四爵，登歌《荷皇恩之曲》。進食，軒架《海瑞之樂》，改《受明命之樂》。第五爵，軒架【名武烈之樂】武舞入作，(二)[三]成止出。進食，《瑞鷓鴣之樂》。第六爵，荷皇恩之伎，改夢琴尺之伎。進食，《水龍吟之樂》。第七爵，拋毬樂之伎，改五羊仙之伎。進食，《黃河淸之樂》。第八爵，牙拍之伎。進食，《萬年歡之樂》。第九爵，舞鼓之伎。進大膳，《太平年之樂》，仍歌《靖東方之曲》。王世子及群官拜，軒架《舒安之樂》；殿下將入，軒架《隆安之樂》。</p> <p>下禮曹。</p>
<p>世宗 58卷, 14年</p>	<p>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근신에게 이르기를,</p>	<p>乙巳/受常參, 視事。上謂左右曰:</p>

<p>(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0月 20日(乙巳) 1번째기사 임금이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할 것에 관해 이르다</p>	<p>“약재(藥材)를 화매(和賣)1940) 하는 일은 이미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는바, 우리 나라의 소산(所產)도 이미 족하나, 그러나 당약(唐藥)은 드물고 귀하여 아직도 약을 짓지 못하는 일이 있다. 이제 황제께서 우리를 후례(厚禮)로서 대우하시매 왕래가 끊이지 않으니, 약재를 화매하여 백성의 병을 구제함이 어떨까. 우리 나라와의 매매 행위를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엄금하였으나, 그러나 약재만은 비록 예부(禮部)에 이첩하여 묻는다 하더라도 귀찮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또 모든 사기와 백가서(百家書)의 책도 아울러 사들이고자 하나, 오경(五經)과 사서(四書)를 이미 중외에 반포하였으니 어찌 번거로이 주청을 하랴.”</p> <p>하나, 우의정 권진(權軫)이 아뢰기를, “약의 귀한 것은 비록 청구한다 하더라도 의리에 있어 무방하나이다.”</p> <p>하였다. 임금이 예조 판서 신상(申商)에게 이르기를, “주사(朱砂)와 용뇌(龍腦)는 비록 귀한 약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가서 구하면 오히려 얻을 수 있으나, 침향(沈香)으로 말하면 비록 중국에서라도 쉽사리 얻지 못할 것이다. 지난 번 왜인들이 가져 오는 침향이 흔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값 깎기를 너무 험하게 하였으므로 다시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 침향은 왜(倭)나라에서도 나지 않는지라 널리 다른 나라에서 구하여 가져오는 것이니, 비록 그 값의 감절을 준다 하더라도 가하니, 예조에서는 그것을 의논하여 아뢰라.”</p> <p>하였다.</p>	<p>“藥材和賣之事， 已命承文院提調擬議。 我國所產已足矣， 然唐藥鮮少， 或有未劑者。 今皇帝以厚禮待我， 往來絡繹， 和賣藥材， 救民之病何如？ 我國買賣， 中國已曾痛禁， 然藥材雖移咨禮部， 不以爲瀆， 且諸史百家， 亦欲并買五經四書， 已頒中外， 何煩奏請？”</p> <p>右議政權軫啓：“藥之貴者， 雖求請， 於義無妨。” 上謂禮曹判書申商曰：“朱砂龍腦， 雖曰貴藥， 求之中國， 則猶可得也， 沈香則雖中國， 未易得之。 往者倭人齎沈香來者比比有之， 我國折價甚輕， 故不更齎來。 沈香不產倭邦， 乃旁求他國而來， 雖倍其價可也， 禮曹其議以啓。”</p>
<p>世宗 58卷, 14年 (1432 壬子 / 명 선덕 (宣德) 7年) 12月 3日 (戊子) 3번째기사 창성과 장정안에게 각</p>	<p>창성(昌盛)과 장정안(張定安)에게 각각 인삼(人蔘) 30근씩을 주었다.</p>	<p>贈昌盛、張定安人蔘各三十斤。</p>

<p>각 인삼 30근씩을 주다</p>		
<p>세종 58권, 14년 (1432 임자 / 명 선덕 (宣德) 7년) 12월 9일 (갑오) 4번째기사 상호군 홍사석을 강계·여연에 보내 접전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다</p>	<p>상호군(上護軍) 홍사석(洪師錫)을 강계(江界)·여연(閔延) 지방으로 보내어 접전했던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 전사한 군관(軍官)에게는 각각 미두(米豆) 5석씩, 군졸(軍卒)에게는 3석씩을 내려 주게 하였다.</p>	<p>遣上護軍洪師錫于江界、閔延，審察接戰之狀，賜戰亡軍官各米豆五石，軍卒三石。</p>
<p>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1월 16일 (경오) 3번째기사 의정부·육조 판서·정초 등을 불러 목책·진무소·신문고 등에 관해 의논하다</p>	<p>의정부·육조 판서·삼군 도진무·예문관 대제학 정초 등을 불러서 일을 의논하였는데, 그 하나는, “함길도 영북(寧北)에 신설하는 목책(木柵)은 아직 뒷날을 기다려서 돌성[石城]을 쌓을까. 경원에 있는 목책이 오래 되어서 무너졌으니 금년 봄부터 시작해 쌓게 함이 어떨까.” 하니, 맹사성 등이 상교가 지당하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태종조에 황엄(黃儼)이 황제의 명을 받아 본국에 연회를 베풀어 주었는데, 엄이 태종께만 술을 돌리고 나머지에겐 술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태종께서 칭찬 뒤에야 술을 돌렸으니, 이는 중국 조정에서 술을 내려 주는 법이 위하는 손님에게만 돌리는 것이다. 윤봉(尹鳳)이 또 말하기를, ‘본국 사람에게 술을 내려 줄 적에, 내려 주는 술을 가진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받는 것이 예(禮)라.’ 고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중국 조정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술을 돌리는 예(禮)가 있으므로, 내가 사신의 위연(慰宴) 때와 선위사(宣慰使)의 술을 돌리는 절차에서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꿇어앉아 마시게 함이 어떨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모두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p>	<p>召議政府、六曹判書、三軍都鎮撫、藝文大提學鄭招等議事：其一：“咸吉道寧北新設木柵，姑待後年築石城。慶源木柵，年久頽落，令今春始築何如？”孟思誠等議：“上教允當。”其一：“在太宗朝，黃儼受命，賜宴本國。儼行酒於太宗而已，餘不行酒，太宗請之，然後乃行酒。是則中朝賜酒之法，只行於爲客而已。今尹鳳又曰：‘賜酒本國之人，持賜酒者立授，飲者跪受，禮也。’以此觀之，則中朝亦有行酒他人之禮。予於使臣慰宴時及宣慰使行酒節次，賜酒者立授，飲者跪受，何如？”僉議皆可。上曰：“賜酒者立授，飲者俛伏受酒，而立請於使臣，退跪而飲。”(후략)</p>



	“술을 주는 사람은 서서 주고, 받아 마시는 사람은 엎드려서 술을 받고, 일어나 서서 사신에게 청하고는 물러나서 마실 것이다.” 하였다. (후략)	
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2월 9일 (계사) 4번째기사 성균 사예 김반이 문 묘의 동·서무와 제례 와 반궁 등에 관해 상 언하다	(전략) 1. 석전제(釋奠祭)의 성생(省牲)2026)·할생(割牲)2027) 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閭里)와 가까우며, 원장(垣牆)도 없고 옥우(屋宇)도 없어서, 항상 닭·개 말·소 등이 더럽혀서 그 부정(不淨)함이 심하옵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廚所)를 만들고 담을 둘러서 그곳을 정(淨)하게 할 것입니다. (후략)	(전략) 一。 釋奠祭省牲割牲之處，不可不淨，今其處隣於閭里而無垣牆無屋宇，常爲雞犬牛馬之所汚，其爲不淨甚矣。 乞築室爲廚所，繚以垣牆，以淨其處。 (후략)
世宗 59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3月 22日 (乙亥) 2번째기사 집현전 부제학 이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 게 교서를 반포하다	(전략) 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	(전략)1. 대소(大小)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하게 술기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쾌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후략)
세종 59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3월 27일 (경진) 1번째기사 진위 지경에서 매 사 냥을 구경하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 수신이 하직을 고하다	진위(振威) 지경에서 매 사냥을 구경하였다. 경기 감사 남지와 경력 황수신은 하직을 고하고, 충청 감사 조종생(趙從生)·경력 이중(李重)·직산 현감 유형(柳衡)이 경상(境上)에서 받들어 맞이하고, 직산 현 수혈원(愁歇院) 앞 평지에 차소를 정하였다. 조종생이 인해 토산물을 올리고 또 술과 안주를 올리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들과 군사(軍士)들까지 나누어 내려 주었다.	庚辰/觀放鷹于振威之境，京畿監司南智、經歷黃守身辭，忠淸監司趙從生、經歷李重、稷山縣監柳衡，奉迎境上。次于稷山縣愁歇院前平，趙從生仍進方物，又進酒饌，分賜大小臣僚，至于軍士。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4月 7日 (庚寅) 1번째기사 온수현의 빈궁한 사람 에게 곡식을 하사하다</p>	<p>온수현의 빈궁한 사람 76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 나이 80이상인 곤궁한 백성 9명에게 벼 2석과 콩 1석씩, 나이 70이상인 곤궁한 백성 18명에게 벼와 콩 각 1석씩을 하사하고, 또 감사에게 명하여 토지가 행궁(行宮) 근처에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한 자에게는 그 결복(結卜)의 수(數)로 값을 주게 하였다.</p>	<p>庚寅/賜溫水縣貧窮人七十六名人租豆各一石, 年八十以上窮民九名人租二石、豆一石, 年七十以上窮民十八名給租豆各一石。 又命監司, 田在行宮近地未耕者, 以其結卜之數, 賜直有差。</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4월 14일 (정유) 1번째기사 아산현의 노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물건을 차등있게 하사하다</p>	<p>아산현에 사는 94세의 늙은 할머니가 마떡[薯] 한 동이를 올리니, 내정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면포 두 필, 술 열 병 및 잡물을 하사하였다. 이 뒤에도 근방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채소를 올리자, 모두 음식을 먹이고 물건을 차등 있게 하사하게 하였다.</p>	<p>丁酉/牙山縣九十四歲老嫗進薯蕷餅一盆, 命饋于內庭, 賜綿布二匹、酒十瓶及雜物。 是後旁近老人來進菜蔬, 皆命饋賜物有差。</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4月 15日 (戊戌) 2번째기사 사헌부에 금년 6월 20 일부터 시작하는 금주 에 관하여 전지하다</p>	<p>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금년 6월 20일부터 금주를 시작하되, 그 중에 취하도록 마시지 아니한 자와, 약을 먹기 때문에 부득이 술을 마시는 자에게는 정상의 경중을 참작하여 벌을 감하고, 정상이 아주 가벼운 것과 사정이 딱한 자는 죄주지 말라.” 하였다.</p>	<p>傳旨司憲府曰: 今六月二十日始禁酒, 其中飲不至醉者及因服藥等故不得已用酒者, 姑量情狀輕重, 末減施行。 其情狀最輕及情可矜者, 勿罪之。</p>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 (宣德) 8년) 4월 26일 (기유) 3번째기사 예조에서 새 문소전의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문소전(文昭殿)에 상식(上食)할 때에는 상에 반찬을 차려서 올렸고, 광효전(廣孝殿)에는 먼저 빈 상을 올리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새 문소전 상식은 예전 문소전의 예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 “前此文昭殿上食, 則設饌具於案而進之, 廣孝殿則先進空案而設饌具, 新文昭殿上食, 依舊文昭殿例。” 從之。</p>

<p>예대로 할 것을 아뢰다</p>	<p>(전략) 그 날,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版)을 신위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 및 촛대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 제기에 제물을 담고, 준(尊)을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이것이 끝난 다음 봉영관(奉迎官) 이하 여러 집사가 각각 제복을 입고 손을 씻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삼아 사배하고 나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신위관에 글씨를 쓸 관원과 전사관, 집사들을 인도하여 배위에 들어와 서는데, 곁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네 번 절한 후 각각 제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봉영관이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탁자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위관을 내어 탁상에 눕혀 놓는다. 신위관을 쓸 관원이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가서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강헌 태조 지인 계운 성문 신무 대왕(有明贈諡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이라고 먹으로 쓴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먹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서 거둬 칠한다.】 대축이 신위관을 궤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왕후의 신위관 궤를 받들고 들어와서, 궤를 열고 신위관을 내어 탁자 위에 눕혀 놓는다. 신위관을 쓰는 관원이 먹으로 ‘승인 순성 신의 왕후(承仁順聖神懿王后)’라고 쓰고, 광칠로 거둬 칠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궁위령이 신위관을 궤안에 넣은 다음,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관을 받들고 초상화 앞에 남향으로 모신다. 【욕석(褥席)이 있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유사가 제찬을 다 차리면,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p>	<p>(전략) 其日,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 奠祝版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 次設祭器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 訖, 奉迎官以下諸執事, 各具祭服盥洗訖, 謁者贊者先就殿庭, 北向西上四拜訖就位. 謁者引監察及題神主位版官典祀官諸執事, 入就拜位, 重行北向西上. 立定, 贊者曰: “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 謁者引奉迎官入就位西向立, 贊者曰: “四拜.” 奉迎官四拜訖, 謁者引奉迎官詣卓南北向立. 大祝奉太祖神位版匱以入, 開匱奉出神位版, 臥置卓上. 題神位版官詣盥洗位盥洗訖, 升自東階, 詣卓前西向立, 題云: “有明贈諡康獻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墨書訖, 以光漆重模之, 【待墨書乾重模】大祝奉神位版, 安于匱中. 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以入, 開匱奉出神位版, 臥置卓上, 題神位版官題云: “承仁順聖神懿王后.” 墨書訖, 以光漆重模之, 降復位. 宮闈令奉神位版, 安于匱中訖, 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安</p>
---------------------	--	--

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앉아 홀(笏)을 쫓으라.'고 찬한다. 봉영관이 끓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香合)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한다. 봉영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상에 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봉영관의 오른쪽에 있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봉영관의 왼쪽에 있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봉영관에게 술잔을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가 다음 술잔을 봉영관에게 주면, 봉영관이 술잔을 잡아서 올리는데,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고 찬하면, 대축(大祝)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그것이 끝나면, 알자가 '부복, 흥, 재배, 흥, 평신'이라 찬한다. 봉영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사배하라.' 찬하면, 봉영관이 네 번 절한다. 알자가 봉영관을 인도하여 나가서 옷을 벗고, 대문 밖 길 동쪽에 나아가 서향하여 봉영한다. 알자가 감찰과 신위관에 글씨 쓴 관원, 전사관(典祀官) 및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拜位)에 돌아오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네 번 절하고 나면, 알자가 차례로 인도해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관을 거두어 들이면, 알자와 찬자가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소속을 거느리고 제물을 거두고 축판(祝版)을 구덩이에 묻는다. 태조의 신위관이 새 문소전에 나아갈 적에 하루 앞서, 상연(尙輦) 【병조 승여사(乘輿司).】에서 상로(象輅)·염적(厭翟)·요여(腰輿)·향정자(香亭子)·의장(儀仗) 등을 구 문소전 대문 밖에 갖다 놓는다. 그날, 동가(動駕)를 고하는 제사

于(睟) [睟] 容前【有褥席】南向，謁者引奉迎官，降復位。有司進饌訖，謁者引奉迎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奉迎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奉迎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奉迎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奉迎官之右，奠爐在奉迎官之左。授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奉迎官，奉迎官執盞獻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奉迎官，奉迎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再拜興平身，奉迎官俯伏興再拜興平身，謁者引奉迎官，降自東階復位。贊者曰：“四拜。”奉迎官四拜。謁者引奉迎官出釋服，就大門外道東西向奉迎。謁者引監察及題神位板官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訖，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板，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祝版瘞於

를 마치고, 유사는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 중문 밖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는 요여 둘을 옥위 위에 놓는데, 【태조의 요여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요여는 동쪽에 둔다.】 산·선이 들어와 전정 좌우에 벌여 선다. 또 옥위 둘을 대문 밖에 설치하고, 상로와 염적을 그 앞에 남향으로 놓으며, 【상로는 오른쪽에 있고, 염적은 왼쪽에 있다.】 의장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선다. 시간이 되면 섭(攝)판통례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자리에 서 내려 요여를 타고 새 문소전에 나아가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면,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께를 받들어서 요여에 모시고, 그 다음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관 께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대축은 태조의 초상화를 견고, 궁위령은 왕후의 초상화를 견어서 각각 함에 넣어 자리에 놓는다. 【종부시(宗簿寺) 관원은 신위관 요여가 대문에 나간 뒤 요여 둘에 초상화를 모시어 선원전(璿源殿)에 간직한다.】 집사자가 신여(神輿)를 메고 나오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붙들어 모시고 상로와 염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놓는다. 섭판통례가 태조의 신여(神輿) 앞에 꿇어앉아 여(輿)에서 내려 노(輅)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이 태조의 신위관 께를 받들어 노 위에 옮기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의 신위관 께를 받들어 염적 위에 옮긴뒤, 천우 장군(千牛將軍)이 노를 양쪽에서 모시고 간다. 【태조의 노(輅)가 앞에 가고, 왕후의 염적이 그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따른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조금 머물러서 봉연관에게 말을 타라고 명령하소서.’ 하고 아뢴 다음, 봉연관이 말에 올라 앞을 인도하고, 섭판통례가 꿇어앉아 노가 떠나기를 계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노가 진발(進發)하면 고취(鼓吹)를 울린다. 경복궁 광화문 밖 봉영소(奉迎所)에 이르러 봉영관이 말에서 내린다. 상로와 염적이 이르면, 군관(群官)들은 몸을 굽혔다가 지나간 뒤 바로 선다. 상로와 염적이 가까이 오게 되면,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봉영하는 자리에 나아가간다. 상로와 염적이 도

坎。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前一日，尙輦【兵曹乘輿司】進象輅、厭翟、腰輿、香亭子、儀(伏)〔仗〕於舊文昭殿大門外。其日，告動駕，祭畢，攸司設褥位二於殿上中戶外南向。執事者以腰輿二置於(於)褥位上。【大祖輿在西，王后輿在東。】繖扇入陳於殿庭左右，又設褥位二於大門外，置象輅厭翟於其前南向，【象輅在右，厭翟在左。】儀仗樂部立於其南。時至，攝判通禮入詣太祖神位前，跪啓請降座乘輿，詣新文昭殿，啓訖，俯伏輿退。大祝奉太祖神位版置，安於輿上。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安於輿上。大祝撤太祖睟容，宮闈令撤王后睟容，各至于函，置于座。【宗簿寺官員待神位版腰輦出大門，以要輿二，奉安睟容，藏于璿源殿。】執事者奉昇神輿而出，大祝宮闈令各扶持，至象輅厭翟後褥位上小駐。攝判通禮詣太祖輿前跪，啓請降輿升輅，啓訖俯伏輿退。大祝奉太祖神位版置升輅，次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升厭翟，千牛將軍夾輅而趨。【太祖輅先行，王后厭翟次之，各有儀仗樂部。】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

작하면, 판통례가 국궁할 것을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힌다. 상로와 엄적이 지나가면, 판통례가 몸을 바로 할 것을 아뢰어 전하가 몸을 바로 한다. 판통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차(大次)에 돌아와 태종의 상로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태조의 상로가 광화문에 이르면 상로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에서 상로와 엄적 뒤에 있는 옥위 위에 올려놓는다. 【유사가 임시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판통례가 상로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상로에서 내려 요여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고 요여 위에 옮겨 모시기를 앞의 의식과 같이 한다. 신여가 새 문소전 남문에 이르면, 고취를 그친다. 좌우로 나누어 【의장 등은 모두 문소전 남문 밖에 좌우로 벌여 서있다가, 안신제(安神祭)를 마친 다음 물러간다.】 신여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가운데 길을 지나 전상(殿上)의 중문 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臨時)하여 옥위 둘을 마련한다.】 섭판통례가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요여에서 내려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궤를 받들어서 좌석에 남향으로 모시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문으로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동계로 내려와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서서 태종 신위판의 부사(附祀)를 기다린다.

광효전(廣孝殿)에서 태종의 신위판을 문소전으로 이안(移安)하는 것을 고하는 의식은 태조의 이안 의식과 같고, 동가(動駕)를 고하는 의식도 태조의 의식과 같은데, 다만 신위판에 쓰는 절차만 없다. 태종 신위판이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은 태조 신위판이 새 문소전에 나아가는 의식과 같다. 【다만 초상화를 걷는 절차가 없고, 고취는 대문에 이르러 그치고, 좌우에 나누어 있는 의장 등은 모두 대문 밖에 이르러 좌우에 벌여 섰다가, 안신제를 마친 다음 물러간

輅小駐，敎奉迎官上馬，啓訖，奉迎官上馬前導。攝判通禮跪，啓請輅進發，啓訖俯伏興退。輅進發，鼓吹振作，至景福宮光化門外奉迎所，奉迎官下馬。輅及厭翟至，群官(鞫)[鞫]躬，過則平身。輅及厭翟將至，判通禮導殿下，就奉迎位，輅及厭翟至，判通禮啓鞠躬，殿下鞠躬，輅及厭翟過，判通禮啓平身，殿下平身。判通禮導殿下還入大次，以俟太宗象輅至。太祖輅至光化門，回輅南向，尙輦以腰輦進輅及厭翟後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降輅乘輿，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輿上如前儀。神輿至新文昭殿南門，鼓吹止，分左右。【其儀仗等，竝於殿南門外左右列立，以俟安神祭畢退。】神輿入自正門，由中道至殿上中外戶褥位上，【攸司臨時設褥位二。】攝判通禮進神輿前跪，啓請降輿升座，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座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腰輿降自東階，由東門出。大祝宮闈令，降自東階近東西向立，以俟

다.】 처음 중호위에서 태종 신위관이 임시로 머물 악차(幄次)를 새 문소전 남문 밖 길 서쪽에 동향으로 마련하고, 유사가 상석(床席)과 욕위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신여가 전(殿)의 남문 밖 악차 앞에 이르면, 섭판통례가 태조의 신여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요여에서 내려 악차에 들어갈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관 궤를 받들어 악좌(幄座)에 모시고, 【태종 신위관 궤는 북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관 궤는 남쪽에 둔다.】 산·선은 악차 앞에 벌인다. 대축과 궁위령이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궤를 열고 태조의 신위관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안치하고, 【서쪽에 둔다.】 다음 궁위령이 궤를 열고 왕후의 신위관을 받들어 내어 좌에 안치하고는 【동쪽에 둔다.】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함께 물러나와 자리로 돌아온다. 섭판통례가 태종의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아뢰기를, ‘좌에서 내려 요여를 타고 부알(附謁)하소서.’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이 태종의 신위관 궤를 요여에 모시고,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나서, 구부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섭판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전(殿)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멈추어 벌여 둔다. 【시위(侍衛)하는 관리는 모두 물러간다.】 집사자 【내시 별감(內侍別監).】 가 신여를 모시고 정문(正門)으로 들어가서 부알하는 욕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하여 욕위(褥位) 둘을 전정(殿庭) 한가운데 북향으로 마련하고, 태종 신위관 궤는 서쪽에 두고, 왕후의 신위관 궤는 남쪽에 둔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궤를 받들어 욕위에 놓고 궤를 열면, 대축이 태종의 신위관을 받들어 내고, 다음으로 궁위령이 왕후의 신위관을 받들어 낸다. 섭판통례가 욕위의 서쪽에 나아가서 북쪽으로 향하여 꿇어앉아서 아뢰기를, ‘지금 길한 때에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 소열 원경 왕후(彰德昭烈元敬王后)를 부알(附謁)합니다.’ 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조금 있다가 섭판통례가 욕위의 서쪽에

太宗神位版附廣孝殿。告移安文昭殿儀，與太祖移安儀同，告動駕，與太祖告動駕儀同，唯無題神位版之節。太宗神位版詣文昭殿，與太祖神位版詣新文昭殿儀同。【唯無徹睟(谷)〔容〕之節，其鼓吹至大門而止，分左右。儀仗等，竝於大門外左右列立，俟安神祭畢退。】初，忠扈衛設太宗神位版、權駐幄次於新文昭殿南門外道，西東向，攸司設床席褥位二於幄內。神輿至殿南門外幄前，攝判通禮詣太宗與前跪，啓請降輿入幄，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幄座，【太宗神位版匱在北，王后神位版匱在南。】繖扇列於幄前。大祝宮闈令升自東階，詣太祖室，大祝開匱，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在西】次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位版設於座，【在東】俯伏興俱退復位。攝判通禮進當太宗幄前跪，啓請降座乘輿附謁，啓訖俯伏興。大祝奉太宗神位版匱安于輿，宮闈令奉王后神位版匱安于輿訖，俯伏興退。攝判通禮前引至殿南門，繖扇停列於門外。【侍衛官吏，皆退。】執事者【內侍別監】陪神輿，入自正門至附謁褥

나아가 동향으로 꿰어앉아서 좌(座)에 오를 것을 아뢰어 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물러나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옥위에 나아가 꿰어앉아서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그 궤의 뚜껑도 요여 위에 뒤로 가까이 놓는다.】 가운데 계단으로 올라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인도하여 동쪽 문밖 옥위 위에 이르면, 【유사가 임시로 옥위 둘을 마련한다.】 각각 신위판을 받들어 좌에 모시되,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요여는 동쪽 계단으로 내려와 동쪽 문으로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태조실과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판을 거두어 들고 물러나온다. 처음에 태종의 신여가 광화문에 들어오면, 판통례가 대차 앞에 나아가 꿰어앉아서, ‘여를 타고 소차(小次)로 나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에 오르는데, 산·선과 화개의 시종(侍從)은 보통 때와 같다. 새 문소전 대문 밖에 이르러 소차에 들면, 시위하는 관원의 시위도 보통 때와 같다. 태종 신위판의 부알례(附謁禮)가 끝나고 나면, 판통례가 소차 앞에 나아가 꿰어앉아서, ‘여를 타고 임시로 재전에 나아가소서.’ 하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가 여를 타고, 판통례가 앞을 인도하여 임시로 재전에 나아간다. 산·선과 화개의 시위는 보통과 같다.

안신제(安神祭)의 의식은, 재계(齋戒)를 제사전 3일 동안 하되, 전하는 산재(散齋)를 2일, 치재(致齋)를 1일 한다. 산재에는, 조상(弔喪)하지 아니하고, 문병하지 아니하며,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유사는 형살 문서(刑殺文書)를 아뢰지 아니하며, 치재에는, 오직 제사에 관한 일만 아뢴다. 제사 일을 맡은 집사관(執事官)과 근시관(近侍官)으로 반드시 따라올 사람은 모두 산재 2일, 치재 1일을 행한다. 산재에는 일은 여전히 하되, 다만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고,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고,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의 판결과 서명(署名)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位, 【攸司臨時設褥位二於殿庭當中北向, 太宗神位版匱在西, 王后神位版匱在東。】(闈)大祝宮闈令各奉匱, 安於褥位開匱, 大祝奉出太宗神位版, 次宮闈令奉出王后神位版訖, 攝判通禮進褥位, 西北向跪啓稱: “今以吉辰, 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后附謁。” 啓訖, 府伏興退。小頃, 攝判通禮進褥位之西, 東向跪, 啓請升座, 啓訖俯伏興退。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 各奉神位版安於輿, 【其匱蓋, 亦置輿上近後。】升自中階, 大祝宮闈令奉引至東戶外褥位上, 【攸司臨時設褥位二】各奉神位版, 安於座西向, 以北爲上。腰輿降自東階, 由東門出, 大祝宮闈令詣太祖室、太宗室, 納神位版乃退。初, 太宗神輿入光化門, 判通禮進大次前跪, 啓請乘輿詣小次, 殿下乘輿, 繖扇華蓋侍衛如常。至新文昭殿大門外入小次, 侍衛之官侍衛如常。待太宗神位版附謁禮訖, 判通禮進小次前跪, 啓請乘輿, 權就齋殿。殿下乘輿, 判通禮前導, 權就齋殿, 繖扇華蓋侍衛如常。安神祭儀: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과, 모든 시위하는 무리와, 전문을 수위하는 자 및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제사 준비는 그날 하되, 태종 신위관의 부알례를 마친 다음, 전악(典樂)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악부(樂部)를 두 곳에 설치한다. 하나는 전상(殿上)에 두고, 하나는 전정(殿庭)의 서쪽 가까이 두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통례문이 전하의 판위(版位)를 동쪽 계단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아헌관(亞獻官)·종헌관(終獻官)의 자리는 전하의 판위 뒤에 남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되,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통찬 두 사람의 자리는 동쪽 계단 서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만약 내정(內庭)이 협착하면 외정(外庭)의 통찬 계단 서남편에 서향으로 마련 한다.】 전악의 자리는 악부의 북쪽에 북향으로 마련하고, 배제하는 종실과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는 외정에 마련하되, 문관 1품 이하는 길 동쪽으로 하고, 종실 및 무관 1품 이하는 길 서쪽으로 하여, 등급마다 자리를 달리 하고 겹줄로 북향하게 하되, 상대하여 윗자리로 한다. 【종실 각품의 반두(班頭)는 따로 자리를 설치하고, 대군(大君)은 특별히 정1품 앞에 자리에 배둔다.】 감찰 두 사람의 자리는 문무반 뒤에 북향하여 설치하고 서리가 각각 그 뒤에 배둔한다. 구덩이는 후전(後殿) 북쪽 임방(壬方)에 파되, 깊이는 물건이 넉넉히 들어가게 파고 남쪽으로 섬돌을 낸다. 교서관의 관원이 축관을 받들어 올리면, 근신이 전해 받아서 전하께 올리고, 전하의 서압(署押)이 끝나면, 근신이 받들고 나와서 전사(殿司)에게 전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殿司)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祝版)을 하나씩 각실(各室)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을 초와 함께 신위 앞에 설치하고, 다음에 제기(祭器)와 담을 제찬을 설치하고, 준(尊)을 각실 문밖에 왼쪽으로 설치하고, 복주잔(福酒盞) 하나를 태조실의 준소(尊所)에다 둔다. 행례할 시각이 되면,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齋戒：前享三日，殿下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不弔喪問疾，不聽樂，有司不啓刑殺文書，致齋，唯啓享事。凡行事執事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並散齋二日，致齋一日。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陪祭宗室文武群官諸侍衛之屬守衛殿門者及工人，俱清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其日，太宗神位版附謁禮訖，典樂率其屬設樂部二，一於殿上，一於殿庭近西，俱北向。通禮門設殿下版位於東階東南，西向，設亞獻官終獻官位於殿下版位之後近南，西向北上，設通贊二人位於東階之西，西向，【若內庭狹窄，則設於外庭東階西南，西向。】設典樂位於樂部之北，北向，設陪祭宗室及文武群官位於外庭，文官一品以下於道東，宗室及武官一品以下於道西，每等異位重行，北向相對爲首，【宗室，每品班頭別設位；大君，特設位於正一品之前。】設監察位二於文武班後、北向，

제찬을 다 담는다. 모든 향관(享官)과 배제(陪祭)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들은 모두 전문(殿門) 밖에 나아가고, 전악(典樂)이 공인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봉례랑이 배제하는 종실 및 문무 여러 관원들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고, 아헌관·종헌관이 관세를 마치면, 봉례랑이 아헌관·종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케를 열고 신위관을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시고, 【태조 신위관은 대축이 받들어 내고, 왕후의 신위관은 궁위령이 받들어 낸다.】 다음으로 태종실에 나아가서 신위관을 받들어 내는 것은 태조실의 의식과 같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아뢰면, 전하가 관세를 하고, 이를 마치면, 찬례(贊禮)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간다. 【시위하는 사람으로서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문밖에서 정지한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정악(殿庭樂).】 전하가 관위에 이르러 서향하여 서면,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면, 전하는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 【전정악.】 을 연주한다. 동계로 다 올라가면, 풍악을 그친다. 태조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풍악 【전정악.】 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三上香)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가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 【향함을 올리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

書吏各陪其後。 開瘞坎於後殿之北壬地方，深取足容物，南出陞。 校書官員以祝版奉進，近臣傳奉以進，殿下署訖，近臣奉出付殿司。 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各室神位之右，【各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之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各室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 行禮：時至，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諸享官及陪祭宗室文武群官，皆就殿門外，典樂師工人入就位，奉禮郎分引陪祭宗室及文武群官入就位。 亞獻官終獻官盥帨訖，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入就位。 大祝宮闈令詣太祖室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太祖神位版，大祝奉出；王后神位版，宮闈令出奉。】次詣太宗室，奉出神位版，如太祖室儀。 判通禮跪啓外辦，殿下盥帨訖，贊禮導殿下，入自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樂作，【殿庭樂】殿下至版位西向立，樂止，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殿下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通贊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

서 동향한다. 술잔을 올리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잔을 드리라.’고 계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태조의 신위 앞에 올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드리라.’고 아뢰어 청한다. 전하가 술잔을 잡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면,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계청(啓請)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으로 나가서 태종실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근시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실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면, ‘꿇어앉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꿇어앉는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삼상향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세 번 향을 올리면, 근시는 향로를 안(案)에 드린다.【향합을 올리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올리고 드리는 이도 이와 같이 한다.】 근시 한 사람이 술잔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근시에게 주어 태종 신위 앞에 드리고, 또 근시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꿇어앉아 올리면, 찬례가 ‘술잔을 받아서 헌작하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올린다.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앉으시라.’고 아

禮導殿下，樂作。【殿庭樂】升自東階訖，樂止。詣太祖室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啓請跪，殿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盞奠盞，準此。】近侍一人奉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太祖神位前。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贊禮啓請執盞獻盞，殿下執盞獻盞，以盞授近侍，奠于王后神位前。贊禮啓請俯伏興小退北向跪，殿下俯伏興小退北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贊禮啓請俯伏興拜興拜興平身，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贊禮導殿下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盞受酒。贊禮導殿下，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啓請跪，殿下跪，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南北

되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하여 꿇어 앉고,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서 남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연주한다. 찬례가 ‘부부,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문에서 나와, 음악【전정악(殿庭樂).】을 연주한다.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봉례랑은 계단 밑에서 정지한다.】 태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이 중문으로 들어가서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조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아헌관이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고,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아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문으로 나와 동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례랑이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기를 아헌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向， 奠爐在北南向。 進盞奠盞準此。】近侍一人奉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太宗神位前。 又近侍一人以副盞跪進， 贊禮啓請執盞獻盞， 殿下執盞獻盞， 以盞授近侍， 奠于王后神位前。 贊禮啓請俯伏興小退東向跪， 殿下俯伏興小退東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南向跪讀祝文訖， 樂作， 贊禮啓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殿下俯伏興拜興拜興平身。 樂止， 贊禮導殿下出戶， 樂作， 【殿庭樂】降自東階復位。 樂止， 奉禮郎引亞獻官， 升自東階， 【奉禮郎止於階下。】詣太祖室尊所， 西向立， 樂作， 【殿庭樂】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亞獻官由中戶， 入詣太祖神位前北向跪， 執事者一人， 以盞授亞獻官， 亞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太祖神位前。 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 亞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 樂止， 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 樂作，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亞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술잔에 복주(福酒)를 쳐서 근시에게 준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근시가 술잔을 받들어 북향으로 꿇어앉아서 술잔을 올린다. 찬례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으라.’고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꿇어앉아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근시가 빈 술잔을 받아서 준소에 도로 놓는다. 찬례가 ‘부복,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에 돌아온다. 풍악을 그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아뢰어 청하여, 전하가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가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식 마친 것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전(齋殿)으로 돌아간다. 풍악【전정악.】을 연주한다. 문을 나가면 풍악을 그친다. 봉례랑이 아헌관과 중헌관을 인도하여 나아가간다. 봉례랑이 배제한 종실 및 문무 백관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가고, 전악이 공인들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은 신위관을 거두어 들인다. 처음 집사자가 요여를 동쪽 계단 동편에 매실(每室)에 각각 둘씩 준비하되, 모두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관을 다 거두어 들이면,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동계로 올라와 태조실과 태종실 문밖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각각 태조와 태종실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어좌에서 내

向跪，執事者一人以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宗神位前，執事者一人以副盞授亞獻官，亞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亞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樂止，出戶降自東階復位。奉禮郎引終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尊所，以盞酌福酒授近侍，贊禮導殿下，樂作，【殿庭樂】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近侍奉盞北向跪進，贊禮啓請跪受盞，殿下跪受盞飲訖，近侍受虛盞，復於尊所。贊禮啓請俯伏興平身，殿下俯伏興平身，贊禮導殿下降復位。樂止，贊禮啓請鞠躬拜興拜興平身，殿下鞠躬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禮啓請(鞠)[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殿下(鞠)[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通贊贊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還齋殿。樂作，【殿庭樂】出門，樂止，奉禮郎引亞獻官、終獻官出。奉禮郎分引陪

	<p>려와 요여를 타고 후전(後殿)으로 나아가라. '고 아뢰어 청한다. 아뢰고 나서는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케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면, 집사자는 차례로 굶어지고 후전(後殿) 각실(各室)의 문밖에 나아가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케를 받들고 좌석에 모시되, 모두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각실 앞에 설치하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온다.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내전으로 돌아오는데, 시위는 올 때와 같다.”</p> <p>하였다.</p>	<p>祭宗室及文武群官以次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初，執事者陳腰輿於東階之東，每室各二，皆西向北上。大祝宮闈令納神位版訖，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府。】升自東階，詣太祖、太宗室戶升。大祝各詣太祖、太宗室前跪，啓請降座乘輿，詣後殿，啓訖俯伏輿。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座，俱南向，以西爲上。殿司帥其屬，奉繖蓋設於各室前，闈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殿下乘輿還內，侍衛如來儀。</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3日 (乙卯) 8번째기사 예조에서 양로연에 관해 아뢰다</p>	<p>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 주·부·군·현의 양로연(養老宴)에 부녀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벼슬이 있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한 섬과 술 다섯 병을 주고, 벼슬이 없는 사람의 아내에게는 쌀 두 섬과 술 세 병을 주고, 아울러 어육(魚肉)을 갖추어서 그 집에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양로연인데 지방이라고 다르게 할 수는 없사오니, 서울의 예에 의하여 수령에게 남녀별로 집을 달리 하여 잔치를 베풀고 음식을 대접하게 하시기를 바라옵니다.”</p> <p>하니, 그대로 따랐다.</p>	<p>禮曹啓：“前此州府郡縣養老宴，婦女則勿令聚會，有職人妻給米一石、酒五瓶，無職人妻給米二石、酒三瓶，並備魚肉，給送其家。然均是養老宴，不可京外有異，乞依京中例，令守令，男女異廳設宴饋餉。”從之。</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4日</p>	<p>예조에서 문소전의 사시 및 납일(臘日)과 속절(俗節)에 섭행(攝行)하는 의주(儀注)를 아뢰기를, “재계(齋戒)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p>	<p>禮曹啓文昭殿四時及臘俗節攝行儀注：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並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p>

(丙辰)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의 사  
시 및 납일과 속절에  
섭행하는 의주에 관해  
아뢰다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 술을 많이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弔喪)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꺾(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와 공인들은 모두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지낸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이틀 전에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하고, 하루 전에 전악(典樂)이 악부(樂部) 둘을 전전(前殿)의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에 설치하되, 모두 북향으로 한다. 유사(虞史)는 헌관(獻官)의 자리를 동계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행으로 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배중한다.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전악의 자리는 전상(殿上)과 전정(殿庭)의 악부 북쪽에 북향으로 마련한다.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제사하는 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前殿)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신위의 오른쪽에 축판(祝版)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은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하며, 복주(福酒) 잔 하나를 태조실 존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及工人，俱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前享二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前一日，典樂設樂部二於前殿，殿上殿庭，俱北向。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俱西向北上，設典樂位於殿上殿庭樂部之北，北向。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率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其) [具] 祭服，皆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고난 다음,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실한 제물을 검사한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어 【대왕의 요여는 내시원(內侍院), 왕비의 요여는 내시부(內侍府).】 후전 각실의 문밖에 각각 둘씩 설치하되, 모두 남향으로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은 태조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어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 모시되, 남향으로 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전사는 그 소속을 거느리고 산·선과 화개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하고, 다음은 대축이 태종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궁위령은 왕후의 신위판 궤를 받들고 동쪽 문으로 들어와 감실에 모시되, 서향으로 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편에 두되, 서향으로 하여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대축과 궁위령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모두 문밖으로 나아간다. 알자와 찬자와 찬인은 먼저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다음 각각 자리에 나아가고, 전악이 악공을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여러 집사자를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拜位)에 나아가서, 북향하여 서쪽을 윗자리로 하고 겹줄로 선다. 다 정렬한 다음,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차례로 궤를 열고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들어와서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

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初，執事者各奉腰輿，【大王輿，內侍院；王后輿，內侍府。】陳於後殿各室戶外，每室各二，皆南向西上。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置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太祖神位版置，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西上。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次大祝奉太宗神位版置，宮闈令奉王后神位版置，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北上。【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北上。】大祝宮闈令俯伏輿，皆出就門外。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典樂帥工人入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以次開置，奉出神位版設於座。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



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조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선다. 풍악을 연주한다. 【전상악(殿上樂).】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선다. 찬자가 ‘끓어얹아 홀을 씻으라.’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씻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여,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면,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얹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으로 끓어얹아 축문을 읽는다.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태종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으로 서서, ‘끓어얹아 홀을 씻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끓어얹아 홀을 씻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이 향로를 받들면, 알자가 ‘삼상향하라.’고 찬하고,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안에 향로를 올려놓는다. 【향합을 받드는 사람은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사람은 북쪽에서 남향

尊所西向立, 樂作【殿上樂】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由中戶入, 詣太祖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 奠爐在西東向。 授盞奠盞, 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太祖神位前。 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謁者贊執笏, 俯伏興少退北向跪, 獻官執笏, 俯伏興少退北向跪。 樂止, 大祝進神位之右, 東向跪讀祝文訖, 樂作, 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 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 樂止, 謁者引獻官出戶, 詣太宗尊所西向, 樂作, 執尊者酌酒, 執事者二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由東戶入, 詣太宗神位前東向立, 贊跪搯笏, 獻官跪搯笏, 執事者一人奉香合, 一人奉香爐, 謁者贊三上香, 獻官三上香, 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南北向, 奠爐在北南向。 授盞奠盞, 準此。】執事一人以盞授獻官, 獻官執盞獻盞, 以盞授執事

한다. 술잔을 주는 사람과 술잔을 드리는 사람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게 하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잡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꿇어앉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동향으로 꿇어앉는다. 풍악을 그친다. 대축이 신위 오른쪽에 신위 오른쪽에 나아가 남향으로 꿇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풍악을 시작한다.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며 동계로 올라와 태조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풍악을 시작한다.【전정악.】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중문으로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꿇어앉아 홀을 꽂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놓는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서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태종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풍악을 시작한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문으로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동향

者，奠于太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獻官執笏，俯伏興少退東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南向跪讀祝文訖，樂作，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尊所西向立，樂作，【殿庭樂】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中戶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尊所西向立，樂作，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由東戶入，詣太宗神位前東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

으로 서서, ‘꿨어앉아 홀을 꼴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아 홀을 꼴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종의 신위 앞에 드리우고,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풍악을 그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예를 행하는데, 아헌관의 의식과 같이 하고, 아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 가까이 서향으로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의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술잔에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음복위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서, ‘꿨어앉아 홀을 꼴으라.’고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아 홀을 꼴는다. 대축이 북향으로 꿨어앉아 술잔을 헌관에게 주고, 헌관이 술잔을 받아서 마시고 나면, 대축이 빈 술잔을 받아서 존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고 찬하면, 헌관이 홀로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또,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이르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돌아와서 정렬하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宗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少退拜興拜興平身，樂止，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典樂帥工人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各奉腰輿，升自東階，置

	<p>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전악이 악공을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거두어 넣으면, 알자·찬자·찬인이 배위에 나아가서 네 번 절하고 나온다. 집사자가 각각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와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케를 받들어 요여에 모신다. 집사자가 차례로 받들고 후전(後殿) 각실의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위판 케를 받들어 좌석에 안치하는 것을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가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고,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p> <p>하였다.</p>	<p>於前殿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輿。執事者以次奉昇，詣後殿各室戶外，大祝宮闈令各奉神位版匱，安於座如常儀。殿司闈戶以降乃退，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5月 8日 (庚申)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기신 제의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 기신제의 위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에는 일을 전과 같이 보되, 오직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의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사 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귀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行事)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하고 하루 밤을 잔다. 【향관(享官) 이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제사하기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陳設)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소속을 거느리고 전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虞史)가 헌관의 자리를 전전(前殿)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에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중한다. 알자·찬자·찬인의 자리는 동계 서쪽에 정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뒷자리</p>	<p>禮曹啓文昭殿(忌晨) [忌辰] 祭儀注：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韭蒜薤，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禦殿門者，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皆前享二日，沐浴更衣。】陳設：前享一日，殿司率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前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向，書吏陪其後，謁者、贊者、贊引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殿司開前殿龕室，</p>

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龕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한 위(位)만 설치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점(坫)이 있다.】 향로·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은 문밖 왼쪽에 설치한다. 행례(行禮)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전전의 감실을 열고 신악(神幄)과 자리를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다 담는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모두 흰옷으로 전문 밖에 나아가고, 찬인이 감찰을 인도하여 진설을 점검한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손을 씻는다. 처음 집사자가 【내시원(內侍院). 왕후의 기신제에는 내시부(內侍府).】 요여를 받들어 후전 문밖에 남향으로 설치하면, 대축이 【왕후의 기신제에는 궁위령이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전전 문밖에 나아가면,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감실에 모신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남향으로 모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감실에서 서향으로 모신다.】 대축이 구부렀다 앞드렸다 일어나서 나오면, 전사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선개(扇蓋)를 받들어 신좌(神座) 앞 좌우에 설치한다. 【그 요여는 동계로 내려와 동계의 동쪽에 서향으로 놓는다.】 알자·찬자·찬인이 먼저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한 후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이 궤를 열고 신위관을 내어 좌석에 모시고,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

整拂神幄，鋪筵如常儀。【只設一位】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戶外之左。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前殿龕室，整拂神幄鋪筵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素服，皆就前殿門外，贊引引監察點視陳設。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初，執事者【內侍院。王后(忌晨)〔忌辰〕祭，則內侍府。】奉腰輿陳於後殿戶外，南向。大祝【王后(忌晨)〔忌辰〕祭，則宮闈令，下準此。】奉神位版置安於輿，執事者奉昇，詣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置，安於龕室，【太祖室(忌晨)〔忌辰〕祭，則由中戶入，安於龕室南向；太宗室(忌晨)〔忌辰〕祭，則由東戶入，安於龕室西向。】大祝俯伏興出。殿司帥其屬，奉扇蓋設於神座前左右，【其腰輿，降自東階，置於東階之東西向。】謁者、贊者、贊引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

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태조실 기신제에는 중문으로 들어가서 북향하여 서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향하여 선다. 아래에도 이와 같다.】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는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찬하면, 헌관이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태종실 기신제에는 향합 받드는 이는 남쪽에서 북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북쪽에서 남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꿨어앉는다. 【태조실 기신제에는 북향으로 꿨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꿨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꿨어앉아 【태조실 기신제에는 동향으로 꿨어앉고, 태종실 기신제에는 남향으로 꿨어앉는다.】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은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서서 ‘꿨어앉으라.’ 찬하면, 헌관이 꿨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贊引監察以下各就位。 大祝開匱，奉出神位版，設於座。 謁者引獻官入就位， 西向立， 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 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太祖室(忌晨) [忌辰] 祭，則由中戶入北向立；太宗室(忌晨) [忌辰] 祭，則由東戶入東向立，下準此。】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太祖室(忌晨) [忌辰] 祭，則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太宗室(忌晨) [忌辰] 祭，則奉香在南北向，奠爐在北南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 謁者贊俯伏興小退跪，獻官俯伏興小退跪，【太祖室(忌晨) [忌辰] 祭，則北向跪，太宗室(忌晨) [忌辰] 祭，則東向跪。】大祝進神位之右跪，【太祖室(忌晨) [忌辰] 祭，則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알자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면, 헌관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행례하기를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해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찬인이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나아가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감찰 이하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은 신위관을 들여놓고, 알자가 찬자와 찬인이 배위에 나아가 네 번 절하고 나간다. 집사자가 요여를 받들고 동계로 올라 전전 문밖에 놓으면,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요여에 모시고, 집사자가 받들고 후전의 문밖에 나아간다. 대축이 신위관 궤를 받들어 좌석에 모시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하고, 전사는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전사관이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

東向跪；太宗室(忌晨) [忌辰] 祭，則南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立，贊跪，獻官跪，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謁者贊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贊引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贊引以次引出。大祝納神位版，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執事者奉腰輿升自東階，置於前殿戶外，大祝奉神位版置，安於輿，執事者奉昇，詣後殿戶外，大祝奉神位版置，安於座如常儀。殿司闔戶以降乃退，

<p>세종 60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5월 13일 (을축) 3번째기사 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 의주를 아뢰다</p>	<p>예조에서 문소전 삭망제(朔望祭) 의주를 아뢰기를,  “재계는 제사 3일 전부터 하는데, 행사할 집사관은 모두 산재(散齋)를 이틀, 치재(致齋)를 하루 한다. 산재는 사무를 전과 같이 보되 술을 함부로 마시지 아니하고, 파·부추·마늘·달래 등을 먹지 아니하며, 조상과 문병을 아니하고, 음악을 듣지 아니하며,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형살 문서(刑殺文書)에 판결과 서명을 하지 아니하며, 더럽고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치재에는 오직 제삿일만 행한다. 이미 재계를 하고서 궐(闕)한 사람이 있게 되면 대리를 통하여 행사한다. 전문(殿門)을 수위하는 자는 청재(淸齋)로 하룻밤을 잔다. 【향관 이하 제사에 참여할 모든 사람은 이틀 전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진설은 제사 하루 전에 하는데, 전사(殿司)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전(殿) 안팎을 청소한다. 유사가 헌관의 자리를 후전(後殿) 동계의 동남편에 서향으로 마련하고, 집사자의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정하되, 겹줄로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서리(書吏)는 그 뒤에서 배종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쪽에 마련하되, 모두 서향하고 북쪽을 윗자리로 한다. 제삿날 행사하기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各室)을 열고 신악(神幄)을 정돈하고 털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관을 신위의 오른쪽에 각각 하나씩 드린다. 【각각 점(坫)이 있다.】 향로와 향합과 초를 신위 앞에 설치한다. 다음은 제기와 제찬 담을 그릇을 설치하고, 준(尊)을 각실 문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복주잔 하나를 태조실 준소(尊所)에 설치한다. 행례는 제삿날 행사하기 3각(刻) 전에 전사가 후전의 각실을 열고 신악을 정돈하고 툐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각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제찬을 담기를 마친다. 2각 전에 헌관 이하가 각각 제복을 갖추고 모두 전문 밖에 나아간다. 1각 전에 헌관 이하 여러 집사들이 관세(盥洗)하고 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p>	<p>典祀官帥其屬徹禮饌，祝版瘞於坎。  禮曹啓文昭殿朔望儀：  齋戒：前享三日，行事執事官竝散齋二日，致齋一日。凡散齋，治事如故，唯不縱酒，不食葱薤蒜薹，不弔喪問疾，不聽樂，不行刑，不判署刑殺文書，不與穢惡事，致齋，唯行享事，已齋而闕者，通攝行事。守衛殿門者，淸齋一宿。【享官以下凡與祭者，前享二日，皆沐浴更衣。】陳設：前享一日，殿司帥其屬，掃除殿之內外。有司設獻官位於後殿東階東南，西向，執事者位於其後稍南，重行西向北上，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西向，書吏陪其後，設謁者贊者位於東階之西，西向北上。享日未行事前，殿司開後殿各室，整拂神幄如常儀。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奠祝版各一於神位之右，【各有坫】設香爐香合竝燭於神位前；次設祭器實饌具，設尊於各室戶外之左，設福酒盞一於太祖室尊所。行禮：享日未行事前三刻，殿司開後殿各室，整拂神幄。典祀官殿司各帥其屬入，實饌具畢。前二刻，獻官以下各具祭服，皆就殿門外。前一刻，獻官以下諸執事</p>
---	--	--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네 번 절하고는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전정의 배위에 나아가서 겹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윗자리로 하여 정렬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감찰 이하를 인도하여 각각 자리에 나아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태조실에 나아가서, 대축은 궤를 열고 태조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시고, 궁위령은 궤를 열고 왕후의 신위판을 받들어 내어 좌석에 모신다. 다음 태종실에 나아가서 위의 의식과 같이 신위판을 받들어 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자리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여,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사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태조 신위 앞에 북향으로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이.’ 고 찬하여, 헌관이 끓어앉아 홀을 깨끗이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함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하라.’ 고 찬하여, 세 번 향을 올리고, 집사자가 향로를 향안에 드린다. 【향함을 받드는 이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향로를 드리는 이는 서쪽에서 동향한다. 술잔을 주는 이와 술잔을 드리는 이도 이와 같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술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엷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으라.’ 고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엷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끓어앉는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

盥洗訖，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入就殿庭拜位，重行北向西上。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監察以下各就位。大祝宮闈令詣太祖室，大祝開匱，奉出太祖神位版設於座，宮闈令開匱，奉出王后神位版設於座。次詣太宗室，奉出神位版如上儀。謁者引獻官入就位西向立，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執事者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獻官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授盞奠盞，準此。】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與小退北向跪，

에 나아가 꿏어안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부복,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찬하여, 헌관이 구부렸다 일어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가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향을 올리고 술잔을 드리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 동계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 태조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꿏어앉아 홀을 쫓으라.’고 찬하여, 헌관이 꿏어앉아 홀을 쫓는다. 집사자 한 사람이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주어 태조의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 한 사람이 다음 술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서 술잔을 드리되, 집사자에게 술잔을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라.’ 찬하여, 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태종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집준자가 술을 따르고, 집사자 두 사람이 술잔에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해 들어와서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술잔을 드리되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이를 마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문을 나와서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조금 후에 알자가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의 의식과 같이 예를 행하고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집사자가 음복위를 앞 기둥 밖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마련하고, 대축이 태조실의 준소에 나아가서 술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른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

獻官執笏俯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俯伏興拜興拜興平身，獻官俯伏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一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宗神位前。上香獻盞，竝如上儀訖，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太祖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祖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獻官跪搯笏。執事者一人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太祖神位前。又執事者一人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小退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戶，詣太宗室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太宗神位前，獻盞如上儀訖，謁者引獻官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太祖室

	<p>게 하고, “꿨어얏아 흘을 꺾으라. ’고 찬하여, 대축이 북향하여 꿨어얏아서 술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받아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준소에 도로 놓는다. 알자가 ‘흘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하라. ’고 찬하여, 헌관이 흘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이라 하면, 헌관이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 및 전사관과 모든 집사들을 인도하여 함께 배위에 돌아와 정렬하고, 찬자가 ‘국궁, 배, 흥, 배, 흥, 배, 흥, 배, 흥, 평신’ 하면,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혔다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고, 절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한다. 알자가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대축과 궁위령이 신위판을 들여놓고, 알자와 찬자는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과 전사는 각각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문을 닫고 내려서 물러나와 축판을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升自東階，詣飲福位西向立，贊跪搯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受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俯伏興平身，獻官執笏俯伏興平身，謁者引降復位。贊者曰：“鞠躬拜興拜興平身。” 在位者皆鞠躬拜興拜興平身。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獻官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引獻官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立定，贊者曰：“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 監察以下，皆鞠躬拜興拜興拜興拜興平身，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神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殿司各帥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世宗 60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6月 15日 (丙申) 9번째기사 문소전 외에 각전·각궁의 공상주를 정지하게 하다</p>	<p>문소전 외에 각전(各殿)·각궁(各宮)의 공상주(供上酒)를 정지하게 하였다.</p>	<p>命停文昭殿外各殿各宮供上酒。</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p>	<p>환관(宦官) 김순(金淳)에게 명령하여 귤(橘)과 유자[柚]를 사신에게 나누어 주었다.</p>	<p>命宦官金淳，分贈橘柚于使臣。</p>

<p>(宣德) 8년) 10월 27일(병자) 2번째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골과 유자를 사신에게 나누어 주다</p>		
<p>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0月 28日(丁丑) 2번째기사      술에 대한 폐해와 훈계를 담은 내용의 글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다</p>	<p>교지(教旨)를 내리기를,      “대체로 들으니, 술[酒]을 마련하는 것은 술 마시는 것을 숭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神明(神明)을 받들고 빈객(賓客)을 대접하며, 나이 많은 이를 부양(扶養)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제사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술잔을 올리고 술잔을 돌려주고 하는 것으로 절차(節次)를 삼고, 회사(會射) 때에 술 마시는 것은 읍양(揖讓)하는 것으로 예를 삼는다. 향사(鄉射)의 예는 친목(親睦)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양로(養老)의 예는 연령(年齡)과 덕행을 숭상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건만 오히려 말하기를, ‘손과 주인이 백 번 절하고 술 세 순배를 돌린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술의 예절을 제정할 때에 술의 폐해에 대비(對備)한 것이 더할 수 없이 극진하였다. 후세에 내려와서 풍속과 습관이 옛스럽지 않고, 다만 크게 많이 차리는 것만을 힘쓰게 된 까닭에, 금주(禁酒)하는 법이 비록 엄중하나 마침내 그 폐해를 구제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威儀)를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폐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性稟)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舉)할 수</p>	<p>教旨:      蓋聞酒醴之設, 非以崇飲, 所以奉神明、享賓客、養高年者也。是以因祭而飲, 以獻酬爲節; 因射而飲, 以揖讓爲禮。鄉射之禮, 所以教親睦也; 養老之禮, 所以尚齒德也。然猶曰: “賓主百拜而酒三行。” 又曰: “終日飲酒而不得醉。”, 則先王所以制酒禮, 而備酒禍者至矣盡矣。降及後世, 俗習不古, 惟荒腆是務, 故禁酒之法雖嚴, 而終不能救其禍, 可勝歎哉? 夫酒之爲禍甚大, 豈特糜穀費財而已哉? 內[弱]心志, 外喪威儀, 或廢父母之養, 或亂男女之別, 大則喪國敗家, 小則伐性喪生, 其所以瀆亂綱常, 敗毀風俗者, 難以枚舉, 姑指其一二可戒可法者言之。商辛、周厲, 以此而亡其國, 東晉之俗, 以此而亡人之國。鄭大夫伯有窟室夜飲, 卒爲子皙所焚。前漢校尉陳遵每大飲賓, 輒關門投轄, 使于</p>

없다.

우선 그 중에서 한두 가지 경계해야 할 것과 본받아야 할 것만을 지적하여 말하겠다. 상(商)나라의 주왕(紂王)과 주(周)나라의 여왕(厲王)은 술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였으며, 동진(東晉)의 풍속은 술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였다. 정(鄭)나라의 대부(大夫) 백유(伯有)는 땅굴을 파서 집을 만들고 그 속에서 밤에 술을 마시다가 자식(子皙)에게 불태워져 죽었으며, 전한(前漢)의 교위(校尉) 진준(陳遵)은 매양 손님들과 크게 마시기를 좋아하여, 손이 오면 문득 손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타고 온 수레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니, 흉노(凶奴)에게 사자(使者)로 갔다가 술에 취하여 살해되었다. 후한(後漢)의 사예 교위(司隸校尉) 정충(丁冲)은 자주 제장(諸將)들에게 찾아 다니면서 술을 먹더니 창자가 썩어서 죽었으며, 진(晉)나라의 상서 우복야(尙書右僕射) 주개(周顛)는 술 한 섬을 거뜬히 마시었는데, 한번은 옛 술친구가 왔으므로 즐겨 함께 술을 마시고 몹시 취했다가, 술이 깨서 손[客]을 가 보게 하였더니, 손은 이미 갈비가 썩어서 죽어 있었다고 한다. 후위(後魏)의 하후사(夏侯史)는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상중(喪中)에 있으면서도 슬퍼하지 아니하며 좋은 막걸리를 입에서 떼지 않으니, 아우와 누이는 굶주림과 추위를 면치 못하였는데, 마침내 술에 취한 채 혼수상태로 죽었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경계해야 할 일들이다.

주(周)나라의 무왕(武王)은 주고(酒誥)를 지어 상(商)나라의 백성들을 훈계하였고, 위(衛)나라의 무공(武公)은 빈연(賓筵)의 시를 지어 스스로 경책(警責)하였다. 진(晉)나라 원제(元帝)가 술 때문에 정사를 폐하는 일이 많으니, 왕도(王導)가 깊이 경계하여 말하니, 임금에 술잔을 얹어 버리라고 명령하고 드디어 술을 끊었다. 원(元)나라의 태종(太宗)이 날마다 대신들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시더니, 야율초재(耶律楚材)가 드디어 주조(酒槽)의 금속 주둥이를 가지고 가서 아뢰기를, ‘이 쇠[鐵]도 술에 침식(侵蝕)됨이 이와 같습니다. 더군

匈奴, 醉而遇害。 後漢司隸校尉丁冲, 數過諸將飲酒, 爛腸而死。 晉尙書右僕射周顛, 能飲酒一石, 偶有舊(對) [帶] 來, 欣然共飲大醉, 及醒使視, 客已腐脅而死。 後魏夏侯史性好酒, 居喪不戚, 醇醪不離於口, 弟妹不免飢寒, 於是昏酣而死, 此誠可戒者也。 周武王作《酒誥》之書, 以訓商民; 衛武公作《賓筵》之詩, 以自警責。 晉元帝頗以酒廢事, 王導深以爲言, 帝命引觴覆之, 遂絕。 元太宗日與大臣酣飲, 耶律楚材乃持酒槽金口進曰: “此鐵爲酒所蝕, 尙致如此, 況人之五臟, 有不損耶?” 帝悟, 因勅左右, 日進酒三鍾而止。 晉陶侃每飲酒有定限, 或勸少進, 侃悽愴良久曰: “年少曾有酒失, 亡親見約, 故不敢踰。” 庾袞父在, 常戒袞以酒後每醉, 輒自責曰: “予廢先人之訓, 何以訓人!” 乃於墓前, 自杖二十, 此誠可法者也。 且以我國之事言之。 昔新羅之敗於鮑石亭, 百濟之滅於落花巖, 靡不由此, 而高麗之季, 上下相師, 沈湎自恣, 竟底於亡, 此亦殷鑑之不遠也, 可不戒哉? 惟我太祖肇造丕基, 太宗繼述, 修明政教, 垂

다나, 사람의 내장[五腸]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황제가 깨닫고 좌우(左右)의 모시는 사람들에게 칙명(勅命)을 내려 날마다 술은 석 잔만 올리게 하여 끊었다. 진(晉)나라의 도간(陶侃)이 매년 술 마실 때에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더 먹으라고 권하니, 도간(陶侃)이 한참 동안 슬픈 얼굴을 하다가 말하기를, ‘소년 때에 술 때문에 실수한 일이 있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 약속한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고 하였다. 유곤(庾袞)은 그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에 항상 곧에게 술을 조심하라고 훈계하였더니, 그 뒤에 곧은 취할 때마다 문득 스스로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선인의 훈계를 저버리고 어찌 남을 훈계할 수 있겠는가.’ 하고, 드디어 아버지의 무덤 앞에 가서 스스로 매 20대를 쳤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진실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일을 가지고 말한다면, 옛날 신라가 포석정(鮑石亭)에서 패(敗)하고, 백제가 낙화암(落花巖)에서 멸망한 것이 술 때문이 아닌 것이 없다. 고려의 말기(末期)에는 상하가 서로 이끌고 술에 빠져 제멋대로 방자하게 굴다가 마침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도 또한 가까운 은감(殷鑑)이 되는 것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태조께서 일찍 큰 왕업(王業)의 터전을 만드시고, 태종께서 이어 지으시어 정치와 교화(教化)를 닦아 밝히시니, 만세에 지켜야 할 헌장(憲章)을 남기셨다. 군중이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조문을 법령에 명시(明示)하여, 오래 물들었던 풍속을 개혁하고 오직 새롭게 하는 교화를 이룩하였다. 내가 부덕(不德)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업(王業)을 계승하게 되매, 밤낮으로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편안히 다스리기를 도모하되, 지나간 옛날의 실패를 거울로 삼고 조종(祖宗)의 이루어 놓은 법을 준수(遵守)하여, 예로써 보이고 법으로써 규찰(糾察)하였다. 나의 마음쓰는 것이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건만, 그대들 신민(臣民)들은 술때문에 덕(德)을 잃는 일이 가끔 있으니, 이것은 전조(前朝)의 쇠퇴하고 미약하였던 풍조가 아직 다 없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

憲萬世，群飲之禁，著在令甲，以革舊染之俗，以致維新之化。 予以否德，叨承丕緒，夙夜祗懼，以圖治安，鑑往昔之覆轍，遵祖宗之成憲，示之以禮，糾之以法。 予之用心，非不至也，而惟爾臣民，以酒失德者，比比有之。 是前朝衰微之風，猶未殄絕，予甚憫焉。 嗚呼！酒之釀禍，若是之慘，而尙不覺悟，亦何心哉？縱不能以國家爲念，獨不顧一身之性命乎？ 朝臣有識者，尙且如此，閭巷小民，何所不至？ 獄訟之興，多出於此。 始之不謹，則末流之弊，誠可畏也。 此予之所以考古證今，反覆告戒者也。 咨爾中外大小臣民，其體予至懷，視前人之得失，爲今日之勸戒，毋好飲以廢事，勿過飲以成疾。 各敬爾儀，式遵無彝之訓； 剛制于酒，庶臻於變之風。 惟爾禮曹，體此至意，曉諭中外。 藝文應教柳義孫之辭也。 遂命鑄字所模印，頒于中外。

	<p>이므로, 내가 매우 민망하게 여긴다. 아아, 술이 해독을 끼침이 이처럼 참혹하건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또한 무슨 마음들인가. 비록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지는 못할 망정, 제 한 몸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는단 말인가. 조정에 벼슬하는 신하인 유식(有識)한 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거리의 아랫 백성들이 무슨 일인들 안하겠는가. 형사 소송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이것에서 생기는 것이 많았다. 처음을 삼가지 않으면 말류(末流)의 폐해는 진실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옛일을 고증(考證)하고 지금 일을 증거로 하여 거듭거듭 타이르고 경계하는 까닭이다. 그대들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민(大小臣民)들은 나의 간절한 생각을 본받고 과거(過去) 사람들이 실패를 보아서 오늘의 권면(勸勉)과 징계를 삼으라. 술 마시기를 즐기느라고 일을 폐(廢)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술을 과음(過飲)하여 몸에 병이 들게 하지 말라. 각각 너의 의용(儀容)을 조심하며 술을 상음(常飲) 말라는 훈계를 준수하여 굳게 술을 절제(節制)한다면, 거의 풍습(風習)을 변경시키기에 이를 것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이 나의 간절한 뜻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을 깨우쳐 타이르라.”</p> <p>하니, 예문 응교(藝文應敎) 유의손(柳義孫)이 기초한 글인데, 드디어 주자소(鑄字所)에 명령하여 인쇄하여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게 하였다.</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宣德) 8년) 12월 6일 (을묘) 4번째기사 상호군 정발을 보내 문어·해청등을 진헌하고, 야인이 노략한 인</p>	<p>상호군 정발(鄭發)을 보내어 문어(文魚) 5백 마리, 대구어(大口魚) 6백 마리, 해청(海靑) 2연(連), 백요자(白鷓子) 1연을 진헌하게 하고, 이어 상주(上奏)하기를, “선덕(宣德) 8년 윤8월 초10일에 흠차(欽差) 지휘 첨사(指揮僉事) 맹날가래(孟捏可來)와 백호 최진(崔眞) 등 관원이 칙유(勅諭)를 받들어 가지고 도착하였사온바, 그 칙지에 ‘홀라온(忽刺溫) 지방의 야인 두목 목담울(木答兀)·모련위도독(毛憐衛都督) 첨사(僉事) 살만답실리(撒滿答失里)·건주 좌위도독(建州左衛</p>	<p>遣上護軍鄭發，進文魚五百首、大口魚五百尾、海靑二連、白鷓子一連，仍奏曰： 宣德八年閏八月初十日，欽差指揮僉事(孟捏可來) [孟捏哥來]、百戶崔眞等官，齎捧到勅諭，節該：“諭忽刺溫地面野人頭目木答兀、毛憐衛都督僉事</p>

<p>구·우마를 돌려준 것에 감사하였다</p>	<p>都督) 맹가첩목아(猛哥帖木兒)·도지휘사(都指揮使) 범찰(凡察)·건주위 도지휘(建州衛都指揮) 첨사 이만주(李滿住) 등을 타일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각각 창탈(搶奪)하여 간 인구와 우마(牛馬) 등을 다 돌려주게 하였다. '고 하시매, 이를 공순히 받들어 알았습니다. 또 금년 11월 초10일에는 흠차(欽差) 백호 왕흠(王欽)·사인(舍人) 왕무(王武) 등이 우리 나라에 도착하여 말하기를, '최근에 칙유(勅諭)를 받들어 야인이 본국에서 노략하여 간 자 중에 아직 돌려주지 않은 인구 14명을 찾아서 맹날가래(孟捏可來) 등 관원에게 주어서 본국에 송환하게 되었는데, 공순히 명령을 준봉(遵奉)한 자는 제외하고, 앞으로 흘러온 지방에 갔더니, 야인이 이름을 무개도화(無開到花)라고 일컫는 자가 있는데,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윗항의 일을 맹날가래(孟捏可來) 등과 더불어 말하여 알리고자 하여, 이때에 앞서 왔다. '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신이 공순히 생각하니, 황제께서 우리 나라가 뜻밖에 야인에게 침해를 당한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특히 염려하시는 마음에서 차례로 사신을 보내어 가서 야인을 타이르게 하였습니다. 천자의 뜻이 정녕(丁寧)하시어, 신은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p>	<p>撒滿答失里、建州左衛都督猛哥帖木兒、都指揮使凡察、建州衛都指揮僉事李滿住等，令各將所搶去人口牛馬頭匹，盡行給還。”欽此。又於本年十一月初十日，欽差百戶王欽、舍人王武等到國說稱：“近奉勅諭，取要野人擄掠本國未還人口十四名，交付孟捏哥來等官，送回本國。除欽遵，前往忽刺溫地面，有野人等稱無開到花名，不肯發還。前項事，因欲與孟捏哥來等說知，爲此前來。”道罷聽此。臣欽惟皇上，憐憫小邦，橫見野人侵擾，特留宸念，節次遣使，往諭野人，天意丁寧，臣不勝感激。</p>
<p>世宗 62卷, 15年 (1433 癸丑 / 명 선덕 (宣德) 8年) 12月 7日 (丙辰) 4번째기사 예조에 전지를 내려 흉년으로 생활이 어려워므로 술을 사용하지 말것을 명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의 생활이 염려된다. 약(藥)으로 복용하기 위한 것 외에는 술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p>	<p>傳旨禮曹： 各道凶歉，民生可慮，服(樂) [藥] 外勿用酒。</p>
<p>세종 62권, 15년 (1433 계축 / 명 선덕</p>	<p>(전략) 1. ‘제향(祭享)의 예절에 있어서 재숙(齋宿)은 중요한 행사입니다. 요사이 악공(樂工)들의 재계하는 법을 보니, 제사하기 2일 전에 봉상시(奉常寺)에</p>	<p>(전략) 一。‘祭享之禮，齋宿爲重。今觀樂工致齋之法，祭前二日，會宿奉</p>



<p>(宣德) 8년) 12월 21일(경오) 3번째기사 박연이 건의한 악호·곡명의 정립과 제향·조회때의 예법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다</p>	<p>합숙(合宿)하고, 제사하기 1일 앞서 모두 제소(祭所)에 나아갑니다. 이미 재계(齋戒)라고 한다면 마땅히 출입을 금하고 그 정성이 전일(專一)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도리어 아침 저녁의 식사(食事) 때문에 그 재숙(齋宿)하는 곳을 버리고 마음대로 출입하게 되어, 사사로운 곳으로 내왕하면서 더러움에 감염(感染)하는 일을 범함이 많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의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제삿날에 향관(享官)과 집사(執事)들은 다 임시(臨時)하여 관세(盥洗)함으로써 청결하게 하지만, 당상(堂上)·당하(堂下)의 노래하고 춤추는 가공들은 그 수(數)가 매우 많고, 관세소(盥洗所)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백 명의 공인들은 밤중에 일어난 채 전연 세수하지 않아서 더럽고 무례하여 불경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인들의 재계하는 날에는 반드시 음식을 제공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재숙(齋宿)을 엄중하게 하며, 또 단(壇)이나 묘(廟)의 밖에 공인들의 세수 도구를 마련하여, 여러 공인들로 하여금 죄다 세수하게 하소서. 원묘(原廟)제향 때의 영인(伶人)들도 세수하게 하는 설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 공인들에 대한 음식 제공은 전례에 따라 예빈시(禮賓寺)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고, 세수 시설의 준비는 제소(祭所)마다 나무통 각 1개, 목기(木器) 각 50개씩 만들어 보관하게 하고, 전수자(典守者)로 하여금 물을 길어다가 공급하게 하소서.</p> <p>1. '제향(祭享)이나 조회(朝會) 때의 주악(奏樂)에 사용하는 기구와 예복(禮服)과 의식용(儀式用)의 물품은 국가의 경비가 적지 않은 것인데, 맡아 지키는 관리가 보관 수호하기를, 즐겨 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파손되고 헐어질 것이 염려됩니다. 원컨대, 지금부터는 주무관아(主務官衙)로 하여금 불시에 검찰하게 하여 그의 공(功)과 허물을 기록하였다가 포폄(褒貶)에 증빙(證憑)으로 삼게 하소서. '라고 한 조항에 대하여서는,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조(曹)의 전향사(典享司)의 낭청(郎廳)으로 하여금 불시이 가서 살피게 하소서."</p>	<p>常, 前期一日, 俱詣祭所。 既曰齋戒, 宜禁出入, 致其專一, 顧以朝夕口腹之故, 棄其齋所, 任意出入, 來往私處, 犯染多矣, 極爲未便。 此無他, 無供億故耳。 又於祭日, 享官執事, 則皆臨時盥洗, 以致涓潔, 至於堂上堂下歌舞奏伎之工, 其數極多, 而不設盥濯之所, 數百工人夜半而起, 全不盥頰, 穢汚褻慢, 不敬莫甚。 自今工人致齋之日, 須令供給, 禁絕出入, 以嚴齋宿。 又於壇廟之外, 設工人盥頰之具, 令衆工悉皆洗濯。 原廟祭伶人, 亦不可無盥頰之具。' 右條, 工人供給, 依前例, 令禮賓寺掌之。 盥頰之具, 每祭所木槽各一、木器各五十, 造作入藏, 令典守者汲水供之。 一。 '祭享朝會樂, 器服儀物, 國家經費不少, 典守官吏不肯藏護, 則未久損毀, 不可不慮。 願自今令主掌司不時檢察, 記其功過, 以憑褒貶。' 右條, 依上言, 令曹典享司郎廳, 不時往審。" 從之。</p>
--	--	---

	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63卷, 16年 (1434 甲寅 / 명 선덕 (宣德) 9年) 1月 21日 (己亥) 7번째기사 헌릉의 대·소제에 쓰 이는 세작기를 유철로 주조하기로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헌릉(獻陵)의 대·소제(大小祭)에 쓰는 세작기(洗爵器)2154) 를 유철(鑄鐵)로 주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禮曹啓: “獻陵大小祭洗爵器, 以鑄成。” 從之。
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일(기유) 1번째기사 정사를 보다. 육선을 올리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육선(肉膳)을 드리게 하였다.	己酉/視事。 進肉膳。
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4日(庚戌) 6번째기사 약으로 쓰는 술은 사 용하라고 각도 감사· 도절제사·처치사에 게 전지하다	각도 감사와 도절제사(都節制使)와 처치사(處置使)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복약(服藥)할 때에는 술을 사용하라.” 하였다.	傳旨于各道監司、都節制使、處置使, 服藥用酒。
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13일(기미) 6번째기사	양녕 대군에게 술 빚을 쌀 30석과 간장 담글 콩 30석과 탄(炭) 25석을 이천 (利川) 사저(私邸)에 내려 주었다	賜釀酒米三十石、末醬三十石、炭二 十五石于讓寧大君利川第。

<p>양녕 대군에게 술 빛을 쌀 30석, 간장 담글 콩 30석, 탄 25석을 주다</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2月 15日(辛酉) 4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도내 20고을의 기민들의 숫자와 구제상황을 보고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안주(安州)·영유(永柔)·가산(嘉山)·숙천(肅川)·박천(博川)·정주(定州)·양덕(陽德)·순천(順川)·정령(定寧)·개천(价川)·선천(宣川)·성천(成川)·의주(義州)·곽산(郭山)·태천(泰川)·삭주(朔州)·수천(隨川)·함종(咸從)·용천(龍川)·운산(雲山) 등 20고을의 기민(飢民) 남녀 노소의 총수가 3천 1백 88명인데, 정월 초하룻날에 구제할 쌀과 콩이 합하여 51석 5두 2승이요, 간장이 4석 3두 2승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道內安州、永柔、嘉山、肅川、博川、定州、陽德、順川、定寧、价川、宣川、成川、義州、郭山、泰川、朔州、隨川、咸從、龍川、雲山等二十邑飢民男女老少, 摠三千一百八十八名。正月朔賑濟米豆, 并五十一石五斗二升, 醬四石三斗二升。”</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2월 30일(병자) 4번째기사 지방 각도에 발생한 역질의 치료와 처방에 관해 예조에 전지하다</p>	<p>예조에 전지하기를, “내가 들으니 지방 각도에 역질이 퍼져 있다 하나, 그 고을 수령들이 마음을 써서 살리려고 하지 아니 한다고 하니, 그들에게 향소산(香蘇散)·십신탕(十神湯)·승마갈근탕(升麻葛根湯)·소시호탕(小柴胡湯) 등을 약재로 제작(劑作)하게 하고, 의학 생도(醫學生徒)들을 시켜서 병이 나는 대로 바로 진찰하여 치료(治療)하도록 하고, 또 각기 그 근처에 있는 무녀(巫女)들을 시켜 무시(無時)로 출입하며 죽을 쑤어 공급하게 하고, 항상 고찰하여 비명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p>	<p>傳旨于禮曹: “予聞, 外方各道疾疫興行, 各官守令不爲用心救活。其以香蘇散、十神湯、升麻葛根湯小柴胡湯合用藥材劑作, 令醫學生徒隨卽(診)候療治, 仍使各其近處巫女, 無時出入, 烹粥供給, 常加考察, 勿令夭札。”</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4日(庚辰) 5번째기사 호조에서 경외의 환곡</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지난 계묘년에 경외(京外)의 환상곡(還上穀)으로 나누어 준 쌀·콩 및 잡곡의 총수가 1백 19만 8천 5백 89석이고, 구제하여 준 쌀·콩·장(醬)의 총수가 4만 7천 2백 94석이요, 평안도(平安道)에 견감(蠲減)하여 준 환상곡인 쌀·콩·잡곡(雜穀)이 총계 5만 9천 7백 7석입니다.”</p>	<p>戶曹啓: “去癸卯年京外還上分給米豆、雜穀, 摠一百十九萬八千五百八十九石, 賑濟米豆醬, 摠四萬七千二百九十四石。平安道蠲減還上米豆、雜穀, 摠五萬九千七百七石。”</p>

<p>량과 구제용 곡식량, 평안도에 건감한 환곡량을 보고하다</p>	<p>하였다.</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7일(계미) 2번째기사 약주 10병과 청밀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다</p>	<p>약주 10병과 청밀(淸蜜) 한 그릇을 양녕 대군에게 내려 주었다.</p>	<p>賜藥酒十瓶、淸蜜一器于讓寧大君。</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2日(戊戌) 4번째기사 충청 감사가 도내 기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 보고하다</p>	<p>충청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37읍에 굶주린 백성의 수가 1천 5백 4명이요, 구제한 쌀과 콩 및 잡곡이 52석 3두이며, 간장이 7석 11두이고, 단양(丹陽)·청풍(淸風) 등 18읍이 1천 7백 65호에 환상곡으로 나누어준 쌀과 콩 및 잡곡이 3백 87석입니다.” 하였다.</p>	<p>忠淸道監司啓: “去二月朔, 道內丹陽、淸風等三十七邑飢民一千五百四名, 賑濟米豆雜穀五十二石三斗, 醬七石十一斗。 丹陽、淸風等十八邑一千七百六十五戶, 還上分給米豆雜穀三百八十七石。”</p>
<p>세종 23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3월 22일(무술) 5번째기사 평안도 감사가 도내 기민의 숫자와 구제용 곡식의 양을 정산하여 보고하다</p>	<p>평안도 감사가 계하기를, “지난 2월 초하룻날 도내의 숙천(肅川)·박천(博川) 등 30읍에 기민(飢民)이 3천 4백 35명에 구제한 쌀과 콩이 2백 45석 5두이고, 양덕(陽德)·영유(永柔) 등 22읍이 1만 1천 6백 9호에 환상곡으로 나누어준 쌀·콩·잡곡이 1천 2백 62석 4두입니다.” 하였다.</p>	<p>平安道監司啓: “去二月朔, 道內肅川、博川等三十邑飢民三千四百三十五名, 賑濟米豆二百四十五石五斗; 陽德、永柔等二十二邑一萬一千六百九戶, 還上分給米豆雜穀一千二百六十二石四斗。”</p>

<p>世宗 23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3月 27日(癸卯) 6번째기사</p> <p>황해도 감사가 국고에 충수될 의창 곡식 일부를 햇곡이 날 때까지 쓰게 해 줄 것을 청하다</p>	<p>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 각 관(官)의 의창(義倉) 원수(元數)가 쌀·콩·잡곡을 합하여 10만 6천 4백 77석인데, 그 속에서 환상곡(還上穀)으로 이미 수납된 것이 6만 2천 7백 19석이고, 미수된 것이 4만 6천 7백 57석이니, 청컨대 국고(國庫)에 충수(充數)할 것 중에서 햇곡이 성숙될 때까지 종자용과 식량으로 존절하여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黃海道監司啓: “道內各官義倉元數米豆雜穀共十萬六千四百七十七石內, 還上已收六萬二千七百十九石, 未收四萬六千七百五十七石。 請以國庫充數, 限新穀成熟, 以種子、口糧撙節分給。”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4월 9일(갑인) 3번째기사</p> <p>호조에서 사재감의 소목 지출에 여유가 있다 하여 공소목 수납의 증지를 청하다</p>	<p>호조에서 계하기를, “사재감(司宰監)에서 1년 동안 지출하는 소목(燒木)이 63만 7천 9백 47근인데, 감(監)에 지금 있는 것이 62만 3천 4백 2근이고, 또 기인(其人)의 일역(日役)과 전운서(轉運署) 노자(奴子)의 일역이 다 같이 47만 9천 13근이므로 1년에 소용되는 수효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 외방 각 관(官)에서 상납하는 금년 공소목(貢燒木) 5만 4천 3백 50근과 각 포(浦)에서 공바치는 72만근과 지난해에 미수(未收)된 2만 1천 40근은 그만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戶曹啓: “司宰監燒木一年所支六十三萬七千九百四十七斤, 監見在六十二萬三千四百二斤。 又其人日役及轉運奴子日役, 共四十七萬九千十三斤, 一年所用之數有餘。 請除外方各官上納今甲辰年貢燒木五萬四千三百五十斤、各浦貢七十二萬斤、往年未收二萬一千四十斤。” 從之。</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5月 1日(乙亥) 3번째기사</p> <p>10일이 대상인 까닭에 궐내의 육선을 금하다</p>	<p>궐내의 육선(肉膳)을 철폐하였으니, 초10일이 대상(大祥)이기 때문이었다.</p>	<p>闕內徹肉膳, 爲初十日大祥也。</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p>	<p>호조에서 계하기를, “《경제문형(經濟文衡)》을 상고하니, 주문공(朱文公)이 건녕부(建寧府) 개요</p>	<p>戶曹啓: “按《經濟文衡》, 朱文公於建寧府開耀鄉立社倉一所, 逐年斂散,</p>

<p>22년) 6월 8일(신해) 4번째기사 모자라거나 망비·도용된 의창 곡식 등의 보충 방안에 관한 호조의 계</p>	<p>향(開耀鄉)에 사창(社倉) 하나를 설치하고 해마다 곡식을 거두어 두었다가 방출하곤 하였는데,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대로 교지(教旨)를 받아 의창(義倉)의 쌀·밀가루도 1석당 그 본색(本色)에 따라 3되를 더 바치게 하여 후일의 모손(耗損)에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의창의 제도로 서울과 외방 각 고을의 모자라는 쌀·밀가루에, 망비(妄費)·도용(盜用)한 것은 정식(定式)대로 추징(追徵)하고, 그 외에 비가 새거나, 바닥이 습해서 모자라게 된 것은 그 본색에 따라 1석당 모미(耗米) 3되를 계산해서 제감(除減)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p>	<p>每一石收耗米三升。依此制受教，義倉米憵每一石，隨其本色，加納三升，以備後日之耗損。願自今義倉之制，京外各官虧欠米憵，除妄費盜用及雨漏地濕所損者，依式追徵外，隨其本色，每一石計除耗米三升。” 從之。</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4일(정사) 4번째기사 태종의 신주를 부모하는 의주에 관한 예조의 계</p>	<p>(전략)동가(動駕)를 고(告)하기 하루 전에, 통례문은 전하의 판위(板位)를 광효전 동계(東階)의 동남쪽에다가 서향으로 설치하고,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의 위차는 외정에 설치하되, 문신은 동쪽에, 무신은 서쪽으로, 중심이 머리가 되게 하고, 판위를 달리 여러 줄로 모두 북향하여 서게 한다. 그날에 전사관(典祀官)이 그 소속들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香爐)와 향합(香合)과 촛(燭)은 모두 신위 앞에 진설(陳設)하며, 찬수를 제구에 담는다. 【찬품은 예고제(預告祭)와 같다.】 존소(尊所)는 지계문[戶] 밖의 왼쪽에 설치한다. 전하는 면복(冕服)을 갖추고, 왕세자는 조복(朝服)을 입고, 행사(行事)할 집사관(執事官)은 제복(祭服)을 입고,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행사할〉 시각이 되면, 통례문은 종실(宗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大祝)이 〈신주〉 궤(櫃)를 열고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좌차(座次)에 모셔 놓고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이 궤를 열고 왕태후(王太后)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차에 모셔 놓고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되, 서쪽을 위로 하게 한다. 찬례(贊禮)는 전하를 인도하여 판위에 나</p>	<p>(전략) 告動駕：前一日，通禮門設殿下版位於廣孝殿東階東南，西向，設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於外庭，文東武西，中心爲頭，異位重行，俱北向。其日，典祀官帥其屬，入奠祝版於神位之右，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實饌具【饌品與預告祭同】設尊於戶外之左。殿下具冕服，王世子具朝服，其行事執事官服祭服，陪祭群官服朝服。時至，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王世子入就位。大祝開櫃，捧出太宗神主，設於座，覆以白苧巾。次宮闈令開櫃，捧出王太后神主，設於座，覆以青苧巾，以西爲上訖，贊禮導殿下，詣版位西向立，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p>

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한다. 전하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면,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계(東階)로 올라 존소(尊所)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고, 근시(近侍)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아서 규(圭)를 <띠에> 꽂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꽂는다. 【만약 꽂기가 불편하면 근시가 받든다.】 근시 한 사람이 향합을 받들고 꿇어앉아 올리며,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꿇어앉아서 올린다. 찬례가 향을 세 번 올리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향을 세 번 올린 다음,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진향(進香)은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는 서쪽에서 동향하여 한다.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와 같다.】 근시가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리면, 찬례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부작(副爵)을 올리면, 찬례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근시에게 주어서 왕태후 신위 앞에 드린다. 찬례가 규(圭)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大祝)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축문(祝文)을 읽고 나면, 찬례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서 동계(東階)로 내려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례가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

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導殿下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近侍二人以爵受酒，贊禮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如搯不便，近侍承奉。】近侍一人奉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贊禮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進香在東西向，奠爐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近侍捧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跪進，贊禮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近侍，奠于王太后神位前。贊禮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贊禮啓請俛伏興再拜興平身，殿下俛伏興再拜興平身。贊禮導殿下出戶，降自東階復位。贊禮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通贊唱鞠躬四拜興平身，王世子以下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贊禮啓禮畢，導殿下出，至大門外幄次卽座。知通禮引王世子出，立於外門

라 창(唱)하면, 왕세자 이하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례가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와 대문 밖의 악차에 나아가 자리[座]에 앉게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 외문(外門) 밖의 길 왼편에 서게 하고, 통례문은 종실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외문 밖에 나와 좌우로 나누어 차례대로 서게 한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은 신주를 의식대로 들어 넣고, 전사관(典祀官)은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축관을 구덩이에 묻는다. 신주를 〈모시고〉 종묘(宗廟)에 나아가는 동가제(動駕祭)를 마쳤음을 고유(告由)한다. 유사(攸司)가 옥위(褥位) 둘을 전상(殿上)에 설치하되, 신위(神位) 앞에 남향으로 한다.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은 각기 그 복색(服色)을 한다. 요여(腰輦) 둘을 옥위 위[上]에 놓는다. 【태종의 〈신주를 모실〉 여(輦)는 오른편에, 왕후의 〈신주를 모실〉 여는 왼쪽에 둔다.】 산(繖)과 선(扇)을 들여다가 전(殿)의 섬돌 사이에 좌우로 나누어 진열(陳列)한다. 도지(都知) 등은 그 복색을 하고 탁자(托子)를 받들고 좌우로 나누어 서며, 책보 누자(冊寶樓子) 등은 전정(殿庭)에 둔다. 【양위(兩位)의 누자를 각각 좌우로 나누어 둔다.】 또 옥위(褥位) 둘을 남문(南門) 밖에 설치하고, 상로(象輅) 둘을 그 앞에 남향으로 둔다. 【양위(兩位)의 상로를 좌우로 나누어 둔다.】 의장(儀仗)과 악부(樂部)는 그 남쪽에 의식대로 배립(排立)한다.

시각이 되면, 섭판통례(攝判通禮)가 들어와 태종의 신위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서, 좌차(座次)에서 내려 여(輦)를 타고 가서 부묘(祔廟)하기를 계청한다.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다음은 왕태후의 신위 앞에 나아가서 태종 신위 앞에서와 같이 하고,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내시(內侍)가 태종의 책보(冊寶)를 받들고, 또 한 내시는 왕태후의 책보를 받들어 차례로 섬돌을 내려와 누자(樓子)에 둔다. 또 내시는 안석[几]을 받들

외도左, 通禮門分引宗室以下文武群官出外門外, 分左右序立。 大祝、宮闈令納神主如儀, 典祀官帥其屬, 徹禮饌, 祝版座於坎, 神主詣宗廟。

告動駕: 祭畢, 攸司設褥位二於殿上神位前南向。 指諭、牽龍等各服其服, 以腰輦二置於褥位上, 【太宗輦在右, 王后輦在左。】 繖扇入陳於殿階間分左右。 都知等服其服, 捧托子左右分立, 置冊寶樓子等於殿庭。 【兩位樓子各分左右。】 又設褥位二於南門外, 置象輅二於其前南向。 【兩位象輅分左右。】 儀仗、樂部排立於其南如儀。

時至, 攝判通禮入詣太宗神位前跪, 啓請降座升輦祔廟, 啓訖俛伏興。 次詣王太后神位前亦如之, 俛伏興退。 內侍捧太宗冊寶, 又內侍捧王太后冊寶, 以次先降階, 置於樓子, 又內侍捧几置於輦上。 大祝捧太宗神主櫃, 安於輦上几後, 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 安於輦上几後, 【凡主出則先王神主先出, 入則先后神主先入。】 扶持降自西階, 冊寶樓子等前行。 指諭、牽龍等捧昇神輦而出, 至象輅後褥位小駐。 攝判通禮跪, 啓請降輦升輅, 啓訖俛伏興。



어 여(輦) 위에 둔다.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宮闈令)은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여 위에 있는 안석 뒤에 봉안하여 【무릇 신주를 꺼낼 때에는 선왕의 신주를 먼저 꺼내고, 들여 넣을 때에는 선왕후의 신주를 먼저 들여 넣는다.】 받들어 모시고 서계(西階)로 내려오는데, 책보 누자 등이 앞에 가고, 지유(指諭)·견룡(牽龍) 등이 신여(神輦)를 받들어 메고 나가 상로(象輅) 뒤의 옥위에 이르러 잠깐 머무른다. 섭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여(輦)에서 내려 노에 타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노 안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노에 태운다. 【대축은 노 안에 편승(便乘)하여 받들어 모신다.】 다음은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태우는데,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공신 누자(功臣樓子)는 노가 머문 앞 길[街]의 동쪽에서 노가 출발하기를 기다려서 가는데, 노의 뒤를 의식대로 따른다.】

천우 장군은 노를 양쪽에서 빠르게 모시고, 【태종의 노가 먼저 가고, 왕태후의 노가 다음에 가는데, 각각 의장과 악부가 있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연(輦)을 타고 앞에서 간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노를 잠깐 머물러 여러 관원들의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한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모두 말을 타고 앞에서 인도한다. 섭판통례는 노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렀다 엎드렸다가 물러난다. 노가 진발하면 고취(鼓吹)를 시작한다. 종묘 대문 밖에 이르러서는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말에서 내려 좌우로 차례대로 선다. 전하가 연(輦)에서 내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악차의 자리[座]에 앉으면, 고취는 중지하고 좌우로 나누어 선다. 【고취는 제향(祭享) 마치고 기다려서 물러나고, 의장(儀仗) 등은 아울러 묘 남문 밖에서 좌우로 벌여 섰다가 제향례 마치고 기다려서 물러난다.】 노가 이르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이 모두 국궁하

內侍捧几置輅中, 大祝捧太宗神主櫃升輅, 【其大祝便於輅中侍奉】 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升輅, 如上儀訖, 【功臣樓子駐輅前街東, 俟輅將發乃行, 隨輅後如儀.】 千牛將軍夾輅而趨。

【太宗輅先行, 王太后輅次之, 各有儀仗、樂部.】 判通禮導殿下升輦前行, 攝判通禮進當輅前跪啓請輅小駐, 教文武群官上馬。 啓訖, 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上馬前導。 攝判通禮啓請輅進發, 啓訖俛伏興退。 輅進發, 鼓吹振作。 至宗廟大門外, 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下馬, 左右序立。 殿下降輦, 入大門內幄次卽座, 鼓吹止, 分左右。

【其鼓吹俟享訖退, 儀仗等并於廟南門外左右列立, 俟享禮畢退.】 輅至, 王世子以下文武群官皆鞠躬, 過則平身。 輅至大門, 廻輅南向。 尙輦以腰輦進輅後褥位上, 【臨時設褥位二】 攝判通禮進當輅前跪, 啓請降輅升輦, 啓訖俛伏興。 內侍捧几, 置於輦上, 大祝、宮闈令各捧神主櫃, 安於輦上如前儀。 神輦將入大門, 判通禮導殿下就祇迎位, 神輦至, 殿下鞠躬, 過則平身, 判通禮導殿下還入次。 神輦至廟南門幄

고, 노가 지나가면 평신(平身)한다. 노가 대문에 이르면 노를 돌려서 남향하게 하고, 상연(尙輦)이 요여(腰輦)를 노(輅)의 뒤 옥위(褥位) 위에 놓는다. 【임시로 옥위 둘을 설치한다.】 섭판통례가 노 앞에 나아가서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려 여(輦)를 타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궐(神主櫃)을 받들어 여 위에 봉안하되, 앞의 의식과 같게 한다. 신여(神輦)가 대문에 들어가게 하면,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영위(祇迎位)에 나아간다. 신여가 이르면, 전하는 국궁했다가, 여가 지나간 뒤에 평신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에 돌아간다. 신여가 묘 남문의 악좌(輦座) 앞에 이르면, 섭판통례는 꿇어앉아 여에서 내려 악좌에 들기를 계청하고, 계청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두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신주궐을 받들어 악좌에 봉안한다. 【왕후의 신주는 왼쪽에 둔다.】 산·선·누자 등은 악좌 앞에 머물러 정렬(整列)한다. 【공신 누자는 신문(神門) 밖에 머무른다. 신주를 승부(升祔)한 뒤에 집사자(執事者)가 위판(位版)을 받들고 서문(西門)으로 들어와서 그 위치에 봉안한다.】 판통례는 전하를 인도하여 여(輦)를 타고 재궁(齋宮)으로 들어가는데, 산·선·화개(華蓋)·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지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위치로 들어간다. 종묘에 준(尊)·이(彝)·술[酒]·단술[醴]·점(坩)·작(爵)을 진설하고, 희생(犧牲)을 살펴 정결하다고 아뢰며, 축관을 서(署)하고, 【축문에는 부향(祔享)한다는 뜻을 아울러 기술한다.】 악기를 진설하는 것 등은 평상 의식과 같이 한다. 처음 신로(神輅)가 장차 묘에 이르게 되면, 유사는 부알(祔謁)할 옥위 둘을 묘정(墓庭) 횡계(橫階)의 남쪽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태종 신위의 옥위는 서쪽에 있게 한다.】 집례(執禮)는 전하의 판위(版位)를 설치하고, 찬자(贊者)는 여러 향관(享官)의 자리와 배제(陪祭)할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모두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前，攝判通禮跪啓請降輦入幄，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於幄座，大祝、宮闈令各捧神主櫃，安於幄座，【王后神主在左】其繖扇、樓子等停列於幄前。【功臣樓子止於神門外，神主升祔後，執事者捧位版從西門入，安於其位。】判通禮導殿下，升輦入齋宮，繖扇、華蓋、侍衛如常儀。知通禮引王世子入次，其宗廟陳設尊彝酒醴坩爵，省牲告潔，進署祝版【其祝文兼述祔享意。】陳設樂器，并如常儀。初神輅將至廟，攸司設祔謁褥位二於廟庭橫階南當中北向，【太宗褥位在西】執禮設殿下版位，贊者設諸享官位及陪祭群官位，并如常儀。晨裸時至，宗廟令、典祀官各帥其屬，入實饌具畢。贊引引監察，升自阼階，按視堂之上下，糾察不如儀者，還出。執禮帥謁者、贊者、贊引入自東門，先就階間拜位，重行北向西上四拜訖，各就位。雅樂令帥工人、二舞入就位，文舞入陳於懸北，武舞立於懸南道西。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入就位。知通禮引亞獻官，【亞獻官若非王世子，則謁者引。】謁者、贊引各引諸享官，俱

새벽 강신(降神)할 시각이 되면, 종묘령(宗廟令)과 전사관(典祀官)은 각기 그 소속(所屬)을 거느리고 들어가 찬수를 찬구(饌具)에 담고 나면, 찬인(贊引)은 감찰(監察)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와 당(堂)의 위아래를 살펴서 의식대로 못하지나 않았는가를 규찰(糾察)한 다음 돌아간다. 집례(執禮)는 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을 거느리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와, 먼저 섬돌 사이 [階間]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서서 북향하고 서쪽을 뒷자리로 하여 사배(四拜)하고 나서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아악 령(雅樂令)이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는데, 문무(文舞)는 들어와 현(懸) 북쪽에 늘어서고, 무무(武舞)는 현(懸)의 남쪽 길 서쪽에 선다. 통례문은 배제(陪祭)하는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가고, 지통례는 아헌관(亞獻官)을 인도하고, 【아헌관이 만약 왕세자가 아니면 알자가 인도한다.】 알자·찬인은 각각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모두 동문(東門)밖의 자리로 나아간다. 찬인이 감찰·전사관·대축·축사(祝史)·재랑(齋郎)·종묘령(宗廟令)·궁위령·협률랑(協律郎)·봉조관(奉俎官)과 준(尊)·뇌(罍)·비(篚)·떡(饌)을 맡은 자와 칠사공신(七祀功臣)의 축사·재랑과 준·뇌·비·떡을 맡은 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현의 북쪽 배위(拜位)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고 서쪽을 위로 하여 서면, 집례(執禮)가 ‘사배하라.’ 하면, 찬자는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전창(傳唱)한다. 【무릇 집례가 말을 하면 찬자가 모두 전창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이를 마치면, 찬인은 감찰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고, 찬인은 여러 집사(執事)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하기를 마치고 각각 제자리로 나아간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찬인은 각각 종헌관(終獻官)·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천조관(薦俎官)·진폐 찬작관(奠幣瓚爵官)과 칠사 공신(七祀功臣)의 헌관(獻官)을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 찬인은 대축·종묘령·궁위령을 인도하여 조계(阼階)로 올라와 제1실에 들어가서 감실(塋室)을 열면, 대

就東門外位, 贊引引監察、典祀官、大祝、祝史、齋郎、宗廟令、宮闈令、協律郎、奉俎官、執尊罍篚罍者, 七祀功臣祝史、齋郎、執尊罍篚罍者, 入就懸北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執禮曰四拜, 贊者傳唱鞠躬四拜與平身, 【凡執禮有辭, 贊者皆傳唱。】監察以下皆鞠躬四拜與平身訖, 贊引引監察就位, 贊引引諸執事, 詣盥洗位盥帨訖, 各就位。知通禮引亞獻官, 謁者、贊引各引終獻官、進幣瓚爵官、薦俎官、奠幣瓚爵官、七祀功臣獻官入就位。贊引引大祝、宗廟令、宮闈令升自阼階, 詣第一室, 入開(塋) [龕] 室, 大祝、宮闈令捧出神主設於座, 【詣神幄內於几後, 開匱設於座。先王神主, 大祝捧出, 覆以白苧巾。先后神主, 宮闈令捧出, 覆以青苧巾, 以西爲上。】以次捧出第二室以下神主如第一室儀。贊引引齋郎, 詣爵洗位, 洗瓚拭瓚, 洗爵拭爵, 置於篚, 奉詣泰階, 諸祝史各迎取於階上, 置於尊所坵上訖, 其殿上諸執事各逐便下階, 相向序立, 竣神舉升殿, 各復階上位。判通禮跪啓外辦, 導殿下出, 緞扇、華蓋、

축과 궁위령이 신주를 받들어 내어 좌(座)에 모신다. 【신악(神幄) 안의 안석 [几]뒤에 나아가 櫃(櫃)를 열고 좌(座)에 모신다. 선왕의 신주는 대축이 받들어 내어 흰 모시 수건으로 덮고, 선후(先后)의 신주는 궁위령이 받들어 내어 푸른 모시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제2실 이하의 신주도 차례로 받들어 내는데, 제1실의 의식과 같이 한다. 찬인이 재량을 인도하여 작세위(爵洗位)에 나아가 찬(瓚)과 작(爵)을 씻고 닦아서 광주리[筐]에 담아, 받들어 태계(泰階)로 나아가면, 여러 축사가 각각 섬돌 위에서 맞이하여 존소(尊所)의 점(坫) 위에 둔다. 이를 마치면, 전(殿) 위의 여러 집사는 각각 형편에 따라 섬돌을 내려가서 서로 마주보고 차례대로 섰다가, 신여(神輦)가 전(殿)에 오르기를 기다려 각각 섬돌 위의 제자리로 돌아간다.

판통례가 꿇어앉아서 외관(外辦)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나오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의사(禮儀使)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東門) 밖에 이르르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圭)를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규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화개와 의장은 문밖에서 머무른다. 상서사(尙瑞司) 관원이 보(寶)를 받들어 소차(小次) 옆에 진설하고,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정문(正門)으로 들어온다. 【정문은 동문(東門)을 말한다. 시위로서 들어오지 못할 자는 문밖에서 머무른다.】 협률랑(協律郎)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麾旗)를 들고 일어나면, 【무릇 물건을 취(取)하려는 자는 모두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취하여 일어난다. 물품을 드리는 때는 꿇어앉아서 드린 다음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악공(樂工)이 축(祝)을 치면,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전하는 판위(版位)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면, 【설 때마다 예의사는 전하의 왼편으로 물러선다.】 협률랑이 휘기를 눕히고 어(敵)를 치면, 풍악은 그친다. 【무릇 풍악은 협률랑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 하고 휘기를 들고 일어나면, 악공이 축을 친 뒤에 악을 시작하고, 휘기를 눕히며 어를 치면 악

侍衛如常儀。禮儀使導殿下至東門外，近侍跪進圭，禮儀使跪啓請執圭，殿下執圭。華蓋、仗衛停於門外。尙瑞官奉寶陳於小次之側，禮儀使導殿下入自正門。【東門。侍衛不應入者止於門外。】協律郎跪，俛伏舉麾輿，【凡取物者皆跪，俛伏而取以輿。奠物則跪奠訖，俛伏而後興。】工鼓祝，軒架作《承安之樂》，殿下詣版位西向立。【每立定，禮儀使退立於左。】協律郎偃麾戛敵，樂止。【凡樂協律郎跪，俛伏舉麾，典工鼓祝而後作，偃麾戛敵而後止。】初，殿下將入門，攝判通禮進當太宗神主幄前跪，啓請降座升輦附謁，啓訖俛伏興。內侍捧几置於輦上，大祝捧太宗神主櫃，安于几後。次宮闈令捧王太后神主櫃，安于几後訖，執禮【堂下執禮】引神輦至廟南門，繖扇停列於門外。【侍衛員吏皆退】齋郎等陪神輦入自正門，至附謁褥位，大祝、宮闈令各捧櫃，安於褥位開櫃。大祝捧出太宗神主，安於踏上。次宮闈令捧出王太后神主，安於踏上訖，【太宗神主在西】攝判通禮進於褥位西北面跪啓稱：“以今吉辰，太宗恭定

을 정지한다.】  
 처음에 전하가 문을 들어오려 하면, 섭판통례가 태종의 신주 악차 앞에 나아가 꿇어앉아, 좌(座)에서 내려 여를 타고 가서 부알(拊謁)하기를 계청하고, 계하기를 마치면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내시는 안석을 받들어 여 위에 두고, 대축은 태종의 신주례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한다. 다음에 궁위령이 왕태후의 신주례를 받들어 안석 뒤에 봉안하고 나면, 집례【당하관의 집례이다.】가 신여를 인도하여 묘 남문에 이르면, 산·선은 문밖에 정열(整列)한다. 【시위하는 원리(員吏)는 모두 물러간다.】 재량(齋郎)들이 신여를 모시고 정문으로 들어와 부알(拊謁)할 옥위(褥位)에 이르면, 대축과 궁위령이 각각 신주례를 받들어 옥위에 봉안하고 례를 열면, 대축은 태종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跣)위에 봉안하고, 다음에 궁위령은 왕태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부 위에 봉안한다. 【태종의 신주는 서쪽에 놓는다.】  
 섭판통례가 옥위 서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지금 길신(吉辰)이므로 태종 공정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太宗恭定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과 창덕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를 부알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난다. 조금 있다가 섭판통례가 옥위의 서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 여를 타고 가서 부향(拊享)하기를 계청하고 나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물러나 본래의 반차(班次)로 내려온다. 대축과 궁위령은 옥위에 나아가 꿇어앉아 각각 신주를 받들어서 여에 봉안한다. 【신주례 뚜껑도 여 위의 뒷편 가까운 곳에 둔다.】 신여가 올라오면 【태계(泰階)로 올라온다.】 대축과 궁위령이 제6실로 인도하여 들어가서 악좌 앞에 이른다. 내시가 안석을 받들어 악좌에 놓고, 대축과 궁위령은 각기 신주를 받들어 악좌에 봉안하고 수건으로 덮는데, 서쪽을 위로 한다. 【집사자(執事者)는 책보를 받들고 들어와서 안(案) 위에 둔다.】 요여(腰輦)는 조계(阼階)로 내려와 동문(東門)으로 나간다.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

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彰德昭烈元敬王太后拊謁。” 啓訖，俛伏興退。小頃，攝判通禮進褥位之西東面跪，啓請升輦拊享，啓訖俛伏興退，降就本班。大祝、宮闈令進跪於褥位，各捧神主安於輦。【其匱蓋亦置輦上近後。】神輦既升，【升自泰階】大祝、宮闈令奉引入第六室，至幄座前，內侍捧几置於座。大祝、宮闈令各捧神主安於座，覆以巾，以西爲上。【執事者奉冊寶入，置於案上。】其腰輦降自阼階，由東門出。禮儀使前跪，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執禮曰四拜，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先拜者不拜】執禮曰禮儀使啓請行事，禮儀使前跪，啓有司謹具請行事，退復位。軒架作《景安之樂》，烈文之舞作，九成止。近侍詣盥洗位盥帨訖，還侍立。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詣盥洗位盥帨訖，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裸鬯禮。”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詣盥洗位北向立，跪啓請搯圭，殿下搯圭。內侍跪，取匱興沃水，又內侍跪

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먼저 절한 자는 절하지 아니한다.】 집례가 ‘예의사는 행사(行事)하기를 계청하라.’ 하면, 예의사가 앞에 꿇어앉아 ‘유사(有司)가 삼가 갖추었으니 행사하기를 청한다.’ 하고 물러나 제자리에 돌아간다. 헌가(軒架)는 경안지악(景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하여 아홉 번을 거듭하고 그친다. 근시(近侍)가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를 마친 다음 조계로 올라가 익조실(翼祖室)의 준소(尊所)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관창례(裸鬯禮)를 행하라.’ 하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한다. 관세위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면, 꿇어앉아 규(圭)꽃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꽃는다. 내시(內侍)가 꿇어앉아 대야[匱]를 가지고 일어나서 물을 붓고, 또 내시 한 사람은 꿇어앉아 반(盤)을 가지고 물을 받는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서 수건을 가져다 올린다. 전하가 손을 씻으면 내시는 꿇어앉아 비(篚)에 담는다. 예의사는 규(圭)를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홀을 잡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고 나면, 【예의사·근시·내시가 따라 오른다.】 악은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서향으로 서면, 등가(登歌)는 숙안지악(肅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執尊者)가 먹(羈)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울창(鬱鬯)을 따르고, 근시는 찬(瓚)으로 울창을 받는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으로 서게 하고, 꿇어앉아서 〈전하에게〉 꿇어앉아 규를 꽃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를 꽃는다. 근시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어 꿇어앉아 올리고, 근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어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삼상향(三上香)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取盤承水，殿下盥手。內侍跪，取巾於篚以進，殿下脫手訖，內侍受巾奠於篚。禮儀使啓請執圭，殿下執圭。禮儀使導殿下升自阼階【禮儀使、近侍、內侍從升】訖，【樂止】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肅安之樂》，烈文之舞作。執尊者舉羈，進幣瓚爵官酌鬱鬯，近侍以瓚受鬱鬯，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近侍一人捧香合跪進，近侍一人奉香爐跪進，禮儀使啓請三上香，殿下三上香，近侍奠爐于案。近侍以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瓚跪進，禮儀使啓請執瓚，殿下執瓚灌地訖，以瓚授奠幣瓚爵官，奠幣瓚爵官受以授大祝。近侍以幣篚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捧幣跪進，禮儀使啓請執幣獻幣，殿下執幣獻幣，以幣授奠幣瓚爵官，奠于案。【凡進香、進瓚、進幣皆在東西向，奠爐、受瓚、奠幣皆在西東向。進爵、奠爵準此。】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上香、裸鬯、奠幣，竝如上儀

세 번 향을 올리고, 근시는 향로를 향안(香案)에 드린다. 근시가 찬(瓚)을 진폐 찬작관(進幣瓚爵官)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받아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찬 잡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찬을 잡아 땅에 부은 다음 찬을 전폐 찬작관(奠幣瓚爵官)에게 주면, 전폐 찬작관은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근시가 폐비(幣篚)를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폐백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폐(執幣) 헌폐(獻幣)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집폐 헌폐하는데, 폐백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안(案)에 드리게 한다. 【무릇 진향(進香)·진찬(進瓚)·진폐(進幣)는 모두 동쪽에서 서향하여 하고, 전로(奠爐)·수찬(受瓚)·전폐(奠幣)는 모두 서쪽에서 동향하여 하는데, 진작(進爵)·전작(奠爵)도 이에 준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도조실(度祖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桓祖室)에, 다음은 태조실에, 다음은 공정왕실(恭靖王室)에,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향을 올리고 관창(裸鬯)하며, 폐백을 드리는 것도 아울러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이것이 끝나면,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등가(登歌)는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은 모두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으로 서게 하면, 예의사가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軒架)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전하가〉 조계(阼階)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은 그친다. 등가가 그칠 때에 여러 축사(祝史)가 앞기둥 밖에서 각각 모혈반(毛血盤)·간료등(肝膋鐙)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서 신위 앞에 놓는데, 【모혈반은 등(鐙)의 뒤쪽에 놓고, 간료등은 변

訖, 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 殿下執圭俛伏興, 【登歌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 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 啓請鞠躬再拜興平身, 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樂止】當登歌止時, 諸祝史各取毛血盤、肝膋鐙於前楹外, 俱入奠於神位前。【毛血盤在鐙之後, 肝膋鐙在籩之左。】諸祝史俱取肝膋, 燔於爐炭, 還尊所饋食。殿下既升祿, 贊引引典祀官, 帥進饌者詣廚, 以匕升牛于鑊, 實于一鼎, 次升羊實于一鼎, 次升豕實于一鼎, 【每室牛羊豕各一鼎。】皆設扃冪。祝史對舉, 入設於饌幔內。謁者引薦俎官出詣饌所, 奉俎官隨之, 俟殿下祿訖復位。

【樂止】執禮曰進饌, 祝史抽扃委于鼎右, 除冪加匕畢于鼎。典祀官以匕升牛實于牲匣, 次升羊豕, 各實于牲匣。

【每室牛羊豕各一匣。】次引薦俎官奉翼祖室俎, 奉俎官各奉牲匣, 典祀官引饌入自正門。【南門】俎初入門, 【軒架作《雍安之樂》】諸祝史俱進徹毛血槃, 自阼階授齋郎以出。饌至

(籩)의 왼쪽에 놓는다.】 여러 축사가 함께 간요를 가져와서 화로의 숯불에 구워 준소(尊所)로 돌아가 궤식(饋食)한다. 전하가 이미 관창(裸鬯)을 올렸으며, 찬인이 전사관(典祀官)을 인도하고, 진찬자(進饌者)를 거느리고 부엌[廚]에 나아가, 비(匕)로 우(牛)를 확(鑊)에서 들어올려 정(鼎)에 담고, 다음은 양(羊)을 들어올려 정에 담고, 다음은 시(豕)를 들어올려 정에 담는데,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정씩이다.】 모두 경떡(肩羶)을 설치한다. 축사(祝史)가 맞들고 들어가서 찬만(饌幔) 안에 진설한다. 알자(謁者)는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나와 찬소(饌所)에 나아가는데, 봉조관(奉俎官)이 따른다. 전하가 관창을 마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집례가 ‘진찬(進饌)’ 하면, 축사는 경(肩)을 뽑아 정(鼎) 오른쪽에 두고, 떡(羶)을 벗긴 다음 비(匕)와 필(畢)을 정(鼎)에 얹어 둔다. 전사관(典祀官)이 비(匕)로 우를 들어올려 생갑(牲匣)에 담고, 다음에 양과 시를 들어올려 각각 생갑에 담는다. 【실(室)마다 우·양·시가 각각 한 갑씩이다.】 다음은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익조실의 조(俎)를 받들고, 봉조관(奉俎官)은 각각 생갑을 받드는데, 전사관이 찬(饌)을 인도하여 정문(正門) 【남문.】 으로 들어온다. 조(俎)가 문에 처음 들어올 무렵에, 헌가(軒架)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여러 축사는 함께 나아가서 모혈반(毛血盤)을 걸어서 조계(阼階)를 통해 재랑(齋郎)에게 주어 보낸다. 찬(饌)이 태계(泰階)에 이르면, 여러 대축(大祝)이 섬돌 위에서 맞이한다. 천조관(薦俎官)이 익조의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꿇어앉아 드리는데, 먼저 우를 드리고, 다음은 양, 다음은 시를 드린다. 【여러 대축이 드리는 것을 돕는다.】 드리기를 마치고, 생갑(牲匣)의 뚜껑을 연다. 도조실에 나아가고, 다음은 환조실, 다음은 태조실, 다음은 공정왕실, 다음은 태종실에 나아가서 받들어 드리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하고 나면, 악은 그친다. 알자는 천조관 이하를 인도하여 조계로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 대축은 각기 소(蕭)·서직(黍稷)을 가지고 고기 기름을 묻혀 화로의 숯불에 구워서

泰階，諸大祝迎於階上。薦俎官詣翼祖神位前北向跪奠，先薦牛，次薦羊，次薦豕。【諸大祝助奠】奠訖，啓牲匣蓋，詣度祖室，次詣桓祖室，次詣太祖室，次詣恭靖王室，次詣太宗室奉奠，竝如上儀訖，【樂止】謁者引薦俎官以下降自阼階復位。諸大祝各取蕭黍稷揉於脂，燔於爐炭，還尊所。謁者引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升詣翼祖室尊所北向立，執禮曰：“禮儀使導殿下行初獻禮。”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升自阼階訖，【樂止】詣翼祖室尊所西向立。【登歌作壽安之樂，列文之舞】[烈文之舞]作]執尊者舉羶，進幣瓚爵官酌醴齊，近侍二人以爵受酒，禮儀使導殿下，詣神位前北向立，跪啓請跪搯圭，殿下跪搯圭，近侍以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神位前。近侍以副爵授進幣瓚爵官，進幣瓚爵官奉爵跪進，禮儀使啓請執爵獻爵，殿下執爵獻爵，以爵授奠幣瓚爵官，奠于王后神位前。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小退北向跪，殿下執圭，俛伏興小退北



준소로 들어간다. 알자는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을 인도하여 익조실(翼祖室)의 준소로 올라가 북향하여 서면,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초헌례(初獻禮)를 행하라.’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면,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는데, <전하가> 조계로 오르기를 마치면 악이 그친다. 익조실의 준소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등가(登歌)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열문지무(烈文之舞)를 시작한다. 집준자가 먹(羶)을 들면, 진폐 찬작관이 예제(醴齊)를 따르고, 근시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圭)를 쫓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서 규를 쫓는다. 근시가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執爵) 헌작(獻爵)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근시가 부작(副爵)을 진폐 찬작관에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어 꿇어앉아서 올린다. 예의사가 집작 헌작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전폐 찬작관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도록 한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여 꿇어앉으면, 악은 그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편에 나아가 동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고 나면, 악은 시작된다. 예의사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오고, 악은 그친다. 차례로 작헌(酌獻)하는데, 모두 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익조실에는 소녕지곡(昭寧之曲)을, 도조실에는 정명지곡(貞明之曲)을, 환조실에는 위명지곡(威明之曲)을, 태조실에는 소명지곡(昭明之曲)을, 공정왕실에는 순명지곡(純明之曲)을 태종실에는 인명지곡(仁明之曲)을 노래한다. 】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곡

向跪。【樂止】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樂作】禮儀使啓請俛伏興，殿下俛伏興。禮儀使導殿下出戶，【樂止】以次酌獻竝如上儀。【翼祖室歌昭寧之曲，度祖室歌貞明之曲，桓祖室歌威明之曲，太祖室歌昭明之曲，恭靖王室歌純明之曲，太宗室歌仁明之曲。】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殿下執圭俛伏興。【曲終樂止】進幣瓚爵官、奠幣瓚爵官，皆降復位。禮儀使導殿下出戶，就前楹外當中北向立。禮儀使跪啓請鞠躬再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禮儀使導殿下【軒架作承安之樂】降自阼階復位。禮儀使跪啓請入小次，殿下將至小次，禮儀使跪啓請釋圭，近侍受圭，殿下入小次簾降。【樂止】文舞退武舞進，軒架作《舒安之樂》，舞者立定，樂止。亞終獻：【七祀功臣酌獻附】初，殿下將復位，執禮曰：“行亞獻禮。”知通禮引亞獻官，詣盥洗位北向立，贊搯笏，盥手悅手訖，【盥手悅手不贊】贊執笏。引亞獻官升自阼階，詣翼祖室尊所西向立，【軒架作壽安之樂，昭武之舞作，鄉樂交奏。】執尊者舉羶酌盞

(曲)이 끝나고, 악도 그친다. 진폐 찬작관과 전폐 찬작관도 모두 내려와서 제 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지계문을 나와 앞기둥[前楹] 밖의 한가운데에 북향하여 서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조계로 내려와 위치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소차(小次)에 들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소차에 이르면 예의사는 꿇어앉아 규 놓기를 계청하여, 근시가 규를 받는다. 전하가 소차에 들면, 주렴을 내리고, 악은 그친다. 문무(文舞)는 물러나고, 무무(武舞)가 나오면, 헌가는 서안지악(舒安之樂)을 시작하는데, 무자(舞者)가 지정된 자리에 서면, 악도 그친다.

아헌·종헌은 【칠사 공신의 작헌(酌獻)도 덧붙인다.】 처음에 전하가 소차로 돌아가게 되면, 집례(執禮)가 ‘아헌례를 행하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고, ‘홀(笏)을 꽂으라.’ 찬(贊)한다.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면, 【손을 씻고 닦는 것은 찬하지 아니한다.】 ‘홀을 잡으라.’ 찬한다. 아헌관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 익조실의 준소(尊所)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헌가는 수안지악(壽安之樂)과 소무지무(昭武之舞)를 시작하며, 향악(鄉樂)도 섞어 아뢴다. 집준자가 먹(幕)을 들고 앙제(盎齊)를 따르면, 집사자(執事者) 두 사람이 작(爵)으로 술을 받는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꿇어앉아 홀을 꽂으라.’ 찬하여, 아헌관은 꿇어앉아서 홀을 꽂는다. 집사자가 작을 아헌관에게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집사자가 부작(副爵)을 아헌관에 주면, 아헌관이 집작 헌작하는데, 작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 신위 앞에 드리게 한다. 지통례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라.’고 찬하여, 아헌관이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이 그친다. 인도하여 나와 앞기둥 밖의 한가운데에서 북향하여 서면, 지통례가 ‘국궁, 재배, 흥, 평신’

齊, 執事者二人以爵受酒。 知通禮引亞獻官, 詣神位前北向立, 贊跪搯笏, 亞獻官跪搯笏。 執事者以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神位前。 執事者以副爵授亞獻官, 亞獻官執爵獻爵, 以爵授執事者, 奠于王后神位前。 知通禮贊執笏俛伏興, 亞獻官執笏俛伏興。 引出以次酌獻, 竝如上儀訖, 知通禮贊執笏俛伏興, 亞獻官執笏俛伏興。 【樂止】 引出就前楹外當中北向立, 知通禮贊鞠躬再拜興平身, 亞獻官鞠躬再拜興平身, 引降復位。 亞獻官獻將畢, 執禮曰: “行終獻禮。” 謁者引終獻官, 行禮如亞獻儀, 引降復位。 初, 終獻官既升, 贊引引七祀獻官, 詣盥洗位, 搯笏盥手脫手訖, 執笏詣尊所, 執尊者舉幕酌酒。 執事者以爵受酒, 獻官詣神位前西向跪搯笏, 執事者授爵, 獻官執爵獻爵奠爵, 以次奠訖, 執笏俛伏興, 就司命神位前西向跪。 祝就獻官之左北向跪, 讀祝文訖, 獻官少退當中西向再拜, 贊引引復位。 初, 七祀獻官將詣盥洗位, 贊引引配享功臣獻官, 詣盥洗位, 搯笏盥手脫手訖, 執笏詣尊所, 執尊者舉幕

이라 찬하면, 아헌관은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아헌관이 헌작을 마치게 되면, 집례가 ‘종헌례(終獻禮)를 행하라.’ 한다. 알자는 종헌관을 인도하여 아헌(亞獻)하던 의식대로 행례(行禮)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종헌관이 올라오면, 찬인이 칠사 헌관(七祀獻官)을 인도하여 관세위(盥洗位)에 나아가 홀을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떡(饘)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 홀을 꽂으면, 집사자가 작을 준다. 헌관이 집작(執爵) 헌작(獻爵) 전작(奠爵)하는데,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사명(司命) 신위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꿇어앉아서 축문을 읽는다. 이것이 끝나면, 헌관은 조금 물러나 한가운데에서 서향하여 재배하고,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처음에 칠사 헌관이 관세위에 나아가게 되면, 찬인이 배향 공신(配享功臣)의 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홀을 꽂고 손을 씻고 닦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고 준소로 나아간다. 집준자가 떡(饘)을 들고 술을 따르면, 집사자는 작으로 술을 받는다. 헌관이 신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서서 홀을 꽂으면, 집사자는 작을 주어, 헌관이 집작 헌작 전작한다. 차례로 작을 드리기를 마치고 나서 홀을 잡으면, 축사가 교서(敎書)를 받들고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서서 읽는다. 〈읽는 것이 끝나면〉 찬인이 헌관을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음복(飲福)은, 초헌·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오면, 알자가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薦俎官)을 인도하여 조계로 올라가 음복위(飲福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대축이 익조실의 준소에 나아가 작으로 상준(上尊)의 복주(福酒)을 따른다. 또 대축이 조(俎)를 가지고 신위 앞에 나아가 조의 〈담긴〉 고기를 들어

酌酒, 執事者以爵受酒。 獻官詣神位前東向立搯笏, 執事者授爵, 獻官執爵獻爵奠爵, 以次奠訖執笏。 祝史奉敎書, 進神位之右立讀訖, 贊引引獻官復位飲福。 初, 終獻官既復位, 謁者引進幣瓚爵官、薦俎官升自阼階, 詣飲福位北向立。 大祝詣翼祖室尊所, 以爵酌上尊福酒, 又大祝持俎, 進減神位前俎肉, 執禮曰: “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 禮儀使跪啓請詣飲福位, 簾捲出次, 【軒架作《承安之樂》】 近侍跪進圭, 禮儀使跪啓請執圭, 殿下執圭, 禮儀使導殿下詣飲福位西向立。 【樂止, 登歌作《壽安之樂》】 大祝以爵授進幣瓚爵官, 進幣瓚爵官奉爵北向跪進, 禮儀使跪啓請跪搯圭, 殿下跪搯圭, 受爵飲訖, 進幣瓚爵官受虛爵, 以授大祝, 大祝受復於坵。 大祝以俎授薦俎官, 薦俎官奉俎北向跪進, 禮儀使啓請受俎, 殿下受俎, 以授近侍, 近侍奉俎降自阼階出門, 授司饗。 進幣瓚爵官、薦俎官皆降復位。 禮儀使啓請執圭俛伏興, 殿下執圭俛伏興。 【樂止】 禮儀使導殿下 【軒架作《承安之樂》】 降復位, 【樂止】 跪啓請鞠躬再

낸다. 집례가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라.’ 하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음복위에 나아가기를 계청한다. 주렴을 걷고 소차에서 나오면, 헌가는 승안지악을 시작한다. 근시가 꿇어앉아서 규(圭)를 올리면, 예의사는 꿇어앉아서 규를 잡도록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으면, 예의사는 전하를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고, 악은 그치고, 등가는 수안지악을 시작한다. 대축이 작을 진폐 찬작관에게 주면, 진폐 찬작관이 작을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꿇어앉아서, 꿇어앉아 규를 꽂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꿇어앉아 규를 꽂고, 작을 받아 마시고 나면, 진폐 찬작관이 빈 잔을 받아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이를 받아서 다시 점(坫) 위에 놓고, 대축은 조(俎)를 천조관에게 주면, 천조관이 조를 받들고 북향하여 꿇어앉아 올린다. 예의사가 조(俎)받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조를 받아 근시에게 주는데, 근시는 조를 받들고 조계로 내려와 문을 나와 사옹(司饗)에게 주고, 진폐 찬작관과 천조관은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예의사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고,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며,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악이 그친다. 꿇어앉아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집례가 ‘변(籩)·두(豆)를 철거하라.’ 하면, 여러 대축이 묘실에 들어가 변·두를 철거하며, 【철거한다는 것은 변·두 각 하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옮긴다.】 등가는 용안지악(雍安之樂)을 시작한다. 칠사 공신의 축사·재량도 각각 변·두를 철거하는데, 철거를 마치면, 악은 그치고, 헌가는 경안지악(景安之樂)을 아뢰며, 향악(鄉樂)도 섞어서 아뢰다. 예의사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기를 계청하여, 전하는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拜興平身，殿下鞠躬再拜興平身。執禮曰再拜，在位者皆鞠躬再拜興平身。執禮曰徹籩豆，諸大祝入室徹籩豆，【徹者，籩豆各一小移於故處。登歌作《雍安之樂》。】七祀功臣祝史、齋郎各徹籩豆。徹訖，樂止，軒架作《景安之樂》，鄉樂交奏。禮儀使啓請鞠躬四拜興平身，殿下鞠躬四拜興平身。執禮曰四拜，在位者皆鞠躬四拜興平身。【樂一成止】禮儀使啓禮畢，導殿下還齋宮【軒架作《承安之樂》】出門。【樂止】禮儀使跪啓請釋圭，殿下釋圭，近侍跪受圭，侍衛如常儀。【入齋宮釋冕服】執禮曰望瘞，知通禮引亞獻官，詣望瘞位北向立，執禮帥贊者，詣望瘞位西向立，諸大祝取黍稷飯，藉用白茅束之，以筐取祝版及幣，降自西階置於坎。執禮曰可瘞，置土半坎，宗廟令監視。知通禮引亞獻官，謁者贊引各引諸享官出，執禮率贊者還本位，通禮門分引陪祭宗室以下文武群官以次出。贊引監察及諸執事俱復懸北拜位。立定，執禮曰四拜，監察及諸執事皆鞠躬四拜興平身訖，贊引以次引出。雅樂令帥工人、二舞出，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자리에 있는 자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도 한 차례 연주하다가 그친다. 예의사는 예(禮)를 마쳤음을 아뢰고, 전하를 인도하여 재궁(齋宮)으로 돌아가고, 헌가는 승안지악(承安之樂)을 시작하고, 문을 나오면, 악은 그친다. 예의사가 꿇어앉아 규를 놓기를 계청하여 전하가 규를 놓으면, 근시가 꿇어앉아 규를 받고, 시위(侍衛)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재궁에 들어가 면복(冕服)을 벗는다.】 집례가 ‘망예(望瘞)’라 하면, 지통례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망예위(望瘞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집례가 찬자를 거느리고 망예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여러 대축이 서직반(黍稷飯)을 백모(白茅)로 깔아서 묶고, 비(篚)로 축판과 폐백을 담아 서계(西階)로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는다. 집례가 ‘가예(可瘞)’라 하면, 흙으로 구덩이를 반쯤 메우는데, 종묘령이 감시한다. 지통례는 아헌관을 인도하고, 알자와 찬인은 여러 향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집례는 찬자를 거느리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례문은 배제한 종실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찬인은 감찰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현(懸) 북쪽의 배위(拜位)에 돌아가 선다. 집례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과 여러 집사는 모두 몸을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찬인이 차례로 인도하여 나가고, 아악 령(雅樂令)은 악공(樂工)과 이무(二舞)를 거느리고 나간다. 대축·종묘령·궁위령은 〈감실(塙室)에〉 신주를 들여놓기를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집례는 알자·찬자·찬인을 거느리고 배위에 나아가 사배하고 나간다. 칠사(七祀)의 헌관은 서문(西門) 밖의 칠사의 예감(瘞坎) 남쪽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집사자가 축판을 예감에 놓고 묻는다. 공신의 축사(祝史)는 교서(敎書)를 받들어 서문 밖에 나가서 불사르고 물러난다. 전사관·종묘령은 각기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걷어치우고, 궁위령은 지계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간다.

거가 환궁(車駕還宮)은, 유사가 대가(大駕)의 노부(鹵簿)를 돌아갈 길에 진열

大祝、宗廟令、宮闈令納神主如常儀。執禮帥謁者、贊者、贊引就拜位四拜而出。七祀獻官詣西門外七祀瘞坎之南北向立，執事者置祝版於瘞坎。瘞訖，功臣祝史奉敎書，出西門外焚之退，典祀官，宗廟令各帥其屬徹禮饌，宮闈令闔戶以降乃退。

車駕還宮：攸司陳大駕鹵簿於還途如常儀，典樂令陳樂部於齋宮南門外。王世子以下文武群官，各具朝服，殿下服冠袍。王世子以下文武群官序立於大門外，文武侍臣詣齋宮迎，判司僕進象輅於大門外南向，千牛將軍立於輅前。判通禮跪啓外辦，判司僕升執綏，殿下乘輿出次，繖扇、華蓋侍衛如常儀。千牛將軍前執轡，殿下至門外降輿升輅，判司僕立受綏，知通禮跪啓請車駕進發，退復位。車駕動，千牛將軍夾輅而趨，至侍臣上馬所，知通禮跪啓：“請車駕小駐，敎侍臣上馬。”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可，通贊唱文武侍臣上馬，尙瑞官奉寶前導。知通禮跪，啓請敎車右升，判通禮前承旨退稱曰敎可，知通禮退復位。千牛將軍升訖，知通禮跪，啓請車駕進發，退復位。

하는데,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전악령(典樂令)은 제궁(齊宮) 남문 밖에다가 악부(樂部)를 배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각기 조복(朝服)을 갖추고, 전하는 관을 쓰고 도포[袍]를 입는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은 대문 밖에 차례대로 서고, 문무 시신(侍臣)은 제궁에 나아가서 맞이한다. 판사복(判司僕)은 상로(象輅)를 대문 밖에 남향하여 진배(進拜)하고, 천우 장군(千牛將軍)은 노(輅) 앞에 선다. 판통례는 꿇어앉아서 외판(外辦)을 아뢰고, 판사복은 올라와 유(綏)를 잡는다. 전하가 여(輿)를 타고 악차에서 나오면, 산(繖)·선(扇)·화개(華蓋)·시위는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천우 장군이 앞에서 고삐를 잡는다. 전하가 문밖에 이르러, 여에서 내려 노를 타면, 판사복은 서서 유(綏)를 받는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시신(侍臣)이 말을 타는 장소에 이르면, 지통례가 꿇어앉아, ‘거가를 잠깐 머물러 시신들이 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라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可)하다고 하신다.’ 하고, 통찬(通贊)이 ‘문무 시신은 말을 타라.’고 창한다. 상서관(尙瑞官)은 보(寶)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한다. 지통례가 꿇어앉아서, ‘수레 오른편에 타기를 허락하는 교지를 내리소서.’ 하고 계청하면, 판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교지를 받들어 가지고 물러나와 말하기를, ‘가하다고 하신다.’ 하고, 지통례는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천우 장군이 타고 나면, 지통례는 꿇어앉아서 거가가 진발(進發)하기를 계청하고 물러나 제자리로 돌아간다. 거가가 움직이면, 고취(鼓吹)를 울리면서 환궁하는데, 문무 여러 신하가 인도하여 따르는 것은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거가가 경복궁 문밖의 시신이 말에서 내리는 장소에 이르면, 거가는 잠깐 멈추고, 문무 시신은 모두 말에서 내려 나누어 서서 국궁(鞠躬)하고, 천우 장군은 <수레에서> 내려 노 오른편에 선다. 거가가 움직이면, 천우 장군은 노

車駕動，鼓吹振作而還，文武群臣導從如常儀。駕至景福宮門外侍臣下馬所，車駕小駐，文武侍臣皆下馬分立鞠躬。千牛將軍降立於輅右，車駕動，千牛將軍夾輅而趨，駕至勤政門，【樂止】回輅南向。判通禮進輅前跪，啓請降輅，俛伏興還侍立，殿下降輅，乘輿以入，繖扇、華蓋、侍衛如常儀，侍臣從至殿庭。攸司鋪幄座於勤政殿當中南向，設香爐二於前楹外，設案於殿階上。通禮門設協律郎位於殿階上近西東向，設左右侍臣及王世子以下文武群官位如常儀。繖扇、仗衛陳於殿階上下，樂部陳於群官之南如常儀訖。禮曹員引諸道進箋員由東門入，樂官奏樂前導至正門外，【樂止】升自東階，以箋文置於案上訖退。王世子以下文武群官及諸道進箋員，皆就門外位，典樂令帥工人就位，協律郎就位，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入就位。通贊唱班齊，判通禮進跪啓請陞殿。中禁傳嚴，爐烟升，尙瑞官奉寶前行，殿下乘輿以出。上護軍啓看，協律郎跪俛伏舉麾興。【樂作】典儀招通贊贊鞠躬，群官皆鞠躬。殿下升座，上護軍啓看，協

양쪽에서 빠르게 모신다. 거가가 근정문(勤政門)에 이르면, 악은 그치며, 노를 돌려서 남쪽을 향하게 한다. 관통례가 노 앞에 꿇어앉아서, 노에서 내리기를 계청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돌아와 시립(侍立)한다. 전하는 노에서 내려 여를 타고 들어가는데, 산·선·화개·시위는 보통때의 의식과 같이 하고 시신은 전정(殿庭)까지 따른다. 유사는 근정전 한가운데에 남향으로 악좌(幄座)를 포설(鋪設)하고, 향로(香爐) 둘을 앞기둥 밖에 베풀며, 안(案)은 전(殿)의 섬돌 위에 베풀다. 통례문은 협률랑(協律郎)의 자리를 전(殿)의 섬돌 위에 서쪽으로 가까이 동향하여 설치하고, 좌우 시신(侍臣)과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의 자리를 설치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산·선·장위(仗衛)는 전의 섬돌 위 아래에 진열(陳列)하고, 악부(樂部)는 여러 관원의 남쪽에 진열(陳列)하되, 보통 때의 의식과 같이 한다.

예조 관원(禮曹官員)이 여러 도(道)의 전문(箋文)을 올리는 관원을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오면, 악관(樂官)이 악을 아뢰면서 앞에서 인도하고, 정문(正門) 밖에 이르면, 악은 그친다. 동계로 올라가서 전문(箋文)을 안(案) 위에 놓고 나서 물러간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과 여러 도의 진전관(進箋官)은 모두 문밖의 자리로 나아가고, 전악 령(典樂令)은 악공을 거느리고 자리에 나아가며, 협률랑도 자리로 나아가간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로 나아가면, 통찬은 ‘반열(班列)을 정제(整齊)하라.’ 창(唱)한다. 관통례가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서 전(殿)에 오르기를 계청하고, 중금(中禁)이 엄(嚴)을 전(傳)하고, 향로에서 향연(香烟)이 오르면, 상서관(尙瑞官)이 보(寶)를 받들어 앞서 가고, 전하는 여(輿)를 타고 나오는데, 상호군(上護軍)이 간심(看審)하기를 아뢴다. 협률랑이 꿇어앉아서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휘(麾)를 들고 일어나면, 악은 시작된다. 전의(典儀)가 통찬(通贊)을 불러서 ‘국궁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국궁한다. 전하가 좌(座)에 오르면, 상호군이 간심하기를 아뢴다. 협률랑이 휘를 놓히면, 악은 그친다. 통찬이

律郎偃麾。【樂止】通贊贊平身，群官皆平身。典儀招通贊贊致詞，致詞官【致詞官通禮門】代班首，就月臺中心近北。通贊贊跪，群官皆跪。致詞曰：“具銜臣某等，大祀既成，禮當慶賀。”俛伏興退復位。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通贊贊跪，群官皆跪，山呼，【千歲】山呼，【千歲】再山呼。【千千歲】通贊贊俛伏興四拜興平身，【樂作】群官皆俛伏興四拜興平身。【樂止】典儀唱進箋，執事官舉諸道箋案，由東門入，判通禮引至簾前置案訖，判通禮贊宣箋，宣箋官宣最高官箋文訖，執事官撤箋案，置於寶案之南。判通禮跪啓禮畢，通贊贊禮畢，殿下降座，【樂作】通贊贊鞠躬，群官皆鞠躬。殿下乘輿以入，【樂止】贊平身，群官皆平身。通禮門分引王世子以下文武群官以次出。還宮時，義禁府、軍器監進讎禮雜戲於宗廟洞口，成均館生徒等進歌謠於鍾樓西街，教坊進歌謠於惠政橋邊，仍呈才，又於景福宮門外左右結山臺。殿下既還宮受賀禮如儀畢，仍頒教書及有旨，賜享官諸執

	<p>‘평신(平身)하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평신한다. 전의가 통찬을 불러서 ‘치사(致詞)하라.’ 찬하면, 치사관(致詞官)이 【치사관은 통례문이다.】 반수(班首)를 대신하여 월대(月臺)의 중심에서 북쪽으로 가까이 나아간다. 통찬이 ‘꿋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꿋어앉는다. 치사(致詞)가 말하기를, ‘구함(具衡) 신 아무 등은 대사(大祀)를 이미 마쳤으니, 경하(慶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고,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제자리로 물러 나간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 통찬이 ‘꿋어앉으라.’ 찬하면, 여러 관원은 모두 꿋어앉아, ‘산호(山呼) 【천세(千歲).】 , 산호 【천세(千歲).】 , 재산호(再山呼) 【천천세.】 ’ 한다. 통찬이 ‘면, 복, 흥, 사배, 흥, 평신’이라 찬하면, 악이 시작되고 여러 관원은 모두 구부렸다 엎드렸다 일어나서,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악은 그친다.</p> <p>전의(典儀)가 ‘전문(箋文)을 올리라.’고 창(唱)하면, 집사관이 여러 도의 전문안(箋文案)을 들고 동문(東門)으로 들어오는데, 판통례가 주렴 앞까지 인도해 와서 안(案)에다 놓는다. 판통례가 ‘전문을 펴라.’고 찬하면, 선전관(宣箋官)은 &lt;직계(職階)가&gt; 가장 높은 관원의 전문을 선독(宣讀)한다. 이를 마치면, 집사관이 전문안을 거두어 보안(寶案) 남쪽에 놓는다. 판통례는 꿋어앉아서, ‘예(禮)가 끝났다.’고 계하면,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찬한다. 전하가 좌에서 내려오면, 악이 시작되고, 통찬이 ‘국궁’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굽히고, 전하가 여를 타고 들어오면, 악은 그친다. ‘평신’이라 찬하면, 여러 관원이 모두 몸을 바로 한다. 통례문이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관원을 나누어 인도하여 차례로 나온다.</p> <p>환궁(還宮)할 때에 의금부와 군기감(軍器監)에서는 나례(儼禮)와 잡희(雜戲)를 종묘의 동구(洞口)에서 벌이고, 성균관 생도(成均館生徒)들은 종루(鍾樓) 서가(西街)에서 가요(歌謠)를 아뢰며, 교방(敎坊)에서는 혜정교(惠政橋) 가에서 가</p>	<p>事宴。</p>
--	--	------------



	<p>요를 아뢰고, 이어 정재(呈才)하며, 또 경복궁 문밖 좌우에는 산디[山臺]를 맺는다. 전하가 환궁한 뒤에 하례를 의식대로 받고 나서, 이어 교서(敎書)와 유지(有旨)를 내리고, 향관(享官)과 여러 집사에게 잔치를 하사한다.” 하였다.</p>	
<p>世宗 24卷, 6年(1424 甲辰 / 명 영락(永樂) 22年) 6月 16日(己未) 5번째기사 일본국 구주 원의준이 토산물을 바치다</p>	<p>구주 원의준(原義俊)이 사람을 시켜 토산물을 바쳤는데, 선자(扇子) 1백 자루, 소목(蘇木) 2천 근, 금란(金欄) 1단, 동(銅) 5백 근, 서각(犀角) 2본, 주절부(朱折敷) 20편(片), 견(絹) 10필, 사금(砂金) 1봉지, 단사(丹砂) 4근, 빈랑자(檳榔子) 10근이었다. 돌아가는 편에 정포(正布) 5백 30필을 하사하였다.</p>	<p>九州原義俊使人獻土宜。 扇子一百把、蘇木二千斤、金欄一段、銅五百斤、犀角二本、朱折敷二十片、絹一十匹、砂金一裹、丹砂四斤、檳榔子一十斤、回賜正布五百三十四。</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18일(신유) 2번째기사 예조가 계한 태종과 원경 왕후의 위판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p>	<p>예조에서 태종 대왕과 원경 왕후의 위판(位版)을 광효전에 봉안하는 의주(儀注)를 아뢰었는데,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는 임시로 봉안할 악차[幄]를 광효전 서쪽에 동향으로 땅의 형편에 따라 설치하고, 유사(有司)는 상석(床席)과 욕위(褥位) 둘을 악차 안에 설치한다. 봉상시(奉常寺)에서 먼저 위판(位版) 둘을 독(櫝)과 아울러 만들어 두었다가, 이 때에 요여(腰輿)로 받들어 광효전으로 나아간다. 【연주(練主)의 예(例)와 같다.】 대축과 궁위령(宮闈令)이 각각 위판과 독을 욕위에 봉안(奉安)한다. 【태종의 위판을 북쪽에 둔다.】 부묘(祔廟)하는 날에 상로(象輅)가 진발(進發)하는 것을 기다려, 집사(執事)는 광효전 신악(神幄)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卓子)를 설치하고, 【붓·벼루·먹·광칠(光漆)을 갖춘다.】 동계의 동남쪽에 북향으로 관세위(盥洗位)를 설치한다. 헌관(獻官)과 여러 집사들은 각기 제복(祭服)을 갖춘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와서 탁자의 남쪽에 북향하여 선다. 대축은 태종의 위판과 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 탁자 위에 눕혀 둔다. 제위판관(題位版官)이 손을 씻고 동계로 올라와 탁자 앞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서, ‘유명 증시 공정 태종 성덕 신공 문무 광효 대왕(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이라 먹으로 쓴</p>	<p>禮曹啓太宗大王、元敬王后位版奉安廣孝殿儀註： 前一日，忠扈衛設權安幄於廣孝殿之西東向，隨地之宜，有司設牀席褥位二於幄內。 奉常寺先造位版二并櫝，至是以腰輿奉詣廣孝殿，【如練主例】大祝、宮闈令各奉位版櫝， 安於褥位。 【太宗位版在北】祔廟日， 竣象輅進發， 執事設卓於廣孝殿神幄東南西向， 【具筆硯墨、光漆】設盥洗於東階東南北向。 獻官、諸執事各具祭服， 謁者引獻官， 升自東階， 詣卓南北向立。 大祝奉太宗位版櫝以入， 開櫝奉出位版， 臥置卓上。 題位版官盥手， 升自東階， 詣卓前西向立， 題云有明贈諡恭定太宗聖德神功文武光孝大王， 墨書</p>

다음, 광칠(光漆)로 여러 번 칠한다. 【떡 글씨가 마르기를 기다려 거둬 칠한다.】 대축이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고, 다음에 궁위령이 왕후의 위판독(位版櫝)을 받들고 들어와서 독을 열고 위판을 꺼내어서 탁자 위에 얹혀 둔다. 제위판관이 떡으로 ‘창덕 소열 원경 왕태후(彰德昭烈元敬王太后)’라 쓴 다음 광칠로 거둬 칠하고 물러난다. 궁위령은 위판을 받들어 독 안에 넣는다. 대축과 궁위령은 각각 위판독을 받들고 들어와서 신악 안에 남향으로 봉안하되, 서쪽을 위로 한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내려와 나간다. 【유사가 배판(排辦)하기를 기다려 들어가 안신제(安神祭)를 행한다.】 유사는 헌관 자리를 동계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집사자 자리는 그 뒤에 조금 남쪽으로 설치하되, 여러 줄로 서향 되게 북쪽을 뒷자리로 한다. 감찰의 자리는 전정(殿庭)의 남쪽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 하여 설치하고, 서리(書吏)가 그 뒤에서 모시게 한다. 알자·찬자의 자리는 동계의 서남쪽에 서향으로 설치하되, 북쪽을 뒷자리가 되게 한다. 전사관(典祀官)·전사(殿司)는 각자 그 소속을 거느리고 들어와서 축판(祝板)을 신위의 오른쪽에 놓고, 향로·향합은 축(燭)과 아울러 신위 앞에 진설한다. 다음에 제기(祭器) 찬수를 담은 찬구(饌具)를 진설하고, 준소(尊所)는 지계문 바깥 왼편에 설치한다. 헌관 이하 여러 집사가 관세(盥洗)하기를 마치면, 알자와 찬자가 먼저, 전정(殿庭)의 배위(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하여 사배하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감찰·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들어와 배위에 나아가, 여러 줄로 북향하여 서쪽이 위가 되게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감찰 이하가 모두 사배하고 나서 각기 자리에 나아가간다. 대축이 독(櫝)을 열고 태종의 위판을 받들어 내어서 악좌에 모시고, 다음에 궁위령이 독을 열고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내어 악좌에 모신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면, 찬자가 ‘사배하라.’ 한다. 헌관이 사배하고 나면,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 준소에 나아가서 서향으로 선다. 집준자(執尊者)가 술을 따르

訖, 以光漆重模之, 【待墨書乾重模】大祝奉位版, 納于櫝中。次宮闈令奉王后位版櫝以入, 開櫝奉出位版, 臥置卓上。題位版官題云彰德昭烈元敬王太后, 墨書訖, 以光漆重模之乃退, 宮闈令各奉位版櫝, 入安于神幄內, 南向西上。謁者引獻官, 降自東階出。【俟有司排辦畢, 入行安神祭。】有司設獻官位於東階東南西向, 執事者位於其後稍南, 重行西向北上, 設監察位於殿庭之南近東, 西向, 書吏陪其後, 謁者、贊者位於東階西南, 西向北上。典祀官、殿司各率其屬, 入奠祝板於神位之右, 設香爐、香合并燭於神位前, 次設祭器, 實饌具, 設尊於戶外之左訖。獻官以下諸執事盥洗訖, 謁者、贊者先就殿庭拜位, 北向西上, 四拜訖就位, 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 入就拜位, 重行北向西上。立定, 贊者曰四拜, 監察以下皆四拜訖, 各就位。大祝開櫝, 奉出太宗位版, 設於座, 次宮闈令開櫝, 奉出王后神主, 設於座。謁者引獻官, 入就位西向立, 贊者曰四拜, 獻官四拜。謁者引獻官,

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가 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찬하기를,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한다. 집사자 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든다. 알자가 ‘삼상향(三上香)하라.’ 찬하면, 집사자는 향로를 향안에 놓는다. 【봉향(奉香)은 헌관의 오른쪽에서 하고, 전로(奠爐)는 헌관의 왼쪽에서 한다. 수잔(受盞)·전잔(奠盞)도 이에 준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가 부잔(副盞)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끓어앉으라.’ 찬한다. 대축이 신위의 오른쪽에 나아가 동향하여 끓어앉아 축문을 읽고 나면, 알자가 ‘면, 복, 흥, 재배’라 찬하고, 인도하여 지계문[戶]을 나와 동계로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가 아헌관을 인도하여 동계로 올라가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집준자가 술을 따르면, 집사자 두 사람이 잔으로 술을 받는다.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들어가 신위 앞에 나아가 북향하여 서면,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 찬한다. 집사자가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신위 앞에 드린다. 또 집사자가 부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집잔 헌잔하는데, 잔을 집사자에게 주어 왕후의 신위 앞에 드린다. 알자가 찬하기를,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서 재배하라.’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조금 있다가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종헌례를 행하는데, 아헌하는 의식과 같이 하고, 인도하여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집사자가 앞기둥[前楹] 바깥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향하여 음복위(飲福位)를 배설한다. 대축이 준소에 나아가서 잔으로 복주(福酒)를 따르면, 알자는 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게 하고, ‘끓어앉아 홀을 깨끗하라.’고 찬한다. 대축은 북향하여 끓어앉아 잔을 헌관에게 주면, 헌관이 잔을 잡아 다 마신다. 대축이 빈 잔을 받아 다시 준소에

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一人奉香合，一人奉香爐，謁者贊三上香，執事者奠爐于案。【奉香在獻官之右，奠爐在獻官之左。受盞奠盞準此。】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跪，大祝進神位之右，東向跪讀祝文訖，謁者贊俛伏興再拜，引出戶降自東階復位。小頃，謁者引亞獻官，升自東階，詣尊所西向立，執尊者酌酒，執事者二人以盞受酒。謁者引獻官，入詣神位前北向立，贊跪搯笏，執事者以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神位前。又執事者以副盞授獻官，獻官執盞獻盞，以盞授執事者，奠于王后神位前。謁者贊執笏，俛伏興小退再拜，引降復位。小頃，謁者引獻官，行終獻禮如亞獻儀，引降復位。執事者設飲福位於前楹外近東西向。大祝詣尊所，以盞酌福酒，謁者引獻官，詣飲福位西向

	<p>둔다. 알자가 ‘홀을 잡고 구부렸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라.’ 찬하고, 인도하여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간다. 찬자가 ‘재배하라.’ 하면, 헌관은 재배하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헌관은 사배하고, 알자가 인도하여 나간다. 알자가 감찰과 전사관과 여러 집사를 인도하여 함께 배위로 다시 돌아가고, 찬자가 ‘사배하라.’ 하면, 감찰 이하 모두 사배한다. 알자가 차례대로 인도하여 나가고, 대축과 궁위령은 위판을 &lt;독에&gt; 들여놓고, 알자·찬자는 배위에 나아가서 사배하고 나간다. 전사관은 그 소속을 거느리고 예찬(禮饌)을 걸어치우고 문을 닫고 내려와 물러나며, 축판은 구덩이에 묻는다.” 하였다.</p>	<p>立，贊跪搢笏。大祝北向跪，以盞授獻官，獻官執盞飲訖，大祝受虛盞復於尊所，謁者贊執笏俛伏興引降復位。贊者曰再拜，獻官再拜。贊者曰四拜，獻官四拜，謁者引出。謁者引監察及典祀官、諸執事，俱復拜位，贊者曰四拜，監察以下皆四拜，謁者以次引出。大祝、宮闈令納位版，謁者、贊者就拜位，四拜而出，典祀官率其屬，徹禮饌，闔戶以降乃退，祝版瘞於坎。</p>
<p>세종 24권, 6년(1424) 갑진 / 명 영락(永樂) 22년) 6월 21일(갑자) 1번째기사 유계문을 보내 김성을 위로하고, 함길도 감사는 김성에게 곡식 등을 주라고 전지하다</p>	<p>전 사간(司諫) 유계문(柳季聞)을 보내어 선온(宣醞)으로서 소주(燒酒) 20병을 가지고 가서 김성(金聲)을 위로하게 하고, 이어 김성에게 저포(苧布)와 마포(麻布) 15필,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 함길도 감사에게 전지(傳旨)하여 지휘 김성에게 술·과일·생선·고기와 찹쌀 2석, 맷쌀 1백 50석을 지급(支給)하도록 하고, 유계문에게 여름옷 한 벌을 하사하였다.</p>	<p>甲子/遣前司諫柳季聞，齎宣醞燒酒二十瓶，往慰金聲，仍賜金聲苧麻布十五匹、夏衣一襲。傳旨咸吉道監司，給指揮金聲酒果、魚肉、粳米二石、糙米一百五十石，賜柳季聞夏衣一襲。</p>